차 례

开 幕 词 1
개 회 사 3
환 영 사 5
축 사 7
축 사 8
축 사 10

-- 기조강연 --

1.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13
2.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44
3.유럽(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가지 쟁점과 과제 55

-- 문학과 문화교육 --

1.김남천의 장편소설 『대하』의 시간구조 고찰 77
2.‘그림자’ 원형이론으로 본 현진건의 ‘빈궁문화’ 90
3.심훈의 '주의자 소설'과 '12 월 테제' 102
4.동심과 민족의식: 윤동주의 용정(龍井)시절 작품연구 123
5.2010 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진실’의 양상 134
6.동양적 자연관과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143
7.만보산사건과 한•중•일 작가의 문학적 대응 154
8.재중조선인산문을 통해 본 위만주국시기 식민정책과 조선인교육개관 178
9.범천(範泉)과 조선근대문학 189
10.김일엽과 평위안쥔(馮沅君)의 여성 탈출서사 비교 연구 200
11.《동우수집(東尤壽集)》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215
12.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내용 223
13.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활용 연구 239
14.계승어 교육에서 윤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 246
15.「서동요」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방안 탐구 263
16.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연구 276
17.한국 현대시 교육방법론 연구 290
18.상호텍스성을 활용한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방안 연구 300
19.중국조선족과 충칭 지역 설화에 반영된 민속문화 요소 비교 316

20.한국 해외 언어 교육 주의 문화 요소 분석 329
21.통합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 338
22.현대시를 활용한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의 실제 349
23.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이해 교육 연구 359
24.일제강점기 한국문학작품 속의 중국이미지 371
25.리기영 초기소설의 변모양상 고찰..... 382
26.혼성적 주체, 흐릿한 예술..... 387

-- 한국어 교수법 --

1.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언어 외적 요인의 상관성에 대한 통계 분석 .. 407
2.불안도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415
3.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방식 및 실행 과정 연구..... 423
4.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429
5.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 방안: 수업 구성 원리와 교사 역할을 중심으로 437
6.인문사회계열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내용 기반 언어 교육 연구..... 448
7.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과제..... 462
8.한자어가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 및 외국어로서의 교육방안 .. 471
9.생략현상의 배후에 있는 한일 언어 구조 차이에 관한 일고찰..... 482
10.한국어 체육전문용어 교수에서 의사소통적 교수법의 적용..... 492
11.한국어 말하기 교수에서 문화체험교수법의 적용 연구 499
12.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 연구 505
13.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전략 연구 518
14.텍스트 차원의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 531
15.한국어 보조사 '만'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549
16.朝鲜语单元音 o 偏移现象研究 561
17.한국어와 중국어 모어 화자가 발음하는 한중 파열음 발음 차이 연구..... 568
18.일본 국내의 한국어 교재의 활용형 기술 현황 579
19.Critical thinking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589
20.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 초기 몽골인 학습자 중심으로..... 590
21.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듣기에 대한 연구..... 601
22.듣기이해 저해 요인 분석..... 616
23.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浅探 628
24.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 출현한 형용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635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2018年国际学术大会

开 幕 词

姜宝有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尊敬的延边大学金雄校长，

韩国国际交流财团姜荣必副理事长，

国语国文学会朴昌远会长，

国际高丽学会延哉勋会长，

国语教育学会徐赫会长，

中国朝鲜-韩国文化研究学会蔡美花会长，

中国朝鲜语学会金光洙会长，

尊敬的国内外来宾，各位会员朋友们，大家好！

我谨代表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对2018年度国际学术大会在这山清水秀，民风淳朴的延吉，尤其是在坐落于卧龙山的学术殿堂-延边大学顺利召开表示衷心的祝贺！

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以及学会共同举办的本次2018年度国际学术大会，离不开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的大力支持。 还要感谢韩国国际交流财团北京办事处李仁赫处长、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金哲俊院长的鼎力支持，以及韩国语系张英美和朱松姬系主任带领的延边大学朝鲜语文学系和韩国语系全体成员的辛勤付出。在此，我对你们致以诚挚的谢意。

中国的韩国语教育自国立东方语文专科学校在重庆和南京开设朝鲜语讲座以来，已有73年的历史。1992年中韩两国建交以来，中韩两国在政治、经济和文化等方面的交流日益频繁、不断发展，中国的韩国语教育无论是质、还是量，都得到了迅猛发展。目前，中国国内已有280多所大学开设了韩国语专业。在外语专业中，韩国语系的数量和招生人数可以跻身前四、五位。

当今世界已经超越了基于互联网的第三次工业革命，进入了以大数据为基础的第四次工业革命，是人工智能的时代。传统的教育方式跟不上新时代的教育发展。面对人工智能时代和大数据时代，科学地重新设定韩国语教育是我们的使命。

在同时经历外语教育的环境变化和理念变化的当今，本年度国际学术大会以“融合与沟通：韩国语教育和人文科学的发展方向”为主体，探索新时代、新环境下的韩国语教育的发展方向。希望大家踊跃参与讨论。为了提高韩国语教育者和研究者的专门素养，本次学术活动中，年度国际学术大会将和青年教师进修和研究生论文竞赛同时举行。

今天，有来自中国、韩国、英国、日本等国家的66所大学的180余名教授和专家学者前来参会。有来自29个大学的四十多名教师参加教师培训，12所大学的19名研究生参加论文竞赛。规模盛大。

尊敬的各位会员，各位来宾：

在延边大学举办的本次学术活动具有多项深远意义。拥有70年历史的延边大学是中国韩国学发展的引领者。延边大学早在1949年就开设了朝鲜语言文学系，从而开展朝鲜语教育。又在1972年开设针对外语教育的韩国学系。延边大学一直坚持开展朝鲜语（韩国语）教育，其朝鲜语（韩国语）系也被选为国内唯一的国家重点学科。延边大学在国内的韩国语教育中发挥着先锋作用。国内大学的韩国语系的教授们有60-80%毕业于延边大学，或者与延边大学有着密切联系。由于地理上、文化上和学术上的优势，延边大学将会一直在中韩文化交流和韩国语世界化过程中发挥引领作用。

在这里，衷心感谢进行主旨演讲的延边大学金柄珉教授、首尔大学宋喆仪教授、伦敦大学延哉勋教授；和做青年教师培训讲座的首尔大学尹汝卓教授、延边大学金永寿教授、高丽大学李宽珪教授、北京大学王丹教授；以及参与论文发表和讨论的所有与会者。此外，我还要对负责研究生论文竞赛审查的复旦大学姜银国教授、延边大学金虎雄教授、梨花女子大学朴昌远教授、汉阳大学李三炯教授、釜山外国语大学宋享根教授，上海商学院的张延鎬教授表示衷心的感谢。

今天,世界韩国语教育界的元老--首尔大学名誉教授朴甲洙，为了激励年轻一代的学术研究,不远万里跨海来到了这里。对朴教授的到来表达最深深的谢意。

最后，再次向大力支持本次学术活动的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全体老师同学表示衷心的感谢！

预祝本次学术活动取得圆满成功！并祝愿在座的各位身体健康、心情愉快！

祝各位在延吉、在延边大学度过一段美好的时光！

谢谢大家！

2018年 7月 21日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姜宝有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개 회 사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존경하는 연변대학교 김웅 총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강영필 부이사장님

국어국문학회 박창원 회장님

국제고려학회 연재훈 회장님

국어교육학회 서혁 회장님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채미화 회장님

중국조선어학회 김광수 회장님

존경하는 국내외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를 대표하여 2018년 연례국제학술대회가 산 좋고 물 맑고 인정 많은 연길에서, 특히 와룡산(卧龙山)에 자리한 학문의 전당- 연변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그리고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2018 연례국제학술대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경사무소 이인혁 소장님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김철준 원장님, 그리고 장영미 교수와 주송희 한국어학과장을 비롯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와 한국어학과 전 가족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올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립동방전문학교가 중경과 남경에서 개설한 조선어강좌를 시작으로 이미 7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2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심화, 발전,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과는 이미 280개에 달하여 학과 수와 학생모집 수가 4,5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에서 더 발전하여 빅데이터(Big Date, 大數据)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통교육 방식으로는 신시대 교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어교육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워진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와 이념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례국제학술대회는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시대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을 부탁 드립니다.

본 학술행사에서는 연례국제학술대회와 함께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년교사연수와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한국, 영국, 일본 등 나라의 66개 대학에서 교수와 전문가 180여 명이 오셨습니다. 교사연수에는 29개 대학의 40여명 교수가 지원하였고 논문경시에는 12개 대학의 19명 대학원생들이 지원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본 학술행사가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변대학교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일찍 1949년에 조선어문학과를 세워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하던 데로부터 1972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한국어)교육을 오늘날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유일의 국가중점학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변대학은 또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의 60-80%는 연변대학을 졸업했거나 연변대학과 깊은 학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우세로 연변대학교가 중한 문화교류와 한국어세계화를 선도함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부언하고 싶은 것은, 기조강연을 해주실 연변대학교 김병민 선생님, 서울대학교 송철의 선생님, 런던대학교 연재훈 선생님과, 연수강의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윤여탁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영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이관규 선생님, 북경대학교 왕단 선생님, 그리고 연구발표와 토론을 맡아하시는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실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선생님, 한양대학교 이삼형 선생님, 부산외국어대학교 송향근 선생님, 복단대학교 강은국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호웅 선생님, 상해상학원 장연호 선생님에게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세계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이신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젊은 세대들의 학문을 격려하고자 바다 건너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전가족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연길에서 그리고 연변대학에 계시는 동안 마냥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환 영 사

강영필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존경하는

- 강보유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님,
- 김웅 연변대학교 총장님,
- 서혁 국어교육학회 회장님,
-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중국 전역과 한국 및 해외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주최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에 KF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중 양국관계와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국내 한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가 이끌어준 중국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적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 이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문화예술 소개, 해외 인사 초청 및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는 학회 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사업은 지난 27년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해외 150여 개 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2018년 현재 전 세계 105개국 1,340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3천여 명의 교수진이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는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기여한 바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본격 확대되어 온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재단과 학회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각각 개최되어 오던 여러 행사와 회의를 통합하여 총회 성격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중국 내 한국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연변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모쪼록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학회와 연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대회 강의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중국내 한국어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강영필

<참고 -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설립: 2001년

▌회장: 강보유 5대 회장(상해 복단대 중한언어문화교육연구중심 교수/임기2년)

▌구성: 부회장 4명, 연구이사 12명, 선전이사 7명, 지역이사 6명 등

(회원400여명 회비 운영)

▌성격: 중국내 30개 주요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교육/연구 학술단체

▌KF 지원: 2002년 이후 약 30만불 지원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노영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대독)

안녕하십니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노영민 대사입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연변대학교에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전역과 한국, 해외 각국에서 참석하신 250여명의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들이 이곳 중국에서 “융합과 소통 – 한국어 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사적 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평화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북아 지역내 주요국간 대화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연구결과의 확산은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이해 및 역내 안정과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가 2018년 1월 발간한 ‘해외한국학 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은 10년간 2배가 늘어 1,300곳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교수진 3,000명, 학생수는 30,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련 인사들간의 통합과 단결이 더욱 공고해 지는 회의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연변대학교, 중국한국어교육과 연구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노영민(대독)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서혁

국어교육학회장

존경하는 중국한국(조선)어학회 강보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김웅 총장님, 김병민 전 총장님, 송철의 원장님, 민현식 전원장님, 강영필 부이사장님, 채미화 회장님, 김광수 회장님, 박창원 회장님, 연재훈 회장님, 강은국 교수님, 이인혁 소장님, 김철준 원장님, 장영미 교수님, 주송희 학과장님, 왕단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박갑수 고문님, 송향근 이사장님, 윤여탁 전회장님, 이삼형 전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국어교육학회 15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서혁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연변대학교에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가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청년교사연수,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어교육학회는 1991년에 창설되어, 현재 한국 전역에서 1,000여 명의 전문가와 회원들이 활동하며, 연 3회의 학술대회와 매년 5권의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어교육학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갑수 교수님께서 고문으로 도와주시고, 이삼형 전임 회장님과 이관규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저희 국어교육학회는 재작년에는 대련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8년 2월에는 동경에서 “자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

월말에는 “리터러시(literacy)와 교육격차”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이화여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국어교육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인 지난 주말에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미디어)교육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사들의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변대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조선어, 한국어 학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초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국어교육학회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어교육학회 회장 서혁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외국문학연구회 조선-한국문학연구분회를 대표하여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2018년 연례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거의 20년동안 학회지 <한국(조선)어교육연구>의 간행과 한국어교육 국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자 연수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에 커다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연례학술대회는 중국 한국학의 모태이자 국제일류의 외국언어문학학과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변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더욱 중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조선-한국문학연구학회는 중국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이라는 공통한 과업을 담당하면서 상호 소통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학회는 조선한국언어문학고급인재의 양성 및 새시기 한국어학과에서의 문화교육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토의,연구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의 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전 중국에서의 조선-한국언어문화교육은 엄중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우리는 학과발전의 출구와 도약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용적인 인재양성과 국제적인 경쟁능력을 가진 고급인재양성을 동시에 실행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창조하고 학과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개발에 동참하면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교육방법을 탐색해나간다면 한국어학과발전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 그리고 중국 한국어학과의 청년교원들이 함께

동참한 성대한 학술모임입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자세와 수준을 진단하고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금후 중국의 한국어학과 발전전략에 대해 사고하는 좋은 장으로 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 학술대회가 중국 조선-한국언어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찾는데서 큰 힘으로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채미화

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김 병 민

(연변대학교, 산동대학교 석좌교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3. 결사의 선택: 의열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특수한 공간이었다. 중국은 비단 식민지 한국 이민들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독립투쟁의 정치공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 특히는 항일문학의 발전공간이었다. 중국체험서사로 특징되는 항일문학은 한국 망명지사들에 의하여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된 상황으로 곽미선의 『김택영의 문학연구』(2013), 김동훈의 「예관 신규식과 그의 문학」(1998), 김병민의 『신채호문학연구』(1988), 황재민의 「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2016), 강창민의 『이육사의 문학연구』(국학자료원, 2002) 등은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개별 문인들의 문학 활동, 창작특징, 의식세계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천명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총체적 조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시각으로서의 망명문학의 성격, 특징, 가치, 위상 등에 대한 연구는 진일보 전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되는 망명지사란 본토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생존적 어려움으로 정치활동 공간을 중국으로 옮겨온 후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문필활동과 항일구국운동을 한 문인-지사들을 가리킨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다수가 계몽문화운동의 세례를 거친 지식인으로 항일문인인 동시에 항일지사로 그들은 망명문학의 주역들이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문단에 진출하여 중국문인들과 상호교류를 전개하였고 중국매체들에 작품을 발표하

였으며 또한 신문 잡지의 간행과 도서 출판, 창작활동, 사회-문학단체 활동을 통하여 망명문단을 구축해 가기도 했다. 망명문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김택영,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조소양, 류자명, 김규광, 장지락, 이두산 등을 거론할 수가 있으며 주요한 간행물로는 『독립신문』(1919),『신대한』(1919), 『진단』(1920), 『천고』(1921), 『동방전우』(1939), 『조선민족전선』(1938), 『조선의용대통신』(1938), 『한국청년』(1939),『한민』(1940)등을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전기(前期) 작업으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특징, 그리고 그 의식세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혁명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항일무장투쟁서사, 망향애환서사 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망명서사로서의 공동서사와 혼종성 등 독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그 체험의 깊이와 사상의 심각성으로 하여 한국 근대 항일문학사 내지는 중한 문학교류사에서 특수한 위상과 가치가 있다.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한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은 그들의 중국혁명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20 세기 한국인들의 세계인식과 근대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궤적과 특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는 신해혁명서사와 대혁명[1]서사, 항일혁명서사[2]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은 신해혁명서사를 통해 근대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 주었다. 망명지사 신규식[3]의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손중산에게」, 「황극강에게」, 「민립보 사원 서혈아에게」, 「고우 혈아군을 애도하여」, 「천구 대계도에게 드리노라」, 「송교인에게」, 「황극강을 애도하여」,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인형영사의 영전에」,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도야공에게」 등 일련의 시편들은 대표적 의의를 가진다.

신규식은 1911 년 중국으로 망명한 즉시로 동맹회에 가입했고 직접 무창봉기에도 참가했다. 그의 신해혁명 체험은 그로 하여금 봉건 전제체제의 필연적 멸망과 새로운 근대 민족

[1] 대혁명은 중국의 1924-1927년 사이의 국공합작으로 전개된 국내 혁명전쟁을 지칭하는데. 북양군벌통치를 반대한 전쟁 혹은 정치운동이라고도 한다.
[2] 항일혁명서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항일투쟁서사를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 신규식, 호는 예관, 별명으로 '청구한인' 등을 썼다. 1911년 중국에 망명하여 동맹회에 참가했고 무창봉기에도 참가했으며 남사에 가입했고 중국 혁명당인들과 합작하여 신아동 제사를 건립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총리 역임. 1920년 『진단』 창간, 주요 저서로 시집 『아목루』 등이 있음.

국가의 도래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共和新日月, 공화국 새 세상 만들어 내여,
重劈舊乾坤。 낡은 세상 새로이 돌려 세우니.
四海群生樂, 사해의 만백성 기뻐들하며,
中山萬世尊。 손중산 우러러 받들어 모시네.
-「祝孫總統中山」 -「손중산대통령을 축하하며」[4]

荆天荆地一身轻 촉수오산의 길 평탄치 않아도
楚水吴山路不平 그대는 가시덤불 헤쳐 왔어라.
铁血疆场当日愿 피어린 싸움으로 키워 온 포부
数千万口是同声。 만백성 모두다 그대를 환호하네.
-「赠孙中山」 -「손중산을 축하하여」

신규식은 위 시에서 청왕조를 뒤엎고 중화민국을 이룩한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을 노래했다. 여기에는 그의 근대적 민족국가, 즉 공화제 근대국가에 대한 동경이 잘 보여진다. 신규식의 중국체험을 논할 때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하여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그 필연적 추세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신규식은 1921 년 손중산을 만난 자리에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의, 호법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양국의 혁명은 동일하게 중요하여 중국혁명의 성공의 날은 즉 한국 독립해방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고 “중국의 통일은 유망하고 동아의 서광은 이미 열리었습니다. ”[5]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투철한 정치안목으로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했는 바 망명인으로서의 특수한 시각이 돋보인다. 근대에 접어들어 중화주의 천화관의 붕괴와 함께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한국은 대 강대국관계에서 주체성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한국은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척화파, 친화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제국담론에 휘말려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중국의 근대혁명인식에서도 투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면은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지사들의 중국망명이 현실화 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현실, 특히는 신해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양하였던 것이다.[6]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규식은 중국의 혁명에 투신하여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

[4] 신규식,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신규식 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189쪽.
[5] 민필호, 『한중외교시화』(일명 『중국호법정부방문기』), 『석림 민필호전』(김준엽 편, 나남출판, 1995, 235쪽
[6] 신규식의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정면으로 긍정했었나 유린석 같은 의병장은 재래 전통사상으로 하여 공화제를 지향한 신해혁명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을 얻었던 것이다. 그의 시가에서 보여지는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대로 한국 근대사상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재발견인 동시에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 계몽사상가들의 경우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봉건정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워야 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중국체험에서 얻어진 근대 국가인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규식의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은 북양군벌정부를 부정하고 호법투쟁을 전개하는 신해혁명 당인들의 민주주의 혁명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왜냐하면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의 진두에 서서 싸우는 혁명자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은 그대로 근대중국의 정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규식은 주변에서 중심부에 왔었으나 타자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타자화 하지도 않았으며 이중주체적 시각에서 역사현장과 그 인물들을 바라본 것이다.

시 「황극강을 애도하며」, 「인형 영사의 영전에」 등은 혁명당인들을 찬미한 대표적 작품으로 시문에서 시인은 신해혁명의 영도자 손중산을 보필하여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을 지휘한 황극강[7]과 진기미[8]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여준다.

繼漁父英士血流黃歇,　　어부, 영사의 뒤를 이어 상해에서 피흘렸으니,
義烈千秋,　　의로움은 천추에 빛나고,
淚灑難幹,　　눈물은 마를 길이 없는데,
舊雨凋零悲故我。　　옛 친구 숨지어 슬프기만 하네.
同逸仙宋卿志在共和,　　손일선, 송교인과 더불어 공화제에 뜻을 두고,
名齊一世,　　함께 명성을 떨쳤으나,
功成不競,　　영예를 다투지 않았으니,
中原寥落哭斯人　　중원에 표박하는 자는 울기만 하네.
-「挽黃克強（黃興)」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9]

시문에서는 황극강이 근대적 지향을 품고 신해혁명에 투신함과 혁명직후에 손중산만을 추대하는 대공무사한 정신, 그리고 민족국가 창출과 수호를 위한 호법투쟁에서의 변함없는 민족정신과 기개를 예찬하고 있다.

[7] 황흥은 손중산의 지기로 자산계급혁명의 지도자이다. 그는 황화강 봉기의 주요한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창봉기를 직접 지휘한 영수로 신해혁명 승리 후 남경 임시정부의 대원수로 추대되어(후에 부원수으로 되었다.) 남경 임시정부 구성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 뒤 손중산이 귀국하자 그는 손중산을 대원수로 추대했고 자신은 육군총장을 단임했다. 신해혁명이 실패한 뒤 그는 원세개를 토벌하는 호법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 뒤 그는 일에 지치어 병들었는데 1916년 상해에서 별세했다.
[8] 진기미는 호는 영사로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1913년 호법투쟁에서 강소 호법군 사령원으로 나섰다. 그 뒤 1916년 원세개의 정부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9] 신규식,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 『신규식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222쪽.

시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維公岐嶷, 공은 슬기로웠고,
天挺英姿, 자태가 영매했으며,
一身所系, 대국의 안위를,
大局安危, 한몸에 지녔어라.
過從**既**久, 오래 사귀노라니,
希望無涯, 희망이 끝없었고,
同心協力, 일심으로 협력하여,
濟困扶衰, 난국을 이겨냈다네.
何圖蒼昊, 야먕을 품은 자가,
驕子是恣, 분별없이 날뛰니
公嬰國難, 공은 난국앞에서,
改革乘時, 개혁을 실행했어라.
-「**陈**先生英士**诔**」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10]

시인은 신해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인 진기미[11]의 혁명정신과 업적에 대해 찬미하면서 공화제 실현의 간고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규식은 황흥, 진기미 등 혁명당인들을 통해서 민족국가, 민주주의, 민족정신 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했고 한국독립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 중국의 근대정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12] 이외에도 신규식은 송교인, 서혈아, 대계도, 도야공 등 혁명당인에 대한 시편들을 통해 근대 중국의 혁명정신 즉 반봉건 민주주의 지향, 투철한 혁명정신, 민족적인 기개 등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세력의 선천적인 한계성과 군벌통치자들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온갖 곡절과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 신해혁명의 승리는 봉건군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손중산을 위주로 하는 혁명당인들은 호법운동을 벌리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신규식은 자신의 시문에서 원세개를 위수로 한 군벌통치세력

[10] 신규식, 「영사 진기미선생을 위한 제문」, 위의 책, 226쪽.
[11] 진기미는 호는 영사라 했고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그는 호법투쟁의 앞장에 나섰는데 상소 호법군 사령으로 호법군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1916년 원세개 정부 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신규식과 진기미는 생사지우였는데 신규식은 진기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공의 댁으로 달려가 고인을 안고 통곡했고 "장퇘하도다, 살아서 영웅이오, 죽어서 신령이 되었으니 당중에 영사같은 자가 거의 없도다."라고 외웠다고 한다. 진기미도 신규식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생활자금을 밖에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던지고는 갔다고 한다. 신규식은 선후로 위시와 함께 시 「인형 영사의 영전에」, 산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등을 발표했다.
[12] 신규식의 근대적 지향은 시 「조카를 학생군단에 보내며」, 「청사를 전송하여」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파하고 있다.

의 혁명당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13] 손중산을 위수로 한 황흥, 진기미 등의 영도아래 전개된 호법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적 지향의 투철성을 증명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대혁명서사는 국공합작에 의하여 전개된 북벌혁명의 가치의 정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공합작의 파열에 따른 중국 근대혁명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1927년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한 청당운동으로 국공합작은 파열되고 진보적인 공산당과 민중은 무참한 압제와 학살을 당해야 했고 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 남창기의, 광주기의가 일어나 공산당과 국민당은 대결상태에 있었다. 대혁명시기 중국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그리고 부패한 군벌통치와 복잡한 현실에 대해 한국 망명지사들은 민감하게 파악했고 글로서 자신들의 시국인식과 정치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혁명시기 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여준 주요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수필들과 기행문「태항산기」,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 「광주를 떠나면서」,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을 들 수가 있다.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1927. 4. 26), 「광주를 떠나면서」(1927.5)[14]등은 북벌혁명의 좌절과 그에 따른 시국인식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각별히 주목된다. 작자는 상기 글에서 손중산의 영도 밑에 전개된 북벌혁명에 대하여 전면 긍정한 전제하에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행문 「적색의 비통」에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감행된 '4.15 광주참안'을 구체적인 묘사, 예리한 분석, 치렬한 정서로 비판하고 있다.

작자는 우선 혁명세력에 대한 국민당 우익세력의 세기말적 탄압과 무참한 살해를 구체적인 사례 이를테면 계엄령의 반포, 계엄사령관과 공안국장의 포고,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각종 포고와 표어, 공산당원과 그 영향을 받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는 장면들, 그에 반대한 혁명세력의 표어 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5인(피살된 한 장면, 필자)의 희생자 중에는 18세의 소녀와 19세의 소녀가 있었다. ……수십 명의 군대는 범인을 압송해 묶어 세워 질풍같이 몰고 가서는 진흙 가운데로 몰아넣고 총탄을 '탕! 탕!' 쏘아, 그 뇌 속 혹은 가슴 속에 박아 넣었다. 한 소녀는 통곡을 하면서 최후에도 '장개석을 타도하자'를 외치며 죽었다." 이러한 묘사에는 작자의 지대한 분노와 저주, 그리고 예리한 비판이 안받침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 역행성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혁명세력이 정당으로 분할될 때 혁명 그것은 좌절되고 정권을 잃은 정당은 구세력

[13] 신규식은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남사에 드림」 등 시에서 혁명당인들에 대한 봉건군벌들의 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14] 류자명의 기행문은 작자가 광주에서 직접 '4.15 광주참안'을 목격하고 쓴 것으로 「적색의 비통」은 1927년 4월 26일 탈고하여 5월 1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고 ,「광주를 떠나면서」는 역시 류자명이 광주를 떠나기 전인(5월 4일 광주를 떠남)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은 6월 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아래에서보다도 더욱 참화를 당하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여 공산당 혁명세력에 대한 장개석의 피비린 탄압의 본질은 정쟁(政爭) 즉 정치권력탈취에 있음을 투철히 분석하였다. 작자는 또한 이러한 세기말적 탄압은 국민당 우익세력의 반 삼민주의 행동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당 당원들의 불순결성을 비판했다. 작자는 특히 국민당우익세력들은 삼민주의와 당의 정강 등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자의 열에 있는 자까지도 혁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민중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실제로는 민중과 혁명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키려는 자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작자는 "장개석 일파의 손에서 연출된 모든 현상은 실로 혁명자로서는 타기할 만한 일일 뿐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작자는 장개석과 일본과의 상호 이용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음모책략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통찰한 점이다. 작자는 "중국의 우경적 세력과 우의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본의 득책(得策)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개석은 일본의 "이 최후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 바 투사, 문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류자명은 상기 기행문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행문 「광주를 떠나면서」에서도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과 황포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역행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 서사는 자신의 체험과 세계인식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과 투철한 시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상의식 저변에는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 강권과 민중, 정치와 혁명 등에 대한 깊은 사고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전개되어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에서 보여준 중국인식 내지는 시국판단은 같은 시기에 국민당 당국과 국민군의 요직에 있은 곽말약의 산문 「오늘의 장개석을 보라」란 글과 혁명세력을 진압한 국민당의 노선을 반대한 노신 선생의 연설, 편지, 일기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4.15 광주참안'을 진실하고 적시적으로 그리고 예리한 안목으로 보여준 글은 중국문인들의 글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 류자명의 기행문은 당대 한국 망명지사들의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자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류자명의 대혁명서사가 북벌혁명에 대한 전면적 긍정과 북벌혁명의 본래 취지를 배반한 장개석의 반동적인 시대역행성을 비판했다면 김산, 님웨일즈 공동작으로 되는『아리랑』[15]에서는 장개석의 반동적 구테타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 공산당의 진보세력에 의해 격렬한 투쟁을 벌인 광주기의, 해륙풍에서의 공산정권의 건립, 그리고 국민당 우익세력의 피비린 탄압 등에 대하여 쓰고 있다. 특히 엽정, 장태뢰 등에 의하여 전개된 광주기의, 그리고 해륙풍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한 서사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15] 『아리랑』은 1937년 미국기자 님 웨일즈(헬렌)가 항일투사 김산의 구술에 근거하여 쓴 김산의 자서전적인 실기문학작품으로 1941년 영문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1941년대『아리랑 노래』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한국어로는 1984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문으로 1980년대에 출판되었고 중문으로는 1992년에 출판되었다.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신규식 등의 신해혁명과 손중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한국의 애국지사들과 열혈청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였는 바 한국의 열혈청년들은 구국의 염원에 불타 올라서 광주에 달려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고 북벌혁명에 투신했다.[16]또한 장개석의 테러가 있은 뒤 대부분 한국 열혈청년들은 국민군에서 탈퇴하여 남창봉기,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중국혁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피의대가를 치렀는 바 좌우익 분열의 수난을 겪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와 시국판단은 역시 역사격변기의 한국 혁명청년들의 중국인식, 중국 혁명역량과의 제휴, 한국의 미래인식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환언하면 신규식, 류자명 등의 중국혁명서사는 한국인의 근대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결사의 선택: 의열17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한국의 망국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의사들은 망국의 설음을 못 이겨내 자결-순국으로 일제침략에 항거했다. 이러한 의사들중에는 애국적인 군인, 관원, 문인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민영환, 홍범식, 황현, 박승환, 이준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달한다. 또한 일제침략자와 매국노에 대한 지대한 분노를 지니고 거사에 나선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인물로 의병장 안중근을 비롯하여 조선의열단(1919) 단원들인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오성륜, 나석주 등, 한인 애국단(1931)의 이봉창, 윤봉길 등을 들 수가 있다. 안중근, 윤봉길을 비롯한 한국 열혈지사들의 영웅적 거사는 전세계를 진감했다. 또한 중국내에서 조선무정부주의 연맹단체를 조직하고 폭력투쟁에 나선 지사들로는 신채호, 정화암, 유수인 등이 있다. 조선의열단, 한인 애국단, 조선무정부주의 연맹 등 민족운동단체 의사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폭력투쟁에서 서로 합류해 갔다. 이처럼 한민족의 의사들의 항일투쟁은 나라가 망하기 전후 지사들의 장열한 순국투쟁으로부터 민족주의 투사들의 영웅적인 거사, 나아가서 무정부주의의 민중혁명폭력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가열처절한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기개를 전 세계에 알리었다. 의열투쟁서사는 일제식민지시기 지사들의 자결과 거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가리킨다. 의열투쟁서사는 이해의 편의상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민중혁명 폭력투쟁서사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나라가 망하기 전후 죽음으로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보여준 순국의사들의 전기를 가리킨다. 주요한 작품으로 김택영의 「홍범식전」[18], 조소앙

[16] 김산의 회억에 의하면 1927년 당시 광주에 온 한국인 진보적 청년 800여 명나 되었으며 400여 명 독립군 출신자가 의용병으로 왔다고 한다.(김산, 님 웨일즈, 『아리랑』,1984.3, 203쪽)

[17] 필자는 의사투쟁서사 범위에 망국전야에 자결을 선택한 의사들의 투쟁, 식민지시대 거사에 나선 의사들의 투쟁, 또한 무정부주의 민중폭력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18] 김택영, **『소호당문집· □정본』, 권10**

[19]의 「홍범식전」, 「황현전」, 「전해산전」,「박승환전」, 「조병세전」, 「민영환전」 등이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물론 순국지사들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충군 애국사상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식과 영웅의식 등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 민영환 등에 대한 전기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항일구국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영웅적 거사를 통해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을 찬양하였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작품들로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쓴 박은식의 『안중근』, 김택영의 「안중근전」, 신규식의 「안중근전」, 이범석의 「안중근전」, 김구의「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조소앙의 「김상옥전」[20],「이봉창전」, 「윤봉길전」 등 80여 명 의사들의 전기를 묶은 조소앙의 『유방집』[21], 신규식의 한시로 「旅顺就义」, 「哈尔滨即事」, 「挽锦山郡守」, 「弘岩先生追悼文」등이 있으며 소설로 류자명의 「조선혁명일사」[22], 김산의 「기괴한 무기」[23]등이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의 경우 안중근을 비롯하여 김익상[24], 오성륜[25], 김상옥[26], 이봉창[27], 윤봉길[28] 등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투철한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소유한 민족영웅들로서 거사를 준비하거나 순국하는 순간까지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제침략자와의 결사적인 저항, 그리고 일제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하고 있다.

민족정신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신념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훼멸하는 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한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특유의 민족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중근전」에서의 안중근은 이또히로부미를 격사한 후 러시아검사의 심문

---

[19] 조소앙(1887-1958)메이지대학 졸업, 대한 임시정부 비서장, 국무위원, 대한 임시정부 외교부장, 한국 독립당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문원』,『유방집』,『소앙집』등이 있다.

[20] 『김상옥전』은 1925년 간행되였는데 서문,'김상옥전','발해경','한 살림요령' 등으로 구성되였다. 저자 겸 발행인은 '한 살림'으로 되었다. '한 살림'은 조소앙에 의해 조직된 무정부주의 단체이다. 「김상옥전」서문은 중국인 黃介民과 張秋白의 썼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전'은 『유방집』에 수록되였다.

[21] 조소앙의 『유방집』은 식민지시대 민영환, 이준, 이상설, 김익상,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 80여 명 지사들의 소전을 수록한 인물 전기집으로 1932년 중국 대동학회에서 출판하였고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인 이제민, 황개민 등 40여 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주어 의사들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22] 위 적품은 1938년 『朝鲜民族战线』제5기에 발표.

[23] 위 작품은 1930년 『新东方』第一卷에 발표됨.

[24] 김익상은 1921년 조선총독부 폭파사건을 주도한 인물, 또한 1922년 오성륜과 함께 상해 황푸탄 다나까 기이치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주도했으나 실패함. 그 뒤 체포되어 사형선고 받음.

[25] 오성륜(1900-1947), 1922년 김익상, 이종옥 등과 거사에 참여. 탈옥후 구소련에서 교육받고 다시 중국에 와서 항일운동에 투신. 그뒤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을 역임. 1940년 변절하여 일제에 투항했다고 전한다.

[26] 김상옥(1890-1923), 의열단 단원.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일경 수백명과 홀로 대치하면서 20여 일 싸움. 일경 수십명을 사살하고 마지막 자결함. 김상옥이 사살한 일경가운데는 경찰서장 田中长七와 경장 栗田清을 비롯한 경찰 수십명을 사살하였다.

[27] 이봉창(李奉昌),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죽이고자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을 가리킨다. 일명 사쿠라다문 사건이라고도 한다.

[28] 윤봉길(1908-1932), 윤봉길 의거는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1932년 4월 29일 천황의 생일 겸 상해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상해 홍구공원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百川义则)와 일본 거류민단 단장 가와바타(河端)를 즉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에 항변하여 “나는 대한국인이다. 이등이란 자는 우리 독립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살육하였다. 나의 이번 행동은 우리 나라 독립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철천지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도 안변호사에게 “내가 죽은 후 좋은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위안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동포들 뿐입니다. 선생님은 진심전력으로 우리 동포들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국가독립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천국에 전해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오직 교육을 진흥하고 실력을 배양하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단합하여 독립을 회복하는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전 근대 사회에서의 충군애국 사상을 가진 영웅인물, 더우기는 모종의 이익과 복수를 위한 햅객이 아니라 근대 의미에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사적인 선택을 한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신은 김익상, 오성륜,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조선혁명일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의 김익상은 총독부폭발에 나선 열혈지사로서 1921 년 9 월 의열단 회의에서 일제의 중추기관을 분쇄할 결의가 있자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먼저 집으로 찾아와 큰아버지, 형제, 아내를 만나서 자기의 거사의향을 전달한다. 그리고 거사에 나서서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제와의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며 가정도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인물로 형상되었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소설 「기괴한 무기」[29]의 주인공인 오성륜도 마찬가지이다. 작자는 상해탄에서 일본육군 대신 다나까 기이치를 처단하려 나선 오성륜, 김익상, 이종옥 등의 거사에 앞서 그들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와 자매, 친척과 벗들, 연인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천여 년의 역사를 위한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또한 체포된 후의 그들의 심경을 작자는 “다나까의 죽음은 조국회복의 징조이며 조국을 위한 복수의 첫 번째 성공이다……이제 사형을 당한다 해도 조국과 동포에게 볼 낯이 있지 않는가. 더구나 장래에 조국이 다시 서는 날이면 온 나라가 우리를 기념해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의 주인공의 민족정신은 이봉창, 윤봉길 등 형상에서도 잘 구현된다. 김구를 만나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이봉창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 년 육신으로는 인생쾌락을 대강 맛 보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상해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김구 앞에서 임무수행을 선서하는 윤봉길은 “ 나는 한인 애국단원임을 선서한다. 중국을 침범한 원수인 군사두목을 처단하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이루고저 한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달갑게 받쳐가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아’의 투쟁승리를 이루고 ‘아’에 있어서는 구각적인 ‘소아’

[29] 작가는 작품에서 “상해에 있는 조선인 청년을 다 모아 한국 의열단을 조직했다. 이 단체가 성립되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복수를 위한 무기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의열단의 폭력투쟁은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를 버리고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의사들의 거사정신과 생사관은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주체적인 한국 근대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즉 일제와의 혈전에서 "구각적인 소아"는 사멸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대아"는 영원하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30]

다음으로 의사거사폭력투쟁서사는 작품주인공들의 영웅적 기백과 슬기, 영웅적 담량과 지혜 등을 통해 의사들의 영웅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김익상의 형상창조에서 보면 김익상은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 두 개 폭탄을 하나는 허벅지 사이에 꽉 붙히고 나머지는 허리 띠 안에 숨겼다. 이에 작자는 "위험하면 쉽게 던질 수 있어 상당한 대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설 「기괴한 무기」에서의 오성륜은 민족인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로 충만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그는 옥중에서 사과 깎는 칼로 족쇄를 풀어내고 가짜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죄인들을 위협해 순종하게 함으로서 슬기롭게 탈옥하게 된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영웅인물로 형상되었다. 종로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한 후 뛰어 나온 그는 일경의 감시를 받았는데 선후 20일동안 일경과 싸웠다. 그는 백발백중의 "쌍총 명사수"(双枪神枪手)로 혈혈단신으로 400여 명 일경과 대결,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일제경찰을 쓰러 눕히고 총알이 다 떨어져 한발만 남자 드디어 자결, 순국한다. 김상옥의 사건은 국내외에서 크게 영향력을 일으켰는 바 상해의 한국 지성인들은 조소앙의 「김상옥전」이 탈고되자 천부나 찍어 발행했고 중국인 황개민[31]은 친히 「김상옥전」에 서문을 써 주었고 또한 5 천부나 찍어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신문에서조차도 김상옥을 가리켜 "一骑当千之勇士"라고 했고 중국인 董育华는 친히 "万马军中奔虎勇, 叱咤一声天地宽"라는 만사를 써서 기념했다.[32]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민족영웅의 화신으로 형상되었는데 전기에서는 그가 자결한 후 일경도 감히 그의 사체부근에 다가오지를 못했다고 한다.

박은식의 「안중근」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바 어린 시절 말 타고 나는 새 쏘아 떨구었다는 이야기, 15 세에 총들고 동학당에 따라나섰다는 이야기, 서울거리에 한인이 탄 말을 빼앗으려는 일본놈을 혼빵 낸 이야기, 그리고 의병장이 되어 의병투쟁에 나선 이야기, 거사하기 전야의 그와 우덕순과 시를 주고받는 의기 충천하는 장면 등을 통해 부각되거니와 특히는 할빈역에서 이또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영웅적 기개와 옥중에서 태연자약하게 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더욱 생동하게 부각되고 있다. 옥중에서 그가 일제의 죄행을 13 조목으로 단죄하고 「안응칠역사」, 수만자의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인도 그를 흠모하여 필적을 구했다고 쓰고 있다. 또

[30]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3
[31] 황개민(1883-1956), 신해혁명에 참가한 선구자로 구국일보 편집, 국민당 강서성 감찰위원, 국민혁명군 제14군 참의 등을 역임, 해방전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해방후 강서성 감찰청 부청장 등을 역임
[32]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한 시를 써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했는데 그 한구절을 보면 “남아가 비록 죽어도 마음은 철같고 열사가 죽게 되니 기가 구름 같도다.”라고 했다. 또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라는 구절로서 자신을 반성했다고 한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그의 영웅적 거사는 동아시아의 평화, 내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영웅적 성격은 역시 근대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기초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영웅적 담략과 지혜, 영웅적 기백과 슬기는 한민족 특유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들의 영웅주의는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입각함은 물론이지만 한민족의 일제에 대한 불굴의 항일의식과 필승의 신념을 만방에 알리고 진보적인 모든 진보적 역량을 규합하여 가열처절한 항일혈전에로 궐기시킴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는 의사들의 생사관, 가정관, 의리관 등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거사에 출전하기 전 윤봉길과 김구의 마지막 대화는 주인공의 생사관, 의리관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어 심히 감동적이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 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한 시간 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떠나면서 김구와 시계를 바꾸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남은 돈을 김구에게 쥐어 준다. 김구의 물음에 “아닙니다. 차비 내고도 5-6 원은 남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33] 이러한 장면은 윤봉길 의사의 인간성의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민족주의 사상이 주도적이면서도 무정부주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기괴한 무기」에서 보면 작자가 주인공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하고 오직 저 ‘피에 굶주린’ 포악한 민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평온해진다.” 이러한 표현속에는 역시 “행동주의 선전”을 통해 모든 강권을 소멸하려는 지향세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주의적 사상도 혼재되어 있는데 주인공들의 폭력투쟁은 신의 의지를 받아 나선 것으로 묘사하는 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비록 대중적인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민족국가에 대한 사회지향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한계성이 없지 않으나 특수한 역사시기 한민족의 결사적인 선택—영웅적 거사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 의사들의 영웅적 형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했고 한민족의 결사항일의 민족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만방에 알리었다. 중국의 저명한 국민혁명 선구자 이제심은 의열지사들을 높이 평가하여 “열사의 피는 자유의 꽃이다”라고 했고 진정치는 의사들을 가리켜 “동아시아의 선각”이라 했으며 방정여는 의사들은 “철혈영웅”이라고 했으니 당시 한국의 의열지사들의 항일구국을 위한 영웅적 거사는 실로 그 영향력이

[33] 김구, 「윤봉길의 의거」,『백범일지』, 나남, 2002, 324-346쪽.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안중근」[34]의 출판에 102 명의 중한 문인들이 동참했다든가, 조소앙의 『유방집』출판에 40 여 명의 중국 진보적 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의사들의 폭력투쟁이 당시의 중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켰음을 반증하기도 한다.[35]

민중혁명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무정부주의 조직의 항일투쟁을 환상적 형식을 빌어 소설화한 작품으로 무정부주의 사상이념인 민중 직접혁명론을 선양하고 민중폭력투쟁과 민중의 승리를 제시하고 민중적 사회이상을 고양한 작품들이다. 의사폭력투쟁서사와의 차이점은 의사폭력투쟁서사가 민족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면 후자는 무정부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무정부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교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채호의 정론 「조선혁명선언」, 유고 작품으로 「선언」, 「조선의지사」, 「대흑호일석담」 등과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들 수가 있다. 신채호의 작품들은 일제에 대한 민중적 폭력투쟁, 민중혁명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고취하고 있다.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은 1920 년대 동아시아를 풍미한 무정부주의 운동과 투쟁을 형상화한 환상적 소설로서 1928 년 초에 창작된 유고 작품이다.[36]작품은 환상적인 구조속에서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소설은 일제침략자의 원흉의 상징적 형상-천국의 시위대장 미리와 지국의 무산민중의 상징적 형상 드레곤의 치열한 격전을 주요 갈등선으로 하며 천국에서 사는 상제와 예수, 황제며, 재산가, 대지주, 기타 순사 등의 철저한 박멸과 드레곤과 민중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민중들은 침략자들의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력의 강권을 부정하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폭력적 수단” 즉 “행동에 의한 선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실천의 승리를 옹호한다. 드레곤의 형상은 “민중의 선봉”, “선각한 민중”으로 민중혁명의 선구자를 지칭한다. 작품에서는 드레곤은 정체가 불투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단 천국이 박멸된 이후에는 “정체적 진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 보고 “행동에 의한 선전”-폭력투쟁을 인정하는 무정부주의 사상이 구현되고 있다. 신채호는 대체로 1920 년대 초에 무정부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1927 년부터는 본격으로 무정부주의 활동에 전격 참여했고 1928 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 참여했고 결사의 선택으로 직접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준비로 나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특히 그는 크로뽀트낀 등의 집산주의에 의한 상부상조사상, “행동에 의한 선전”, (소란, 암살, 폭동)등 사상을 수용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은 바로 자신의 무정부주의 운동체험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한 점에서

[34] 『안중근』은 1912년 『대동위인총서』에 간행된 바 있고 또한 1914년 상해의 대동편집국에서 출간했는데 「안중근」(沧海老坊室稿)이란 책자에는 「안중근전」과 함께 근대 중국의 저명한 문인들인 장태염의 「안군비」를 비롯하여 「제사」, 「도화」, 「서문」, 「선록」,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인 양계초, 황계강 등과 한국의 김택영, 신규식 등 102명이 「제사」, 「서문」, 「부록」, 「선록」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35] 조소앙, 「김상옥전」,『유방집』, 대동학회, 1932

[36] 김병민 편, 『신채호 문학유고 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특히 주목된다.

작품에서 작자가 지국이 사는 민중사회를 온통 감옥이라고 한 점, 제국담론의 상징기호로 작용하는 상제가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쥐구멍에 살아졌다고 풍자한 점 등은 탈근대적, 탈식민주의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은 작가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의하여 기획되는 미래상상—세계상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 한층 주목된다. 작품의 저자는 "연시몽인"으로 밝혀져 있는 바 북경의 꿈꾸는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다. 작품은 지극히 환상적이어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백일몽" 즉 자아의 무의식의 작동이 보여지는 바 주체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민이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 고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상이 되고 상징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라 했고 타자에 의해 주체는 상징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임을 지적했다. 대타자—"상징계"에서 주체는 "오독"과 "변형", "환유"와 "은유" 등으로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한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욕망"은 실제계에서 얻어진 상상과 상징을 통하여 무산민중주체의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상상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활동과 반일투쟁, 그리고 사회지향을 환상적 구조속에서 표현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의 독립투쟁은 중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 바 1910 년대의 의병투쟁, 1920 년대 초반에 있은 독립군의 투쟁 즉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그 전형적인 항일무장투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이후 한국독립군 무장투쟁은 기본상 결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뒤 1930 년대 동북지역에는 한국인 항일유격대가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나중에 이 항일유격대는 1936 년 항일연군에 편입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38 년 국민군 소속으로 조선의용대, 1940 년 한국광복군, 1942 년 팔로군 소속으로 조선의용군 등이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은 국민군, 팔로군, 항일연군과의 연관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은 다양한 서사양식에 반영되었다.

항일무장투쟁서사는 독립군항일투쟁서사,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서사, 조선유격대 항일투쟁서사, 민중항일 투쟁서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10 년대 한국의 항일독립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37]과 유작시편[38],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 년대 초기 한국인 중국경내 연변지역 독립군 항일투쟁

[37] 「꿈하늘」은 신채호의 유고작품으로 독립투쟁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한놈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정신, 민족의 문화정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소설은 환상소설로 되어 있다.(김병민,「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근대상상」,『국어국문학』, 제 174호, 2016)

[38] 유인석의 시작들은 중국 요녕성 관전 부근에서 전개된 항일의병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 문인인 유린석은 항일에 있어서는 견결했으나 근대적 지향에 있어서는 아직 보수적이었다.

(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1930 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조선유격대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연극 「혈해지창」(까마귀, 1938 년), 「밀림은 싸운다」(작가미상, 1937 년) 등이 있으며 1930 년대 중국 관내지역에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보여준 작품으로 실기문학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1939.9) 등과 다수의 실기, 이두산, 한유한 등의 시와 수필 등 작품들이 있다. 민중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김창만, 1939), 「두만강변」(작가미상, 1939」, 가극「아리랑」(김창만, 1939), 그리고 한국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 등이 있다.

상기 부동한 항일무장서사 작품들은 물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중한연대, 민중항쟁 등을 보였다는데 공동점이 있으면서도 의식경향, 형식 등 면에서 일정한 부동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의용대서사는 사회주의 경향이 없지 않으나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며 조선 항일유격대서사는 민족주의 경향이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향이 주도적이며 민중항일서사는 역시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지만 사회주의 영향도 없지 않다. 또한 조선항일유격대서사는 역시 민중항일투쟁서사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동한 항일무장투쟁서사의 의식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독립군항일투쟁서사는 1910년대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리킨다. 신채호의 중편소설「꿈하늘」(1916) 과 신채호의 유작시편들,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년대 초기 한국인 연변지역 독립군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한국의 분노」는 일제에 대한 독립군의 불굴의 투쟁과 그 승리를 보여준다. 작품은 독립군의 주요한 지휘자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에 대해 비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역사사실에 어긋나는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신채호의 환상소설 「꿈하늘」은 독립운동의 복잡성과 곡절성을 보여주면서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독립군 항일투쟁서사는 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애국주의, 영웅주의 등을 고취하고 있으며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의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전투적 위훈을 보여주면서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 중한협동작전, 그리고 민중에 대한 교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동아시아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중한연대의식이 전 편에 관통되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 작품으로 『조선의용대 제1구대 혈전실기』(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9), 『전장에서의 조선의용대』(왕계현 편역, 1940), 「전방에서의 제1구대 」(박효삼, 1939), 윤세주의 「화평촌 통신」(1939), 양민산의 「접적행군기」(1940), 한지성의 「전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의용대」(1939), 이달의 「'3.1'운동 기념 감언」(1939) 등 50여 편의 실기문학이 있으며 그 외 이두산, 이달, 문명철, 약희, 김유 등의 산문과 시편들이 있다.

장편실기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1939.9)는 조선의용대 각 구대 선전원들이 집필하고 중국인 조선의용대 대원인 유금용이 번역한 실기문학 작품집으로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의용대에서 출간하였다. 한국문으로 된 원본이 있었겠으나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가 국민당 군사위위원의 지시에 따라 제 1 전구, 제 5 전구, 제 9 전구에 여러 개 분대로 나뉘어 국민군 및 게릴라부대와 협동하여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대적 무장선전, 협동작전, 민중교육 등 면에서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서사화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사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당시 조선의용대에서 꾸렸던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 제 1 구대 혈전실기」란 제목으로 연재됨) 작품은 당시 중한독자들과 사회각계에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었다. 작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 1 구대와 제 2 구대의 항일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부분은 4 장, 두 번째 부분은 5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장에서는 「민중이 사랑하는 게릴라부대」, 「진지에서의 연설전」, 「전장은 우리학교」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있다. 문체는 수필, 르포, 편지, 대담, 의론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작품은 대형 실기문학집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은 항일담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는데 적진뿐만 아니라 적 점령구의 민중생활구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대적 무장선전은 선전삐라와 표어의 산포, 적진에서의 대적 함화, 일본어 강습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항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적들의 전투사기를 와해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대적 선전을 가리켜 “혁명의 씨앗을 적군 내부에 뿌렸다”고 했고 “많은 휘황한 업적을 쌓았다”고 했다.[39]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담론은 혁명성, 저항성, 연대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일제의 제국주의 담론의 반동성, 허위성, 침략성을 폭로하고 배격한 대항 담론이었다. 따라서 그 담론의 취지는 “항일구국, 전민항전”깃발아래 항일투쟁에 총 궐기하여 일제를 소멸하고 전면승리를 이룩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과 게릴라부대를 협력하여 대적 선전을 하는 한편 국민군을 배합하여 여러 차례 적과의 혈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 작품에서는 통성 공격전투, 철주 항공격전투, 석산 공격전투, 잠산 공격전투 등에 대한 서사를 통하여 국민군과 조선의용대의 영웅적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영웅담론은 민족·민중영웅주의로 임전무퇴의 기개, 침략자와의 결사항전, 민족과 민중을 위한 희생정신 등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석산공격전에 대한 묘사는 아주 감동적이다. 석산 공격전을 위하여 결사대에 나서는 용사들의 영웅적 모습과 공격전에서 국민군과 생사를 함께 한 조선의용대의 숭고한 정신도 보여 준다. 22명의 결사대원들은 수류탄을 가득 메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다. 석산을 수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 서사

[39] 마의 편, 『조선의용대의 승리적인 4년』, 국제출판사, 1942

화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강철같이 견고해졌다고 토로했고"이 장면을 보고 이국 사람들인 우리는 흥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몸속의 뜨거운 피가 이미 끓어 올라 22명의 민족 영웅들과 친절히 악수하였다."(「결사대」, 74~75쪽)고 기록하고 있다.

실기에서는 계속하여 결사대 대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 그리고 6명의 결사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된 사실과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국민군 부상병을 구원한 사연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국민군 88연대 제3대대 제8중대 중대장 유운서(柳運瑞)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5겹이나 되는 적의 철조망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3겹까지 파괴하고 결국 적의 파편에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 선전대원 3명은 그를 구원하게 된다. 실기에서는 "우리는 유중대장을 업고 이 자그마한 '명예전리품'들을 들고 우리의 주둔지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유중대장을 업은 G 동무의 옷이 비록 피에 젖고 또한 영광스러운 피가 살결에도 물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으며 유쾌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게릴라 선전조 제2대의 진한중(陳漢中), 관건(關健), 이동호(李東浩) 등은 국민군과 배합하여 석산을 공격했고 적의 군영과 탄약창고를 불살랐으며 아울러 작전 진지에서 중상을 입은 유중대장을 구원한 戰功으로 하여 군단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조선의용대는 상금을 받기도 했다.

작품은 또한 주체의 이중성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질을 구현하고 있다. 물론 조선의용대의 정체성에서 주도적인 것은 단연 자기 민족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울러 그들의 중국인식을 분석해 보면 중국 국민군에 소속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내비친다. 이들의 이중주체성과 민족정체성, 군인 정체성은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한 연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 전제이기도 하다. 조선의용대의 민족정체성은 주체의 자아인식 즉 민족의 독립과 자유, 조국의 해방과 미래에 대한 강렬한 요구, 민족문화에 대한 집요한 추구 등을 통해서 보아낼 수가 있으며 군인정체성은 중국의 항전에 대한 굳은 신념, 민중에 대한 항전교육, 민중학교의 운영 등에서 잘 체현된다. 이중주체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징은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중한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정착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의 출간은 중한 양 민족의 연합항일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가 있는 문화전략이었고 제국주의침략과 문화패권을 전복한 20 세기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적 유산으로 높이 평가된다.

조선항일유격대 항일서사는 주요하게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항일가요[40]와 항일연극을 들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연극「혈애지창」(1938)과「밀림은 싸운다」(1938)를 들 수가 있다.[41] 항일유격대 연극은 공산주의사상 이념에 기초한

[40] 항일가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최옥화,『해방전 중국 조선족 가요연구』, 국학자료원, 2016년

[41] 항일유격대가 창작한 작품으로「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다」,「혈분만국회」,「꽃파는 처녀」,「성황당」,

항일유격대의 투쟁생활과 그 혁명적 영웅주의를 반영하면서 중한연대 특히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중한민중들의 지지와 성원, 나아가서 군민이 공동으로 일제와의 혈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두 연극작품은 작자가 까마귀로 되어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 했던 작품으로 항일유격대의 집체창작으로 볼 수도 있다.[42] 따라서 작품에는 곽복회와 김대장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 바 김일성이 거느리는 유격대에서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모두 항일유격대의 영웅적 형상과 항일투쟁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항전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사상 영향이 큰 작품이다.

「혈애지창」은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장백산지역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항일유격대 정찰원 뻐꾹새가 민중 속에 들어가 계급교양과 항일교육을 전개하고 민중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투쟁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싸우는 밀림」은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 등이 헤샤즈꺼우(黑瞎子) 밀영을 포위하고 동기 대토벌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과의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극적 소재와 내용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격대 항일투쟁과 민중들의 각성을 반영하고 일제에 대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항일전쟁의 필연적 승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유격대 항일서사로서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군인형상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이념과 항일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혈해지창」[43]에서의 정찰원 뻐꾹새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민중속에 들어가 계급교육과 항일교육을 하는 혁명군인으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다. 그는 “우리는 칭칭 감긴 이 철쇄를 짓부시고 자유와 행복의 꽃동산을 꾸려야 합니다. 여러 분들도 땅 파던 괭이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북간도의 피바다에 붉은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잠자는 사자는 깨어났습니다.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중을 무장시키고 민중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항일유격대 투사이다. 특히 그는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에서 일제 헌병 오장을 비롯한 일경과 그 앞잡이들을 일망타진한다. 또한「싸우는 밀림」[44]에서의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을 지닌 혁명군인으로 해산을 앞둔 아내 계순에게 혁명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며 도깨비골에 내려가 왕로인 등을 혁명사상으로 각성시키고 일본포로에 대한 교양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끔 한다. 박민은 “무산자들에게는 국경이 없소. 우리 무산자의 신앙은 곧 인류 무산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소. 공산사회-이것은 절대적 진리요.” “공산주의 정신이란 전 인류의 산 영혼이란 걸 알아야 하오”라고 말하거니와 자신의 모든 투쟁실천을 공산주의 이념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정찰원 뻐꾹새와 군수

「한 자위단의 운명」, 「경축대회」 등 다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 텍스트가 확인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잠시 다루지 않는다.

[42] 두 작품은 1959년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권철 등 선생들에 의하여 길림성 화룡현에서 발굴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창작 공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3] 「혈해지창(血海之唱)」, 즉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땅 위에서도 자유의 노래 소리 들린다는 의미임.

[44] 항일 유격대가 밀림에서 일제와 영용하게 싸운다는 의미임.

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으로 민중을 교양하여 항일투쟁에 나서게 하며 자신들은 직접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적과 영용하게 싸워 승리하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형상으로 당시 항일유격대의 정신세계와 투쟁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미학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중한 민중의 각성과 중한연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예하면 「혈애지창」에서의 왕핑의 가정은 항일투쟁에서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 혁명가정이다. 왕핑, 왕핑의 아버지, 왕핑의 어머니 쑹마마는 항일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아 날로 각성되었고 끝내는 항일유격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희생하는 민중영웅의 형상이다. 왕핑의 아버지는 유격대를 숨겨둔 죄로 일경 오장에게 무참히 살해 되었고 왕핑의 어머니 쑹마마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진보적 여성으로 유격대 정찰원 뻐꾹새를 자기 집 움에 숨겨두고 보호한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를 지켜 싸우다가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왕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유격대의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 정찰원 뻐꾹새가 맡긴 임무수행에 나섰다가 체포된다. 그는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역시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중조 두 민족은 다 같은 형제이니 같이 싸워야 합니다. 무산자는 모두가 같은 처지이니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피력한다. 작품에서는 항일유격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쑹마마 일가의 민중적 영웅형상을 통하여 항일투쟁에서 형성된 중한연대의식이 중국 민중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한 동시에 항일투쟁에서의 중국인들의 각성과 영웅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항일유격대 투쟁서사에서는 민중들의 각성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바 「싸우는 밀림」에서의 계순은 남편 박민이 주는 임무 즉 분산된 민중을 일제와의 싸움에 나서게끔 조직 동원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나섰다가 적에게 체포되고 혹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 더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적들의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며 갓 난 어린애를 남겨두고 비장하게 희생된다. 그는 항일혁명가의 아내로서 무산계급사상으로 무장된 여성혁명가의 형상이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 나오는 왕로인은 항일유격대의 영향밑에서 각성되어 적과의 싸움에서 몸바쳐 간 민중의 형상이기도 하다.

작품들에서는 당시 항일투쟁에서의 일본군포로에 대한 대적 선전사상도 보여 주어 주목된다. 「싸우는 밀림」에서의 연락병 일본군병사는 박민의 교양하게 전향하게 된다. 연락병은 항일유격대가 가지고 있던 진보적 사상 즉 포로를 학대하지 않고 교육을 선행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일본 연락병 형상을 통해 항일유격대에서의 일본군 포로교육은 조선의용대에서의 대적 선전 특히는 일본군 포로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일유격대 서사에서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의 복합적 특질도 잘 보여준다. “싸우는 밀림이어, 네가 낳은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중화민족에게는 영원히 적수가 없으리라. 우리 천만년 백두산은 중화민족과 함께 살아있다” 이는 「싸우는

밀림」의 결말에 부친 작가-화자의 독백이자 역시 주인공-항일 유격대의 지향이기도 하다. “우리 다시 싸워 이겨 돌아 올 때 온 중국 어머니들께 영원한 웃음을 안겨 줄 것이다.” 이는 「혈해지창」에서 왕핑의 죽음을 두고 쑹마마를 위안하는 정찰원 뻐꾹새의 말이다. “우리의 북간도는 이런 피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민족의 영웅적 노래는 끝없이 중국벌판에 퍼질 것입니다.” 뻐꾹새는 왕핑 등의 시체우에 붉은 기를 덮어주며 이같이 말하고 있다. 상기 표현속에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항일연군 소속으로서의 항일유격대의 군인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또한 한국인 이민들의 정체성의 변화양상도 보여주어 주목된다. 『밀림은 싸운다』에서 왕로인, 김로인, 박로인 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고 받는다. “우리 만주에 와서 손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나무를 찍어다 기둥을 세운 뒤 밭을 옥답으로 만들어 겨우 이뤄 놓은 이 터전을 우리는 목숨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수다” “오늘은 이 땅에서 내 피를 뿌려 씨앗을 가꾸었으니 예가 내 고향이우"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해 중국으로 온 한국인들의 이민과 정착과정, 새로운 고향의식과 이중적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중국의 항전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인식하고 중국의 항일투쟁에 참가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항일투사들의 국내진출, 나아가서 한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싸워 나선 한국 민중의 민족적 각성과 헌신적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주로 연극, 가극의 형식을 취했는데 조선의용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항일유격대 등 항일부대에 의해 창작 공연되었으며 중한 민중들에게 “항일구국, 전면항전” 사상과 중한연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데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때문에 연극, 가극 등은 상당한 선전 선동성과 대중성을 가지었다. 따라서 무장부대 군인들에 의해 창작된 연극, 가극들은 중한 공동배역 ,공동공연, 이중언어 대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합작과 공동서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주요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에서 창작공연한 연극「도문강변」(1939),「조선의 딸」(김창만, 1939), 가극「아리랑 」(김창만, 1939)[45], 한국 전지공작대에서 창작 공연한 가극「아리랑」(한유한, 1940)[46], 연극 「국경의 밤」(1939, 한국 전지공작대 집체창작), 「한국의 한 용사」(한유한, 박동운, 1940)[47],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한 「꽃파는 처녀」, 「성황당」 등이 있다.

---

[45] 가극은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싸우기 위해 항일유격대 지휘 밑에 아리랑 고개를 넘나들며 적과 싸우고 나중에는 희생되는 비장한 장면을 가극으로 한 작품이다.

[46] 1940년 1월 서안에서 전지공작대에 의해 총 타이틀을「아리랑」으로 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작품으로 가극 「아리랑」과 연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등이 있었다. 「아리랑」공연은 당시 중국인들속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국경의 밤」,「한국의 한 용사」는 중국어로 공연되었다.「국경의 밤」은 압록강변에서 중국 의용군과 한국 혁명군이 함께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중조 두 나라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폭파하고 싸우다가 끝내 실패하여 희생하게 된다.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1월** 일본 헌병대의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군의 말과 무기를 가지고 적진을 탈출하여 전지공작대로 입대한 실제 사실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47] 「국경의 밤」은 1939년 10월 중경에서 공연된 바 있다. 「국경의 밤」과 「한국의 한 용사」는 서안에서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우선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민족의 이민과 정착,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족적 각성을 이룩한 민중들은 직접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거나 항일투쟁을 지지, 성원한다. 조선의용대에서 창작 공연한 연극 「도문강변」은 일제와의 진공전에서 부상을 입고 희생된 오빠의 손에서 총을 받아 쥔 누이동생과 수많은 동지들이 도문강변에 누워있는 투사의 시체를 넘어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민중적 형상을 통해 천백만 민중들의 각성과 투쟁을 보여준다. 또한 김창만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에서는 아리랑고개라는 특정된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와서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한민족의 항일혁명 투쟁노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 보이고 있다. 일제의 세기말적인 수탈에 못이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부여대하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으로 가야했다. 물론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의 앞장에는 항일구국의 뜻을 지닌 항일 애국투사들이 서 있었다. 아리랑 고개는 바로 국경에 자리 잡은 산으로 햇빛을 볼 수 없고 음산한 추운 바람이 부는 지옥같은 곳이다. 이 아리랑고개에는 수많은 민족영웅들과 전사들의 시체가 묻혀야만 했다. 가극에 등장하는 농민과 그의 딸은 유랑의 아픔을 안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바로 이 순간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나타나 “당신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넘어간다면 나는 이 총으로 당신들을 죽이겠어요. 지금 아리랑은 조선인 망명의 죽음의 종착점이니 조국에서 죽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가극에서는 새로운 아리랑 이야기와 아리랑 민요형식을 빌어 남부여대하고 조국을 떠나는 망국노의 처참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리랑 산에서 희생된 무수한 혁명자들의 형상을 빌어 일제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리랑 고개-죽음의 산은 혁명승리를 약속하는 혁명의 산으로 될 수 있음을 암시, 상징하기도 한다. 한유한이 창작한 가극「아리랑」도 역시 목동과 시골처녀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 혁명군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통해 진보적 항일혁명투사의 성장과정과 그 비극적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들의 육신은 죽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아리랑 산에 한국 국기가 휘날리며 미래의 승리를 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점은 아리랑 고개는 “고난과 눈물과 설음의 고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 투쟁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48]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기 두 작품은 항일투쟁에 궐기하는 한국의 민중들의 시대적 각성, 그리고 항일혁명 군인들의 성장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부여된 아리랑 이미지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 점은 예술적 창조이기도 하다. 한국인 혁명가 김산은 미국기자 님 웨일즈와의 취재에 임한 자리에서 “만주벌판 어디에서나 조선인 의용병이건 중국인이건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고 회억했고 또한 “아리랑 고개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리랑 고개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 가운

[48] 정우택,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 공연과 그 의의 」,『한국민요학』, 제21집, 한국민요학회, 2007.12

데 승리가 태여 날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한 바 있다. 아리랑 고개는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죽음의 고개"인 동시에 "희망의 고개"로서 "탈출의 공간"인 동시에 "귀환의 공간"이다. 상기 두 작품에서의 아리랑의 상징적 의미는 민족의 현실과 정서, 이상과 신념을 민족의식의 심층에로 확장, 육박해 가는데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두 부의 가극「아리랑」은 한민족의 항일정신과 민족성을 중국에 선양하고 중한연대를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투쟁서사 작품들은 역시 중한연대로 특징되는 항일투쟁의 한 측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연극 「국경의 밤」은 중한 열혈청년들로 조직된 동북의용군과 한국혁명군이 눈 내리는 겨울밤, 압록강 국경선에서 공동의 적인 일제와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되는 비장한 사실을 통해 중한 군민들의 항일투쟁에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며 「한국의 한 용사」는 1941 년 일본헌병대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 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들의 문건과 무기, 말 3 필을 가지고 헌병대를 탈출하여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원이 된 사실을 통해 항일투쟁에 있어서 중한 두 나라는 운명의 공동체임을 제시해 보였다. 상기 작품들은 1930 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항일구국, 전민항전의 기치 밑에 항일투쟁이 고조되고 따라서 반파시스트 다국 동맹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의용대, 항일유격대, 한국 전지공작대 등이 중국의 항전에 투입하여 중국 군민과 협동작전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었던 역사현실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기도 한다.

또한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국의 항일무장대오와 한국 국내 민중의 연합작전과 그 승리를 보여주어 특히 주목된다.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선민중의 시대적 각성과 유격대의 국내진출에 따른 항전투쟁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가 있다. 연극『조선의 딸』은 3.1 운동 20 주년을 기념하여 가극『아리랑』과 함께 중국 계림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중국에서 단막극『도문강변』을 공연한데 이어 두 번째로 되는 공연된 연극작품이다.『조선의 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 한다.

『조선의 딸』은 2 막으로 된 연극으로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형상이 생동하며 서사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된다. 극본이 없어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의 구성을 복원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제의 약탈과 한국인의 봉기. 여주인공 애련의 각성과 카페생활, 애련의 혁명활동과 항일투사의 국내잠입, 애련의 장렬한 죽음과 일본놈 처단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에서의 애련, 애련의 할아버지, 애련이의 오빠 광호, 그리고 순삼이는 긍정적 인물계열로 부각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족적 양심과 항일의식을 소유한 인물로 형상되었고 광호와 순삼이는 중국으로 망명한 항일투사로 형상되었다. 연극의 여주인공 애련이는 할아버지와 광호의 영향으로 각성하여 혁명적인 대열에 들어선 인물로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애련이의 성격은 할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이해, 혁명

활동에 나서려하는 오빠 광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의 용감성과 슬기, 헌신적 정신 등을 통해 생동하게 창조되었다. 애련의 형상은 항일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극에서의 숙부는 일제의 주구로 타카하시사 단장 및 나까무라 경찰서장과 함께 민중의 적으로 온갖 만행을 감행하지만 결국 혁명세력에 의해 처단되는 것이다.

연극은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극적 갈등이 첨예하며 슈제트가 복선적이며 인물형상의 성격창조가 일정한 깊이를 보여준다. 연극은 생동한 인물형상으로 식민지시대 조선민중의 운명과 각성, 항일구국을 위한 자아희생정신, 일제의 약탈과 패배 등 항일투쟁의 제반 역사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상기 작품은 계림에서 연속 세 차례나 공연하여 당시 관중들에게서 절찬을 받았고 조선의용대의 사회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계림에서의 공연이 끝난 뒤 중국 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공연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바 연극 『조선의 딸』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희생하는 조선 아들딸을 묘사한 역사극"[49]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의용대 정치조 조장으로 있던 김규광도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의의」[50]란 문장을 발표하여 공연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천명했다.[51]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극 『조선의 딸』은 사상내용의 진보성과 예술형식의 참신성 등으로 하여 비단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전문예운동사 나아가서 중한 문예교류사에서도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한다면 중국의 무대에서 중국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는 점은 상기 작품이 조선민족의 불요불굴의 항일정신을 생동한 예술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주류사회로 진출하여 항일담론을 만들어 내려는 조선의용대의 그 집요한 문화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중적인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인 혼종성이 가지는 특이한 문화적 힘도 가늠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20 세기 전반기 일제침략과 문화패권에 맞서 싸우는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철한 민족의식, 그리고 중한연대의식, 민중의 각성과 투쟁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민군에 소속된 한국 의용대와 항일연군에 소속된 항일유격대의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비록 이념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한 지향, 그리고 항일전쟁에서 형성된 중한 연대의식 등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

49 전심, 『「조선의 딸」과 「아리랑」』, 『동방전우』, 제4기, 1939.4.1

50 김규광,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적 의의」 (『조선의용대통신』, 제 6기, 1939.3)

51 김규광은 연극의 혁명적 의의는 우선 3.1운동을 진실하게 재현한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연극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는 바로 3·1운동(봉기)을 재현한 것으로 일제의 침략에 의한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했고 또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 사람들의 혁명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민족의 희곡이 처음 중국 계림에서 신기록을 남기었으며 따라서 각계 사회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제적 및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동상)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고향과 조국, 그리고 가족과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러한 고뇌와 아픔의 정서를 보여준 작품들을 망명애환서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망향애환서사에서 민족의 망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신채호의 시 「너의 것」, 「새벽의 별」, 「무궁화의 노래」, 「고국」[52] 등과 시 「인제 철아에게 영락정시를 드리노라」, 「이충무공 한산도 기념」, 「나의 신려를 사랑하노라」, 이두산의 시 「어머니의 비석」, 문명철의 시 「금강산에 가고파」 등을 들 수가 있다. 민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시 「오랜 동지이며 인제인 조완구에게 전하노라」, 「북경, 천진의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라공 홍암 선생을 추도하여」, 「홍암 선생을 위한 추도문」, 「추도사」, 신채호의 「도제4언문」[53], 조선의용대 김창만의 가극 「아리랑」과 한국 청년전지대의 가극 「아리랑」을 들 수가 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의 공통한 특징은 망명인 특유의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우월감 혹은 귀속감으로 특징된다. 정체성이란 "스스로 새롭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체성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가장하는 주체 변형의 생산물이다"[54]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체성문제는 그 무엇보다 첨예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른바 "내선일체" "동족동근"을 떠벌리면서 창씨개명 시책을 자행했고 나아가서 민족문화 말살책으로 민족역사교육과 민족언어 문자사용을 제한하였다. 바로 일제의 강권진압과 문화패권으로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었다. 이른 바 일제의 "황민화운동" 의 선두자로 나선 문인들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가령 식민지시대 민족정체성을 두고 이야기 할 때 망명지사들은 가장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진 민족 군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체험서사, 특히는 망향애환서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들은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수호신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신채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시 「너의 것」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된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여기저기비치우고 지고/님나라 발가아지게//너의 눈은 꽃아 되어/여

[52]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채호의 시문은 박정규 편역 『단재 신채호 시선집』(기별미디어, 2013)에 준함.
[53]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규식의 시문은 김동훈 외 편역 『신규식 시문집』(민족출판사, 1998)에 준함.
[54]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이론』, 소명출판, 2002, 424-425쪽

기저기 피고지고/님나라 고와지게//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적 불고지고/님나라 깨끗하게//너의 말은 불이 되어/여기저기 타고지고 /님나라 더워지게//살은 썩어 흙이 되고/뼈는 굳어 돌되어러/님나라 보태지게//

시에서 시인은 님나라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뜨거운 지향을 생동한 비유와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율조에 담아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그처럼 귀중한 존재인 눈과 피, 숨과 말을 그대로 님나라—조국으로 하여금 더욱 밝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더워지게 하는 해와 꽃, 바람과 불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님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과 뼈는 돌과 흙이 되어 님나라에 보태질 것을 희망한다. 시편에는 민족 내지 조국에 대한 귀속감이 시적 정서의 율조를 타고 전해진다. 또한 시 「새벽의 별」에서도 시인은 새벽의 별이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조국의 미래한 대한 지향과 민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새벽을 지켜 나선 별은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일거나 눈이나 비가 오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며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광명을 에워 오려는 빛이다. 새벽의 지향, 그것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깨끗한 희망이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들은 그가 기타 중국체험 서사에서 자주 이야기된 담론 즉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내라”,“애국자가 나라 밖에 다른 사랑이 있어도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정체성 담론의 시적 승화로서 “노화순정”(炉火纯青)의 심리회귀이고 영혼의 불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는 이외에도 망향시 「1 월 28 일」, 「고국」등에서 고향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생동하에 표현했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은 또한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잘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매개 민족에게는 집단무의식이 있거니와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흔히 문화무의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홍암선생을 위한 추도문」은 주목된다. 작품은 대종교 교주인 나홍암의 죽음을 슬피 여겨 쓴 애환서사로서 시인의 문화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나홍암을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예찬하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나홍암은 민족정기를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하고 있는 바 시인은 그의 출현을 두고 “태백은 아아하고 신조는 장중한데/폭풍뢰를 이끌고 세상에 내렸어라// 서울은 여럿이고 겨레는 수두룩한데/천부를 잡았으니 권위가 당당하도다”라고 한다. 시인은 나홍암을 태초 때부터 내려온 민족역사와 민족영웅과 연결된 인물로 보면서 겨레들은 그의 주위에 뭉쳐 싸운다고 한다. 또한 그의 위용을 두고 “유유한 이 세상에 오는 이는 그 누구뇨/아아한 삼위는 신광에 휩싸였구나//천경은 정초되고 신명은 발붙혔으니/기린타고 상조하면 백신이 받든다네”라고 한다. 문화무의식은 한 개 민족의 신화에 대한 당대 담론으로 기억의 복술이며 그러한 복술은 민족적, 심리적 고뇌가 무의식으로 작동될 때만 가능하여 보인다. 상기 시인의 민족의식의 심층

에는 문화무의식이 작동함으로서 불굴의 항일정신과 민족적 기백은 용암처럼 솟구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망명인들의 망명애환서사는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의 미적정서를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항쟁의 울림은 민족의 한의 정서와 유착되어 있다. 한민족의 문학에 있어서의 한의 정서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원인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 미학사에 있어서 한국인의 "한"과 중국인의 "원", 일본인의 "애"는 물론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점으로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문학에서의 한의 정서는 신라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이조 가사와 시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 있서는 본토시인들인 김소월, 박팔양 등 시에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망명지사들의 망향애환서사에서도 나타났던 바 그것이 항일투쟁정신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한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서는 신규식, 신채호 이두석 등 작품들에서 잘 보여진다. 망명지사들의 민족체험-특히는 망국노로서의 이역체험이 한으로 이어졌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신채호는 자기의 필명을 무애생으로 했고 신규식은 자신의 필명을 청구한인으로 했거니와 필명에서조차도 한의 정서가 한결 두드려져 있다. 주요한 작품으로 신규식의 시 「태루를 돌아보며—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잔을 기울리며」,「강서에서 배를 타고 청도로 가다—철아, 소창, 예봉이 나를 바래주다」, 신채호의 시 「1 월 28 일」, 「고향이 그리워」, 「임술년 가을 밤에」등을 들 수가 있다. 신규식 시의 한의 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잎은 지고 기러기는 울어대는데
루각의 뜨내기는 가을 철이 서글프도다
간밤에는 기러기 생각에 눈물 흘렸거니
이역 땅에선 망명의 설음 가실 길이 없네
삽시에 풍운이 일어 세상이 변하는데
하늘 땅을 휘잡을 자는 그 누구더냐
늙은 이는 정정하고 현자들은 훌륭한데
피안의 횡류에 우리 배를 띄워 보자
--신규식,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시를 짓노라」

일제의 치하에서 망국노가 된 설음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험악한 현실을 돌려 세우지 못하는 민족적 한을 토로하고 있다. 시「태루를 돌아보면서—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읊는다」는 시인이 꿈결에도 망명지사인 박은식, 홍명희 등을 그려보며 애환을 달랜 시이다. "때로는 행로에 놓인 잔도가 근심인데, 그대 그리며 꿈결에 어양을 찾았어라"라고 하면서 뜻을 같이 한 망명동인들의 어려움을 근심한다. "원수를 족치지 못함은 나의 한이여니, 교만한 자의 간섭과 광분이 오래 못가리. 누각은 아늑하고 실바람이 불어오는

데, 한가로이 글재주를 부림이 부끄럽도다"라고 하면서 일제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한스러움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신채호의 망향애환시들도 한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외로운 등잔불 바득거리며 내수심을 돋우네
안타까운 일편단심 다 태워 버리고저
외로운 창을 들어 나라 운명 못 돌리고
모지라진 붓을 가져 역사를 끄적이네
이역방랑 무릇 십 년에 서리발 수염에 흩날고
병석 신음 밤은 삼경에 달빛이 루에 드네
고향의 룽어회맛 하도 좋다 말을 말아
지금은 땅 없거니 어선을 어따매리
-「임술년 가을 밤에」

시에서는 나라 잃은 망명인의 수심과 단심이 한의 정서속에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망향애환서사의 특징을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은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교차는 망명인들의 민족의식과 정감표현의 시대적, 민족적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중국체험서사는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문화혼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중, 다중언어 창작으로 중국, 한국 독자들의 요구에 따랐고 특히 주류사회 진출과 중국 진보적 인사들과의 공동담론과 상호 인지를 보여주었다. 창작에 있어서의 근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현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그리고 일본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언어의 창작 등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채호는 고한문 창작과 국어의 창작을 병행시켰는데 중한 연대형성과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하여 근대 한문으로 정론과 시문을 발표했고 국내독자를 고려해서 국문으로 수필과 시문을 창작했다. 또한 류자명의 경우에도 광주기행문 같은 것은 국문으로 써서 국내에 발표했는데 목적은 국내 독자들에게 급변하는 중국시국을 알리려는 데 있었고 소설 「조선혁명일사」, 그리고 다수의 정론은 중국독자

를 고려하여 현대한어로 창작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이두산[55]의 경우는 국문, 현대한어, 일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다중 언어로 창작했던 바 사회영향과 독자층을 면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가사는 한국인에게 불리워져야 하는 만큼 국문으로 창작했고 기타 시가, 수필, 정론 등은 현대 한문으로 창작했던 바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일부 단평은 영어, 일어, 에스페란토어로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부동한 언어는 부동한 세계를 해석, 획득한다고 할 때 한국 망명문인들의 이중 언어, 내지는 다중 언어 창작은 이중 주체신분으로 중국의 혁명에 뛰여 들었던 문화적 신분과 관련되며 특히는 근대, 현대 한문창작은 중국의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중국 지성인들과의 교류를 가지고 주류담론을 형성해 가며 그 사회적 영향을 획득하려는 망명인들 특유의 선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학창작과 번역, 출간에 있어서 공동합작, 공동공연 등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범석과 푸나이푸의 공동서사 「한국의 분노(청산리 혈전실기)」는 독립운동가와 중국 작가와의 합작이고, 김산과 미국 님웨일즈의 공동서사 「아리랑」은 한국 독립운동가와 미국기자와의 합작이다. 상기 합작서사는 물론 이야기의 구술자와 문인의 합작이지만 특수한 전쟁의 년대의 투사와 진보적 문인사이의 공동지향과 상호 인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망명지사들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합작이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의 진보적 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번역 출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조선의용대의 항일서사의 중요한 작품인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작품 외 다수 작품들은 조선의용대의 중국인 대원들의 번역을 통해 출간되었다. 그 주요한 번역자로 중국인 유금용, 왕계현 등을 들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중한 연대로 이어진 중한 항일투쟁은 문학적 서사영역에까지 연대성을 체현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출판되었는 바 박은식의 「안중근전」의 출간을 위해 중국의 100여명 문인들이 동참하여 서문, 비문, 독후감 등을 써 주었고『유방집』에는 중국인 40여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 주었다. 이는 전대미문의 문단거사로서 근대 중국문단의 “일대사변”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한국망명자들의 가극 연극 등을 무대화 시킴에 있어서 중국 예술기관과 예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협조를 받았는 바 조선의용대의 가극「아리랑」, 연극 「조선의 딸」, 그리고 전지공작대가 서안에서 공연한 「아리랑」도 중국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무대화 시켰다. 따라서 중한 예술인들의 공동배역, 공동무대 설계, 공동음악 반주 등이 있었기에 그 공연이 크게 성공하였고 따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서사주체의 다양성과 중국체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체험서사의 경우 서사주체는 전문적인 문인군체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사건과 내용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

[55] 이두산은 한국어로 가사를 창작했고 중국어로 정론, 수필, 사론을 발표했으며 영어로 단평을 발표했고, 일본어로 반일선전 방송연설했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동방전우』,『조선의용대통신』 등을 참조)

다. 예하면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류자명은 의열단 폭력투쟁의 조직자이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활동의 참가자이다. 이외 의용대 항일서사의 주체들인 의용대 선전원, 그리고 주요 작자들인 김창만, 이두산은 의용대의 골간인물이며 아리랑 창작의 한유한 역시 한국 청년공작대의 중견 예술인이며 조선유격대 항일서사의 주체는 역시 항일유격대 대원들이다. 타국 문인들과의 공동저자로 된 이범석 등도 독립투쟁, 항일투쟁의 체험자이며, 김산도 조선의열단 등 단체에 참가했고 중국공산당 지하활동의 인물이다. 이러한 서사주체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중국체험은 인물형상창조와 사상, 정서의 전달에 진실성, 생동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보면 무정부주의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라고 형상창조를 통한 무의식의 표현 등 작자의 사상과 영혼 및 심리의 문학적 승화를 잘 보여준다. 김산, 이두산의 관련 작품도 시대와 혁명에 대한 이해 등에서도 투철성과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서사양식의 변천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양식에 있어서 인물전기로부터 시가, 소설, 산문, 희곡(가극 ,연극) 등 쟝르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예하면 가령 망국 전후의 의사투쟁은 전기로 되었다면 의사폭력서사와 무정부주의 투쟁사사는 소설형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점은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항일투쟁서사에서의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를 보면 주로는 전선에서 보낸 르포(보고문학)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도 수필, 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 면으로는 전시문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선의 상황을 알릴 것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극, 연극의 새로운 형식이 성숙되었는데 항전문예를 통해 중국 국민에 대한 선전, 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서방의 무대예술의 영향과도 관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언어의 다중성, 공동서사와 번역합작 등 혼종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상기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제로서의 서사주체, 서사양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혼종성의 특징은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이상을 위한 문학적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망명인들의 문학이 문화적인 혼종을 거쳐 주류담론에로의 진출과 새로운 민족문화창출을 동시에 완성한 좋은 예증이기도 하다.

7. 나오는 말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망명문학의 성격과 특징 등을 잘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문화패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반제 반식민지 저항문학이라는 데 그 성격적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담론을 통한 근대성, 항일담론을 통한 저항성, 민족담론을 통한 정체성, 평화담론을 통한 연대성, 탈경계 서사를 통한 문화혼종성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혁명서사는 중국인식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상상을 보여주며 의사투쟁서사는 중국 경내에서 벌어졌던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구국투쟁의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을 중국에 전파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안중근전」의 영향은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등 항일투쟁서사 작품은 중국 국민군과 조선 의용대의 영웅적 항전 모습을 보여준 귀중한 텍스트이며 「혈애지창」 등 작품들은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한국인 항일무장대오의 성장과정과 항일투쟁정신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록 부동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조선의용대서사와 항일유격대서사가 보여주는 중한 연대의식은 근대 동아시아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평가된다. 망명애환서사는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표출로 민족성을 잘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탈경계 체험과 서사적 책략을 통해 얻어진 문화혼종성은 다중언어 서사, 공동서사(공동합작 창작, 공동합작 번역, 공동합작 공연) 등으로 특징된다. 서사의 문화혼종성은 망명지사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와 문단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 서사는 한국의 항일문학사 내지는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을 뿐더러 중한 근현대 문학교류사 특히는 상호 탈경계서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발굴과 비교문학적 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훈 이선한 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2.『류자명자료집』, 독립운동편,충주시 충주 mbc, 2006
3. 조소앙, 『유방집』, 대동학회, 1932
4. 김구, 『백범일지』, 나남, 2002
5.『우등불』,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백산서당, 1940
6. 염광(장지락),「기괴한 무기」
7. 님웨일즈, 김산,『아리랑』, 동녘, 1984
8.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9. 최봉춘 편역,『朝鲜义勇队血战实记』, 밀양문화원, 2006
10.『혈애지창』, 까마귀, 1938
11.『밀림은 싸운다』, 까마귀, 1938
12. 김병민, 이춘광 주필, 『중국현대문학과 '한국'자료지총서』, 연변대학출판사, 2013
13.『진단』, 진단보사, 1920
14. 최광식 역주, 『단재 신채호의 '천고'』, 아연출판부, 2004
15.『조선의용대 통신』, 조선의용대 간행, 1939.1.21-1942.5 『조선의용대통신』은 제34기부터 『조선의용대』로 이름 고치였다.
16.『조선민족전선』,제1기-제6기, 조선민족 전선동맹 기관지, 류자명, 김규광 주필, 1938.4-1938.
17.『동방전우』, 동방전우사, 이두산 주필, 제1기-42기, 1939.1-1942.4
18.『한국청년』, 제1기- 5기, 한국 전지공작대, 1940
19. 김병민,「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제174호, 2016.3.
20. 김병민,「저항과 상상: 망명공간과 중국체험서사—류자명의 산문의 경우」,『한국문학과 예술』 제21집, 2017.3
21. 김병민, 「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통일인문학』, 제72집, 2017.12
22. 김병민,「중국 망명시기 예관 신규식의 의식세계와 문학상상」,『호서문화』, 제5집, 2017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송 철 의
(서울대 명예교수)

1. 머리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점진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어문규범이란[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이 어문규범은 어문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 로 개정하지 않는 한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 언어에 비해서는 고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현실 언어는 변하는데,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므로, 어문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시간 이 많이 흐르면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의 괴리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도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체언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현행 한글 맞춤법과 역사적 표기

현행 한글 맞춤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소한 수정이 있었고, 1988년에 재정비 되면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기법의 근간은 여전히 그 대로 유지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현실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표기(다른 말로는 '관습적 표기')는 배제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뀐 것은 바

[1] 한국어 어문규범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뀐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긔챠'로 표기하던 것을 '기차'로, '셔울'로 표기하던 것을 '서울'로, '녀름'으로 표기하던 것을 '여름'으 로, '됴션'으로 표기하던 것을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역사적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적 표기의 예로서는 [ㄷ]로 소리나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2](덧저고리, 무릇, 얼핏)과 소위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짓고, 긋고)을 들 수 있다. '덧저고리'의 '덧'이나 '무릇, 얼핏'에서의 'ㅅ' 받침은 늘 [ㄷ]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ㅅ'으로 적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들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은 [ㄷ]로 발음되는 받침을 'ㅅ'으로 표기해 온 표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在來의 버릇을 따라'[3]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8, 19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받고, 듣고, 믿고'를 '밧고, 듯고, 밋고'로 표기했던 것이다.

ㅅ-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될 당시에 '짓다'는 [짇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발음되었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짓다'의 활용형 표기는 '짇고, 짇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은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문법서들에서는 '짓다'류를 ㅅ-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ㅅ-불규칙 용언들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여기서도 표기의 전통, 혹은 표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경우에도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언어간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 용언어간 말음의 받침을 늘 'ㅅ'으로 표기해 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ㄷ'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국어에 ㄷ-불규칙 활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발음대로 '짓다'를 '짇다'로 표기하게 된다면 '짇다'도 ㄷ-불규칙이 되는데, '듣다'와 같은 기왕의 ㄷ-불규칙과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1) 듣다 :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 들었다 (ㄷ-불규칙 1)
짇다 : 짇고 짇는 지으니 지어 지었다 (ㄷ-불규칙 2)
믿다 : 믿고 믿는 믿으니 믿어 믿었다 (규칙 활용)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달리 현실 발음을 대폭 반영한 표기법이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장 제4절, 한글 맞춤법 제7항
[3]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항 참조.

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말 표기를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우리말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되, 문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혹은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물론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부분적으로 현실 발음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3.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란 거리의 하나였다.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 조차도 본음을 밝혀 어간을 고정시켜 표기하려 하였다. '추워, 지어, 우는, 흘러'를 '춥어, 짓어, 울는, 흐르어'로 표기하려 하였던 것이다.

(2) 추워→ 춥어, 지어→ 짓어, 우는→ 울는, 흘러→흐르어

그리고서는 '춥-'의 'ㅂ', '짓-'의 'ㅅ', '울-'의 'ㄹ'은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으니 까 그 'ㅂ, ㅅ, ㄹ'에 사선을 그어 이 'ㅂ, ㅅ,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최현배도 최현배(1930)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현배(1934)에서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서 불규칙 활용을 11가 지로[4]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8가지 만 언급하였다.

(3) 제3장 제4절 변칙 용언
①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과 '오' 우에서 주는 말 ('ㄹ'불규칙)[5]
②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ㅅ'불규칙)
③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ㅎ'불규칙)
④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 적 ('ㄷ'불규칙)
⑤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 적('ㅂ'불규칙)
⑥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 적('여'불규칙)

[4] 이때까지는 우-불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5] 불규칙 명칭은 필자가 써 넣은 것임.

⑦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 적(‘러’불규칙)
⑧ 어간의 끝 음절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 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 적(‘르’불규칙)

소위 으-불규칙 활용은 제5장 ‘略語’[6] 부분에서 다루었다. ‘크-+-어→커, 크-+-었다→컸다’를 준말 형성으로 본 것이다. 거라-불규칙 활용과 너라-불규칙 활용은 하나의 활용형(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문제가 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이어서 맞춤법 규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우-불규칙 활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창해(1946)이었다(고영근 1983:69). ‘푸다’ 한 단어에 해당되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 간과되어 오다가 박창해(1946)에 이르러 발견이 된 듯하다. 최현배(1934)에서 11가지로 정리되었던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이 추가됨으로써 불규칙 활용이 12가지로 늘어났다. 우-불규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명칭도 개정하면 서 그 내용도 수정 보완한 1988년에 이르러서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었다. 맞춤법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가 아닌가 한다. ‘한글 맞춤법’에선 종래 ‘준말’항에서 다루었던 으-불규칙 활용도 불규칙을 다루는 조항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으-불규칙과 우-불규칙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4)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폈다, 끄다 : 꺼 껐다, 크다 : 커 컸다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그러다’류 동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불규칙의 종류는 대개 12가지라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34)에서 제시된 11가지에 박창해(1946)에서 새로이 제시한 우-불규칙이 추가된 숫자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한국어에 또 하나의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류 동사들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동사인 ‘서다, 건너다’와 ‘그러 다’의 활용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서다 : 서고 서는 서니 서면 서 서서 섰다
건너다 : 건너고 건너는 건너니 건너면 건너 건너서 건넜다
그러다 : 그러고 그러는 그러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다

[6] 略語(약어) = 준말

‘서다, 건너다, 그러다’는 모두 어간이 모음 ‘ㅓ’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위의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 ‘서다, 건너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규 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면, 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그러, 그러 서, 그렀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이 ‘그러다’류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어간말음 ‘ㅓ’가 ‘ㅐ’로 바뀐다고 보고서 송철의(2004)에서 이들을 어-불규칙이라고 명명 하였다.[7]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류는 ‘그렇다’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독자적인 단어들이다. ‘그렇다’류가 ‘그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라면, ‘그러다’류는 ‘그리 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다. 다만, ‘그렇다’류의 발달과정은 어렵지 않게 규명되 는데, ‘그러다’류의 발달과정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러다’류는 분명 독자적인 단어들이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이 어-불규칙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아마도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동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도수희(1965)이다. 도수희(1965)에서는 ‘그렇다’류를 대형용사(代形容詞)로, ‘그러 다’류를 대동사(代動詞)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동사 로서의 활용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의 대용 언(代用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용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배주채(1995)에서 ‘그러다’류의 활용 양상 및 사전적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항목으로 등재되고 이들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 발음 항목에서 제시되었다[8]. 그러니까 ‘그러다’류는 1990년대에 와서야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사정 이러했으니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어-불규칙이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어-불규칙도 ‘한글 맞춤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불규칙을 맞춤법 규정에 반영한다면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6) 어간의 끝 ‘ㅓ’가 ‘ㅐ’로 바뀔 적
그러다 : 그래, 그랬다

---

[7] ‘그러다’류가 ‘어’불규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油谷幸利 外 編)이었다. 배주채(2003)에서도 ‘그러다’류를 ‘어’불규칙으로 설명하였다.

[8] ‘그러다’ 항목의 발음정보 난에 ‘[그래, 그러니]’와 같은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이러다 : 이래, 이랬다
저러다 : 저래, 저랬다

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와 표준 발음법

현재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이 단순화되는 변화의 큰 흐름이 있다. 즉, 어간말의 자음군(子音群)은 단자음(單子音)으로, 격음(거센소리)은 평음(예사소리) 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서는 변화가 완료된 듯한 경우도 있다.

먼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7) ㄺ : 닭, 흙, 칡
ㄾ : 여덟
ㅄ : 값

이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고, 자음조사가 결합되면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8) 흙 : 흙이[흘기], 흙을[흘글] / 흙과[흑꽈], 흙도[흑또]
닭 : 닭이[달기], 닭을[달글] / 닭과[닥꽈], 닭도[닥또]
여덟 :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여덟과[여덜과], 여덟도[여덜도]
값 : 값이[갑씨], 값을[갑쓸] / 값과[갑꽈], 값도[갑또]

서울말에서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자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음조사가 올 때에도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흙이'를 [흘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흐기]로 발음한다든가, '닭을'을 [달글]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글]로 발음하는 예들이 많은 것이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속의 발음).

(9) 흙 :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 :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 :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넋 : 넋이[너기], 넋을[너글]
값 : 값이[가비], 값을[가블]

위의 (9)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어간들이 단자음을 가지는 어간으로 변화(재구조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0) 닭>닥, 흙>흑, 여덟>여덜, 넋>넉, 값>갑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는 어간말음이 격음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ㅋ'은 'ㄱ'으로, 'ㅍ'은 'ㅂ'으로, 'ㅊ, ㅌ'은 'ㅅ'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예들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11) ㅋ : 부엌
ㅌ : 겉, 밑, 밭, 솥, 팥
ㅍ : 무릎, 숲, 앞, 옆, 오지랖, 잎, 헝겊
ㅊ : 꽃, 낮, 돛, 몇, 빛, 숯, 윷

이들 체언어간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12) 부엌 :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솥 : 솥이[소치], 솥을[소틀]
무릎 :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 : 꽃이[꼬치], 꽃을[꼬츨]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 (12)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인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 부엌 :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솥 : 솥이[소시], 솥을[소슬]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위의 (13)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부엌, 솥, 무릎, 꽃'이 각각 '부억, 솟, 무릅, 꼿' 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4) 부엌>부억, 솥>솟, 무릎>무릅, 꽃>꼿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들의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이다.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격음이 평음으로 변하는 것은 다 같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변화(단순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들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단어들이라도 단어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르다. 예컨대 어간말음이 'ㅍ'인 '무릎, 오지랖, 앞, 옆'의 경우 '무릎'과 '오지랖'은 '무릅', '오지랍'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만, '앞, 옆'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무릎 : 무릎이[무르비] 58.4%, 무릎에[무르베] 63.1%
오지랖 : 오지랖이[오지리비] 74.7%, 오지랖에[오지라베] 65.25%
앞 : 앞이[아비] 5.6% 앞에서[아베서] 5.4%
옆 : 옆이[여비] 7.15% 옆에서[여베서] 5.35%

'앞, 옆'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 보고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앞이'를 [아비]로 발음하거나 '옆이'를 [여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과 '옆'은 거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체언어간은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 이미 어간말 'ㄷ'이 모두 'ㅅ'으로 변하는('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6) 몯(釘)>못, 붇(筆)>붓, 벋(友)>벗, 곧(處)>곳

이러한 변화는 'ㄷ' 받침을 갖는 체언의 모든 단어에서 예외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에는 체언으로서 어간말음이 'ㄷ'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간말음이 'd, t'인 단어를 음차(音借)하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d, t'를 'ㄷ'이나 '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robot'을 '로볻'이나 '로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봇'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이다. 로봇이[로보시], 로봇을[로보슬]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간말 'ㄷ>ㅅ' 변화를 겪은 한국어 체언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체언어간에서만 나타나고[9] 용언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인 체언어간과 비

[9] 'ㄷ>ㅅ' 변화는 부사 '몯'에서도 일어났다. 몯>못

자립형식인 용언어간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5.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정책

앞에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변화 몇 가지와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 와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한국의 어문규범이 제정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어서 어문규범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들 변화 중에 어떤 것은(예컨대 어-불규칙이 새로 생겨난 것) 어문규범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같은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모음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맞춤법 규정 속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모음계어미 활용형을 '그래, 그래라, 그랬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규범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언젠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어문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어문규범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언중들이 암묵적으로 현실 언어 상태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체언어간 말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변화는 어문규범에 받아 들이기가 어려워서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표준발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중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변화까지를 어문규범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현실을 받아들여 '닭, 흙'을 '닥, 흑'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부엌, 무릎, 솥, 꽃'을 '부엌, 무릅, 솟, 꼿'으로 표기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문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10].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

[10] 예외적으로 이러한 변화(체언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를 발음상으로는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한 가지 있다. 'ㅊ,ㅋ,ㅌ,ㅍ'의 자모 이름에 모음 조사가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이 발음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치읓이[치으시], 키읔이[키으기], 티읕이[티으시], 피읖이[피으비]

6.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를 가르친다. 표준어는 온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외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표준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준어란 규범에 맞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흔히 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의 (17ㄱ)이나 (18ㄱ)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17ㄴ)이나 (18ㄴ)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은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입에 익은 평소의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17ㄱ) 흙이[흘기], 흙을[흘글]　　(17ㄴ)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이[달기], 닭을[달글]　　닭이[다기], 닭을[다글]

(18ㄱ)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18ㄴ)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이[꼬치],　꽃을[꼬츨]　　꽃이[꼬시],　꽃을[꼬슬]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과 발음도 스스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현실 한국어(자연스러운 일상의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인지,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준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어떤 분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닭이, 닭을', '무릎이, 무릎을', '꽃이, 꽃을'의 발음을 열심히 '[달기], [달글]', '[무르피], [무르플]', '[꼬치], 꼬츨]'로 가르쳤는데, 서울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더니 '[다기], [다글]', '[무르비], [무르블]', '[꼬시], 꼬슬]'로 발음하면서 서울에 갔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발음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

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4),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도수희(1965), {그러나,그러고…/그러니,그러면…} 等 語辭攷,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 문학회.

박창해(1946), ≪쉬운조선말본≫, 계문사. (역대한국문법대계 1-65)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송철의(1996),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글사랑≫ 창간호, 한글.

송철의(2004), 'ㅎ'불규칙과 '어'불규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조선어 연구회(일본).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수정판), 신구문화사.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한성도서주식회사. (한국역대문법대계 3-20)

최명옥(1988), 불규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ə-, ɛ(jə)-, h- 불규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1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국역대문법대계 1-44)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한국역대문법대계1-43)

최현배(1937), ≪우리말본≫ (초판),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최현배(1955), ≪우리말본≫ (깁고 고친 판), 정음사.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油谷行利 外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연재훈 (Yeon, Jaehoon) (jy1@soas.ac.uk)
런던대학교 소아스
(SOAS, University of London)

1. 들어가기

- 언어를 배우는 목적 (Cook 2008: 209ff)

- 외국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 언어 자체의 이해 (Understanding language itself)
- 인지적 훈련 (Cognitive training)
- 일반 교육적 가치 (General education values)
-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학습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as an academic subject)

- 교사는 언어 교수와 학습 목적 숙지해야.
-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언어교육에 대한 기본적 가정 (Cook 2008: 4ff)

(1) 전제 1: 교육의 기본은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다.
(2) 전제 2: 교사와 학생은 교실에서 제1언어(모어)가 아닌 **목표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전제 3: 교사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은 피해야** 한다.
(4) 전제 4: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를 **원어민화자**처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의사소통교육 vs. 문법교육

- 명시적 문법 교육도 1970-80년대 '의사소통 교육'의 위세에 눌려 변방으로 밀려 났다가 1990년대 '**형태중심교육**' (focus on form)이란 이름으로 부활.
- '문법'이란 용어는 아직도 **금기어**처럼 취급받고 있고 문법을 가르치더라도 문맥 속에서 가르치든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암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명시적 문법** 교육도 대학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 또 외국인 학습자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a) 한국어문법은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 문형, 덩어리**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어/아)서 :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려고 하다, -(으)ㄹ 수 있다, 등등)

(b) 한국어 문법은 형태 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이 될 수 있다. (기능중심의 한국어문법 체계 (한송화 2006))

2. (유럽) 대학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유럽의 한국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공과정**으로서 개설되어 왔고 그 역사도 아주 길다.

- **학문 목적**으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실용적 한국어 교육 과정과는 다른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 언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언어 교육의 목적.
- 한국학 전공 연구를 위한 도구 기능이나 통/번역 등이 학과의 특성상 중요시된다면 이에 따라 교육 방법과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언어는 **체계, 행위, 문화**의 3가지 측면이 어우러져 이루어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2) 언어 교육의 요소: 구조적 지식 (문법)도 필요한가?

-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구조적 지식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지만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지식 필요**.
- **정확성과 숙달도** 달성을 위해 문법 교육 필요. 다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하다.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하고 학습자의 교육 배경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야.
- 문법 설명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 문법 교육은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3) 교실 학습에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주어/목적어, 자동사/타동사, copula, 관계절 등등)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수록,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어 학습에서 문법용어를 사용한 문법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법용어를 사용한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일수록 문법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rg 1999: 99).

(4) 교실에서 학습자의 모어 사용 문제

외국어 교실에서는 목표어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문법이나 개념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5) 유형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가?

유형연습은 구두-청각식 교육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만, 교실 언어 수업에서 여전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연습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연습 방법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6) **번역** 연습은 필요한가?

번역 연습도 의사소통 방법론에서는 보통 기피하는 연습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인지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에게 번역 연습은 축지법적인 효과.

(7) **암기**는 언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 "주입식이나 공식적으로 '배워진'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암기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초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승자 2016 등).

(8) 학습자의 **실수**와 **오류**는 바로 고쳐 주어야 하는가?

-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 오류 수정의 방법이나 빈도는 학습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9) **교과과정**(syllabus)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문법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는 단계별 지식 축적식의 방법이 이용되고, 행위나 과제 중심 교과 과정에서는 문법 소개의 단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교수법에 따라서 교재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10) 한국어 **표준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 (Cf. English RP)

- 미세한 발음의 차이나 음운의 변별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맥에서 예측 가능하다. 특별히 어려운 발음의 음운 변별쌍을 가지고 모어 화자 같은 발음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 (예; 불:풀:뿔 등의 최소변별쌍)

- 학생들에게 개별적 음소에 대해서 발음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쿡(2008:8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11)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이션 Nation 2001: 16)

- 직접 학습법(설명, 정의, 사전 찾기 등)과 간접학습법(문맥, 활동을 통한 습득) 등 다양한 방법.

==========

*어휘학습과 관련된 근거없는 믿음 (myth) (Folse 2004)

신화 1: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신화 2: **의미장**(semantic sets)으로 단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

신화 3: **단어 번역**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신화 4: **문맥 추론** 방식이 효과적이다.

신화 5: **단일어사전** (monolingual)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믿음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cf. Iwasaki (in press))

(12) 언어 교실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강현주 2014, 배재원 2011, 박정미 2015, 최준식 2012 등 참고)

-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을 통해서 **암묵적/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 문화 내용 전달에 치중하여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언어교육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에 주의.

- 객관적이고 문화 보편적 자세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화 민족주의나 근거 없는 문화 우월주의, 혹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거부감 유발.

- 문화교육을 위해 **문화 교수요목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 기술하는 방법도 얼마나 논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깊이 있는 문화 수업은 언어 수업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1. 효과적인 언어교육 (Littlewood 2013)

1. **절충**적 방식
2. 의사소통적 방식과 기술을 전통적 방식에 **통합**
3. **목표어**를 많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시
5. 학습자의 **자연적** 학습기회 중시
6. 학습자의 **무의식적**/자동적 학습뿐만 아니라 **의식적** 지식도 중시
7.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도 중시
8. 규칙뿐만 아니라 **숙어 표현** 등도 중시
9. 학습자의 **모어**를 교실에서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

-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학습 방법으로는 문법 설명과 번역, 묻고 답하기를 통한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한 언어습관 형성, 행위나 과제 수행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보통 대학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학문 목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학습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절충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과 교재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절한 교재 선택의 문제

1. 충분한 문법 구조 설명 부족
2. 현지어 교재 부족
3.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재 개발 필요

- 완벽한 교재는 없다.
- 학생의 수용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보충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

3.1. 필자가 집필한 영어권 한국어 교재

-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Lee, Park and Yeon) 2005. (UHP)

- Elementary Korean, Continuing Korean, Advanced Korean (King & Yeon et. al) 2000/2002/2015. (Tuttle)

- Complete Korean (Vincent & Yeon). 1997/2014. (TY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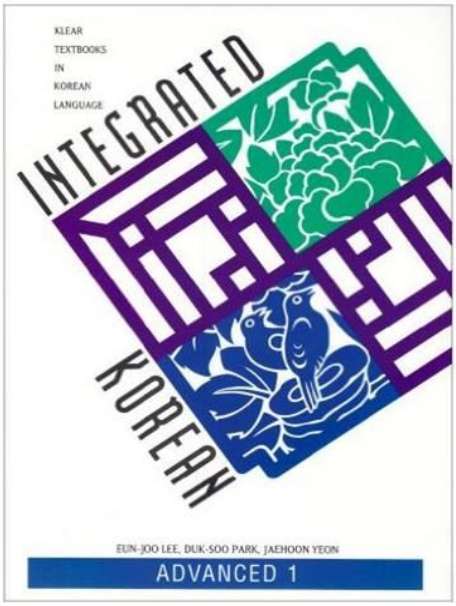
- Get Started in Korean (Yeon, J). 2014. (TY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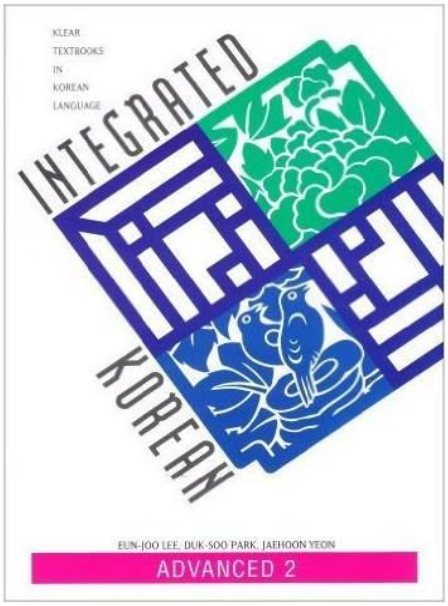
-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Yeon & Brown) 2011. (Routledge)

-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Yeon, Kiaer, & Brown). 2013.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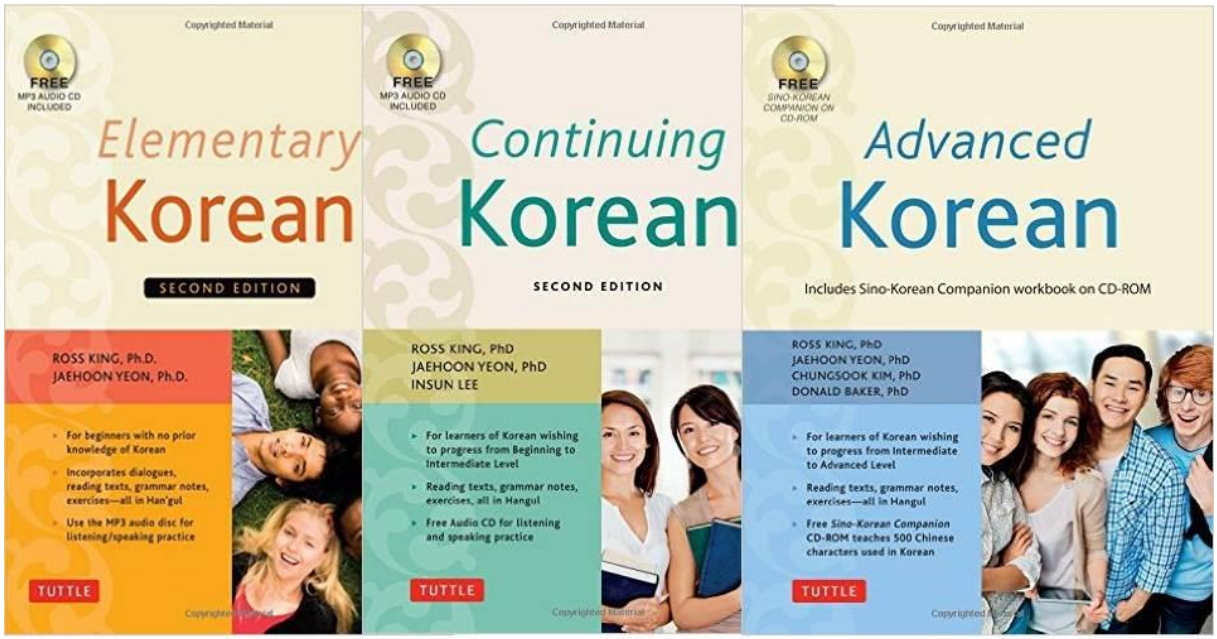
-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Brown & Yeon). 2016. (Routledge)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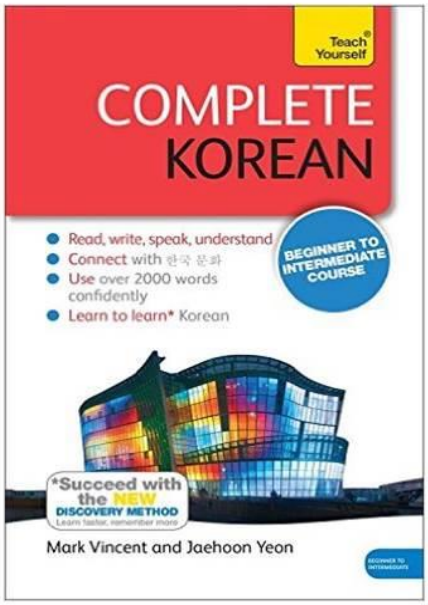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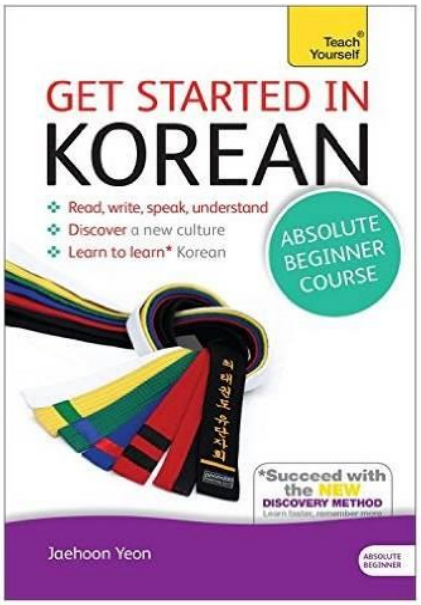


Elementary/Continuing/Advance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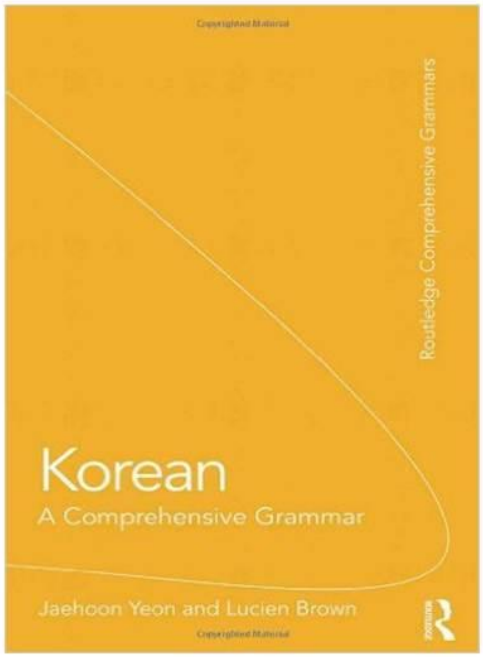


Complete Korean/ Get Started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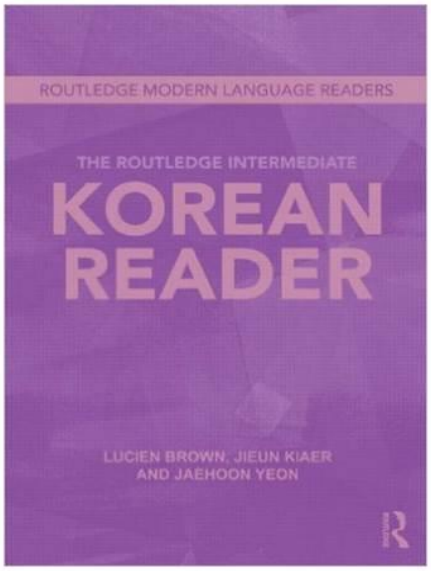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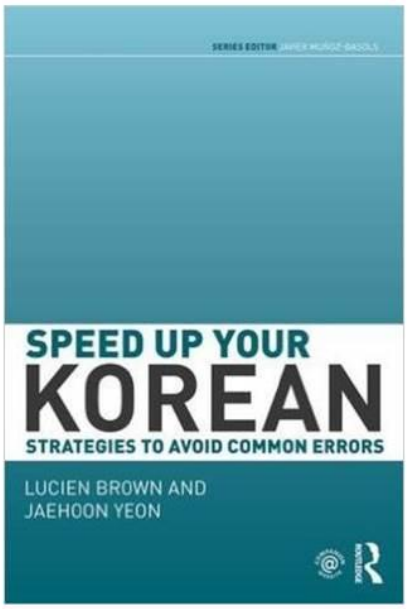
Korean: A Comprehensive Korean



The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3.2. 교재를 만들면서 고려할 사항들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교재인가?
2. 언어 교육이 목적인가, **문화 교육**도 포함시킬 것인가?
3.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인가, 체계적인 **구조 문법** 중심인가? 혹은 **과제 중심**인가?
5.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6.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칠 것인가?

7.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8. **순서** 및 **배열**의 문제:
    8.1 빈도수
    8.2. 축약형(입말)과 원형(글말)
    8.3. 격식(합니다)체와 비격식(해요)체
    8.4. 반말의 도입
    8.5. '이다' 동사와 일반 동사
9. 동사의 소개와 **불규칙 동사**의 접근 방법
10.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문제
11.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서", "-니까",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한국어 교재에서 존대발/반말 사용의 문제 (Brown 2010)

1. 제한된 사회적 문맥만 제시: 대화의 60% 이상이 친구 사이의 대화. 다양한 상하관계의 대화 환경 부족.
2. 교재 대화는 대부분 존대말 (87.6%): 해요체 (59.3%), 합니다체 (28.4%) → 실제상황과 괴리
3. 반말체 부족: 대부분 중급 단계에서 도입, 한 두과에서 소개.

4.1. 유럽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개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유럽 대학교> (2016년 현재): 약 25개국, 60여개 대학

독일(9), 프랑스(8), 영국(5), 이태리(3), 스페인(3), 폴란드(3), 터키(3), 체코(2), 헝가리(2), 핀란드(2), 오스트리아 (2), 루마니아(2), 아르메니아 (1), 아제르바이잔(1), 벨기에(1), 불가리아(1), 덴마크(1), 조지아(1), 아일랜드(1), 리투아니아(1), 마케도이나(1), 네델란드(1), 슬로베니아(1), 스웨덴(1), 우크라이나(1),

4.2. 영국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북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서 개설 대학의 숫자나 수강 학생의 숫자에 있어서는 적지만, 한국학이 단독 **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런던대학 **소아스**, **셰필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학사, 석/박사 학위가 주어지고, **센트럴 랑카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4개 대학 중, 런던, 셰필드, 센트럴 랑카셔 대학 등 3개 대학이 학위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의 언어 실습 과정을 요구.

- 영국은 한국 이민의 역사가 북미 대륙만큼 오래지 않은 관계로, 영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북미에서와 같이 학생의 다양성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계승어 학습자와 비계승어 학습자 사이의 수준 차이 문제는 없다**. 영국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1. 영국 내 **표준 교육과정**이 있는가?

- 영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의 관여나 **국가주도의 표준 교육과정 제정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
-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재, 교육 방법 등은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현장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 **교수학습 원리**

-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한 구두 청각 교수법과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한 '**절충적 통합 교수법**'
- 필자가 아는 한 온전한 의사소통중심/과제 중심 교수요목에 근거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나 교재 개발은 아직 없다.
- 런던대학의 한국어 교과과정은 문법 교육 없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4.3. 유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정리

- 유럽 지역 대학들의 한국어/학 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2000년 개설)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유럽 주요국가들의 한국학 역사는 1960년대 길게는 1940년대까지.

-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깊이 있는 교육.

- 한국 대학과의 **교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학 전공을 위한 문법-독해 중심의 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대학의 교환과정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식 교육 방법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법 구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초급 과정의 **교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를 병용하는 대학들이 많고,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각 대학 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교과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국어 **교수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인이 많지만, 독일과 동유럽 등 그 외 유럽 지역은 현지인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의 전공은,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나 문학, 정치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5.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등장
- 한국어 사용인구: 12-13위,
-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순위??
- 지난 10년 사이 TOPIK 응시인원 증가: 비자 취득의 필수 조건. 서양의 응시 인구는 아직도 소수.
- 서양 대학에서 한국어: 아직도 **one of less widely taught languages**

The ten most used internet languages today

(C. Kim 2015:66):

1) **English: 55.7%**
2) **Russian: 6%**
3) **German: 6%**
4) **Japanese: 5%**
5) **Spanish: 4.6%**
6) **French: 4%**
7) **Chinese: 3.3%**
8) **Portuguese: 2.3%**
9) **Italian: 1.8%**
10) **Polish: 1.7%**

……..

18) Korean (Hangul): 0.4%

5.1. 한글의 세계화?

- 찌아찌아 사람들(인도네시아 부탄섬)의 한글 사용?
- 왜 로마자가 아니라 한글인가?
- 한글은 외국어를 표기하기에 완벽한 글자인가?
-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영어의 소리:
  /p/ : /f/ : /v/ -- pan : fan : van
  /s/ : /z/ -- seal : zeal
  /θ/ : /th/ -- thank : this
  /l/ : /r/ -- light : right etc.
- 한글세계화의 윤리적 문제 (김진우 2015)

한국어는 국제어나 세계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The top languages studi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3

	Language	Enrollments	Change since 2009
1)	Spanish	790,756	-8.2%
2)	French	197,757	-8.1%
3)	American Sign Language	109,577	+19.0%
4)	German	86,700	-9.3%
5)	Italian	71,285	-11.3%
6)	**Japanese**	**66,740**	**-7.8%**
7)	**Chinese**	**61,055**	**+2.0%**
8)	Arabic	32,286	-7.5%
9)	Latin	27,192	-16.2%
10)	Russian	21,962	-17.9%
11)	Greek, Ancient	12,170	-35.5%
12)	Hebrew, Biblical	12,551	-8.7%
13)	Portuguese	12,450	+10.1%
14)	**Korean**	**12,229**	**+44.7%**
15)	Hebrew, Modern	6,698	-19.4%
16)	Other languages	40,059	-2.6%
	Total	1,562,179	-6.7%

5.2.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한 요인들

1) 한국문화의 인기 (한류, 케이팝 등)
2)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3) 한국정부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지원
4)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장려 정책
5) 한국인의 역동성

5.3. 문제점과 제안

(1) 한국 정부의 지원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
(2) 세종학당 예산 부족
(3) 한류, 케이팝 보급 등 문화 교육/전파는 중립적이고 젊잖게: 국가홍보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4) 애국주의를 넘어서야: 대학의 한국학과는 한국 홍보 단체가 아니다.
(5) '한국어 세계화' 등 비현실적 구호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교육, 지원 필요.
(6) 의사소통방식, 과제중심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정확성을 위한 문법교육에 오면 내실있는 교육이 부족한 듯: 문법구조 교육도 필요.

6. 당면 과제

(1) **한국어 연구와 교육의 차세대 양성 문제**

-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유럽 현지인 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응용) 언어학 분야의 박사 연구생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전임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 교수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 언어교육은 강의 전담 교수들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유럽 현지인 연구자를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현지 대학의 지원을 당분간 확대해야 한다. 한국어학 교수직이 개설되었을 때 그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3) **한국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 문제 및 언어교육자의 지위 문제**

- 한국학 안에서 한국어학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학 전임 교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강의 전담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 교육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독자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 증가**

- 한국학 연구의 기반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 학습만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 디플로마 코스 등 개설,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에서 집중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5) **한국어 교재 문제: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의 부족**

-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를 제외한 다른 유럽 학습자들을 위한 현지어 교재들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지어로 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재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한국학 분야별 연구자의 질적-양적 성장의 문제**

-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정인원' (critical mass) 확보 문제를 고민할 단계.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학 연구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중국학, 일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국학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현격한 차이. 중국학, 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7) **한국학 분야별 균형의 문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문학 내에서 역사 및 문학 및 어학, 전근대 및 근대 역사/문학/언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의 균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국학의 분야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북미 한국학과 유럽 한국학의 전통이나 현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서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수효가 부족하고, 반면 전근대 역사 전문 연구자들이 북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8)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론과의 갈등**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은 보통 지역학으로 개설되어 있고, 가끔 사회과학, 언어학 등 이론 학문과 방법론 등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학과 이론 학문의 긴장 관계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한국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9) **학부 과정 전공 학생 수의 문제**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한류나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인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학의 관심을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

(10) **한국 문화 교육과 전파의 문제**: 점잖고 문화 중립적 태도 유지. 한국학과는 한국 문화 홍보 학과가 아니다.

References

Brown, Lucien. 2010. Questions of appropriateness and authenticity in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honorifics in textbook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Culture & Curriculum* 23/1: 35-50.

Choi, Seungja. 2016. A New Paradig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2, No.1.

Cook, Vivian 2008.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Fourth Edition). London: Hodder.

Folse, Keith S. 2004. Vocabulary myths: Applying second language research to classroom teaching.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Iwasaki, Noriko. In press. L2 Vocabulary Teaching: Debunking Pervasive Myths.

Kim, Chin W. 2015. Three notes on globalisation of hangul. Proceedings of 12th ISKS Conference.

Kim, Minju. 2000. What you did not learn in the classroom but what you will hear frequently in real conversation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317-329.

Kim, Suhee. 2005.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America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King, Ross. 2005.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Anglophone learners.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2. Seoul: Hankwuk Munhwasa.

-------. 2007.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language: Preliminary thoughts. ms.

Littlewood, W. 2013.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ich way ahead? http://www.eltchina.org/wzw/kindeditor/attached/file/20130725/20130725112633_3073.pdf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UP.

Sohn, Homin. 2005. Tasks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Worldw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Wang, Hye-sook. 1999. Speech Ac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Representation and Authenticit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1: 195-220

Yeon, Jaehoon. 2008.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uropean universities [in Korean] EAKLE website: http://www.eurokorean.org

Yeon, Jaehoon and Lucien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강현주(2014). "해외 거주 한국어 초급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7: 1-24

박정미(2015). 다문화 소통 맥락 중심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재훈 (2015). "유럽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제1권 2호: 1-32.

최준식 (2012)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What Is Teaching Culture? "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1호: 271-285

한송화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 형식 문법에서 기능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남천의 장편소설 『대하』의 시간구조 고찰

최미란
(절강월수외국어대학)

1. 현대소설과 시간구조의 방법론

1) 현대소설 시간구조의 서사론적 이해

시간은 철학적 문제인 것만큼 형이상학적 인식론에 대한 성찰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찰에서 베르자예프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시간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자연과 사물의 무한한 반복을 가리키는 우주적 시간, 직선적이고 선조적인 흐름, 즉 국가와 문명과 종족들의 경과를 말하는 역사적 시간, 딜타이(Dilthey), 짐멜(Simmel), 베르그송(Bergsong) 등에 의해서 직관된 창조적 시간 혹은 비약으로서의 시간개념과 연관을 가지는 실존적 시간이 그것이다. 세 번째 범주의 시간은 하이데거에 의해 '모든 존재 의미의 현상학적 지평'이라고 규정되는 존재론적 시간이기도 한, 실존의 절대적 근거로서의 시간을 가리킨다.[1]

이러한 철학적 시간은 주로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에 결부시켜 연구하게 된다. 때문에 시간을 논의할 때는 시간을 구성하는 인간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로 주어진다. 큄멜은 '시간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자유와 의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2]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성을 띠게 된다. 이것은 객관적 시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가치기준에 의한 시간평가를 말한다. 베르그송은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지속이든지 경과로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인간이 시간을 지속으로 경험하던가, 아니면 경과로서 경험하던가는 아무래도 좋은 문제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쪽의 시간경험을 가질 것인가에 의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본질적 국면이 드러나 그 시간경험이 결정적인 자기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3]

이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문학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서술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서사에서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시간의 개념 및 인식의 편차와 역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작가가 시간이라는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혹은 이야기된 시간과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리 시간과 담론시간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를 문제삼는

---

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p.271.
2 큄멜, 권의무 역, 『时间의 概念과 构造』, 계명대출판부, 1986.p.165.
3 큄멜, 권의무 역, 『时间의 概念과 构造』, 계명대출판부, 1986.p.19.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는 시간을 길거나 혹은 짧게 묘사할 수 있는바, 시간을 빠르거나 천천히 흐르게 할 수 도 있고 중단되거나 혹은 중단되지 않게, 순차적으로 혹은 비순차적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히그던은 서사시간을 사건의 서술순서에 따라 전진적 시간구조, 역진적 시간구조, 복합적 시간구조 등 세가지로 나누었다.

시간문제를 검토할 때 서사학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쥬네뜨를 들 수 있다. 그는 서사 내의 시간관계를 순서, 지속, 빈도로 구별하였다. 순서는 사건의 발생 시간을, 지속은 그 사건이 얼마동안 발생했으며, 빈도는 어느 정도 자주 발생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하는 것이다. 그의 구분에서 '순서'는 텍스트-시간과 스토리-시간 사이에서 시간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어 소급제시(회상, 과거)와 사전제시(예상, 미래)를 시간조작으로 주요 동인으로 생각하여 사건과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사시의 수치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지속은 스토리 시간과 서술시간의 길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스토리 시간과 서술시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스토리 시간이 서술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짧을 수도 있다. 즉, 서술시간 즉 담론시간이 0이면 생략으로, 담론시간과 이야기 시간이 동일하면 장면으로, 담론시간이 이야기 시간보다 길면 연장으로, 이야기 시간이 0이면 휴지로 나눌 수 있다.

빈도는 한 사건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회수와 그것이 텍스트 속에 서술되는 회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쥬네뜨는 빈도를 단회서술, 중첩반복, 유추반복으로 구분하였다. 단회서술은 한 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 이야기하거나 혹은 N 번 일어난 사건을 N 번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중첩반복은 한 번 일어났던 일을 N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반복은 N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일상적인 습관이나 태도를 말할 때, 또는 어떤 한 집단 내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순환적인 성질을 암시할 때 많이 사용한다.[4]

쥬네뜨는 '시점'이라는 '보여주기'와 '말하기' 양자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비초점 서술' 혹은 '제로 초점화로 된 서술'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지적 서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내의 한 인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서술된다. 두번 째 유형은 '내적 초점화'로 서술의 초점이 한 인물에만 한정되어 세부적인 인물의 경험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 세 번째 유형은 '외적 초점화'로 초점화가 텍스트 외부에 있다. 현대소설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은 단일하게만 서술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2) 현대소설 시간구조의 해석학적 이해

리쿼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 11서에 담긴 '시간성'을 해석하면서 정신의 [5]

[4] Genn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Pp.84-90.
[5]

‘긴장’과 ‘이완’으로 그 시간성을 이해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그것이 흘러가는 때라는 논제를 되살리는바,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도, 연장을 갖지 않는 현재도 아닌 흘러가는 시간들이기에 바로 그 흘러감 자체, 지나감 속에서 현재의 다원성과 그 찢김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시간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 아닌 정신적이고 현상학적인 시간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정신적 체험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코;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에도 순수한 현상학은 존재하지 앟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은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체험한다는 것이다.[7]

리퀘르는 현재의 시간을 중심축으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현재는 지나가는 중으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현재란 이제 어떤 점, 더구나 흘러가는 어떤 점이 아니며, ‘현재의 긴장’인 것으로서, 그것은 현재를 통한 능동적인 이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지 지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긴장은 미래를 줄여 과거를 늘리면서, 미래를 다 서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과거가 될 때까지 미래를 과거 속에 흘러가게 한다. 분명, 현재를 통한 미래의 과거로의 움직임이라는 준공간적인 비유가 소설된 것은 아니다. 기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정신’이 없다면 줄어드는 미래도 늘어나는 과거도 없을 것이다.[8]

리퀘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발견이 더없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시간의 연장을 정신의 이완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세 겹의 현재의 한가운데, 즉 미래의 현재와 과거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균열과 그 이완을 연결시킨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다림, 주의력, 그리고 기억의 지향점들이 이루는 화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다.[9]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체험된 시간은 불협화음을 이루고 균열된 시간의 체험이다. 균열은 무의미와 혼돈을 의미한다. 그는 이것을 ‘이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균열과 혼돈과 불협화음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다. 이러한 의지에 따른 체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의 ‘긴장’을 다시 체험하게 한다. 때문에 인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긴장과 이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서사의 많은 작품들은 기다림, 직관, 기억의 정신적 체험이 일관적인 흐름을 갖는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뒤흔들며 이완의 상태로 끌로 가려는 것이다. 이는 서술 순서가 뒤바뀐다든가 다양한 층위에서의 서술자의 발화, 심지어 사건의 급격한 감속이나 가속을 통해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을 때도 정신적 이완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완은 서사의 지연, 우회, 중단 그리고 사건의 계속적인 추구를 더디게

[6]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1999. p.52.
[7]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1999. pp.28-80.
[8]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1999. p.57.
[9]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1999. p.61.

만드는 전략을 통해 드러나는 정신적 체험을 일컫는다고 하겠다.[10] 그러나 아무리 서사가 이완되었다고 해도 결국 최종목적은 긴장을 이루는데 있다. 이완, 긴장의 과정을 거쳐 독자를 결말로 이끌어가는 작가야말로 서사구성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작가임에 틀림없다.

3) 현대소설 시간구조의 서사론과 해석학의 결합

본고는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느냐,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느냐, 혹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을 뒤섞어서 서술하느냐에 따라 서사시간을 전진적 시간구조, 역진적 시간구조, 복합적 시간구조로 나눈다. 이러한 서사적 구분에 따라 세부적인 시간분석은 쥬네뜨의 순서, 지속, 빈도 등 구분에 따른다. 서사분석을 위한 쥬네뜨의 결정의 세 기본 분류는 '시간', '서술전략', '서술자의 음성'이다. 이 가운에서 '시간'의 범주는 순서, 지속, 빈도로 도식화된다. 그는 형식의 측면에서 스토리의 시간과 담론의 시간을 살핀다. 스토리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와 서술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어떻게 다른가, 둘 사이에서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는 어떤가, 둘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수는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틈새를 비집어 본 것이다.[11]

본고에서는 이야기나 정보가 서두에서 결말로 순차적으로 제시되면서 결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통합성을 추구한다면 긴장의 효과 즉 화음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이야기나 정보가 서두에서 결말로 순차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결말에 가까울수록 산만해진다면 이완의 효과 즉 불협화음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음 지속의 측면에서 볼 때,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회상, 예시 등에 의해 서사가 중단되거나 중핵사건보다 위성사건이 더 많이 서술되는 경우에는 이완의 효과가 발생되며, 그 반대는 경우에는 당연히 긴장의 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진적 시간구조에서 '반복서술'이 적으면 적을수록 긴장이 되고 반대로 '반복서술'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발화관점에서는 전진적 시간구조에서 초점의 가변성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 이완의 효과가 발생하여 불협화음을 초래하며, 반대로 초점의 가변성이 적으면 다시 말하면 단일초점인 경우에는 긴장의 효과가 발생하여 화음을 초래하게 된다.

2. 김남천의 장편소설 『대하』의 시간구조 양상

2.1 전진적 시간구조의 양상

김남천은 일제 말 암흑기 즉 1935년 카프가 해체된 후, 침체된 장편소설의 위기를 타개하고 전형적 정황을 획득하기 위한 소설적 과제를 가족사소설이라는 장르적 실천을 통해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 시기 소설들을 일반적으로전향소설이라고 지칭한다. 전향소설이란 일반적으로 "전향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전향 문제를 다룬

[10]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2』, 문학과 지성사, 2000. p.105.
[11] 송명희,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 사상, 2007. pp.138-139.

작품 또는 전향 문제를 주요 제작 동기로 한 작품의 정의"[12]한다. 그러므로 김남천의 장편소설 『대하』(1939)는 후속 작품『동맥』과 함께 로만개조론[13]의 전개과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사소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1930년대 후반에 제기된 장편소설개조론에는 김남천의 로만개조론 외에도 임화의 본격소설론, 백철의 종합문학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설론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친 반면에, 김남천의 로만개조론은 장편소설의 창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독보적인 위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장편소설 『대하』는 갑오농민전쟁(1894)년부터 1900년대까지, 약 30년간을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두뭇골의 신흥부호의 가족사를 다룬 대하장편소설이다. 본 논문은 구조적 특성의 하나인 시간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반 작품은 412페지로 구성된 장편소설로서 그 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1890년대 두뭇골에 정착하게 된 박성권 집안의 내력과 박리균의 집안 내력에 대해 설명.

(1회, 현재, 요약)

2) 형선과 보부의 혼사와 봉건적 결혼의 폐습(2회, 현재)

3) 결혼 풍속(2회, 현재)

4) 혼인에 대한 보부의 심경(3회, 현재)

5) 형선의 혼인상황을 알게 된 후 형결의 착잡한 심경(4회, 현재, 과거)

6) 형걸과 쌍네의 애매모호한 관계 및 쌍네의 과거(5-6회, 현재, 과거)

7) 쌍네의 결혼경과와 두칠에 대한 불만(6회, 현재, 과거)

8) 단발풍속과 대회준비(7회, 현재)

9) 형준의 결혼 과정과 아내와의 관계 및 쌍네 집 찾아가는 장면(7회-9회, 현재, 과거)

---

[12] 김유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5.p.161.

[13] 김남천의 창작방법론의 전개 양상은 고발문학론, 모랄론, 로만개조론, 관찰문학론 등이다. 카프가 해체된 후 외부 정세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치주의 청산의 길을 강요당하게 되면서 '고발문학론'을 제기하게 된다. 고발론은 자기 비판, 자기 고발의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작가의 내면심리의 표방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된다. 주관성에 빠진 고발문학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모랄론을 제기하게 된다. 김남천은 과학과 예술을 비교하면서 둘의 목적은 다 같이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진리가 일단 인정된다면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모랄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모랄론'의 은 프랑스 문학의 전통인 '모랄리스트'에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모랄리스트란 프랑스 문학사에 있어, 인간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관찰하거여 인간에 대한 어떤 초상을 그려내거나 그 내부를 탐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규범과 행동의 기준을 주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몽테뉴, 파스칼, 라 로슈푸코, 라 브류이에르, 보브나르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발문학론은 창작방법을 문제 삼는 것이었는데 비하여 모랄론은 세계관을 더 문제삼는 것이었으므로 오히려 관념론적인 성격만 짙게 만들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창작방법론에 어울리지 않아 풍속론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풍속개념을 문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 가족사, 연대기소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만개조론이다.
(김유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5.p.161.
송면, 『프랑스 문학사』, 일지사, 1971. pp.151-152.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 1937.10.19-10.23.
김남천, 「일신상 진리와 모랄-자기의 성찰과 개념의 주체화」, 조선일보, 1938.4.7-4.24.
김남천, 「현대조선소설의 이념-로만개조에 대한 일작가의 각서」, 조선일보, 1938.10-9.18.
김남천, 「세태와 풍속-장편소설개조론에 논함」, 동아일보, 1938.10.10-10.25.)

10) 박참봉의 소실 윤씨의 과거 및 박참봉과의 결혼 과정(9회, 과거)
11) 기독교를 통한 개화사상의 전파(11회, 현재)
12) 형걸과 기생 부용과의 만남(11회, 현재)
13) 봉건양반가 박리균가의 변모와 나카니시 상점의 흥성(12회, 현재)
14) 형준의 도박 실패와 쌍네에 대한 검은 속내 드러냄(12회, 현재)
15) 기생 부용에 대한 애모의 마음과 불한당으로부터 부용을 지켜줌(13회, 현재)
16) 두칠 아내에 대한 형걸의 마음 및 형걸에 대한 보부의 서운한 감정(14회, 현재)
17) 단오행사 및 박리균, 김용구, 이칠성의 장사과정(15-16회, 현재)
18)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형걸 혼사 결정(16회, 현재)
19) 형걸의 깨달음과 새로운 진로의 모색(16회, 현재)

상술한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 작품은 1890년대 박성균 일가가 두뭇골에 정착하여 신흥부호로 상승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화기 세대 형걸이 혼인에서의 실패로 인해 깨달음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30여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서술하다시피, 본 논문은 기본적인 시간구조의 양상을 히그던의 구분을 중심으로 전전적 시간구조, 역진적 시간구조, 복합적 시간구조로 구분한다. 히그던에 구분에 의하면 이 작품은 사건에 대한 담론이 이야기 현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사건전개의 과정이 중요시되며 이 사건들이 결말에 가까울 수록 통합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진적 시간구조 양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사구조가 전진적 양상을 보인다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쥬네뜨의 순서, 지속, 빈도의 측면에서 작품을 상세히 분석하려 한다.

2.2 시간의 순서- 역전 양상

김남천의 장편소설『대하』는 가족사소설로서, 중심가족은 박성권의 가족인바, 중인 계층의 내력을 지닌 그의 가족의 흥망기와 개화기 세대 형걸을 통해 작품이 전개된다. 한편 가족사소설에서는 중심테마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심 가족과 대응하는 가족의 묘사를 통해 중심 가족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14] 이 작품에서는 박리균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대하』에서는 중심 테마인 '근대 자본주의의의 대두와 신흥 시민 계급의 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봉건 풍조가 몰락하는 기운'을 대변하는 제2의 가족으로 박리균가를 설정하고 있다.[15] 이러한 중심가족과 제 2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대하』를 살표보면, 시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아낼 수 있다. 주로 중심 가족인 박성권일가에 관련된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14] 중심가족(the main family)은 Yi-limg Ru의 개념으로, 그는 가족사소설에서 중심가족과 중심가족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제 2의 가족 (the second family)을 설정한다.
(Yi-limg Ru, op.cit, p.33)
[15] 이상화, 『일제말 한국 가족사소설연구』, 상명대 박사논문, 2003. p.38.

바, 이러한 시간 역전현상은 구체적으로 회상을 통해 드러난다.

윤씨는-- 그의 아이 적 이름은 탄실이었다--사실 열여섯 났을 때 순천 고을로 시집을 갔던 적이 있었다. 그의 친정은 자산 고을서 오 리 가량 시골로 들어간 곳에 있는 파평 윤씨로서, 처음은 집안도 훌륭하고 세간도 넉넉해서 행세하는 집안이었으나, 말년에 쇠운이 들어서 집안은 갑자기 기울어지고 역참이 잦아서 그만 말 아닌 형편이 되어 버렸다. 친정의 불운을 지니고 시집을 갔었던지, 그가 시집 가 반 년이 못 되어 새서방이 장마 났을 때 창말 앞으로 반두사냥을 나갔다가, 거센 물결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생략)…

친정에는 늙은 부모와, 올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는 연전에 상한으로 좀 앓다가 급작스레 죽어버렸다. …(생략)… 그러나 집안이 불편하려니 시우이, 올케, 두 과부끼리의 새가 또 그렇게 알뜰치를 못했다. 같은 팔자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갔으면 좋을 것이, 성격인가 성질인가가 서로 틀려서 하는 두들푸들하고, 또 하나, 탄실이는 나이 아직 열일곱이니 철인들 뭐 제대로 들었겠나마는, 포돌고리고 용졸거리는 편이어서, 같이 부엌에서 나돌다가도 가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략)…

박성권은, 그의 얼굴은 눈 붙여 보지도 않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누구 사정을 한가하니 듣고 앉았을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선친이 그럭허시다 세상을 떠나신 뒤, 내가 오죽하면야 이 모양을 하구서 남의 사랑을 찾아다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 조상을 했너니 안 했너니 따위는, 거야 말루 지내가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겠소. 나 역시 잔뜩 쇠운데 든 집안을 맡어 가지구 남의 구구한 사정인들 모를 리야 있갔쉥까. 아니할 말루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구. 그러니깐두루 조상을 오느니 뭐 이런 따위를 가지구야 어데 이러니저러니 할 건덕진들 되겠습니까.

…(생략)…

벌써 박참봉과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스무 해 동안, 물론 적지 않게 충돌이 일어났다든가, 불만이 있었다든가 한 일이 없진 않았다고 하여도, 영감이 그를 위하고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윤씨는 만족하여 그를 섬겨 오는 것이었다.[16]

비교적 길게 인용된 이 부분은 윤씨의 과거와 박성권과의 결혼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이 소설의 중심 서사와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회상부분이라 할 수 있다. 회상기간이 약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윤씨가 친정집안 상황, 첫번째 남편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낸 상황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고 윤씨와 박성권의 결혼과정 및 결혼 후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무제한적 전지적[17] 서술자이기 때문

[16]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p.220-248.

[17] 김천혜에 의하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무제한적 전지적 시점과 선택적 전지적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3인칭 무제한적 전지적 시점은 화자가 무제한의 초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바, 작중 인물의 마음 속에 들어감에 있어서 주인물과 주변 인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자는 무제한의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에 인물의 회상이라 할지라도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전지적 서술자의 권위가 상당히 큰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우선 윤씨의 어린 시절과 첫 번째 결혼 후 불행히 남편을 잃은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의 친정은 원래는 집안형편이 넉넉한 집안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세가 차츰 기울어져 갔다. 또한 윤씨가 결혼한지 반 년이 못되어 불의의 사고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살이를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윤씨가 박성권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안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서술자는 20년전 박성권이 윤씨를 첩으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박성권이 첩 윤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성격이 표출된다. 박성권의 부친과 윤씨의 부친은 원래 친구 사이였다. 박성권은 부친이 세상을 뜨자 윤초시에게 빚을 받으러 갔다가 지나치게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윤초시가 쓰러져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된다. 박성권은 소녀 과부가 된 윤씨의 사정을 알고 윤씨를 첩으로 맞이하기 위해 윤초시의 아내를 찾아가 거짓말을 한다. 빚 독촉을 한 내용을 모르는 윤초시의 아내에게 윤씨를 자기가 데리고 가서 잘 살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박성권은 결국 윤초시를 죽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여 윤초시의 딸까지 첩으로 삼는 비인간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윤씨의 친정과 박성권과 윤씨의 결혼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라르 쥬네뜨의 구분에 의하면 '혼합적 역전'[18]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의 시작은 두뭇골 밀양 박씨 두 집안을 소개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비해 역전된 이 부분은 이 작품이 시작되기전 몇 해 전인 윤씨가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과정부터 시작해서 윤씨가 박성권과 결혼한 후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 이것은 역전의 내용이 소설의 시작시점인 현재보다 먼저 시작되어 소설이 이미 시작된 현재까지도 계속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혼합적 역전'에 속한다. 이러한 혼합적 역전은 사건의 중점점 서사에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원인제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립없다.

에 3인칭 선택적 전지시점은 화자가 여러 인물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인물의 마음 속에만 들어가는 시점이다. 화자는 한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타인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자에게 이야기해줄 수가 없다. 말하자면 화자의 전지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주인물과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동일시의 환상을 쉽게 일으킨다.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pp.119-121.)

[18] 제라르 쥬네뜨는 역전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소설이 시작된 시점보다 앞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역전을 셋으로 구분한다. 첫째, '외적 역전'으로서 역전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소설이 시작된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경우다. 말하자면 역전의 내용이 소설 바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내적 역전'으로서 역전의 내용이 소설적 현재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혼합적 역전'으로서 역전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소설의 시작시점보다 먼저 시작되어 소설의 시작시점보다 후에 환결되는 경우다. 말하자면 역전의 내용이 되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소설 바깥에서 시작되어 소설 안까지 걸쳐 있는 것이다. (김천혜,『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pp.49-51.)

2.3 시간의 속도 - 멈춤 양상

『대하』의 담론시간을 '지속'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야기 시간의 길이가 30여년인데 비해, 전체 소설의 페이지수가 4백 페이지정도에 달해 담론시간이 별로 길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서사가 현재 즉 몇 개월간의 사건 서술에 집중되어 있어 담론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 시간과 담론시간의 불일치를 쉽게 보아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풍속 즉 결혼풍속, 단오 등 묘사에서 표현된다. 풍속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되는 부분에서 서술상의 감속이 너무 지나쳐 담론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한갓 되지 않은 생각을, 형준이가 두루두루 하고 있는 동안, 형선이는 소금으로 양추질을 하고, 더운 물에다 낯을 씻었다. 그리고는 옷보퉁이를 끌러서 흰 명주바지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도리 불수 조끼를 입은 뒤에, 삼성 버선을 한편으로 몰아쳐 신고 나서 옥색 대님을 질끈 졸라매었다. 훌쩍 일어나서, 장날 화장수한테 갓 사대 매었던 실로 땋은 허리끈을 뱀 사리듯 내동댕이치고, 전반처럼 넓게 접어 온 새 끈으로 바지 괴춤을 느즉하니 잡아맨다. …(생략)…

두루마기를 입고 난 뒤에, 다시 단령을 입고 사모를 쓰고 각띠를 띠었다. 이제는 사선을 들고 말안장 위에 올라앉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곧 출발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성복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뵌 뒤에, 다시 두루마기까지를 벗고 나서 그는 비로소 여태껏 굶었던 빈 뱃속에 아침밥을 넣었다. …(생략)… 신랑이 타고 있는 둘째 번 흰 말이나, 후행이 탈 갈색으로 팡파짐하니 다부지게 생긴 노새나, 안부가 탄 맨 앞에 자그마한 당나귀나, 모두 박참봉 제 집에서 친히 기르는 짐승들이다. …(생략)…

안방 윗간에서는 지금 막 큰 상을 들인다. 가운데 앉은 신랑의 상이 들어가고 양쪽에 앉은 두 사람 인접의 상이 들어간다. 절편, 증편, 이차떡, 조차떡, 설기떡으로 높직하니 다섯 목구가 높은 축대처럼 올라 앉았는데 흰 과실, 붉은 과실이 한 목구씩, 약과가 첨성대처럼 한 목구, 이 밖에 깨다식, 콩다식, 지짐, 산적, 행적, 파적, 사과, 배, 날밤, 대추, 빠진 거 없이 듬뿍이 쌓아 올렸다. 그 위에는 오색이 영롱한 갈꽃이 떨기씩 꽂히어 있다. 세 개의상이 가지런히 놓인 앞으로, 국수 그릇과 술잔과 은수저가 놓인 작은 상이 곁따라 놓였다.

…(생략)…

듬뿍한 숱진 머리칼은, 윤나고 향기 좋은 동백기름을 함뿍이 머금고, 까만 공단처럼 반뜩거린다. 이것을 성키성키 땋아서 뒤로 나지막하니 쪽을 짓고, 작은 비녀와 커다른 뚝절을 일직선으로 가로질렀다. 나래를 활짝 벌린 두 놈의 봉황이 입을 맞비비고 있는 장식이 노랗게 눈부시다. 칠보 족두리를 바르게 탄 흰 가리마 위에, 냉큼하니 가볍게 올려놓고 멀찌감치 눈을 떠어 바라보니, 그리 밝지 않은 불빛에서도, 금, 은, 유리, 마노, 파려, 진주 등이 영롱하게 반짝거려, 마치 하늘의 한 부분을 떠다 얹어 놓은 것 같다. …(생략)… 부리나케 웃음을 삼겨 버리고, 그대로 조심성 있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다. 연두회장 도리불수 저고리에 버선 바닥에까지 치렁치렁하는 노을처럼 붉은 홍치마다. 저고리 앞자락이 치마에 잇닿는 데서부터, 노리개며, 장두며, 치통이며, 호랑이 발톱이며 하는 갖은 패물이

연달아 매어달렸다.[19]

상술한 내용에서 보다 시피, 『대하』에서는 결혼 풍속이 서사의 중점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서사의 2장과 3장을 거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박성권가의 둘째 형선과 연안 정씨가의 처자 정보부의 혼사 내력에서부터 혼례 전야, 혼례 당일의 정경 묘사 등 결혼 풍속에 대한 세부묘사가 그려져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개화기에 거행된 상투틀기, 신랑신부 단장하기, 잔칫상 차리기, 그리고 신혼 첫날밤의 아들낳기 풍속, 신방 훔쳐보기 등이 행해지는 전통혼례는 눈여겨 볼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혼례단장은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것이지만 신랑과 신부 모두가 지루함이나 번거로움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 혼례는 인륜지대사라 성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무에 그에 수반되는 일종의 통과의례의 고통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 이는 김남천의 로만개조론 주장의 결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는 로만개조론에서 '사실을 사실 이상으로 세태를 세태 이상으로 현실을 현실 이상으로 파악하는데 의하여 풍속은 비로소 문학적 관념으로 된다'[20]면서 '세태'의 개념과 '풍속'의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사실을 직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실의 본질을 규명하여, 그 원인, 근거, 조건, 관계들을 밝혀서 받아들이는 매개된 지식'[21]으로서 '매개된 세태 즉 '풍속'으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김남천은 이런 창작방법론에 의해 이작품에서도 혼례풍속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풍습의 묘사는 점차 변형돼 가는 전통의 원형을 소설 속에서 복원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풍속 묘사가 무제한적 권위적 서술자에 의해 지나치게 장황하게 서술하다 보니 감속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전반 작품의 긴장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2.4 서사 빈도- 반복 양상

이 작품은 빈도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복서술이 많이 등장하는 편은 아니다. 지속의 측면에서 풍속묘사를 너무 상세히 묘사하여 감속 상황을 초래했지만, 반복서술 측면에서는 작품을 보충 설명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대체 자기는 그 원망스러운 총각 대신에, 어떠한 새로운 환영을 그려 보아야 한단 말인가. 키가 작다고 한다. 아니 자그마하다 했으니 채 작다는 것과는 다르다. 눈도 자그마하다고 말했다. 얼굴은 개르스름하고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도무지 사랑의 형상을 그려 볼 재주가 없다.[22]

2) 비록 바로 보지는 않았을 때에도, 얼굴 앞에서 허청태는 사나이의 키가 대충 얼마나 하다는

[19]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p.32-63.
[20] 김남천, 「현대소설의 이념 - 로만개조에 대한 일작가의 각서」, 조선일보, 1938.
[21] 『세계철학사전』, 교육출판공사. '매개'항목 참조.
[22]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56.

것은 눈어림으로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키가 큰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만히 품어 볼 수는 있었으나 제 눈으로 비록 짧은 군간이나마 바라본 사나이는 예상과 같이 사촌 오빠와 나팔을 끼고, 언젠가 구정물을 쏟을 때에 행길을 지나, 이화정으로 올라가던 그 총각은 아니었다.[23]

3) 스물두 살, 형걸이보다 그러므로 세 살이나 위이다. 그는 비로소 그의 앞에서 어려서부터 그의 집에 팔려 와서 잔뼈가 굵은 종간나도 아니요, 지금은 막서리 두칠이의 아내도 아닌 하나의 난만한 원숙한 여자의 육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붉게 큼직한 입술이 쭝긋쭝긋하고, 퀭하니 뚱그런 눈에는 꺼먼 그림자가 약간 어리어 있는 듯하다. 머리는 좀 흩어진 채, 흰 수건 뒤로 꺼먼 댕기의 꼬둘채가 늘어져 있다. 앞섶을 팽팽하니 여미어서 불룩하니 터져 오르는 젖가슴을 겨우 가누고 있다.[24]

4) 이 밤에 형선이는 얼마 전에 데려온 정좌수 딸과, 젊은 감격을 나눌 것이고, 두칠이의 처 쌍네는 오래간만에 해방된, 흠석하고 탐스러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강물쪽으로 향한 큰집 막간 좁은 한 칸 방에서 혼자 몸을 뒤채고 있을 것이다. 그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무 실러 간 남편 두칠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혹은 아무것도 새각지 않은 채, 뚫어진 창문 틈으로 숨어드는 달빛에,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가슴을 내맡기고 곤하니 잠이 들어 있을까.[25]

5) 형걸이는 언뜻 두칠이 처 쌍네가 지금은 부엌에서 뭘 하는가, 연자간에 있는가 물을 긷는가, 물에 나가 다리를 걷어 올리고 물 속에서 빨래를 헹구지는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다시 대운동회할 때든가 씨름터에 다른 이는 몰라도, 그는 구경 올 수 있으려니, 두루두루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고 …… [26]

상술한 내용에서 예문 1)과 2)는 내적 초점화로, 결혼날 보부의 심리를 통해 형선의 외모를 반복서술하였으며, 3), 4)와 5)도 역시 내적 초점화로, 형선과 보부의 결혼내력을 알게 된 형걸이 불만과 항거의 심리에서 출발하여 자기 집안 여종 쌍네를 탐하고 싶어하는 심심정을 반복서술하고 있다. 형선은 박성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밖에 지니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소망도 없이 가정의 화목을 원하는 성격으로 가부장적 봉건윤리를 잘 따르는 인물이다. 정보부는 형걸을 사모하지만 그가 서자라는 이유때문에 이복형 형선과 결혼을 하게 된다. 정보부는 형선을 정혀 사랑하지 않지만 집안끼리 정한 혼사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보부의 초점으로 형선과의 결혼에 슬퍼하는 심리를 잘 드러내 보인다. 또한 서자 형걸은 정보부와의 혼인이 파탄되자 쌍네의 몸을 탐하고

[23]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71.
[24]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p.100-101.
[25]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p.115-116.
[26]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121.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꿈에서도 쌍네를 생각하고 깨어나서도 쌍네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나중에 쌍네의 종의 신분, 형걸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루지 못한 욕구를 채우면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여 쌍네의 육체를 탐하려는 형준에 의해 틀키면서 쌍네와 형걸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비록 반복서술이긴 하지만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주로 내적 초점화의 각도에서 인물의 심리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반복과 요약, 장면 등 서술기법을 적당히 결부시키는 것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 발화자-불협화음에서 화음으로의 변화

형걸을 중심으로 한 『대하』의 전반부에서는 정보부를 둘러싼 형걸과 형선의 갈등이 진행되고, 후반부에서는 쌍네를 둘러싼 형걸과 형준의 갈등 및 부용을 둘러싼 형걸과 박성권의 갈등으로 서사가 전개된다.[27] 발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하』는 전지적 서술자의 제어 하에 발화가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의 애정 갈등은 주로 서자 형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중 인물-초점화자에 의한 내적 초점화가 이루어 지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권위적인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심리에 제한이 없이 모두 드러내 보이며, 특히는 풍속묘사 부분에서 너무 장황하여 담론시간과 서술시간이 동일시되지 않아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쌍네를 둘러싼 형걸과 형준의 갈등을 거쳐 부용을 둘러싼 형걸과 박성권의 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차츰 초점화가 형걸에게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 부용이는 어떻하고 앉았는가, 몸을 도사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요구를 좋은 말로 흘려 넘기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하고 앉았는가. 갓을 쓴 채, 술이 잠뿍이 취하여, 눈과 얼굴에는 이글이글한 정치 차서, 두 손으로 …… 형걸이는 얼굴을 문에서 떼고 등살을 폈다. 그는 가슴속에 이상한 격정이 끓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아버지는 치하셨다. 정신을 잃고 계시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려 보나, 가슴은 가라앉지 않는다.[28]
>
> 형식으로 보자면 형걸이는 결혼을 하든, 장가를 가든, 부영이의 애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당하고 보니, 형걸이로서 부용의 애정은 적지 않이 그의 행동을 견제하였다. 부용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형걸이 자신만은 부용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와 어엿하니 결혼생활을 이루어 보자면, 어떻게, 무엇부터 차비를 차려야 옳을는지 도무지 염이 나질 않았다.[29]

---

[27] 이상화, 『일제말 한국 가족사소설연구』, 상명대 박사논문, 2003. p.46.
[28]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p.408-409.
[29]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p.397.

형걸은 쌍네와의 관계에서 실패를 본 후, 기생 부용을 만나게 되고 정신적 애정을 느끼게 된다. 위의 부분은 형걸이 결혼문제, 쌍네와의 관계, 애정의 뿌리가 박혀버린 부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사람은 문교사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교회로 가는 길에 부용의 집을 먼저 들러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하는데 부용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놀라는 부분이다. 형걸은 애정에서 세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뒷부분으로 갈 수록 형걸의 내적 초점화에로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의 실패를 거쳐 후반부로 갈 수록 봉건적 결혼제도의 폐습과 개화사상에 대한 형걸의 깨우침이 더욱 강렬해 지기때문에 다양한 초점자를 내세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로 형걸에 대한 초점화로 차츰 집중된다. 때문에 작품은 이완에서부터 긴장으로의 순서 즉 불협화음에서 화음으로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단오풍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완벽한 화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결론

참고문헌:

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2. 큄멜, 권의무 역, 『时间의 概念과 构造』, 계명대출판부, 1986.
3. Genn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4.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 지성사, 1999.
5.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2』, 문학과 지성사,2000.
6. 송명희,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푸른 사상, 2007.
7.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8. 김남천, 『대하』, www.Nove121.com,

‘그림자’ 원형이론으로 본 현진건의 ‘빈궁문화’

김춘화

(연변대학교)

차례

I. 서론

II. 본론

1. 자비감

2. 파괴성과 맹목적 충동의 역량

3. 도덕적 충돌

III.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분석심리학의 '그림자'원형이론으로 현진건 8편의 '빈궁문학'을 조명했다. 현진건 '빈궁문학' 속의 인물형상이 보여준 '그림자'원형 분석을 통해 인물형상의 반항의식을 보여주므로써 '그림자'원형이 빈곤에서의 자아보호의식으로 전환되어 생활가운데의 모든 고민과 곤난과 맞서는 직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주제어: 현진건, 빈궁문학, 인물형상, 그림자, 원형

I. 서론

현진건(1900-1943), 호는 빙허, 본은 경주이다.[1] 김동인과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정초자, 염상섭과 한국 근대 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로 불리 우고 있다. 처녀작 <희생화>를 발표하고 <빈처>로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20여년의 창작생애에서 <운수좋은 날>, <불>, <고향> 등 20여 편의 단편소설과 <적도>, <무영탑> 등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1991.12, P.792

칼융(Carl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이다.[2] 융은 의식 가운데는 더욱 깊고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을 집단무의식이라 부르고 그 내용을 원형이라고 한다. 융은 무의식은 정상인의 꿈에 나타나고 신화, 종교, 예술 심지어 과학 등 기타 인류활동에서도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전부활동은 심리적으로 고찰하고 파악했을 때야만 상징의미가 있다고 한다. 융에 의하면 세세대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동으로 전승한 종족의 성질, 정감과 활동모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재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원형'은 각종 특수한 활동형식으로 표현되며 표현형식마다 원형과 상징성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상징은 자연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치도 체현한다. 융은 이런 내재된 미지의 인류 정신영역과의 연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의심할 바 없는 심리현상이라고 단정한다. 하여 융의 학설은 심리학 내부에서 신화, 예술, 철학 심지어 연금술, 원시토템의식과 종교의식 등 신비주의 요소까지 수용한다.[3] 복잡다단한 인격구조 및 그 변화는 인물의 성격, 행위동기를 형성하는데 특히 중요한 작용이 있다.

현진건과 관련된 연구사를 검토해보면, 당대 시대 배경을 위주로 사회생활의 궁핍 또는 민중의 불평등한 생활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으나 칼융의 분석심리학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다만 후에는 관점의 차이로 결렬했지만 한때는 칼융의 스승이였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 현진건 연구를 시도한 박해준[4]이 있을 뿐이다. 본고는 '그림자'원형이론으로 현진건의 '빈궁문학'을 고찰함으로써 현진건 단편소설의 심리모식을 규명한다.

Ⅱ. 본론

'빈궁문학'은 빈궁에 관련한 내용이나 소재를 다룬 문학, 우리나라(한국-필자 주)의 경우 1920년대 전기 일제 강점기에 극도의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소재로 하여 쓴 신경향파 소설이 이에 속한다. 빈민문학이라고도 불리운다.[5] 조남현은 현진건의 20여 편의 단편소설을 단편집 <조선의 얼굴>을 분기점으로 사랑의 문제를 다룬 것과 빈궁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대별해 보았다. 그리고 현진건의 단편가운데서 물질적인 면에서의 궁핍상과 정신적인 박탁감을 1920년대 한국인의 집단의식 혹은 세계관으로 환산하려 했음이 분명한 <불>, <사립정신병원장>, <고향>, <운수좋은 날>, <정조와 약가>, <신문지와 철창>, <동정>, <서투른 도적> 등 8편의 '빈궁문학' 작품을 '가난이야기'

[2] 高觉敷, 『西方近代心理学史』, 人民教育出版社, 1982.8, P.394
[3] 荣格等著, 张举文、荣文库译, 『人类及其象征』, 陆杰荣, 「荣格对人类心灵的探索（译序）」, 辽宁教育出版社, 1988.6, P.3-4
[4] 박해준, 현진건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론문, 1988
박해준, 현진건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1987
박해준, 현진건 초기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선청어문, 1988
[5]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중)』, (주)두산동아, 2000.3, P.3012

계열 단편소설로 확정했다.[6] 본고는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가난에 역점을 둔 이 8편의 단편소설을 고찰범위로 확정하고 분석한다.

그림자(shadow)는 인간성의 어두운 면, 인간성의 동물성적인 면을 가리킨다. 그림자 원형은 원시인류성격의 잔해로써 인류의 그림자원형은 항상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표현된다. 융은 개개인, 매개 집단, 매개 의식형태는 모두 자체의 어두운 면이 있다고 본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기대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반면, 인류의 무의식에는 그와 반대되는 어두운 면인 그림자가 자신이든 타인한테 보여 지는 것처럼 그럴 듯 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이 보여 지는 것보다 더욱 탐욕스럽고, 더욱 방탕하며, 더욱 질투하여 사람들이 치가 떨리는 죄행을 범할 수도 있다. 무의식가운데서 우리의 원초적인 공제받지 않은 동물성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다.[7]

사실상 그림자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같아 사람들은 분위기의 수요에 따라 그림자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순종도 하고 반항도 하며 사랑도 주는 것이다. 그림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림자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만이 그림자는 적의로 충만 되는 것이다. 그림자가 우리의 친구일지 적일지 많이는 우리 자신한테 달렸다.[8]

1. 자비감

'빈궁문학' 주인공의 생존조건은 빈궁상태에 처해 있어 평균이나 부유한 사람보다 현실에 적응하기 더욱 어렵다. 그들은 생활, 사회지위, 인간교제 등 면에서 저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형성되면서 자비심리가 생기는 것이다. <불>에서의 순이, <사립정신병원장>의 W군, <고향>에서의 동양 삼국(한국, 중국, 일본-필자 주) 옷을 한 몸에 감은 동포, <운수좋은 날>의 인력거꾼 김첨지, <정조와 약가>의 젊은 부부, <신문지와 철창>의 노인, <동정>의 '나'와 차부, <서투른 도적>의 황해도 할멈은 식민지 하층계급으로서의 노예성이 배여 있다. 생활은 그들을 부득이 비굴하게 굽실거리길 요구했다. '빈궁문학'의 주인공들은 인간성이 소외되는 사회에서 분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병태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분열은 병태사회속의 정상 상태인 것이다.[9] 빈곤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도 자신이 처한 상황만큼 강대하여 시시각각 자아와 충돌을 일으키며 자아로 하여금 충돌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대게 한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은 그들의 의식속에 공동한 그림자를 투사시킨다. 땀을 비 오듯 흘려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빈궁문학'의 인물들은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낸다. 물질의 빈곤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된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진실하고 사랑으로 충만된 사람으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있으나 이런 사랑은 고통으로, 모순으로 넘치며 시시각각 자비심리를 동반하는바, 결국은 영혼의 발악과 인격발전의 산물인 것이다.

---

[6] 현진건, 『조선의 얼굴』, 조남현,「해설:현진건의 단편소설, 그 纵横」, 문학과비평사, 1988.3, P.288-292
[7] 沈德灿, 『精神分析心理学』, 浙江教育出版社, 2005.5, P.278
[8] 荣格著, 张月译, 『人及其表象』, 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89, P.191
[9] 刘再复, 『性格组合论』, 上海文艺出版社, 1987.1, P.134

2. 파괴성과 맹목적 충동의 역량

융은 심리내용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유동 가변한다고 인정한다. 그림자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림자는 사악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기능 혹은 창조기능으로 전화할 수 있다. 창조기능은 그것이 억압될 때 파괴성을 갖는다. 이는 음양설과 같다. 양은 음으로 전화하고 음은 양으로 전화한다.[10] 그림자는 항상 충동과 경솔함에서 표현된다.[11]

<불>(1925년 1월, 『개벽』55)은 조혼습속으로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며느리로 된 15세 어린 소녀 '순이'의 이야기다.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의 '성욕도구'로 살아야 한다. 자그마한 일에서도 시어머니의 엄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순이'는 성적으로 오는 압박과 육체상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불'에 환상을 품고 불을 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한다.

작품에서 '순이'는 빈곤시대 민며느리제도의 희생물이다. '순이'는 그를 괴롭히는 '원쑤의 방'을 무서워하며 매일 저녁의 '동침'을 염오하며 '원수의 방'에서 남편이 강제로 행하는 '동침'의 '밤'을 싫어한다. 순이는 '원쑤의 방', '동침', '남편', '밤'을 자기의 원쑤로 생각하며 이들이 자기한테 참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생각한다. '원쑤'와 '복수'는 연관되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상처를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만큼 혹은 더 많은 상처를 되갚아주려 한다. 하여 '순이'의 입장에서 '원쑤의 방'을 없애야 하고 '동침'은 단속되어야 한다. '순이'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남편'한테 돌려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밤'을 피하려 한다. 시어머니는 늘 '순이'를 꾸짖고 때리고 부려 먹는다. '순이'는 집안이 떠나갈 듯한 시어머니의 고함소리가 무섭고 잘못을 저지를 가봐 무섭다. 이는 시어머니와 '순이'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보여준다. '순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배척과 거절을 무의식 속에 추방하여 버린 것으로 이런 관계는 적대적인 것이다. '시어머니'와 '원쑤의 방', '동침', '남편', '밤'은 '순이'의 육체와 정신을 학대하는 장본인이다. '순이'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순이'한테는 이 모든 것을 뒤엎을 힘이 없는 것이다. 현실을 도피할 수도 없고 새로운 생존공간도 갖고 싶은 '순이'는 현실을 파괴할 수 밖에 없었는바 '순이'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방화'로써 '해탈'하는 것이다.

<사립정신병원장>(1926년 1월, 『개벽』65)은 궁핍한 생활로 인해 정신병환자가 된 말단 직원의 생활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가난한 W군은 정신병환자의 개인 보호병 노릇을 하게 된다. 이 환자는 지주의 외아들이고 대인 공포증으로 앓고 있으며 또한 W군의 친구이기도 한 P군이다. 헌데 P군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W군은 주위사람들의 멸시와 경제적 빈곤을 견뎌내지 못하고 정신이상으로 P군을 죽이고 마는 것이다.

작품은 비판의 화살을 현실에 돌리고 당대 하층민중들이 인간의 기본적 지위마저도 없이 노예와 노예보다도 못한 지위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재현했다. 작품에서 처자식을 먹

[10] 李符永, 『分析心理学-C.G.Jung의 人间心性论』, 一潮阁, 1982.1, P.62-63
[11] 荣格等著, 张举文、荣文库译, 앞의 책, P.148

여 살리기 위해 체면 따위는 버리고 미치광이의 보호병이 되었고 종국적으로 자신도 미쳐 버리는 W군의 이야기는 물질적 빈곤은 정신적 파멸을 초래함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혹심한 빈곤은 늘 그림자를 무의식으로 투사함을 보아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그림자는 정상적인 인간성에도 상당히 큰 파괴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지위가 없다. 생존선상에서 발악하고 마음대로 부림을 당하여 생명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없게 된다. 이는 하층민중의 보편적인 생존상황이다. 반면에 부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바 P군 같은 사람이 가난한 집 자식이라면 진작 땅속에 묻혔으련만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W군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는 것이다. 미치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학경향이 있는 W군의 그림자는 끝내 살인의 방식으로 독자의 앞에 나타났다. W군이 비수로 P군을 죽인 사실은 장기적으로 억압되었던 무의식 속의 그림자와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빈곤이라는 현실생존상황과의 모순충돌과정에서 W군은 극도로 가난하여 형성된 강렬한 그림자를 떨쳐 버릴 수 없었고 P군한테 투사한다. 극도의 빈곤은 W군더러 자신을 정시할 조금의 여가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W군은 끝내 인텔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에 묻혀 이런 비극을 연출한 것이다.

<고향>(1926년 1월 4일 『조선일보』)의 주요한 이야기줄거리는 일인칭서술자 '나'를 통해 기차 안에서 만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가 하소연하는 처참한 처지를 전한다. 그의 집은 세세대대로 역둔토를 경작했는데 일본 동양척식회사가 강점한다. 중간 소작인한테서 땅을 세내어 층층이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나면 수확의 3할도 남지 않는다. 기아를 면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가 보고 일본에 가서 광부로도 일하나 결국에는 이국타향을 떠돌이 하는 유랑자로 된다. 고향에 돌아오니 이미 폐허로 되어 버렸다. 전에 혼인 말이 오갔던 여인은 생계 때문에 17살에 아비 되는 자가 유곽에 팔아 넘겨 20원이란 빚을 갚기 위해 십년동안 몸을 팔며 갖은 능욕과 학대를 받고 끝내는 병에 걸려 일본인 집에서 하녀로 연명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작품에서 가난 내지 비참한 생활은 유랑자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그림자가 형성되게 했다. 낯선 사람과 줄곧 말을 거는 과정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여 주었다. 시대의 희생양으로서 각지에 전전하면서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운명에는 시종 변화가 없었고 도리어 전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잃는다. 고향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에 혼인 말이 오갔던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도 빈궁운명의 희생물이었다. 3·1운동의 실패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서의 식민통지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더욱 많은 한국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의 구축을 당한다. 살길을 찾기 위해 한국 민중은 도처로 유랑하는 생활을 보내야 했다. 작품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잃고 토지신분을 잃은 한국 농민의 비참한 신세와 한국 여인의 비참한 운명, 즉 어떻게 발버둥 쳐도 가난한 운명에서 벌어날 수 없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향>에서 일인칭 전달자 '나'와 유랑자 '그'의 마비상태는 세속적인 시선에서는 정상상태인 것

이다. 이는 또한 일본식민지 통치하의 민중의 심중한 고난을 더욱 잘 보여준다.

<운수좋은 날>(1924년 6월, 『개벽』48)에서 주인공 김첨지 일가의 생활비극은 식민지사회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비참한 처지를 폭로하고 식민지사회의 죄악을 비판했으며 노동자운명에 깊은 동정을 표시함으로써 1920년대 도시빈민계층의 비참한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첨지는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군 노릇을 하면서 아내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렵게 셋집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이가 들었음에도 종일 흙탕길에서 동분서주한다. 그날은 특별히 운수가 좋아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하던 금액을 손에 쥐고 선술집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병환에 있는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설렁탕까지 사들고 집에 오니 아내는 이미 숨져 있었고 어린 개똥이는 시체가 된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 이 처참한 광경에 김첨지는 대성통곡하였다.

작품에서 주인공 김첨지는 사회 최하층에서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부양할 가정이 있고 각종 생활고를 겪으며 쇠약한 몸을 끌고 힘들게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김첨지는 비굴하고 비천해 졌다. 이는 생활과 환경을 지배하는 요소가 모두 돈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가난이 갖다 준 고통은 자아원형의 상실과 자아에 대한 푸대접이다. 빈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굽신거리고 구박당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억착같이 돈을 벌어야 만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앓고 있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 줄 수 없는 김첨지는 아내가 기아와 병환의 고통에서 허덕일 때 마음은 초조했으나 겉으로는 아주 난폭한 언행을 보여준다. 사회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빈민들은 흔히 교양이 모자라고 언행은 충동성을 보인다. 김첨지는 생활의 고난 때문에 이따금 아내한테 함부로 욕하고 주먹세례를 안겼다.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왔는데 술을 마실 때 아내가 이미 죽었을 거라는 근심이 사실로 되었다. 제목은 '운수좋은 날'지만 사실상 제일 불행한 하루인 것이다. 작품은 하층 인력거꾼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전개하면서 김첨지의 자아와 세계의 반항을 보여 주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나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술집에 들려 돈이 있다고 자랑하던 김첨지가 「이 원수엣 돈! 이 육시를 할 돈!」[12]하고 원망한다. 숨 쉴 겨를이 생기니 돈에 쪼들린 생활이 증오스럽고 아무리 큰 행운이라도 쓸모없는, 헛된 기대에 휩싸인 불행한 현실을 폭로했다. 그림자는 불가항적인 충동가운데 포함된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을 포함하며 이는 동력이 항상 강렬히 억압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림자도 힘이 있으며 '자기'의 충동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13]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 층의 자아분신이다. 자아의식이 강렬할수록 그림자의 어두운 면이 더욱 짙어진다. 자아가 선량함을 주장할수록 사악한 의지는 무의식의 심층에 감춰지고 사악이 선량을 꿰뚫고 표면에 드러날 때 자아는 사악의 충동으로 인한 제물이 되어 사회의 판정을 불러일으킨다. '순이', W군, 유랑자, 김첨지

[12] 현진건, 『조선의 얼굴』, 문학과비평사, 1988.3, P.183
[13] 荣格等著, 张举文、荣文库译, 앞의 책, P.153

는 모두 빈궁생활의 희생물이다. 가난이 그들의 심령에 투사한 그림자는 아주 강대하다. 아침에 불을 땔 때 흥미진진하게 솔개비가 불붙는 모양을 보았고 시냇가에서 송사리를 땅바닥에 태기를 쳤으며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눈에 띄자 극도로 흥분한 <불>의 '순이'는 그림자의 충동성을 갖고 있으며 방화로 파괴성을 보여 주었다. <사립정신병원장>의 W군도 마찬가지다. P군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차이는 W군의 그림자가 더욱 강대해지게 했고 그림자의 파괴성을 격화시켰다. <고향>에서 유랑자는 때때로 낯선 사람과 말을 걸어 안전감을 찾으려 하는데 이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그림자가 넘실대는 것이다. <운수좋은 날>에서 김첨지는 마음속으로는 가족을 염려하지만 겉으로는 난폭한 행위로 처사하여 그림자의 충동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림자와 자아는 모순대립 되는 통일체이다. 작품속의 그림자는 충동성 내지 파괴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악렬한 환경이 인물의 집단무의식 심층에 감춰진 그림자원형을 활성화하여 야성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3. 도덕적 충돌

그림자는 의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포함하나 그 가치를 자아생활형식에 융합시키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성실한 통찰력으로 그림자와 의식의 개성을 일체화 시키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진다. 불행한 것은 이런 시도는 항상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운데 열정적 동력이 있다면 이성도 이를 이길 수 없다.[14]

<정조와 약가>(1929년 12월 『신소설 1』)는 아내의 정조를 약값으로 의사한테 제공하는 이야기다. D촌에서 유명한 최주부는 서울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완쾌시킨다. 최주부는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어 지주가 되니 돈 없는 사람들이 모시러 오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 많은 집에서 교군을 들이대든지 인력거를 보내야 나선다. 하루는 생활에 극도로 쪼들린 한 여자가 남편의 병을 고쳐주려고 밤새 인적 없는 산을 지나 최주부 모시러 온다. 젊고 예쁜 청잣군에 불쑥 흑심이 생긴 최주부는 병 치료하러 따라 나선다. 왕진하러 가는 길에서 청잣군을 범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집에 도착한 후 여인은 주동적으로 남편한테 최주부의 죄행을 고하며 정조로 약값을 지불했음을 알린다. 그 말에 남편은 도리어 잘했다고 위안한다.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미 '자진청구'하여 '약값'을 받은 최주부는 제 발이 저려서 여인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된다. 가난한 부부는 남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최주부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밤이면 삿자리 한 잎으로 간을 막고 남편은 딸애 옆에 눕고 아내는 최주부의 '수발'을 드는 것으로 '약값'을 지불해 나간다.

작품에서 젊은 부부의 행위는 겉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 행위다. 정조는 여인의 최후보루인데 가난 때문에 '정조'를 팔아야 했다. 극도로 잔혹하고 비참한 현실은 아내의 하소연에서 폭로된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아내의 정조는 생명과도 같다. 사회윤리도

[14] 동상

덕은 아내가 한평생 한 남편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여자의 정절을 중시하고 '굶어 죽는 건 작은 일이지만 절개를 잃는 건 큰 일이다'하여 예로부터 정조가 굳은 열녀가 많았다. 그러나 20세기 20년대와 같은 한국사회의 전환기에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빈곤은 갈수록 심해져 전통적인 '정조관념'이 갈수록 쇠미해졌다. 소설 <정조와 약가>에서의 '아내'한테는 남편의 병을 고치는 일이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남편이 있어야만 가족성원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빈궁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내의 정조와 자신의 건강회복을 바꿔야 하는 남편은 오로지 '재기'를 빌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정황을 '회보'하는 아내한테 거듭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평온할 수가 없다. 극도의 가난과 강렬한 삶의 본능은 젊은 부부를 윤리의식의 진공상태로 밀었다. 젊은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극도의 빈곤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빈민의 위로와 서로간의 마비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와 약가>에는 또 다른 방식의 슬프고 괴로운 이해와 해석을 가할 수 있다. 작품은 자기의 육체를 팔아 사랑하는 남편의 생존과 바꾸는 사정을 통하여 부부사이의 깊은 사랑을 굴곡적으로 보여주었다. 가히 '사랑의 타협' 혹은 '곡선식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배반한 행위는 얼마나 비참한 부부애인가? <정조와 약가>에서는 사람의 존엄, 인격, 도덕역량이 마비되어 거의 다 잃어져 갔고 비인간적으로 변해서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사람은 필경 사람인만큼 사람이 있는 한 인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조와 약가>에서의 부부는 사랑이 있고 서로 신뢰하는바 그들은 건강하고 온정이 넘쳐 인간성의 존엄과 생명의 신념을 표명한다. 작품은 정조로 약값을 지불하는 부부와 최주부로부터 정조의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을 통하여 전통으로부터 근대에로의 역사전환기에 정조, 성의식, 성관계 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사망의 위기에 있는 남편을 위해 정조를 파는 행위-성의 상품화현상을 보여 주었다. 성의 상품화현상을 성사시킨 중요요소는 공모와 타협이다. 공모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그림자가 남편한테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통하여 부부의 불타는 생명열화와 온갖 질고를 뚫고 나가려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인이 정조를 약값으로 치른 것은 사악한 행위지만 이런 행위 속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

<신문지와 철창>(1929년 7월, 『문예공론3』)은 칠순이 넘는 노인이 신문지 한 장 때문에 유치장에 갇힌 이야기이다. 상인강도죄로 유치장에 끌려온 중대범인이 74세 되는 노인이다. 유치장에 잡혀오게 된 이유는 세 살짜리 손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냥하다가 일본 경찰서장 집 앞에 내버려진 신문 한 장을 주어 동냥해온 밥을 싸려는데 일본여자아이 하나가 달려와서 그 신문을 빼앗으려 하니까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유치장에 들어 온지 사흘이나 되지만 고정된 방이 없어서 관식도 제대로 얻어 못 먹었고 결국에는 손자한테 주려고 끼니마다 콩밥을 고의춤에 감춘 것이 들켜서 유치장에서 쫓겨난다.

노인의 무의식속의 그림자는 때때로 미움을 사는 일을 저지르게 한다. 고의춤에 감춰진 콩밥이 들켰을 때 노인은 온갖 멸시를 받았다. 노인의 행동은 사악함고 선량함의 선명한 이중성을 보여준다. 노인의 행위는 '사악'이 절정에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선량'도 절정에 도달하게 한다. 노인은 유치장 안에서 손자를 위해 음식을 훔치고 감춘다. 손자를 위한 각도에서 보면 노인은 선량하나 세속적인 눈빛으로 보면 노인은 부도덕하다. 사회법정은 노인의 사악을 선포하고 가정법정은 노인의 선량을 선포하여 심오한 인간의 착한 천성을 보여준다. 선악은 부동한 가치체계에서 부동한 성격이 있다. "유치장 신세를 지는 것도 좀 더 높은 계급이 가진 특권인 듯하다."[15] 노인한테는 유치장에 갇힐 권리도 없다. 노인은 최저의 생활조건과 생활능력을 잃어 사회의 관심과 방조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으나 법률은 노인을 죄인으로 심판하고 유치장에 가두고 범인으로 만들었다. '함께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은 노인의 비극이 정점에 오른 줄 모른다. 즉 '유치장'도 어린 손자에 대한 노인의 진지한 사랑을 용납하지 못한다.

<서투른 도적>은 황해도 할멈이 개인집에서 안잠자기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할멈은 육십 오세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처뜨리고 저는 열 세 살먹이 손자 하나만 데리고 벌이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16] 얼굴이 조금 익어가자 할멈은 손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자는 둥, 비어있는 건넌방을 아들 내외께 빌려 달라는 둥, 월급을 십 원만 선불해 주어 빚을 갚게 해달라는 둥 청이 끊이지 않았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할머니의 지나친 청에 이따금 뜬눈으로 새기까지 되었다. 온 지 약 열흘이 지난 후 할멈은 이튿날 손자 보러 가겠다고 청했다. 그런데 할멈이 쌀을 훔친 것이 발각된 사단이 일어났다. 손버릇이 나빠 월급을 주고 내보낸 후 할멈이 두고 간 동전 서푼이 발견된다. 이 동전은 할멈이 고의적으로 던진 것이다.

할멈은 빈곤의 그림자를 무겁게 짊어지고 살길을 찾아 헤맨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졸랐으나 '나'도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빈곤의 그림자를 안고 있는 사람임을 모르고 하소연을 멈추지 않아 '나'의 그나마 있던 동정심마저 말아버리고 '나'의 그림자를 건드린다. '나'와 황해도 할멈은 갈등이 있고 할멈의 그림자는 부단히 '나'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벌여 '나'와 가족을 귀찮게 한다. '우리'사이에도 친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할멈의 가난 정도는 '나'보다 심하여 그림자도 '나'보다 강대했다. 하여 '나'의 집에서 할멈이 보여준 '부도덕'한 행위는 '나'와 공통한 그림자를 갖고 있어 '벗'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할멈은 손자가 먹을 밥, 아들 내외가 있을 집을 걱정하여 그 그림자를 '나'한테 투사한다. 손자를 위하는 일에서는 '부도덕'이란 개념이 없다. 끝내 쌀을 도둑질하는 행각을 벌이게 된다. 할멈은 자신이 그림자의 몰림을 당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림자의 문턱을 넘으면 우리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요소의 객체임을 발견하게 되어

[15] 현진건, 앞의 책, P.248
[16] 현진건, 앞의 책, P.265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발견한다.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17]은 <동정>(1926년 3월, 『조선의 얼굴』)의 인물심리이다. 작품 <동정>의 주인공은 외래의 고통경험을 받았으나 그림자의 동력과 자극을 막지 못한다.

<동정>에서 주인공은 돈을 아끼려고 값을 흥정할 때부터 빙빙 에둘렀다. 주인공이 앉은 인력거가 사고를 내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까 내리우랄 제 내려 주었으면 좋았지."[18]라는 한마디를 방패삼아 책임을 차부한테 넘기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견책한다. 주인공은 현실이 자아위장을 필요로 할 때 현실자아와 도덕자아의 갈등을 느낀다. 그러나 돈 때문에 부득불 차부에 대한 동정을 포기해야 했고 차부를 남겨두고 자기 몸을 피한다. 처음에 차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텔리의 행위는 각박했고 마음속으로는 자아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돌아서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자아모순에 빠진 것이다.

<동정>의 주인공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죄행'을 알지만 이런 '죄행'을 범하는 것으로 자신을 가난한 생활에서의 압력을 조금이나마 덜어낸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엄청 신경을 쓰지만 그러한 자신에 대한 불만을 무심코 드러낸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모순과 가책으로 가득 찼고 자신의 뜻대로 책임을 회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고명함을 감상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비굴함에 수치를 느낀다. 결국 자신을 극단적으로 염오함과 동시에 자신의 곤경을 의식했고 자신을 심판하면서 자신을 동정한다. 때론 참회하고 때론 자아변호하며 한참은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의 영혼을 심문하지만 한참은 다행스러워 자신의 영혼을 위안한다. 그만한 돈 때문에 결국에는 부득불 '사악'을 하나의 동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위반하면서 자신이 증오하는 '행실'을 저질러 자신이 느낀 '비열한 의식'과 타협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의심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접수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전체 인격을 형성하는 일부분이다. 광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의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의식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강렬한 의식성이 있고 개성을 주장함을 말한다. 주체와 객체, 의식과 무의식을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도 선명하다. 그림자는 인격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그러므로 외계에 투사된 그림자는 되돌아가 자아를 접수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기기만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자책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는 주인공의 그림자가 조성한 고통과 최후발악이다. 주인공은 늘 자아확장하고 또다시 자아극복을 한다. 자아확장을 위해 '비열'하게 자아를 배신하며 또한 성심껏 자신이 배신한 '비열'을 저주한다. '그'의 그림자는 자신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무의식 속에서 두 '자아'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다. 그는 자신의 분열을 의식하고 자신을 등지고 또다시 자아를 심판한다.

---

[17] 道德性焦虑：即当自我意识到来自良心的危险，惧怕因做了或想到某些违反道德规范的事情会受到惩罚而体验到的罪恶感与羞耻感。它是一种纯内心的冲突，亦即因超我约束而生的焦虑，如一个品格高尚的人常常比一个品格恶劣的人体验到更多的道德性焦虑。沈德灿，앞의 책, P.102

[18] 현진건，앞의 책, P.229

현진건의 '빈궁문학' -<정조와 약가>, <신문지와 철창>, <서투른 도적>, <동정> 등 작품속의 인물들은 기본생활보장을 잃은 하층빈민이다. 그들에게는 모두 빈궁의 그림자가 있고 이런 그림자가 여러 가지 특점을 보여준다. 빈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그들의 그림자는 저도 모르게 외부대상에 투사된다.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의식에 같은 그림자가 형성되게 하여 사람마다 더욱 선명한 그림자의 집단적 특징을 갖게 한다. <정조와 약가>에서의 젊은 부부, <신문지와 철창> 중의 노인, <서투른 도적>에서의 황해도 할멈과 같은 인물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난 때문에 그들은 도덕과 현실의 모순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악한다. 주인공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로 인해 생긴 마비, 감내가 어찌 극도의 가난과 무관하겠는가? 감정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이 되어 종국적으로는 비인간적이 된다. 사회행위도덕의 규범대로 판정하면 그들은 모두 비도덕적이나 그들이 보여준 혈육의 정은 절실하고 감동적이다. 세속적인 눈빛으로 보는 그들의 '부도덕'한 점, '극악무도'한 짓은 도리어 그들에게는 '도덕'이 넘침을 명증한다. 타인의 눈에 주인공들의 행위는 '병태'적이나 그들 자신의 눈에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지푸라기로 여겨져 실제행동에까지 옮기게 되었다. 인간의 심리는 화해로 기울어져 의식적으로 적대감이나 혐오감이 있는 '나쁜 사람'형상은 무의식속에서 '그렇게 나쁜 형상이 아니다'고 여김으로써 의식을 바로잡는 평가를 볼 수 있다. <동정>에서 선량한 자아는 사악한 자아에 대해 제약의 역량을 상실했다. 무의식속의 그림자는 주인공의 자아더러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모순행위를 취하게 하고 주인공의 자아는 그런 그림자를 의식함으로써 부끄러워한다. 총적으로 '빈궁문학'의 주인공이 처한 생활환경과 빈곤이 그들에게 안겨준 압력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림자가 외부대상에 투사되게 한다.

III. 결론

본고는 분석심리학적 방법으로 현진건의 8편 '빈궁문학' 작품속의 그림자 원형을 분석했다. 작중인물은 생활에서 각종 곤혹을 느끼고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장애에 부딪치기도 한다. 예하면 경제상의 빈곤 및 사회적 지위의 비열함 같은 것이다. 그림자 원형의 분석에서 우리는 인간과 현실모순의 충돌을 알았다. 현진건이 1920년대 창작한 '빈궁문학' 속의 인물형상은 식민지사회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인물이며 그들의 성격은 시대의 본질과 긴밀히 연계된다. 작품들은 일상생활 및 보편적인 정감으로부터 소재를 선택했고 모두가 사실주의수법으로 일상생활을 재현하고 사회의 죄악을 폭로했다. 인물형상은 인텔리, 민며느리, 노인, 인력거군, 정신병환자의 간호인 등이다. 이런 인물형상의 그림자는 극히 심한데 이는 식민지사회라는 큰 배경 하에서 나라를 잃고 토지를 잃은 필연적 결과이다.

모순은 "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편의 소설이 손댈 곳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대한 작가가 부각한 성격은 하도 풍부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감각을 주는데 그 근본원인은 그들이 인간영혼의 심오함과 인간성격세계의 심층적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19]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의식세계를 체현한 것이다. 집단무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으나 무조건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작가는 부득이 작품에서 사회의 기대와 식민지 현실적 좌절을 반영하게 된다.

본고는 현진건 '빈궁문학' 속의 인물형상이 보여준 '그림자'원형 분석을 통해 인물형상의 반항의식을 보여주므로써 '그림자'원형이 빈곤에서의 자아보호의식으로 전환되어 생활가운데의 모든 고민과 곤난과 맞서는 직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현진건 '빈궁문학' 인물형상은 토지를 잃고 생존을 위해 세상 곳곳을 떠돌아 다닌다. 나라를 잃은 사람은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고 노예보다도 못한 비참한 경지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자비감을 초래하며 자비감은 강대한 그림자를 투사하게 된다. 사회최하층에서 발악하는 민중이 투사하는 그림자는 그들의 마음속 자아와 현실사회 자아의 갈등을 보여준다. 현진건의 단편소설은 당대사회의 고통에서 발악하고 있는 민족현실과 봉건성 및 빈곤의 문제 등 인물형상이 보여주는 각종 내면을 폭로하여 독자의 무의식을 자극하였고 원형의 체험을 되새겼다.

참고문헌

1. 양진오, 『조선혼의 발견과 민족의 상상-현진건의 학술적 평전과 문학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8
2. 이부영, 그림자,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8. 2
3. 최원식, 『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4. 현진건, 『조선의 얼굴』, 문학과비평사, 1988.3
5. 李符永, 『分析心理学-C.G.Jung의 人间心性论』, 一潮阁, 1982.1
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중)』, (주)두산동아, 2000.3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1991.12
8. 金春仙 主编, 『中朝韩现当代小说比较研究』, 民族出版社, 2012.12
9. 沈德灿, 『精神分析心理学』, 浙江教育出版社, 2005.5
10. 荣格著, 张月译, 『人及其表象』, 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89
11. 荣格等著, 张举文、荣文库译, 『人类及其象征』, 辽宁教育出版社, 1988.6
12. 刘再复, 『性格组合论』, 上海文艺出版社, 1987.1
13. 高觉敷, 『西方近代心理学史』, 人民教育出版社, 1982.8

[19] 刘再复, 앞의 책, P.152

심훈의 '주의자 소설'과 '12 월 테제'[1]

이해영

(중국해양대학교)

차 례

Ⅰ. 심훈의 중국 체험과 '주의자 소설' 사이의 거리

Ⅱ.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양상

1.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동시 추구

2. 농민계급과의 결합을 통한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 개조

3. 노동계급의 혁명성 긍정과 지식계급의 파쟁성 비판

Ⅲ. 심훈식 사회주의사상의 기원에 대한 추론

Ⅳ. 결론

Ⅰ. 심훈의 중국 체험과 '주의자 소설' [2]사이의 거리

심훈의 장편소설『동방의 애인』과『불사조는』그의 중국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주의자들의 사랑 즉 붉은 연애와 그들의 불굴의 투쟁을 다룬 것으로 하여『조선일보』연재 중, 일제의 검열에 의해 중단 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즉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시, 3.1 만세운동에 가담하여 투옥된 심훈이 집행유예로 출옥 후, 1920년 겨울, 중국으로 탈출하였고 1923년 여름까지 선후로 북경, 상해, 남경을 거쳐 항주의 지강대학에 에 머물렀으며[3] 이 기간 동안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 교유하였고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4] 또한 이러한 체험과 사상적 편력이 그의 소설 창작의 소재이자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해에서의 한인 사회

[1]이 논문은 2014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2]여기서 주의자는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주의자 소설'이란 사회주의자들의 사랑과 혁명투쟁 등을 다룬 소설을 지칭한다.

[3] 심훈의 중국으로의 탈출 시점에 대해서는 1919 년 겨울이라는 설과 1920 년 겨울이라는 설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며 두 견해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의 중국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 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의 귀국 시점이 1923 년 여름이전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병석,「심훈의 생애 연구」,『국어교육』제 14 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14 쪽; 한기형,「'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중국에서의 심훈」,『민족문학사연구』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442 면; 하상일,「심훈과 중국」,『비평문학』55, 2015, 203~204 쪽; 하상일,「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한민족문화연구』제 51 집, 2015, 78~80 쪽; 하상일,「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동북아 문화 연구』49, 2016, 97 쪽 참조.

[4] 최원식,「沈熏研究序說」,『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250~251 쪽.

주의자들의 애정과 투쟁을 그린『동방의 애인』은 심훈의 중국 체험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식민지 조선 국내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의 애정과 투쟁을 다룬『불사조』에는 정작 중국 체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가는 "귀국 이후 그의 문학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중국에서의 성찰적 인식을「동방의 애인」,「불사조」와 같은 소설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중국에서의 생활이 가져다준 의미 있는 결과였다"[5]라고 하면서『불사조』역시 심훈의 중국 체험의 산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그의 소설들에서 드러나는 사회주의사상이 중국 체험의 연장과 계속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심훈은 그의 중국 체험과 관련하여 이 두 편의 소설 외에 중국 체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北京의 乞人」,「鼓樓의 三更」,「深夜過黃河」,「상해의 밤」,「돌아가지이다」등 5편[6], 부인 이해영에게 보낸 편지 속에 동봉한「겨울밤에 내리는 비」,「기적(汽笛)」,「전당강 위의 봄밤」,「뻐꾹새가 운다」등 4 편의 시가 있다. 문제는 중국 체류 시기의 시편들에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각, 식민지 청년의 혁명에 대한 열정과 고뇌 및 절망과 회의를 동반한 뼈아픈 자기 성찰의식 등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7] 반해 사회주의사상은 거의 체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8] 그렇다면 그의 중국 체험을 소재로 한 위의 두 편의 소설에 드러나는 뚜렷한 사회주의사상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심훈의 중국 체험이 이루어진 1920년부터 1923년이라는 시점과 두 편의 소설이 발표된 1930년, 1931년이라는 시점 사이에 놓인 무려 7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두 편의 소설로 하여금 연재 중, 일제의 검열에 의해 중단되도록 한 강렬한 사회주의사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귀국 후의 7년간이라는 시간의 누적이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이 7년간은 심훈에게 있어서 영화와 소설 사이를 넘나드는 창작의 모색기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가 1920년대 초 중국에서 접한 사회주의사상의 모종 심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심훈의 중국 체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체험과 소설 창작의 시점 사이에 놓인 이 시간적 괴리와 변화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심훈의 중국 체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체류 시기에 쓴 시가 작품에 집중되어있으며 중국 체험의 산물이라고 하는 두 편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게 이루어졌다. 그나마 중국 체험을 직접

---

[5] 하상일,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 51 집, 2015, 101 쪽.
[6] 이 5 편의 시는 심훈의 유고 시집『그날이 오면』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가 모든 시의 창작 말미에 적어놓은 연도에 근거하면 중국 체류 시, 창작한 것이 분명하다.
[7]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편들에 나타난 작가의식 내지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는 하상일의 위의 논문들 참조.
[8] 이와 관련하여 하상일은 "1920 년 갑작스런 심훈의 중국행은 당시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사회주의 사상의 기초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1920 년대 사회주의 보급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共濟』2 호(1920.11)의 <懸賞勞動歌募集發表>에 '丁'으로 선정되어 게재된「로동의 노래」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하상일,「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 위의 글, 97~98 쪽.) 이 시에 대해 한기형은 "민족주의적 구절"과 "사회주의적 노동예찬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한기형,「'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중국에서의 심훈」, 위의 글, 444~445 쪽.)

적으로 드러낸『동방의 애인』에 대해서는 그 주인공의 원형[9], 문학과 국가의 관계[10], 사회주의자들 간의 분파투쟁과 노선 투쟁에 대한 심훈의 고민과 회의 및 그에 대한 심훈 나름의 통합으로의 견해[11] 등 어느 정도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불사조』의 경우는 중국 체험의 산물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 체험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두 편의 소설이 검열로 인해 연재 도중 중단됨으로 미완으로 남은 것, 심훈의 중국에서의 행적이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원되지 못한 것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기존 논의의 기초 위에서 심훈의 중국 체험과 소설 창작의 시점 사이에 놓인 7년간이라는 시간적 거리와 사상적 누적과 변화 및 전환의 계기를 주목하면서 그러한 전환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심훈의 사회주의사상이 집중적으로 체현된『동방의 애인』,『불사조』,『영원의 미소』[12] 세 편[13]의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심훈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중국 체험의 연장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의 심화와 전환의 계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Ⅱ.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방향

1.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동시 추구

심훈은 흔히 "민족적 사회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의 민족화"를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심훈에게 있어서 민족과 계급 두 문제가 동시에 사유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심훈의 소설『동방의 애인』에서 주인공 동렬은 "'조선놈'이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산자'라는 것이 여자를 거느릴 자격까지 우리에게 빼앗아 갔습니다"[14]라고 외친다. 이를 두고 한기형은 동렬에게 '민족'과 '계급'은 같은 차원의 문제

---

[9] 『동방의 애인』의 주인공의 원형에 대해서는 주인공 박진이 박헌영을 모델로 했을 것이라는 견해(최원식,「沈熏硏究序說」,『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250 쪽.)와 주인공 김동렬이 박헌영을 모델로 했다는 견해(하상일,「심훈과 중국」, 위의 글, 218 쪽)가 있다. 그 외, 김동렬이 박헌영을 모델로 했고 x 씨는 이동휘를 모델로 했으며 심훈은 박헌영의 행적을 서사적인 골격으로 삼으면서도 혁명운동의 방향은 이동휘의 민족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는 견해(한기형,「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 체험과『동방의 애인』」,『대동문화연구』제 63 집, 2008, 432 쪽)도 있다.

[10] 한기형,「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동방의 애인』」, 위의 글.

[11] 하상일,「심훈과 중국」, 위의 글.

[12] 『영원의 미소』는 심훈의 중국 체험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소설이 주의자의 투쟁을 다루고 있고 또 강렬한 사회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점, 그리고 심훈의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체험의 연장이고 계속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3] 『동방의 애인』,『불사조』,『영원의 미소』등 세 편의 소설 모두 주의자들의 투옥 체험과 불굴의 의지, 출옥 후의 열렬한 투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세편의 소설을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으로 묶어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4]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한국: 글누림, 2016, 89 쪽.(『동방의 애인』은 1930 년 10 월 21 일부터 1930 년 12 월 10 일까지《조선일보》에 총 39 회 연재되었음. 작품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연재가 중단되었음. 글누림은 이를 저본으로 전집을 출간하였음. 본고에서는 글누림에서 출간한 전집을 텍스트로 함.)

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5] 실제로 심훈은 그의 여러 소설들에서 이 '조선', '조선 놈'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계급문제와 연결시켰다. '아아 사랑이 죄다. 조선 놈에겐 사랑을 받는 것도 무거운 고통일 뿐이다!', '지금 우리 조선엔 이런 처지를 당하고 있는 부모가 몇 천으로 헤일 만큼 많습니다. 참 정말 기막힌 형편에서 죽도 살도 못하는 사람이 여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울고 서러워만 한다고 억울한 일이 피겠습니까?', '먹는다는 것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란 인생으로서 더구나 조선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요 또한 고작 가는 비극이다', '그만 사정으로 자살을 한다면 조선 사람은 벌써 씨도 안 남았게요'[16]라는 외침과 절규들을 통해 심훈이 '조선'을 계급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또한 그가 얼마나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격렬하게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심훈의 이러한 민족과 계급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유는 다만 즉흥적이고 감성적 차원의 것이 아니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와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 읍내까지 간신히 대어 들어가서는 알코올 한 병과 '붕산연고' 한 통을 사가지고 왔다. 쓸 만한 약도 없거니와, 의사라고는 공의 한 사람과, 지질치 않은 개업 의사 둘밖에 없는데 하나도 만날 수 없었다. 군내의 인구가 육칠만 명이나 된다는데, 의료기관은 말도 말고, 의사가 겨우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것도 놀라울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골의 백성들은 병만 들면 상약이나 해보다가 직접으로 공동묘지로 찾아간다. 역질이니 양마마니 하는 전염병이 한번 돌기만 하면 어린애를 열 스무 명씩 삼태기로 쳐담아낸다. 지난 해 봄에도 이름도 모르는 병에 집집마다 서너살이나 먹여 다 키워 놓은 어린애만 하나씩을 추렴을 내듯이 내어다버렸다 는 것은 데리고 간 머슴애의 이야기였다. 그렇건만 관청에서는 나와서 조사 한번도 아니한다. 그러나 세금 독촉이나 담배나 밀주를 뒤지기 위해서는 뻔질나게 자전거 바퀴를 달린다는 것이다.(밑줄 인용자)(심훈, 『영원의 미소』, 한국: 글누림, 2016, 460쪽.)[17]

위의 인용문은 식민지 조선농촌의 낙후한 의료시설과 의료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병마와 죽음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난한 농촌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 육칠만 명에 의료기관도 없고 의사가 단 세 사람뿐이라는 구체적인 숫치는 심훈이 얼마나 조선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심훈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공동묘지로 직행하거나 한번 전염병이 돌기만 하면 어린애를 "삼태기로 쳐담아내"는 식민지 조선 농촌의 처참한 현실이 결코 가난 때문만은 아닌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러한 열악한 상태를 초래하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나와서 조사 한

[15] 한기형,「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동방의 애인』」, 위의 글, 428 쪽.
[16] 심훈,『불사조』,『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363~370 쪽.(『불사조』는 1931 년 8 월 16 일부터 1932 년 2 월 29 일까지《조선일보》에 연재되다가 중단되었음. 글누림에서는 이를 저본으로 전집을 출간하였음. 본고에서는 글누림에서 출간한 전집을 텍스트로 함.)
[17] 『영원의 미소』는 《조선중앙일보》에 1933 년 7 월 10 일부터 1934 년 1 월 10 일까지 연재되었으며 글누림은 이를 저본으로 전집을 출간하였다. 본고는 글누림에서 출간한 전집을 텍스트로 삼았다.

번도 아니하"는 관청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기반자체조차 갖추지 못한 거의 무에 가까운 취약한 의료시설과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점검하고 조사해야할 관청은 "그러나 세금 독촉이나 담배나 밀주를 뒤지기 위해서는 뻔질나게 자전거 바퀴를 달린다"고 대조함으로써 농민들의 삶과 복지 향상에는 뒷전이고 그들에 대한 착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식민지 관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즉 조선농촌의 황폐화가 식민지 관청의 의도적인 관리 부실 내지 착취와 억압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가난과 빈궁의 문제를 민족적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심훈에게 있어서 민족과 계급의 문제 내지 관계가 어떻게 사유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심훈은 이러한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주의사상 내지 사회주의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동방의 애인』연재 시,「작자의 말」에서 "우리는 보다 더 크고 깊고 변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과 같은 계급에 처한 남녀노소가 사랑에 겨워 껴안고 몸부림칠 만한 새로운 공통된 애인을 발견치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18]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민족과 같은 계급에 처한 남녀노소가 사랑에 겨워 껴안고 몸부림칠 만한 새로운 공통된 애인"이란 바로 '사회주의'를 표상하는 것이다.[19] 사회주의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심훈은 "무슨 파(派) 무슨 파를 갈라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단체운동에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과도기(過渡期)의 인물들이 함부로 날뛰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는 민족의 독립도 계급의 해방도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가공적(架空的) 민족주의! 환멸(幻滅)거리지요. 우리는 다른 길을 밟아야 할것입니다!"[20]라고 서슴없이 부르짖는다. 여기서 '다른 길'이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가리킬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선택과 각오에 대해 심훈은 "O씨를 중심으로 동렬이와 또 진이와 그리고 그들의 동지들은 지난날의 모든 관념과 '삼천리 강토'니 '이천만 동포'니 하는 민족에 대한 전통적 애착심까지도 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내걸었다"고 쓰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에 대한 기존의 인식 즉 민족은 절대적이라는 민족 지상주의 내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원칙한 애정 등을 과감히 폐기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한 심훈 나름의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다.

> "왜 우리는 이다지도 굶주리고 헐벗었느냐?“
>
>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큰 제목이었다. 전 세계의 무산대중이 짓밟히는 계급이 모두 이 문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치 못하고는 결정적 답안이 풀려나올 수가 없다 하였다. 따라서 이대로만 지내면 조선의 장래는 더욱 암담할 뿐이라 하였다.
>
> "왜 XX를 받느냐?“

[18]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15 쪽.
[19] 한기형,「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동방의 애인』」, 위의 글, 428 쪽.
[20]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66 쪽.

하는 문제는 "왜 굶주리느냐?"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실로 문젯거리도 되지 않을 만한 제삼 제사의 지엽 문제요, 근본 문제가 해결됨을 따라서 자연히 소멸될 부칙(附則)과 같은 조목이라 하였다.(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81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심훈은 "굶주리"는 문제 즉 무산계급의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문제로 보았다. 이 계급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조선의 장래는 더욱 암담할 뿐"이라고 하면서 계급문제의 해결 즉 사회혁명이 우선하지 않는 한 식민지의 문제 즉 민족의 문제도 희망이 없다고 보았다. "굶주리"는 문제 즉 계급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 근본문제가 해결된다면 식민지의 문제도 "자연히 소멸될 부칙(附則)과 같은 조목"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동렬과 진이와 그리고 세정이는 X씨가 지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OO당XX부에 입당하였"고 "그때부터는 '동포'니 '형제자매'니 하는 말을 집어치우고 피차에 '동지'라고만 불렀"다.[21] 즉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심훈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계급의 문제 즉 계급해방이 이루어지면 민족해방도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계급해방을 우선함으로써 민족해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민족해방의 문제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이룩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심훈은 사회주의 혁명을 계급문제와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고 계급해방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으나 민족해방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민족해방의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 속에서 계급해방과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의 목표이자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두 공산당원 즉 주의자인 김동렬과 강세정의 결혼식에서는 <인터내셔널>을 합창하지만 "내지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선명히 물들인 '옛날기'도 한몫 끼어서 '나도 여기 있다'는 듯이 너펄거렸"[22]다. 즉 어떤 경우에도 조선을, 민족을 상징하는 '옛날 기'는 포기될 수 없으며 <인터내셔널>과 그것은 동시에 나란히 갈 수 있으며 또 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해왔고 그 무렵은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길로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대안으로 선택하여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립한 공산주의의 원로 지도자 모씨 즉 이동휘[23] 역시 이날만큼은 "불빛에 눈이 부시도록 흰 설백색 조선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그것은 이십 년만에 흰옷을 몸에 걸친 것이었"[24]다.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민족은 소중한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선택한 것은 결국 민족해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을 이룰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선택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이때 사회주의 혁명은 대안이자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며 목표는 역시 계급과 민족의 해방인 것이다. 이는 심훈이 문학창작방법 등 면에서의 견해의 차이 및 모종 원인으로 카프에서 이탈했지만 "우리가 현단계에 처해

[21]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82 쪽.
[22]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107 쪽.
[23] 한기형, 위의 글, 431 쪽.
[24] 심훈,『동방의 애인』,『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107 쪽.

서 영화가 참다운 의의와 가치가 있는 영화가 되려며는 물론 프롤레타리아의 영화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롤레타리아만이 사회구성의 진정한 자태를 볼 줄 알고 가장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또한 그를 수행하고야 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음이 분명한 까닭이다."[25]고 원칙적으로 프로문학을 지지했던[26] 것과 일맥상통한다. 심훈은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최종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성할 역량으로 프롤레타리아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2. 농민계급과의 결합을 통한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 개조

심훈은 흔히『상록수』의 작가로 알려져 왔으며 그의 대표작『상록수』는『동아일보』주최 브나로드운동의 현상 공모작이다. 그러나『상록수』가 과연 브나로드운동에 영합한 것이냐 아니면 브나로드운동이라는 합법적인 틀을 이용하여 농촌 즉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상록수』이전 즉 1933년에 창작하였고 역시 지식인의 농촌운동을 다룬『영원의 미소』에서 심훈은 브나로드운동 혹은 농촌진흥 운동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 "…신문 잡지에는 밤낮 '브나로드'니 '농촌으로 돌아가라'느니 하구 떠들지 않나? 그렇지만 공부한 똑똑한 사람은 어디 하나나 농촌으로 돌아오던가? 눈을 씻구 봐두 그림자도 구경할 수가 없네그려.“
>
> ……
>
> "저희들은 편하게 의자나 타구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고, 양복떼기나 뻗질르구서 소위 행세를 하러 다닌단 말일세. 무슨 지도잔 체하구 입버릇으루 애꿎은 농촌을 찾는 게지. 우리가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다바치는 외씨 같은 이팝만 먹고 누웠으니깐 두루 인젠 염치가 없어서 그따위 잠꼬대를 하는 거란 말야.“
>
> ……
>
> "참, 정말 우리 조선 사람의 살 길이 농촌운동에 있구, 우리 청년들의 나아갈 막다른 길이 농촌이라는 각오를 단단히 했을 것 같으면, 그자들의 손목에는 금두껍을 씌워서 호미자루가 쥐어지질 않는단 말인가? 그래 어떤 놈은 똥거름 냄새가 구수해서 떡 주무르듯 하는 줄 아나?"(『영원의 미소』, 한국: 글누림, 2016, 255~256쪽)

주인공 김수영과 그의 동무들은 소위 식민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브나로드운동 내지 농촌진흥운동이 얼마나 농촌의 실상과 동떨어져있고 농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브나로드운동이나 농촌운동의 주역이라고 하는 지식계급이 실은 농민들의 삶과는 유리된 도회적 삶을 살고 있으며 농민들의 지도자인 척하지만 농민들의 삶의 개선과 농촌 진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함으로써 소위 행세나

[25] 심훈,「우리 민중은 어떠한 영화를 요구하는가?-를 논하여 '만년설' 군에게」,『영화평론 외』, 글누림, 2016, 77 쪽.
[26] 최원식,「沈熏硏究序說」, 위의 글, 259 쪽.

하고 다니는 지식계급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동시에 김수영은 도회지의 지식계급뿐 아니라 실제로 농민으로 농사를 지어가면서 진지하게 농촌진흥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그의 동무들 즉 농촌의 젊은이들마저 "야학을 설치하고 상투를 깎고, 무슨 조합을 만드는 것이 농촌운동의 전부로 알고, 다만 막연하게 '동네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볼 점"이라고 하면서[27] 반성하고 있다. "'우리의 농촌운동이란 무슨 필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들어서는 아주 깜깜한 모양"이고 "어쩌면 각지에서 떠드는 즉 고무신을 신지 마라-흰 옷을 입지 마라, 가마니를 쳐라-이런 따위의 운동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심훈은 "그네들이 아무 이론의 근거를, 즉 문제의 핵심(核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유행을 따라서 남의 숭내만 내려는 것이 무엇보다도 딱하였다. 슬프기도 하였다"[28]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운동의 맹목성, 표층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현재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소위 브나로드운동이나 농촌진흥운동 모두 식민지 조선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적인 모순에는 닿지 못하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표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훈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농촌운동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심훈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자네들 말마따나 요새 신문이나 잡지에 떠드는 개념적(槪念的)이요 미적지근한 농촌운동이라는 것부터 냉정하게 비판을 해본 뒤에 우리 현실에 가장 적절한 이론을 세워서 새로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그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참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달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빈궁한 농민들의 살 길을 위해서, 즉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나가려면 그만치 단단한 준비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내 의견일세…"
>
> ……
>
>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세. 지금 우리 조선의…."
>
> 수영이는 거의 두 시간동안이나 한자리에 꼬박이 앉아서 평소에 생각한 바, 조선의 현실과 농촌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였다…(밑줄: 인용자)(『영원의 미소』, 257~258쪽)

심훈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빈궁한 농민들의 살길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그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략부호로 대체하고 있다. 아마 일제의 검열을 의식한 우회의 수법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몸뚱이가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몸뚱이를 한 뭉텅이루 뭉칠 것"[29]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모종 구호를 방불케 한다. 이 지점이 바로『상록수』와『영원의 미소』가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서 우리는『상록수』가 농촌운동에 지대한 관

[27]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254 쪽.
[28]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254 쪽.
[29]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258 쪽.

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을 다룬 것과는 달리『영원의 미소』는 주의자들의 출옥 이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심훈은 '작자의 말'에서 "나는 이 소설에 나오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통해서 1930년대의 조선의 공기를 호흡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활과 또 그 앞날의 동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거북한 조건 밑에서 써본 것입니다"[30]고 쓰고 있지만 정작 소설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 시대에 지극히 특수한 사람들-열렬한 주의자들의 출옥 이후에 대해 쓰고 있다.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자주 등장하는데『영원의 미소』역시 예외가 아니다."인왕산 골짜기로 피어오르는 뽀얀 밤안개 속에 눈(雪)을 뒤집어쓰고 너부죽이 엎드린 것은 서대문 형무소다. 성벽처럼 드높은 벽돌담 죽음의 신호탑(信號塔)인 듯 우뚝 솟은 굴뚝! "[31]으로 표상되는 서대문 형무소는 주인공 김수영이 어떠한 사건에 앞장을 섰다가 몇 달간 투옥되어 심문과 취조를 받던 곳이다.

> 그것은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미안한 생각이었다. 수영의 눈앞으로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와 같이 살이 뿌옇게 부푼 어느 친구의 얼굴이 봉긋이 떠오른다. 그 얼굴이 저를 비웃는 듯이 히죽이죽 웃기도 하고 그런 얼굴이 금세 백이 되고, 천이 되어 일제히 눈을 흡뜨고 앞으로 왈칵 달려들기도 한다. 생각만 해도 마음 괴로운 이 얼굴 저 얼굴이 감옥의 하늘을 온통 뒤덮었다가는 또다시 안개 속으로 뿌옇게 사라지곤 한다. 그중에는 그곳에서 죽어 나온 어느 동무의 얼굴도 섞여 있는 것 같다.(『영원의 미소』, 22쪽.)

수영은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칠 때마다 감옥에서 고락을 같이 하던 동지들의 고문에 찌들은 얼굴과 그 속에서 죽어 나온 어느 동무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직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는 그가 함께 투쟁하고 있던 동지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의 주의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옥 후, 수영은 감옥에 갔던 전력 때문에 취직을 못하여 "내가 무얼 얻어먹자구 서울 바닥에서 이 고생을 하나?", "고생 끝에는 무엇이 올까? XX운동-감옥-자기희생-, 명예, 공명심, 그러고는 연애-또 그러고는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청춘이 시들어가는 것과 배고파 졸아붙은 창자뿐이 아니냐?!"[32]고 절망하고 회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 자기의 주의와 투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소위 지식분자로는 누구나 천하게 여기는 신문 배달부 노릇을 해서 구차하게끔 연명"하는 것도 실은 "어떻게든지 밥이나 얻어먹어 가면서 지난날의 동지들과 서서히 기초운동을 하려는 결심이었다. 그러러면 시골로 내려가서는 연락도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도 서울 바닥에서 무슨 구멍을 뚫어야하겠다 하고 시골집에 내려갈 것은 단념을 했"[33]기 때문이다. 이는 수영이 주의와 신념을 위

[30]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13 쪽.
[31]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21 쪽.
[32]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104 쪽.
[33]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114 쪽.

해서는 지식분자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가두의 노동자로 될 만큼 굳은 의지와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허한 도회의 생활에 넌덜머리가 나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농촌운동에 몸을 바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34] 수영은 어머니의 병환으로 낙향하게 되며 고향인 '가난고지' 농민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는다. 수영은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아버지 점심을 갖고 가는 길에 굶주림을 못 이겨 풀밭에 쓰러진 정남이를 발견하며 그를 집에 데려다주게 된다. 거기서 굶어 울고 있는 정남의 동생들과 굶어 거의 쓰러지게 된 정남의 어머니의 참상을 목격하고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고 절규한다.

> 그런데 그네들이 진종일 몸을 판 삯은 얼마나 되는가? 겨우 삼십 전이다! 그 삼십 전도 날마다 또박또박 받는 것이 아니다. 원뚝매기 하는 주인에게 지난 해 이른 겨울부터 돈도 취해다 쓰고 양식도 장리(長利)로 꾸어다 먹었기 때문에 그 품삯으로 메꾸어 나가는 사람이 거지반이라는 것을 수영이는 지난밤에도 동무들에게서 들었었다.(밑줄: 인용자)(『영원의 미소』, 312~313쪽)

수영은 '가난고지'농민들의 참혹한 생활이 "진종일 몸을 판 삯"으로 "겨우 삼십전"밖에 안되는 턱없이 싼 염가의 인건비밖에 받지 못하는 가혹한 노동력 착취 때문이며 장리(長利)로 꾸어다 먹은 쌀을 그 품삯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악순환 때문이라고 식민지 조선농촌의 근원적인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 수영은 "그것은 농촌이 '피폐'하다든가, '몰락'되었다든가 하는 말로는 도저히 형용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정경"이라고 하면서 "동정을 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였"다고 부르짖었다.

> '남의 논마지기나 얻어 하는 우리 집도, 여기 앉아서 남의 일처럼 구경을 하고 앉았는 나도, 조만간 저이들과 같이 되겠구나. 내 등에도 저 지게나 바소쿠라가 지워지겠구나.' 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
> 그것은 공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예감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엄숙한 사실이었다.
>
> 그 사실 앞에서 수영이는 몸과 마음이 함께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입술을 꼭 물고 앉았으려니 부잣집 마름의 아들로 태어난 제가, 손끝 맺고 앉아 있는 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감정은 일종의 공포(恐怖)와도 같아서 더 앉아 있기가 송구할 지경이었다.
>
> '저 사람들을 저대로 내버려 둘것이냐? 그렇다, 나부터도 그들의 속으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영원의 미소』, 313쪽)

수영은 이러한 염가의 노동력 착취와 장리(長利)와 같은 농촌의 생산관계의 근원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부잣집 마름인 자기 집도, 마름의 아들인 자기도 곧 그러한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고 몸서리를 친다. 부잣집 마름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손끝 맺고 앉아 지식계급으로 살아온 자신에 대해 수영은 모든 사람에 대해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나부터도 그들

[34] 심훈, 『영원의 미소』, 위의 책, 204 쪽.

의 속으로 뛰어들어야겠다"고 지식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철저한 개조를 다짐한다. 이러한 결심은 곧 조선의 지식계급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지식계급이 어느 시대에든지 무식하고 어리석은 민중들을 끌고 나가고, 그들을 …하는 역할(役割)까지 하는 게지만 지금 조선의 지식분자 같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나? 얼굴이 새하얀 학생 퇴물은 실제 사회에 있어서, 더구나 농촌에 있어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일세. 구름같이 떠돌아서 가나오나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이지."(『영원의 미소』, 315쪽)

조선의 지식계급이 현재로서는 민중을 지도하고 이끌어나갈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렬히 꼬집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계급이 해왔던 소위 브나로드운동이니 농촌진흥운동이니 모두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극도로 궁핍하고 참혹한 삶을 개선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준엄한 비판과 자기비판은 곧 지식계급의 철저한 개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리 동네에는 순박하고 건실한 동지를 추리면 칠팔 명이나 있네. 그네들은 이른바 도회적 고민을 모르는 사람들일세. 동시에 지도 여하에 따라서는 이 동네의 중심 세력을 이룰 만한 전위분자가 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주입시키는 대로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청년들일세. 동시에 우선 이 조그만 동네 하나만이라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과, 자기의 환경을 정당히 인식시키고 앞으로 용기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당면한 나의 의무로 아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박해가 닥쳐오든지 이 동네의 젊은 사람들만은 가시덤불과 같이 한데 엉키고 상록수(常綠樹)처럼 꿋꿋이 버티어 나갈 것을 단단히 믿는 바일세.(『영원의 미소』, 377쪽)

지식계급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지도하여 전위분자로 만든다는 수영의 자기 개조 방안이다. 순박하고 건실한 농민들을 골라 "새로운 의식'을 주입시켜 그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고 "자기의 환경을 정당히 인식시킴"으로써 "어떠한 박해"가 닥쳐오든지 꿋꿋이 버티어 나갈 것이라는 수영의 결심은 자못 처절하다. 이때의 "새로운 의식"이 사회주의사상을 암시하는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훈이 글 중에 "수영이가 시골로 내려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을 계숙에게 힘들여 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쓰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35]고 넌지시 암시하고 있음은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동시에 수영은 도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마터면 타락의 심연에 빠질 번한 동지이자 연인인 계숙에게 "지식 있는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거진 다 이 도회병, 인텔리병에 걸려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구 헤매어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조선은 영원히 캄캄한 밤을 면치 못한단 말씀이에요!"[36]라고

[35] 심훈, 『영원의 미소』, 위의 책, 404 쪽.
[36] 심훈, 『영원의 미소』, 위의 책, 424 쪽.

도회병에 걸린 지식계급의 생활을 청산하고 농민들 속에서 철저한 자기 개조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계숙 역시 구두를 벗어버리고 짚세기를 신음으로써 지식계급의 허물을 벗어버린다. 농민계급과의 결합을 통한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 개조에 대한 수영의 결심이 얼마나 큰지는 그가 대를 이어 생계의 수단으로 유지하여 오던 지주이자 상전 조경호 집안과의 지주와 마름의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끝내 끊어버리고 소작하던 전부의 토지와 살고 있던 집마저 내어놓겠다고 조경호에게 통보하는 데서 충분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아아 인제는 아주 나락 톨 없는 무산자가 되구 말았구나!'[37]라는 수영의 절규는 그만큼 무겁고 힘 있는 것이었다. 마름의 아들이 아닌 완전한 무산자가 됨으로써만이 농민계급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철저한 자기 개조에 이를 수 있다고 심훈은 본 것이다. "오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뚫고 나가자! 맨주먹으로 헤치고 나가자! 그 길밖에 없다. 인제부터 내 힘을 시험할 때가 온 것이다. 아산이 깨어지나 평택이 무너지나 단판씨름을 할 때가 닥쳐 온 것이다!"[38]라는 수영의 절규는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개조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3. 노동계급의 혁명성 긍정과 지식계급의 파쟁성 비판

심훈의 '주의자 소설'에서 지식계급이 개조의 대상이라면 노동계급은 투철한 혁명성과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계급으로 각인되어있다. 주의자들의 감옥 투쟁과 체험을 다룬『불사조』의 인쇄공장 노동자 흥룡이와 고무공장 여공 덕순이는 바로 그러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노동계급의 일원이다.

> 다리팔을 척 늘어뜨리고 쓰러져있으면서도 만족한 웃음이 아직도 핏기가 돌지 못한 흥룡의 입모습을 새었다.
>
> "사지를 각을 떠내는 한이 있더라도…."
>
> 하고는 허청대고 코웃음을 쳤다. 흥룡이는 고통을 참는 힘과 누구에게나 굽히지 않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었다. 생사람의 숨이 턱턱 막히고 당장에 맥이 끊어지게 되는데도 깜깜하고 정신을 잃은 그 순간까지 그 입은 무쇠병목과 같이 한 번 다문 채 벌리지를 않았다.
>
> "아니다! 난 모른다!"
>
> 한 마디로 끝까지 버티어서 몇 번이나 면소가 되어 나온 어느 선배와, 법정에서 혀를 깨물고 공술을 거절한 어떤 동지의 얼굴을 눈앞에 그리면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참아 넘겼던 것이다.
>
> "그까짓 일답지 않은 일에 오장까지 쏟아놓을 양이면 정말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꼬-"
>
> "내 육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의지만은,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만은 올가미를 씌울 수도 없고 칼끝도 총알도 건드리지를 못한다!"(『불사조』, 262쪽)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비밀을 지켜 동지들을 보호하는 흥룡의 불굴

[37]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471 쪽.
[38]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471 쪽.

의 모습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참을 수 없는 악형에 맞서 싸우는 흥룡이의 굳센 의지는 "동지 간에 생색을 내는 데는 앞장을 서고 급하면 약빨리 꽁무니를 빼는" 같은 운동선상의 선배였던 소부르주아 지식계급 정혁이와의 대비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혁이는 "일본 어느 사립대학 출신으로 잡지사에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다가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이삼 차나 큰 집 출입을 한"[39] 전형적인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출신의 주의자이다. 흥룡이가 감옥에 잡혀가게 된 것도 실은 일은 정혁이가 꾸미고 위험한 곳에는 흥룡이를 보냈기 때문이다. 덕순의 말을 빌면 "앞장을 서는 어렵고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언제든지 등 뒤에 숨어 다니며 줄만 잡아당겨 동지를 조종하려"[40]는 것이다. 자기가 꾸민 일로 하여 흥룡이가 감옥에 잡혀간 후, 정혁이는 혹 연루될까 두려워 흥룡의 애인 덕순이도 찾아보지 못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며 흥룡이가 출옥하는 날은 감옥 앞에도 마중가지 못하고 길에서 기다린다. 정혁은 비단 투쟁에서 앞장서지 못하고 뒤로만 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회의와 절망에 빠져있다. 정혁은 사회주의자로서 낙인이 찍혀있어 취직도 할 수 없고 원고를 쓴다고 하여도 원고료도 벌 수 없다.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 반동분자와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생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애꿎은 가족에게 분풀이나 하고 주정이나 하는 파락호로 타락해간다.

> 기분에 띄워서 향방 없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닐 때에는 집안 살림이라든지 처가속에 관한 일은 자기와는 백판 상관이 없는 일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조차 운동자로서 무슨 욕되는 일같이 여겨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옴치고 뛸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은 덮어두었던 모든 문제를 들추어내어 한꺼번에 혁이의 머릿속을 지글지글 끓이는 것이다.(『불사조』, 331쪽)

소위 정혁의 투쟁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현실을 떠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주의와 운동에 투신한 것은 그 무슨 투철한 신념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기분에 띄워서", "향방 없이" 한 것에 불과하지 않으며 자기 가족의 생계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그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운동자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아무리 운동자라도 정작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결코 회피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운동자로서, 주의자로서 정혁의 사상이 놓인 현실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 스스로도 "이제까지 자기가 취해온 태도와 행동은 수박 겉핥기로 하나도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한 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너무나 관념적(觀念的)이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또는 널리 이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 아무 효력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빈손으로 허공을 더듬는 것 같을 뿐이다."[41]고 자조하고 있으며 짙은 허무에 빠져있다. 동생 정희의 시댁인 봉건 관료이자 자본가인 김장

[39]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한국: 글누림, 2016, 142 쪽.
[40]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322 쪽.
[41]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332 쪽.

관 집에서 정희를 시집보낸 대가로 대어주는 식량을 얻어먹기도 싫고 허구한 날 기생 퇴물림들과 술판에 빠져있고 유흥으로 서화나 치고 있는 아버지 정진사의 완고한 봉건성에도 비판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봉건가정을 완전히 박차고 나올 결심도 갖고 있지 못하며 정 배가 고프고 대책이 없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한다. 이는 정혁이의 주의 내지 운동이 현실적 삶에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흥룡이와 덕순의 이념과 투쟁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 흥룡이는 감옥에서 출옥한 날 저녁,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김장관의 호령에 분노하여 어머니의 만류도 뿌리치고 덕순이와 함께 분연히 김장관의 행랑방을 박차고 나간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정작 갈 데가 막연하여 덕순이가 정혁의 집으로 가 하루 밤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흥룡이는 "안돼요. 그놈의 집이 그놈의 집이지요."[42] 라고 강경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같이 출옥하여 간도로 가는 동무가 든 여관으로 가자고 한다. 흥룡의 비타협적 면모와 굳은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만 일에 우리의 의지(意志)가 꺾이구 사상이 변할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에게는 좋은 체험이지요. 의식을 더 한층 북돋아 줄 뿐이니까요"[43]라고 흥룡이는 덕순에게 자기의 강철 같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 "그래두 용하게 참으셨어요. 혼자 도맡아 고생을 하셨지요. 정혁이 같은 사람은 흥룡 씨한테 절을 골백번이나 해두 차건만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지 몰라요. 오늘두 중간에서 내빼는 것만 보세요."
>
> "남의 말 할게 있어요? 정혁이란 인물은 우리 운동 선상에서는 벌써 과거의 인물인걸. 소'부르'의 근성이 골수까지 밴 사람이라면 더 평할 여지가 없겠지요…"(『불사조』, 403쪽)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들과의 철저한 결별을 통해 가장 비타협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노동계급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요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부르주아 및 부르주아 반동계급과의 비타협적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는 흥룡이가 단돈 한 푼도 없이 여관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통해 전해온 정희의 돈을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지 그놈의 집에서 나온 돈은 다 마찬가지가 아니야요?"[44]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결국 돈의 출처가 부정하지 않음을 알고 그제서야 그 돈으로 용산 공장 근처에 셋집을 구하고 덕순이는 정미소의 여공으로 다시 취직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기로 한다. 감옥에서 겪은 모진 고문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김장관의 행랑채에서 쫓겨나 무일푼의 처지가 되었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공장에 다니면서 흥룡이와의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덕순의 강고한 결심을 통해 그들의 주의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현실적 기반 위에 확고하게 자리 잡

[42]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43]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44] 심훈, 『불사조』, 『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408 쪽.

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관념성, 허약성에 대한 폭로와 그들과의 철저하고 단호한 결별과 함께 심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파쟁성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다. 흥룡이는 감방에서 강도, 살인미수, 폭발물 취체 위반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을 걸머진 직접 행동파들인 간도 공산당 일파와 xx사건에 앞장을 서서 기골이 장대한 북관의 청년들을 만난다. "오랫동안 꺼둘려 다니며 경찰서에서 심한 취조를 당했었건만 그래도 그 기상과 그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45]다.

> 그 중에도 흥룡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
> "몰락의 과정을 과정하고 있는 부르주아지들의… 목적의식은 역사적 필연으로 자연생장기에 있어서…. "
>
> 이런 따위의 알아듣기 어려운 물 건너 문자를 연방 써가면서 노닥거리는 것으로 일을 삼지 않는 것이다.
>
> 그들은 다만 골수에까지 배인 우직하고 열렬한 x급의식과 제 피를 xx 먹는 자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xx을 계속할 뿐이다. 닭과 같이 싸우고 성난 황소처럼 들이받고 때로는 주린 맹수와 같이 상대자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을 뿐이다. 이른바 이론이나 캐고 앉아있는 나약한 지식계급으로서는 근처도 가기 어려운 야수성(野獸性)이 충만한 것이다. 흥룡이는 그들의 성격이 부러웠다.(『불사조』,361쪽.)

흥룡이가 이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는 건강한 행동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론이나 캐고 앉아있는 것은 나약한 지식계급이나 하는 일이라고 지식계급의 이론 중심주의, 이로 인한 파쟁성과 파당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간도 공산당 일파나 북관의 청년들은 "나약한 지식계급으로서는 근처도 가기 어려운 야수성이 충만한" 혁명자들인 것이다.『영원한 미소』에서도 김수영은 "이론이란 결국 공상일세. 우리는 인제버텀 붓끝으로나 입부리로 떠들기만 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하네"[46]라고 하며 이론의 위해성과 이론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지식계급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카프문인들에 대한 심훈의 비판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사전을 뒤져보아도 알 길 없는 '목적의식성', '자연생장기', '과정을 과정하고' 등등 기괴한 문자만을 나열해 가지고 소위 이론투쟁을 하는 것으로 소일의 妙法을 삼다가 그나마도 밑천이 긁히면 某某를 一蹴하느니 이놈 너는 수완가다 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가며 실컷 서로 쥐어뜯고 나니 다시 무료해진지라 영화나 어수룩한 양 싶어서 자웅을 분간할 수 없는 까마귀 떼의 하나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싸움을 청하는 모양인가?[47]

'목적의식성', '자연생장기', '과정을 과정하고'라는 표현은 명백히 일본식 사회주의 문예

[45] 심훈,『불사조』,『동방의 애인 . 불사조』, 위의 책, 361 쪽.
[46] 심훈,『영원의 미소』, 위의 책, 165 쪽.
[47] 심훈,「우리의 민중은 어떠한 영화를 요구하는가-를 논하여 '만년설' 군에게」, 위의 글, 75~76 쪽.

운동의 이론주의와 그 파당성에 대한 야유이다.[48] 이는 프로문학의 주역들을 "장작개비를 집는 듯한 이론조각과 난삽한 감상문"[49]의 주체로 혹독하게 비판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심훈이 카프에서 탈퇴한 주 원인으로 알려진 카프의 '부락적 폐쇄주의'와 '교조성'에 대한 비판의식[50] 역시 지식계급의 이론 중심주의와 파쟁성에 대한 거부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Ⅲ. 심훈식 사회주의사상의 기원에 대한 추론

위에서 살펴본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사이에 창작되었으며 그 중,『동방의 애인』,『불사조』는『조선일보』연재도중 검열에 의해 중단되었다. 소설들에는 주의자들의 투옥, 감옥에서의 모진 고문과 취조 과정, 그리고 거기에 맞서 비밀을 엄수하여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옥내 투쟁, 출옥 후의 지속적인 투쟁, 압록강 국경을 넘는 열차를 타고 조선에 잠입하다가 형사에게 쫓겨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주의자의 목숨을 건 탈주 등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당시 카프진영 주역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이다. 심훈은 이런 주의자들의 주의와 이념을 위한 열렬한 투쟁장면과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통해 소설 속에 그 나름의 강렬한 사회주의사상을 투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사상이 막바로 그의 중국 체험의 결과물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보았거니와 그렇다면 구경 무엇이 심훈 소설의 저 사회주의에 대한 도저한 신념과 열렬한 신봉을 만들어낸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중국 체험이 종결되던 1923년과 첫 '주의자 소설'『동방의 애인』이 연재되던 1930년 사이, 그 무렵에 조선 공산주의 진영을 강타한 한 문건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 테제-」라는 제목 하의 이 문건에서 우리는 당시 코민테른이 조선 사회주의자들에게 내린 사회주의 운동방침의 전환에 관한 결의의 내용을 볼 수 있다.

> 사회적, 경제적 실질(實質)에 의해 단지 일본제국주의에 대해서 뿐 아니라 조선 봉건제도에 대해서도 조선혁명이 실행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혁명은 전자본주의적 존속을 파괴하고 토지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자본주의적 압박으로부터 토지를 해방하는 일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혁명은 토지혁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국주의의 타도 및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초래한다…
>
> 조선공산주의자가 자기의 행동에 의해 토지문제와 민족혁명을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면 조선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
> 동시에 토지혁명의 전개 없이는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는 얻어지지 않는다. 민족해방운동과 토지에 대한 항쟁의 결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년(1919년, 1920년) 혁명운동은 미약했고 실패로 돌아갔던 것

[48] 한기형, 위의 글, 429 쪽.
[49] 심훈,「프로문학에 직언 1, 2, 3」,『영화평론 외』, 위의 책, 230 쪽.
[50] 최원식,「심훈연구서설」,『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 출판부, 1999. 257~260 쪽.

이다…[51]

테제는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공업의 발달은 방해받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경제관계는 前자본제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선혁명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토지혁명 즉 계급해방을 위한 사회주의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동시에 테제는 "조선혁명은 토지혁명이어야 하"며 "토지혁명의 전개 없이는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는 얻어지지 않는다"고 사회주의혁명이 민족혁명에 우선하는 과제임을 강조하였으며 토지혁명과 민족혁명을 조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19년의 3.1운동 등 민족해방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토지혁명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를 제외한 어떠한 정치세력도 민족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약화시키리라는 것, 이것이 '12월 테제' 이후 조선 사회주의운동 방향전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제 민족혁명은 노동계급 전위정당으로서 '공산당'이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농민을 지도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었다. 민족혁명과 사회혁명이 동일시되기에 이른 것이며 사회혁명역량의 강화만이 민족혁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방침에 다다른 것이다. 민족혁명과 사회혁명 사이에 '만리장성'이 무너지면서 민족혁명은 사회혁명과는 다른 독자적인 질을 가진다는 인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적이며 반자본가적인 투쟁을 혁명적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끌어 조직하는 것,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농민의 토지에 대한 요구를 토지혁명의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족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자 또한 충분한 조건인 것이다.[52] 그들은 민족혁명을 사회혁명 속으로 해소시킴으로써 계급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만들었다.[53]

테제는 또 "경작지면적의 확장, 관개설비, 관개예정지 확장, 치산(治山), 농사 개량 등 조차 조선인의 생활상태를 개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 모든 사업은 일본제국주의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수행되었기 때문이다"[54]고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운동 내지 브나로드 운동의 허위성과 실질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테제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허약함을 반성하고 그것의 철저한 개조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과거에 있어서 공산당원은 거의 모두 지식계급 및 학생 뿐이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공산정치의 실현은 고사하고 필요한 조직적 연대의 실행도 곤란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공산당의 제1사업이 과거의 오류

[51] 한대희 편역,「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국: 한울림, 1986, 208~209 쪽.(이 책의 서문에 보면 '12 월 테제'는 金正明 편,『朝鮮獨立運動 Ⅴ : 共産主義運動篇 』, 東京: 原書房, 1967 의 해당 부분을 옮긴 것.)
[52] 류준범,「1930~40 년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민족혁명'에 대한 인식」,『역사문제연구』제 4 호, 2000, 112~113 쪽.
[53] 류준범, 위의 글, 115 쪽.
[54]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위의 글, 206 쪽.

> 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소이(所以)이다. 당의 개조문제를 빼고는 따로 절실한 문제는 없다. 당을 소부르주아지 및 지식계급으로써 조직하고 노동자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한 점이 현재까지 조선공산주의의 영구적 위기를 낳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
> 조선공산주의자는 일대노력을 기울여 첫째로 노동자를, 둘째로 빈농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자는 당(黨)대중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식 조직방법과 지식계급의 주장을 버리고 특히 기업 및 신디케이트에 있어서의 공작에 노력해야만 앞서 말한 대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다…
>
> 농민에 대한 행동에 관해서 당은 소작인 및 반(半) 소작인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해야 한다…[55]

여기서 당의 개조 문제란 바로 당원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개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당의 개조를 위해 조선공산주의자는 지식계급의 주장을 버리고 노동자와 빈농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 농민대중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대열의 재편성을 이루려는 활동상의 방향전환은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허약함에 대한 반성과 연결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조직상의 방침 그 이상을 의미한다. '조선혁명'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인식변화가 조직상의 활동방침을 변경시켜 놓은 것이다. 따로이 민족혁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된 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며 때론 유해하다.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에는 노동자 • 농민의 일상적 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하여 그 투쟁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민중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민족혁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56]

> 조선의 공산당운동의 당면한 주요방침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을 왕성하게 하여 소부르조아 민족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계급의식을 강조하면서…
>
> 조선의 주의자는 자기의 모든 공작, 자기의 모든 임무로부터 명백히 소부르조아 당파를 분리시키고 혁명적 노동운동의 완전한 독자성을 엄중히 지켜나가야 한다…[57]

테제는 또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부르주아와 완전히 결별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혁명성을 지켜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월테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코민테른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식민지 •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운동에 대하여」에서는 소부르주아 정치조직들이 민족혁명적 성격에서 급속히 민족개량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테제는 식민지의 기본적인 정치지형을 제국주의 / 민족개량주의 / 민족혁명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같은 구분에서 소부르주아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이란 민족개량주의적 조직 내지는 곧 그렇게 될 조직에 불과한 것이다.[58]

또한 테제는 그 첫머리에 "공산당 조직의 곤란함은…일본제국주의의 탄압 뿐만 아니라

---

55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위의 글, 211 쪽.
56 류준범, 위의 글, 114 쪽.
57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위의 글, 213 쪽.
58 류준범, 위의 글, 111 쪽.

조선의 공산운동을 수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내부의 알력 • 파쟁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리하여 부르조아계급의 백색(白色)테러 폭압 및 내홍(內訌)과 파쟁은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공산주의 전위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59]고 조선 사회주의운동에서의 파쟁의 위해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12월 테제'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방향과 매우 닮아있다. 심훈이「12월 테제」를 보았는지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1928년 12월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결의」즉 이른바 '12월 테제'가 "이후 조선 사회주의운동의 일반 지침서와 같은 구실을 했"고 "12월 테제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방침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강령적 문서로 작용했"[60]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심훈이「12월 테제」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심훈은 중국 체류 시, 이동휘, 여운형 등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였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시절 박헌영 • 임원근 • 허정숙 등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활약하다가 '철필구락부' 사건으로 퇴사하였다.[61] 이를 두고 홍효민은 그가 "동아일보에서 점차로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힘을 썼었다"[62]고 회고하였다. 심훈은 홍명희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심훈은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27년 11월22일 병보석으로 출감한 박헌영의 처참한 몰골에 분개하여 그의 출감에 즈음하여「박군의 얼굴」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적은 그가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령적 문서로 작용했고 신간회 해소 운동의 근거가 되었던 이 문건을 심훈이 보았을 가능성은 무엇보다 높다. 그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방향이 '12월 테제'의 주장과 거의 닮았음은 무엇보다 유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Ⅳ.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심훈의 사회주의사상이 집중적으로 체현된『동방의 애인』,『불사조』,『영원의 미소』세 편의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심훈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중국 체험의 연장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의 심화와 전환의 계기를 주목하였다.

위의 세 편의 장편소설은 중국에서 귀국 후 7년 뒤, 1930년경부터 1933년까지 발표한 것으로 모두 주의자들의 투옥체험과 불굴의 투쟁, 출옥 후의 지속적인 투쟁 등을 다루고

[59]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위의 글, 205 쪽.
[60] 류준범, 103 쪽.
[61] 최원식, 위의 글, 251~253 쪽.
[62] 홍효민,「상록수와 심훈」,『현대문학』(1963 년 1 월호), 269~270 쪽.(최원식, 위의 글, 252 쪽 재인용.)

있으며 이를 통해 심훈은 나름대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포획하고 있다. 첫째, 심훈은 사회주의 혁명을 계급문제와 식민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고 계급해방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으나 민족해방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민족해방의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 속에서 계급해방과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의 목표이자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과제라는 것이다. 심훈은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사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민족과 계급에 대한 고민은 식민지 조선농촌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와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농민계급과의 결합을 통한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철저한 자기 개조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심훈은 지금까지 지식계급이 해왔던 소위 브나로드운동이니 농촌진흥운동이니 모두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극도로 궁핍하고 참혹한 삶을 개선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준엄한 비판과 자기비판은 곧 지식계급의 철저한 개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셋째, 심훈은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긍정하고 지식계급의 파쟁성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부르주아 지식계급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들과의 철저한 결별을 통해 가장 비타협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노동계급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요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심훈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방향은 공교롭게도 1928년 12월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결의」즉 이른바 '12월 테제'와 매우 닮아있다. 심훈이「12월 테제」를 보았는지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12월 테제'가 "이후 조선 사회주의운동의 일반 지침서와 같은 구실을 했"고 "12월 테제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방침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강령적 문서로 작용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심훈이「12월 테제」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심훈이 중국 체류 시기 및 귀국하여 동아일보시절,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고 함께 활약하였던 점, 그리고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병으로 출감한 박헌영을 모델로「박군의 얼굴」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던 점 등 일련의 행적은 그가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령적 문서로 작용했고 신간회 해소 운동의 근거가 되었던 이 문건을 심훈이 보았을 가능성은 무엇보다 높다. 그의 '주의자 소설' 삼부작이 포획한 조선 사회주의의 방향이 '12월 테제'의 주장과 거의 닮았음은 무엇보다 유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훈의 처지와 문학 활동 그리고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 등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그의 사상적 편력을 생각한다면 심훈의 그런 소설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저한 이해 위에서 씌어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쩌면 '주의자 소설' 삼부작으로 묶을 수 있는 이 세 편의 소설은 사회주의문제에 끝까지 깊은 관심을 가졌던 지식인의 과거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까? 사회주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심훈은 그 평가척도로 당시 아마도 제법 알려져 있을 '12월 테제'를 끌고 들어왔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심훈,『동방의 애인 • 불사조』, 글누림, 2016.

심훈,『영원의 미소』, 글누림, 2016.

심훈,『영화평론 외』, 글누림, 2016.

심훈,『심훈 시가집 외』, 글누림, 2016.

2. 논문

유병석,「심훈의 생애 연구」,『국어교육』제14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한기형,「'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중국에서의 심훈」,『민족문학사연구』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서사의 로칼리티, 소실된 동아시아-심훈의 중국체험과『동방의 애인』」,『대동문화연구』제63집, 2008.

하상일,「심훈과 중국」,『비평문학』55, 2015.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한민족문화연구』제51집, 2015.

,「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동북아 문화 연구』49, 2016.

한대희 편역,「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국: 한울림, 1986.

최원식,「沈熏硏究序說」,『한국근대문학을 찾아서』,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류준범,「1930~4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민족혁명'에 대한 인식」,『역사문제연구』제4호, 2000.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

동심과 민족의식: 윤동주의 용정(龍井)시절 작품연구

田月梅

(天津師範大學)

목차

1. 들어가며

2. 용정시절의 윤동주와 그의 작품들

3. 용정시대의 작품 세계

1) 순수 지향의 동심 세계

2) 식민지 현실에서의 민족의식

4. 나가며

1. 들어가며

윤동주는 1940년대 암흑기 한국문단을 장식한 시인이다.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후,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유고 시집이 발표되면서 윤동주는 세상에 알려졌다. 윤동주는 그의 작품이 독자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품에 열과 성을 다한 시인이다.

윤동주의 29세 생애는 공간적으로 북간도, 서울, 일본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고향인 북간도의 명동촌과 용정에서 보냈다.

윤동주 집안은 증조부 윤재옥 때인 1886년에 함경북도 종성에서 오늘의 룡정시 개산툰진 자동촌으로 이주하였고 조부 윤하현 때인 1900년에 화룡현 명동촌으로 옮기어 살다가 1931년 4월에 명동에서 20리 서쪽에 있는 소도시인 용정으로 이사하였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명동촌에서 본관이 파평인 부친 윤영석, 모친 김룡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1938년 4월 9일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평양 숭실학교에서의 7개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명동과 용정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공부를 하였다. 시간적으로 볼 때 윤동주는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5년간 명동소학교(1926.4.4.-1931.3.15),

1년 반 명동에서 10리 떨어진 대납자 소학교에서 수학하였는데 명동촌에서의 시간은 14년에 달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명동촌에서 이사하여 용정에서 죽 살았는바 용정에서 학교 다닌 시간은 용정의 은진중학교(1931.4-1935.8)에서의 3년 반, 용정의 광명중학교(1936.3-1938.2.17)에서의 2 년 해서 모두 5년반이다. 그러나 윤동주는 학생신분으로 서울에 공부하러 가서나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방학하면 집이 있는 고향 용정으로 오군했다. 1943년 방학하면서 일본에서 귀향의 길에 오르기 직전인 7월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사상범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독립을 불과 6개월 남겨 놓은 1945년 2월 16일에 운명하였다. 한줌의 재가 된 유해는 아버지 품에 안겨 고향으로 돌아와 눈보라가 몹시 치는 3월 초순 간도의 용정 동산 마루턱에 묻혔고 그해 단오 무렵 가족들에 의해 묘소에 <詩人 尹東柱之墓>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윤동주에게 명동은 시와 시심을 키워준 태어난 고향이라면, 용정은 자아발견을 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을 통한 성숙의 과정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가 용정으로 가는 1931년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시기였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본격적으로 만주 침략에 나섰는데 1932년 동삼성과 열하 및 내몽고 동부를 판도로 하는 '만주국'이란 이름의 괴뢰국을 세우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명목상의 통치자로 앉혔다. 정치, 역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되고 만주마저 일제에 의해 짓밟힌 혼란한 상황에서 윤동주는 용정에서 어떠한 시절을 보냈고 어떠한 작품을 썼으며 그 당시 그의 시세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즉 본고에서는 일제암흑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실제 지역을 한정하는 용정이라는 공간에 착안하여 용정시절의 윤동주와 그 당시 쓴 작품을 통한 시인의 내면의식 및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용정시절의 윤동주와 그의 작품들

'용정(龍井)'이란 지명은 '용두레 우물'에서 유래하였다. 1881년에 조선인들이 북간도의 '육도구(六道溝)'란 마을에 대거 이주하면서 옛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우물의 물이 맑고 감미로워서 우물가에 두레박을 세웠는데 '용두레 우물'이라 하였다. '용두레 우물'이란 사람 손으로 두레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용두레를 이용하여 물을 긷는 우물이다. 우물곁에 큰 기둥를 세우고, 기둥에다 긴 장대를 설치한다. 장대 한끝에는 두레박을 매달고 다른 한끝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돌을 매단다. 두레박 줄을 물까지 잡아내려 두레박에 물이 담기게 한다. 그런 다음 손을 놓으면 돌의 무게 때문에 물 담긴 두레박이 절로 위로 올라온다. 1931년 만주사변이후 공식적으로 '육도구' 명칭을 '용정촌'으로 개명하였다. 1934년에는 이기섭(李基燮)의 발기 하에 2미터 높이의 화강암 돌비석을 세우고 "용정의 지명은 우물에서 유래했다"고 새겼다.

북간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역 내에 두 개의 구심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용정, 하나

는 연길(일명 국자가)이다. 용정이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도회지라면, 연길은 중국 측의 최고 행정관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중심지였다. 1909년 9월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 의해 용정에 총영사관(1909.11.2-1945.8.15), 국자가와 두도구, 백초구에 영사관 분관을 설치했다. 이 네 곳은 북간도에서 인구 밀집지대로서 각기 소속 지역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들이었다. 일본은 이 네 지대를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와 무역이 보장되는 개방지(공식적으로는 상부지(商埠地)라고 불렀다)로 하여, 그 안에서는 일본의 치안조직이 그대로 가동되도록 조약으로 보장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총영사관과 분관에 '영사관 경찰서'니 '영사관 유치장'이니 하는 명목으로 체계적인 경찰조직과 수감시설을 갖추어놓고 소위 '치안'에 활용하였기에 독립운동가들은 개방지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용정에서는 일본 측이든 중국 측이든 손을 못 대는 곳이 있었으니 기독교 장로교파의 캐나다 선교부가 자리 잡은 동산일대로서 일명 '영국덕'이다. 캐나다는 국제 상으로는 영국 연방국의 하나로서 '영국인들의 언덕'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별칭이다. 선교부 구역 내에는 선교사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병원 등 각종 기관들과 주택들이 있었는데 그중 윤동주가 다닌 은진중학교도 있었다.

윤동주는 용정에서 은진중학교와 광명중학교를 다녔다. 은진중학교가 용정의 기독교계 학교라면 광명중학교는 친일계 학교였다.

은진중학교는 1931년 4월에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입학하였다. 윤동주의 집에서는 명동의 농토와 집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용정에 이사했다. 부친 윤영석은 용정에다 인쇄소를 내었으나 워낙 선비체질인 그에게 사업은 여의치 않았다. 환경이나 여건 등이 명동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윤동주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우수했다.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 교수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한다.

> 은진중학교 때의 그(윤동주)의 취미는 다방면이었다. 축구선수로 뛰기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교내 잡지를 내느라고 등사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기성복을 맵시 있게 고쳐서 허리를 잘룩하게 한다든지 나팔바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어머니의 손을 빌지 않고 혼자서 재봉틀로 하기도 하였다. 2학년 때이던가, 교내 웅변대회에서 '땀 한 방울'이란 제목으로 1등 한 일이 있어서 상으로 탄 예수 사진의 액자에 우리 집에 걸려 있었다. 절구통 위에 귤 궤짝을 올려놓고 웅변 연습을 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그러나 그는 웅변조의 사람이 아니었고 대회의 평도 침착한 어조와 내용 덕분이란 것이었다. 그 후 그는 다시 웅변에 관심을 둔 바는 없다. 그는 수학도 잘하였다. 특히 기하학을 좋아하였다.

학교 문예지를 책임진 문학 소년에 수학도 잘하고 축구도 잘 차는 데다가 옷차림에도 관심이 커서 손수 재봉틀을 해서 옷을 맵시가 나게 고쳐 입는 센스를 부리기도 하는 소년 윤동주, 이 증언은 활달하고 미적감수도 있는 윤동주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1935년 9월 1일, 은진중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윤동주는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 2반에 편입한다. 그러나 이듬해인 1936년 3월 말,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폐교되기에 이르자 고향 용정으로 돌아와 5년제인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하였다. 숭실학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윤동주는 더욱 많은 작품을 쓰게 된다. 윤동주가 숭실학교에 가서 다닌 시간은 7개월 정도인데, 그에게 미친 영향은 자못 크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경향이 숭실중학 가기 전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현실적이고 민족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윤동주의 숭실중학 시절과 그 시절에 창작한 작품을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윤동주는 최초의 작품으로 기록된 1934년 12월부터 1938년 2월 용정의 광명중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합 74편의 시를 쓴다. 그중 동시 32편, 현대시 41편이다. 그의 총 작품이 125편이라 할 때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리고 동시창작도 1938년 <귀뚜라미와 나와>작품을 마감으로 37편인데 이 시기에 창작한 동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연보를 살펴보도록 한다.

윤동주 연보에 의하면 1934년 12월 24일 <삶과 죽음>, <초 한 대>, <내일은 없다>(동시) 이 세 작품이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은진중학시절에 쓴 것으로서 이날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5년 10월, 숭실학교에 편입된 윤동주는 학교 YMCA 문예부에서 내린 『숭실활천』 제15호에 시 <공상>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7개월간 그는 동시 <조개껍질>, <거리에서>, <꿈은 깨어지고>, <창공>, <남쪽하늘> 등 6편을 창작했다.

1936년 3월말, 윤동주는 숭실학교에서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시를 창작하게 된다. 그는 동시 <고향집>, <병아리>, <오줌싸개 지도>, <창구멍>, <기왓장 내외>, <빗자루>, <해비>, <비행기>, <굴뚝>, <무얼 먹구 사나>, <봄1>, <참새>, <개1>, <편지>, <버선본>, <이불>, <사과>, <눈>, <닭2>, <겨울>, <호주머니> 21편과 시<비둘기>, <이별>, <식권>, <모란봉에서>, <황혼>, <가슴1>, <가슴2>, <종달새>, <닭1>, <산상>, <오후의 구장>, <이런 날>, <양지쪽>, <산림>, <가슴3>, <곡간>, <빨래>, <가을밤>, <아침> 19편을 쓴다. 그중 간도의 연길에서 발행하던『카톨릭 소년』에 윤동주(尹童舟)라는 필명으로 동시 <병아리>는 1936년 11월호에, <빗자루>는 1936년 12월호에, <오줌싸개 지도>는 1937년 1월호에 발표한다.

1937년에는 동시 <황혼이 바다가 되어>, <거짓부리>, <둘다>, <반딧불>, <밤>, <할아버지>, <만돌이>, <개2>, <야행> 9편과 시 <나무>, <장>, <달밤>, <풍경>, <울적>, <한난계>, <그 여자>, <비 뒤>, <소낙비>, <명상>, <비로봉>, <바다>, <산협의 오후>, <창>, <유언> 15편을 창작하는데 그중 동시 <거짓부리>가 1937년『카톨릭 소년』 10월호에 발표되고, 시 <유언>은 1939년 2월 6일『조선일보』에 발표된다.

그 당시 창작한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어린이 시각으로 순수한 동심세계를 반영한 동시가 있는가 하면 식민지 암흑한 현실에 대한 불만정서, 한민족에 대한 민족정서와 의식

등을 나타내는 시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윤동주의 1934-1937년 사이에 쓴 시를 대상으로 순수지향의 동심 세계, 식민지 현실에서의 민족의식 두 분야로 나누어 윤동주의 시세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3. 용정 시절의 작품 세계

3.1 순수 지향의 동심 세계

윤동주가 추구하는 동심의 세계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며 가족, 인간,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화해의 세계이다. 이러한 화해의 세계에는 기발한 착상과 재치로 일상생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서로 나눔을 통한 평화로움이 묻어있다.

3.1.1 흥미로운 일상 이야기와 동심세계

동심은 동시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윤동주 동시의 특징은 그 착상의 기발함과 재치를 꼽을 수 있다. 동시의 소재는 일상의 흥미진진한 가족이야기나 풍경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 일례로 <거짓부리>, <빗자루>, <참새>, <닭2>, <비행기> 등을 들 수 있다.

> 똑,똑,똑 / 문 좀 열어주셔요 / 하루밤 자고 갑시다 / 밤은 깊고 날은 추운데 / 거, 누굴까? / 문 열어주구 보니, / 검둥이의 꼬리가 / 거짓부리한걸. // 꼬기요, 꼬기요 / 닭알 낳았다 / 간난아! 어서 집어 가거라 / 간난이 뛰어가 보니, / 닭알은 무슨 닭알 / 고놈의 암탉이 / 대낮에 새빨간 / 거짓부리한걸 //
> -<거짓부리>전문, 『카톨릭소년』, 1937년 10월호

시에서는 시적화자가 지나가던 행인이 문 두드리는 줄 알고 나가봤더니, 검둥이 꼬리가 문을 친 것이다. 검둥이를 욕하지 않고 검둥이 꼬리가 거짓부리한 것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여기에서는 깊고 추운 겨울밤, 지나가는 행인을 하룻밤 재워주는 따뜻한 인심, 검둥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알은 낳지 않고 울기만 한 암탉도 거짓부리한 것이라고 열거법으로 표현하였다. 어린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빗자루>도 같은 맥락에서 재치와 기지로 표현된 동시이다.

> 요-리조리 베면 저고리 되고 / 이-렇게 베면 큰 총 되지. / 누나하구 나하구 / 가위로 종이 쏠았더니 /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 누나 하나 나 하나 / 볼기짝을 때렸소 / 방바닥이 어지럽다고- // 아니 아-니 / 고놈의 빗자루가 / 방바닥 쓸기 싫으니 / 그랬지 그랬어 / 괘씸하여 벽장 속에 감췄더니 / 이튿날 아침 빗자루가 없다고 / 어머니가 야단이지요.//
> -<빗자루>전문, 『카톨릭 소년』 1936년 12월호

빗자루는 청소도구이다. 그러나 나와 누나는 가위로 종이를 쏠면서 집을 어지럽히기만 하고 쓸지 않았다. 그랬다고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우리를 한 대씩 때렸는데 시적화자는 이는 모두 '고놈의 빗자루가 방바닥 쓸기 싫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재치 있게 빗자루에게 잘못을 돌려버린다. 그리고 빗자루를 벽장 속에 감추는데 이튿날 빗자루가 없다고 야단치는 어머니를 보며 통쾌해한다.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스케치하듯 생동감 나게 묘사하였다.

그 외에도 <닭2>에서는 "닭은 나래가 커두 / 왜, 날잖나요 /---아마 두엄 파기에 / 홀, 잊었나봐"하고 동심의 시각으로 닭이 날지 못하는 원인을 재치있고도 엉뚱하게 딴 데로 돌리고 있고, <비행기>에서도 "새처럼 나래를 / 펄럭거리지 못한다 / 그리고 늘- / 소리를 지른다. / 숨이 찬가봐"라고 비행기가 숨이 차서 새처럼 나래 펄럭거리지 못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형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참새>에서도 "하루종일 / 글씨 공부하여도 / 짹자 한 자밖에 더 못 쓰는 걸"하고 해학적이고 재치있게 표현하였다.

요컨대, 윤동주의 <거짓부리>, <빗자루>, <닭2>, <비행기>, <참새> 등 동시는 착상의 기발함과 재치의 시작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서 나타나는 동심세계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어린 화자의 시각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는 순수지향의 화해의 세계이다.

3.1.2 나눔의 정겨움과 평화로운 세계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나눔의 세계에는 가족과의 나눔, 젊은이 들 사이의 나눔, 동물들사이의 나눔, 자연과의 나눔이 있으며 거기에는 일상적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다. 일례로 <굴뚝>, <밤>, <비둘기>, <사과>, <창구멍> 등이 있다.

>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 몽긔몽긔 웬 내굴 대낮에 솟나. //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 애들이 /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 입술이 꺼멓게 숯을 바르고, /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
> -<굴뚝>전문, 1936.가을

이 시는 이야기시로서, 시적분위기가 백석의 <여우난곬족>이나 <모닥불>을 닮아있다. 산골짜기 오막살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총각애들이 감자를 굽어먹고 있다. 입술이 꺼멓게 숯을 바르고 있지만 깜박깜박 검은 눈들이 신이 나서 흥미진진하게 감자를 먹으면서 옛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평화로움의 장면이다. 이는 백석의 시에서 자주 표현되는 공동체 의식인바, 윤동주는 어느 정도 백석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 <사과>에서도 "붉은 사과 한 개를 / 아버지, 어머니 / 누나,

나, 넷이서 / 껍질째로 송치까지 / 다- 노나 먹"는다. 가난해서 사과 하나 뿐인 상황에서 가족 넷이서 나눠 먹는 정겨운 장면을 그린 것이다. 나눔의 정겨움과 공동체 의식 외에 일상의 평화로운 모습을 담아낸 시들도 있다.

> 외양간 당나귀 / 아-ㅇ 앙 외마디 울음 울고, // 당나귀 소리에 / 으-아 아 애기 소스라쳐 깨고, // 등잔에 불을 다오, // 아버지는 당나귀에게 / 짚을 한 키 담아주고 // 어머니는 애기에게 / 젖을 한 모금 먹이고, // 밤은 다시 고요히 잠드오. //
> -<밤> 전문, 1937.3

밤에 당나귀는 배고파 울고 그 울음소리에 애기도 깨여나 운다. 당나귀는 짚을 한 키 담아주고 아기는 젖을 한 모금 먹인다. 동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밤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 밤은 당나귀가 울고 아기가 우는 생명력이 있고, 가족과 동물이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화해의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계는 <봄>, <병아리>, <눈>, <햇비> 등에서도 나타난다.

요컨대, 윤동주 시에 나타난 나눔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며 일상의 평화로움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평화로운 화해의 세계이다.

3.2 식민지 현실에서의 민족의식

일제식민치하에서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는 크게 독립 운동 목적이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이나 혹은 만주이민정책에 의해 이주 온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조선인들은 후자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의 이민에 관하여 다룬 시로는 <오줌싸개 지도>, <고향집>, <조개껍데기> 등이 있다.

> 헌 짚신짝 끄을고 / 나 여기 왜 왔노 / 두만강을 건너서 / 쓸쓸한 이 땅에 //
> 남쪽 하늘 저 밑엔 / 따뜻한 내 고향 / 내 어머니 계신 고향 / 그리운 고향 집 //
> -<고향집 -만주에서 부른>전문, 1936.1.6.

'만주에서 부른'을 부제로 달아놓은 이 시는 만주에서의 유랑과 이민의 서러움, 고향의 그리운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시적화자는 북쪽 만주에 있다. 너무나 가난해서 "헌 짚신짝을 끄을고 두만강을 건너서" 잘 살아보려고 만주로 왔다. 그러나 만주 땅은 쓸쓸함과 외로움만 남겨주고 별로 고향보다 낫지가 않다. 그리하여 "나 여기 왜 왔노"라고 후회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남쪽하늘 저 밑"에 "내 어머니가 계"시는 따뜻한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는 이주민 개인 삶의 비극이 아닌 전반 민족적 비극이기도 하다.

이 시는 1936년에 쓴 것인데 시기적으로 시인은 평양 숭실중학교에 있었다. 그때

숭실중학교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를 거부했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폐교에 이르게 되고 시인도 학교를 그만두고 용정으로 옮기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시인은 민족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평양 가기 전에 발표한 <초 한 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등 작품들과 비교해볼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발표작들이 삶과 죽음, 빛과 어둠 등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는 현실적인 민족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 <오줌싸개 지도>를 들 수 있다.

빨래 줄에 걸어논 / 요에다 그린 지도는 / 지난밤에 내 동생 / 오줌 싸서 그린 지도,//
꿈에 가본 / 엄마 계신 / 별나라 지돈가, /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 만주땅 지돈가,//
-<오줌싸개 지도> 전문, 1937.1

이 시는 <고향집>과 비슷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적화자의 공간적 위치는 조선이다. 시적화자는 어린이인데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는 어려운 생활 때문에 만주땅으로 돈을 벌려고 갔다. 이 시의 기발한 착상은 빨래 줄에 걸려있는 동생이 오줌 싸놓은 요라는 회화적 사물을 통해 지도를 연상하는 것이다. 시적화자는 계속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쳐 그 지도가 사별한 엄마가 계시는 별나라의 지도인가 아니면 아빠가 계시는 만주 땅 지도인가 하고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다. 떨어져있는 아빠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돈 벌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는 식민지 현실에서 개인과 민족의 아픈 현실이기도 하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윤동주의 생각이나 사상 정서는 시 <이런 날>과 <양지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 / 오색기와, 태양기가 춤을 추는 날, / 금을 그은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다 // 아이들에게 하루의 건조한 학과로, / 해말간 권태가 깃들고, / '모순'두 자를 이해치 못하도록 / 머리가 단순하였구나 // 이런 날에는 /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 부르고 싶다.
-<이런 날>전문, 1936.6.10.

이 시는 시인이 숭실 중학에서 광명학원으로 간 후에 쓴 시로, 간도의 현실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날>은 국경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경일에 만주국은 두 국기를 대문 양 쪽에 나란히 걸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정문 돌기둥 두 끝에 위만주국의 오색기와 일본의 태양기가 나란히 걸려 하늘에서 펄럭이고, 자유의 금지를 받는 식민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권태가 다가오는 하루의 건조한 학과이고 일상이다. 화자는 "잃어버린 완고한 형"을 부르는 것으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광명학원은 친일계학교로, 평양 숭실중학과는 달랐다. 숭실중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신앙적 양심을 굳게 지킴으로써 폐교에 이르렀다면, 광명중학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제국주의, 황민화를 합리화하는 교육을 단행하는 학교였다. 이러한 학교에서 시적화자는 오색기와 태양기를 보면서, 현실의 비극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시 <양지쪽>에서도 시인의 이면의 사상이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 저쪽으로 황토 실은 이 땅 봄바람이 / 호인(胡人)의 물레바퀴처럼 돌아 지나고, / 아롱진 사월 태양의 손길이 / 벽을 등진 설운 가슴마다 올올이 만진다. // 지도째기놀음에 뉘 땅인 줄 모르는 애 둘이, / 한 뼘 손가락이 짧음을 한(恨)함이여. // 아서라! 가뜩이나 엷은 평화가, / 깨어질까 근심스럽다. //
> -<양지쪽>전문, 1936년 봄.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양지쪽에서 지도째기 놀이하고 있는 두 아이이다. 지도째기 놀음은 아이들의 일상적 유희인바 땅따먹기 놀이다. 이 놀이는 부단히 땅을 따 먹는 확장 지향적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측면으로, 두 아이의 놀이는 영토의 야심을 보이는 일본과 거기에 먹히우는 중국의 대결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할 수 있다. "한뼘 손가락이 짧음의 恨과 안타까움, 중국을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측면으로, 두 아이는 중국 아이들로서, 황토의 봄바람이 부는 계절에, 일본에 뺏긴 이 땅에서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진정 "뉘 땅인지" 상황을 모른다. 시적화자의 '아서라!'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두 아이의 놀음을 저지하는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내며, 평화를 깨뜨리는 제국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윤동주의 저항 의식을 볼 수 있다.
용정시절의 윤동주 시에서, 시인은 비록 북간도에서 살고 있었지만, 민족에 대한 정서와 민족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 ① 나 여기 왜 왔노 / 두만강을 건너서 / 쓸쓸한 이 땅에 // -<고향집>부분, 1936.1.6.
> ② 돈벌러간 아바지게신 / 만주땅 디도ㄴ가, //-<오줌싸개 지도> 부분, 1937.1
> ③ 달밤의 거리 / 광풍이 휘날리는 / 북국의 거리 /...괴롬의 거리 /-<거리에서>부분, 1935.1
> ④ 저쪽으로 황토 실은 이 땅 봄바람이 / 호인(胡人)의 물레바퀴처럼 돌아 지나고/
> -<양지쪽>부분, 1936년 봄.

윤동주는 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만주땅', '북국', '호인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만주국에 대한 강한 부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땅이기에 '쓸쓸한 땅'이고 '괴롬의 거리'인 것이다. 일제시대 만주제국은 치외법권과 국적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의 국적은 식민지 조선에 속해 있었다.
윤동주가 지향하는 곳은 조선이었다. 그 조선은 "남쪽 하늘 저 밑엔 / 따뜻한 내 고향 /

내 어머니 계신 고향 / 그리운 고향"(<고향집>)이었다. 시 <조개껍질>에서는 "여긴 여긴 북쪽 나라요 /.../ 장난감 조개껍데기 // 데굴데굴 굴리며 놀다 / 짝잃은 조개껍데기 / 한 짝을 그리워하네//"라고 떠나온 조선을 그리워한다. 그 향수는 "어린靈은 쪽나래의 鄕愁를 타고/南쪽하늘에 떠돌뿐－"(<南쪽하늘>)이다. 시인은 조선적인 것에 정겨움을 나타내었다.

> 식권은 하루 세 끼를 준다. // 식모는 젊은 아이들에게 / 한 때 흰 그릇 셋을 준다. // 대동강 물로 끓인 국,/평안도 쌀로 지은 밥, / 조선의 매운 고추장. // 식권은 우리 배를 부르게.// -<식권>전문, 1936.3.20.

시에서는 대동강, 평안도, 조선을 나열하면서 이 고장의 물, 쌀, 고추장들이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운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은 산이 많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으로 유명하며, 평안도 쌀은 찰진 것으로 이름 있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조선인의 민족특색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민족음식을 먹으며, 시적화자는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 민족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인은 시 <모란봉>에서 "허물어진 성터에서 / 철모르는 여아들이 / 저도 모를 이국말로 / 재질대며 뛰을 뛰고"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난데없는 자동차가 밉다"고 에둘러 표현한다. 이 시는 "대동강"이 나오는 평양에서 쓴 것을 감안하면 철모르는 여아들이 쓰는 이국말은 일본어로 풀이된다. 철없는 아이들이 쓰는 일본어도 시적화자에게는 싫었던 것이다. 식민지현실에서 시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민족과 민족어를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4. 나가며

윤동주는 간도 이민 3세대로, 29세의 생애 중 22년을 북간도에서 보냈다. 북간도에서 시 창작을 한 시기는 1935년 12월에서 1937년 사이이며 이 시기 창작한 시는 도합 74편인데 그중 동시 32편, 현대시 41편이다. 이 글에서는 순수지향의 동심 세계와 식민지현실에서의 민족의식 두 갈래 나누어 시인의 작품 세계를 짚어보았다.

순수지향의 동심세계는 화해의 세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흥미진진한 일상적 스토리로 기발한 착상과 재치의 시작(詩作)법을 활용하였다. 동심의 세계는 밝고 순수하며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화해의 세계는 나눔과 평화로움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가족, 인간, 자연의 나눔이 있고 일상의 평화로움이 있다. 음식을 나눠먹음으로써 서로 정을 나누고, 일상의 평화로움에서 동물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어 공존하는 화해의 세계가 있다.

식민지현실에서의 민족의식은 민족의 비극,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철부지 학

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살펴보았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민의 만주이주는 개인 삶의 비극이 아닌 민족적 비극이며, 식민지 상황임에도 멋모르고 즐거워하고 일본어를 쓰는 철부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만주국'에 대한 부정, 더불어 내심으로 조선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을 도출하였다.

윤동주의 작품과정을 볼 때 이러한 현실인식, 민족의식은 숭실중학교를 다녀와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숭실중학교에서의 신사참배 거부를 통한 강제폐교나 기타 경험을 통하여 그전의 작품들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면 다녀와서의 작품들은 현실과 민족을 고민하는 작품들이 나타난다.

식민지 현실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부단히 갈고 닦는 노력으로 열심히 시 쓰기에 정진한 시인 윤동주, 그의 작품은 당시나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공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암흑기 시대의 한국문학의 한 페지를 장식하는 빛나는 별인 것이다.

참고문헌

왕신영, 심원섭, 오오무라 마스오, 윤인석 엮음, 『사진판 윤동주 자필시고 전집』, 민음사, 1999.

윤동주 지음, 홍장학 엮음, 『정본 윤동주 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4.

송우혜, 『윤동주 평전』, 푸른 역사, 2004.

강영기, 「윤동주 동시의 두 지향성」, 『영주어문』 제8집, 2004.

곽춘옥, 「尹童舟의 동시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1989.

김만석, 「윤동주 동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8호, 2010.

남송우,「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의 윤동주 연구현황 일고」,『한국문학논총』 제68집, 2014.

리함, 「윤동주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윤동주 문학론』, 연변인민출판사, 2013.

윤일주, 「윤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23집, 외솔회, 1976.

정성미, 「윤동주 동시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13집, 2014.

허인숙, 「윤동주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중국 바두우 백과사이트 http://baike.sogou.com/v5848969.htm

田月梅（天津师范大学，天津市西青区宾水西道393号天津师范大学朝鲜语系，300387，13702105054，tian825@126.com）

201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진실'의 양상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김홍매
(길림재경대학교)

1. 들어가는 말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스며든 소통 부재와 예측으로 얼룩진 불신의 풍경들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그때 왜"라고 정확히 따져 묻는 걸 주저한 채 혹은 체념한 채 그저 모르는 것 그대로 묻어 두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한 대답을 듣는 것이, '그때'의 진실을 밝혀 내는 것이 두렵도록 현대인들을 둘러싼 진실의 세계는 미지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2010년 이후, 구체적인 해석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진실의 블랙홀들을 자기만의 문체에 담아 여기 저기에 파 놓은 소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려 들수록 다른 의문들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블랙홀들이다. 이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진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진다. 진실의 양상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인생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2010년대 소설을 통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진실의 파편들을 두루 모아 하나로 묶어보는 것이 꽤나 흥미로운 작업이 될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편혜영의 <몬순>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진실'의 한 단면을 알아보는 것을 그 출발로 삼고자 했다. 편혜영의 <몬순>에 대해서는 '2010년대 진실 탐구'라는 틀 속에서 장두영[1]의 견해를 많은 부분 수용했음을 밝혀둔다.

2. 불안, 그리고 진실

2.1. 실존적 불안

<몬순>에서 남편 태오와 아내 유진은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다. 아이의 사망은 두 사람에게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불어닥친 크나큰 불행이었다. 삶의 불확정성과 예측불가의 현실이 평온하고 견고하게 유지되던 두 사람의 일상을 위태롭게 만들어 버린

[1] 장두영, <불안과의 대화>, 2014 제3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4.

것이다. <몬순>의 서사 곳곳에 널려 있는 불안의 요소들은 실제적인 일상의 국면에서 그 년대

지금쯤 아파트는 어둠에 파묻혔을 것이다. 예고된 시각에서 이십분쯤 지나 있었다. 일시에 컴컴해질 아파트를 떠올리니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때문에 태오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희열에 찬 한 시절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지나가버렸음을 깨달았다. 아파트로 이사 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태오와 유진은 드물고도 벅찬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진이 고른 옅은 베이지색의 커튼은 빛을 받으면 물결처럼 반짝거리며 빛났다. 커튼을 젖히면 마루 깊숙이 햇살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제 그런 빛은 없다.[2]

<몬순>에서 남편 태오와 아내 유진은 세상의 모든 신혼부부가 그러하듯 한때는 화목한 가정의 주인공이었다. 아파트로 이사 올 때만 해도 두 사람은 "드물고도 벅찬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옅은 베이지색 커튼을 통과하여 물결처럼 반짝이던 따스한 빛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위태로운 두 사람의 집에는 과거와 같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유진과 태오는 말을 돌려 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일부러 상처 줄 말을 골랐다. 이제 태오는 그러지 않았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만한 시기가 지났다. 기민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던 대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서로를 향해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종종 혐오감이 태오를 휘감았다. 평화로이 주고 받는 짧은 말에 더러 무기력해졌다.[3]

태오가 돌아오면 유진은 늘 방에 틀어박혔다. 방문을 잠가놓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닫힌 문은 명백히 금지를 나타냈고 매번 태오의 기분을 거슬렀다. 혼자 있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유진이 알아서 나오기 전에 태오가 문을 연 적은 없었다. 태오가 잠들 즈음에 유진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침대로 들어와 잤다.[4]

현재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위태로운 상태인지는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사라졌다는 데서 짐작된다. 서로 간의 소통이 부재한 지금,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있다. 닫힌 문은 혼자 있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으로 명백한 금지 –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커튼을 젖히면 마루 깊숙이 들어오던 햇살은 사라졌고 서로 간의 소통이 거부된 어둡고 서늘한 기운만이 아파트를 감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곧 단전까지 된다고 한다. 정전으로 인해 그 자체로 거대한 어둠이 되어버린 아파트는 불안을 가시화하고 있다.

---

[2] 편혜영, <몬순>, 2014 제3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4, 19쪽.
[3] 앞의 책, 14쪽.
[4] 앞의 책, 13쪽.

캄캄한 어둠만이 남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은 곧 태오와 유진 부부가 처한 불안의 상황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일은 힘들지 않았다. 급여는 좋지 않았지만 이전 회사에 비하면 그렇다는 정도였다. 당분간은 괜찮았다. 목돈이 있었다. 퇴직금도 있고 얼마 전에는 보험료도 받았다. 얼마 안 가 바닥이 나기는 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규모를 줄여야 하는 모든 가정이 그렇듯 유진도 태오에게 막연한 적의를 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유진은 무능한 남편과 살아야 하는 침울한 상황을 아직 겪지 않았다.[5]

아이를 잃은 후 태오는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창고 관리인으로 이직한다. 경제적인 불안은 허물어져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쐐기를 박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이직한 순간 이미 금전상의 불안은 시작되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은 얼마 안 가서 바닥날 것이고 그러면 아내 유진도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 언젠가는 자신에게 불만과 적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태오는 예상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유진은 무능한 남편과 살아야 하는 침울한 상황을 아직 겪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 그러한 순간이 닥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전제되어 있는 것 만은 사실이다. 일시적으로 복구를 했어도 또 다시 태풍이 오면 정전사태가 재발하는 아파트의 전기설비처럼 두 사람의 파국은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지속적인 충격이 계속된다면 두 사람의 불안정한 관계는 비록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얼마 안 가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 앞집 여자였다. … 지나번 정전 때 여자네 유리창이 깨졌다. 그 후 여자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고 다녔다.
>
> … 게시물을 들여다보는데 태오를 여자가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태오는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졌지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려고 애썼다.[6]
>
> "아내분은 휴가가 끝나셨어요? 요새 통 안 보이시네요."
>
>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가 물었다. 육아휴직은 끝났다. 유진은 과학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진단서를 제출했고 좀 더 휴가를 받았다. 태오는 제 말차례가 되자 긴장했다. 사람들이 모두 태오를 쳐다봤다.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던지고 슬쩍 떠보는 말이 태오는 말할 수 없이 불편했다.[7]

태오는 단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유진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이웃들이 모두 빠져나가 조용한 아파트에 남아서 유진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어둠이 관계 회복을 위한 무대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정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파트의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5] 앞의 책, 14-15쪽.
[6] 앞의 책, 15쪽.
[7] 앞의 책, 18쪽.

것을 걱정한다. 지난번 정전때 누군가 정전을 틈타 남의 집 베란다 창에 돌을 던졌고, 그 범인으로 태오가 의심받는다. 게다가 정전이 되어 불까지 꺼졌으니 소문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평소 안전하게 유지되던 일상이 정전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주민들은 태오를 향해 노골적인 혐오의 시선을 보낸다.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아파트는 공간화된 불안이다. 태오가 소문에 둘러싸이는 순간 그의 심리상태 역시 긴장, 불편, 불쾌 등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태오의 불안은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는 외부로부터 불러온 것일 수도 있다.

경제적 곤궁이나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겪는 불안은 다분히 부차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정전으로 인해 암흑천지가 된 불안의 공간에서 태오를 둘러싼 꺼림칙한 이야기와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여길 때 느끼던 긴장감과 불쾌감은 한편으로는 태오 자신도 아내 유진을 의심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암시한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루어진 그날밤의 일이 혹여 사실이 아닐까 불안해지는 것이 태오가 빠져든 불안의 근원이고 불안의 악순환이다. 그러한 것들은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기에 파생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내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모든 불안을 초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아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순간 진실은 흐릿해진다. 진짜 보다 더 그럴 법한 가짜의 유혹이 손짓을 한다. 아내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상적 삶을 통째로 부숴버릴지도 모를 가짜의 유혹 앞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몬순>이 보여주는 불안의 위력이다. 이러한 불안은 존재론적 차원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에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2.2. 진실의 주관화

실존적 불안과 삶의 진실은 상호적이다. 실존적 불안의 근원은 삶의 불확정성과 예측불가의 진실에서 비롯되고, 반대로 실존적 불안은 삶의 불확정성과 예측불가의 진실을 야기한다. <몬순>에서 나타나는 실존적 불안은 추측과 의심의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 태오가 아내 유진을 의심하고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불안의 실체와 직접 대면하게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곧 불안, 의심, 비밀, 폭로 등에 소설적 육체를 입힌 것이 이 작품이다. 의심에서 촉발되는 <몬순>의 서사적 얼개는 비교적 단순하다. 두 시간 정전이 된 동안 주인공이 집을 나와 근처 술집에 간다. 거기서 아내의 직장상사인 과학관 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한다. 누적된 긴장은 술집에서 나눈 태오와 관장의 대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 긴장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그동안 앞서 유보되고 회피되어왔던 그날의 진실 혹은 비밀이 폭로되도록 짜여진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플롯이다.

“아, 미안해요. 나만 마시네요. 술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

관장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 태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8]

차츰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오의 의심은 가중된다. 태오는 "술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같은 관장의 말을 실감한다. 아내 유진이 관장에게 알려주었을 것 같은 말이다.

태오는 이미 관장의 얘기에 흥미를 잃었다. 유진에 대한 평가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추측에서 비롯된 의심과 그로 인한 절망의 강도가 높아졌다.[9]

관장이 유진에 관해 우호적인 평가를 할 때 품고 있던 의심은 확신으로 비약한다. 이때 태오의 관심은 유진과 관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데 집중된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관장일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관장에게 매달리는 것은 아이가 사망했던 그날 밤의 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유진 탓이 아니었다. 사고였다. 태오는 그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유진이 아무런 애정이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거나 아이가 생긴 일을 두고 실수라고 했던 말이 떠오를 때면 그랬다. 갑작스럽고 낯익은 불쾌감이 태오를 감쌌다. 사람들이 아이를 예쁘다고 하거나 쓰다듬어주면 유진의 표정은 잠깐 부드러워졌는데, 아이를 향한 자부는 아니었다. 유진은 아기가 준 피로감에 몹시 화가 나 있었고, 태오가 보기에는 명백히 우울증임에도 부인하며 화를 냈고, 그 화를 태오와 아이에게 풀었다.[10]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다짐했지만 어떤 일은 영영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를테면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태오에게 식사를 권하던 모습, 멍한 얼굴의 태오를 보면서 언제까지 그럴래 하는 표정을 짓는 일, 아이 때문에 생긴 돈을 찾기 위해 보험증권을 내미는 걸 보고는 확신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았다. 누가 잘못했건 태오와 유진은 함께 고통받았다.[11]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태오의 입장에서 볼 때 관장과의 대화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으나 좀처럼 인정하기 싫었던 그 날의 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태오의 회상을 통해 볼 때 아이가 사망하던 그 날 유진의 행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유진은 아이를 방치한 채 잠시 외출했었고 하필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사망했다. 더욱이 태오 자신도 아이를 방치한 채 유진을 뒤쫓아 집을 비웠고 그 전까지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폭로하는 순간 유진을 둘러싼 의심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태오는 관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동안 느끼던 불안의 근원을 모두 쏟아내고 있기에 태오의 입장에서 관장과의 대화는 불안의 심연과 나눈 대화 그 자체로 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의심에서 출발한 태오의 일방적인 진실 확인의 과정이었다. 대답하는 스승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애가 타서 질문하는 애처로운 제자가 있을 뿐이다.

[8] 앞의 책, 24쪽.
[9] 앞의 책, 26쪽.
[10] 앞의 책, 26-27쪽.
[11] 앞의 책, 27-28쪽.

실제로 작품 속에서 관장은 그 날의 진실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 “단정하고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요. 인생이라는 건 과학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과학 이상이니까요.”[12]

관장의 이 말에는 태오가 자신을 불륜 상대로 지목한 것을 두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뜻 이외에도 그날 밤의 비밀 또는 진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단정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날 밤을 둘러싼 의심과 진실 확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플롯 구성을 떠올리더라도 관장의 말은 그날 밤의 진실에 관해 정곡을 꿰뚫고 있다.

> “ ‘그런 건 전시물로 재현하기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면 끝이죠. 전시에 있어서만큼은 재현할 수 없는 과학은 과학도 아니니까요. 유진 씨도 그렇게 말하는 쪽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건 무용합니다.’ 단호하죠. 그래도 꼭 덧붙여 말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천지예요. 확실한 걸로 증명되는 건 없어요.’ ”[13]

> “과학관에서 하는 일은 참 흥미롭더군요. 전적으로 과학과 관련한 일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전시가 특히 그렇죠. 전시에 있어서만큼은 형상화가 불가능한 건 과학이 아니니까요. 형상화된 것도 자세히 보면 상상과 추측인 경우가 많고요.”[14]

관장의 말에 따르면 증명할 수 없는 일은 무용하다고 한다. 스스로 아무리 진실이라 믿고 있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관장은 또 전시에서 형상화가 불가능한 것은 과학, 즉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면 형상화가 가능한 것 마저 자세히 보면 상상과 추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 관장은 과학이 강조하는 논리나 진실이 사실은 빈틈이 많다는 것, 따라서 단정, 확신, 이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 김영하의 <옥수수와 나> (2012년 이상문학상 대상수상작)의 서두와 결말에서 인용했던 슬라보예 지젝의 ‘옥수수와 닭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지젝은 자신을 옥수수라 생각했던 멍청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믿음은 순수하게 정신적이고 내밀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실제 사회활동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나’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관찰하여 포착한 감각의 파편들을 기반으로 믿음의 체계를 구축한 인간의 전형이다. 자신이 본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니 실제의 현실속에서 펼쳐진 사실은 근본적으로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성질의 것이다. 자신을 옥수수라 생각하는 인간은 자신의

[12] 앞의 책, 31쪽.
[13] 앞의 책, 25쪽.
[14] 앞의 책, 25쪽.

믿음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 뿐 외부에 엄존하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그렇기에 거대한 닭 두마리에 둘러싸인 옥수수 한 알은 객관적인 실제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 여긴 자가 처하게 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유진의 불륜을 진실로 믿어버리게 된 태오의 의심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를테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태오에게 식사를 권하던 모습, 멍한 얼굴의 태오를 보면서 언제까지 그럴래 하는 표정을 짓던 일, 아이 때문에 생긴 돈을 찾기 위해 보험증권을 내미는 걸 보고는 확신을 갖기도 했다. 태오는 단정했고 확신했고 이해했다고 자만했기에 불안에 빠진 것이다. 되풀이해서 상상하고 추측한 결과 실제의 사실보다 믿음직스럽고 흥미로웠으며 특히 스스로를 탓하는 것보다 정당하고 안정적이라고 고백한 태오의 변명을 상기해 볼 때 불안의 근거는 아내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되는 관장이 아니라 거짓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 오인한 태오의 진실에 대한 주관적 사고에 있다. 진실에 대한 주관은 사태를 단정하고 확신하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은 사실 온갖 추측과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 "기후학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기상학도 마찬가지고요. 고작 날씨에 관한 속담 정도나 알죠.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One swallow doesn't make a summer 같이 흔한 거요. 유진 씨한테 유치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태풍의 진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냐, 풍향은 언제 바뀌냐 하는 것들이요. 상식 차원에서 기온차나 자전이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건 알았죠. 하지만 몬순 같은 거요. 그렇게 규모가 큰 바람은 언제 방향을 바꾸는지, 그 순간을 미리 알 수는 없는지, 그런 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잘 압니까?"[15]

> "유진 씨한테 물어도 믿을 만한 얘기는 별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바람은 부는 방향이 바뀐 후에야 정확한 풍향을 알 수 있다고만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등압선을 보면 풍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짐작할 뿐이라고요."[16]

몬순과 같은 태풍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고 풍향이 언제 바뀔것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바람은 부는 방향이 바뀐 후에야 정확한 풍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관장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기후학 전공자 유진의 발언이다. 아내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던 관장을 통해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다. 태오도 이제는 확신과 단정에 자만해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었

[15] 앞의 책, 28쪽.
[16] 앞의 책, 28-29쪽.

다. 팔로 감싸안으면 가슴에 꼭 맞게 들어차던 느낌. 아이를 안고 있지 않는데도 재울 시간이 되면 팔이 저릿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몸의 기억은 시간도 감당하지 못했다.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누워서 자는 모습이 떠올랐다. 유진의 품의 안겨 잠들었거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잠든 아기. 편안히 감긴 두 눈 같은 것. 그것이 태오가 기억하는 모습이었다.[17]

몸의 기억은 머리의 기억을 압도한다. 태오는 이미 예측과 추측 대신 몸의 기억을 더듬고 있다. 가슴으로 느껴지던 아기의 피와 체온, 팔에 전해지던 무게감과 약간의 저릿함, 머리가 아닌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진에 대한 기억 역시 아이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보험증권을 들고 있던 의심스럽고 몰인정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잠재우던 엄마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은 몬순과도 같은 것,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의 변화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날 밤의 사건은 불가해한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풍향 전환에 가깝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의심따위는 더 이상 소용없게 된다. 태오가 몸의 기억을 더듬는다는것은 아이의 사망이 예측이나 추측과는 다르다는 것의 인정이다. 이제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한 의심의 시간은 끝나고 그날 밤의 진실과 대면해야 할 시점이다.

아파트는 여전히 어두웠다. 이렇게 거대한 어둠은 처음이었다. 태오는 상가에서 내뿜는 불빛 아래에서 검은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자신은 빛 아래 있고 유진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게 기이하게 느껴졌다. 광량의 차이를 태오는 애써 의식했다. 그 간격은 영 좁혀질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어두웠으니 그리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둠 덕분이었다. 마주 보는 가운데 오가는 침묵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유진의 눈에 떠오를 당혹감이나 의구심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태오가 걸음을 옮기려는데 반짝하며 불이 켜졌다. 시간 차를 두고 아파트 세 동이 전부 밝아지니 상가 쪽 불빛은 시시한 것이 되고 말았다. 밝은 빛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유진이 자신의 말을 다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다. 태오의 말은 유진의 분노를 살 게 분명했다. 유진이 모든 걸 알고 있다면 태오가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불빛이 태오의 무익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아주었다.

태오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볼 작정으로 물러서는데 아파트가 다시 어두워졌다. 잠시 바라보고 있자니 주저하듯 불이 켜졌다. 다시 불이 꺼지고, 켜졌다. 예고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몇 번인가 그런 일이 더 일어났다.[18]

<몬순>의 불안은 상당 부분 침묵의 책임이 크다. 태오의 침묵은 유진을 실망시켰고 그 때문에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그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불 꺼진 틈을 타 자신의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는다면 어쩌면 침묵의 견고한 덩어리를 부술수 있지 않을까

[17] 앞의 책, 33쪽.
[18] 앞의 책, 33-34쪽.

잠시 생각할 법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일을 단순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무익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 것이다. 침묵 앞에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당혹감이나 의구심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침묵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님을 잠시 놓칠 뻔했다. 상대방의 책망과 실망과 탄식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환한 빛 속에서 말을 건네야 견고한 침묵은 깨어질 수 있으리라. 더구나 그날의 고통은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죄책감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나오는 말

이 시대,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거대한 불안을 안고 삶의 진실과 대면하는 과정을 다룬 편혜영의 <몬순>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대로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불가의 삶에 관해 단정하고 확신하고 이해했다고 자만하는 것은 진실에 눈을 감고 가짜를 진짜로, 또는 진짜를 가짜로 오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때 남은 선택은 삶의 의미를 규정짓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는 것 뿐이다. 태풍으로 인한 정전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불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것이며 몬순과 같은 태풍은 계절 따라 풍향을 교차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나 바람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단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관적 사고에 의해 측정 가능한 과학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윤리이기 때문이다. 삶, 불안, 진실, 불가해성 등의 키워드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몬순>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속에 함몰되어 놓쳐버리고 말았던 진실의 무수한 파편들 중의 한 양상을 긴장감 넘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편혜영, <몬순>, 2014 제3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4
김애란, <편혜영가든>, 2014 제3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4
장두영, <불안과의 대화>, 2014 제38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14

김홍매, 길림재경대학교, 130117, 13843008371, 1632815227@qq.co

동양적 자연관과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김영옥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차 례

1. 머리말
2.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
3.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3.1 자연과의 교감
    3.2 자연 관조와 자연과의 합일
    3.3 자연 파괴와 자연 정복
4. 맺음말

1. 머리말

문학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학문(예술)이라면,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당연히 문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의 기원을 자연의 모방에 두면서 “시는 자연의 모방”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문학에서 자연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시적 소재의 차원을 넘어 우주와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문제, 세계관의 문제, 시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 등을 내포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은 자연과 일체화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래에 도시적인 것, 인공적인 것에의 범람으로 문명의 가치가 왜곡되고 인간의 가치관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류의 편리함이 가속화되는 대신, 환경과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균형이 깨지고 인간성 말살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의 문제가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와 문학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인간성의 회복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성의 회복이며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고 곧 우주와 상생의 바탕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자연과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의 결합으로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삶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욕망을 버림으로써 상실된

도덕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넓게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적인 개념이면서 좁게는 문명이나 도시와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문학에서의 자연은 시대, 지역, 계층, 문학의 갈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문학에서 말하는 자연관은 넓게는 우주관과 동일한 의미이며 작가의 세계관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인의 자연관과 한국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학과 자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문학의 향후의 과제와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

유· 불· 도(儒·佛·道)로 대표되는 동양사상은 인간과 자연에 관한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노장(老莊)사상은 자연 중심의 사상이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자연과 대립되거나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통일을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자연 친화성과 현실 지향성은 상호 길항하는 관계 구조를 가진다. 현실 지향성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 관조를 통한 현실과의 조화와 평화를 갈망한다는 뜻이다. 즉 자연 관조를 통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의식, 현실과의 대응의식을 드러낸다.

중국과 한국의 선사상(禪思想)도 자연친화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선사상, 노장사상, 유가사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자리잡아왔다.

한국인의 자연관 속에는 자연에 대한 배려, 자연에 대한 예의, 자연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자연과의 상생의 정신이 일상화 되어 있다. 단군사상은 바로 자연 공경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이 문학 속에 흐르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1] 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라는 가르침은 자연의 섭리가 지배하는 삶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에서 찾는 성리학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한 도가의 사상과 관련 있다.

---

[1] 조윤제는 “옛 시조에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水) 절로절로 산수간(山水間) 나도 절로절로. 그 중에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하리라.’라 한 바와 같이 절로절로 된 영원한 자연 그대로를 즐기면서 자연간에서 절로절로 자라난 몸을 그 자연 가운데 던져 자연과 더불어 절로절로 늙어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요, 동시에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다.”(『국문학개설』)라고 한국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을 특징지었다.

한편으로, 정병욱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학활동에 있어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고 관찰하여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 속으로 끌어들여 관념화된 자연, 관조 속에서 이루어진 자연, 따라서 철학적인 자연을 읊었다고 하겠다.”라고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자연을 ‘관념적인 자연’이라고 주장하였다.(「한국문학에 타나난 자연관」, 『한국시가문학의 탐구』, 신구문화사, 1999.)

중국이나 한국의 고전문학 속에는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들이 적지 않다. 중국의 도연명, 왕유, 이백, 두보의 시 작품들에도 자연을 노래했거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거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여준 작품들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 한국 고전문학에도 역시 중국 고전문학과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라고 읊었던 양사은의 시조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한 노력을 통해서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자연에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다. 윤선도의「오우가(五友歌)」에서도 ‘수석(水石)’ ‘송죽(松竹)’과 ‘달’이라는 다섯 가지 자연 사물을 통해 결백하고 강직한 성품과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려가요「청산별곡」에 현실의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도피의 뜻이 담겨져 있다. 송강 정철의「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아 부임하는 도중의 여정, 관동 지방의 뛰어난 풍물을 둘러보고 자연의 그 빼어난 경치와 그에 얽힌 고사(故事) 등을 적은 가사이다.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기행 가사로서 한국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가사 문학의 최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호가도(江湖歌道)’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자연시가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시대의 시가들은 ‘자연미의 발견’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자연은, 반복되는 당쟁과 사화의 변란 속에 명철보신(明哲保身)하면서 한적을 꾀하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쟁에 패하고 벽지 유배소의 산야에 파묻혀 체념하거나 때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동안 자연은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는 최선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대자연의 영원한 연계 속에서 옛날 한국인들은 우주의 질서를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꽃과 달, 달과 나무, 나무와 새 등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도 생명의 존귀함과 초자연적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자연이 가진 여러 특성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화와 영원과 순리를 배우려 했다. 그것은 한민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민족적 철학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연관과 우주관이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3.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한국 현대시에서도 자연은 시인들의 가장 큰 시적 소재이기도 하고, 세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의 매개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자연에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의 참다운 도리를 탐구하는 작가정신이 들어 있는 훌륭한 작품이 적지 않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자연시는 청록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지난 세기 20년대에 한국적인 자연에 대한 절창을 읊었던 김소월을 결코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시와 자연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래에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자연과의 교감

김소월은 한국적인 자연, 전통적인 자연을 전통적인 율조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어조로 읊었던 시인이다. 그는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의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많은 경우 아름답게 노래하는 자연이라기보다는 교감의 대상,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달래주는 자연이었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 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

-「금잔디」 전문

봄빛이 무르녹는 심심산천을 보면서도 그냥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님의 무덤가의 잔디를 노래함으로써 이 세상을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봄빛이 아름다울수록 잃어버린 님에 대한 애수가 깊이 드러나고 있다.

산에는 꽃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꽃이 좋아/산에서/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꽃이 지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지네//

-「산유화」 전문

이 시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산에서 피고 지는 꽃, 그 꽃과 어울려 사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잘 그려진 작품이다. 단조로운 듯한 작품이지만 "계절의 순환과 그것을 따라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반복과 항구성, 그리고 인간의 순간적인 삶과 그 한계성에 대한 고뇌와 비애를 바탕으로 한 갈등적 구조"[2]를 이루고 있

[2] 김학동 외, 『현대시론』, 새문사, 1997, 275 쪽.

는 작품이다. 이 시에 대한 관점이나 논의가 비록 다양하기는 하지만, 김소월의 자연관조와 인간의 덧없는 삶의 허무함을 고도로 승화시켜 뛰어난 수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평가에는 비교적 일치한 편이다.

3.2 자연 관조와 자연과의 합일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본격적인 자연시의 시작은 청록파(靑鹿派)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일제 말기 날로 극악을 더해가는 억압과 침탈 속에서 청록파가 기울인 자연에의 애정과 관심은 이조의 강호시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이조의 자연 시가가 명철보신과 한적을 위해 발생한 장르라고 할 때, 일제말기의 극한상황 가운데서 청록파가 의지한 자연의 힘은 초능력의 거대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김동리는 청록파가 재발견한 자연을 가리켜 "남이 몸으로써 지키는 세기적 심연에 직면하여 절대절명의 구경(窮境)에서 불러진 신(神)의 이름이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록파가 재발견한 자연은 단순한 시의 소재로서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이나 순환하는 사계절 속의 산천초목이 아니다. 김동리가 지적한 대로 자연은 위대한 힘이었으며 구원이었던 것이다.

시에서의 자연 인식은 우선 시인의 주관성에 의해 좌우되는 주관적 자연이며,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표상화된 상상적 자연이다. 청록파의 세 사람이었던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은 자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피폐한 인간상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던 시인들이다. 박두진의「해」,「도봉」, 박목월의「나그네」, 조지훈의「낙화」,「완화삼」등 작품 속에는 자연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인식이 녹아있다. 그 가운데서 조지훈의「낙화」를 감상하기로 하자.

꽃이 지기로소니/바람을 탓하랴//주렴 밖에 성긴 별이/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닥아서다//촛불을 꺼야 하리/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뜰에 어리어//하이얀 미닫이가/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고운 마음을//아는 이 있을까/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울고 싶어라.

-「낙화」전문

이 시에서는 고요한 산속의 경지가 여운을 남기며 펼쳐지고 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현상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섭리요 조물주의 조화이다. 꽃이 피고 지는 순환적인 대자연의 흐름을 선적(禪的) 상상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지훈은「자연과 문학」이란 글에서 "문학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살고 있으므로 문학은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 총체의 결정(結晶)이요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정신

의 구경적(究竟的) 구현"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연과 문학, 자연과 서정시, 자연과 서정시인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강조하였다. 즉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지배하는 데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 미(美)로 나타날 수 없고, 자연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연과 한 덩어리로 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는 서정시의 정신이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퍼져 간다면 딱딱한 교훈도 아닌 서정시 정신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절로 샘솟는 사랑으로 창조되는 아름다운 노래로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3]

조지훈의 이러한 문학관과 자연관이 잘 드러나는 시 작품「파초우(芭蕉雨)」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 외로이 흘러간/한송이 구름/이 밤을 어디메서/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파촛잎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창 열고 푸른 산과/마조 앉어라// 들어도 싫지 않은/물소리기에/날마다 바라도/그리운 산아// 온 아츰 나의 꿈을/스쳐간 구름/이 밤을 어디메서/쉬리라던고.
>
> -「파초우(芭蕉雨)」

이 시에서는 인생을 흐르는 구름에 비유하여 산 속에서 구름과 산과 물소리를 벗 삼아 살아가는 은자(隱者)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서 자연 관조와 자연과의 합일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4]

그 외에 조지훈의「완화삼(玩花衫)」「산방(山房)」「고사(古寺)1」「고사(古寺)2」등 많은 시들에서도 자연 관조와 자연과의 합일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미당 서정주는「자연파와 그들의 시」라는 글에서 "조지훈의 경우 불교적 자연 가운데서도 선적(禪的)인 자연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지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후기시는 자연산수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관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시를 거쳐 그의 시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곧「장수산 1,2」,「백록담」등에서 볼 수 있는 동양적 은일의 세계였다. 이 시들은 일체의 갈등이나 인위적 행위가 배제된 고요한 정밀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물과 자연의 깊은 곳에 도달하는 관조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럼「장수산 1」을 살펴보기로 하자.

> 벌목정정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3] 조지훈,『조지훈전집 3』, 나남출판, 1996, 41~42 쪽.
[4] 이 시는 도연명(陶淵明)의「飮酒」, 이백(李白)의「獨坐敬亭山」, 왕유(王維) 의「輞川閑居贈裴秀才迪」등 중국 고전시가와 유사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장수산 1」

이 시의 핵심은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로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구절은 겨울밤의 적막과 고요, 그리고 세속에 대한 그리움을 포함한 일체의 것을 고요히 참고 견디려는 지극한 인고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과 자연에 대한 달관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정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조적인 세계는 「백록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되풀이된다.[5]

'사람'과 '자연'의 화합과 혼용에 대한 추구라든가, 사람과 자연 이미지 속에 부여한 감상적인 분위기라든가 모두 전통에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6] 시인의 감정과 산의 풍경이 동화되어 일체화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인동차(忍冬茶)」에서 철저한 적요의 겨울 산중 눈속에 집주인의 집안은 뜨거운 생명력으로 넘쳐있다. 관조와 은일의 동양적 적요로움과, 자연과 인간의 원활한 소통을 회복하는 새로운 미학을 보여준다.

「옥류동(玉流洞)」「구성동(九城洞)」「장수산(長壽山)1」같은 정지용의 후기 자연 산수시들에서 인간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하늘과 땅에 대한 총체적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산과 계곡, 폭포, 바람 등 자연물들은 시적 자아와 자연의 조화, 마음의 고요, 자연과의 합일을 나타내고 있다.

정지용의 후기 자연시에서는 한시의 동양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김소월이나 조지훈 등 청록파의 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현대적 미학의 구성, 감각과 정신의 조화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3.3 자연 파괴와 자연 정복

현대에 이르러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문명 속에서 자연은 인간의 고독과 갈등을 극복해 주며 위무해 주는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자연을 재발견함으로써 문명생활에서 피폐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상실했던 삶의 단순성과 진실성, 소박성을 되찾고자 하는

[5] 그러나 1930 년대 말의 상황에서 정지용이 추구한 동양적 관조의 세계란 그 정신적 높이와 깊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이며, 식민지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김재용 외,《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567~580 쪽.)

[6] "지용 시에서 자연은 정제된 규범을 변형시켜 주관적 감각화의 영역에 편입시킨 내면화의 자연"이며, "지용시의 사물들은 즉물적 객관화와 극단적 묘사에 의한 정경융합의 사물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김용희,「정지용 시에서 자연의 미적 전유」,『현대문학의 연구』22 집, 367 쪽.)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7] 한국 현대시사에서 산업화와 물질문명이 가져온 폐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잘 반영한 작품은 우선 김광섭의「성북동 비둘기」를 들 수 있다.

>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일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에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 -「성북동 비둘기」 전문

산업화로 개발되고 있는 성북동이라는 지역,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를 의인화하는 수법으로 산업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도시의 소시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현대 문명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파괴된 자연에 대한 향수와 아픔, 새와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와 사랑과 평화의 상실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최승호의 시「공장지대」는 환유와 의인화의 수법으로 현대 문명의 폐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

> 무뇌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자궁 속에 고무인형 키워온 듯 무뇌아를 낳고 산모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수리 털들을 하루종일 뽑아댄다.
>
> -「공장지대」 전문

'몸'과 '공장지대'는 원래 전혀 연관 없는 두 개 개념이다. 그 안에 '배꼽'과 '비닐끈', '자궁'과 '고무인형'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들의 조합으로 '몸'은 '굴뚝'과 간통한 형국이 된다. 그 결과 산모는 '무뇌아'를 낳게 되고 젖은 허연 폐수처럼 흐른다. 인류 문명의 폐해가 끝까지 진행되었을 때, 몸 안에 공장지대가 상륙하고 몸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은 매우 과감하다. 인류가 무차별 개발하고 파괴하는 자연은 곧 삶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죽음의 자리로 뒤바뀌리라는 경고가 이 시에 나타난다.

[7] 최근에는 '생태문학'이란 용어와 함께 '녹색문학'이란 용어 역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녹색문학은 곧 자연존중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존중의 문학은 자연의 가치 발견, 자연의 소중함, 자연 생태계의 오묘함 등에 대한 감탄과 경탄을 중심 제재로 한다.

자연에 대한 파괴와 환경오염이 이토록 심각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별다른 본질적 반성이나 대책이 없이 끊임없이 공장지대를 건설하고 굴뚝을 세운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몸이 간통한 굴뚝은 몸밖의 공장지대의 환유이지만, 그것 역시 인간 몸 안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시인은 물질 문명과 환경오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의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함으로써 우리 삶의 위기를 인식시키고 있다. 인간 자신의 피폐화에 대한 반성을 그 바탕에 깔고 있기도 하다. 이는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서 욕망의 무절제한 분출과 의식의 천박성이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타락시키고 나아가서 현대 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무릇 자연이 단순한 원형적인 상관물이 아닌, 그저 화조월풍(花鳥月風)이라는 우주적인 일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삶의 근원임을 성찰케 한다. 결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할 수 없으며 공존만이 사는 길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인간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를 받아 전멸의 길로 자초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한국고전문학에 나타난 자연의 속성과 특징을 고찰하고,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의 특징과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김소월 시의 ‘자연’, 조지훈 시의 ‘자연’, 정지용 시의 ‘자연’ 그리고 김광섭과 최승호의 ‘자연’이 시인별 특징과 시대적 특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다시피 문학과 자연이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동일한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이러한 본질적 속성을 망각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 있으리라는 모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 문명의 발전은 환경파괴, 지구오염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인문학적 자세,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문명적 진보와 번영을 의도한 20세기 이래 기술 산업의 혁신이 결과적으로 급속한 지구의 노화, 환경오염, 생명가치의 균형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폭우, 이상 한파, 홍수, 지진, 해일, 산불 등 빈번한 재앙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지구의 종말론으로 번지기도 한다. ‘녹색문학’, ‘생태문학’의 출현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 존중 의식과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존재관계를 인식하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꿈꾸는 전체론적 사고방식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란 점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과거적 인식에 대해서 또는 관습적인 인식에 대해

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인간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여 그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오늘날 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동일성을 회복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알맞은 인간 사랑과 자연 친화, 자연 존중, 환경 보호, 생태 보호 등이 시급하게 요망되며,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문학에 반영하는데 크게 일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주, 자연, 인간관계의 질서와 조화와 만물 평등사상, 공동체적 유대, 사랑과 생명의식을 고취하는데 문학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달과 물질의 풍요 속에 극도로 오염되고 황폐해지는 생태 환경 속에서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인류의 생존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 생명의식을 고양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문학,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학이 필요한 때이다. 인류 역사이래 자연을 이용하기만 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 이 자연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해야 하고, 또 인간과 더불어 사는 자연을 위해 문학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강조되는 시기이다. 자연을 소재로 인간의 소망과 가치를 성취,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키려는 몸부림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일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있어서 이름이 더 나고, 문학이 있어서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고형진,「정지용 시의 이미지 연구」,『어문학연구』, 1998.

김영옥,「조지훈과 왕유의 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용희,「정지용 시에서 자연의 미적 전유」,『현대문학의 연구』(22호).

김윤정,「정지용 시의 공간지향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2005.

김종태,『한국현대시와 서정성』, 보고사, 2004.

김준오,『시론』(제4판), 삼지원, 1997.

김재용 외,『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학동 외,『현대시론』, 새문사, 1997.

김희선,「낭만적 자연시에 나타난 생태학적 영성과 자아인식-소월과 워즈워스를 중심으 로」,『동서비교문학저널』(제25호), 2011.

나희덕,「1930년대 시의 '자연'과 '감각'-김영랑과 정지용을 중심으로」("한국문학사의 쟁점 Ⅲ-1930년대"), 『현대문학의 연구』(25호), 2005.

성기조,『한국현대시인론』, 한국문화사, 1997.

신현락,『한국 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화사, 1998.

오세영,『20세기 한국시의 표정』, 새미, 2001.

이미순,「한국 근대문인의 고향의식 연구-김기진, 정지용, 오장환을 중심으로」,『비교문 학』, 1999.

이승훈, 『한국현대시의 이해』, 집문당, 1999.

이종묵,「산수와 생태와 문학」,『한국한문학연구』(제37집), 2006.

이태동,『한국현대시의 실체-한용운에서 이성복까지』, 문예출판사, 2008.

전미정,「서정주와 박두진의 생태시 비교 연구」, 2005.

정병욱,『한국시가문학의 탐구』, 신구문화사, 1999.

조지훈,『조지훈전집』(1,2,3), 나남출판, 1996.

최동호,「정지용과 산수시(山水詩)의 고전적 세계」,『향수』, 미래사, 1991.

김영옥(金英玉)

*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北京第二外國語大學 韩國語係)
* 북경시 조양구 정복장 남리 1호 (北京市朝陽區定福庄南里1號)
* 우편번호: 100024
* 전화: 13911874086
* 전자우편: jyy2002kcd@hanmail.ne

만보산사건과 한•중•일 작가의 문학적 대응[1]

임추락
(중국해양대학교)

1. 서론

1931 년에 일어난 만보산사건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살고 있던 중국 농민과 여기에 이주해 온 조선 농민 사이의 물싸움이라는 당시 만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갈등이었다.[2] 그러나 이 흔한 물싸움은 만몽지역에 대한 영토적 침탈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 제국의 개입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만주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한중 농민 사이의 물싸움에 불과했던 만보산사건은 정작 그 뒤를 이어 일어난 평양을 비롯한 조선 내의 화교에 대한 무차별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진 배화 폭동으로 유명해졌다. 만보산사건과 그 뒤를 이은 조선 내의 배화 폭동이라는 참극은 눈먼 민족의식이 제국주의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3]

이렇게 동아시아 3 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 만보산사건에 대한 이제까지의 학문적 접근이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 조선 내 유력 신문의 상이한 보도, 중국국민당과 공산당의 판이한 인식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중·일의 시각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4] 민감한 반응을 보인 한·중·일 문학자도 이 사건을 소재로 삼고 소설화하였다. 발표순서를 따른다면 일본 작가 이토 에이노스케의 단편소설 <만보산>(1931.10), 중국 이휘영의 장편소설 <만보산>(1933.3), 한국 이태준의 단편소설 <농군>(1939.7), 안수길의 중편소설 <벼>(1941) 그리고 장혁주의 장편소설 <개간>(1943) 등이 있다.

한국에서 만보산사건과 이를 제재로 창작한 소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2000 년대에 들어 비록 김재용, 김철 등 연구자들의 관심을 일으켰고 그들에 의해 적지 않은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김철은 이태준의 <농군>과 만보산사건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농군>은 "만주경영이라

[1]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2] 김재용, <머리말>, 김재용 편,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5쪽.
[3] 위와 같음.
[4] 장영우, <만보산사건과 한·일 소설의 대응>,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221쪽.

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다시 말해 당대의 '국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소설이며, 그러한 사정을 떠나 소설 자체로 보아도 지극히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품"[5]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이처럼 김철이 지적한 <농군>에 대한 오독과 국책문학이라는 평가는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대표적인 논저는 김재용이 주편한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을 들 수 있다. 이 총서에는 장영우, 이현정, 이상경, 김학동, 김호웅 등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장영우는 김철의 <농군>에 대한 평가를 반박하면서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과 안수길의 <벼> 그리고 이태준의 <농군>을 비교하여 만보산사건과 한·일 소설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논자는 세 작품을 통해 재현된 만보산사건의 실상은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하며 일제의 만주침략 야욕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세 작품이 쓰인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신분 등 외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결론을 내렸다.[6]

이현정은 <잃어버린 민족을 만주에서 상상하다-이태준의 <농군>에서의 조선인들의 외침>에서 민족주의적이나 친일적인 시각으로 이태준의 <농군>에 접근한 견해를 모두 부정하면서 이 작품은 조국을 잃어버린 조선 이민들이 만주에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상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경은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에서 이태준의 <농군>이 만보산사건을 소설화하면서 일본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든지, 사실을 왜곡하면서 결말을 좀더 극적으로 허구화시킨 것은 당시의 검열 아래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결과임을 보고 있다.

김학동은 <장혁주의 <개간>과 만보산사건>에서 장혁주의 장편소설 <개간>을 논의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작품이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의 가난한 삶과 일제의 만주국 경영의 이상이 교차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황민으로서의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춘일본총영사관 영사와 경찰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일제의 대동아경영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국책적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김호웅은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안수길의 중편소설 <벼>를 중심으로>에서 "동일한 역사사건을 형상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 이휘영의 <만보산>, 이태준의 <농군> 그리고 안수길의 <벼>는 해당 작가의 세계관과 가치관, 예술적 취향과 방법이 다름에 따라 작품의 인물성격, 대립구도 및 사상경향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며, 그 중 안수길의 <벼>가 "만주에 있어서의 중·일·한의 미묘한 정치역학관계와 중일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널판위의 고인물에 사는 청개구리'

[5] 김철, <몰락하는 신생—'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제9집, 2002.8.
[6]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장영우, <만보산사건과 한 . 일 소설의 대응>,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 학>, 역락출판, 2010.

처럼 극한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고뇌를 가장 리얼하고 균형감 있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만보산사건의 형상화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학술논문으로 <萬寶山事件與<萬寶山>>(李弘慧) 한 편만 확보하고 석사학위논문으로 2008 년 동북사범대학의 석사학위논문 <역사사건과 좌익소설서사패턴-이휘영 <만보산>의 연구>(李曉明), 2014 년 연변대학의 석사학위논문 <한중일 문학에서 "만보산사건"의 소설화 연구>(김경자) 그리고 2011 년 연변대학의 석사학위논문 <만보산사건의 소설형상화의 허와 실>(정광훈)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보산사건을 제재로 형상화한 소설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 성과 또한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한·중 작가의 문학적 대응을 고찰하는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이휘영의 <만보산>은 원문 이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휘영의 <만보산>, 이태준의 <농군> 그리고 안수길의 <벼>를 주요 텍스트로, 한·중 작가들의 만보산사건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보산사건을 다룬 이 3 편의 소설은 각각 상이한 관점에서 씌어졌고, 그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도 다르다. 서로 다른 문학적 대응을 통해 작가의 국민적 정체성. 이념 그리고 체험의 유무와 깊이가 문학작품의 창작과정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한국(식민지 조선) 출신의 작가이면서도 완연히 서로 다른 문학적 대응을 보인 이태준과 안수길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적 정체성: 한·중과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이휘영, 이태준 그리고 안수길 3 명의 작가들이 서로 다른 국민적 경체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삼아도 다양한 대응양상이 보인듯이 국민적 정체성이 소설의 형사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작가 이휘영이 만보산사건을 형상화한 그의 첫 장편소설인 <만보산>은 1932 년 3 월에서 5 월 사이에 창작되고 1933 년 3 월에 상해의 호풍서국을 통해 출판되었다. 이 장편소설 <만보산>의 출판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항일소설의 막을 올렸다. 이휘영은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가 있다.

① 我是在一九三一年"九一八"事變以後，因為憤怒於一夜之間失去了沈陽、長春兩城，以及不旋踵間，又失去整個東北四省的大片土地和三千萬人民被奴役的亡國亡省痛心情況下執筆為文的。手無寸鐵、很難做出收復失地誓雪國恥的工作。寄希望於筆掃妖氛，乃是收國複土最

低限度的要求。我這樣做了，卻並非出於立志想做一個作家。[7]

② 在不眠的長夜中，由於痛心疾首，熱淚盈眶，真的有如遭逢了國喪，寫罷，用你的一支筆！寫罷，寫罷，寫罷！不給入侵敵人任何喘息的機會，管叫他們有去無回，飽嘗中國軍民的拳腳！就這樣我在練習寫作中，自自然然地安插上反日的主題，哪怕是千篇一律，也不加計較。[8]

1931 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인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당시 상해 중국공학에서 공부를 하던 이휘영은 동북 출신 사람으로서 동북의 함락을 본체만체하지 못해 손에 붓을 잡고 문학창작을 시작하면서 항일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해방후 이휘영은 장춘대학교 및 동북대학교의 교수로 지내면서 1950 년에 홍콩에서 정착하였다. 그 동안 항전작품을 줄곧 발표해 왔고 정말 그의 말대로 "천편일률적이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기에 항일의 주제가 이휘영의 창작 생애에 일관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휘영의 <만보산>은 항일소설로서 일제의 폭행과 침략 야욕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였다.

地租給誰啦？郝永德！你們知道郝永德是幹嗎的？不知道吧。城裡人誰都知道他是一個有名的老地痞，見錢眼迷，有錢就收的壞東西！這也不要緊，要緊的在這地方：他，郝永德，替日本子做傀儡！傀儡，你們懂不懂？就譬如日本子給他錢，要他向中國人做壞事，他照樣做，這就叫傀儡。日本子頭道溝領事收納了中川警部的建議，實行開闢萬寶山水田，中川警部是專門到咱們個屯探查虛實的壞東西！他看到萬寶山一帶地方很好，一片荒地可以開荒種稻。萬寶山還有些好風景，萬寶山地位好，想借種水田為名，招來些高麗人，然後用高麗人霸佔咱們人的田地、引起來交涉，日本人好派兵佔領萬寶山這地方……[9]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경부 나카가와는 만보산 일대가 수전으로 개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현지조사를 여러 번 하였다. 일본 주장춘 영사는 그의 의견을 채택하고 중국인 학영덕을 매수하여 만보산 지역의 수전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조선농민의 명의로 중국농민의 논밭을 강점하고, 나아가 중·조 양국농민의 충돌을 일으켜 만보산 지역을 점령하려 획책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휘영은 만보산사건이 만몽지역에 대한 영토적 침탈을 획책하고 있던 일제의 술책임을 <만보산>에서 이경평이란 청년학생의 입을 빌어 직접적으로 까발렸다.

뿐만 아니라 이휘영은 <만보산>에서 일제가 만보산 지역의 수전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

[7] 張雙慶, <李辉英先生谈生活与创作经验>, 馬蹄疾 편, <이휘영연구자료>, . 203쪽.
[8] 이휘영, <三十年代初期文壇二三事>, 馬蹄疾 편, <이휘영연구자료>, 112쪽.
[9] 이휘영, <만보산>, <동북현대문학대계(1919-1949)> 제6집 장편소설 권(상), 심양출판사, 1996, 471-472쪽.

① 另外多出來四個挎大槍帶手槍的日本員警，這就是他們敢重新回來強掘溝的靠山。(…중략…) 因那四個日本員警狗子們，每個顯得兇惡怕人，手端著槍向四外做放射的樣子，人們激憤異常。[10]

② 日本員警忽然添派來三十名，白天守在哨口附近掘壕溝旁邊搭起來的一些棚帳裡，監視著高麗工人的行動，防備著中國農民的進沖，晚間就住到大王家屯。[11]

③ 至於中日兩方的首腦人物，馬縣長、日本領事這時正聚在一道開會議。
會開好了，議商結果，決定立時各派二百名員警武裝出動，實行聯合擊剿。[12]

조선농민이 수로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일본영사관에서 처음에 총을 든 경찰 4 명을 보내왔고, 나중에 중국농민의 돌진을 방비하기 위해 30 명을 추가하였다. 7 월 2 일에 만보산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영사관은 200 명의 일본경찰을 더 보내오기로 하고 중국농민을 포위하여 토벌하려고 한다.

早就料到這結果的馬寶山和全體大眾，毫不慌亂。看著實在不利於對抗，天快要亮了，他，總司令，照著原定的計畫，分派平壕隊回到各家去耕種，暫時的仍然做著安分的農民，一面探查消息；他帶了武裝自衛隊，還有高麗人——男的、女的，在黑暗中，選著熟知而易走的小路，向進攻來的敵人的相反方向退了下去。
他們沒有傷亡，倒是那些員警們，有些抱著槍支躺在地上長眠了。
(…중략…)
萬寶山的工程，沒有再做，又加上受到這意外的事變，因此無形的停頓了。[13]

마보산을 우두머리로 한 농민자위군은 파괴공사를 막으러 온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를 이미 예상한 농민들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마을로 철퇴하였다. 결국 여러 명의 경찰이 사살되었고 만보산 지역의 수전개간이 농민들의 투쟁때문에 중지되었다.

하지만 역사기록과 기존연구에 의거하여 사건 당시에는 사상자가 없다고 밝혀져 있으며 파괴된 용수로도 마침내 복구되어 관통되었다고 알려졌다. 이휘영은 만보산사건을 역사에서 문학으로의 서사화 과정에서 이런 가공을 통해 중국농민을 침착하고 용감하는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이 것은 이휘영의 중국작가로서 일제에 대한 반항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0 이휘영, 위와 같음, 508쪽.
11 이휘영, 위와 같음, 526쪽.
12 이휘영, 위와 같음, 538-539쪽.
13 이휘영, 위와 같음, 540쪽.

중국의 경우와 달리, 만보산사건이 발생 후 8 년이 지난 1939 년에 겨우 한국 작가 이태준의 관심을 일으켜 이를 소재로 삼아 단편소설 <농군>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에 대해 임화는 비애 혹은 애수의 감정이 이태준의 작품에 줄곧 존재해 오다가 <농군>에 와서 절정에 이른다고 본다.[14] 여기서 비애 혹은 애수의 감정이 조선 이주농민들이 겪은 수난에서 잘 드러난다.

> 지붕 낮선 이곳 사람들의 부락이 지나간다. 길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드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멀거니 서서 지나가는 차를 구경하는 것이겠지만 창권이에겐 이상히 무서워보인다. '밭이 암만 많음 어째단 말야? 다 우리 임자 있어. 뭘 하러 오는 거야?' 하고 흘겨보는 것만 같다.[15]

인용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처음 만주에 들어섰을 때 끝없이 떠오르는 땅을 보고 창권에게 신세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토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개척 생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예시하였다. 붓도랑을 파는데에 자신들의 밭이 침수가 될 거라고 토민들의 반대를 받았고, 추위때문에 창권의 할아버지가 운명하였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게 되면서 봇도랑을 파지 못하게 으르대고 욕하고 때렸고…… 다 만주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증언해 주었다.

이태준은 만주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의 수난을 그가 <농군>을 쓰기 직전인 1938 년에 만주 각지, 특히 만보산사건 발생지인 쟝쟈워푸를 방문한 내용을 기록한 기행문 <이민부락견문기>에서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 ① 그걸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십 리나 되는 봇도랑을 내려고 우리가 피땀을 어떻게 흘렸는데……[16]

> ② 나는 내일이나 모레면 산고수려하다 해서 고려란 나라 이름까지 생긴 내 고향 금수강산에 들어서려나 생각하니 황막한 벌판에 남는 저들을 한번 더 돌아볼 염치가 없어진다.[17]

인용문①에서 박씨의 말이 당시 조선농민들이 만주에서 개척하기에 겪은 고난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반면 인용문②에서 이태준은 만주에 남는 조선이주농민들을 한번 더 돌아볼 염치가 없어진다는 이유는 자신이 산고수려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14 이현정, <잃어버린 민족을 만주에서 상상하다—이태준의 <농군>에서의 조선인들의 외침>, 식민주 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83쪽.
15 이태준, <농군>,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6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출판, 2010, 197쪽.
16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6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출판, 2010, 138쪽.
17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40쪽.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불고수불려하는 땅에서 수난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농민들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었다.

조선이주농민의 고난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태준은 그들의 만주개척을 위한 강한 의지도 보여주었다.

> 우리가 봇도랑 내게 얼마나 물자나 인력을 바쳐왔소? 거의 다된 일 아뇨? 우리만 살자구 남을 해치는 일이면 우리가 천벌을 받어두 마땅하오. 그렇지만 물만 들어와보우. 여기 토민들도 다 몽리가 되는게 아뇨? 우린 작정한 대루 나갈 수밖에 없소. 낮에 일할 수 없음 낮엔 자구 밤에들 나와 악을 쓰고 파시오. 낼이구 모레구 웬만만하면 물부터 끌어 넣고 보시오.....[18]

수로개간때문에 순경들에게 끌려간 황채심이 아흐레만에 돌아오고 조선이민들에게 위와 같은 격려한 발언을 하였다. “있는 물자는 이 황무지와 이 봇도랑을 위해 다 바쳐버렸”[19]으니 죽어도 살아도 여기밖에 없었다. “매 맞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낫다”[20]고 생각해서 “병정의 총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꾸 논을 팠다.”[21] 이처럼 <농군>에서 조선이주농민들이 만주라는 토지에서 수로개척 또한 삶의 개척에 대해 품은 강하고 굳건한 의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만보산사건을 제재로 창작한 안수길의 <벼>가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서사는 이주농민 첫세대가 만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농민과 벌이는 물리적 충돌과 그 이후 학교 건립 문제로 중국정부와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 등 두 가지이다.[22]

> 그렇구말구 익수두 익수려니와 우리손발톱이 무즈러지구 눈에서 피논물 흘려가며 악으루 파헤쳐논 논이지 이걸 그대루내놓구 가량이면 목숨을바치겠네 익수두 익수려니와 수토불복으루 고생한사람은 몇이며 생으루 죽은사람은 얼만가. 손발얼구어 겨을만되면 손구락 발구락에서 물이 찔금찔금나오구…… [23]

조선이주농민 첫세대가 만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원주민인 이곳 농민들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적개심을 느끼고 그들을 모멸하였다. 원주민은 이주농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근저로부터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조선이민들이 머무는 집을 야밤에 습격하여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익수를 죽게 하는 참극을 만든다. 그리고 원주민뿐

---

18 이태준, <농군>, 205쪽.
19 이태준, <농군>, 202쪽.
20 이태준, <농군>, 204쪽.
21 위와 같음.
22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식민주 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 판, 2010, 55쪽.
23 안수길, <벼>,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10 <안수길>, 보고사, 2006, 308쪽.

만 아니라 자연과도 싸워야 했다. 수토불복으로 죽은 어린애들도 많았고 추위때문에 손발 얼어서 고생한 사람도 많았다. 이처럼 조선이주농민들이 만주 개척 생활에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편지로 또는 이곳에서 고향으로 내왕하는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로 들었으나, 홍덕호며 아버지의 주름진 얼골에서 그사실을 차저내였고, 과부형수금녀에게서 그산증거를 발견"[24]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이주농민들이 피땀으로 만주 땅에서 생활을 개척하데에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룸에 있어서 안수길의 <벼>는 이태준의 <농군>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으로 낙은 채표의 꿈이라 한다.
> (…중략…)
> "그거나 빠지면 우리도 다시 한번 고향 산천에 가 살아 볼까요……그렇지 못하면 밤낮 이꼴이다가 호인들 밭머리에 묻히고 말죠……"
>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또 슬픔이기도 할 것이다.[25]

위 인용문을 통해 만주에서의 조선농민들이 고향 조선에 대한 애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태준은 <농군>에서도, 창권 할아버지는 일찍이 만주로 오는 기차 안에서 그의 며느리와 손자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무조건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고 만주에서의 개척에 머물고 있다.

안수길은 이태준과 같은 한국 출신의 작가이었지만 그는 소년시절 만주에 건너갔다가 조선과 일본에서 학창기를 보낸 뒤 다시 만주로 돌아와 만주에서 교원, 신문사 기자 등 직업에 종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이다.

<벼>를 수록한 안수길의 개인 창작집 <북원>의 <序>에서 염상섭은 "위만주국 국민문학의 하나의 하위분류 즉 '소수민족' 문학으로서의 조선계 문학의 존재와 건설을 강조하고 안수길을 그 대표적 작가로 내세우고 있다"고 적어 있다. 안수길 스스로도 1940 년초 <만선일보>가 기획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 기획연재에 연속 3 회에 거쳐 "**满**洲에도일즈기 朝**鲜**文**学**이잇섯다(上)", "**间岛**中心의 朝**鲜**文**学发**展**过**程과 **现阶**段(中)", "文**坛**建**设**의具体案과 文**学**人의迫力的活**动**(下)"라는 글을 기고함으로써 "**满**洲朝**鲜**文**学**의 再建"을 저극 주창한다. 이는 안수길 본인 역시 스스로를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26] 즉, 안수길은 스스로를 위만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길은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로서, 위만주국 국민으로서 조선이주농민들의 개척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주 땅에서의 정착을 꾀하

---

24 안수길, <벼>, 285쪽.
25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39쪽.
26 이해영,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제172집, 2015.9, 396쪽.

고 있다. 이태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① 부형들은 흙파는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않었다. 물론 그것은 잘살기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잘산다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하는동시에 그들의 이세를 잘북돋고 그 장래를 틔워줌어있다.[27]

② 만주-하늘부터 툭티였을만주, 땅은 물론 공기마자환할만주, 그곳에 십년간 이룩하여놓은 제이응봉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수며 부형친구 동생들이 생활하고있는곳, 그곳에가서 맘대로 뛰놀고 맘대로 부르짖고 부조와 형제들과함께 적고 일하자. 그들이호미로 파서 쌓어놓았다면 나는 그들의이세를 가르키고 키워서 그들의 생활을 굳건히해주고 빛나게해주자. 그렇게하는것이 십년간흙을판 고향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뒤에오는 사람의 가픔이다.[28]

먹고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살림을 차리려고 한다. 수로 개간뿐만 아니라 학교 건립하고 이세를 가르키며 후손도 계속 만주에서 생활하려는 것이다. 안수길에게 만주는 제 2 의 고향인것처럼, 만주에서 십년간 이룩해 놓은 매봉둔은 조선이주농민들에게도 제이응봉리, 제 2 의 고향이었다. 여기서 조선이민들이 단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세세대대로 이어가고 생활하기 위한 정착의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3. 이념과 무이념 : 사회주의·민족주의·생존제일주의

만보산사건을 다룬 이 3 편의 소설들은 작가의 이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휘영은 1932 년 1 월에 공산당 계열의 중진작가인 정령 (丁玲) 이 주필한 좌련의 기관지인 <북두 (北斗) >에 게재된 항일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 (最後一課) >으로 등단하였고 이듬해에 좌익작가동맹에 가입하였다. 이 작품을 본 정령이 그에게 중국동북 지역의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을 써 보라고 청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휘영의 <만보산>이 한편의 명제작문이라고 해도 적절한다.

이휘영의 <만보산>은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한 동아시아 소설 중에서 사건의 전개과정과 가장 근접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왔고[29] 작가의 계급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① 現在萬寶山的住民裡，較前更為明顯的劃分出一個界限，而形成的兩種不同的人。一邊是

[27] 안수길, <벼>, 293쪽.
[28] 안수길, <벼>, 296-297쪽.
[29] 김창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형, 리후이의 <만보산> 읽기>, <만주연구>11집. 2011.6, 74쪽.

以蕭翰林為首的官荒屯水田地主，只是十二家。他們差不多都是成年到頭專靠收租，依靠祖上遺田過活，自己毫不勞動的人。他們在屯中是有著相當的地位的。另一面，正相反的是馬寶山領頭的一群農民，不管是種自家的田地或是租種田地，都是靠自己勞動過活的。他們一群人，占著最大的多數。他們絕對的反對把官荒屯租給高麗人們種水田。特別是李竟平來開會之後，更切實的感覺出種水田的危機。

他們之間有了一層新的隔膜了。[30]

② 一向他們是過平靜日子，做官家的順民，每年用自己血汗，換些勉強可以糊口的東西吃，不遭災不惹禍，向安分的人使壞、欺壓，這怎能忍受得住！忍受一回忍受不住以後的好些回呀！不能，不能，這樣逼迫人的事情，他們絕對要反抗，看，奸商、官家、日本子，三股線緊成一股來對付你萬寶山一村的老百姓，這叫甚麼事情！[31]

③ 那郝永德，和那幾個工頭樣子的高麗人，有甚麼“鬼怪”都在他們身上，和這些高麗人一點不同（・・・중략・・・）對付高麗苦力就像中國官的聽差對於鄉間老百姓似的。[32]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마보산을 비롯한 중국농민들은 수로공사때문에 자신의 논밭이 침수가 될까봐 처음부터 황무지를 조선인에게 다시 세를 준 것을 반대하였다. 특히 그들은 이경평의 말을 듣고 나서 개간의 위기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며 소한림을 대표로 한 지주와 사이에 새로운 틈이 생겼다. 이 틈이 바로 농민과 지주 사이에 가로 놓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적 장벽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보산의 농민들이 종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관청에 순응하여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입에 풀칠하기 위해 경작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아덕상인, 중국관헌 그리고 일본제국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이렇게 분수를 안 농민들에게 흉계를 꾸미고 압박하였다. 게다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중국농민들은 자신이 중국관헌에게서 압박을 받는 것처럼 조선농민도 조선인 감공에게서 압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여기서 작가 이휘영이 등장인물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즉 나카가와 경부—학영덕— 중국관헌—중국인 지주—조선인 감공을 한편으로 하고 마보산 등 중국농민—조선농민을 다른 한편으로 갈등하는 계급대립으로 되어 있다.[33] 이는 중·조 양국의 민족모순을 다룸에 지면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관헌과 중국농민이 계급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과의 대비가 현저한다.

소설에서 중국 농민들이 조선인 농민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과정도 엿볼 수 있다.

30 이위형, <만부산>, 477쪽.
31 이위형, <만보산>, 498쪽.
32 이위형, <만보산>, 460쪽.
33 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안수길의 중편소설 <벼>를 중심으로>, 2010.

但如今，這地方不復是平靜的了，人們為了眼前即將來臨的遭遇，各人的心中皆存了一種戒心，加重些說是存了一件屬於“不好”或“不祥”的想頭。為什麼呢？——為了官荒屯的事情。好似一件重擔，在沒法解除之前，終不能放下似的，人們總是怕這件事情的不良影響。原因是一群高麗人來種水田，這裏面一定有一個“故事”在！高麗人的亂七八糟固然要格外提防，高麗人的主子，不更是難惹嗎。[34]

중국인 중개업자인 학영덕이 일본경부 나카가와와 결탁하여 만보산 지역의 황무지 500 쌍을 중국인 지주에게서 임대를 받고 다시 조선농민들에게 수로개간으로 세를 준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사실을 알게 된 중국농민 마보산 등은 수전을 개간하면 자신들의 경작지에 수재도 일으킬 수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조선인들에게 경계와 의심의 감정을 품었다.

① 搬來的高麗人，看他們臉面黃瘦瘦的，汙黑的，有些女人好像一陣風就可以吹倒；又因為長途跋涉，加上原來的營養不足，到這裏來已經都疲憊不堪了。（…중략…）日本人一丟了東西，就各處搜翻沒關係的高麗人；地方給日本人占去了，錢給日本人搶光了，血給日本人喝完了，日本人高興時就強佔他們的老婆（…중략…）還有比日本人更兇惡的日本走狗，不知恥的高麗同國人，欺侮著壓迫著。[35]

② 但是他們看見了幾天來搬來的高麗人，那種疲憊的樣子，不由得使他們的深心生出一種憐恤的心情（…중략…）他們都是同一階級的人哪！[36]

하지만 조선인 농민들에 대한 중국 농민들의 태도는 매우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농민들은 조선농민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향해 동정한 눈빛을 보냈는 반면 조선인 감공은 중국관헌과 같이 일본의 주구로 여겨진다.

① “他们也是穷人，苦人，一个样，穷人同穷人连在一起，大家靠自己力量共同做活，共同吃饭，不求管家，不靠财主，不是很好一件事情吗？”两方面同样的想（…생략…）[37]

② 总而言之，凡是被压迫也就是被欺侮的大众们，不分国界，不限地方，必得联合在一起。大众一心起来反抗，向吃人的帝国主义进攻，同他们斗争，拿取回来大众们本有的一切权利，是大众都能过着真正平安的日子才行！那才真正实现了世界的永久和平！[38]

34 이위형, <만보산>, 447쪽.
35 이위형, <만보산>, 459쪽.
36 이위형, <만보산>, 460쪽.
37 이위형, <만보산>, 489쪽.
38 이위형, <만보산>, 526쪽.

조선농민은 중국농민들에게는 처음의 경계와 의심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 여기에 이르러 연대의 대상으로 변하였다. 작가가 조선 독립전사 김복의 입을 빌려 중국농민과 조선인 농민의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계급투쟁과 항일투쟁의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소설에서 조선농민과 중국농민 사이의 민족갈등은 계급모순에 의해 극복되며, 광범위한 피착취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해서 중한 농민계급의 공동의 반일투쟁으로 전환된다. 중국 당대의 문호 모순(茅盾)이 일목요연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작가는 김씨라는 한 조선 교민의 입을 빌어 조선인의 고통과 일제의 흉포함을 하소연함으로써 한 차례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만보산 농민들이 압박받고 있는 조선농민들에 대해서 점차 '계급동정'을 느끼던 나머지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쓰고 있다. 작가의 노력에 의해 계급의식은 민족의식을 극복하게 되었다."[39]

작가 이휘영은 왜 소설에서 이러한 설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가 좌익작가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은 만보산사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일본의 滿蒙 침략 이외에 소련 진공, 국민당의 투항주의, 국민당의 만주 조선인 구축 정책에서 찾았으며[40] 일본제국주의자가 중국과 조선의 연대를 파괴하기 위해 민족 감정을 도발시켰다고 비난하였다.[41]

> 可是這都因為郝永德名下的'長農稻田公司'是日本人背地裡拿錢開的，背地裡搗亂，這是最重要的一點！日本子占了萬寶山之後，就和頭道溝打成一片，劃成租界，要不也做了頭道溝附近避暑地、屏障，好一好，從這向北可以侵佔哈爾濱，向西到扶余過江可以占江省，你們看這就是日本的詭計！他們預備一二年後占去吉林和江省交界地，然後同大鼻子開仗。[42]

소설에서 학영덕이 만보산 지역 황무지를 임대받고 다시 조선농민들에게 세를 준 이유는 일제가 동북을 점령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소련을 공격하려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복의 아버지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의 폭행을 반항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받는 박해에 관한 언급과 중·조 양국 농민의 연대에 대한 선전은 다 만보산사건에 대한 당시 공산당의 인식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

이휘영의 <만보산>에서 뚜렷한 애국심과 일제에 대한 폭로 그리고 중·조 양국 농민들에게 일어나서 공동의 적인 일본에 반항하라는 호소가 묘사되어 있어서 강렬한 정치적 신념과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좌익문학의 색채가 띠고 있다.

---

39 東方未明（茅盾），<文學>第一卷第二期, 1933.7. 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안수길의 중편소설 <벼>를 중심으로>, 2010, 197쪽 재인용.

40 <中共滿洲省委關於萬寶山事件及朝鮮慘案宣傳大綱>（1931.7.7）, <東北匯集>（甲8）, 225-229쪽. 손승회, <만보산사건과 중국공산당>, <동양사학연구> 83집, 2003.6, 128쪽 재인용.

41 위와 같음, 146쪽.

42 이휘영, <만보산>, 472쪽.

<농군>의 경우,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이태준은 조선이주농민과 중국토착농민 사이의 충돌을 다룸에 있어서 조선농민들이 만주 땅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개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의 민족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태준이 <농군>에서 만보산사건의 실상과는 다르게 일본을 등장시키지 않고 조선농민과 중국농민의 갈등으로만 했다.[43] 그렇기 때문에 <농군>이 "당대의 국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소설이며, 소설 자체로 보아도 지극히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품"[44], "일본의 만주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 성립되었던 개척문학의 한 분파"[45]란 비판도 받았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발표된 1939 년 당시 일제의 검열 체제를 염두에 둔다면 일본 경찰이나 군대 등 체제를 유지하는 무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46] 이런 제도 아래에서 말하고 싶지 않는 것 혹은 거짓을 통해야 말할 수 있는 것, 즉 일제를 미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태준이 <농군>에서 일부러 일본을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군>은 이태준의 민족의식이 내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안수길은 <벼>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냐"라는 질문을 품고 조선이주농민들의 생활을 발굴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나갔다.[47] 즉, <벼>에서 생존의 문제를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생존 제일의 논리가 깔리고 있다.

> 벼! 벼! 벼를 이 넓은 토지에 꽉차게 삼고 북돋우면 그만이다. 그것만이 일념이었다. 그 외의 것은 도라볼 가치가 없었다. 원주민들과의 충돌 그런것도 벼를 북돋으려는 일념앞에는 아이작난이었다. 오직벼! 벼앞에는 아무런희생도 참고 견딜수있었다. [48]

익수의 죽음을 만들어진 원주민과의 충돌이 벼 앞에는 아이 작난이었음에 불관한다고 조선농민들이 여겼다. "매봉둔 주민들의 생활을 상징하"[49]는 벼 앞에는 아무런 희생도 견딜 수 있었다.

> 그럼으로 농민문학의 수립과 발전은 개척민의마음의양식인동시에 수전개간으로써 농업만주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정신적원동력의 공급원이된다는 공리적견지로서도 기대와 국

43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식민주 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125쪽.
44 김철, 위와 같음, 481쪽.
45 정혜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만주>, <어문논총>재34호, 2000.8, 184쪽. 장영우, <만보산사건과 한·일 소설의 대응>, 230쪽 재인용.
46 이상경, 위와 같음, 116쪽.
47 김경자, <한중일 문학에서 "만보산사건"의 소설화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년, 13쪽.
48 안수길, <벼>, 285쪽.
49 안수길, <벼>, 265쪽.

가적의의는 큰것이다.[50]

<벼>를 수록된 <북원>의 <序>에서 염상섭은 만주에서 조선인의 역할에 대해 "수로개간으로써 농업만주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위만주국에서 조선인의 기여와 그것을 통한 조선인의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만주에서 "수전개간"은 조선인 농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조선인 농민의 기여는 그 어떤 민족도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공헌이라고 함으로써 위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존재 기반과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51] 그러니까 조선이주농민들이 수전개간만을 통해서 만주에서 생존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조선농민들이 벼를 삼고 북돋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이유는 만주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생존을 어떻게 모색해 나가는지도 작가가 알려주었다.

① 이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해치러온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알고 찾어온 순수하고 죄없는 백성들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사람들의 고장에서사렀기 때문에 이사람들의 온순한마음을 잘알고있다. (…중략…) 그리고 그나그네는 그 집을 위하여복을 갖어오는 사람이라면 어찔터인가-여기서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말한 나그네요 여러분은 집주인이다.[52]

② 원주민들은 어린이 어른할것없이 모다 구경나왔다. 나쌀이나먹은 원주민은 익수의 묘앞에가 꾸러앉아절을하며 묵도를하는이도있었다. 부인들은 원주민에게떡과술을대접하였다. 아이들에게는 전을주었다.

방치원도 초대하였다. 그는 농악을 보고 대단히부러워하였다. 원주민들도 그들의 경작지를 침해 하지않고 못쓸 땅을 갈아가득이 나락이 매어지도록 되게한 이주민솜씨에 몰래 감탄하며 농악을 재피며 노는모양이 힘차고 재미있다고 구경하였다.[53]

안수길이 인용문①에서 조선이주농민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다. 조선이민들은 중국농민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만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찾아온 순수하고 죄없는 백성들이며 수로개간하여 만주를 건설하는 복을 가져온 사람들이었다. 안수길은 이러한 변명을 통해 원주민과 조선이주농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 민족 간의 화해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인용문②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농민이 마침내 "그들의 경작지를 침해 하지 않고 못쓸 땅을 갈아 가득이 나락이 매어지도록 되게"한 조선이주농민의 솜씨를 몰래 감탄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풍년을 맞아 익수의 묘앞에서 제를 지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농악을 하는 조선이주농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중국농민

50 염상섭, <序>,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안수길>, 보고사, 2006, 584쪽.
51 이해영, <만죽구 선계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제40집, 2013.8.
52 안수길, <벼>, 275쪽.
53 안수길, <벼>, 287쪽.

들의 모습이 바로 양 민족 간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벼>에서는 원주민들과의 화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시각, 중국인들과 공존의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54]

이 것은 안수길은 "민족협화"를 위만주국에서 조선이민들이 정착하고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안수길은 상호주의적 시각으로 만주의 원래 주인인 중국인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또한 조선인들이 만주에 이주해온 절박한 처지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존을 도모하고 만주에 정착하는 것이 만주에 이주한 조선이민들의 생존의 길이라고 보았다. [55]

4. 체험의 유무와 깊이 : 국외자·여행자·이민과 개척자

만주에 대해 이휘영은 국외자이며 이태준은 여행자이며 안수길은 이민과 개척자이었다. 작가의 체험의 유무와 깊이에 따라 소설을 형상화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중국 작가 이휘영은 현지에 가 본 적이 없었고 자료를 근거하여 만보산사건을 형상화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주도한 만주사변과 제 1 차 상해사변의 포화로 인해 이휘영은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학교가 있어도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붓을 적을 반항하는 무기로 삼으려는 이휘영은 마침 이때 정령의 동북항일소설을 써 보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는 흔쾌히 승낙하였다.

① 而我那時當真是依憑報紙上所刊載的朝鮮排華事件、萬寶山事件的新聞材料為藍圖，然後在那上面架設起屋宇來的。精密的分析和考察，都沒有做到，只是覺得寫出這麼一部作品，等於表達了中國農民對於日本帝國主義者的反抗精神，也就夠了。[56]

② 于是我便开始搜寻资料，增增减减，写写改改，两个半月之后果然交了卷。[57]

위 인용문에서 드러난 듯이, 이휘영이 신문에 게재된 배화폭동과 만보산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근거하여 3 개월 채 안 되어 장편소설 <만보산>을 완수하였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휘영이 당시 동북지역의 사회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리가 없었다. 모순도 이 소설에 대해 "오래시간동안 일본제국주의의 무력공제와 경제침략 하에 있었던 동북의 특수한 사회상황을 선명하게 표현해내지 못했다"고 타당하개 지적하였다.

四月末的萬寶山一帶地方，俞顯得清秀可愛，山哪，水哪，樹林哪，田地哪……一切都呈現

54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서사에 나타난 민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제50집, 2015.6, 15쪽.
55 이해영,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제172집, 2015.9.
56 이휘영, <港版<松花江上>后记>, 马蹄疾 편, <이휘영연구자료>, 132쪽.
57 이휘영, <港版<松花江上>后记>, 马蹄疾 편 <이휘영연구자료>, 130쪽.

著復興後的新生。田陌裡，山坡上，樹林中，小河旁，到處都不缺少殷勤工作著的，男的，女的，老的，小的，壯年的農人們。下過幾回很合適的春雨，田中的小苗，露出來青青的嫩芽，天真地向著全村歡笑，好似在說：勞苦的農友們，虧你們的耕種，我們又同你們見面了。野花叢生的地方，引得一群一對的蜂蝶飛翔，一會，把小小的身軀，降落在花心中，深深的、長久的和它們的隔了一年長時期的愛人接著醉吻；微風動興的吹拂著，兩下裡為熱愛緊緊的抱在一處，那樣的真率可愛，就連一個鄉村孩子，雖然他總脫不了粗莽脾氣，到這時，也只瞪著兩眼呆呆的看著這甜蜜的表現，而不敢莽撞了。果子樹也結了苞，過些時，遇到一個好日子，就開出來它們的萬紫千紅的花朵。農人們，都是誠摯的，樸素的，伴著自然的賜予，照例的，一年一年的過著勞作、平靜的日子。[58]

인용문에서 보여주 듯이, 학영덕이 일제와 결탁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러 만보산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지역은 이휘영에 의해 이상향으로 묘사되었다. 산수가 아름답고 화초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남녀노소 농민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저기 발랄하고 생명력 있게 보였다. 이 것은 당시 중국 동북지역의 농민들이 일제와 중국군벌의 이중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만보산>을 완성한 후, 이휘영은 1933 년 7 월에 남몰래 동북에 되돌아가고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길림, 장춘, 하얼빈, 심양, 대련 등 지를 걸쳐 9 월 말에 상해로 돌아가고 이번 귀향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소재로 삼아 일련의 항일제재의 소설과 산문을 써냈다. 단편소설 <풍년>은 그 중의 하나이다.

先說世道不好，一年不如一年，從前既沒有胡匪，也沒有日本人。

(…중략…)

近年來，任什麼事都不那樣了，以莊稼人本身來說，拿捐拿租一年比一年重，鬍子到處有，日夜睡不安覺，東西也一年比一年貴，租量賣不上大價錢，人心也沒有從前好。日本人打進來，把東三省硬占著，說也怪，偏占東三省，不開拔，冒出這些黑煞神，無惡不作，欺壓良民連大氣都有點不敢出。還常常打仗，打起仗不管不顧，燒房子，毀莊稼，炸死人，……[59]

올라가는 소작료와 물가, 비적의 습격, 전쟁때문에 집도 농작물도 훼손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풍녕>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농민들의 부담스럽고 불안정한 생활을 이휘영이 보다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것은 신문기사를 기반하고 창작한 <만보산>에 비해 현지를 조사한 이휘영은 동북지역의 사회현실을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태준이 <농군>을 쓰기 전인 1938 년에 만주 각지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 <이민부락견문기>가 1938.4.8 부터 1938.4.21 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됐고,

58 이휘영, <만보산>, 446-447쪽.
59 이휘영, <풍년>, 新中华丛书文艺专刊之一, 上海中华书局印行, 16쪽.

이듬해인 1939 년에 수정본을 <만주기행>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수필집인 <무서록>에 수록하였다.

> 만주에서 가장 오랜 편이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요. 가장 먼저 조선인의 손으로 큰 수로가 황무지를 관류하게 된 데가 만보산 일원인데 만보산의 여러 부락 중에도 신경서 가기 편리한 곳은 "쟝자워후 (姜家窩堡)"라는 데라 한다.
>
> (...중략...)
>
> 붓도랑이 나온다. 그 유명한 만보산사건을 일으킨 붓도랑이라 한다.
>
> 바닥 너비는 12, 3 척, 위의 너비는 21, 2 척의 전장 20 여 리의 대간수로다.[60]

이처럼 기행문에서 만보산사건이 발생한 쟝쟈워푸를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 조선농민들에 의해 관류하게 된 붓도랑에 대한 묘사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군>과 <이민부락견문기>를 횡적으로 비교해 보면 두 작품에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처음엔
>
> 땅도 흔하다!
>
> 하고 놀랄 것이요 다음엔 밭머리마다 연장을 들고 반기는 표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지나가는 차를 힐끔히 쳐다보고 섰는 푸른옷 입은 사람들을 볼 때에는
>
> 그래도 모두 임자 있는 밭들이 아닌가!
>
> 하고 피곤한 머리 속에 메마른 생활의 꿈이 어지러웠을 것이다.[61]

위 인용문과 거의 비슷한 서술이 <농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태준이 <이민부락견문기>에서 경상도에서 온 조선인 일가와 평안도 노파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 반면에 <농군>에서는 창권이 할아버지가 운명하셨을 때 옆에는 사투리하는 함경도, 경상도 그리고 평안도 노인들이 계시다고 묘사되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행문 <이민부락견문기>가 <농군>의 창작바탕으로 보아도 무난한다고 생각한다.

> 사람이 떠나려온다. 창권은 다리를 쩔룩거리며 뛰여들었다. 노인이다. 총에 옆구리를 맞었다. 바로 창권이하라버지 운명할 때, 눈을 쓸어 감겨주던, 경상도 사투리하던 노인이다. 창권은 가슴이 쩍 갈라지는것 같었다. 차라리 가슴 복판에 총알이 와 콱 백혔으면 시원하겠다. 노인의 시체를 두팔로 쳐들고 둔덕으로 뛰여올랐다.
>
> "아!"

60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30쪽.
61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21쪽.

> 창권은 다시 한번 놀랐다. 몇달째 꿈속에나 보던광경이다. 일망무제, 논자리마다 어름장처럼 새벽하늘에 으리으리 번뜩인다. 창권은 더 다리에 힘을 줄수 없어 노인의 시체를 안은체 쾅 주저앉었다. 그러나 이내 재쳐 일어나 어머니와 안해에게 부축이 되며 주먹을 허공에 내저으며 뭐라고인지 자기도 모를 소리를 악을써 질렀다. 위쪽에서, 위쪽에서 악들을 쓰며 달려나려온다.[62]

<농군>의 이 대목에서 창권의 무력한 외침이 조선농민들이 만주에서 겪은 고통과 고난을 유력하게 표현하였다. 수전 개간의 성공은 동포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창권에게 있어서 울분으로 인해 꽉 막힌 가슴이 차라리 총알을 맞으면 더 시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이태준이 분명히 <이민부락견문기>에서 만보산사건 당시에 사상자가 없다고 밝혀져 있었다.

> 그러나 그때 그들의 총알에 명중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다. 멀리서 위협하느라고 탄환이 공중으로만 지나가게 쏘아 그런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은 없었고 몇 청년들이 잡혀가 여러 날 갇히었다가 나왔을 뿐인데 오히려 조선에서 피차에 살상이 생겼다는 것은 여간 유감이 아니라고 한다.[63]

그럼 왜 <농군>에서 중국농민의 형상을 왜곡하며 조선인 늙은이가 총에 맞아 죽게 만들었고 주인공 창권 역시 총상을 입는 것으로 처리하였는가?

<농군>이 다루고 있는 긍정적인 문제는 만주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의 개척 수난사이다. 식민지 조선에 살면서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만주를 여행했을 뿐인 이태준은 만주현지의 문제에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고 중국농민에 대해도 피상적인 접근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64] 그러므로 <농군>에서 이러한 문학적인 허구와 상상을 가미하여 조선인 이주민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개척의 어려움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면서 잠간 만주를 여행한 이태준과는 달리 위만주국 조선계 대표 작가로 뽑을 수 있는 안수길은 1924 년 13 세의 이른 나이에 만주로 이주하였다. 그후 간도중앙하교, 함흥고보, 서울 경신학교를 걸쳐 일본으로 유학하였고 1931 년 2 월 집안사정으로 다시 만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광복 2 개월 전인 1945 년 6 월까지 만 14 년이란 긴 세월을 안수길은 만주에서 등단하고 문학창작을 전념하면서 청년기를 지내왔다.[65] 그러므로 안수길은 오랜시간 동안 조선이주농민들이 만주에서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토 에이노스케와 이휘영 및 이태준보다 시각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

62 이태준, <농군>, 207쪽.
63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135-139쪽.
64 이현정, <잃어버린 민족을 만주에서 상상하다—이태준의 <농군>에서의 조선인들의 외침>, 식민주 의와 문화 총서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95쪽.
65 이해영,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제172집, 2015.9, 396쪽.

다.

우선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농군>과 <벼>에서 조선농민들이 만주에 이주해 온 이유는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구누군가? 젊은 여잔 아낸가?"
"네."
"어째 얼굴이 혼자 그렇게 하얀가?"
"공장에 가 있었습니다."
"무슨?"
"읍에 고치실 켜는 공장입니다."
"응, 방적회사 말이로군?"
"네."
(…중략…)
"돈 얼마나 가지구 가나?"
"한 500 원 됩니다."
"500 원, 웬건가?"
"밭허구 산허구 집서껀 판 겁니다."
"집도 있구 밭두 있으면 왜 고향서 안 살구 가는 거야?"
"밭이라구 모두 삼백이십 원 받은걸요. 조선서 삼백이십 원짜리 밭이나 가지군 살 수 있어야죠. 남의 소작도 해봤는데 땅 나뿐 건 품값도……"
"듣기 싫어…… 아내가 벌었다며?"
"네. 돈 쓴 일은 걸루 다 메꿔 나갔습죠. 그렇지만 밤낮 공장에만 갔다둘 수 있습니까?"[66]

<농군>의 주인공 유창권이 조선을 떠난 기차에서 형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대회에서 알려진 것처럼,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지만 모두 500 원 짜리이었다. 남의 소작도 해봤는데 땅이 나빠서 품값도 밑지고 아내가 방적회사에 들어가 일했지만 번 돈을 다 메꿔 썼다. 이 대목이 유창권 일가가 만주에 이주해 온 이유는 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임을 밝혔으며 조선농민들이 조선에서의 힘들고 가난한 삶을 입증해 주었다.

① 홍덕호는 한 살 젊었을대의 무궤도하였든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기왕 인연을맺었든 만주에서 재출발하여 돌을깨물면서라도 돈푼을쥐고 금의환향하자는 결심이였다.[67]

66 이태준, <농군>, 193-194쪽.
67 안수길, <벼>, 266-267쪽.

② 박첨지는고향을 떠나지안허서는 안될사정이잇섯다.

그것은결국 말하자면고향에서 살림이궁하게 된까닭이라하겠으나 그 살림이 궁하게된 원인이박첨지의 한때의실수에서 온것이엿다.[68]

③ 일편 남자들의 수레에서는 고향을떠난다는 호젖함이란업는듯 웃고짓거리고 떠들엇다. 물론 그들에겐들 전연 호젓한생각이 업슨것은안이겟으나 맘맛는 짝패가 넷이함께간다는든든함이 무슨즐거운려행이나 떠나는듯한 기붐이여섰을 것이다.[69]

<벼>에서 홍덕호는 돈을 벌고 금희환향하자는 결심으로, 바꾸어 말하면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었고, 박첨지는 향옥이란 여자와의 불륜한 관계로 고향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떠나지 않아서 안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주에 건너간 것이었다. 홍덕호나 박첨지가 모두 가난과 궁핍때문에 조선을 떠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로 이주한 것은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태준의 <농군>과 선명하게 차별된다.

두 작품이 두 작가에 의해 완연히 다른 대응양상을 보여준 것은 이태준과 안수길은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하여 소설에서 형상화한 이민의 시기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태준은 1938 년에 열차를 타고 만주를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군>에서 1930 년대 조선농민의 이주상황을 다루었다. 그래서 유창권이 기차안에서 형사에게 조사를 받은 장면을 리얼하게 부각할 수 있었고 <농군>에서나 <이민부락견문기>에서나 기차안의 환경과 승객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벼>의 경우, 서두에서 “만주건국 이년전 여름이엿다”라는 구절이 소설의 시대배경이 1930 년인 것을 예시해 준다. 그럼 박첨지 일행이 만주로 이주한 시점이 10 년 전인 1920 년대 인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안수길이 1924 년에 만주에 건너간 경험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안수길은 조선이민들에 대한 중국정부가 취한 정책의 변화를 제눈으로 확인하였다. <벼>에서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면서 변화를 일으킨 이유까지 밝혀 내었다.

수전개간을 그려케 후한조건으로 승락한것도 그가 조선잇을때 입쌀밥에 맏드린관계도 잇거니와 그것이 만주에서도 한전보다 이윤이 훨신 만타는 것을 안가닭이다.

(…중략…)

그것은 방치원의 개인적후의만이아니었다. 당시의 정부에서도 대체로 방칭원과 같은 견해를 가젔었다. 그들은 이주민에서 안식처를 제공하는것이 대국으로서의금도라자임했다. 그리고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엄청나게 많은 만주에서 더욱 수전의개간은 지원의발굴로서 국력의증강을 의미하는것이라 하엿다. 그들은 이주증을 발급함으로서 월경하는 백

68 안수길, <벼>, 269쪽,
69 안수길, <벼>, 271쪽.

성을 환영하였고 지주들은 먼저 이주하여온 사람을통하여 조선인의농호를 부르기까지하였다. 즉 그들은 조선백성의 힘을빌어 만주의 황무지개간을 꾀하엿든것이었다.

한현장이 홍덕호의 청을 일언하게 받어드린것은 이정부의 국력증강책에 부합된까닭이었다.[70]

박첨지 일행 조선농민들이 처음 만주에 들어왔을 때 한현장과 방치원은 그들에게 우호적이면서도 도움을 많이 주었다. 물론 방치원이 후한 조건으로 조선농민들에게 수전개간을 허락한 것은 단지 그가 입쌀밥에 맏드린 것이나 조선사람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데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만주에서도 한전보다 수전이 이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주인이 갖고 있지 못한 수전개간 기술을 수전으로 개간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또한 당시 중국 정부 역시 인구가 희박한 만주의 황무지를 조선 이주농민들을 이용하여 개간하여 국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그 문제의 백성인 조선사람을 전연 입국식히지 안는것이 맛당한일이나 이미 드러와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순한수단으로, 그것을 듣지않으면 문제가 생기지않을 정도의 강제수단을써서 모라냄으로 화근을 빼어내는것이 생책이라는것이였다.[71]

하지만 조선사람이 일본시민으로서 많이 모여사는 곳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영사관이 들어온 것이었다. 조선사람을 일제의 앞접이로 여겨 화근을 빼어내기 위해서 장개석의 북벌 성공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조선이민을 만주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온순한 수단으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제수단을 써서 쫓아냈다. 이처럼, 만주에서의 조선이민들이 일종의 희생제물임에 불과하다고 알아챌 수 있다. 만주에서 오래 생할하고 조선이민의 삶에 직접 개입한 안수길은 이에 대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벼>에서 비유를 차용하여 폭로하였다.

자연의 한때의작난으로만드러진 운동장에서 세상모르고 목욕감고있는 개고리-문득 찬수는이것이 매봉둔주미니들의 운명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으나 이내그것을 부정하고 말었다.

해가나면 위선 물은 증발하여버릴것이겠고 그렇지않어도 학교교실로씨울 널장우에 고여있는물이라 곳 목수와 미쟁이의 손으로 퍼냄을받거나 씰리움을 당할것이니 개고리 제아모리 즐거웁게 노닌다하여도 천생의 논물이나 개울물에서와같은 안전을 얻을수는 만분

70 안수길, <벼>, 272-273쪽.
71 안수길, <벼>, 306쪽.

없을일이요, 몰리우고 쪼낌받을것은 시간문제로 되어있는것이다.[72]

개구리는 널우에 고인 물에서 아무리 즐겁게 놀다해도 자연의 작난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거처에 불과하고 천생의 논물이나 개울물에서와 같은 안전을 얻 을 수 없다. 조선이민들이 이 개구리와 같다. 만주는 그들에게 결국 일시적인 거주의 장소뿐이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쫓김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점에서 중국정부가 실시한 구축 정책에 입증해 주는 동시에 안수길이 가장자리에 선 조선이주농민의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도 보여주었다.

만주에서 오래 이주생활을 한 안수길은 조선이주농민뿐만 아니라 중국인 지주와 중국관헌에 대해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태준이 강조한 중·조 양 민족 간의 충돌이나 이휘영이 구호처럼 호소한 중·조 양국 농민의 연대와 다른다.

<벼>에서 조선농민들이 방치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월경하고 개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안수길이 중국인 지주에 대한 시각은 객관적인 건 물론이다. 하지만 배일 사상으로 무장한 새로 부임한 소현장에 대한 묘사도 극히 객관적이다.

북경의 모 대학을 졸업하고 동경에 가서도 모 대학에서 정치를 배운 정예분자인 소현장은 조선사람을 일본의 앞잡이로 경계하며 조선사람을 이용하여 일본이 영사관을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봉둔 조선농민들이 세우고 있는 학교 건설을 중단하라도 하며 내일 안으로 그들이 피땀으로 개간한 매봉둔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가 하면 또 원주민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학교 교사에 불을 지르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소현장에 대해서도 안숙길은 "한현장이나 양현장같은 돈으로 현장의자리를사고 돈만주면 죽일놈이라도 살리고 친분만 있으면 아무리어려운일이라도 그래야지하고 허락하는 정치가에 비긴다면 국책에 충실하고 의식적인정치를 행하는데있어는 소현장은 발탁될만한 자격이 충분히있었으나 그것은 중국이란 국가로보아 그런것"[73]이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74]

상술한 것처럼, <벼>는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다룬 양국의 소설들 가운데서 한.중.일의 미묘한 정치역학관계[75]와 가장자리에 선 조선이주농민의 실상을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주에서 오래 생활한 안수길이 만주에서 이민정책의 변화, 조선이주농민의 삶, 중.조 양국 농민 간의 관계 그리고 중국인 지주와 중국관헌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은 이휘영나 이태준과 선명하게 차별되는 지점이다.

---

72 안수길, <벼>, 303쪽.
73 안수길, <벼>, 305쪽.
74 이해영, <위만주국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407쪽.
75 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안수길의 중편소설 <벼>를 중심으로>, 214쪽.

5. 결론

본고는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휘영의 <만보산>, 이태준의 <농군> 그리고 안수길의 <벼> 등 3 편의 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한·중 작가들이 만보산사건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 대응양상을 통해 작가의 국민적 정체성. 이념 그리고 체험의 유무와 깊이가 문학작품의 창작과정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도 살펴보았다.

국민적 정체성을 통해 볼 때, 중국 작가 이휘영은 장편소설 <만보산>에서 영토적 침탈을 획책하는 일제의 야욕을 직접적으로 밝혀 내는 동시에 중국농민이 침착하고 용감하는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일제에 대한 반항과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태준은 한국작가로서 <농군>에서 다루고 있는 긍정적인 문제는 만주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의 개척 수난사이며 안수길은 이태준과 같이 한국 출신이었지만 만주에서 등단하고 위만주국 조선계 대표 작가로 뽑을 수 있는 위만주국 국민으로서, 그는 <벼>에서 조선농민들이 만주 땅에서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이념을 통해 볼 때, 좌익작가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이휘영은 소설에서 조선농민과 중국농민 사이의 민족갈등은 계급모순에 의해 극복되며, 광범위한 피착취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해서 중한 농민계급의 공동의 반일투쟁으로 전환된다. 이태준이 일제의 검열을 의식해서 <농군>에서 일부러 일본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그의 민족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안수길은 <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냐”라는 질문을 품고 조선이주농민들의 생활을 발굴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해 나가는 듯 생존 제일의 논리가 깔려 있다.

체험의 유무와 깊이를 통해 볼 때, 현지에 가 본 적이 없는 이휘영은 자료를 근거하여 만보산사건을 형상화하였다. 현지조사 없이 이휘영이 당시 동북지역의 사회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리가 없으므로 모순이 이 소설에 대한 “오래시간동안 일본제국주의의 무력공제와 경제침략 하에 있었던 동북의 특수한 사회상황을 선명하게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살면서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만주를 여행하기 때문에 이태준은 <농군>에서 다루고 있는 긍정적인 문제는 만주에 이주해 온 조선농민들의 개척 수난사이다.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면서 잠간 만주를 여행한 이태준과는 달리 어린 시절 만주에 이주하여 오랜시간 동안 조선이주농민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깊이 체험한 안수길은 만주에서 이민정책의 변화, 조선이주농민의 삶 그리고 중국인 지주와 중국관헌에 대해 개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깊은 이해를 가졌다.

참고문헌

[1] 김경자, <한중일 문학에서 “만보산사건”의 소설화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년.

[2] 김재용 편,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 13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출판, 2010;

[3] 김재용 편,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 06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출판, 2010;

[4] 김창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형, 리후이의 <만보산> 읽기>, <만주연구>11 집, 2011.6;

[5] 김철, <몰락하는 신생—’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제 9 집, 2002.8;

[6] 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 국 소설 비교—안수길의 중편소설 <벼>를 중심으로>, 제 5 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자료집 <’만주국’과 동아시아 문학>, 2009;

[7] 노상래, <소설로 분광된 ‘만보산사건’ 읽기>, <인문연구> 57 호, 2009.12.

[8] 馬蹄疾 편, <中國現代作家作品研究資料叢書：李輝英研究資料>, 春風文藝出版社, 1988.6 ;

[9] 손승회, <만보산사건과 중국공산당>, <동양사학연구> 83 집, 2003.6;

[10] 신승모, <식민지기 일본어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 <한국문학연구> 34 집, 2008.6;

[11]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집, 2006;

[12] 안수길, <벼>,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10<안수길>, 보고사, 2006;

[13] 염상섭, <序>,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안수길>, 보고사, 2006;

[14] 宇野浩二, <文學的眺望>, 《改造》, 1931.11;

[15] 유수정, <<만보산>, 농민문학과 개척문학>, <만주연구> 제 11 집, 2011.6;

[16] 이토 에이노스케, <만조산>, <개조>, 1931.10;

[17] 이태준, <농군>,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 6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출판, 2010;

[18] 李弘慧, <萬寶山事件與<萬寶山>>, 東北師大學報 1995 년 제 1 호, 1995;

[19] 이현정, <잃어버린 민족을 만주에서 상상하다—이태준의 <농군>에서의 조선인들의 외침>, 시카고대학 박사학위논문, 2009;

[20] 이해영, <僞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172 집, 2015.9;

[21]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43 집, 2014.8;

[22] 이해영, <만주국 “鮮계”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40 집, 2013.8;

[23] 이해영,<만주국의 국가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안수길의 재만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60 집, 2012.4.30;

[24] 이휘영, <만보산>, <동북현대문학대계(1919-1949)> 제 6 집 장편소설 권(상), 심양출판사, 1996;

[25] 이휘영, <풍년>, 新中华丛书文艺专刊之一, 上海中华书局印行, 1933.

재중조선인산문을 통해 본 위만주국시기 식민정책과 조선인교육개관

배홍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1. 서론

중국에서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난세기 8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소설, 시문학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근년에는 기행문, 산문분야에까지 이르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만주국시기 문학에 대한 연구를 본다면 형상학적 접근, 탈식민주의 시각에서의 접근 등이 많으며 주요하게는 이주농민들의 삶에 대한 검토, 작가의식에 대한 검토, 중국현상 혹은 "만주"형상에 관한 검토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는 이 시기 재중조선인문학에서 산문을 연구대상으로 그속에 체현된 식민정책과 이에 비롯되는 위만주국시기의 조선인교육의 현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9.18"사변과 함께 일본의 중국침략은 서서히 막을 열었고 국민정부의 비저항정책으로 일본은 사변을 일으켜 3일만에 봉천, 장춘 등 동북의 주요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로부터 단 4개월내에 3000여만 인구에 128만평방키로메터의 중국 동북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다. "9.18"사변후 일본은 하루 빨리 식민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 한 곳을 점령하면 친일분자들을 부추켜 그 곳에 괴뢰 지방조직 혹은 괴뢰 지방정부를 설립할것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남경국민정부에서 리탈하여 "독립"을 선포할것을 요구했다. 1932년 1월까지 료녕, 길림, 흑룡강 세개 성에서 괴뢰정부의 설립을 마쳤는바 각각 봉천성정부(奉天省政府), 길림성장관공서(吉林省长官公署) 및 흑룡강성정부(黑龙江省政府)였다. 각 성의 괴뢰정부가 설립된후 일본은 동북에 "독립국"을 세울 준비를 추진하였다. 1932년에 관동군은 "독립국" 나라 이름을 "만주국"으로, 그 령토는 료녕, 길림, 흑룡강, 열하 및 내몽골 일대를 포함하고 수도는 장춘으로 정하고 이름을 "신경"으로 고칠것을 결정한다. 그해 3월 1일, 동북행정위원회에서는 《건국선언》을 반포하여 중화민국과 관계를 끊고 "만주국"을 건립한다고 선고한다. 3월9일 관동군은 청조의 말대 황제 부의를 데려다 장춘에서 "집정" 추임식을 가진다. 이로써 "만주국"은 정식으로 "탄생"한다.

위만주국의 성립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3월12일에 정부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일본군대가 비법적으로 동북삼성을 점령하고있는 동안 동북의 조직구성의 변화에 대해 중국정부는 반란기관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부의 변형적인 부속기관이라고 인정한다. 그들의 일체 비법적행위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일체 승인하지 않으며 일본정부는 이에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1] 이러한 중국의 성명에도 아랑곳 없이 “만주국” 추진을 밀고 나간 일본은 위만주국 건립 이후 일련의 식민정책을 실시한다. 여기에 군사,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농업이민 등이 있다.

2. 위만주국시기 식민정책과 그 영향

2.1 위만주국의 군사정책

우선 군사방면에서 관동 헌병대가 주둔하고 위만주국 경찰이 편성된다. 관동 헌병대의 전신인 일본 헌병대는 1904년 로일전쟁기간에 일본군대를 따라 동북에 들어왔는데 1907년에 관동 헌병대로 이름을 바꾸고 1917년에는 일본천황의 명에 따라 정식으로 경찰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일본이 “9.18”사변을 발동할때 관동 헌병대는 군사정보의 입수 등에 적극적역할을 하였으며 일본군대가 동북을 점령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1932년 6월, 관동헌병대는 관동군에 편성되여 들어갔으며 1935년 9월 도조 히데키(东条英机)가 부임한후 관동헌병대 사령부는 강대한 파쇼기구로 변신한다.

사실 일본이 중국 동북을 점령한후 전반 동북삼성에서 기초시설, 즉 교통이라던가 도시건설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만철”의 “공헌”이라 할수있다. “만철”의 전칭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로 위만주국이 성립된후 그 행정권을 위만주국에 귀속시키는데 단지 “만주”의 철도, 도로, 탄광 등 공업개발뿐만 아니라 방대한 군사정보수집까지 책임진 일본제국주의의 동북식민통치의 최고사령부였다.

> 4월 2일 오전 6시 20분에 도문을 출발하여 신경행 열차에 탔습니다. 이 철도는 벌써 만철로부터 “만주국” 철로총국 경영으로 이관되었다 합니다. 1등 “파스”를 받았지만 너무나 송구해서 반장을 제하고는 2등에 탔습니다.
>
> 열차내와 역 구내에는 반드시 독립 수비대의 정규병과 만철 직할의 철도 경비원이 경위(警衛)하고있으며 주요한 역에는 장갑 열차가 항시 불을 끄지 아니하고 대개하고있다가 일단 유사(有事)하여 급보가 오면 그 순간에라도 현장에 운전 출동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철도연선을 경계 옹호합니다.
>
> -김성진, 《만주벌을 향해》[2]중

“만철”의 행정권 이송은 김성진이 말한 “이 철도는 벌써 만철로부터 만주국 철로총

[1] 罗家伦编，《革命文献》，第37辑，第1893页（转引至：东北沦陷十四年史总编室、日本殖民地文化研究会编，《伪满洲国的真相——中日学者共同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0年1月，第25页）
[2] 김성진(金晟镇)，《만주벌을 향해》，《조선일보》，1935년 4월 9～18일에 련재

국 경영으로 이관되었다"는 대목에서 알수 있다. 그 아래의 실제 공사는 수비대가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든가 철도연선에는 항상 장갑차와 경비대가 수호한다는것은 반일세력이 철도에 대한 파괴를 말하고 있는바 이 시기 "만주"의 발전은 전쟁과 포화와 학살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일제는 력량을 동원해 반일세력에 대한 소탕을 하는 동시에 "신흥도시"의 건설에 전력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흥도시"로 그들은 소위 "대동아질서"를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동북에 대한 통치를 가강하기 위하여 일본은 동북에 위만주국 경찰을설치한다. 위만주국 경찰은 위만주국의 민정부 설치하 경찰사무를 통괄하는 중추기구인 경무사의 관할하에 있으며 동북의 인민들에 대한 통치와 정찰, 체포, 반일분자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립된 기구이다. 관동 헌병대와 위만주국 경찰은 동북지구의 주요한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만주"괴뢰정권에 관한 형상중 일본군경이나 "만주"경찰에 관한 묘사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주로 강경애의 작품에 많이 나타난다. 위만주국 이후 조선인들의 "만주"이주는 일본의 통제와 심사아래 진행되였다. 하여 이 시기 국경지대의 수사가 더 각별히 엄했으며 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행인들에 대한 단속도 엄격했다. 이 시기 작품들을 보면 국경이나 려행객들의 통관검사는 주로 군경들이 하고 도시나 농촌내 치안은 위만주국 경찰들이 나서서 하고 그외에 집단부락마다 자위단이 있어 부락의 "안전"을 책임진다.

> 승객이 天圖車로 옴겨타기전에 그들은 수하물을 일일이 조사한다. 역시 내에게도 려와서는 유달리 벌컥 뒤집어본다. 만일 資本論 가튼것을 가지고 잇다가는 큰 일이다. 이 사정을 도중에서 미리부터 드럿든 나는 집에서 가지고 오든 웬만한 서적을 會寧서 도루 집으로 부쳐버린 것을 이 자리에서는 다시 업는 요행으로 생각하엿다. 軍警은 다음 청년에게로 가서 힐란을 부리고 잇다.
>
> 나는 겻헤안진 사람에게 "언제나 이갓치 경게가 심하냐?" 물은즉 "五卅暴動後 中國人과 朝鮮人을 막론하고 더욱 청년에 대하여는 저 모양으로 엄밀히 조사한다"고 하엿다.
>
> -강경애, 《간도풍경》 중

강경애의 《간도풍경》은 비판의식이 아주 강한 글이다. 그가 본 첫번째 풍경은 려객의 짐을 샅샅이 뒤지는 이곳의 풍경이라 하겠다. 어찌 되였던 군경이란, 그것도 침략자 신분의 군경이란 백성들에겐 두렵고 조심해야 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강경애는 갖고 오던 서적들을 회령에서 다시 고향에 부친걸 요행이라 하며 수사에 대한 조심성을 표했다.

개털모자에 총을 메고 도시 골목골목에서 파수보는 중국의 순경들은 강경애가 간도에서 본 두번째 풍경이다. 강경애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지만 강경애가 본 중국경찰은 일반적으로 무능하다. 그의 원문 묘사대로 한다면 "얼빠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비판은 권력자라면 권력자답지 못하고 착취를 받는 약자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중국경찰의

어중간한 신분과 자세에 대한것이다. 중국경찰들은 중국황제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것처럼 령혼을 잃은 기계, 아니면 그것도 못되였다.

2.2 위만주국의 경제정책

경제방면에서 위만주국의 경제의 실질은 일본경제의 부용품으로 일본은 동북에서의 경제략탈을 통해 자국의 경제위기를 완화하려 하였고 동시에 중국침략전쟁의 후방공급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일본은 동북을 점령한후 위만주국의 중공업화를 다그치면서 동시에 동북의 경공업과 민족기업을 타격한다. 그들은 일련의 민족기업을 저애하는 정책을 실시한후 일본의 상품을 대량으로 동북에 수출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정책에 당시 동북은 련속 경제적자를 초래하는데 일본은 자국의 경제침체때문에 남아도는 자금을 다시 돌려서 동북의 경제에 주입한다. 이러한 과정에 일본은 신속히 자국의 경제를 복구시켜 1932년 중기부터 경제회복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제복구속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것이였다.[3]

일본의 동북에서 경제개발중 제일 잔폭한 행위는 탄광, 철광에 대한 무절제의 채굴이였는데 그중 전형적사례가 무순탄광에 대한 파괴성적인 “인육채굴”이였다. 1937년 전면 침화전쟁이 폭발한후 채굴이 더욱 기승스러워져 탄광로동자의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속력을 가했는데 가스폭발 등 사고들이 련이어 발생했고 사망자수도 급속히 늘어났다.[4]

위만주국시기 많은 로동력이 철도, 도로 그리고 탄광 등 분야에 투입되였는데 그 다수가 중국인, 조선인 로동자들이였다. 상세한 묘사를 주지는 않았지만 신영우의 《만주기행》에 출현하는 무순 탄광 로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5만여명이 지하에서 묵묵히 하루 10시간이상의 로동을 강행하는데 당시의 악렬한 환경과 로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볼수 있을것이다.

> 그리고 무순 와서 제일 눈에 띄는것은 시가지의 사치한것입니다. 전부 구미식 문화주택으로 고대(高臺)를 골라서 2층 혹은 3층으로 화려한 주택을 짓고 수도(水道) 와사(瓦斯)는 말할것 없고 원유지, 아동유희장 등 설비를 갖추었으며 심지어 사택 전반에 철조망을 둘러쌓고 전기스위치를 한번만 틀면 무엇이든지 범하지 않게 되였다 합니다. 5만의 노동자가 지하에서 묵묵히 혈한을 다하여 수십척 지하에서 1일 10여시간씩 보고(寶庫)를 캐여내는 반면과 그 대가로 일부 ×× 사원이 이와 같이 호화롭게 흥청거리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
> -신영우,《만주기행》중

[3] 东北沦陷十四年史总编室、日本殖民地文化研究会编,《伪满洲国的真相——中日学者共同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0年1月,第108-109页

[4] 东北沦陷十四年史总编室、日本殖民地文化研究会编,《伪满洲国的真相——中日学者共同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0年1月,第121页

"만주"라는 지역은 위만주국 이전이나 혹은 위주국정권이 들어선때나 조선인들에게 수많은 가능성의 장을 마련했으며 또 수많은 슬픔과 리별의 장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슴배였고 늘 죽음과 달리기를 해야 했던 전투장이였다. 다만 함대훈이 조선인 묘지를 배회중 보았던 "평화가 내 사랑하는 남편 가슴속에 영원히 깃드리라"[5]는 비문처럼 평화에 대한 념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슴속 깊이 울리는 동경이다.

2.3 위만주국의 문화교육정책

세번째는 문화교육방면이다. 일본은 동북에서 노예화 교육을 실행하고 교육에 있어서 "왕도주의"를 관수했으며 국책선양의 교육방침을 실시했다.그들은 동북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야마도정신으로 동북인민을 귀화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부합되는 순량한 인간들을 만들려 하였다. 위만주국이후 "만주"에서 노예화교육과 우민교육은 고도에 이르렀는바 파쇼주의적인 "왕도주의"를 관철시켜 일본의 신화와 신도(神道)로 그리고 일본천황의 "지사인인(志士仁人)"의 이야기로 청소년들의 심령을 부식시키려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유가사상의 찌꺼기와 파쇼의 황도주의를 함께 엮어서 식민지의 "국민문화"로 조작하려 하였고 그것을 식민지 통치정책의 복무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6] 중국 작가 고정(古丁)은 《대작가수화(大作家随话)》에서 "우리가 사원(辞源)을 사서 보는것마저 죄가 된단다. 우리의 책상머리에는 사서오경밖에 남지 않았다"[7]고 하면서 당시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암울한 문화환경을 고발하였다.

일본의 황민화 교육정책으로 제일 대표적인것이 교과서 개편이라 하겠다. 일본은 교과서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교과서에는 반드시 "건국정신"을 관철하고 "일만불가분(日满不可分)" 및 "충군애국(忠君爱国)"의 사상을 고취할것을 요구하였다.[8] 위만죽구의 성립을 선포하면서 그날로부터 "만주국"경내에서 중국지도를 걸고 "중화" 두글자를 쓰고 중국 교과서를 사용하는것은 엄연히 금지되였다. 교과서에 조금만 민족주의나 민주주의 의식이 암시되여 있어도 배일교재로 처리되여 몰수당하지 않으면 태워버린다고 한다.

1937년에 이르러 식민화교육은 더욱 가심화되였는데 새학제의 실시를 반포하여 학제를 축소하고 중학교 교육수준을 낮추는것으로 식민지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일본어를 국어로 간주하여 매일 학습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전문 위만주국의 관리양성을 위해서 세운 위만주국 대동학원과 건국대학의 학제는 일반 대학교의 2배로 늘여놓았다. 대동학원과 건국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일본인였고 중국인은 직업학교에 입학시켜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직업양성을 시켰다. 전반 교육에서 "왕도주의", "황도주의"와 "신도주의"는 시종일관하게 식민지 교육방침으로 투입되여 있었다. 조선인에 대한 문

[5]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 중
[6] 齐福霖:《伪满洲国史话》,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1年12月，第124－125页。
[7] 古丁,《大作家随话》, 原载《明明》第一卷第五期，1937年7月，收录于《东北现代文学大系（1919-1945）》第九集－散文卷（上），第274-278页，截取至第276页
[8] 齐福霖:《伪满洲国史话》,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1年12月，第124页。

화교육통치 역시 조선반도부터 시작되여 점차 “만주”의 조선인 학교에까지 만연하게 된다. 1939년 3월에 조선총독부는 새 교육령을 반포하여 조선어를 필수과에서 선택과로 수정하던데로부터 조선어과목을 완전히 취소하고 일본어통용을 실시함에 따라 교과서와 수강은 전부 일본어를 사용하게 된다. 위만주국의 조선인 학교도 그 뒤를 이어 1941년 1월에 조선인 중학교 교과서는 반드시 일본 혹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식민지하 노예교육은 민족을 말살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비륜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신과 문화의 침략이였다.

3. 재중조선인산문에 나타난 조선인교육의 현장

3.1 해방전 조선인 이주사회의 문화중심——룡정

해방전의 조선민족 이주사에서 룡정은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그곳은조선민족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첫 정착터였으며 그 당시의 문화중심이였다. 일례로 안수길 필하의 룡정을 본다면 조선과 다를 곳이 없는 조선인들이 자신의 두손으로 개척해낸 일촌(一寸)의 향토이다. 조선인을 론하자면 간도를 론하지 않을수 없고, 간도를 론하자면 룡정을 론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룡정과 조선인은 긴밀히 련결된것이다. 이것은 리해가 어렵지 않다. 조선인 이주자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룡정땅이였고 지금까지도 룡드레우물과 일송정같은 그 유적을 찾아볼수 있다. 룡정 또한 조선족 근대 교육의 상징이자 중심지이다. 룡정의 력사는 교육의 력사이고 교육의 력사이자 곧 룡정의 력사이다. 룡정은 평화로운 공간이며 반목이 없는 인간과 인간사이 화합 그리고 민족대화합을 실현하는 리상적인 공간인것이다. 이상의 묘사는 안수길의 《신흥만주인문풍토기-룡정편》9의 전체적 표현이다.

> 敎育과 龍井==龍井의 歷史는 敎育의 歷史이기도 하다.
>
> 間島의 移住同胞의 자제들뿐만아니라 學費의 低廉과 朝鮮內入學難의 餘波로서 北鮮은 勿論 멀리 南鮮맨끗테서가지 學生들이 모여들엇섯고 露領地方에서도 만흔 學生들이 笈을 負하고 넘어왓엇다.
>
> ……
>
> 이를 다른 角度로 살핀다면 日鮮滿의 三民族이 雜居下에 中小商工業을 營爲하여 나아가면서 或時는 反目하는 境遇도 잇섯겟고 或은 相互 援助하는 境遇도 잇서 이러케 서로 三十餘年의 歲月을 經過하는 사이에 生活의 根據를 잡고 最近에 이르러는 民族協和의 大理想의 具現에 邁進하고잇는 곳이다.
>
> 그럼으로 龍井의 特色은 “人의 和”에 잇다.
>
> -안수길,《신흥만주인문풍토기-룡정편》중

[9] 안수길(安寿吉),《신흥만주인문풍토기-룡정편》,《만선일보》, 1940년 10월 6～13일.

여기서 안수길은 룡정의 교육과 력사를 찬미하는 동시에 일본, 중국, 조선 등 세개국 민족의 화합을 함께 론하여 룡정의 현황을 국책의 틀에 맞추려는 식민주의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비판의식이 결여된 단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적의 《룡정의 첫인상》에서 묘사된 룡정의 정경과 상황은 완연 다르다. 2만 인구에 106집 카페, 이러한 통계수자에 작가는 한심을 느끼며 실망한다. 그의 말대로 이곳은 "신의 세계와 악마의 세계가 병존하는 곳"이다. 혹은 "악마의 세계가 개선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곳"이다.

> 이곳은 神의 世界와 惡鬼의 世界가 서로 만나서 다투며 展開되고있다. 아니 惡魔의 世界가 凱旋歌를 부르며 行進하고있다. … 文化都市라 하나 科學硏究의 機關이 하나 있나? 圖書館이 하나 있나? 冊家래야 昨秋에는 文房具, 敎科書를 取扱하는 조고마한 헌 冊房이 하나 있을뿐이었다. 一年이 다 지나가도 學術講演 하나 없었다. 文化都市? 모면뽀이, 모면갬이 있고 라디오와 카-페-가 있으니까!?
>
> ……
>
> 그렇나 이곳에도 眞理를 探究하려는 情熱과 바른길이라면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水火를 가리지 않고 突進하려는 意氣과 勇氣와 精力에 넘치는 學生靑年이 있다.
>
> 우리는 모든 것에 落望을 하여도 그들에게 한줄기 希望을 부처 살수 잇다. 그들이야말로 未來의 龍井의, 아니 世界의 主人公이 아닌가?
>
> -고적, 《룡정의 첫인상》 중

"만주국"의 표상과 그 실질이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안수길이 묘사한 룡정이 "만주국"의 표상이라면 고적이 묘사한 룡정이 바로 그 실질인것이다. 식민자들은 바로 이러한 수단으로 그들의 비열한 본성을 감추고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려 한다. 다행스러운것은 《룡정의 첫인상》의 결말에서 말한것처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직 투지를 버리지 않았으니 그들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으로 성장할것이라는 신념은 대개 누구에게나 있었던것이다.

3.2 민족교육의 추친과 일제의 황민화교육

해방전 조선이주민들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는 사실 두가지였다고 할수 있다. 하나는 정착의 문제에 있어서 봉착한 수전농사의 어려움, 그리고 둘째 관심사는 후대의 교육문제였다. 이것은 안수길의 소설 《벼》에서도 잘 드러나있을뿐만 아니라 이시기 산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유감스러운것은 식민지체대하에 있다나니 일제의 황민화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면할수 없었다는 점이다.

> 재만 조선인의 교육 문제는 "만주" 건국이후도 아직 "만주" 국내로 이관되지 않아

획일적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현재 초등교육은 대사관 직영의 보통 학교와 민간 사립보통학교가 있다 하며 입학률은 굉장히 높다 한다. 여기서도 조선인의 교육열이 높은 것을 보고 조선인의 향학열에 대한 감격속에 나도 아는듯 모르는듯 감격이 되었다.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중

애초엔 이민 부락들이 연합해가지고 설립 유지한것인데 이젠 "만주국"서 인수해가지고 그들의 방침에서 경영되는것이니까 불원(不遠)하여 교과서나 교원에 변동이 생길것이라 한다.

-리태준, 《만주기행》[10]중

일제의 "왕도주의"통치는 사실 "만주"의 교육문제에서 제일 잘 드러난다고 할수 있다. 우의 함대훈이나 리태준의 기행문에서 알수 있듯이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위만주국초기에는 위정부의 관할이 아닌 령사관소속이나 민간소속으로 되였었다. 그러니 재만 조선인의 민간학교에 있어어 적어도 1941년 이전에는 우리말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것은 위만주국이 성립되는 동시에 중국인 학교의 교과서를 강제적으로 바꾸고 검열하는 것과 비기면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필경은 일제 통치하의 학교인만큼 재만조선인학교라 해서 황민화교육의 추악한 손길은 피해가지 못했다.

그리고 延吉은 女子敎育에 잇서 어느 곳보다 便利한 곳이다. 朝鮮人生徒를 收容하는 學校로서는 基督敎監理敎會에서 經營하는 幼稚園이 잇고 初等敎育機關으로는 大和, 海星, 明倫 三校가 잇는데 그中 모든 設備가 第一 充分한 學校로서는 大和國民優級學校이니 이 學校는 咸鏡北道에서 經營하던 局子街普通學校로서 治外法權撤廢 當時에 滿洲國에 移管되엿고 海星國民優級學校는 天主敎의 經營이고 明倫學校는 間島儒林聯合會에서 經營하다가 四月 一日에 公立으로 昇級되여 延吉縣에 移管된것이다. 그리고 中等程度의 學校로서는 間島省立, 延吉國民高等學校, 성립연길사도학교, 성립연길공과학교, 성립연길여자국민고등학교, 延吉女子高等學校 等 五校가 잇서 모다 內容이 充實하야 全滿 各地는 勿論이고 朝鮮內의 學生까지 受容하고잇서 女子들의 敎育에 잇서서는 第一 便利한 곳이다. 以上 各 中等學校에서는 日滿學生이 共學하는데 學校에서부터 民族協和를 具現식히고잇는 것이 어느 便으로 보든지 조흔 일이고 서로 人情과 風俗을 잘 알게 되는것이 가장 意義잇는 일이라고 보겟다.

－최무,《신흥만주인문풍토기-연길편》[11]중

작가는 연길의 여자교육시설에 대한 편리와 우점을 자랑하며 이곳에서 일만 학생들이 공통으로 학습하고 "민족협화"를 구현하고 있으니 인정과 풍속을 서로 잘 익히는게는

[10] 리태준(李泰俊), 《만주기행(滿洲紀行)》, 《무서록(無序錄)》, 1940년
[11] 최무(崔武), 《신흥만주인문풍토기-연길편》, 《만선일보》, 1940년 10월 14～23일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작가의 이 말은 그것이 문자검열에 보여주기 위한것이든 아니면 작가의 진솔한 느낌이든 막론하고 적어도 당시의 재만조선인교육 역시 “왕도주의”와 “협화정신”의 고취하에 진행되였음을 알려준다.

교육기관을 조선의 큰 도시도 따를수 없을만치 다수인데 놀랐다. 전문 이상 학교는 없으나 중학교나 소학교는 건물에 있어 손색이 없고 내용에 있어 충실하다. 조선인 학생만 2천여명 수용하는 소학교가 있으니 가히 그 굉대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인것은 조선 학제(朝鮮學制)를 따르지 않는것이다. 위에서도 말했거니와 룡정은 모든 점으로 보아 조선이다. 그 생활양식이나 그 문화의 정도로나 조선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국”(滿洲國)이란 점으로 조선인 학생도 “만주국” 학제를 따르게 된 것이다. 물론 “만주국” 학제라도 그것이 우리의 문화정도와 같을진대 우리는 쾌히 이것을 맞을것이요, 결코 불평불만이 있을 까닭이 없다. 교육의 근본정신의 하나가 국민의 문화 향상을 의미하는것이라면 룡정의 조선인 교육은 정(正)히 이에 대조되는 교육이다. 교육에 다소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만히 여길것은 물론, 일생을 교육에 바친 사람으로는 통탄해마지않을것이다. 더욱이 반세기 동안 자기 자신은 물론 후세의 어린 세대를 위해서 멀리 이국(國)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일생을 바친 그 위대한 개척자들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간과할 문제가 아닐것이다.

－안용순,《북만순려기》중

안용순의 《북만순려기》중 한대목인데 재만조선인학교 교육에서 학제 문제와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가 없다는 두가지 사실을 교대하고 있다. 《만선일보》에 1940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련재된 이 작품으로 보아 1941년 조선총독부가 교과서 사용에 대한 금령이 내리기전 재만조선인 학교의 학제는 이미 “만주”의 기타 학교와 같은 체제로 되여있었고 학교교육의 수준을 하강시키면서 전문학교이상의 교육시설이 “만주”에 확실히 없었던것도 사실이다. 윤동주가 연세전문을 거쳐 일본 유학을 한것도 바로 학제원인과 “만주”에 대학이 없었기때문이다.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비록 식민지라는 체제하에 황민화교육의 기치를 들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이국에서라도 어린세대의 교육문제를 중요시하여 민족의 교육사업에 전신을 바쳐 심혈을 기울인 이들도 마땅히 기억에 남아야 할것이다.

이곳 민회장으로 최근 선임된 장우근(張宇根)씨는 금년 륙순에 달한 호로(好老)로 일찌기 한국말(韓國末) 시대에 신문(新聞)과장으로 있다가 그후 북, 중 중국을 편유하고 15년전에 철령에 와서 우거하며 재만 조선아동의 교육사업에 발분하여 철도 연선에 처음으로 이곳에 육영학교를 창립하여 그후 보통학교로 인허를 받기까지 하고 다음 봉천에 나아가 역시 학교를 설립하여 보통학교로 승격시킨후 영구(營口), 합이빈, 장춘 등 보통학교가 거의다 장씨의 주선과 노력이 없는 곳은 한곳이 없고 심지어 내몽고 백음태라(白音

太羅)까지 쫓아가서 조선인의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흡사 “만주” 보통학교는 이 장씨가 혼자 청부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일개 로서생(老書生)으로 있으나 “만주”에서 완전한 조선인의 중등학교의 설립을 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보이며 의기가 앙앙합니다. 하여간 그 지위가 어떠하든지 이와 같이 동분서주하여 15, 16년간 육영사업에 뜻을 품고 이 황야에서 헤매는 부랑의 조선아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만 하여도 크게 감사할바라 할것이외다.

－신영우,《만주기행》중

일본은 황민화 교육정책의 실시와 아울러 언론통제를 통하여 조선인의 사상여론까지 통제하려 하였다. 일제가 조선과 “만주”를 점령한후 모든 기관지와 신문에 발표되는 글은 물론 일제의 문자검열을 받아야 했거니와 정기적으로 문단공모 등을 통하여 작가들에게 국책협력적인 글을 쓸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1940년 8월에는 드디여 조선총독부를 명하여《동아일보》와《조선일보》을 폐간시키고 조선인들의 일본어 창작을 강요한다. 그때로부터 광복까지 “만주”의 《만선일보》는 조선어 유일한 발표지가 되였다.

요컨대 위만주국시기 조선인작가들의 작품에는 근대적 공간의식을 동반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의 “만주”인식이란 곧 근대인식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럼 일제통치하의 “만주”라면 론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일본식민주의 핵심인 “왕도주의”이다. 일본은 “왕도”로 “만주”를 다스린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교육, 문화 등 면에서 그들의 소위 “왕도주의”을 고수했으며 “만주”를 “왕도락토”의 새로운 국가라고 칭했다.

“왕도락토”라는 성구의 사전적해석을 보면 “인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정으로 백성을 보다듬것이 올바른 왕도이고,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 있는곳이야 말로 락토이다.”[12]라고 한다. 이것은 중국 전통문화중 리상사회에 대한 바램과 추구이다. 하여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왜곡하여 저들의 식민지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였고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려는 식민지통치수단에 불과했다.

4. 결론

총적으로 본고는 위만죽구시기 재중조선인산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시기 일제가 중국동북에서 실시한 일련의 식민통치와 그 영향, 특히는 그러한 식민체제가 문학작품속에서의 반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중에서도 조선인의 교육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분석을 하였다. 교육에 연구의 력점을 둔것은 다름아닌 지금도 교육지향(教育之乡)이라고 널리 알려진 연변이 과연 언제부터 민족의 교육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냐 하는 문제를 신력사주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기 위함이고 또한 그러한 력사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민족의 매사에 영향을 주고있는것이라는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례하

[12] 以仁义治天下，以德政安抚臣民，是为王道；自由、快乐、幸福的地方，是为乐土。

면 현재 조선족사회의 인구감소와 분산적거주로 말미암아 동북의 조선족학교들이 큰 난관을 당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중국 관내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은 그 지방에서 자체로 “정음교실”과 같은 민족언어와 문화를 보급하는 학당을 창설하는것과 같은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민족교육의 정통은 방식이 변했을뿐 현재도 영위되여감을 말해준다. 물론 이부분의 론의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미처 전개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1]解学诗著，《伪满洲国史》，人民出版社，2008年

[2]齐福霖著，《伪满洲国史话》，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1年

[3]张京媛,《新历史主义与文学批评》,北京大学出版社,1997年

[4]王岳川,《后殖民主义与新历史主义》,山东教育出版社,2005年

[5]金虎雄著，《来华朝鲜人离散文学研究》，延边大学出版社，2012年

[6]李海英、金在涌主编，《韩国文学的跨语际符码——‘满洲’》，上海交通大学出版社，2014年

[7]孙春日著，《中国朝鲜族移民史》，中华书局，2009年

[8]朴昌昱著，《中国朝鲜族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1996年

[9]东北沦陷十四年史总编室、日本殖民地文化研究会编，《伪满洲国的真相——中日学者共同研究》，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0年

[10]李娜著，《满铁对中国东北的文化侵略》，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5年

[11]宫脇淳子著、郭婷玉译，《这才是真实的满洲史》，八旗文化出版，2016年

[12]刚田英寸著、靳丛林译，《伪满洲国文学》，吉林大学出版社，2001年

[13]张毓茂主编，《东北现代文学大系（1919-1949）第九集－散文卷（上）》，沈阳出版社，1996年12月（p1~618）

[14]张毓茂主编，《东北现代文学大系（1919-1949）第十集－散文卷（下）》，沈阳出版社，1996年12月（p619~1291）

범천(範泉)과 조선근대문학

申先玉

(山东女子学院)

<차례>

1. 서론
2. 조선문학비평과 번역
3.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
4. 결론

[摘要] 范泉（1916~2000）被称之为杰出的编辑出版家、作家、翻译家，因此学界也围绕着范泉的这些身份，着重研究了范泉主编的文艺期刊与编著，肯定了范泉在编辑出版业做出的贡献。虽然范泉翻译了朝鲜作家张赫宙的作品，但学界却没有关注范泉的朝鲜文学批评与他对朝鲜文学的认识。因此，本论文以 《论朝鲜作家》和《朝鲜的戏剧运动》 以及《朝鲜风景（朝鲜春）》为研究对象，考察了范泉的朝鲜文学批评与翻译活动，探究了范泉的朝鲜文学认识。得出了以下两方面的结论。第一，在翻译张赫宙的朝鲜文学评论时，范泉关注的是张赫宙对世界文学的认识，因此范泉的朝鲜文学批评翻译不像同时代的其他翻译者一样停留在只介绍朝鲜近代文学的发展现状，而是让读者了解在世界文学的发展中朝鲜文学所占据的地位与意义以及朝鲜文学的发展前景。第二，民国时期的中国学者依然以中国文化优越主义思想来评价朝鲜文学的时候，范泉反而谈论中国文化的形式主义导致了朝鲜近代文学停滞不前的现状。这不仅是范泉对朝鲜文学的客观认识，而且也是范泉对中国文化的客观评价，他的此种学术态度对目前中韩文学与文化交流具有借鉴意义。

【关键词】 范泉,张赫宙，《论朝鲜作家》，《朝鲜的戏剧运动》，朝鲜文学批评，朝鲜文学认识，形式主义，大陆气质

1. 서론

범천(1916~2000)은 중국학계에서 걸출한 편집출판가, 작가, 번역가로 평가받아 온 것만큼 그에 대한 연구도 이런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천에 대한 연구는 1983년 <문예춘추총간(文藝春秋叢刊)>의 발행시기와 내용 및 범천에 대한 평가[1]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부분 범천

[1] 沈康（1983),「範泉與文藝春秋叢刊」, <社會科學>, 上海社會科學院, p.64.

이 주필을 맡았던 문예지와 저서에 대한 연구, 편집가로서의 범천의 삶을 조명한 연구, 범천의 대만문학과 대만 인식 연구, 범천의 문학적 위상을 조명한 연구 등이다. 범천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흠홍(欽鴻)인데 그는 범천의 생애로부터 범천의 연구저서, 문예리론, 문학창작과 번역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문학창작 편 2권, 문예리론 편 1권, 문학번역 편 1권 총 4권으로 이루어진 『범천문집』을 편찬해냈다. 그중 조선문학과 관련된 범천의 연구 성과는 문학번역 편과 문학창작 편에 수록되어 있다. 범천이 번역한 장혁주의 수필집『조선풍경』과「흑백기」는 문학번역 편인『범천문집』제4권에, 1946년 <신문학(新文學)> 제1권 제2기에 범천이 발표했던 「조선작가론(論朝鮮作家)」은 제목을 「기조선작가(記朝鮮作家)」로 수정되어 문학창작 편인 『범천문집』 제1권에 수록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범천이 1945년 <문예춘추(文藝春秋(上海1944)> 第4期에 발표한 평론「조선의 희극 운동(朝鮮的戲劇運動)」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범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범천의 조선문학과 관련된 성과를 간과하고 있다. 비록 장혁주의 작품을 중역한 학자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조선문학에 대한 범천의 평론과 인식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조선작가론(論朝鮮作家)」과「조선의 희극 운동(朝鮮的戲劇運動)」및『조선풍경』을 중심으로 하여 범천의 조선문학비평과 번역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문학에 대한 범천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범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수 있으며 나아가 1940년대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수용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중조(한) 문학 교류에 있어서는 참고적 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선문학비평과 번역

1930~40년대 중국의 주요 문예지를 살펴본다면 중역되어 발표된 조선문학비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朝鮮新文藝運動小史」,（朝鮮）鄭學哲作 俞遙译，<現代(上海1932)>第3卷 第5期，1933年，pp.688~694

「朝鮮文學近狀」,（朝鮮）張赫宙作 馬士译，<客觀> 第1卷 第7期，1935年， p.14

「朝鮮文壇上的作家」,（朝鮮）張赫宙作 王林译，<燕然>第1卷 第10期，1936年， pp.10~12

「朝鮮文壇的作家和作品」,（朝鮮）張赫宙作 蔣俊儒译，<文海>第1卷 第1期，1936年，pp.59~61

「朝鮮文藝近態」,（朝鮮）張赫宙作 張鏡秋译，<文藝季刊>第1卷 第4期，1939年， pp.21~22

「朝鮮文學界」,（朝鮮）張赫宙作 紅筆译，<華文大阪每日>第4卷 第8期，1940年， p.84

「現代朝鮮文學論」,（朝鮮）李台雨作 共鳴译，<藝文志(新京)>第3期，1940年， pp.340~348

「我們的文學的實體與方向」,（朝鮮）張赫宙作 <華文大阪每日>第6卷 第4期，1941年， pp.10~11

학계에서 이미 밝혔듯이 장혁주의 중역된 작품은 해방전 중국에서의 조선근대문학 수

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우에서 렬거한 평론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역된 조선문학비평은 장혁주의 평론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지적해야 할 점은 「조선문학근황(朝鮮文學近狀)」과 「조선문예근황(朝鮮文藝近態)」은 같은 내용이고 「조선문단의 작가(朝鮮文壇上的作家)」와 「조선문단의 작가와 작품(朝鮮文壇的作家和作品)」이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다. 장혁주의 한 편의 문학비평을 여러 번역자가 번역했다는 것은 1930~40년대에 중국 학자들이 조선근대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장혁주를 주목했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범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과거 중국에 소개된 조선문예는 모두 일본어로 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 문학자는 과거 일본어로 창작을 하였고 일본에서 발행했다. 규모가 비교적 큰 문예잡지도 모두 일본어가 주요 언어였다. 그리하여 조선 작가하면 일본어로 창작한 작가와 조선어로 창작했다하더라도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의 작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장혁주 씨, 김사량 씨, 리광수 씨, 리효석 씨, 유진오 씨, 리태준 씨 등등이다.[2]

1930년대에 장혁주의 문학작품은 호풍(胡風)이나 엽군건(叶君健) 등에 의하여 중역되어 중국 독자들에게 익히 알려졌었다. 범천 또한 장혁주의 수필집 『조선풍경』을 번역하여 1943년 1월 26일에 『조선춘(朝鮮春)』이란 제목으로 상해문성출판사(上海文星出版社)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범천의 「전기(前記)」가 수록되어 있고 중역된 장혁주의 「조선문학계의 현황(朝鮮文學界的現狀)」, 「조선문단의 대표 작가(朝鮮文壇的代表作家)」, 「오늘날의 조선문학(今日的朝鮮文學)」, 「래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 4편의 문학평론과 「조선의 춘(朝鮮的春)」, 「아름다운 조선(美麗的朝鮮)」 등을 비롯한 수필 17편이 수록되어 있다.[3]

범천이 1940년대에 번역한 장혁주의 문학비평 4편은 우에서 렬거한 장혁주의 문학비평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단과 문학사조 및 대표적 작가와 대표적 작품에 대한 소개이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여주는데, 우에서 렬거한 중역된 문학비평이 조선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범천은 세계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에 주목하여 번역했다. 이는 범천 자신이 세계문학을 연구하고 문학작품을 번역한 신분과 관련이 있으며, 비교 속에서 문학비평의 객관성을 찾고자 했던 범천의 학술적 자세를 반영하기도 한다.

범천은 다른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근대문학의 발전 상황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은 사실이다. 우에 제시된 1940년에 홍필(紅筆)이 번역하여 발표한 장혁주의 「조선문학계(朝鮮文學界)」와 1943년에 범천이 번역하여 발표한 장혁주의 「조선문학계의 현황(朝

---

[2] 範泉(1946),「論朝鮮作家」,<新文學> 第1卷 제2期, p.96.(본고에서 인용하는 중국어 원문은 모두 필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다음부터 인용하는 중국어 원문에는 번역자 각주를 달지 않을 것이다.)
[3]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4卷, 上海書店出版社, pp.134~221.

鮮文學界的現狀)」은 같은 내용으로서, 장혁주가 강조한 조선의 신문학이 이식문학이라는 점을 전달한 동시에, 조선 1920년대 랑만주의 문학의 과잉된 감정에 대한 장혁주의 비판과 조선문단의 발전에 대한 장혁주의 긍정적인 시선을 강조하면서, 조선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과 조선문학의 발전 상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조선문학비평 번역에 있어서 범천이 보다 주목했던 점은 조선문학이 세계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었기에 장혁주의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그의 문학비평을 번역하였던 것이다. 범천이 번역한 「오늘날의 조선문학(今日的朝鮮文學)」, 「래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은 세계문학과의 비교 속에서 조선문학을 인식하고 있는 장혁주의 문학비평이다. 「오늘날의 조선문학(今日的朝鮮文學)」에서 장혁주는 세계문학과의 비교 속에서 조선문학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아일랜드문학과의 비교 속에서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성을 비판하고 조선문학이 러시아문학과 비슷하지만 좀더 명랑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다음, 중국문학과의 비교 속에서 조선고전문학과 중국고전문학의 류사성을 서술하면서 조선근대문학에는 아직 로신(魯迅)의 아 Q 같은 전형적인 인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문학은 표현 방식과 구성 및 인물 형상 등 면에서 섬세하고 정교한 일본문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논하면서도 조선과 일본의 문학사조는 일치하다고 설명하였다.[4] 「래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에서도 장혁주는 조선문학의 특징과 민족성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조선문학과 일본문학, 중국문학, 러시아문학의 류사성을 서술하면서 문화적 차원에서 조선문학의 예술성을 논하였는데, 조선문학의 대륙성은 조선민족의 성격적 특징에서 유래된 것이고 문화적 수준이 낮은 조선에서는 소위 “예술”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5]

범천은 세계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이러한 인식에 주목하여 비교 속에서 조선문학의 독자성을 찾고자 했던 장혁주의 의도 즉 "일본어로 창작을 한다면 조선문학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6] “장래의 조선문학은 필연코 조선의 민족적 특징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문학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7] 라는 조선문학 발전에 대한 장혁주의 긍정적인 인식을 잘 전달하였던 것이다.

조선문학비평 번역에 있어서 범천은 다른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비판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을 동시에 강조하였지만 주목했던 점은 세계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이었다. 그러기에 범천이 번역한 장혁주의 조선문학비평은 다른 번역자들처럼 장혁주를 통하여 조선의 문단과 근대문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세계문학의 발전 속에서 조선문학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 발전 전망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런 자세는 장혁주에 대한 범천의 객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4]장혁주,「오늘날의 조선문학(今日的朝鮮文學)」, 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4卷, 上海書店出版社, pp.216~218.
[5]장혁주,「래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 欽鴻 編(2015), 위의 책, pp.219~220.
[6]장혁주,「오늘날의 조선문학(今日的朝鮮文學)」, 欽鴻 編(2015), 위의 책, p.218.
[7]장혁주,「래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 欽鴻 編(2015), 위의 책, p.221.

되었으며 범천이 조선문학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조선문학에 대한 인식

1930~40년대에 중국학자들이 조선의 문단과 문학사조 및 문예지 창간 등에 주목하여 조선의 소설가와 시인 및 평론가를 소개하는 데[8] 반해 범천은 중국에서의 조선문학 수용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하여 탐구하고 조선의 희극에 주목하여 희극의 발전을 서술하였다. 또한 앞장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세계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에 주목하여 조선문학비평을 번역하였다. 이런 점은 세계문학에 대한 범천의 연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범천은 영국문학, 프랑스문학, 독일문학, 러시아문학, 벨기에문학, 덴마크와 노르웨이문학, 스웨덴과 필란드문학, 이탈리아문학, 스페인문학 등 세계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여 『유럽근대문학사강화(歐洲近代文學史講話)』[9] 라는 저서를 1943년 10월에 상해세계서국(上海世界書局)에서 출판해냈다. 또한 서양의 근대문학사조를 연구한 저서인 『서양근대문예사조강화(西洋近代文藝思潮講話)』[10]를 같은 해 11월에 상해세계서국(上海世界書局)에서 출판해냈다. 이 두 저서는 서양문학에 대한 범천의 체계적인 연구 저서이다. 이외에 1946년 3월에 상해영상인서관(上海永祥印書館)에서 『문학원류(文學源流)』[11] 라는 저서를 출판해냈다. 이 저서는 이집트문학, 바빌론문학, 시리아문학, 페르시아문학, 아랍문학 등 동양고전문학의 력사와 특징 및 류파에 관한 연구 저서인데 범천은 이 저서에서 중국 민국시기 학계에서 간과하고 있던 동양고전문학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범천은 아시아의 희극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발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안개 속의 희극계: “청관외사” 등 네 편의 희극에 대한 술평(霧中的戲劇季:“淸官外史”等四劇目述評)」[12] , 「일본문단 근사록(日本文壇近事錄)」[13] ,「조선의 희극 운동(朝鮮的戲劇運動)」[14], 「인도극의 기원 및 그 발전(印度劇的起源及其發達)」[15], 「대만희극소기(臺灣戲劇小記)」[16] 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범천의 조선문학비평은 그의 학술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세계문학에 대한 범천의 연구에 체계성을 더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40년대에 중국학자들의 조선문학비평이 중국의 여러 간행물에 게재되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조선문학을 바라본 범천의 시선이 중국학자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8] 민국시기(1912~1949) 중국학자들의 조선문학비평과 관련된 연구는 필자의 「민국시기 조선문학비평 양상」이란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기에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9] 이 저서는 (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3卷, 上海書店出版社, pp.139~288)에 수록되어 있다.
[10] 이 저서는 (欽鴻 編(2015), 위의 책, pp.289~439)에 수록되어 있다.
[11] 이 저서는 (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3卷, 上海書店出版社,, pp.495~535)에 수록되어 있다.
[12] 範泉(1944), 「霧中的戲劇季:“淸官外史”等四劇目述評」, <萬象> 第3卷 第9期, pp.40~45.
[13] 範泉(1948), 「日本文壇近事錄」, <文藝春秋(上海1944)> 第7卷 第6期, pp.65~67.
[14] 範泉(1945), 「朝鮮的戲劇運動」, <文藝春秋(上海1944)> 第4期, pp.11~14.
[15] 範泉(1946), 「印度劇的起源及其發達」, <新文學> 第4/5期, pp.38~45.
[16] 範泉(1947), 「臺灣戲劇小記」, <文藝春秋(上海1944)> 第5卷 第6期, pp.78~79.

점이다. 그 시기에 발표된 조선문학비평을 살펴본다면 중국학자들은 중국 문화우월주의 사상으로 조선고전문학의 우수성을 해석하고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을 비판하였다.

조선문학의 황금시대는 고려시대이다.……

문자, 국가 지위, 문화 차이로 인하여 우리와 상당한 력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문학에 대하여 우리는 여태껏 주목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들이 각성하지 못한 것 외에 대부분은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자국의 문학을 타국의 문단에 소개하지 않는 원인도 있다. 일부 문학자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문학창작을 포기하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문학이 서로 다른 량국이 서로 이해하는 무기는 "예술"이다. ……

조선문학이 오늘날 이룬 성과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비록 중국보다 뒤떨어졌지만. (亨斌(1931), 「朝鮮現代文壇的簡略介紹」, <現代文藝(上海)> 創刊號, p.265.)

중국문학이 대량 류입된 고려시대야말로 조선문학의 황금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문학자들은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많은 걸작을 창작해냈다. (梅磊(1936),「朝鮮之文學運動及其的沉寂原因」, <亞洲文化> 第1卷 第7/8期, p.14.)

조선의 예술의 꽃은 천 몇 백 년 전, 특히 신라시대에 이미 찬란하게 피었다. …… 고려시기에 들어선 후 조선 국내에서는 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는데 중국 사대부들이 극찬한 문화와 시인이 고려시기에 선후로 탄생하였다. (天均(1945), 「朝鮮新體詩選序」, <中韓文化> 第1卷 第1期, p.18.)

인용문에서처럼 그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은 조선의 고전문학이 근대문학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극찬하였다. 그들은 "조선문학의 황금시대가 고려시대이다."라고 인식하였고, 그 리유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의 문학자들은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많은 걸작을 창작해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고전문학의 우월성은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그들의 이런 중국 문화우월주의사상은 조선의 근대문학이 중국의 근대문학보다 발전이 더디다라는 견해를 소지하도록 하였다. 매뢰(梅磊)는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에 대하여 "조선문학은 작가와 작품이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아 세계문단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 한 민족이 빛나는 문학을 소유하자면 ……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사상이 자유로워야 한다. 조선 문화에 대해 말하자면 낮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높은 것도 아니다. 조선이 아직은 문화가 낙후한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국문화가 대량 류입된 후 마침 일본의 침략을 당했기에 조선민족은 적들을 상대하느라 중국 문화를 깊이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조선의 문화

는 일본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었다. …… 특히 국권 상실 이후 민중들은 문화라는 것을 향유할 겨를이 없었다."[17]고 해석하였다. 매뢰에게 있어서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은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하에 조선이 중국 문화를 깊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범천은 조선을 침체기에 몰아넣은 원인은 바로 중국 문화의 형식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범천은 「조선의 희극운동(朝鮮的戲劇運動)」에서 "조선은 문화고국으로서 찬란한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이 우월한 문화를 소유할 수 있었던 근원은 "중국의 지혜와 몽고의 무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몽고의 무예는 조선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고 중국의 지혜는 조선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어서 범천은 조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의 지혜"는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형식주의"라고 지적하였다. 범천은 이런 형식주의가 "조선을 례의지방으로 만든 동시에 조선민족이 침체의 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고 비판하였다.[18] 범천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선반도에 미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바라보았으며, 중국 문화의 우월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렬근성을 비판했다. 따라서 범천은 「조선작가론(論朝鮮作家)」에서 조선문학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과거 조선 작가들은 한학(漢學)의 영향을 받고 일본문예 풍격으로 창작하였다. 비교적 유명한 일부 문예 작가들의 창작은 일본문학 모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는 '대륙적 특징의 렬도화(島嶼化)' 문학을 형성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나 인간성으로 보나 조선은 소박한 대륙적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협소한 섬나라의 관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광활한 대륙적 기풍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조선은 이미 정치적 자유를 회복했고 조선문학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곧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조선문학은 조선 고유의 특성을 발굴하여야 하고 '대륙적인 흙냄새를 풍기는' 문예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조선 작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範泉(1946), 「論朝鮮作家」, <新文學> 第1卷 第2期, p.97.)

인용문을 보면 범천에게 있어서 근대의 조선문학은 "대륙적 특징을 지닌 렬도화(島嶼化) 문학"인데 이 말은 대륙적 성격 특징을 지닌 조선인이 일본의 문예풍격을 수용하여 창작한 문학을 의미한다. 범천이 여기에서 말한 "조선의 대륙적 기질"은 장혁주의 "조선문학의 대륙성은 조선민족의 성격 특징에서 유래된 것이다."[19] 라는 말을 수용하여 나온 개념이기도 하고, 동일한 근대사를 겪은 조(한)가 공동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천이 말한 문학창작에 있어서의 대륙적 기풍인데, 이 말은 범천의 의식형태를 반영한다고 하기보다는 그의 창작리론에 더 가깝다.

범천은 1949년에 출판해낸 『창작론』에서 "창작하는 자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

[17] 梅磊(1936), 「朝鮮之文學運動及其的沉寂原因」, <亞洲文化> 第1卷 第7/8期, p.13.
[18] 範泉(1945), 「朝鮮的戲劇運動」, <文藝春秋(上海1944)> 第4期, p.11.
[19] 장혁주,「내일의 조선문학(明日的朝鮮文學)」, 欽鴻 編(2015), 『範泉文集』 第4卷, p.220.

의 생활에 부응하고 실천을 강화하며 지식을 섭취하여,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정확한 인생관을 수립해야 한다. …… 영구한 작품은 시대적 감각이 넘쳐나고 진정한 인간성을 표현하며 미래에 력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영구적인 작품은 사실주의 특히는 러시아식 사실주의 작품일 것인데 인류의 하층생활을 소재로 하여 생활의 추악을 폭로함으로써 작자의 능동적인 반항 자세를 강렬하게 반영하는 것이다."[20] 라고 하였다. 범천에게 있어서 문학경전은 시대의 흐름과 인간성을 반영하는 러시아식 사실주의 작품이며 창작자의 반항 자세를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다. 범천의 이런 인식은 민국시기 중국에서 번역된 외국 문학작품이 대다수가 사실주의 경향을 띤 작품이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범천이 「조선작가론(論朝鮮作家)」에서 말한 "대륙적인 흙냄새를 풍기는 문예운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력사와 인간의 생활을 반영하고 침략을 포함한 부조리한 사회의 모든 것에 반항할 줄 아는 창작 자세로 문예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범천은 "대륙적 기풍"을 "섬나라의 관념"과 대조시켜 사용하면서 조선문학 창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협소한 섬나라의 관념"보다 "광활한 대륙적 기풍"이라고 하였다. 이는 러시아식 사실주의 특징을 갖춘 작품이 경전이라는 범천의 인식과 부합된다. 범천에게 있어서 "대륙적이다"라는 언어는 지리적 개념보다는 문학창작에 있어서 "세계적이다"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며 창작 사유의 광활성과 세계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범천은 「만담: 문예와 청년(漫談:"文藝"和"青年")」에서 문예창작은 세월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혈액"과 "새로운 영양"이라고 강조하였다.[21] 그의 이런 리론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말한 "대륙적인 흙냄새를 풍기는 문예운동"은 조선이 광복 된 후 새로운 문학창작 기풍을 뜻하기도 한다.

범천이 말한 문예창작에 있어서의 대륙적 기풍은 훗날 중국 현대작가 구화동(邱華棟)이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을 평가하면서 말한 "웅대한 대륙적 풍모와 기질"과 같은 것이다. 구화동은 "소설의 대륙표류리론(大陸漂移理論)"을 내놓았는데, 그의 이 리론에 따르면 100년 동안 문학의 발전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로 이동하였는데 현재는 아시아 문학이 폭발되어야 할 시기로서 인류 문학의 성장기 혹은 인류 문학의 독창성은 아시아에서 나타나야 한다.[22]

범천과 구화동이 말한 소설의 대륙성은 문학창작의 광활성과 창조성 및 독자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천이 보기에 조선근대문학은 반드시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어야만 세계문단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소한 섬나라의 상상력보다는 대륙적인 상상력으로 창작해야 하고 광활성과 세계성 및 창조성을 지닌 사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천의 이러한 학술적 시야는 장혁주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범천은 장혁주의

[20] 範泉(1949), 『創作論』, 欽鴻 編(2015), 『範泉文集』 第3卷, pp.40~136.
[21] 範泉(1946),「漫談:"文藝"和"青年"」, <文藝青年(上海)> 第4期, p.3.
[22] 邱華棟(2004), 「小說的大陸氣質」, <世界文學> 弟1期, pp.287~289.

수필집을 번역하여 1943년 『조선춘(朝鮮春)』이란 제목으로 출판할 때 「전기(前記)」에서 장혁주를 “문예작품은 마치 한방울의 류산과 같아서 제아무리 두터운 천이라도 침식시킬 수 있다. 문예작품은 가늘고 가는 침과 같아서 사람들의 피부를 찌르면 아프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 깊숙이 스며든다. 본 책의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는 솔직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독자들에게 바친다. 그는 불타는 붓으로 조선의 봄을 힘 있게 그려냈다!”[23] 고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발표한 「조선작가론(論朝鮮作家)」에서는 일본어로 창작을 하고 일본문단에서 활동을 하는 장혁주는 리광수, 리효석, 유진오, 리태준에 비해 조선을 덜 리해하기에 후자들이 조선문학의 주류이고 창작 환경이 렬악한 조선에서 순수문학 창작에 참여했기에 더 위대하다고 평가하였다.[24] 왜냐하면 범천에게 있어서 "문예작품은 인류의 활동(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문자의 외적 기호를 통하여 우리더러 작가의 감정, 인품, 발자취를 리해하도록 하는 것"[25]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천은 문학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생활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범천은 장혁주보다 조선의 현실을 더 많이 경험한 작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장혁주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조선문학을 바라보는 범천의 객관적인 자세를 증명해주는 셈이다.

조선문학을 바라봄에 있어서 중국학자들은 전근대적인 중화우월주의사상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고전문학의 우월성을 중국문학의 영향에서 찾았으며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을 비판하였다. 반면에 범천은 중국 문화의 우월성과 조선에 미친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형식주의가 조선을 침체기에 몰아넣었고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을 초래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범천이 조선문학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기도 하고 학술적 태도이기도 하며 중국 문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비록 범천의 조선문학비평에서 그의 중조(한) 공동체의식이 엿보이기는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창작론과 학술연구의 체계성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4. 결론

본고는 그간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범천의 조선근대문학비평에 주목하여 조선문학에 대한 범천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문학비평 번역에 있어서 범천이 주목했던 점은 세계문학에 대한 장혁주의 인식이었다. 그러기에 범천이 번역한 장혁주의 조선문학비평은 다른 번역자들처럼 장혁주를 통하여 조선의 근대문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세계문학의 발전 속에서 조선문학의 현실을 인지하고 그 발전 전망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런 자세는 장혁주에 대한 범천의 객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가 조선문학을

[23] 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4卷, 上海書店出版社, p.139.
[24] 範泉(1946), 「論朝鮮作家」, <新文學> 第1卷 第2期, p.96.
[25] 範泉(1947), 「作家的生活經驗」, <學風(上海1947)> 第1卷 第1期, p.8.

인식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음, 조선문학의 발전을 바라봄에 있어서 범천은 그 당시의 중국학자들보다 객관적이었다. 그 당시의 중국학자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중화우월주의사상으로 조선근대문학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민국사회의 혼란과 근대에로 편입되어 가고 있던 중국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신속한 몰락과 연관되어 있다. 근대이전 동아시아에서 발휘하던 중국의 절대적 권력이 상실되면서 중국학자들은 소중화의식이 강했던 조선반도에서 중국 문화의 정통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범천은 오히려 조선근대문학의 부진이 중국 문화의 형식주의를 깊이 받아들여 초래된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이는 범천이 조선문학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기도 하고 학술적 태도이기도 하며 중국 문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천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측면으로 기울어질 것이 아니라 범천의 전체 문예비평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문학에 대한 범천의 평론은 현재 중국에서 조선(한국)근대문학의 위상을 재검토하도록 하며 중조(한) 문학교류에 추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範泉(1944), 「霧中的戲劇季:“清官外史”等四劇目述評」, <萬象> 第3卷 第9期, pp.40~45.

範泉(1945), 「朝鮮的戲劇運動」, <文藝春秋(上海1944)> 第4期, pp.11~14.

範泉(1946), 「論朝鮮作家」, <新文學> 第1卷 제2期, p.96.

範泉(1946), 「印度劇的起源及其發達」, <新文學> 第4/5期, pp.38~45.

範泉(1946),「漫談:“文藝”和“青年”」, <文藝青年(上海)> 第4期, p.3.

範泉(1947), 「臺灣戲劇小記」, <文藝春秋(上海1944)> 第5卷 第6期, pp.78~79.

範泉(1947), 「作家的生活經驗」, <學風(上海1947)> 第1卷 第1期, p.8.

範泉(1948), 「日本文壇近事錄」, <文藝春秋(上海1944)> 第7卷 第6期, pp.60~67.

亨斌(1931),「朝鮮現代文壇的簡略介紹」, <現代文藝(上海)> 創刊號, pp.265~269.

梅磊(1936),「朝鮮之文學運動及其的沉寂原因」, <亞洲文化> 第1卷 第7/8期, pp.13-17.

天均(1945), 「朝鮮新體詩選序」, <中韓文化> 第1卷 第1期, pp.18~21.

欽鴻 編(2015), 『範泉文集』第1~4卷, 上海書店出版社.

2. 논문자료

邱華棟(2004), 「小說的大陸氣質」, <世界文學> 弟1期, pp.287~292.

欽鴻(1990), 「記範泉主編的<文藝春秋>」, <新文學史料> 第1期, pp.186~200.

欽鴻·聞彬(1990), 「論範泉主編<文藝春秋>的編輯藝術」, <江蘇社會科學> 第6期, pp.73~76.

欽鴻(2001),「範泉與臺灣作家歐壇生」, <世界華文文學論壇> 第2期, pp.71~73.

欽鴻(2001), 「不朽的文學業績 — 紀念著名作家、編輯家範泉先生」, <文教資料> 第5期, pp.3~20.

欽鴻(2004), 「範泉的編輯業績和編輯精神」, <中國出版> 第11期, pp.46~47

김일엽과 평위안쥔(馮沅君)의 여성 탈출서사 비교 연구

등천(鄧倩)

(중국해양해대학)

목 차

1. 머리말
2. 딸과 어머니의 연대
3. 남성 계몽주체의 부재
4. 새로운 공동체의 확립
5. 결론을 대신하여

1. 머리말

19세기 말부터 서양의 문명과 사상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지식인들에게 사상적 충격을 주었다. 서구 문명으로 대표되는 '신(新)'과 유교 사상으로 대표되는 '구(舊)'가 서로 충돌되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이중과제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과거와 전통을 반성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서양 문명을 수용하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길을 탐색한다는 것이었다. 지식인의 이러한 사상적 욕구는 그들의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탈출' 모티프이다.

탈출은 일반적으로 '몸을 빼어 도망함'이나 '피하여 달아남'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보다 심층적인 의미로는 이전의 가치와 삶에 대한 의식적인 거절과 부정인 동시에 새로운 삶과 정체성을 향한 지향적인 도주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전환기에 지식인들은 다양한 탈출서사를 창작함으로써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양점과 지향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근대적 주체를 내세우고자 했다. 예컨대 『무정』에서 미국 유학을 떠난 형식,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북국의 한촌으로 떠난 X 등은 현실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미래와 세계를 탐색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탈출 모티프는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근대 기획을 살펴보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남성뿐만 아니라 신(新)과 구(舊), 가부장과 아내/딸 등 다중적인 압박 속에서 살았던 여성도 탈출을 선망하고 있었다. 남성의 탈출이 주로 집 · 고향 · 고국 등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물리적인 탈출이었던 것과 달리, 여성의 탈출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탈출은 한중 1세대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고백의 형식으로 형상화된다. 사실 한중 1세대 여성 작가의 삶은 '탈출'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문단으로 진입하여 작가로 성장한 것은 1세대 여성 작가들이 공유한 경험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 탈출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김일엽과 펑위안쥔(馮沅君)이다.

김일엽은 1896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개명(開明)한 어머니 덕분에 보통여학교에 입학하여 신식 교육을 받았다. 1913년 부모를 여읜 김일엽은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였으며 1918년 졸업할 무렵 연희전문 교수 이노익과 결혼했다. 1919년 남편의 원조로 유학길에 올랐고 일본에서 세이토(靑鞜) 동인이 주도한 여성해방운동을 체험했다. 1920년 귀국하자마자 김일엽은 바로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여성독자를 위한 『신여자』 잡지를 창간하고 나혜석, 박인덕 등과 함께 '청탑회(靑塔會)'라는 여성단체를 결성했다. 또한 『인형의 집』의 번역과 공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조선의 노라'라고 불리기도 했다. 1920년 『신여자』를 창간할 때부터 1933년 불교에 귀의할 때까지 김일엽은 신여성과 구여성의 내면과 삶을 그리는 소설을 창작하고 여자 교육, 자유연애, 정조 등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평론을 발표하여 1세대 여성작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펑위안쥔은 김일엽보다 4년 늦게, 1900년 개명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펑위안쥔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소학교 교장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고전을 숙독하였다. 1917년 큰오빠의 주선으로 북경으로 올라가 당시 중국 여자교육의 최고기관인 북경여자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때 마침 북경에서 신문화운동이 풍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펑위안쥔은 신식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해방, 자유연애, 전통 반성 등과 같은 사상적 영향도 받았다. 1922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펑위안쥔은 곧바로 북경대학 국학연구소에 입학하여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1923년부터 펑위안쥔은 여학생의 가출을 다룬 단편소설 「단절(隔絶)」, 「여행(旅行)」, 「자애로운 어머니(慈母)」, 「단절이후(隔絶以後)」 등을 잇달아 발표하여 빙신(氷心), 루인(盧隱)에 비견할 만한 여성작가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조선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여성 작가 김일엽과 펑위안쥔은 비슷한 체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여자 교육의 열풍을 타고 여성해방, 자유연애 등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신구가 혼재(混在)하는 사회로 진입한 김일엽과 펑위안쥔은 전근대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대였다. 근대 전환기에 남성지식인들은 '구'와 '신'을 명확히 규명하고 전통으로부터의 '탈출'을 역설하고 감행했다. 그러나 전통과 근대, 신과 구, 남성과 여성 등 다중적인 압박 속에서

살던 신여성에게 탈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남성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신여성에게 인습의 파괴자가 되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덕목을 준수하기를 요구하였다. 딸과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여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여성이 겪은 갈등과 고민은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글쓰기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또한 1인칭 고백체를 통해 여성의 은밀한 내면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김일엽과 펑위안쥔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신여자』 창간 초기 기고자가 부족해서 김일엽은 일엽(一葉), 한잎, 편주(扁舟) 등의 필명으로 여러 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소설은 서간체 형식을 취했다. '우촌 선생님'에게 화자의 연애 애화(哀話)를 토로하는 「나는 가오」, '주간 김 선생'에게 기고하여 40여 년 비참한 과부생활을 회고하는 「청상의 생활—희생된 일생」이 바로 그 대표작이다. 부모의 강제 결혼에 반대하여 한강에 투신자살한 이야기를 다룬 「어느 소녀의 사」에서도 소녀의 유언 편지를 삽입했다. 또한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은 구여성이 공부를 계기로 신여성으로 거듭나는 소설 「자각」(1926)도 1인칭 화자 '나'가 '동무'에게 들려주는 고백의 형식을 취했다.

중국 1세대 여성 작가 가운데 펑위안쥔은 서간체 형식을 가장 선호한 작가이다. 그녀의 대표작 「여행」, 「단절」과 「단절이후」(이하 '탈출삼부작'으로 줄임)는 모두 서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세 편의 소설은 어머니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여학생 쯔웨이화(繡華)와 애인 스전(士軫)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작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세 편 소설의 줄거리를 함께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 쯔위안화와 남학생 스전은 자유연애를 통하여 사랑을 약속한다. 열애 중인 두 남녀는 여행을 떠나 열흘 동안 남부럽잖게 지낸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딸을 구금하고 부잣집 아들과의 혼인을 강요한다. 쯔웨이화는 애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망을 약속했으나, 어머니의 위병으로 도망 기획이 무산되자 음독자살하고 만다. 애인을 죽음을 듣고 스전은 따라 죽기로 한다. 「여행」과 「단절」은 1인칭 화자 쯔웨이화가 스전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통해 어머니와 애인, 효도와 자유연애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학생 쯔위안화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단절 이후」는 쯔위안화의 친구를 1인칭 화자로 설정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쯔위안화와 스전의 비극을 서술한다.

요컨대 김일엽과 펑위안쥔은 신구의 경계에서 헤매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의 고민과 갈등을 재현하면서 이른바 '구여성', 그리고 동시대 남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했다. 그렇다면 두 작가는 여성인물의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재현했을까? 한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여성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이런 차이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김일엽과 펑위안쥔이 창작한 여성 탈출 서사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딸과 어머니의 연대

남성 지식인의 소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같이 낡은 전통의 대변인으로 등장한다. 젊은 세대가 성공적으로 탈출하려면 부모를 비롯한 기존 세대를 최우선으로 극복하고 초월해야 한다. 후스의 「종신대사」에서 미신과 보살신앙에 심취한 텐야메이의 어머니, 염상섭의 「제야」에서 '성적 밀행에 대하여 괴이한 흥미와 습성을 가진' 정인의 어머니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 작품에서 딸과 어머니의 갈등은 신여성과 구여성 사이의 사상적 충돌로 정형화된다. 남성지식인의 계몽담론에 따르면, 신식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구여성', 신식교육을 받고 부모를 뜻에 반대하는 여성은 '신여성'이라는 대립된 두 그룹으로 갈라진다. [인위적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 보이지 않은 경계선을 그어준다]

아버지의 공범자인 어머니, 그리고 조혼의 대상인 구여성은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강등(降等)되고 연애의 대상인 신여성은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 승격(昇格)된다. 이런 이분법에 따르면 신여성은 여성해방의 구원 대상이 되고 근대 기획에 포섭된 반면, 구여성은 여성해방의 '적'이 되어 근대 기획의 바깥으로 축출된다. 그러나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소설에서는 이런 이분법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고 남성지식인의 계몽담론으로 갈라진 구여성과 신여성의 간극을 봉합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녀들의 눈에는 딸과 어머니가 '신여성'과 '구여성'이라는 대립적인 양극이 아니라 가부장제도에서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이다.

다음으로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소설에 나타난 '구여성'과 '신여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한국 여성 작가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일엽의 「혜원」에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두 소설은 모두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어머니의 딸에 대한 본능적 모성애를 면밀히 보여준다.

> 혜원의 어머니가 늘—또 그 즐거웁고 안온한 마음을 깨트리는 한 혜살꾼이었다. 그 딸의 심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蒙昧하였다. 그 딸의 이상과 인격을 알아주기에는 너무도 무식하였다. 청혼하는 돈 많고 인품 좋은 신사들이 많건마는 시집갈—생각은 꿈에도 아니 하고 저 혼자서 공연히 끄를탕을 하는 그 딸의 속을 암만해도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진심껏 제 전정을 위하여 말해주는 어미를 오히려 그르게 아는 완강한 그 딸을 미웁게 생가할 때도 없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어떤가를 헤아릴 줄 모르는 그 딸을 위하여 걱정도 하였다. 다 늙은 자기 하나만 죽어지는 날은 四顧無親한 외로운 몸이 될 그 딸을 위하여 동정의 눈물도 많이 흘린다. 그러나 혜원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아무 도움이 없는, 또한 듣기 싫은—걱정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엽은 3인칭 전지(全知)적 시점을 통하여 혜원과 어머니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혜원은 자신의 글쓰기를 자꾸 방해하는 어머니를 '몽매'

하고 '무식'한 '헤살꾼'으로 간주한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은 후 딸의 외로운 신세를 우려해서 딸에게 빨리 시집가기를 재촉한다. 어머니는 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딸도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혜원과 어머니의 충돌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어머니는 돈 많고 인품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여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신식 교육을 받고 글쓰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버는 혜원은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자립적 독립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여긴다. 이처럼 남성작가의 문학세계에서 구여성이라는 고정개념으로 형상화된 어머니는 김일엽의 소설에서 모성애와 구식관념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인간다운 면모로 환원된다.

한편 펑위안쥔의 소설에서 쯔웨이화의 어머니도 자애로운 모성애와 구습에 대한 집착을 동시에 갖는 존재이다. 쯔웨이화의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애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쯔웨이화와 스전이 함께 여행을 떠난 행위를 "간통과 다름없는 짓"으로 단죄하고 쯔웨이화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한다.

펑위안쥔은 1인칭 화자 쯔웨이화를 통하여 애인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신여성을 생생히 그려낸다.

> (가)나는 너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해. 남녀의 사랑이든 모자간의 사랑이든 세상의 사랑은 모두 다 신성한 거야. 예순이 넘은 노모를 육칠 년 간 못 보다가 이제 겨우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전히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내가 이번에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것은 사랑을 모든 방면에서 다 만족시키고자 함이었어. 사랑의 본질이 단지 하나뿐이다. 다만 표현해내는 방면이 달라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이 생기는 거지.
>
> (나)내 인생은 정말 사랑에 좌지우지 되었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감히 리우(劉)씨 집안과 결연히 파흔하지도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뵙기 위해 돌아왔잖아. 연인의 사랑 때문에 사회상의 명예와 천륜의 기쁨을 버리고자 하였다. 이 비극의 작가는 사랑이고 그 역을 맡아 연기한 사람은 바로 나야.

펑위안쥔의 탈출 삼부작에서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리 가부장으로서 어머니는 딸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어머니는 가부장의 권위를 대리하는 '야만적 전통'의 수행자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쯔웨이화에게 어머니가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쯔웨이화의 어머니가 딸의 자유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유교 윤리관과 딸이 추구하는 자유연애 관념이 상충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녀간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기에, 쯔웨이화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유연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애인 스전과 감정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심해진다. 쯔웨이화는 애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이처럼 펑위안쥔

은 모성애와 사랑의 딜레마에 빠진 쯔웨이화의 독백을 통하여 남성지식인에 의하여 단절된 모녀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전통 관념을 반성하고 근대로 지향하는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남성지식인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갈등을 신구의 대립, 더 나아가 선악의 대립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식제도를 표상하는 대변인으로 보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계몽담론을 펼쳤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히 신 · 구, 선 · 악과 같은 이항대립의 관계로 환원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부장 권위를 대리하고 딸의 혼인을 간섭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도의 수해자이기도 하다. 김일엽과 펑위쥔의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신여성'인 딸은 '구여성'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품고 있으면서 한편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도 품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성작가가 부정하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모성애를 통하여 다시 연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 남성 계몽주체의 부재

당대 한중 남성 지식인들이 창작한 여성 탈출서사에서 남성인물이 탈출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인물은 여주인공을 계몽하고 훈육하는 주체로 설정되고 여주인공은 남성 계몽자에게 정신적으로 훈육을 받아 각성하게 되는 하위주체로 그려진다. 즉 남성 작가의 가출서사에서 여성은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물의 계몽 혹은 남성인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각성하게 된다. 즉 남성 작가가 그린 여성 가출서사 속에는 남성주체의 계몽과 훈육만 존재할 뿐 여성이 다중적인 압박 속에서 스스로 각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내면의 변화가 부재한다. 이와 달리,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소설 속에는 계몽자로서의 남성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남성인물이 등장하더라도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더 많다. 남성지식인의 성공적인 계몽 이야기에 주목한 남성지식인과 달리, 김일엽과 펑위쥔을 비롯한 여성 지식인은 여성인물이 학교에서 배운 남녀평등 · 자유연애 · 자유결혼 사상을 실천에 옮기면서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펑위안쥔의 탈출 삼부작에서 나타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관계를 살펴보자. 스전과 쯔웨이화는 계몽과 피계몽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애인이자 부모의 강제 혼인을 반대하는 맹우(盟友)이다. 또한 연애 과정에서 남성보다 여성인물이 훨씬 적극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 그 때 나는 약간 겁도 나고, 네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랑에 빠졌는지 알 수 없었단다. 도 우리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도 되었고. 그러나 네가 "만일 이 행동을 너무 무례하다고 여긴다면 나는 이 강에 빠질 수밖에 없어. 만일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후로

나는 너의 말을 따를 것이며 열심히 공부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의 마음은 약해졌어. 나를 희생하여 타인의 감정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봄날 풀처럼 내 마음의 밭에서 쑥쑥 자라는 것 같고, 마치 하늘의 무슨 존엄한 사명을 받은 것 같아서, 바로 너의 요구를 허락한 거란다.
(중략) 내가 손으로 너의 목을 만지니까 네가 고개를 천천히 떨구는데, 마침 나의 가슴 앞이었어. 넌 울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격은 것들, 당한 일들을 하소연했었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세상 물정에 눈을 뜬 이후로 만족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어....."

「단절」에서 쯔웨이화는 스전에게 편지를 보내며 애인과의 달콤한 열애 과정을 회상한다. 쯔웨이화는 부모가 정해준 약혼자가 있고 스전은 이미 결혼한 본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지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늘 근심에 빠져 있다. 이때 쯔웨이화와 스전은 서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준다. 스전은 "나는 너의 말을 따를 것이며 열심히 공부할 거다"라고 맹세한다. 이런 스전을 보고 쯔웨이화는 애인을 근심과 낙심에서 구원해주는 것을 '존엄한 사명'으로 삼고 자신을 '희생'하여 스전의 감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쯔웨이화는 더 이상 애인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위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스전을 격려하고 구원하는 강한 주체가 된다. 이것은 남성작가의 소설에 흔히 나타난 계몽자로서의 남성 이미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펑위안쥔의 소설에서 자유연애는 여주인공이 각성하고 탈출하는 중요한 계기로 적용된다. 반면 한국 여성 작가들은 한국 남성지식인에 의한 강한 탄압 때문이었는지 일찍부터 이성에 대한 환상을 타파하였다. 김일엽은 초기 소설 「나는 가오」(『신여자』, 1920)에서 곤경에 빠진 일본 유학생 장경자와 그녀를 구해주는 이상현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마치 신과 같이 등장한 남성 구원자에게는 신소설에서 흔히 사용한 '여성 수난-남성 구원' 패턴을 모방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후 『신여자』의 폐간, 남편과의 이혼, 남성 지식인의 호된 비판 등의 사건을 겪은 후 김일엽의 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은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 지식인 남성에 대한 관점은 김일엽의 「혜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낸다. 문재가 뛰어나 '조선 新文壇의 유일한 여류 작가'인 혜원은 청년 문사와 연애하지만 그 문사는 혜원을 배신하고 실업가의 딸과 결혼한다. 연애의 쓴 맛을 본 혜원은 남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된다.

죄 없는 無垢한 순결한 여자를 죄 있이 만들고 더러운 여자를 만드는 것이 남자 되어 얼마나 한 자랑인가, (중략) 하여간 남자란 여자에게 대하여 가장 무서운 악마이다 하기는 하지마는 많고 많은 여자들이 다 그 악마에게 묵묵히 복종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었다. 하나님이 便辟되게 남자에게만 한하여 특별한 알지 못할 마력을 주었을까. 혹은 여자가 다—무지하고 몰각해서 그럴까.--어쨌든 남녀 간 관계를 그렇게 이상하게 기묘하게 만들어서 전정이 멀고 有爲한 여자들로 하여금 타락되지 아니치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조물주의 심사를 알 수 없다 하였다.

애인의 배신을 당한 혜원은 남자란 '無垢하고 순결한 여자'를 더러운 죄인으로 만든 '가장 무서운 악마'라고 간주한다. 남자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여성에게 자유연애는 '타락'을 자초한 비행과 다름없다. 연애의 패배를 겪고 나서 혜원은 여성이 "남자들의 육욕을 채워주는 戀愛的 戲弄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1920년대 한국 남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은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맞서 김일엽은 「혜원」에서 여성을 노리개로 만든 남성의 진면목을 밝혀낸다. 혜원의 자백을 통하여 자유연애의 파산을 일으킨 원인은 여성의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이기심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처럼 남성의 도덕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김일엽 소설의 특징이다. 자유연애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노리개로 만든 남성에 대한 규탄이 김일엽 후기 소설에 자주 나타난다. 「순애의 죽음」에서 순애를 유혹하여 그녀의 정조를 빼앗은 『XX일보』의 경영자 K, 「자각」에서 일본에서 다른 여자와 연애한 후 현숙한 아내를 버리는 남편은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성이다. 이렇듯 김일엽은 배신당한 여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독자에게 남성이 만들어낸 자유연애 신화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여성 동포에게 경계하라는 메세지를 던져준다.

남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 깨닫고 탈출하려는 의지는 김일엽의 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김일엽의 소설에서 여성을 각성하게 만든 계기는 '공부'이다. 다음에 「어느 소녀의 사」에서 여학생 조명숙이 스스로 밝힌 각성의 과정을 살펴보자.

> 사람의 일생에 짜르고 짧은 18년 동안을 즐겁게도 지내어보고 괴롭게도 지내어본 것은 철없이 어리광으로 지내어본 것이오며 괴롭게 지내어본 것은 칠이 난 때오니 여식이 만일 학교에를 아니 다니어 글자를 못 배왔습드면 오늘 이 擧措가 없었을 줄로 아옵나이다. 양위 부모님께서 여식을 학교에 입학시키시던 그때의 마음은 여식으로 하여금 사람되라고 하신 것이지 사림 되지 말라 하심은 엎들리어 헤아린건대 아니신 듯하오나, 학교에서 업을 마칠 작년부터서는 왜 그다지 온당치 못한 사람이 되라고 심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견딜 수 없었나이다.

「어느 소녀의 사」는 18세의 소녀 명숙이 자신을 난봉꾼인 어떤 부자의 첩으로 시집보내려는 부모를 피해 한강철도에 가서 자살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자살을 앞두고 명숙은 각각 부모와 ○○일보 기자에게 편지를 써서 자살하기로 한 원인을 밝힌다. 위의 인용문은 명숙이 부모에게 쓴 유언 편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명숙은 학교 공부를 통하여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명숙은 '자아'라는 개념이 없이 단지 지금은 부모의 '딸'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는 종속적인 의식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아에 눈뜨게 되고, 자식과 부모는 합일된 종속관계가 아니라 시로 분리된 주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명숙은 '부모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부모를 위한 '효도'와 자신을 위한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결국 '효도'와 '자유의지'의 딜레마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명숙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4. 새로운 공동체의 확립

자유평등, 천부인권(天賦人權) 등 서양 계몽사상이 동아시아에 도입되면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는 여성해방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널리 퍼지면서, 노라가 '여자도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며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을 강조한 것이 여성해방의 새로운 목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자보다 인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여성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한중 여성 작가의 소설에서 여성보다 인간이라는 선언은 흔히 볼 수 있는 발화이다.

(가) 「경희」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나) 「혜원」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유를 빼앗는 무지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현모양처라는 미명하에서 附屬物 玩弄物이 되어 한갓 溫恭柔順을 주장하는 노예적, 기계적 생황을 하며 好衣好食하는 것이 도리어 自由天地에서 거지 노릇하는 것만 같지 못한다 하였다. 인격상 차이가 업는 사람인 이상 여자 자기도 어디까지 사람으로 살려 하였다.

인용문 (가)에서 여학생 경희는 자신이 구여성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인용문 (나)에서 연애의 실패를 겪은 혜원 또한 여자는 '부속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인용문 (가)·(나)에서 살펴 본 여주인공들의 발언에서 모두 노라의 가출 선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의 딸이나 남편의 아내, 혹은 아이의 어머니라는 종속적인 정체성보다 독립적인 인격체를 갖는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노라가 신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인형의 집』에서 여자도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 수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중 양국 여성 작가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신여성으로서 인간되는 길을 탐색한다.

우선 평위안쥔의 경우를 살펴보자. 5.4 시기에 후스를 비롯한 중국 남성지식인들은 여성에게 '자유연애'를 통하여 탈출동맹을 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로써 여성에게 **탈출의 맹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평위안쥔의 탈출 삼부작에서도 이런 논리의 흔적

을 발견할 수 있다. 펑위안쥔은 탈출한 아들(스전)과 딸(쯔웨이화)이 자유연애를 통하여 예교에 저항하는 동맹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쯔웨이화가 계몽하고자 하는 대상은 부모의 속박을 받는 청년 남녀이다. 스전에게 쓴 편지의 결말에서 쯔웨이화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바람을 말한다.

> 우리는 스물 넷, 다섯의 삶 밖에 살지 못하고 학문적으로도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역사는 분명 우리 스스로 소중히 여겨야 해. 우리의 정신은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탄복할 만한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양심이 믿어지지 않는 세력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연애를 위해 죽는다는 피의 길을 개척했어. 우리는 마땅히 젊은이들에게 이 길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성공을 바래.

쯔웨이화는 성공적으로 탈출하지 못하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밝힌다. 여기서 쯔웨이화가 사용하는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쯔웨이화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쯔웨이화와 스전은 자유연애를 통하여 공동의 계몽 주체가 되고자 한다. 쯔웨이화와 스전은 '순정(殉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하여 젊은이에게 자유의지가 사랑·모성애·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탈출동맹은 매우 불온하다. 탈출이 실현되고 공통 목표가 이루어지면 탈출동맹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곧 해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아버지가 떠나도 가부장제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새로운 가부장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하나의 공상(空想)에 불과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펑위안쥔의 남녀 탈출동맹과 달리, 자유연애에 깊은 불신을 품은 김일엽은 신여성과 구여성의 연대감을 되살려서 여성이 구성한 자매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런 의식은 구여성의 자각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소설 「자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각」은 남편에게 버림당한 임순실(任淳實)이 동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는 고백체 소설이다. 순실의 남편은 '아름다운 새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아내에게 "이 복잡하고 귀찮고 부자유한 이 가정에서 당신을 구원해내"겠다고 근사하게 맹세한다. 일본으로 떠난 남편은 처음에는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고학(苦學)하고 아내를 '적막한 생활의 생명수'로 삼는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순실은 2년 동안 남편을 꼬박꼬박 기다렸으나 결국 남편에게서 '사형 선고 같은 놀라운 기변'과 같은 '절연장(絶緣狀)'이 온다. 그때 순실은 임신한 지 이미 8개월이었다.

> (남편의 편지—인용자 주)
> 그대와의 혼인은 전연 부모의 의사로만 성립된 것으로 내게는 책임이 없으며 지금까지 부부 관계를 계속해온 것은 인습에 눌리고 인정에 끌렸던 것이니 미안하지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전정

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었나이다.

(순실의 답장—인용자 주)

주신 편지의 의미는 잘 알았나이다. 먼저 그런 편지 주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나이다. 여자의 몸이라 그래도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상에 안 맞는 남편과 억지로 지내면서도 남다른 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 불행을 어제나 한탄하고 있었나이다.

아이는 남녀 간 낳은 대로 돌려보내겠나이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는 전정을 개척하는 데 거리끼는 일이 많을까 함이외다. 그러나 아이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제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하나 있음을 아이에게 일러주소서. 이만.

남편은 순실과의 혼인을 부모의 명령을 따른 피동적인 선택이라고 표명하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린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이혼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이 여학생과 신식 연애를 하고 나서 아내를 버리는 스토리는 이광수의 초기 희곡 「규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규한」에서 남편의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실성한 구여성과 달리, 순실의 답장은 의외로 담담하다. 순실은 남편의 결연장을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의 이혼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해산 이후 순실은 아이를 시집에 맡기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전남편은 수차례 사과편지를 보내고 재혼을 요청하지만 순실은 이를 '흔연히' 거절한다. 순실은 신여성으로 거듭난 반면 전남편은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다. 「규한」에서 이혼당한 구여성이 발광한 것과 대비적으로 「자각」에서 발광한 사람은 오히려 아내를 버린 유학생이다. 이것은 계몽지식인 이광수와 여성운동가 김일엽의 의견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광수의 눈에 구여성은 남편의 희생자이기에 앞서 구식 혼인제도의 희생자이다. 그러나 김일엽의 눈에는 순실의 비극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구식 혼인이 아니라 남편의 배신이다. 이혼한 순실은 공부를 통하여 신여성으로 변신한다. 순실의 '재생'은 교육을 받으면 구여성도 신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성 독자에게 보여준다. 이처럼 김일엽은 「자각」의 여주인공 순실의 고백을 통하여 남성 지식인이 설정한 구여성과 신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구여성과 신여성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신여성과 구여성이 체결한 여성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김일엽의 구상은 「청상의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상의 생활」에서 여주인공 서씨 부인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조혼을 하고 어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청상과부로 여생을 보낸 전형적인 '구여성'이다. 서씨 부인은 40여 년 청상과부 생활을 회고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씨 부인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세계 사조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남성 지식인의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우매하고 무지한 구여성과 달리, 일찍 시집가서

젊은 시절에 어린 남편을 잃은 처녀 과부로 일생을 살아온 서씨 부인은 조혼제도와 개가 금지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처녀 과부로서 서씨 부인은 이성에 대한 욕망도 감추지 않고 토로한다. 또한 서씨 부인은 비록 구여성이지만 신여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 공자께서도 후생(後生)이 가외(可畏)라고는 하셨지만, 내 딸뻘밖에 못 되는 어린 여자들의 각성이 그렇듯—촉진함을 본—나는 못내 감탄하여 부지중 더운 눈물이 두 뺨을 적십니다. 그리고 나도 좀—이 세상에를 더니 나왔더라면 하는 부러운 생각도 없이 아니합니다.
>
> 그대들은 교육받은 연한에 비하여 해방된 시일에 비하여 학문과 지식과 사업열이 참으로 초월하고 우승함을 충심으로 축(祝)합니다.
>
>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나와 같은 구식 여자가 영원히 밝아—보지 못할 그 어둡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도 자기는 그래도 보는 체하고 "학교 색시가 어떠니, 공부한 여학생이 어쨌느니" 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고 우스워서 "그러면 그전—우리들처럼 사나이의 절제 밑에서 밥이나 빌어먹노라고 그저 네네 하고 안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는다고 걱정이요"하고 공박(攻駁)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싶더이다.
>
> 그러나 그대네들은 이 모든 비난과 공격 아래에 자기들의 몸을 희생하여가며 자기들의 사명을 이행하려 한다지요?
>
> (중략) 그리고 나는 그대들의 그렇듯 아름답고 기특한 마음에 무한히 동정하고 찬성하는 동시에 늦었지마는 이제부터라도 여생을—마음으로나 정신으로라도 그대들의 뒤로 좀—응원이라도 하여줄까 하고 지금도 밤낮 돋보기안경을 쓰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내 양자(매국에 유학하고 온 嫂侄)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씨 부인은 신여성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신여성의 학식과 사회적 진출을 부러워한다. 김일엽은 개화한 서씨 부인의 발화를 통하여, 남성지식인들의 계몽담론으로 인해 갈라진 구여성과 신여성의 관계를 회복하고 양자의 연대감을 재건하고자 한다. 마지막에 서씨 부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수양딸에게 신학문을 배운다는 결말은 구여성과 신여성이 협력하여 여성 공동체를 체결하는 맑은 전망을 제시한다. 핏줄로 연결된 모녀관계 대신 '학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구여성과 신여성의 연대감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앞에서 살펴본 양국 여성 작가의 소설을 통해 양국 여성 작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김일엽과 펑위안쥔 소설속의 여성 인물은 신식 교육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집에서 탈출하여 멀리 타국 혹은 타향으로 떠난 '노라'라고 볼 수 있다.

두 여성 작가의 가출서사는 남성작가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중 남성 지식인

의 가출 서사에는 남성이 여성을 계몽하고 구원하는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소설에는 계몽자로서의 남성 인물이 부재한다. 또한 남성 지식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식제도의 대표로 간주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김일엽과 펑위안쥔의 소설에서의 어머니는 이중적인 면모를 띤다. 한편으로는 가부장의 대리인으로서 딸의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가해자로 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도의 희생자로 신여성과 깊은 연대를 갖고 있다.

서영채가 논의한 바와 같이 연애나 사랑의 문제는 한 개인의 가장 내밀한 경험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애와 사랑은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문학 형식이 조우하는 가장 예민하고 뜨거운 접점이다. 이 접점에서 펑위안쥔과 김일엽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펑위안쥔은 중국 남성 지식인의 가출서사에 나타난 '반항-탈출-연애'라는 서사 패턴을 모방하여 자유연애를 감행하는 신여성을 형상화한다. 펑위안쥔의 소설 속에 그려진 여주인공의 이성에 대한 선망과 연애에 대한 환상과 달리, 김일엽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은 남성에게 사기당하거나 버림받은 희생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김일엽은 여주인공의 순탄치 않은 탈출을 통하여 남성이 제창한 자유연애 신화의 허위성을 폭로하며 그들을 배제하고 신여성과 구여성이 구성한 자매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이는 한중 양국 남성지식인과 여성지식인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중 여성 작가의 글쓰기는 남성지식인들이 여성을 훈계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성 작가의 글쓰기에 대하여 한중 남성 지식인들은 판이한 태도를 보인다. 한국 남성지식인들은 신여성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에서는 김동인과 김기진처럼 신여성의 문학적 성취도보다 도덕적 '비행'에만 천착하여 그녀들의 작품을 절하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후스, 루쉰, 마오뚠을 비롯한 중국 남성지식인들은 여학생들의 글쓰기를 격려하고 그녀들을 '여성 작가'로 인정했다. 이런 차이는 여성 작가의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성작가에 대한 양국 남성 지식인의 판이한 태도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식민지 조선과 반식민지 중국의 상이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양국 계몽지식인들은 서로 다른 근대 기획을 채택하였다. 중국 지식인들은 여성을 근대를 건설하는 주체로 포섭함으로써 전통에서 탈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은 여성을 스위트 홈을 건설하는 조력자로 호명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조직하고자 했다. 근대 기획 속에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위상은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의 관계에도 투영된다. 집이라는 사적 영역을 넘어 글쓰기를 통하여 사회로 진출하려던 한국 1세대 여성작가들은 남성 지식인들로부터 '문학' 밖으로 배제당하고 '소문'의 세계로 내보내진다. 반면 집에서 탈출하고 글쓰기를 통하여 가족과 사회를 비판하려던 5·4시기 여성작가들은 중국 남성지식인들의 근대 기획에 포섭되어 '작가'로 인정받는다.

둘째, 양국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관계는 그들의 연령과 등단 시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광수(1892~1950)·김동인(1900~1951)·염상섭(1897~1963) 등 남성지식인들은 1896

년 전후 태어난 나혜석, 김일엽과 김명순과 같은 세대이며 그들의 일본 유학 시기도 많이 겹친다. 이광수와 나혜석, 염상섭과 나혜석, 김일엽 · 김명순과 임노월은 모두 '소문'의 주인공들이다. 당사자로서 남성 지식인들은 자유연애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여성을 폄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루쉰(1881~1936)·후스(1891~1962)·마오뚠(1896~1981) 등 문단을 주도한 남성지식인들은 펑위아쥔(1900~1974), 뻥신(1900~1999), 루인(1898~1934) 등 여학생과 연령 차이가 많다. 이미 대학교수가 된 남성지식인들은 신단 등단한 여학생의 스승이 된 셈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비 여성작가를 제자로 보고 그녀들의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한국의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가 제시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외로운 글쓰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지식인의 냉철한 태도는 여성 지식인들을 일찍 성숙하게 만들었다. 일본에서 자유연애를 습득한 1세대 여성 지식인들은 남성 지식인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남성의 이중적인 면모와 자유연애의 허위성을 간파한다. 반면에 후스·루쉰을 비롯한 중국 남성 지식인들은 여학생의 문학 창작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여성 작가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5·4시기의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의 가출서사에 나타난 '반항-가출-자유연애' 패턴을 모방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젠더의식을 투입함으로써 남성 작가와 구별된 여성 가출서사를 구상해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일엽, 김우영 엮음, 『김일엽선집』, 현대문학, 2012.

윤질월 편,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 2006.

陸侃如 馮沅君, 『陸侃如馮沅君合集·第拾伍卷』, 安徽教育出版社, 2011.

馮沅君 외 지음, 김은희·최은정 옮김, 『중국 현대 여성소설 명작선』, 어문학사, 2005.

논저

김은희, 「馮沅君의 小說 試探」, 『중국현대문학』, 1998.

박죽심, 「근대 여성 작가의 자기표현 방식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2004.

박종홍, 「신여성의 '양가성'과 '집 떠남'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48집, 2006.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이희경, 「馮沅君 소설의 섹슈얼리티 읽기-<隔絶>, <隔絶之後> <旅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009.

임우경, 『근대 중국의 민족 서사와 젠더』, 창비, 2014.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이광수, 염상섭,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최인숙, 「한중 여성 계몽서사에 나타난 신여성의 표상: 나혜석의 「경희」와 冰心의 「兩个家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08.

장징(張競) 지음,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蔡登山, 『才女多情:「五四」女作家的愛情歷程』, 秀威出版社, 2011.

劉思謙,『"娜拉"言說：中國現代女作家心路紀程』, 河南大學出版社, 2007.

陸侃如, 「憶沅君」, 『新文學史料』, 1978.

孟悅·戴錦華,『浮出歷史地表——現代婦女文學研究』, 河南人民出版社, 1989.

《동우수집(東尤壽集)》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차용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동우(東尤) 김갑순(金甲淳, 1872.5.22.~1960.8.16.)이 회갑 때에 유명한 인사들이 그에게 보내온 축시들을 정리하여 발간한 문집이다. 1937년 공주인쇄소(公州印刷所)에서 간행되었고, 저작겸 발행자는 김종락(金鍾樂)이다. 충남 공주의 갑부이자 친일인사로 유명한 김갑순의 행적은 그 동안 사학계에서 일정한 관심을 받았다. 본고에서 소개할 김갑순에 관한 문집은 30년대에 그가 부의 정점을 이뤘을 때의 사회 관계망과 과거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담고 있어 친일을 비롯한 그의 행적을 연구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공주 태생인 김갑순은 한때 "서울 갈 때 절반은 남의 땅을, 절반은 자기 땅을 밟고 다녔다고 할 정도"[1] 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었지만, 사실 어린 시절 그는 공주 감영의 하찮은 관노였다. 한 여인과의 인연으로 총순(總巡)이 된 것을 계기로 삼아 나중에는 1902년부여 군수를 시작하여 10년만에 충남 지역 6개 군의 군수를 지냈다. 군수로 있는 동안 백성들이 그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뉘었는바, 때로는 애민(愛民)하는 군수요, 때로는 포악한 관리라는 것이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 공주에 사립 명화학교(明化學校)를 세우기도 하고, 문화면에 있어서 대전극장(大田劇場)과 공주극장(公州劇場) 등을 세우는데 투자를 한다. 1920년대에 와서는 대전의 토지를 대량 매수하고 1932년에는 부가 절정에 달해 충남의 중심을 공주로부터 대전으로 옮기는 것을 주도한다. 《동우수집》의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작성 된 것이 바로 이때였고, 문집 중 수많은 유명인사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데서 자수성가한 김갑순이 부를 이루게 될 결정적인 계기는 넓은 인맥이었음을 알 수 있다.[2]

본고에서는 《동우수집》의 형태 서지 및 내용에 포함된 김갑순의 특정 사건에 관하여 당대 소설과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자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1]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2011, 127면.
[2] 이 단락에 관한 내용은 이용선, 《조선거상》 동서문화사, 2005, 651~712쪽 참고.

2. 형태 서지

《동우수집》은 중앙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계명대학교, 사우당종택, 춘호재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동우수집》은 연인본(鉛印本)이고, 파란색 책갑이 존재하며 책갑의 측면에는 '東尤壽集'이라는 표제를 하얀색 종이로 덧붙였다. 책의 표제는 □東尤壽集 全」인데 상하 2권 1책으로 되어있다. 책의 장정형태는 선장(線裝)이고 크기는 세로 25.2cm, 가로는 18.2cm이며 반곽(半廓)은 세로 21.2cm, 가로는 13.8cm이다. 판본의 형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12행 27자이며 본문의 개별 행에는 계선이 있다. 총 206페이지로 김갑순의 전신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동우수집》의 표지

3. 《동우수집》의 내용

《동우수집》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는데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수첩(壽帖)에 관한 서문, 수집(壽集)에 관한 서문, 자서(自敍), 범례(凡例), 투고를 한 인사들의 방명록이 수록되어 있고, 상권에는 상권에 대한 서문(序文), 투고자들의 짧은 글(文), 긴 글로 된 여문(儷文)이 있으며, 하권에는 송(頌), 발(跋)문 및 부록이 있다. 목록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내용개요

東尤壽帖序

김갑순이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육군의 군수에 임하면서 교육에 힘쓴 공적을 칭송. 서하(西河) 임간재(任艮宰)가 쓴 것이다.

東尤壽集序

김규환(金閨煥)이 쓴 것으로서, 김갑순이 땅을 개발한 공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다.

自敍

김갑순의 자서(自敍)로서,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凡例

문집의 구성과 형식, 투고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東尤壽集 卷上 投稿諸先生芳名錄

상권에 수록된 문장의 저자들의 이름과 해당하는 쪽수를 나열한 것이다.

東尤壽集 卷下 投稿諸先生芳名錄

하권에 수록된 문장의 저자들의 이름과 해당하는 쪽수를 나열한 것이다.

상권

文

민영휘가 서문을 쓰고, 대체로 자신들과 김갑순의 관계를 피력하고 김갑순의 공적을 칭송한 것이다.

儷文

변려문의 형태로써 쓴 축사이다.

하권

頌

송, 사, 사언시, 오언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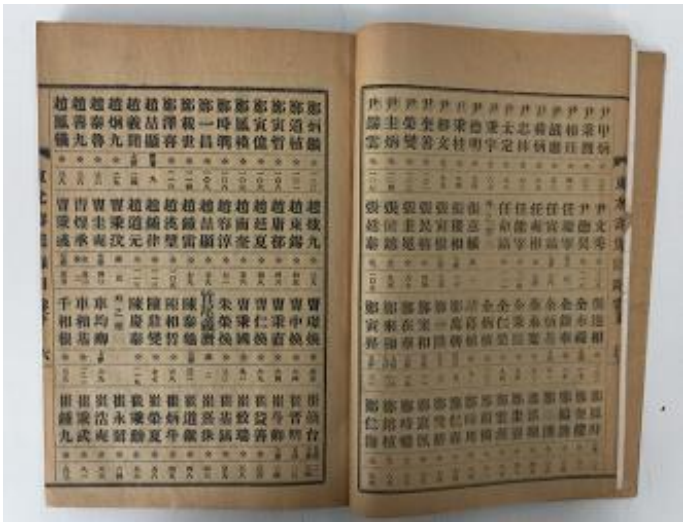
跋

간행의 경위를 적은 글들이다.

附錄

축사의 발기문, 선정비 등에 관한 내용.

축사를 보내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법원판사, 군수, 중앙관리 그리고 유명한 유생들이 있고 심지어 만주국의 일인 관리들도 포함된다.



방명록 부분

축사를 받을 무렵 김갑순은 대전을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충남의 중심을 거기로 옮겨가려 하려 했다. 따라서 축하 시문을 보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지방 유지들의 뒷거래 정치 혹은 이를 위한 줄서기와 편짜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3]

한편 흥미롭게도 책 속에 끼어 있는 정오표와 두 구절의 시가 적혀 있는 별도의 얇은 종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정오표 및 별지

위의 사진에서 제시하듯이 얇은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귀는 아마 축사를 보내온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이 축사들을 모은 문집은 비록 발행의 형식을 취했지만 발행의 목적은 각 지인들의 개인소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책에 비교적 정교한 정오표가 별지의 형식으로 붙어있고, 또한 책에 값비싼 책갑을 사용

[3]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9년 여름》,역사비평사, 1999, 29쪽.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얇은 종이의 시구는 문집에 수록된 축사 중 하나의 원본일 수가 있고, 이 시를 지은 주인이 이 책을 소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별지는《동우수집》의 유통경로를 추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

4. 자료적 가치-당대 소설과의 관계

앞서 말하다시피 김갑순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뉘는바, 선정을 베푼 수령이면서도 학정을 한 관료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김갑순의 행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선정비'의 수립과 '만인산'의 제작이다《동우수집》에서도 여러 차례 '만인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만인산'의 풍속은 일종 수령의 '선정(善政)'에 대한 현창의식으로서 '생사당(生祠堂)'이나 '선정비(善政碑)' 등 일반기념물과 같은 것인데, 19세기 말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4] '만인산'은 "만 사람이 일복하여 그 한 사람을 머리에 이고서 하는 뜻으로 빛나고 값진 비단으로 일산을 만들어 애민선정의 공덕을 삭이고 그 아래 만 사람의 성명을 열록하는 것"[5] 이고 "국초 이후로 청백리가 몇몇이 되지 못하고 청백리라고 모두 만인산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이는 애민여자(愛民如子)하는 인덕이 백성의 뇌수에 저진 연후에야 비로소 얻는"[6] 것이다. 그것인즉 만민산은 철저히 인민의 소원을 담은 존재이며 설사 수령이 만인산을 받았다 해도 그 '선정'의 여부는 면밀히 따져야 할 문제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갑순과 '만인산'과의 진실은 과연 어떠한가? 흥미로운 것은 김갑순의 '만인산'사건과 당대의 소설이 일종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갑순과 '만인산'에 관한 문제와 함께 주목해볼 것은 이해조의 소설 <만인산>[7] 이다. 소설 <만인산>은 돈으로 관직을 매수한 한 지방의 양반의 몰락을 담은 이야기다. 주인공 한주사는 아첨과 뇌물로 민판서를 매수하고 흉계로써 김국장을 몰아내고 내부지방국장에 임하게 되었으며 후에 밀양군수로 부임하고 고을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한편 서울의 상관에게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 강제로 백성들에게 '만인산' 을 내라고 한다. 나중에 한주사인 백성수탈의 공범인 해주집의 배반과 다시 돌아온 김국장의 탄핵에 의해 재판소로 소환된다.

(해) 저런 얼바람 맞은 위인 보아. 만인산만 태산 같이 믿는구먼. 만인산이라는 것이 백성의 마음에서 그 원 사랑하는 생각이 절로 나서 다투어 출연을 하여 만들어야 말이지, 조항장 오서기 등을 사면 내여 놓아 위협으로 백성의 돈을 빼앗아 쓰기 싫다는 성명을 강제로 열록한 그것이 만인산이야 원인산(怨人傘)이지

[4] 구완회, 「수령에 대한 현창의식의 전개와 19세기 말의 「만인산(萬人傘)」」, □경북사학□21, 1998 참고.
[5] 이해조(1912), <만인산>, 동양서원, 19면.
[6] 위의 책, 19면.
[7] 「만인산」은 1909년 7월 12일부터 1909년 8월 18일까지 31회 분량으로 □대한민보□에 연재된 후 1912년 1월 20일 동양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연재 할 당시에는 '백학산인(白鶴散人)'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가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저작겸발행인은 민준호로 된다.

(한) 춘추필법(春秋筆法)을 가진 각 신문에도 나의 선치한 행정을 칭도하였고 일도성찰(一道省察)하는 관찰사도 나의 선치한 행정을 포장하였는데 네 아무리 되지 않게 떠들기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구나.

한주사는 '만인산'을 얻어내는 과정과 자신의 '선치한 행정'이 각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 신문 매체를 지시하는 것은 이해조의 다른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데 <홍도화>에서 주인공 태희가 당시 실존했던 《제국신문》의 논설을 언급한 것이 그 중의 한 예이다. '만인산'의 행적은 일찍 1884년에 《한성순보》를 통하여 기사화 된 적이 있다.[8]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일을 옮겨 적은 것이지만 '만인산'의 피수여자의 공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는 대목은 '만인산'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후로도 '만인산'에 관한 기사는 각 신문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었다. 대체로 조선 고을의 어떤 군수가 인민에게 '선정'을 베푼 것이 확실시 되어 '만인산'을 받았다는 한편 어떤 군수는 그 행적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만인산'의 수여가 유보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9]

이해조는 소설창작에 있어서 '실지사적'과 허구적 서사를 결합시키는 것을 고취했는데[10] 잠상태」를 시작으로 쉴 틈 없이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하여 '실지사적'의 취재는 현장에서부터가 아니라 신문이거나 잡지의 기사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만인산>에서 이해조는 한주사의 입을 통해 신문을 언급하였다는데서 <만인산>에 대한 취재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관하여 주목해볼만한 것은 1907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공주군수 김갑순(金甲淳)에 관한 기사이다. 김갑순은 군수로 있는 동안 부랑배들과 함께 백성들의 돈 몇 백 냥을 수탈하여 '만인산'을 몰래 만들게 한 후 서울에 보냈는데[11], 나중에 군민 유익정(柳翼禎) 김갑순의 악행을 정부에 고발했고 정부는 이에 정부를 기만한 죄로 깁갑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12]

---

[8] "方軍門이 홍콩에서 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유지들은 작은 배로써 연도에서 炮竹을 터뜨릴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박수와 환호로써 이별하면서 急水門에까지 와서야 마침내 고별했지만 유지들은 그래도 연민의 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며 저녁 늦게야 夜火船을 타고 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萬民傘을 선물하여 그의 공덕을 칭송하고 영원히 잊지않겠음을 보여주었다.듣자하니 방군문이 이번에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은 실지로는 陳觀察과 中軍將이 곁에서 잘 도와줌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다.",「各國近事」, 《한성순보》, 1884.7.23.

[9] 「權氏繡傘」, 《대한매일신보》, 1907.

[10] 이해조, 「화의 혈」, 《매일신보》, 1911.4.6.

[11] "公州郡守 金甲淳氏가 該郡人民에게 暗囑 야 錢 幾百兩을 出給 고 萬人傘을 製造 라고 京城에 暗送 야 該傘을 製飾 얏 該觀察道에셔 其根因을 知得 고 幹事 든 人民을 盡爲捕捉 야 方今 牢囚中이라고 南來人의 傳說이 有 더라",「囑民繡傘」, 《대한매일신보》, 1907.4.16.

[12] "公州郡守 金甲淳氏 行政事務를 何以處辦 지 不知 거니와 一邊으로 善治守令이라고 萬人傘을 內部에 繡呈도 며 一邊으로 貪虐郡守라 야 諸般 虐政을 臚列請願 日前에 該郡 居 柳翼禎氏가 內部에 請願 기를 該郡守 學識이 蔑如 고 全沒治體 며 所歷州郡에 暗囑雜類 야 做得萬人傘이 卽其伎倆에 斂括民財 고 欺罔政府之計인 바 日本人 眞田의 訴狀을 因 야 本人의 長姪 錫奎의 家舍及田畓 三萬金價値 되 거슬 自官으로 執行歸決 고 歇價放賣 야 仍作己物 니 豈不寃抑乎아 移照法部 야 押上質判後에 一毫라도 如有爽實이거던 反坐之律을 卽施 더 도 少勿後悔오니 査照處辦 라 얏더라",「誰恃萬人傘」, 《황성신문》, 1907.6.19.

하지만 얼마 뒤에 게재된 기사[13] 에 따르면 김갑순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공적에 대한 칭송과 함께 '만인산'을 수여한다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비록 공모자들인 부랑배들은 투옥되었지만 정작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 김갑순은 정부의 조사와 군민의 탄핵으로부터 무사했다는 것은 당시 양반을 위수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공동체가 그 때까지만 해도 굳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갑순의 사건은 마지막 결말만 빼면 <만인산>의 서사의 큰 틀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해조의 <만인산>은 이 사건으로부터 취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인산>이 연재된 것은 1909년이다. 즉 김갑순 사건이 일어난 뒤였다. 따라서 이해조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만인산>의 내용은 실제사건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실지사적'을 중요시했던 이해조가 '만인산'사건을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관하여 소설이 실린 《대한민보》 및 대한협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 <만인산>의 취재원인 김갑순 사건이 일어날 무렵, 《대한매일신보》에는 논설의 이름으로 서양 및 일제의 문명담론과 식민지적 한국상에 대해 실려 있었는데, 그 중 한국 전통풍속인 '만인산'에 대한 언급[14] 이 있었다. 그것인즉 우선 한국은 반개화 된 나라이고 한국사회는 부정적인 것인데 마땅히 서양문명의 논리를 따르고 우매한 풍속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한국 문명의 실태를 '식민지 지배'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무렵 <만인산>이 연재된 《대한민보》의 발행기관인 대한협회도 친일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근대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는 문명국이 야만국을 문명화기 위한 것이라는 문명론적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어 일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논리와 아울러 한국 지배층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한국사회의 쇠퇴와 혼란이 지배층의 오랜 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지배층의 부패척결은 정치적 측면으로서 한국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일본의 문명지도론에 대응해 대한협회가 표명한 정치적 입장은 보호국의 지위에 놓인 한국의 국권회복에 있어 일본과 같이 문명개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을 이상시하였다. 하지만 대한협회는 개화된 독립국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의 한국은 미개한 보호국임을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5]

---

[13] 惟我本郡郡守 金甲淳氏가 莅任半載에 治蹟上優異 條目이 如左 오니 僉君子 照亮 시옵一 葉七千餘兩을 自當 야 一郡戶布을 半減 이요一 昨年 潦水에 溳死人과 漂頹戶을 一一摘奸 야 朝令恤下以前에 幾千金을 派給 야 使之結搆케 고一 成川과 灾處을 躬審查報 야 一無寃徵케 이요一 邑下六洞의 白米 十餘石을 捐出 야 春窮을 救濟 이요一 今當小旱에 富民과 市民穀價을 高登코자 야 一升을 不賣 니 民情嗷嗷 際에 白米 數百石을 本時價에 每石頭十兩式을 特減出賣 야 市直을 不登케 이요一 惠澤洋溢 며 辭訟이 簡嚴廉直 기로 郡內大小人民이 萬人傘을 繡出 야 誦德코자 되 再三 讓退 매 頌聲溢境 니 不勝感荷 야 玆에 仰佈 公州郡內民人李廷稙 朴永壽尹相吉 金平淳

「惟我本郡郡守 金甲淳氏가 莅任半載에 治蹟上優異 條目이 如左 오니」, 《황성신문》, 1907.7.5.

[14] "夫官吏와 人民間에 各其義務와 權限이 自在 니 惟是各守其法律 며 各修其職分 야 盡其愛國之責任而已라 若其民或有凌犯之習이거나 官或有侵奪之弊者면 其獲罪於國律이 一也라 且韓國之俗에 有可怪可笑之事 니 官吏가 有善治云者면 所謂不忘碑니 萬人傘이니 許多文飾이 出於民力 니 設或官吏의 實惠實蹟이 有 지라도 不過自修其職分이라 有何救世濟衆之大功德 야 若是其稱揚紀念耶아", 「對官吏貪虐 야 欺國民昧弱」, 《황성신문》, 1906.10.10.

[15] 이 단락의 서술은 함동주, <근대적 한국상의 창출과 제국지배-대한협회를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지식의

따라서 아무리 민족과 계몽을 표방한《대한민보》라 할지라도 일제의 감시 하에서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였고, 이해조가 부패한 관리의 형상을 형상화한 것은 겉으로는 예리한 사실적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대한협회가 표방하는 일제의 문명론에 입각하여 실제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해조가 <만인산>을 쓴 것은 '실지사적'을 객관적으로 재현하여 진정한 풍자소설을 창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식민담론에 편승된 모습일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해조가 김갑순 사건을 왜곡한 것은 그가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식민담론에 포섭된 것이라면, 반대로 《동우수집》에서의 '만인산'에 대한 언급은 모두 앞서 제시한 신문기사의 진실을 떠난, 찬양으로 가득 찬 자기왜곡이라는 것이다.

且公之治郡萬傘之繡五銙之歌所過南州遺蹟尚存如濟窮拓荒興學育英其所以慈善公益無不盡瘁(김갑순 자서)

김갑순의 자서와 마찬가지로 문집 중 대부분의 '만인산'에 대한 언급은 모두 김갑순의 선정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당대의 기사, 심지어 허구적 소설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갑순의 《동우수집》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의 인적관계 및 교우관계를 아울러 '만인산'이라는 모티프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를 포함한 당시 유명 인사들의 친일행적, 나아가 근대 문학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5. 결론(생략)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하겠습니다.)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2007, 225~254면을 참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내용

김정우

(이화여자대학교)

1. 여는 말

21세기에 들어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상호문화interculture'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닌 듯하며, "획일화를 동반하는 급격한 세계화(globalization) 경향에 대한 경계심과 이와 연관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박인철, 2011)한 세계적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21세기에 들어 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등 빠른 속도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 변화 가운데 최근 '상호문화'와 그 교육에 관한 여러 연구들[1]이 활발하게 이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가운데, 상호문화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다소간의 혼란이 있고, 학습자의 상황, 교육의 목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을 어떻게 구안할 것인지의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상호문화,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 역량 등에 대해 점검하고 쟁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필요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어 왔지만, 문화는 대략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특성, 가치 판단의 경향이자 행동의 방식"이라고 그 개념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집단'은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사회로 보면 여러 종류의 문화가 있을 수 있으며, 한 개인은 여러 층위에서 다르게 범주화되고 규정되는 문화 속에서 여러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BTS를 좋아하는 여성 고등학생과,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

[1] 대표적인 연구로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김혜숙 외(2016),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모습과 쓰임; Huang(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김혜민(2015),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영지(2016),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접근법 적용 방안 연구; 안희은(2015),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김예슬(2017),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으며 가수 조용필을 좋아하는 대구 한 고등학교의 남성 교장 선생님을 비교하면, 성별, 지역, 종교, 세대, 사회적 지위, 선호 음악 등에 따라 여러 층위의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는 작지 않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국면에서는 동질집단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의 관계를 상정할 때이다.

언어와 국적 또는 민족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의 경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기준이다.[2] 56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EU, 유럽으로부터 온 백인 이민자들과 이후 기존의 아메리카인디언들, 그리고 뒤이어 합류한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의 혼합체인 미국, 그리고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 그 양상은 대륙이나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 다문화사회'와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어(母語)에 더하여 영어, 그리고 그 이상의 언어들을 배우며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실제 세상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허구 속에서 이 접촉은 점점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가 단위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일상적인 '개인 단위 다문화 경험' 속에서 현대인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 즉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때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기능의 신장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이제 여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원활한 외국어 의사소통을 기본 목표로 삼는 가운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역량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안의 다문화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은 자신과 상이한 문화와 접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개인 또는 집단의 대응은 그 방식이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우선 다른 문화를 접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최대한 자신의 문화로 변화시켜 동화하려고 하는 양상이다. 이와 달리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신의 문화와 병존하는 양상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되,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

[2] 현실적으로는 문화의 경계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언어와 국적 또는 민족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언어권 내에도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한다. '문화'를 고찰할 때 이 강력한 기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한 개인의 인권과 그의 정체성은 그를 규정하는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또 언어와 국적 또는 민족 사이의 차이를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다. '상호문화'의 이 '상호'를 언어 간, 또는 민족 간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고정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문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다른 문화를 대할 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로 대하는 문화 인식(culture awareness)에서 조금씩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문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인류는 변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 일시적 후퇴와 반발이 있더라도 - 장기적으로 지속, 강화될 것이다.

3. 상호문화: 낯선 두려움에서 성찰의 거울로

미국에서는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동화주의(assimilation)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둔 움직임, 즉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등장하여 미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들의 차이를 강조하고, 소수 문화의 고립을 낳게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태적인 '공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에서는 문화의 '상호작용'에 강조점을 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장한업, 2014)

상호문화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류의 철학이다. 한국에서 '상호(相互)'라고 번역하는 'inter-'라는 말에는 이미 결정된 자신의 특성, 타인의 특성이라는 고정된 상태 대신 타인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작용, 교류, 유대, 움직임을 포괄하는 변화, 그리고 그 과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Abdallah-Pretceille, 2010: 65-75)

그런데 이때의 변화는 말 그대로 '상호적'이어야 한다. 외국어교육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게 하는 교육을 시행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학습자가 타 문화와의 접촉을 계기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냉정하게 살피고 돌아보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상호성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조장(鳥葬)'의 풍습을 지켜 보게 된 한국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감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티베트 드넓은 평원에 가서
사십 대 여인의 장례를 지켜보았다.

라마승이 내장을 꺼내어 언저리에 뿌리자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달겨들더니 삽시에

머리카락과 앙상한 뼈만 남았다, 다시
쇠망치로 뼈를 부수어 밀보리와 반죽한 것을
독수리들이 깨끗이 먹어치웠다, 잠깐이었다.

포식한 독수리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의식은 끝났다, 그렇게 여인은 허, 공에 묻혔다
독수리의 몸은 무덤이었다 여인의
영혼은 무거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로 돌아갔다, 독수리의 날개를 빌려 타고
처음으로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을 게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는 유족들은
울지 않았다, 침울하지 않았다, 평온했다
대퇴골로 피리를 만들어 불던 스님의 표정도
경건했다, 믿기지 않았다
살아생전 못된 놈의 시신은 독수리들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럴 때만 슬퍼한다고 했다.

언덕길을 내려오다 들꽃 한 송이를 보며
문득 죽은 여인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평원의 풀과 나무들도, 모래알도, 독수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꾀죄죄한 소년들이
허리를 굽히며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다.

삶과 죽음이 한통속이었다.

– 김선태, <조장(鳥葬)>,《살구꽃이 돌아왔다》, 창비(2009)

시의 화자는 '조장(鳥葬)'의 과정을 비교적 감정 없이 묘사하려 애쓴다. 그렇지만 유족들의 평온과, 스님의 경건함을 쉽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믿기지 않았다'라고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 육신을 중시하지 않고, 윤회를 믿으며, 이생에서 쌓은 업보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슬픔은 다른 곳에 있다. "살아생전 못된 놈의 시신은 독수리들도 /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 그들은 그럴 때만 슬퍼한다고 했다."

매장(埋葬)이든 화장(火葬)이든 결국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시간을 살고 형태를 달리하여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지만, 조장(鳥葬)은 망자의 육신이 다른 생명의 '밥'이 되는 것을 그의 죽음 직후에 주위 사람들이 목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낯섦을 느끼게 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망자와의

이별 방식이다. 이러한 장례의 풍속 앞에서 이들의 문화를, 쉽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며, 다문화주의의 출발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공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장(鳥葬)의 풍속을 보고 난 화자는 들꽃 한 송이, 풀, 나무, 독수리,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 그리고 꾀죄죄한 소년들의 구걸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마련된 '타 문화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춤으로써 자신의 삶과 생각, 가치와 행동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Waldenfels(1997)에 따르면 "타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친숙한 개념이나 계획들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 언급함"을 뜻한다. 이때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이질적인 타 문화의 체험 속에서 자신의 문화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타 문화에 속하는 것도 아닌, '상호문화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호문화적 현상, 또는 그 '상호적 공간'과 '상호적 시간'은, 타 문화가 가져다 준 충격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의 맥락에 맞게'라는 조건과, '나(의 문화)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조건을 융합하여 '해석'함으로써만 생겨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4.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는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지만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은 결국 '의사소통적 접근(communicative approach)'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정된 문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및 맥락과 연결되는 총체적인 문화 양상으로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역동성과 가변성이 강한, 살아 있는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강현화 외, 2010: 32) 이른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을 거치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종적으로 유사하며, 사상과 종교를 유사하게 수용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의 이질감이나 낯섦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에는 혼란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으며,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의 형태로 맞선 역사도 있었다.

문화는 과거와 현재, 즉 being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변화 즉 becoming의 문화 역시 중요하다. 다른 문화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유사함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어 교육 속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태도의 함양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와 나의 문화 간에 상호문화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차이에 어떤 위계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박인철, 2011: 82)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낯선 것은 그 자체로 혐오나 무시,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부정적 감정은 곧 타 문화를 미개하거나 열등한 것, 또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의학적으로 명백히 비위생적이거나, 과학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일들,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의 행위들이 '문화'의 이름 속에 버젓이 자행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도 한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비합리적이거나 반인권적 상태를 숱하게 겪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문화 간 우열이나 위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 문화를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행위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상호문화교육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함양하고, 이러한 태도에 바탕을 둔 유연한 문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태도의 형성이 바로 다른 교육 내용의 전제이자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4.2. 해석 그리고 변화의 경험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한국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해석하는 기술(skill)을 배우고, 그 경험을 의미 있게 축적해 가야 한다. '대화의 철학자'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폴 리쾨르는 성서 해석학으로부터 텍스트 일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상징과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그의 학문 여정의 끝자락에 《번역론 *Sur la trauction*》(2004)이라는 저서로 두 문화 사이를 오가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눈 여겨 볼 만한 통찰을 남겼다. 여기서는 리쾨르의 《번역론》으로부터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외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번역은 "수용 언어의 독특한 자원들과 원래 언어의 독특한 자원들 사이에서 최적의 공약가능성을 탐색"(Ricoeur, 1995: 5)하는 일로서, 원래 언어와 수용 언어가 상호 존중되는 것(김정현, 2009: 101)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번역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리쾨르에 따르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다. 번역은 도처에서 번역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은 특히 시를 번역하는 경우 더욱 절망적인데,(Ricoeur, 2006: 78) 그러나 자국어와 외국어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완벽한 번역이라는 이상'을 포기한 후, "외국어와 모국어 사

이를 끝없이 왕래"(Ricoeur, 2006: 88)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하지만, 이 '합치 없는 등가'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번역의 불가피함으로 인정하고 나면 "저자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과 저자를 배신했다는 의심을 감내할 용기"가 생겨나면서 '번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번역은 두 언어, 두 문화의 '사이'를 무한히 오가며 "이국의 언어를 환대"하고, "타자의 언어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래 텍스트와 번역의 결과물 사이의 '동일성'은 번역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추정된 등가성' (Ricoeur, 2006: 116) 정도가 번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원문이 번역문으로 100% 옮겨졌다고 확인할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오역의 방패가 되어 주어서는 물론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번역은 언제나 완벽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의 차이, 완벽하게 전환될 수 없는 차이의 공간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3]

번역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문화의 앙상블이다. 리쾨르는 이러한 텍스트를 번역해야 하는 번역가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번역가의 과제란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텍스트로, 문화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번역가는 폭넓은 읽기를 통해 한 문화의 정신에 깊이 침잠하면서 텍스트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끝으로 단어 차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Ricoeur, 2006: 137)

리쾨르의 이 언급은 상호문화적 한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해석'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국어 텍스트를 번역할 때, 텍스트의 개별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다른 언어에서의 의미로 바꾸어 파악하고, 그 단어들의 결합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후, 그 문장들의 결속체인 텍스트를 번역한다. 단어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텍스트로, 그 다음 문화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번역 방식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리쾨르는 그것을 반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어로부터 쌓아 올리는 번역은 양국의 단어들을 대역(對譯)한 사전을 앞에 놓고 단어들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하여 제거하면서 점차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일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말한 "끝없는 왕래"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향으로의 '추정된 가능성' 속에서 어렵지만 행복하게 새로운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지평의 확대를 이루는 대신, 살은 발라지고 난 후의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원본과 유사하다고 애써 주장하는 빈약한 결과물만을 얻게 될 공

[3]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같은 언어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의 말을 다르게 알아듣는 일도 다반사요, 한 작품의 의미를 다르게 읽어 내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산이 크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그동안 주로 의식주에 대한 정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정보, 성취문화/행동문화/관념문화 범주의 하위 목록, 그리고 예술 문화와 한국 문학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편적 지식 형태로 정리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해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상호' 문화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은 어떤 문제 상황이나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최대한 모아 비교하면서, 한국 문화의 폭과 깊이를 최대한 경험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섣불리 하나의 답을 확정하려 하기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이국의 언어를 환대'하는 동시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이 새로운 언어/텍스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4.3. 적용: 정지용과 戴望舒

앞에서 살펴본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지용의 <鄕愁(향수)>(1927)라는 시를 접한 중국인 학습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2018년 현재, 인터넷 검색을 통해 '郑芝溶'의 <乡愁>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이 시의 중국어 번역본을 소개하고 있어서, 검색자는 아마도 한국어 원문보다 중국어 번역본을 더 먼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 이 시와 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즉 1902년생 정지용 시인이 1923년 일본 유학을 앞두고 이 시를 썼다는 전기적 사실에서부터, 이 시가 현재 한국에서 매우 널리 알려진 노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1935년 《정지용 시집》에 수록된 <鄕愁>는 다음과 같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ㅅ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鄕愁>

함부로 쏜 활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현대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띄어쓰기 등 한글 사용 규범 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해가 쉽지는 않은 시이다. 그렇지만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어 단어와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면, 제목과 시의 부분부분을 통해 시 속의 '나'가 고향의 여러 장면을 열거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내고 있는 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을 한다면, <鄉愁>가 고향을 노래하는 외국의 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고향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서 중국 문화 속에서는 '고향'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또 그 작품 속에 마련된 고향으로부터 어떤 의미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연계하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호문화적 시간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 또 해당 외국어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중국의 근현대시에 관심이 많았던 중국인 학습자라면 '향수'라는 제목, '고향'을 나타내는 소재로 쓰인 '아버지', '누이', 가족들의 '도란도란' 거리는 대화, 그리고 '사철 발 벗은 아내'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래 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村里的姑娘静静地走着,
提着她的蚀着青苔的水桶；
溅出来的冷水滴在她的跣足上,
而她的心是在泉边的柳树下。

她将帮助她的母亲造饭,
而从田间回来的父亲将坐在门槛上抽烟,
她将给猪圈里的猪喂食,
有将可爱的鸡赶进它们的窠里去。

这姑娘会静静地走到她的旧屋去,
那在一棵百年的东青树荫下的旧屋,
而当她想到在泉边吻她的少年,
她会微笑着，抿起了她的嘴唇。

在暮色中吃晚饭的时候,
她父亲会谈着今年的收成,
她或许会说到她的女儿的婚嫁,
而她便将羞怯地低下头去。

她将走到那古旧的木屋边,
她将在那里惊散了一群在啄食的瓦雀,
她将静静地走到厨房里,
又静静地把水桶放在干刍边。

她的母亲或许会说她的懒惰,
(她打水的迟疑便是一个好例子，)
但是她会不听到这些话,
因为她在想着那有点鲁莽的少年。

— 戴望舒, <村姑>

이 시는 1931년 10월, 시인이 프랑스로 유학 가기 1년 전에 창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총 6연으로 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나 추억 속에 있음직한 고향의 모습과 삶을 서정성 넘치게 묘사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안식처인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다. 평화로운 시골 저녁을 배경으로 맨발로 물 긷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모습과 그 처녀가 사랑에 빠진 심정,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경을 그려내어 시골 고향 집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석양 아래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 구성원의 모습은 화목하고 평온해 보인다. 순수의 공간으로서 고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합일, 그리고 화목한 가족과의 애정 어린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이다. 이 시에 그려진 전원 속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켜보는 시적 화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꿈꾸는 이상향이 소박한 전원, 고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김희진, 2012: 201)

<鄕愁>의 "해설피 금빛"과 유사한 저녁 묘사가 <村姑(시골 처녀)>에도 있고, "사철 발벗은 아내"와 같이 시골에 있는 여인의 순박함을 맨발로 표현한 것, 그리고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가족의 공간을 <村姑>에서도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편의 시가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고향'에 대한 인식이나 관습적 상징 같은 것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鄕愁>에는 구체적으로 '나'가 등장하여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과거 자신이 쏜 화살을 찾는다. 그리고 <村姑>의 아버지는 가족과 집안 대소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만 <鄕愁>의 아버지는 대화라고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기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언뜻 유사해 보이는 여성의 맨발이 <鄕愁>에서는 조혼(早婚) 후 일찍 고향을 떠나 온 남자의 입장에서 홀로 고생하고 있을 아내의 힘든 현실을 상징하는 쪽에 가깝다면, <村姑>의 '跣足'은 대지의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맨발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두 언어와 문화 사이의 유사함과 다른 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다른 쪽의 문화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는 지점을 확인하는 한편, 두 텍스트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호문화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번역'은 그 문제를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정지용의 <鄕愁>의 경우 중국 포털사이트를에 올라와 있는 여러 편의 중국어 번역본 가운데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세 편을 골라, 1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叽叽咕咕，说着故事的小溪

朝其中原东端绕回，

斑点的黄牛

慢吞吞叫着金色懒洋洋的喉咙，

— 这是我梦中也丢不开的地方。 (ttps://www.sohu.com/a/118502392_534767, 许世旭 译)

[2]

朝着东方一望无垠的原野尽头

涓涓溪水蜿蜒在古老故事的脉络里，

斑斑驳驳的黄牛

在落日的金辉里慵懒哞叫的地方，

– 这方热土又怎能遗落在梦里? (https://kr.hujiang.com/new/p426660/)

[3]

向着广袤原野的东端

潺潺的溪水在老故事里回旋，

长着斑纹的黄牛

在日落时分的金光中懒洋洋地叫唤，

—这样的地方怎么可能被遗忘在梦中。 (http://www.ryedu.net/hy/hlf/201007/19214.html)

[1]은 한국의 중문학자 허세욱 교수의 번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2]와 [3]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비교해 보면 '지줄대는', '실개천', '회돌아나가고', '게으른 울음' 등 1연의 여러 시어에서 중국어 번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叽叽咕咕'를 사용하여 번역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지줄대는'을 '재잘재잘', '조잘조잘', '지줄지줄'과 같은 한국어의 음성상징어와 가깝게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첫 구절에 독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2]에서는 그 부분을 굳이 명료하게 강조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에 대해서도 '나'를 노출할 것인지, 원문처럼 감출 것인지, 또 '잊힐리야'를 어떤 동사로 바꿀 것인지 등의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언어 문화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정지용의 <鄕愁>를 접하고 떠올렸던 戴望舒의 시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중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흥미롭게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1~2연만 살펴본다.

村里的姑娘静静地走着,
提着她的蚀着青苔的水桶；
溅出来的冷水滴在她的跣足上,
而她的心是在泉边的柳树下。

这姑娘会静静地走到她的旧屋去,
那在一棵百年的东青树荫下的旧屋,
而当她想到在泉边吻她的少年,
她会微笑着，抿起了她的嘴唇。

— 戴望舒, <村姑> 1연과 2연

[4]	[5]
시골 아가씨가 조용히 걸어가네, 푸른 이끼 낀 물통을 들고서; 차가운 물방울 튀겨 맨 발 위에 떨어져도, 그녀 마음은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에 있네 아가씨는 조용히 그녀의 낡은 집으로 갈 거라네, 백년 묵은 감탕나무 그늘 아래의 낡은 집으로, 우물가에서 도련님과의 입맞춤을 떠올리고, 그녀는 미소지으면서, 자기 입술을 오무릴거라네. (김희진, 2012: 200)	시골 처녀는 조용히 걷고 있다, 이끼 낀 물통을 들면서; 튀어나온 차가운 물방울이 맨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이 샘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있다. 처녀는 조용히 그녀의 낡은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년의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낡은 집으로. 샘터에서 그녀의 볼에 입맞춤을 했던 소년이 생각날 때, 처녀는 입을 약간 오므리고 가볍게 웃을 것이다. (朱曼曼, 2017: 93-94)

[4]에서 종결어미로 "-네" 를 사용하고, '村里的姑娘'를 "시골 아가씨'로, '少年'을 "도련님"으로 번역하였다면, [5]에서는 종결어미로 "-다" 를 사용하고 '아가씨' 대신 "시골 처녀"로, '少年'은 그냥 "소년"으로 번역을 하였다. '詩'라는 텍스트의 관습과 특성을 손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종결어미 '-다' 대신 외국시 번역에 흔히 쓰이는 '-네'를 쓰는 것이 편한 방법이다. 종결어미로 '-네'에는 '감탄'의 의미와 '혼잣말'의 기능이 담겨 있어 1인칭의 서정을 담아 내는 데에 적격이다. '-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시적 여운과 운율감이 느껴지는 것은 오랫동안 시의 어미로 사용해 온 관행과 문법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조롭게 그 어미만을 사용하면 곧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편의 시 안에서도 행과 연의 종결을 보다 자유롭게 마칠 필요가 있다.

[4]와 [5]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아가씨'와 '처녀', 그리고 '도련님'과 '소년'의 차이이다. '시골'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쓰일 때, '아가씨'라는 말과 '처녀'라는 말은, 둘 다 미혼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을 준다.[4] '아가씨'에 대한 사전 풀이에 세 번째 뜻으로 "예전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표준국어대사전)이 남아 있기도 하다. 명확하게 경계를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골 아가씨'도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골 아가씨'보다는 '시골 처녀'라고 할 때 조금 더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원형과도 같은 고향을 환기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원문의 '少年'을 '도련님'으로 번역한 데에도 각각 '처녀 – 소년'보다는 조금 더 귀하거나 높임의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로 짝을 맞추어 '아가씨 – 도련님'의 짝을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굳이 '-네'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운문성을 표나게 구현하는 번역을 하지 않았던 [5]에서는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처녀 – 소년'의 짝을 번역의 결과로 내놓았다.

[4] 이영범(2002)에서는, 뿌쉬낀이 러시아 원어로는 구별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귀족 아가씨–농사꾼 처녀≫와 같이 '아가씨'와 '처녀'를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아가씨'는 귀족, '처녀'는 '농사꾼'에 연결된 것이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요, '귀족 처녀 – 농사꾼 아가씨'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현대 한국인 화자에게는 '귀족 아가씨 – 농사꾼 처녀'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듯하다.

이상의 대비와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중국인 학습자라면 정지용의 <鄕愁>와 戴望舒의 <村姑> 두 편을 계기로, 비슷한 시기의 '농촌'과 '고향'이 가지는 의미의 유사함과 차이점, 그리고 현대에도 이 작품들이 널리 읽히는 문화 현상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시가 서로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 '시'를 시답게 만드는 관습(텍스트성)에서부터, 원문의 주어 '나' 없는 설의법 문장을 주어 및 의문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문장 단위의 문제, 또 각 어휘가 양쪽의 언어에서 가지는 미묘한 의미의 장(場)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여러 어휘 의미의 섬세한 변별을 위한 상호문화적 시공간을 확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수월한 여건, 그리고 여러 언어 간의 직역이 웬만한 수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도구적 편리함을 갖춘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 탐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해당 언어를 이루는 여러 문화 현상들에 대한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단편적 고정 지식의 상당수는 각 학습자들이 휴대전화를 비롯한 여러 기기들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그러한 지식을 교육의 장에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해질 일은 없겠으나, 향후 외국어교육의 '문화 교육'은 이제 다른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타자성의 거울을 통해 나를 성찰하며 변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지 여러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다른 문화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해석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문화교육의 본령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상호문화주의는 그동안 주로 유럽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현대 사회에서 '상호문화'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외국의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SNS 계정에 바로 댓글을 남기는 일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소통이었으나, 이제는 문자는 물론 사진과 영상으로 언어와 국경의 한계를 넘어 의미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한국어에는 '사이'라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벽과 책장 사이'는 두 사물이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고, '2시(時)부터 3시 사이'는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여기에 더하여 '선후배 사이, 허물 없는 사이, 사이가 좋다'에서 '사이'는 사람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나 정분을 의미한다. 앞에서 다른 문화와 접했을 때 만들어졌던 '상호적 공간'과 '상호적 시간'들을 가리켜, 한국어에서 매우 절묘하게 두 의미

모두로 사용되는 '사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이'는 다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nterculturalism, 상호문화주의(相互文化主義)는 이질적인 두 문화의 '사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적으로) 지속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그 사이를 통해 두 문화 간에 (관계적으로) 보다 나은 '사이 좋음'의 상태를 마련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짧은 글을 통해 상호문화적 관점의 문화교육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향후 한중, 중한 문화교육의 상호적 시공간이 더욱 유연하고 다양하게 확보되어 개인들로서는 자신의 앎과 역량을 확대하며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탐구를 지속하고, 국가적으로는 양국,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적인 '사이'를 구축하는 다양한 계기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김민호 외(2015),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Story.

김예슬(2017),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2009), 언어 번역에서 문화 번역으로: 폴 리쾨르 번역론 연구를 통한 상호문화성 성찰, 철학논총 57, 새한철학회.

김지혜(2014),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을 위한 검토: 한국어 교사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9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언어 문화 교육 방법의 탐색,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혜민(2015),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외(2016),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모습과 쓰임, 동국대학교출판부.

김희진(1996), 戴望舒 詩 文學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진(2012), 대망서 시에 나타난 여성상징분석, 중국문학연구 46, 한국중문학회.

류성준(2007), 중국 현대시와 시인, 신아사.

박남용(2012), 중국 현대시의 세계, 학고방.

박인우 외(2013), 한국의 교육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원미사.

박인철(2010), 상호문화성과 윤리: 후설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 103, 한국철학회.

박인철(2011), 이질감과 친근감: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현상학연구 50, 한국현상학회.

박재우·배도임 편역(2017) 중국 당대 12시인 대표 시선, HUEBOOKs.

박진임(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서영지(2016),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접근법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일(2017), 문학의 성찰과 문화적 이해: 독일 현대문학의 문화학적 소통, 한울아카데미.

안희은(2015),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엄한진(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대학교출판부.

오지혜(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연구: 문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유수연(2008),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한국문화사.

윤여탁(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경수(2014),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이해, 집문당.

이시활(2003), 韓·中 현대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 비교: 현진건과 魯迅, 정지용과 戴望舒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41집, 중국어문학회, 2003.

이영범(2002), 뿌쉬낀의 ≪귀족 아가씨-농사꾼 처녀≫에 나타난 변장 모티브 연구, 인문과학논집 24,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정은 외(2017), 다문화사회와 철학, 자유문고.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朱曼曼(2017), 1930년대 한중 근대시의 '도시/고향' 모티프 비교 연구: 한국 모더니즘과 중국 현대파 시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종열(2015), 문화지능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Abdallah-Pretceille, M./장한업 역(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아카데미.

Byram, M.(2013), Holmes, P. & Savvides, 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questions of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41(3)*,

Fauser, Markus/김연순 옮김(2008), 문화학의 이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Huang, LuoYing黃羅瑩(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한국문학 작품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auschert, P. & Byram. M.(2018), " Service learning and intercultural citizenship in foreign-language education",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8(3),

Ricoeur, P.(1995), "Reflections on a new ethos for Europ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21(5/6), SAGE.

Ricoeur, P./윤성우, 이향 옮김(2006), 번역론, 철학과현실사.

Waldenfels, B.(1997), *Topographie des Fremden*, Frankfurt a. M.

Waldenfels, B.(2006), *Grundmotive einer Phäomenologie des Fremden*, Frankfurt a. M.

Wierzbicka, Anna(2003),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인적사항>

김정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82-10-3294-3712

kjw@ewha.ac.kr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활용 연구

Study on the utilization of literary works in Korean education

공미희
(항주사범대)

1. 들어가기
2.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 활용에 관한 쟁점
3. 문학에서의 '묘사' 방식으로 소통하기
4. 나가기

1. 들어가기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한국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이란, 주로 언어적 요소로 사상과 감정을 교환하는 행위로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상호 의미있는 의사 전달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국어 관련 언어능력만 갖추었다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편적 언어능력이 아니라 한국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수행능력인 것이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 능력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언어능력(Lingustic Competence),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적 언어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이 그것이다. 의사소통능력 이론은, 실제 활용되지 않는 고정화된 언어능력에 대한 반발을 내포하고 있다. 문법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외국어 교육은 언어적 지식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던 외국어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언어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접근법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실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기반이 되었다. 의사소통은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모든 기능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말하기 연구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능의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현장에서 의사소통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관점을 기초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하나의 교재로서 문학 작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을 대면하는 순간, 텍스트의 내용은 이해 능력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다. 활자를 통한 읽기와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듣기, 그리고 자신의 이해한 바를 의미화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표현능력으로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상호 텍스트적 의사소통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문학 작품의 표현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최종적으로는 한국어로 자기 내면 서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 활용에 대한 쟁점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논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신윤경, 2008) 첫째는 언어모델(Language moel)로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가 발화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맥락이 제시되는 조건 하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는 문화모델(Cultural model)이다. 언어는 문화의 반영체로서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특히, 문화의 보고로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문학 작품을 교재로 활용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과 이론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실제 교육의 장에서 문학 작품은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정형화된 언어모델로 접근할 때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현장 외에 일반 학습자에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에 문학작품이 단순한 언어모델로서가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 능력 면에서 재조명될 때 문학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도 제시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명제와 문학 작품을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듯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전제 하에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며, 또한 문학 텍스트가 독자와 교감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한국어 학습자와 문학 작품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3. 문학에서의 '묘사' 방식으로 소통하기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글은 자신의 경험에서 촉발된 내면 서사와 내면 풍경이 있다. 발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창조적인 서사로서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원리가 가동될 것이며, 수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근거하여 수용처리할 때에도 어떠한 원리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는 작가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시공간의 간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간과하도 한다. 그러나 창작과 수용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도 분명 의사소통의 과정이 있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글을 만날 독자를 상정하고, 스스로 독자와의 대화 과정 및 여과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리고 독자도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작가의 의도나 정서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바흐친은 글쓰기에서 '대화주의' 이론을 통해 결국 인지 작용에 이르는 내적 대화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트가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외부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졌다면 바흐친은 텍스트 내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면대면의 대화 형식에서 보이는 즉각적 상호 피드백만을 생각한다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의사소통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읽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일차적으로는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개인적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주제로 작가와 독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의 이차적 의사소통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즉, 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경험과 상황 등의 조건들이 작품의 외부적 전제로서 상호관계를 맺는다.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 혹은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 모두가 사회, 문화, 문학적 대화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치관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결국 소통이 가지는 힘에 의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이 글에서는 묘사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시의 큰 특징으로 인식되는 것은 운율과 이미지다. 이미지를 구현해 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묘사가 있으며, 시에서 묘사는 외부의 풍경뿐 아니라 내면의 풍경도 생생하게 표현해 내는 문학적 기법이다. 시와 서사가 각자의 장르에서 가지는 묘사의 발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지에서 추출된 묘사의 방법론만을 다룬다. 묘사의 방법은 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되며,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평론집 『문심조룡』(최동호 역, 1997: 120-130)을 보면 '묘사'의 특성을 가진 부(賦)라는 양식이 있다. 부(賦)는 '사물을 길게 펴는 것(赋者铺也)'으로 '문장의 수식을 펼쳐서 문학 작품을 제작하고, 사물을 관찰하여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물을 묘사하고(體物), 마음을 토로한다(寫志)는 것이다. 묘사가 반드시 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징은 아니지만 관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학의 중요한 진술 방식이다. 물론 부가 시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시와 같은 줄기에

서 시작되었다(赋自诗出)'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사유의 기점은 하나에서 출발했다.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나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가 가진 말은 다 눈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말은 눈물처럼 떨어질 듯 그렁그렁 달려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이 한 움큼씩 뽑혀나오도록 울어보지만
말은 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천만 년 말을 가두어 두고
그저 끔벅거리고만 있는
오, 저렇게도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소는 여러 번 씹었던 풀줄기를 배에서 꺼내어
다시 씹어 짓이기고 삼켰다간 또 꺼내어 짓이긴다.

-「소」 전문

김기택의 <소>는 시집 제목이기도 하다. 이 시집에서 '소'는 시집 전체의 주요 소재로서 시리즈로 다루어지면서 삶에 대한 입체적 성찰을 이야기했다. '소'라는 동물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다. 점차 도시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라는 기표에서 추출된 의미 공통분모가 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는 친숙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친숙한 소재로서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은 대부분 초중급에서 다루어지는 문법과 간단한 문장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핵심이 되는 심상도 중급이면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작품이다,

먼저 '소'라는 소재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스키마를 자극한다. 시 작품 분석에서 중요한 준거들이 있다. 그 중에서 묘사 위주로 접근할 때에는 작품에 집중하는 내적 준거를 선택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작품의 분석할 때 중심 소재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후에는 시를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보게 한 다음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한다. 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화자'는 어떤 사람인지, 화자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를 말해 본다. 그러면서 작품에서 제시된 정황과 정서를 표

현할 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이 작품의 주제를 이야기해 본다.

「소2」, 「소3」에서도 김기택 시인은, 살아있지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 죽어가는 소의 모습을 묘사한다. 시인은 도축 현장의 잔인한 정황을 묘사하지만 도덕적인 판단은 유예한다. 도살을 포함한 인간에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밀착 취재의 형식으로 도축 현장과 소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생명의 존귀함을 드러낸다.

앞서 발표한 「소」 연작시에 비해 이 작품은, 서정적인 시각으로 소에 접근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소의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해 보이지만 실제로 눈물이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시인은 이 모습을 할 말을 가득 담고 있으나 뱉어내지 않는 '순하고 동그란 감옥'에 비유하였다. 김기택은 소의 눈물이 맺힌 것 같은 눈, 끔벅거리는 눈, 반추하는 입을 관찰한다. 김기택의 관찰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눈에 비친 정경에서 촉발된 감정으로 마무리하는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 김기택은 관찰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대상과 교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소를 관찰함으로써 발화되지 못하는 말에 대한 상상력을 구체화하였다.

김기택은 눈에 보이는 묘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묘사의 기법으로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한다. 이광호(2005)는 이에 대하여 김기택 시를 '투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명명한 바 있다. 상상적 언어를 통해 대상의 외부에 대한 정밀 묘사는 내부에 대한 암시한다. '말은 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시구가 그러하다. 대상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관찰자의 눈에는, 소가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말'까지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 소를 묘사해 보도록 한다. 소의 우물거리는 입에 대해 어떠한 상황 혹은 감정이겠는지 말해보고(관찰-주제), 또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떠한 사물의 어떤 행동, 어떤 비유에 빗대어 말할 수 있는지(주제-관찰)를 생각해 보게 하고, 묘사로서 표현해 보게 한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 걱정」 전문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의 어느 하루를 그려낸 작품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쉬운 말이 주를 이루고,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비오는 날, 집에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외로움이 애잔하게 묻어난다. 1연에서는 시장에 열무를 팔러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간 엄마가, 열무가 잘 안 팔렸는지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다. 그 어머니의 고된 일상은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으로 압축되며, 엄마를 기다리는 긴 시간은 '해는 시든 지 오래'라는 표현으로 시각화되었다. 그리고 빈 방에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처지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는 표현으로 웅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은, 찬밥이 주는 촉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형상화되었다. 시각과 청각, 촉각의 감각이 어우러져 어머니의 지친 하루와 어린 아이의 외롭다 못해 무서움으로 심화된 감정을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깨어진 창 틈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더불어 1연에서는 고된 어머니의 삶도 묘사되어 있는데, 열무를 팔러 간 어머니도 그 열무들이 시들 만큼 해가 저문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삶에 지쳐 돌아왔는데, 그 모습과 그 소리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에 비유되었다. 성인이 된 화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유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단적으로 '내 유년의 윗목'으로 집약함으로써 어렸을 때의 시간이 감각화되었다.

이 작품을 접할 때 학습자들은 먼저 <엄마 걱정>이라는 제목을 보고, 엄마라는 소재부터 출발하여 엄마를 걱정했던 일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가득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게 한다. 학습자의 스키마를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이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 작품을 훑어보고, 이 작품의 정조를 느껴보게 한다. 학습자들은 이 작품에서 화자의 유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 이미지를 형상화한 단어를 찾는다. 어린 아이가 혼자 숙제를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갔다가 시든 배춧잎 같은 발소리로 귀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이에 관련된 단어들과 상황, 감정 등을 이야기해 본다.(관찰-주제)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걱정했을 때의 심정, 어린 시절의 쓸쓸함과 외로움, 무서움 등의 감정을 생각해 보게 하고(주제-관찰), 묘사로서 표현해 보게 한다. 끝으로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의 유년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품 감상의 폭을 확장한다.

4. 나가기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과 문학 작품 교수 방법을 하나로서 상호 의사소통적 능력 관점을 제시했다. 문학의 표현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문학 작품의 감상에 도움을 주고, 이 방법을 체득하여 스스로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는 논의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묘사 외 다른 문학적 표현 방식, 운문과 서사의 차이 등에 대한 정밀한 논의를 다룰 수는 없었던 점이 아쉬웠으며, 학습자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수방법이 더욱 정교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 앞서 언급한 부족했던 논의와 상호 보완되면서 이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교육 현장에서 실천성을 확보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디지털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과거를 생생하게 보존하는 방법, 혹은 현재의 사실을 재현하기 위한 이미지의 기능을 사라지게 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즉, 진리를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재창조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학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수많은 장면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미지는 시의 중요 요소로서 작가의 내면의 풍경을 더욱 선명하고도 감각적으로 담아낸다. 시에서 이미지 활용을 학습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도 습득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심적 지도를 살펴보는 자료로서 활용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숙(2014),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구인 설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과 교수 방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광호(2005), 투시적 상상력의 힘, 『소』, 문학과지성사.

이혜경(2016), 한국 현대시 상호텍스트성과 다매체 글쓰기 전략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호 역(1997), 유협, 『문심조룡』, 민음사, 120~

공미희, 항주사범대학교,

浙江省杭州市余杭区仓前街道余杭塘路2318**号**，311121，

vorikmh@naver.com 18668225330

계승어 교육에서 윤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

-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

이종원·윤여탁

(서울대학교)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윤동주 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한국어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계승어 교육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문 연구자에서부터 대중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윤동주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는 시인은 드물 것이다.[1] 지난 2017년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각별히 높아졌던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이 때를 전후하여, 윤동주의 전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었고, 그의 대표작 「별 헤는 밤」, 「서시」 등의 일부를 가사로 차용한 대중가요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윤동주의 시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의미 있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중들이 다채로운 형식으로 윤동주를 향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윤동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기존의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피면, 대체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자국민문학', '저항문학'의 관점에서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많았다. 이는 윤동주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던 시기의 수용 맥락이 '반일주의', '민족주의' 등 정치·사회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2] 또 문학 연구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1940년 2월 11일, 창씨개명령 이후 본격화되었던 이른바 '암흑기'의 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윤동주의 시를 통해 "우리 문학사의 공백을 메우고 한국문학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실

[1] 2012년 <시인세계>에서는 75명의 문학평론가를 대상으로 "한국 대표시집 50권"을 선정한바 있는데,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5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보다 앞선 2008년, 한 방송사의 '국민 애송시'를 묻는 설문에서 윤동주는 '서시'와 '별 헤는 밤'을 2위와 4위에 올리며, 대중들이 사랑하는 시인임을 증명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덕규 외(2012), 『한국대표시집50권』, 문학세계사;김응교(2017), 「윤동주에 대한 기억 -2017년 3월 인터넷 사용자의 윤동주 인식」,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pp.319-358. 등을 참고.

[2]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 결과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행해졌던 친일 행위에 대한 적극적 반성보다는, 역사의 암흑기를 빛낸 예외적 별들로 인한 일종의 윤리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유성호(2017), 윤동주 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 저항시인을 넘어서,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p.69.를 참조.

질적인 근거를 마련"[3]하려 했던 국문학 연구자들의 지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윤동주 시를 '저항'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허정(2009)은 윤동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민족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저항시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저항의 개념을 하향평준화 해가며 마치 저인망으로 저항의 근거를 모조리 끌어 모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4] 비판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민족' 또는 '저항'을 앞세운 해석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윤동주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억압하여, 윤동주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중들과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윤동주의 시는 국문학 및 국어교육 연구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연구의 장에서도 이른바 '준정전'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 한국어교육에서 제재로 다루어지는 윤동주의 작품은 「서시」, 「자화상」 등 소수의 작품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선정 기준 역시 '민족'의 관점을 취하였을 때 드러나는 '문학사적 중요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이러한 현실이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맥락과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한국어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놓일 때조차도, '민족문학, 저항문학' 등에 편향되었던 국문학 연구의 관성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장(場)에서, 윤동주 시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이러한 현실을 재검토하는 한편,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특별히 계승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윤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윤동주 시와 계승어 교육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로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1990년대 이후, 국제 이주 현상에 관심을 두었던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개념으로,[6] 국가 또는 민족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현재는 국제 이주에서 파생되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해석하는 논의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제 이주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의 심층에 놓인 인식과 의식의 문제를 초점화하여 정체성의 형성 요인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해석 및 학습자 성장의 문제를 두루 다루기에도 적절하다.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의 '이민 3세대'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시

---

[3] 김유중(2005), 「확대와 심화, 혼란과 좌절의 양상들 : 1930년대, 일제 말 암흑기의 시문학사」, 이명찬 외,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p.141.
[4] 허정(2009),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p.572.
[5] 윤여탁 외(2014),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29.
[6] R. Bauböck & T. Faist(2010),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p.229.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슬픔', '부끄러움' 등의 정서는 '북간도-조선-일본'을 부유하였던 인물로서 그의 삶을 이해할 때 보다 풍부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민족'과 '국가'의 경계에 자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성찰하였던 윤동주의 사유를 그의 작품 속에서 읽어 내는 것은 윤동주 문학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계승어 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그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장에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계승어 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윤동주의 시에서 나타나는 '고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4장에서 계승어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서술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것이다.

2.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계승어 교육

2.1.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개념과 정체성 형성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본래 그 의미 지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 어려움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분석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본고보다 앞서 윤동주 문학 연구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던 곽명숙(2012)은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정확한 함의와 번역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 개념이 접두어 'trans-'와 명사 'nation'의 다층적인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의미를 엄밀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곽명숙이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에 주목했던 이유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등등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근대의 민족국가적인 인식틀로는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이나 주관적 인식"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7]

사회학에서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개념 및 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트랜스내셔널리즘 개념은 "송출국과 수용국 양쪽에 모두 발을 담그고 살아야 하는 이주자의 삶과 정체성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8]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독일의 사회학자 벡-게른샤임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송출국과 수용국을 결정하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두 사회를 함께 연결해주는 삶의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확장되는 트랜스내셔널리즘

[7] 곽명숙(2012),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pp.206-208. 여기에 더하여 그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윤동주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그 자체로 트랜스내셔널리즘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8] 심영희(2012), 「초국적 장과 초국적 정체성 :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보고사, p.18.

개념 적용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문학교육 및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들이다.

특히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중요성은 특히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로 부각되며, 이는 다시 문학 작품 안에 형상화되어 있는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성적으로 인식되는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주요 대상 집단 중 하나인 재외 이주민들의 경우, 정체성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재외 이주민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주민으로서 순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여러 요인, 즉 세대의 흐름, 정치적, 사회적 여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9]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문화가 뒤섞여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주와 함께 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을 경험하고, 이 경험은 서서히 이주자의 정체성을 "초국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초국적 정체성'은 "고국의 문화적 특성과 거주국의 문화가 섞인 것으로서 잡종성의 연속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그 '사이'에서 재구성되는 주체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그리고 문학교육의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근대적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범주에서 개별 주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2. 능동적 의미에서의 계승어 교육과 트랜스내셔널리즘

한국어교육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특히 계승어 교육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란,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 [10]로 정의되며,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언어와 별개로, 민족적, 문화적 배경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 개별적으로 전승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계승'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가 이어져 나아가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계승'의 의미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미 존재하

[9] 오늘날의 사회에서 '순일한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성립 가능한 것인지 여부 역시 논쟁적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주민' 정체성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10]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 총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5, 이중언어학회, p.383.

고 있는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계승어'라는 개념이 본래 '주류 언어'에 대한 대타적인 인식에서 성립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개별성과 다양성의 존중 및 확대를 도모하는 능동적인 행위로서 계승의 의미를 재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계승'이라는 행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주류 사회'의 관습과 언어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계승'은 '하향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주류 사회'의 관습 및 언어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소수자'로서의 관습과 언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할 때의 '계승'은 상대적으로 '상향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의미화될 필요가 있다.

가치 지향의 방향성에 주목하여 '계승'의 의미를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재개념화할 때, 계승어 및 계승어 교육 역시 능동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김대희(2012)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전제로 한 논의에서 "모든 언어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계승어 교육에서는 언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역설(力說)한 바 있다.[11] 이데올로기의 담지체, 즉 담론으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은 일견 계승어 교육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근거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와 가능성에 주목하게끔 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계승어 교육은 다문화주의의 실천, 이중 언어 습득,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 사회 통합 등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승어 교육이 가지는 능동적 측면에 주목하였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계승어 교육을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게만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능동적 의미에서 '계승어 교육'은 어느 하나의 단일한 문화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의미화될 수 있다. 이처럼 능동적 의미에서의 계승 및 계승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유용하다.

능동적 의미에서의 계승 개념에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트랜스내셔널리즘'은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 개별 주체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 개별 주체를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 속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분류학적인 관심보다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보편적·전형적 인식이 개별 주체의 어떠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기술적(descriptive)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

[11] 김대희(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p.36.

선행 연구의 논의를 살펴 보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문학 작품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문학이란 것이 대부분의 경우 ‘국민문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이해되어왔다는 점”[12]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시각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13]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선적으로 “문학에 있어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개념이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한 자의식과 경계로서의 의의”[14]를 생각해 보게끔 한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윤동주 시의 의미가 ‘민족’과 ‘저항’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면서 그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도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본 윤동주 시의 의미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였다.[15] 일제 강점기 북간도 이민 3세대에 속하는 윤동주는 이후 조선,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 점에 대해 윤지은(2017)은 윤동주가 “제국 일본-식민지 조선 본토-북간도라는 서로 다른 문화가 겹쳐진 경계 위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윤동주를 ‘경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인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가 겹쳐진 불분명한 물리적, 심리적인 경계 위에 놓인 사람”[16]을 지칭한다. 문화 경험과 정체성 형성의 긴밀한 영향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양한 문화의 ‘경계’라는 특수한 자리에 놓인 주체는, 어느 특정한 문화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 비해 보다 복잡한 형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윤동주 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같이 주체의 인식을 폭넓게 문제시하는 개념을 문학 작품의 해석 전

[12] 박선주(2010), 「트랜스내셔널문학 –(국민)문학의 보편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안과 밖』 28, 영미문학연구회, p.169.

[13] 곽명숙(2012), 앞의 글, p.207.

[14] 황정아(2017), 「문학에서의 트랜스내셔널 패러다임 : 민족문학론과 세계문학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 한양대학교출판부.

[15] 윤동주의 증조부 윤재옥은 본래 함경북도 종성군 동풍면에 거주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만강 건너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여러 혹독한 사정이 있었으나 윤재옥의 북간도 정착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씨 집안은 윤재옥과 윤하현 2대에 걸친 성실한 생활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윤동주의 아버지 윤영석은 신학문을 수학하였으며, 북경, 동경 유학을 두루 경험한 지식인이었다. 본고에서 윤동주의 전기적 삶과 관련된 내용은 송우혜(2014), 『윤동주 평전 3차 개정판』, 서정시학.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6] 윤지은(2017), 「경계인으로서의 윤동주와 본향의 자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8(2), 한국근대문학회, p.170. 윤지은은 윤동주 시에 형상화되어 있는 ‘불안’의 정서를 근거로 들어 윤동주 스스로도 ‘경계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반에 적용하려 할 경우, 논의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종의 시론(試論) 차원에서 '고향'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윤동주 시 세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윤동주를 규정하고자 하는 다수의 논의 역시 '고향'의 의미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17], 고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윤동주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가리키는 말로, 시 텍스트 안에서 비중 있는 시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시적 주체의 유년 시절을 강하게 환기하는 동시에, '그리움'이라는 정서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윤동주의 실제 삶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그가 그려낼 고향의 공간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북간도의 명동촌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 윤동주 시에서 드러나는 고향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고향'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평화로운 유년기 체험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순간들을 형상화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타인이 떠올렸을 법한 생각과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시적 주체가 드러내는 '고향'의 의미 변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정서를 촉발하며 윤동주의 시 세계를 형성한다.[18]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윤동주 시에서 '고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보편적 정서에 기반한 '공감'의 공간

'고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윤동주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시기는 평양 숭실중학에 편입하였던 1935년이다. 윤동주가 좁은 의미에서의 '고향' 즉 명동촌을 처음으로 떠난 것은 용정 은진중학에 입학한 1932년이겠으나, 용정과 명동은 그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 때의 이주는 윤동주의 가족 모두가 함께 한 것이기에 그 영향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반면, 1935년 윤동주는 국경 너머로의 이주를 처음으로 경험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도 독립된 삶을 꾸려감으로써 그 이전의 시간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절 '고향'과 관련한 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읽히는 작품은 '南쪽하늘'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7] 이 글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논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추가로 들 수 있다. 이길연(2008),「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북간도 체험과 디아스포라 본향의식」,『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p.185-204; 이미옥(2011),「윤동주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2016),「만주 이야기와 윤동주의 기억」,『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pp.155-197.

[18] 윤동주 본인이 직접 시집을 발간한 적이 없기에, 윤동주 시의 원전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어 왔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을 토대로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여 논의한 홍장학(2004)에 따르면, 윤동주 텍스트의 원전은 산문을 포함하여 모두 123편이며, 이 중, '고향'이라는 시어를 직접 드러낸 작품은 '고향 집', '곡간', '또 다른 고향'의 세 편에 불과하다. 아래에서는 여기에 의미 맥락을 고려하여 '고향'을 환유한다고 볼 수 있는 시어를 포함한(향수, 어머니 등) 수 편의 텍스트를 더하여, 윤동주 시에서 '고향'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홍장학(2004),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문학과지성사.

南쪽하늘

제비는 두 나래를 가지였다.
시산한 가을날 —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운
서리 나리는 져녁—
어린쿗은 쪽나래의 鄕愁를 타고
남쪽 하늘에 떠돌 뿐—
- 1935. 10. 평양에서[19]

이 시에는 먼 곳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심정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창작시기 옆에 평양에서라는 말이 병기되어 있는데,[20] 창작 시기와는 달리, 장소를 밝히는 경우는 윤동주에게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어서,[21]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창작 시기와 함께 '평양'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의식하면서 그 의미를 더듬어 보게끔 한다. 알려진 연보에 따르면 윤동주는 1935년 9월 1일 평양 숭실중학교로 편입하였으며, 시를 창작하였다는 1935년 10월은 그로부터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살피면, '제비'와 시적 주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적 주체의 심정은 '제비'를 통해 형상화되었다. 제비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철새로, 따뜻한 곳을 찾아 서식지를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10월, 공기가 제법 '시산한' 가을날, '평양'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제비'는 그보다 더 북쪽 어딘가에서, 어쩌면 만주 땅에서 그 해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으로 만주를 떠나 타지 생활을 경험해야 했던 윤동주가, 자기 자신의 삶을 제비에 투영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시적 주체가 '제비'에게 느꼈을 동질감 · 일체감의 정도를 단순히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제비에 비유하고 있"[22]다는 평면적인 해설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인용문에서처럼 '화자'라는 개념으로 거리를 두었을 때보다, 윤동주 삶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넣어 읽었을 때, 시의 의미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기 위해서는 윤동주가 명시해 놓은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시어의 의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19] 이하 윤동주 시의 본문은 왕신영 외 편(1999),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민음사. 의 표기를 따른다.

[20] 첫 번째 원고 노트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 수록된 「南쪽하늘」에는 1935. 10. 이라는 날짜 뒤에 '평(平)에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후, 두 번째 원고 노트 "창"에 「南쪽하늘」을 다시 수록할 때에는 '평양에서'로 이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21] 윤동주의 시 중, 원고 노트에 창작 시기와 장소를 병기한 것은 「조개껍질」(봉수리), 「이별」(영현군), 「창공」(평양), 「南쪽하늘」(평양), 「황혼」(평양), 「가슴」(평양), 「바다」(원산 송도원)' 7편이다.

[22] 김응교(2016), 『처럼』, 문학동네, p.141.

시의 문면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 시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향수',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리고 이 그리움을 배가시키는 이미지가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이 때의 '어머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고향'을 환유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가장 최초의 '장소'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동시에 아이에게는 늘 안정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친숙한 환경이며, 안식처로 의미화된다.[23] 따라서 이는 특정 문화권에 귀속되지 않는 일종의 보편적 정서와 연결될 수 있다.

어머니와 고향의 환유 관계는 다른 윤동주 시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나는데, 개별 작품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동주 시 가운데 '고향'이 시어로 사용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시는 「고향집」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향집 – 만주에서불은

헌 짚신짝 끄을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 집
　　-　1936.1.6.

윤동주가 남긴 창작 노트 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의 초반부에 수록된 이 작품에는 제목 앞에 '童詩'라는 한자가 쓰여 있고, 제목 다음 행에 '–만주에서불은–' 이라는 부제가 붙어, 시적 상황을 재구하는 데 제한적으로나마 도움을 준다. 부제에 언급된 '만주'뿐 아니라, 1연에 언급된 '두만강'이 또한 구체적인 지명을 다룬 것이어서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의 내용을 보면, 1연과 2연에서 확인되는 '이땅'과 '고향'의 선명한 대조가 눈길을 끈다. 1연의 공간은 '이땅', 즉 만주이다. 여기서 시적 주체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헌 짚신짝"을 끌고, "쓸쓸한 이땅에" 온 것으로 묘사된다. '헌', '쓸쓸한' 등의 수식 아래 자리한 명사들은 짧지 않았을 여정의 고됨과, 그로 인해 비롯된 '불안'한

[23] Yi-Fu Tuan(1977), *Space and Place*, Univ. of Minnesota Press, p.48.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작품의 행간을 주의 깊게 읽어도 다른 이의 존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동시 장르가 일반적으로 아동 화자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넣어 다시 읽어보면 시적 주체가 처한 고립무원의 상황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반면 2연에서 형상화되는 공간은 '고향'이다. 이 때의 '고향'은 '이땅'과는 다르게 시적 주체의 눈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일 것이다. 1연과는 다르게 '따뜻한', '그리운' 등의 수식 아래에서 명사들은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다. 1연의 '이땅'에는 시적 주체 외에 아무도 없었지만 2연의 '고향'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있다. 여기에서도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편명사에 가까울 '어머니'는 '고향'에 얽힌 추상적인 정서에 실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따뜻함'의 감각과 '그리움'의 정서는 '어머니'를 통해 생생함을 얻어, 다시 '고향'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1연과 2연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선명한 대조와 함께, '어머니'로 인해 확보되는 이미지의 구체성이 이 시의 성취를 더욱 인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윤동주가 이 시를 쓴 것으로 기록된 1936년 1월, 그는 평양 숭실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를 다시 보면, 만주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윤동주가, 조선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된 이의 심정을 공간의 선명한 대조로 표현한 것인데, 이들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 정서로 수렴되는 '공감'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구모룡(2010)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서의 윤동주가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삶을 공감하는 지평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24]

그런데 여기서 두 주체를 구별하는 것은 윤동주가 그려낸 문학적 허구의 세계를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시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논의의 층위를 더한다. 예를 들어, 이 세계에 윤동주의 증조부이자 북간도 이주 1세대에 해당하는 윤재옥의 삶을 넣어 읽으면 이 시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정서의 범위 안에 속하면서 '세대'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는 공감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때로 실제 삶과 온전히 겹쳐지는 자신의 공간(「南쪽하늘」, 「별 헤는 밤」, 「곡간」 등)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문학적 허구로 빚어낸 타자의 공간(「고향 집」, 「오좀 싸개지도」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윤동주에게 있어 후자의 경우는 '가족'으로든, 또는 '민족'으로든 그 자신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타자일 수 없다. 이는 이미 자신 안에 들어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타자인 것이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이 점을 조명하는 것은, 윤동주를 '한민족'으로 볼 것이냐, '재만조선인'으로 볼 것이냐[25] 하는 분류의 문제의식을 가

[24] 구모룡(2010), 「윤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p.135.

[25] 정우택(2009), 「재만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윤동주」, 『어문연구』 2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17-240.

로지르며('trans' = across), 발생 기원을 달리하는 개별 주체의 존재 의식이 보편적 정서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하여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주는 것이다.

3.2. 경계적 상상에 기반한 '지향'의 공간

보편적 정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고향'은 만주 혹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공간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에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현실 공간과의 긴밀한 관계를 넘어서('trans' = beyond) 새로운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가 있다.

윤동주의 「무얼먹구사나」는 3연 6행으로 구성된 짤막한 동시이다. 각 연이 병렬적인 구조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어가 어렵지 않아 그 자체로 논의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를 정지용 「띄」와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로 읽으면 흥미로운 지점이 초점화된다. 각 시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무얼먹구사나	띄
바닷가 사람	하늘 우에 사는 사람
물고기 잡어 먹구살구	머리에다 띄를 띄고,
산꼴에 사람	이땅 우에 사는 사람
감자 구어 먹구살구	허리에다 띄를 띄고,
별나라 사람	땅속나라 사는 사람
무얼 먹구사나	발목에다 띄를 띄네
- 1936. 10.	- 1926. 6.

형태상으로 지나치게 단순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두 작품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난다. 단순히 창작 시기만을 보아도 그렇지만, 평소 정지용을 존경하여 수 차례 그를 방문하였다는 윤동주의 일화 등을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한다면, 이를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영향관계를 인정하는 편이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유종호(2001)는 이 작품들을 윤동주에 대한 정지용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며, "삼계를 넘나드는 원본의 상상력은 비범하고 재미있"는 반면 윤동주의 작품은 "초기의 습작이라 생각되는데 별나라 사람이 동원되어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쯤 치졸한 동시"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26]

그러나 유종호의 혹평은 이 두 작품의 관계를 단순히 '원본과 모작'의 위계관계로만 이

[26] 유종호(2001),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pp.28-29.

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종호가 가정한 것과 같이 실제로 두 작품 사이에 선후관계가 성립한다면, 가장 공들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변용'의 지점일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작품들을 꼼꼼히 살피면, 자연스럽게 3연에 눈길이 간다. 정지용의「띄」의 경우, 1-3연이 모두 동일한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무얼먹구사나」에서는 3연에서의 변화가 그러한 안정적인 구조를 깨뜨리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3연을 중심으로 「무얼먹구사나」의 의미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1연과 2연에 등장하는 '바닷가'와 '산골'은 현실의 공간이다. 이 때, 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먹고 사는' 행위는 인간의 일상을 조직하는 근본 원리로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index)가 된다. '바닷가' 공간에 사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산다 말하는 것, '산골'의 사람이 '감자'를 구어 먹고 산다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유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3연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여기서 '바닷가'와 '산골'의 자리에 놓인 '별'은 현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구성된 공간에 가까우며, '별나라 사람'의 경우는 그러한 허구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전제되는 존재이다. '별나라 사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의 방식은 분명치 않다. 뒤집어 말하면, 그것은 미(未)결정의 상태이며, 한편으로 가능성의 상태이기도 하다. 애초에 윤동주가 원 텍스트의 변용을 통해 강조하려 했던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제목까지 포함하여 봤을 때, 이 작품은 '무얼 먹구사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무얼 먹구사나'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이 질문을 반복하여 던지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바닷가'도 아니고, '산골'도 아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상상과, 그러한 상상에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 이 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인 것이다. 이 시에는 공간이 삶의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으며,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상상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상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이 전제되어 있다.

공간과 삶의 방식, 주체와 삶의 지향의 문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윤동주 시에서 '고향'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윤동주의 대표작 「또다른故鄕」 이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또다른故鄕

故鄕에 돌아온날밤에
내 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엇다.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속에 곱게 風化作用하는
白骨을 드려다 보며
눈물 짓는것이 내가 우는것이냐
白骨이 우는것이냐
아름다운 魂이 우는것이냐

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몰래
아름다운 또다른고향에가자.
- 1941.9.

「또다른故鄕」 역시 고향이라는 공간과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이다.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슬픔'이다. 여기서 '슬픔'은 문면상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온 날 밤, '방' 안에서 '우는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석상의 난점은 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슬픔의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이 시에서 여럿으로 나타나는 주체의 의미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이명찬(2004)은 「또다른故鄕」 에 등장하는 '백골'과 '나'와 '아름다운 혼'을 자기 분열로 파악하고, 각각의 자아상에 '용정', '서울', '동경'이라는 현실 공간이 1:1로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해 도식의 형성이 결과적으로 성찰과 자기 갱신의 실천으로 연결되면서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27] 이 때 '존재의 위기'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위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또다른故鄕」에 '나'와, '백골', '아름다운 혼'이 함께 형상화되어 있는 상황을 일종의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고 이를 본래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27] 이명찬(2004), 「윤동주 시에 나타난 '방'의 상징성」,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pp.353-377.

그런데 오문석(2012)은 이와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의 공존에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들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누가 슬퍼하는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내면에는 너무도 많은 주체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보다는 그 자체를 긍정하면서, 이를 다문화적 주체성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8]

하지만 그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론까지 가는 길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남는다. 시의 문면을 좀 더 꼼꼼히 읽어 보면, ‘나’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자리하고 있는 ‘백골’과 ‘아름다운 혼’은 오문석이 말하는 ‘너무도 많은 주체’를 연상케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또 시 텍스트의 내적 의미 맥락에서 ‘백골’과 ‘아름다운 혼’은 상호 대립적인 의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문화적인’ 공존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 오문석이 전제하는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인데, 이 역시 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적 주체는 “백골몰래”, 즉 백골을 배제한 상태로 ‘또 다른 고향’으로 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문화주의’가 아닌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취하면 「또다른故鄕」의 상황을 달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백골’의 부정적인 함의와, ‘아름다운 혼’의 긍정적인 함의가 ‘나’에게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반된 기준의 공존에서 비롯되는 긴장 상태는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그러한 세계로의 실천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른故鄕」의 시적 주체는 무언가에 “쫓기우는 사람처럼” 또 다른 고향으로 향한다 말하는 것이다. 시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면 ‘나’, ‘백골’, 그리고 ‘아름다운 혼’의 공존에서 비롯되는 모순의 인식이 오히려 ‘또 다른 고향’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또다른故鄕」의 이해에서 방점은 주체의 분열이라는 현상보다,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촉발될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라는 의미에 찍혀야 하며, 이는 다시 그로 인해 가능해질 새로운 주체와 사회의 지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윤동주 시에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초점화되는 공간과 주체의 관계, 그리고 이주의 상황은 ‘고향’이라는 시어의 의미 이해를 심화하여,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지점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4. 계승어 교육에서 윤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

지금까지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윤동주의 시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28] 오문석(2012), 「윤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p.166.

지를 살폈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가나 민족 등 어느 하나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은 채,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민족은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며, 특히 이주의 문제를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은 한국어교육의 문제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계승어 교육은 기존의 민족·전통 의식을 무비판적으로 이어가는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계승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본다면 새로운 사회의 상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보다 능동적인 의미로 계승어 교육을 재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윤동주 시에서 '고향'의 의미를 '보편적 정서에 기반한 '공감'의 공간'과 '경계적 상상에 기반한 '지향'의 공간'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각 작품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의 측면에서 계승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첫째, 이 논의는 그 동안 한국어교육의 제재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윤동주 시의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계승어 교육의 제재 활용 범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한 네 편의 시 외에도 보다 많은 작품들이 능동적 의미의 계승어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향'이라는 공간에서 비롯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계승어 교육의 학습자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계승어 교육의 주된 대상인 이민 2세대들은 주류 사회로의 편입을 강하게 희망하는 한편, 전통 또는 민족과 같은 관념에 거부감을 표시하여 기존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29]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세대와 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 정서를 매개로 삼아 계승어 교육의 학습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다. 특히 윤동주의 시는 "자신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통해 그 시를 읽는 모든 이들이 그 시 앞에서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30]을 고려하여 본다면 그 교육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트랜스내셔널리즘에 근거한 경계적 상상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윤여탁(201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 상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훼손되거나 상실된 고향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일 뿐이다."[31] '고향 상실'과는 본질

[29] 강진구(2017),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인 청소년 재현 양상 연구」, 『어문론집』 69, 중앙어문학회, p.301.
[30] 김정우(2017), 「성찰과 저항의 슬픔 – 윤동주 시의 탈식민성」, 『한국시학연구』 50, 한국시학회, p.37.
[31] 윤여탁(2010),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한중 문학교육 연구 – 윤동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37.

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이 때의 ‘그리움’은 특정 시점으로 회귀하는 과거 지향적인 시각을 취하기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선취’하려 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광범위한 윤동주 시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 구체적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실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진구(2017),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인 청소년 재현 양상 연구」, 『어문론집』 69, 중앙어문학회, pp.275-307.

곽명숙(2012),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 한중인문학회, pp.205-225.

구모룡(2010), 「윤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pp.123-146.

김대희(2012), 「언어 이데올로기와 계승어 교육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pp.35-59.

김상현 외(2017),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으로의 초대』, 한양대학교출판부.

김신정(2016),「만주 이야기와 윤동주의 기억」, 『돈암어문학』 30, 돈암어문학회, pp.155-197.

김응교(2016), 『처럼』, 문학동네,

김응교(2017), 「윤동주에 대한 기억 – 2017년 3월 인터넷 사용자의 윤동주 인식」, 『현대문학의 연구』 62, 한국문학연구학회, pp.319-358.

김정우(2017), 「성찰과 저항의 슬픔 – 윤동주 시의 탈식민성」, 『한국시학연구』 50, 한국시학회, pp.11-41.

박덕규 외(2012), 『한국대표시집50권』, 문학세계사.

박선주(2010), 「트랜스내셔널문학 – (국민)문학의 보편문법에 대한 문제제기」, 『안과 밖』 28, 영미문학연구회, pp.165-197.

송우혜(2014), 『윤동주 평전』 3차 개정판, 서정시학.

심영희 외(2012),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보고사.

오문석(2012), 「윤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한국근대문학회, pp.149-176.

왕신영 외 편(1999), 『(사진판) 윤동주 자필시고 전집』, 민음사.

유성호(2017), 「윤동주 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 저항시인을 넘어서」,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pp.67-86.

유종호(2001),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 민음사.

윤여탁 외(2014),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29.

윤여탁(2010),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한중 문학교육 연구 – 윤동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33-56.

윤지은(2017), 「경계인으로서의 윤동주와 본향의 자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8(2), 한국근대문학회, pp.169-204.

이길연(2008),「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북간도 체험과 디아스포라 본향의식」,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p.185-204.

이명찬 외(2005), 『한국 현대시문학사』,소명출판.

이명찬(2004), 「윤동주 시에 나타난 '방'의 상징성」,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pp.353-377.

이미옥(2011),「윤동주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의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정우택(2009), 「재만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윤동주」, 『어문연구』 2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17-240.

조태린(2014),「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 총론을중심으로」,『이중언어학』 55, 이중언어학회, pp.381-407.

허정(2009),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pp.571-608.

홍장학(2004),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문학과지성사.

Bauböck, R. & T. Faist(2010), *Diasporaand Transnationalism :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UniversityPress, p.229.

Yi-Fu Tuan(1977), *Space and Place*,Univ. of Minnesota Press.

투고자 인적사항

이름 : 이종원, 윤여탁

소속 : 서울대학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동 408호

우편번호 : 08826

전화 : +82 10 6220 7251

전자우편 : lenteur_jw@naver.com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방안 탐구

손경란

(중앙민족대학교)

1.서론

현행 대학교 교수대강은 문학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실천공부의 의미를 짚어보면 수업시간을 통한 공부가 지식누적에 그치지 않고 배운 지식을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고전을 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고전을 활용한 재창작 글쓰기는 중요한 실천수업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고에서는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설화는 구비문학으로서 신화, 전설, 민담을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먼저 설화와 시의 내재적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화는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내면적 성찰의 결과물로서 그 주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될 수 있다. 둘째,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으로서 열린 텍스트이며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녔기에 독자는 그 공백에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다. 셋째, 설화는 인간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원형문학으로서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인간관계는 독자들이 살아온 인생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설화를 통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 넷째, 다른 문학장르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짧아 빨리 읽을 수 있다. 다섯째, 설화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서 이미 인물과 서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1] 때문에 독자는 설화에서 창작동기를 얻고 서정적 충동을 받아서 서사 내용을 자아화하고 개인 정서를 보편화하여 시 쓰기를 할 수 있다. 시는 시적화자를 통해 말을 하며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는 설화 속의 인물이 되어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내 안의 나를 꺼내 놓을 수 있다.[2]

「서동요」는 배경설화를 가진 향가로서 설화적 특성 외에 향가의 서정성과 교술성 등 방면에서 현대시와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시 창작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사랑담, 성공담, 미륵사 창건에 관한 위업 등 담론거리가 많아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1] 노영운,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과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쪽 부분 참고.

[2] 노영운,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과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7쪽.

「서동요」배경설화의 주요 담론인 “사랑”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각 장르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취급되어 온 테마이며 현시대 대학생 군체의 심리적 특성과 어울리기에 시 창작에 있어서 시의 질료가 될만한 화소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본다.

하여 본고에서는 다년간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방안은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고전을 활용한 재창작 글쓰기에 앞서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원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먼저 원텍스트에 대한 “자세히 읽기”를 통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화의 표면적인 이야기에 치중하여 고전문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고전의 현대적 재창작 시 작품은 성공적인 작품이라 보기에 어렵다. 때문에 「서동요」및 배경설화를 활용해서 현대적 시 창작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서동요 및 배경설화에 대한 온전한 해독이 있어야 한다.

2. 본론

2.1 「서동요」및 배경설화 원텍스트 해독

「서동요」 및 배경설화에 대한 연구는 내용으로부터 형식, 형성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와 학술적 해독이 있으나 본론에서는 시 창작을 염두에 둔 설화 읽기로서 일단 시 창작에 긴요한 부분부터 해독하고자 한다. 단 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동요」 및 배경설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설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다.

먼저 『삼국유사』[3] 제 2 권의 “기이편(紀異篇)” 기록에 전하는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소개한다.

> 제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의 용과 사통하여 장을 낳았다. 어려서 이름은 서동(薯童)이며 재주와 도량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늘 마를 캐다가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서동이라 불렀다.
>
>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가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머리를 깍고 경주로 갔다. 동네 여러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아이들이 그와 친해져 따랐다. 이에 동요를 지어 아이들을 꾀어 부르게 하였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
>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3] 일연 저, 박성규 역, 『삼국유사』, 규장각본 완역, 서정시학,170쪽.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서 궁궐에까지 알려지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공주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낼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공주가 유배지에 다 와 가는데 갑자기 서동이 길 가운데로 나서서 절을 올리고는 공주를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연히 만나 서로를 좋아하게 되니 이로 인해 서동이 그녀와 몰래 사통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는 동요의 영험을 믿게 되었다. 같이 백제땅에 이르러 왕후가 준 금을 꺼내어 생계를 꾸려갈 궁리를 하는데 서동은 자신이 어려서 마를 캐던 곳에 진흙덩이처럼 많이 쌓여 있던 것이 황금인 줄 알았고 선화공주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서동과 공주는 황금을 부모님 계시는 궁전으로 실어보내기로 결정하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나아가 금을 보낼 방법을 문의하자 지명법사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실어 보냈다. 그 후로 서동은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하루는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는 길에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렀는데 못 속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자 부인은 무왕에게 이곳에 큰 절을 짓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자 지명법사의 도움을 받아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고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서동요」 및 배경설화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학생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끄는 대목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담”이었는데 학생들은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사랑을 계략과 술책에 의한 일방적인 “차지하기”로 이해했으며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몇 대목 있었다.

이러한 초보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서동요」 및 배경설화가 어떤 작품인가 하는가를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설화의 서사적 줄거리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행위나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분석되어야 한다. 아래 서동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의미 분석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서동의 행위 및 그 의미

	서동의 행위	의 미
1	용의 아들로 태어나며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다.	신이한 탄생 및 비범한 능력.
2	마를 캐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미천한 신분. 어려움 극복
3	신라 땅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서라벌로 간다.	포부, 용기, 행동력.
4	아이들에게 마를 먹여 친해진 다음 서동요를 부르게 한다.	지혜 겸비.
5	쫓겨난 선화공주를 기다렸다가 뜻을 밝히고 백제 땅으로 데리고 온다.	사랑 성취.
6	마 밭의 황금을 신라궁으로 보내 신라왕의 신뢰를 얻고 백제 왕이 되다.	왕의 위업 달성.
7	미륵사를 창건하다.	왕이 된 후 위대한 업적을 이룸.

이상 서동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추리해서 그 의미를 짚어보면 서동설화는 백제 무왕의 영웅일대기이다. 서동은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며 과부인 어머니와 못의 용이 사통하여 낳은 아이이다. 인간이 아닌 용의 아들로의 출생은 그의 신이한 탄생을 말해준다.하지만 어디까지나 과부와 용이 사통하여 낳은 자식이기에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서동은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마를 캐어 팔아서 유지하며 꿈을 안고 살아간다. 신라왕의 셋째 딸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서라벌로 가서는 아이들에게 동요를 지어 부르게 하고 결국은 선화공주를 얻고 나아가서 신라왕의 신임을 얻어 백제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타국의 공주와 이룬 사랑성취, 귀국한 뒤 쌓아둔 황금으로 얻은 경제적 성공, 득인심하여 왕위에 오른 정치적 성공, 이렇게 만사형통의 성공담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이 서사의 주지[4]인 듯 싶다. 이 또한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한 데서 태어난 일을 어찌 괴이하다고 하겠는가?”[5] 라고 밝히며 역대 제왕들의 신이한 사적을 기록하기 위해 기이편을 찬술했음을 밝힌 의도와도 맞물린다.

때문에 서동의 행위는 영웅일대기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서동의 행위는 서동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고리에서 이해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 도표에서 제시된 4 번 째 행위 즉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마를 먹여 친해진 다음, 서동요를 지어 부르게 하여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쫓겨나게 하는 행위는 “계략과 술책”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동의 지혜로 보아야 한다. 이를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결부하여 보면 서동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노래의 힘”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설화의 뒷부분에서 선화공주가 “동요의 영험을 믿게 되었다”는 구절과도 해석이 맞물린다. 또한「서동요」는 일찍부터 서동이 아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예언하는 참요[6]로 또는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교통을 통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술요(呪術謠)로 인식되고 있었다[7]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서동요는 “노래의 힘” 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으로서의 이해가 가능하다.

이상 『삼국유사』 「무왕조」의 줄거리를 서동의 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이 설화는 ‘서동의 영웅일대기 성공담’으로 귀결된다. 서동을 성공으로 이끄는데는 선화공주의 공헌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선화공주는 아름다운 미모가 이웃나라 백제에까지 알려지면서 마 캐는 소년 서동의 신라행을 촉발하며 따라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한 서동에 의해, 아버지인 신라왕에 의해 궁궐에서 쫓겨난다. 진평왕이 떠도는 헛소문에 의해 진상조차 따지지 않고 공주를 무작정 궁궐 밖으로 내쫓는 행위는 다소 경솔해 보인다. 하지만 이

[4] 朴魯훈, 「향가, 그 현대시로의 변용」-「헌화가」,「서동요」를 대상으로,112쪽.
[5] 일연 저, 박성규 역, 『삼국유사』, 규장각본 완역, 서정시학,36쪽.
[6] 이은상, 한국참요고 (『노산문선(鷺山文選)』,민중서관, 1958,479면).안창수, <서동요>로 살 펴 본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 369쪽.
[7] 김열규,「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향가의 어문학적 연구』,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1972,14-15면. 안창수, <서동요>로 살 펴 본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 369쪽.

를 당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선화 공주가 대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언어의 주술성을 믿고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언어를 신비한 마법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였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초월적인 힘이 아이들에게 작용하여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서동요」가 아이들에게 널리 유포되는 것을 보며 선화 공주가 더 이상 궁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초월적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할 수 있다.[8] 선화공주는 길에서 서동을 만나 이야기를 전해듣고 동요의 효험을 알았으며 서동의 마밭에 쌓여있던 황금을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 -진평왕이 계시는 신라 궁궐로 보내 남편 서동이 신임을 얻게 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이는 진평왕이 서동을 사위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는데 선화공주의 덕분에 서동의 일방적인 “차지하기”의 결혼은 끝내 선화공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까지 얻게 되는 공식적인 결합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어떻게 보면 서동의 용기와 지혜는 선화공주의 덕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선화공주는 서동의 성공적인 삶을 성취함에 있어서 조력자 혹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선화공주는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영혼과 같은 인격의 아름다움을 다같이 지니고 있다.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뛰어난 능력이나 맑은 영혼,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것은 기타 설화문학 속의 여성 이미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선화공주의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는 향가와 그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광덕의 아내는 남편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수로부인과 처용의 아내는 국가적 혼돈과 무질서, 부정을 정화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망매는 동생 월명사가 삶과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더욱 불교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희명의 어머니는 자식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치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9] 결국 이들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이란 것은 이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의 표출이다.[10] “미이면서 선”을 추구하는 것 또한 신라인의 미의식과 결부된다. 선화공주의 이름이 착할 “선(善)”과 아름다울 꽃 “화(花)”자로 이루어진 “선화(善花)”라는 이름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2.2 시 창작 방법 및 「서동요」및 배경설화를 수용한 현대시 소개

2.2.1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 기법

시에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야기가 있는 시 쓰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신경림 시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신경림의 경우를 보면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민

[8] 안창수, 「<서동요>로 살펴 본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3호,371쪽.
[9] 최선경,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향가 및 향가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375쪽.
[10] 최선경,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향가 및 향가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357쪽.

중의 삶을 제재로 인물들의 행위의 표출과 사건의 연결, 공간 이동과 시간의 경과적 진술 측면을 창작방법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11]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서정시법인 비유나 상징에 의지하기보다 인물의 행위와 사건의 연결을 창작원리로 하고 있으며[12] 인물들의 행위가 연결되면서 시구성이 완성된다. 이 때 인물들의 행위 연결은 인물들의 지리적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할 수 있고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술할 수도 있다. 물론 이야기 요소를 시에 끌어들이는 기법은 그 전에 백석과 이용악 시인이 먼저 시도[13]하였고 신경림 시인이 그들의 기법을 수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이야기 시세계를 구축하였다. 이야기가 있는 시 작품으로 신경림의 대표적 시 「농무」를 예들어서 시 쓰기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따라붙어 악을 쓰는 쪼무래기들뿐/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서서/철없이 킬킬대는구나/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고갯질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무」

시인은 시에서 즐거운 소재를 시상으로 삼아 역설적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에서 시적화자는 농촌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구성을 이야기 정보 단위로 이야기 흐름과 지리적 공간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공간	이야기 흐름
텅빈 운동장→학교 앞 소주집→장거리→쇠전→도수장	징이 울리고 막이 내림→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심→꽹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섬→쪼무래기들이 따라 붙음→처녀애들리 킬킬댐→보름달이 밝음→울부짖고 헤헤댐→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옴→점점 신명이 남

위 맥락으로 「서동요」 배경설화 이야기 흐름을 지리적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1] 공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26쪽.
[12] 공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50쪽.
[13] 공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3쪽.
[14] 공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52쪽.

공간	인물	인물의 행위.
백제 서울 남쪽 못가	서동	과부 어머니와 용의 아들로 탄생.
백제 마밭	서동	마를 캐어 팔다. 황금 출토.
신라 경주	서동	아이들에게 마를 먹여 친해지고 동요를 부르게 함.
신라 궁궐	선화(왕과 왕후)	쫓겨남.(왕은 딸을 쫓아내고 왕후는 황금을 노자로 딸에게 챙겨준다)
유배지	서동, 선화	만남.
백제	서동, 선화	결혼, 황금 발견.
용화산 사자사	지명법사,서동, 선화	신통력으로 황금을 신라궁궐로 보냄. 미륵사창건

위 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이동에 따른 행위 주체들의 행위를 시적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설화적 내용의 특정인물이나 스토리를 인용하거나 재구술하는 방법으로서의 활용인 바 이런 설화 재현식 시 쓰기는 실제로 1910 년대 이후, 서정주를 비롯한 김소월, 박재삼, 신동엽, 전봉건, 김춘수, 송수권 등 시인들이 사용했던 시 쓰기 방법이다. 그들은 설화를 시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아 설화의 '집단서사'를 시인의 '개인서사'로 변용해 개성적이고도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왔다.[1]「서동요」 또한 다양한 성격을 지닌 노래로 현대적 활용 가치가 인정되면서 현대시, 현대소설, 드라마, 뮤지컬, 노래, 지역문화 등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쓰기를 통해서 음풍영월, 화조월석 등 자연적 소재의 전통 정형서정시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에게 다른 시 양식과 시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시창작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게 한다. 설화 재현식 시 쓰기는 같은 내용을 부동한 그릇 양식에 담아내는 창작으로 현실반영의 이야기 시 쓰기와는 좀은 다르지만 시 창작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이 각이함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2 설화속 주인공을 시적화자로 내세우기

시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려는 표현의 욕구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 표현의 욕구는 인간정신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또한 시인으로 하여금 한 편의 작품을 쓰게 하는 계기는 외부세계로부터 받은 하나의 충격이나 혹은 감동이다. 「서동요」배경설화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서「사랑성취담」,「경제적 성공담」,「정치적 성공담」등 이야기는 독자들의 심리적 체험 및 욕망과 맞닿으면서 서사내용을 자아화하고 개인 정서를 보편화할 수 있다. 즉 자아와 세계가 하나의 새로운 동일성의 차원에서 승화되면서 시창작은 가능해진다. 혹자는 서동과의 동일시를 추구할 수 있고 혹자는 선화공주와 동일시를 이루고자 한다.즉 순간적으로 독자는 서동이 되어보고 선화가 되어본다. 나아가서 서

[1] 오정국(2002),「한국 현대시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쪽.

동 혹은 선화공주를 시적화자로 등장시키며 시인은 이야기 속 인물들과 합일을 이룬다. 또 시상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야기 공백이 있는 부분에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원전해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상상이어야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럼 아래 서동요를 활용한 현대시[2] 가운데서 주인공 선화공주를 시적화자로 내세우고 선화공주의 심리공백을 채워서 표현한 문효치 시인의 시 「님이 오시는 아침」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 저 지평선 끝에/ 일어서서 걸어 오시는 이// 옷자락, 물들여 나부끼는/어둠을 터어내고 다가오시는 이//햇빛, 거대한 악기 속을 지나 나오며/ 부신 선율 만들고// 선율, 또한 휘감겨 세상을 밝혀/ 그 손목 잡고 오시는 이// 우주의 끝에 씻어 두었던/ 맑은 천년/그 어깨에 날개 달아/ 날아 올리며 띄어 올리며// 가슴 가슴 속에/ 볕드는 방/ 방으로 들어오시는 이// 그 신발 끄는 소리/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님 오시는 아침//
>
> - 문효치 「님 오시는 아침」, 『백제시집』, 문학아카데미, 2004(blog. Daum.net)

원텍스트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는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일방적인 구애과정이 위주로 서술이 되었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된 입지에 처해 있는 선화공주의 갈등과 고통의 심리 및 태도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문효치의 「님이 오시는 아침」에서는 이 부분의 공백에 주안점을 두어, 선화공주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던 시점에 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상상을 넓혀 선화공주의 기다림의 내면정서를 중심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시이다. 이 시는 님을 "아침해"에 비유한다.먼저 첫 두 연에서 아침해가 지평선 끝에서 어둠을 걷어내며 황홀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지평선 끝에 일어서서 걸어오시는 이", "옷자락 물들여 나부끼는", "어둠을 터어내고 다가오시는 이"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해내면서 님을 등장시키며 독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된 님이 누구일가라는 호기심을 자아낸다. 3 연은 "햇빛"이라는 시어로 시작되는데 이로부터 독자들은 첫 두 연에서 언급한 님의 이미지는 아침해가 지평선 끝에서 어둠을 헤치고 붉게 솟아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임을 알게 되며 햇빛은 님의 환유적 표현임이 밝혀진다. 3 연과 4 연에서는 "선율"에 의한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한다. 여기서 "선율"은 "서동요"를 의미하고 "선율…그 손목 잡고 오시는 이"는 "서동요" 노래와 함께 다가오는 서동님에 대한 시적 표현이다. 그리고 5 연에서 "맑은 천년"이라는 시어는 신라 천년 역사에 대한 시적표현이

[2] 《서동요》를 활용한 현대시로 다음과 같은 시들이 있다. 고영민, 「서동요를 듣다」,『악어』,실천문학사,2005; 권천학, 「서동의 일기」, 『청동거울 속의 하늘-삼국유사에 부쳐서』, 푸른 물결,1998; 권천학, 「서동의 일기-서동•1」, 『가이아 부인은 와병중』, 뿌리, 1994; 김규화, 「서동이여」, 『진단시동인 테마시집-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 김석규, 「신서동요」, 『태평가』, 빛남, 2001; 김용관, 「마동이 선화공주를 안고」, 『산으로 오르는 풍경소리』,정은출판, 2005; 문효치, 「서동의 기쁨」, 『진단시 동인테마』,시문학사, 1991; 박경석, 「내 열하홉 서동」, 『아내의 잠』, 민음사, 1987; 박상배, 「신 서동요」, 『모자속의 시들』,문학과 지성사, 1988; 박진환, 「서동」, 『진단시동인 테마시집-서동에서 등잔까지』, 시문학사, 1991.-하경숙, 「<서동요>의 후대적 수용 양상과 변용 연구」, 49쪽

라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시조 박혁거세의 건국시기인 기원전 69 년부터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하면서 멸망한 시기인 935 년까지를 합치면 천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어깨에 날개 달아 날아 올리며 띄어 올리며”는 아침해가 솟아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기도 하며 서동으로 하여 빛날 신라 역사에 대한 표현이다. 드디어 아침해는 6 연에서 선화공주의 가슴 속에 비쳐든다. 사랑하는 애인사이에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화공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발 끄는 소리”만 들어도 “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은 어둠의 반대 이미지이다. 빛은 어둠을 추방하고 사물을 명확하게 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지혜, 인식, 통찰 등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며 희망, 길조,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서동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을 뿐더러 선화공주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고 그의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이다. 또한 훗날 신라왕의 신임을 얻고 백제의 왕이 되며 또 미륵사를 창건하는 위업을 달성해 내어 국가의 밝은 미래를 열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는 존재로서 “아침해”로 상징되어 표현됨은 너무나 적절하면서도 경이로운 시적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화공주의 님의 출현에 대한 기다림은 현대의 대중적인 애정 심리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독자의 내면세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화 속 주인공을 시적화자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시인 자신이 텍스트의 화자로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3 학생들의 시 창작 사례 소개

「서동요」및 배경설화에 대한 꼼꼼한 해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화의 작품서사를 접하게 하고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하고 나서 다음은 학생들에게 설화 재현식의 이야기가 도입된 시 쓰기 및 시적화자가 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여 다시 설화의 서사를 기반으로 시 창작을 시도하게 한다. 다음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에 완성한 즉흥시를 몇 편 소개하고자 한다.

창작사례 1: 「서동요」 왕지강 (남)

자고로 인연이란 때가 있고 운세이니
억지로 열매를 맺어서는 안되는데
서동은 노래를 지어 공주님의 마음을 열어
피리를 불어 나비를 불러오니
마 위에 꽃이 피고 이 땅을 녹여주네
장하여라 우리서동
묘하여라 서동요여

가락이 인(姻)이 되니 연이 제발로 이어지네.

이 경우, 학생의 시는 제3자의 시점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차분히 읽어낸다.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성취를 인연으로 인식하고 “인연이란 때가 있고 운세이니”라는 시적표현으로 보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天时地理人和 (천시지리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위의 작품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서동은 백제의 미천한 신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라왕의 딸과 결혼하고 또한 백제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역사적, 시대적인 원인이 안받침되어 있다. 또 서동이 신이하게 태어나서 비범한 능력과 과단성 및 용감한 행위로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를 소유한 인물이었고 선화공주 또한 일반 왕궁의 딸과는 다른 온전한 자기를 실현하는 인물이었기에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 공주님의 마음을 열었다”는 시적표현은 설화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성취시킨 매개체로 작용한 “동요의 힘”을 강조하면서 서동설화 이야기 핵심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낸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도 노래로 사랑표현을 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현실생활에서도 자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창작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노래를 피리소리에 비유하고 아름다운 선화공주를 나비에 비유함으로써 시의 예술성을 높여주며 미적감각을 안겨준다. “마 위에 꽃이 피고 이 땅을 녹여주네”는 서동이 마를 캐는 소년이었고 또한 서동이 아이들에게 마를 먹여 친해지게 한 다음 동요를 부르게 했고 또한 마파던 밭에 쌓아놓았던 황금이 매개가 되어 신라왕의 인심을 사고 백제왕으로 될 수 있었다는데 대한 시적표현이다. 마는 서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또 선화공주를 만나게 해준 매개물로서 작용했으며 마 밭에 쌓아둔 황금은 서동이 신라왕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보아 “마 위에 꽃이 피었다”는 시적 표현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징적 표현이다. 숨어있던 서정적 화자가 등장하여 서동과 서동요에 대한 찬가를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시구 “가락이 인이 되니 연이 제발로 이어진다” 는 노래의 매개작용 하에 이루어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연분으로 귀결하면서 제 1 구와 호응을 이룬다. 이 시는 형식상 한 개 연으로 된 짧은 시이지만 서동설화의 사랑성취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영웅적 행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담아낸 아주 훌륭한 시라고 필자는 감히 평가를 한다.

창작사례 2: 「선화에게」, 「서동에게」 최주림 (여)

선화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니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고

서동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에게 기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니 세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자꾸 나를 오라하더라	세상으로 널 따라 나섰다
한번만 들은 너의 이름이	처음으로 본 너의 모습에
단번에 귀에 꽂혀	모든 것을 걸리라 결심했다
마를 캐던 두 손으로 너를 안고	수를 놓던 두 손으로 너를 안고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하던 두 귀엔	아부로 가득하던 두 귀엔
너의 목소리로 가득하구나	너의 속삭임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가진 백제라는 나라보다	한 나라의 공주였을때보다
너와 함께 하는 세상이 더 넓구나	한 남자의 여자가 더 행복하구나

이 시는 편지체의 제목으로 시작되어 선화는 서동에게, 서동은 선화에게 내심을 고백하는 사랑시이다. 또한 이 시의 특징은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이 이루어진 후를 시점으로 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시「선화에게」의 시적화자는 서동이고「서동에게」의 시적화자는 선화공주이다. 이 두 시는 모두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핵심으로 그들의 사랑고백을 낭만적으로 담아내며 서동과 선화공주의 내면심리를 기본서사와 접목해서 상상력을 작동하고 그들의 심리를 풀어내어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창작사례 3:「서동요」 류청려 (여)

> 경국지색 진평왕의 셋째 딸/마파는 소년 서동이 연모하여/참요를 불러 널리 퍼뜨렸네/ 선화공주 귀양길에 오르고/서동과 동고동락하며/마밭의 황금으로 부왕의 인심얻어/왕의 위업 이루었네//얼씨구 절씨구/서동왕 선화공주/아기자기 알콩달콩/백년해로 누리소서//

세 번째 시는 「서동요」 이야기 줄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시이다. 즉 앞에서 소개한 창작방법 중에서 스토리를 재현해내는 창작방법을 채용했으며 2 연으로 된 짧은 시가 형식으로 설화의 핵심이야기를 풀어낸다. 여기서 시적화자는 학생 자신이다. 3 연에서는 서동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성취에 찬사를 보내는 감정을 토로해낸다. 특히 3 연에서 사용한 “얼씨구, 절씨구” 시어는 흥겨울 때에 장단을 맞추며 내는 음악소리로써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축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유효적이다.

또 한 학생(盛鮮荷, 여)은 설화 속의 부차적 인물인 선화공주 어머니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 왕후의 마음/자식을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천하 부모님 마음// 허나 이제 내 딸은/ 먼 백제로 시집가는구나// 내가 없는 곳에서 혹여/ 괴롭힘 당하면 어쩌나/ 걱정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순금 한 말 뿐이로다// 이젠 딸을 먼 곳으로/ 보내야 하구나/서러워라, 서

럽도다//

학생은 선화공주의 어머니를 시적화자로 내세워 부득이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안타까우면서도 무내한 정서를 읽어내며 공감하고 시로 풀어낸다. 딸을 떠나보내는 왕후의 마음은 세상 엄마들의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기에 짜릿한 감동이 이어진다. 이는 작품 해독 부분에서 “꼼꼼히 읽기”를 통한 자세한 설화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세부적인 관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 「서동요」 및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수업 방안을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설화 선별, 자세한 작품 해독, 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기법 소개 및 시 창작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럼 아래 설화를 활용한 시창작 수업의 의의를 짚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체하고자 한다.

첫째,「서동요」및 배경설화 원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독을 할 수 있었으며 고전문학 전통적 교육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시 창작 수업을 통해 시 창작 기법을 적당히 배울 수 있었고 아울러 시 구사능력과 창작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평소에 시쓰기 엄두를 전혀 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셋째, 설화를 읽고 시를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설화 속 이야기 서사와 내면의 자기서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창작에 임함으로써 공감과 조화의 힘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

물론 학생들이 창작한 시 작품은 여러모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설화를 활용한 현대적 재창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시는 창작능력을 지닌 전문 시인과 연구하는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시 읽기와 시 쓰기를 교양으로 해왔듯이 현대의 시 읽기나 시 쓰기도 교양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창조가 중시되는 감성의 시대 시 읽기나 쓰기는 더더욱 홀시할 수 없는 교양수업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설화를 활용한 현대적 시 쓰기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및 어울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같은 맥락에서 좀 더 다양한 설화 소재의 시 창작 수업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향아, 「시의 이론과 실제」,창조문예사,2011.

송정란, 「현대시의 삼국유사 설화 수용에 관한 연구;미당 서정주의 시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참조.

오정국, 「한국 현대시의 설화수용 양상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조은정, 「삼국유사의 시적 수용과 '미당 유사'의 창조」,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2005.

주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 양상 연구」,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리파르떼 미카엘,유재천 역, 『시의 기호학』, 민음사, 1989.

공광규, 「설화 수용 하기」,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 수업』,시인동네,2016.

노영윤,「설화를 활용한 시 창작 과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년.

광광규,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오정국, 「한국 현대시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최선경,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향가 및 향가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357 쪽.

朴魯卨, 「향가, 그 현대시로의 변용」-「헌화가」,「서동요」를 대상으로-

안창수, <서동요>로 살펴 본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 교사교육연구 제 51 권 제 3 호, 367 쪽-378 쪽.

인적사항:

이름: 손경란

소속: 중앙민족대학교

우편번호:100081

전화:13718576688

전자우편: 2006059@muc.edu.cn

sql2006059@hanmail.net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연구

전홍
(장춘대학교)

1.서론

현재 교육의 패러다임이 구성주의로 전이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학습자 활동 중심 접근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위해서 우선 외국인 학습자들의 이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내부 자질로 인해 동기화되기도 하지만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수용 주체인 독자에 의해 형성되는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였고 그 성격에 따라 이를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은 독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호텍스트성을 의미한다. 즉, 독자는 필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독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는 기억[1]의 총체로서 독자의 일상적.문화적. 문학적 경험과 체험이 작용하게 된다. 해석학에서는 상황성, 이해의 역사성, 전이해 등은 모두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한 독자의 기본 조건임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조건들이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부족한 언어 능력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고, 성인 학습자로서 인지능력이 발달하였고,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문학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학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면서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능동적인 독서를 통해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가며,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다시 쓰는(Scriptible) 과정[2]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독자가 환

[1] 사전에서 말하는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엇을 기억해 내다'라는 말은 인지 과학이나 뇌과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사실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상하는 기억 활동은 보존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창조적 성격을 지닌 구성작업을 말한다. 기억의 활성화는 앞서 있었던 체험이 다른 체험과 결속되면서 만들어진 체계화된 인지 구조를 거쳐 일어난다. 변학수,『문학적 기억의 탄생』,열린책들, 2008, 21-22쪽.

[2] 롤랑 바르트는 이런 재생산 과정에서 '텍스트의 즐거움'이 발생한다고 했다. G. Allen, 송은영 역, 『롤랑 바

기한 상호텍스트는 텍스트 수용을 넘어 표현의 방법으로 활용되며,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목표는 언어 능력의 향상, 문학 소양의 함양, 문화 능력의 증진에 있다[3]. 상호텍스트성을 학습 독자의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바라볼 경우,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은 문학 및 문화 능력의 증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의 환기 구조를 밝히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2.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의 전제

2.1.상호텍스트성의 개념 및 특성

2.1.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플렛(Plett)과 같은 언어학자는 문자적인 의미를 이용한다. 'intertext'는 문자 'inter'를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면 "텍스트들 사이에 있는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의 '사이'는 상호텍스트를 만드는 요소 내지는 특성, 곧 상호텍스트성으로 규정한다.[4] 범박하게 정의하면, 한 텍스트와 연관시키는 다른 텍스트를 상호텍스트라고 하며, 텍스트의 이런 속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처음에는 주로 생산 차원에서 다른 텍스트의 구문을 인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용의 문법과 송신자, 발신자, 코드 등에 관련된 인용의 용법 등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인지 심리학 및 텍스트 언어학의 발전으로 인해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텍스트 사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른 텍스트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적 도구로 확대되었다.[5] 그것은 텍스트 생산이 텍스트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작가 중심적으로 논의되던 작품이 독자 중심으로 옮겨옴에 따라 상호텍스트성은 독자의 수용과 이해 차원에 대한 논의로 그 범주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수용미학의 단초를 마련한 야우스(Jauss)는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이미 읽었던 다른 작품에서 얻은 지식이나, 이전의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독자의 심리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제를 '기대지평'이라 명명하고, 이를 통

르트』, 앨피, 2006, 172쪽.

[3]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73-98쪽.

[4] H. F. Plett, "Intertexualities", *Intertextality*, NY: Routledge, 1991, p.17.

[5] 이현호, 『한국 현대시의 담화.화용론적 연구』, 한국문화사, 1994, 72쪽.

해 수용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결정된다고 보았다.[6]

구성주의 관점에서 독자는 상호텍스트적 단서를 활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규정된다.[7] 미러(Miller)는 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인간 행위자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상호텍스트성을 사람들에게 형성되고 인식되는 상호텍스트적 단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 개인이나 사회집단들로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상호텍스트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다.[8]

리파테르는 주로 생산 차원에 머물렀던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수용 차원에서 개념화하였다. 그는 상호텍스트를 독자의 '마음 속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한 텍스트를 읽을 때 떠오르는 다른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위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은 성립한다고 보았다.[9]나아가 홀투이스(Holthuis)는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 내부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과정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관계로 인식하였다. 상호텍스트적 특질은 텍스트로부터 동기화될 수 있지만 텍스트와 독자, 즉 그의 인식정도와 수용지평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완성되어진다. 달리 말해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로서 상호텍스트성은 수용의 연속성상에서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지 오로지 작품 내적 방식에 따르는 구상에서처럼 텍스트 자체 속에서 그리고 그것 자체를 통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10]또한 홀투이스는 명시적으로 '심미적 상호텍스트성'에 국한하여 문학텍스트를 해석하였는데, 이 개념은 페퇴피(Petofi)가 텍스트를 "기호학의 대상"으로 특성화한 기호학적 텍스트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11] 페퇴피는 텍스트성을 언어적 대상, 곧 텍스트 내부 자질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홀투이스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상호텍스트성은 오히려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2]

이상의 논의와 같이 본고에서도 수용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바라보고자 하며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따른다. 또한 그 성격에 근거하여 이를 발산적 상호텍스트성 또는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13]가장 급진적인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지식, 잠재적으로 무한한 의미 작용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가 형성할 수 있는 발산

---

[6]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2002, 110-111쪽.

[7] N. N. Spivey, *The constructivist metaphor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 신헌재 역,『구성주의 은유-읽기 쓰기 의미 구성의 이론』, 박이정, 2004, 147-157쪽.

[8] 위의 책, 146쪽.

[9] M. Riffaterre, *Text Produc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p.250-253.

[10] S. Holthuis: *Intertextualität. Aspekteeiner rezeptionsorientierten konzeption,* Tübingen 1993, S.31. (이광복,「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독어교육』3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37쪽에서 재인용.)

[11] J. P. Petofi, "Language as a Written medium text", in: Collinge, N.E.(Hrgs.). *An Enyclopeadia of Language,* London et al: Cambridge Uni. Press. 1990, p.209. (이성만,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의 텍스트-텍스트 개념정립에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의 역할에 관한 연구」,『언어과학연구』33, 언어과학회, 2005, 224쪽에서 재인용.)

[12] 위의 글, 224쪽.

[13] 텍스트 내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중심의 상호텍스트성 또는 수렴적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적 상호텍스트성의 범위는 다양한 다른 문학 작품, 영화, 그림, 음악 등 매체 경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플랫은 언어적 기호가 시각적, 청각적 기호로 그리고 역으로도 전이된다는 전제 하에 '상호텍스트성' 개념 대신 '상호매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14] 특히 디지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은 독자가 형성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다. 독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텍스트 간의 관계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이 과정에서 독자의 창의성은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2.1.2. 상호텍스트성의 특성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독자라는 두 축에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특성은 수렴성과 발산성, 유사성과 차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수렴성과 발산성

수렴성과 발산성은 창의적 사고력의 일종이다. 사고의 수렴성은 텍스트 정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이고 1차적으로 유발되는 정신 작용으로서, 텍스트의 정보와 1대 1로 대응하는 속성이다. 문학 감상을 예로 든다면, 작가의 사고와 이를 형상화한 작품의 의미를 충실히 수렴하여 파악하는 활동이다. 한편 사고의 발산성은 텍스트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그와 관련된 간접적이며 2차적으로 유발되는 정신작용으로서 이는 언어 정보와 1대 다수로 대응된다[15].

류수열은 상호텍스트성을 수렴적 상호텍스트성과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으로 분류하였다. 수렴적 상호텍스트성은 작가의 텍스트 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 읽기에서 텍스트의 근원이자 기원인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여 그것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독서법을 일컫는 것이고,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은 독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상호텍스트적 연관망이 독자의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스스로 형성하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독자가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이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이다.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환기한 상호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읽힐 수 있으며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은 독자의 의미 구성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며 복합적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독서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유사성과 차이성

상호텍스트는 텍스트 사이의 인용, 표절, 복사, 모방, 혼성모방, 패러디, 의견일치, 의미중첩, 혼합적 의견강화, 목소리의 배합과 중첩 등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다양한 영향과 수용관계를 비롯하여 거대한 텍스트들의 우주에서 의미론적 상관관계를 내포한다[16]. 텍스트

---

[14] H. F. Plett, "Intertexualities", *Intertextality*, NY: Routledge, 1991, pp.101-107.

[15]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한국문학교육학회 편저,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32쪽.

[16] T. Todorov, *Mikhail Bakhtine,* 최현무 역,『문학 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 134-135쪽.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상호텍스트와 원텍스트 간의 동일성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별화되어야 하며, 그 존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헤겔(Hegel)은 어떤 사물의 존재나 동일성을 알려면 그것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들과 변별하고, 존재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통해 매개된다. 우리는 오직 차이를 통해서만 한 사물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차이는 존재들 간의 부차적이거나 무차별적이거나 단순히 외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17]. 즉, 텍스트의 개별성과 존재성을 결정해 주는 것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성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독자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면서 더 풍부한 의미 구성을 이끌어낸다.

본고에서는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다루었는데 이때 두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성립시키는 기제는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인식하는 두 텍스트의 유사성이다. 유사성은 동일성에 비해 조금 느슨한 개념이지만 동일성의 범주에서 뻗어져 나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사성이라는 용어는 이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이해 과정에서 환기한 텍스트와 원 텍스트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두 텍스트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반복의 긴장 관계를 인식하면서 독자는 작가의 상상력을 역추적하게 되고, 두 텍스트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2.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의 환기 구조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기억의 총체로서 배경지식과 자신의 문화론적 지평과 경험 등을 조회함으로써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다. 라흐만(Lachmann)은 문학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를 기억하게 하는 '인위적 기억'으로 이해하면서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 놓인 기억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주목받았다. 라흐만은 "문학은 기억의 주문이고 기억은 문학의 원천"[18]이라고 하면서 문학과 기억의 관계에 주목한다.

독자는 기억을 환기함에 있어서 연상 기제를 동원하게 되는데 유사 연상은 의미 내용이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 한쪽의 출현으로 다른 쪽이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물에 대한 감상이 그 사물과 성격상에서나 형태상에서 비슷한 다른 사물을 떠올리게 하는

[17] C. Colebrook, *Understanding Deleuze,* 한정헌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79쪽.

[18] R. Lachmann: Kultursemiotischer Prospekt, in: Anselm Haverkamp & Renate Lachmann: *Memoria-vergessen und erinnern,* München 1993, S. XXVI.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3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34쪽에서 재인용.)

정신 작용을 말한다.[19] 야콥슨(Jakobson)에 따르면 어느 언어 기호이든 두 가지 양식의 배합이 관계한다고 말한다. 그는 언어 행위의 근본적 배열 방식으로 선택과 결합을 들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 근간은 “등가성, 유사성과 상이성, 동의어와 반의어”이고 결합의 근간은 “인접성”이다. 선택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단어들 사이에 연상이 만들어지면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결합은 각 언어 단위가 보다 복잡한 단위 속에서 콘텍스트를 찾아내어 연결하는 관계성을 말한다.[20] 학습자가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도 이러한 유사성과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유사성, 경험의 인접성, 문화의 동질성에 따라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다고 본다.[21] 이는 상호텍스트를 촉발한 기제로서 독자의 기억의 중심이 텍스트에 있는지, 독자에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거시적인 문화적 기반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2.2.1. 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환기

하르트만에 따르면, 독자는 이미 읽었던 텍스트나 알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김도남은 독자가 구성하는 텍스트의 개념을 말하면서 ‘내재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2] 이와 상반된 ‘외재 텍스트’는 저자가 쓴 텍스트로, 독자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외재 텍스트로서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이미 삶에서 축적한 많은 경험과 지식의 총체로서의 내재 텍스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외재 텍스트인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내재 텍스트를 환기하고 이를 다시 이해 과정에 적용하게 된다.

학습 독자들은 주어진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가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유사한 의미 내용을 지닌 다른 텍스트를 떠올리게 된다. 모든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처음 하는 작업 중의 하나는 텍스트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23] 하지만 상호텍스트는 문학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로부터 환기될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의 제재, 시적 화자나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태도, 분위기 등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로부터 환기될 수 있다. 또한 학습 독자는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가치를 자신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미 내용이 유사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기도 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유사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환기는 이해 과정에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다.

---

[19]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366쪽.
[20] T.A. Sebeok, *Style in Language*,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61쪽.
[21] 용어의 사용면에서 유사성, 인접성, 동질성이라는 용어는 내용, 경험, 문화라는 단어와의 결합의 적합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와의 결합은 동일성보다는 동질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질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2] 김도남, 앞의 책, 2005, 127쪽.
[23] 김운찬, 『현대기호학과 문화 분석』, 2005, 148쪽.

이때 중요한 것은 독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와 한국어 문학 텍스트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깊게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단지 제재가 유사한 다른 텍스트를 환기하였다면 그것은 한국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환기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문학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환기하였을 때 주제가 유사한 텍스트를 환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2.2.2. 문화의 동질성에 따른 환기

문학 텍스트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며, 문학 작품은 목표 문화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의 과정이고 자국 문화와 비교하면서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행위(또는 그러한 행위의 산물)이며, 이때 문화적 기억의 대표적인 매체로 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24]기억의 저장 창고로서 텍스트는 문화를 위해 특정 기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문화를 통해 저장된 기억을 기록하는 기억 행위이기도 하다.[25] 독자가 환기하는 상호텍스트는 독자의 문화적인 맥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피조물인 독자의 지식과 경험은 문화론적 맥락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의 주체로서 독자는 문화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지금 여기에서'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므로 독자는 자기 자신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한·중 두 나라는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었고 교류가 밀접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이 한국어 문학 텍스트에 체현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텍스트에 내재한 문화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적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 이는 문학 작품에 체현된 문화적인 요소나 문화 현상, 또는 작가의 발상을 체현해 주는 소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문화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지평 융합과 확산을 통해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2.2.3 경험의 인접성에 따른 환기

기억은 지금의 경험을 풍부하고도 복잡하게 하는 과거 경험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의 영향이 시간의 간극을 넘는 것처럼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생물체에 나타나는 특유의 방식이다.[26] 경험의 인접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환기는 독서 과정에서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환기하면서 일어난다. 기억의 재형상화 과정은 독자에게 자신

[24]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45쪽.
[25] 위의 책, 277쪽.
[26] I. A. Richards, *The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이선주 역, 『문학 비평의 원리』, 동인, 2005, 128쪽.

의 과거 경험과 텍스트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텍스트를 해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억은 텍스트라는 허구 세계와 독자의 경험 세계를 연결시킨다. 숄즈(Scholes)는 이러한 능력을 문학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27]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고,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자기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독자 내면에 잠재된 과거의 기억은 텍스트로 인해 활성화되는데, 이때 환기되는 기억들은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와 선택적 관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습자가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해석했는지에 따라 환기한 상호텍스트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때, 학습자의 개별적 경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이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수용해 나간다. 텍스트에 나타난 경험과 유사한 기억이 있을 경우, 독자는 그러한 기억을 회상하고 텍스트와 관련지으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 이는 학습 독자가 문학 텍스트를 자기 삶에 조회시키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학 텍스트의 주제가 '사랑', '이별', '그리움' 등 인류 보편적인 주제일 경우, 이러한 경험의 인접성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험을 매개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려면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자신의 경험 지평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읽고 유사한 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보다 경험의 인접성을 통해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경우에 한국어 문학 텍스트를 자기화할 수 있게 된다. 자기화는 텍스트의 이해가 자기 이해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함축하며, 텍스트가 지닌 의미의 가능성을 현재적으로 실현 또는 실연하는 것이다.[28] 따라서 경험의 인접성에 따른 상호텍스트의 환기는 문학 교육의 지향하는 목표에 가깝게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의 방법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은 문학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교육의 장에서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달된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잠재된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학습자가 문화적인 차이를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자기 이해를 메타적으로 성찰

[27] R. Scholes, *Semiotics and interpretation,* 유재천 옮김,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사, 1998, 5
[28] P. Ricoeur,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182-183쪽.

하도록 교육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자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3.1.관념의 선택 및 기억 활성화하기

한국어 문학 텍스트 이해하면서 발산적으로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은 독자 기억의 능동적인 투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자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상호텍스트들과 수많은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텍스트들은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내야 한다. 순수기억은 의식의 배후에서 잠재적인 상태로 존속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 이미지의 형태로 의식 속에 현실화되어 현재의 지각 경험을 완성한다.[29]

베르그손에 따르면, 기억의 능동적인 투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각과 신체 운동 사이에 운동적 도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지적으로 재구성한 것, 즉 관념에서 출발해 이미지 기억들이 분산되면서 분절된 말들의 지각으로 나타난다. 즉 관념-이미지 기억-말 지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다. 베르그손은 이 과정 전체를 '역동적 도식'이라고 한다.[30] 베르그손의 역동적 도식에 근거하면 기억의 활성화는 관념 형성하기→ 이미지 형상화하기→기억 활성화하기 순서로 이루어진다.[31]

이에 근거하면, 학습자들의 기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 텍스트를 예로 들면, 관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시적 소재에 대한 이해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지배소로 작용하는 시구나 상징적 시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학습자로 하여금 관념에서 출발하여 감각, 느낌, 정서 등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이미지 기억을 형상화하게

---

[29] 우리의 정신은 바로 이 잠재적인 과거의 존재 때문에 물질과 달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다. '과거-무의식-잠재적인 것'과 '현실-의식-현실적인 것'이라는 본성상 다른 두 계열은 원뿔 도식의 바닥과 꼭지점처럼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김재희, 『물질과 기억』, 살림, 2008, 123쪽.

[30] 위의 책, 179쪽.

[31] 역동적 도식에 근거하여 기억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지를 고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념의 선택
-시의 주제 및 제재는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을 찾아보시오.
2. 이미지 형상화하기
-선택한 관념에 대한 감각, 느낌, 정서를 표현해 봅시다.
예: 슬프고 막막한 느낌, 모순되고 괴로운 심정 등
3. 기억의 환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봅시다.
-유사한 텍스트(시, 소설, 음악, 영화, 드라마 등)가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자국 문화와 비교해 봅시다.

한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해하면서 독자가 형성할 수 있는 관념은 이별, 한, 슬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념들은 독자의 잠재적인 이미지 기억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발산적 상호연관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제가 된다. '이별'을 관념으로 선택한 학습자의 경우, 이별의 장면을 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별 장면, 자신의 이별의 경험, 또는 자국의 다양한 이별을 다룬 텍스트들에 대한 기억들을 환기할 수 있다. 이미지 기억의 활성화는 학습자 주체의 경험과의 인접성을 통해 발산적 상호연관성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발산적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경우에는 직접 관념을 선택하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독자는 이러한 관념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기억 속의 상호텍스트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3.2.문화적 기억의 의미 반추하기

기억 또한 문화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특히 기억의 방법과 그 결과는 '문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은 항상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실천 작용을 수반한다. 재현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 및 조건과 접합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물에 대한 생산과 수용의 방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다.[32]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과거의 문화적 기억들을 현재로 이끌어 냄으로써 상호문화적인 이해와 한·중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자아를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아와 타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방식의 고착화로 인해 자아의 틀에 박혀 타자를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와 '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에서 형성되는 것이다.[33]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문화적인 기억을 활성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반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추란 경험 대상으로서의 텍스트 혹은 텍스트의 주체로부터 온전한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자기화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34]

교사는 학습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와 원 텍스트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사성과

[32] 태지호, 『기억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쪽.
[33] 위의 책, 2014, 70쪽.
[34] 이정우, 『개념-뿌리들』, 철학아카데미, 2004, 380쪽.

차이성을 지니는지,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주관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교수적 대화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문화간 차이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거나 고정관점의 영향으로 인해 타문화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역사적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존재하는 문화간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기억을 반추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역할놀이나 구술과 같은 활동을 들 수 있다. 역할놀이는 문학작품 속 인물이나 발화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역할 담지를 통해 자기중심적 및 자기문화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구술은 자기의 직접적 경험과 연관시켜 타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기억을 반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기억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반추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다.

3.3.메타연관적 감상문 쓰기를 통한 자기화하기

발산적 상호텍스트의 환기는 문학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의 제한된 지평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거나 환기 차원에 머물러 한국어 문학 텍스트와 깊이 교섭하여 읽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쓰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텍스트를 환기하게 된 과정을 반추하고 두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문학 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소통 주체의 수용·판단·반응과 조우했을 때 비로소 의의를 지니게 된다. '거기에 텍스트가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 의미와 소통 주체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우위를 주장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제는 의미 분석과 동시에 수행되며, 그럼으로써 시 텍스트의 인식론적· 미적·윤리적 효용성이 생겨난다.[35] 외국인 성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자국의 문학 교육을 통하여 상당한 문학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심미적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류보편적인 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어 문학 텍스트일 경우, 독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쓰기 텍스트에 독자의 감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글쓰기를 메타연관적 감상문 쓰기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메

[35]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270-271쪽.

타연관적 감상문 쓰기는 상호텍스트성을 그 본질로 삼아 이루어지는 쓰기라는 점에서 연관적라는 용어를 부여하였고 또한 그 연관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메타적인 글쓰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메타연관적 쓰기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감상 과정에서 독자의 기억과 경험을 이끌어내어 자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상문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 메타연관적 감상문 쓰기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와 결부하여 쓰도록 한다. 첫째, 환기한 상호텍스트와 원 한국어 문학 텍스트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둘째, 한국어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독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쓰도록 한다. 둘째, 비교·감상을 목표로 하면서 환기한 텍스트와 한국어 문학 텍스트 중에서 어떤 텍스트를 더 좋아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도록 한다. 셋째,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환기되는 텍스트가 있으면 적어보도록 한다. 이런 접근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경험을 활성화하여 한국 문학 텍스트를 자기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두 텍스트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심미적 평가를 유도하고, 또한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기억을 활성화하여 상호텍스트를 발산적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4. 결론

문학 교실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습자와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고안하였다.

상호텍스트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문화적 맥락을 성찰하고 한국어 문학 텍스트와 비슷한 경험을 환기하기도 하면서 자기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끌어내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기법적 차원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독자 중심의 문화적인 기제로 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학습자가 환기한 상호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문학 텍스트를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서 창조적인 의미를 창출한다면 텍스트 수용과 생산을 아우르는 문학 능력의 신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산적 상호텍스트의 환기 구조에 따른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그쳤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 소통 주체들이 상호주관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서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정한 대화를 통한 역동적인 교수-학습 현장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상호텍스트의 환기 구조를 이론적으로 더 세분화하여 논의하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독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기억을 활성화하여 형성하는 독특한 상호텍스트성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2005.

김운찬, 『현대기호학과 문화 분석』, 2005.

김재희, 『물질과 기억』, 살림, 2008.

김중신, 「창의적 사고력과 문학교육」, 한국문학교육학회 편저,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2007.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2002.

이성만,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의 텍스트-텍스트 개념정립에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33, 언어과학회, 2005.

이정우, 『개념-뿌리들』, 철학아카데미, 2004.

이현호, 『한국 현대시의 담화.화용론적 연구』, 한국문화사, 1994.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태지호, 『기억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Allen, G., 송은영 역, 『롤랑 바르트』, 앨피, 2006.

Colebrook, C., *Understanding Deleuze,* 한정헌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Plett, H. F., "Intertexualities", *Intertextality*, NY: Routledge, 1991.

Richards, I. A., *The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이선주 역, 『문학 비평의 원리』, 동인, 2005.

Ricoeur, P., *Du texte à laction,*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Riffaterre, M., *Text Produc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Scholes, R., *Semiotics and interpretation,* 유재천 옮김, 『기호학과 해석』, 현대문학사, 1998.

Sebeok, T.A., *Style in Language*,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Spivey, N. N., *The constructivist metaphor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신헌재 역,『구성주의 은유-읽기 쓰기 의미 구성의 이론』, 박이정, 2004.
Todorov, T., *Mikhail Bakhtine,* 최현무 역,『문학 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

인적사항
이름: 전홍
소속: 장춘대학교 외국어학원
주소 및 우편번호: 길림성 장춘시 위성로 6543호, 130022
전화번호: 15144183786
전자우편: 2188380157@qq.com

한국 현대시 교육방법론 연구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중심으로-

리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 머리말
2. 문학경험의 개념 및 특성
3. 학습자 문학경험의 역(域)과 시 교육방법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문학교육 방법론의 일환으로 텍스트보다 그 수용 주체인 학습자에 초점을 두었고,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중심으로 시 교육에 맞닿는 내재적 역(域)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 텍스트에 대한 경험적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시 이해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교육은 문학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신장시켜 인간다움을 성취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겪게 되는 문학경험은 문학을 문학답게 향유하는 것에 핵심을 두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은 언어교육 또는 문화교육의 수단으로 작용해 오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와 함께 문학교육 자체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효용성은 기능교육에 비해 여전히 편파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적 연구에 착수하여 설득력 있는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문학교육의 추세를 놓고 볼 때, 텍스트와 교사가 중심이 된 전통적인 문학교육은 결코 학습자의 문학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이되고 있다. 아울러 시 교육에서도 시인-작품-독자라는 시 이해와 감상 중에서 시인으로부터 작품을 거쳐 독자로 그 관심과 이해의 중심축이 이동[1]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역동적인 주관성을 깊이

[1] 예전에는 주로 시를 창작한 시인이나 사회와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했던 시인론이나 표현론, 리얼리즘적 방법 및 작품의 내재적 특성에 주목하는 신비평, 형식주의, 구조주의 등 분석주의적인 방법이 시 연구나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를 읽는 독자나 학습자의 스키마(schema)나 개인적 체험과 관련된 수용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시 연구나 교육의 경향이 바뀌었다. 윤여탁(2017), 『한국 근·현대시와 문학교육』, 태학사, p.290.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학교육 현장인 교실에서는 문학과 교사, 학습자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새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상당한 이해력과 문학감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학교육은 기대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시는 소설보다도 그 본질인 난해성으로 인해 가르치기가 쉽지 않으며,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문학 배경지식이 결여된 학습자들에게는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로 치부되었다. 그러므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쉽게 맥락을 펼쳐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환기시켜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문학경험의 개념 및 특성

듀이(J. Dewey)의 관점에 따르면,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이 완전하게 수행될 때 상호 작용을 참여와 소통으로 변형시키는, 유기체의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결과이자 표식이다.[2] 경험은 경험되는 사물이 순조롭게 완성에 다다를 때, 내면적으로 완성될 때에 하나의 완성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3] 그는 경험을 일차적 경험과 이차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는데, 전자는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자연물을 사람들의 감관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일차적 경험 내용을 소재로 삼아 마음에서 반성과 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념이나 판단 등의 내적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은 계속성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모든 경험은 그것보다 선행하는 경험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것에 후속하는 경험들의 특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경험은 언제나 한 개인과 그 시점에서 그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交涉)을 통하여, 즉 개인과 환경이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음으로써 경험으로 성립되는 것이다.[4] 이처럼 경험의 종적, 횡적인 지평의 확대로 인하여 경험은 부단히 새롭게 재구성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험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반성적인 사고와 탐구의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게 된다. 반성적 사고의 능력이 신장함에 따라 성장의 각 단계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 교육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후속되는 경험의 성장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것들이어서 개인 성장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듀이가 말하는 교육적 경

[2] 존 듀이 지음, 이재언 옮김(2003),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p.48.
[3] 위의 책, p.71.
[4] 엄태동 편저(2001),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pp.47-59.

험은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경험', '가치 있는 경험'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 항목[5]들을 살펴보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교육적 경험 가운데 학습자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문학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삶을 핍진성 있게 형상화하여 학습자들이 작품의 세계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심미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자아, 타자,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와 성찰을 꾀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학습자는 문학경험을 통해 자아, 타자,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의 변화와 성장을 적극 추구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삶의 현상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하여 자아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문학경험은 주체의 심리적 참여를 바탕으로 텍스트 세계와 주체의 특별한 관계맺음에서 비롯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경험의 구조를 '공감을 통한 동일화'와 '거리두기를 통한 가치평가'[7]로 볼 수 있다. 공감을 통해 텍스트 세계와 동일화되는 것은 문학경험의 형성에 일차적 조건이 되며, 일방적인 공감으로 인한 자기 경험에의 함몰과 반복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성찰이 작용하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문학경험을 문학읽기 경험, 문학사 경험 그리고 문학창작 경험[8]으로 나뉠 수 있다. 이같은 견지에서 볼 때, 문학경험 역시 작품을 읽고, 문학사를 이해하며, 문학창작을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경험을 얻는 전제 조건에는 감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사물을 세부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직감능력과 숙고의 상태가 필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감성을 촉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무엇보다 문학경험은 두 가지 특성[9]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습득성이다. 문학을 구두와 서면 형식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는 그 자체의 두 가지 특징인 식별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문학사에서 전자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학경험은 주로 정전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것이고, 그것이 정전에 대한 한 민족의 문화기억 속으로 용해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새 정전을 창조하는 역사발전 속에서 선택적으로 복사, 강화화여 그 자체를 공고화한 것

---

[5] ① 실감나는 활동을 통해서 감수성과 감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장래의 풍부한 경험의 길을 열어주는 것, ② 편협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체적인 안목을 갖게 함으로써, 후속되는 경험의 범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현재에도 즐거우면서 동시에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 미래의 경험 성장에 도움 되도록 하는 것, ④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각각의 경험들이 서로 깊은 관련을 갖도록 하여, 갈수록 경험이 누적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송도선(2004),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문음사,p.160.

[6] 선주원(2013), 「소설 학습자의 문학경험 범주 내용과 작동 양상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47권, 청람어문교육학회,p.377.

[7] 최홍원(2014),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육학』45권, 한국문학교육학회,p.513.

[8] 公秀梅. 文學經驗-文學理論的基點. 文藝理論與批評, 2006(3) ,p.27.

[9] 萬娜. 文學經驗-文學本質界說的邏輯起點. 文藝理論與批評, 2011(3) ,p.111.

이다. 이와 달리 습득성은 주로 일정한 문화환경 속에서 개체가 문학과 관련된 지식, 기능을 배우면서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내면화는 또 다시 유의식과 무의식의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유의식의 경우는 다름 아닌 교육체재내에서 이미 개설한 과목에 따라 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고, 무의식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누적된 혼합상태의 문학경험이다. 장기적으로 일종의 문학관념이 작용하는 분위기 속에 처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 관념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개체의 문학경험 누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경험을 선지식과 더불어 교육과정과 텍스트와의 만남 속에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학습자의 심적 반응과 행동, 그리고 반성에 따른 문학능력의 작용 및 자아 성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학습자 문학경험의 역(域)과 시 교육방법

독자반응비평의 입장에서는 문학의 경험을 두고 실제로 보다 복잡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보다 강렬[10]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전에 읽은 작품을 통해 얻은 문학경험과 현재 혹은 미래에 획득하게 되는 문학경험 사이에도 쉼 없는 교섭을 통해 새로운 문학경험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고시사(古詩詞) 문학교육 경험사(經驗史)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식에 의해 중국인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세 가지 특징[11]으로 도출해낸 김영(2017)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 경험은 중국 고전문화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쌓는 단계이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중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을 통해 시의 절주와 운율을 습득하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며, 시어의 정련(精練)과 감정의 고양을 체득하게 된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는 고등학교에서의 고시사 학습을 통해 시어와 의상(意象)의 관계, 의상과 정서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그도 존 듀이의 경험 개념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을 『어문(語文)』 수업이라는 교실 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 텍스트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육적 경험[12]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국의 풍부한 문학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감상능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텍스트에 대한 선지식과 스키마를 갖고 있으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대지평도 지니고 있다. 기대지평은 자신의 경험과

[10] 루이스 엠 로젠블렛, 김혜리·엄해영 옮김(2008), 『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 한국문화사,p.61.
[11] 김영(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pp.24-27.
[12] 위의 논문,p.18.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문학관습과 관련된 것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상이한 기대지평을 갖고 작가가 창작한 시 텍스트를 마주하게 되며 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학경험을 활성화시켜 시 텍스트를 이해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차원적인 문학능력[13]을 기를 수 있고, 그 능력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소설 교육에서 학습자의 문학경험 범주와 작동 양상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고광수(2005), 류수열(2006), 최홍원(2007), 하근희(2011), 선주원(2013) 등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시 교육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설과 달리 시 교육의 특성에 맞는 문학경험의 역을 설정함으로써 그 경험적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시 교육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봉(2017)은 한국 현대시 교육이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룬데 대해 긍정하는 한편, 미흡한 점을 다섯 가지[14]로 지적했다. 본고는 그 중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활용한 시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험으로서의 문학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요소와 이차적 요소를 정해야 한다. 전자는 경험의 재료로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어떤 의미와 정서를 유발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15] 즉 학습자에게 무엇을 경험시킬 것인지, 또한 어떤 것을 경험시켜야 학습자의 자아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경험시킬 것인지의 문제도 잇따르게 된다. 문학경험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기에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류수열(2006)은 교육과정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험 범주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문학경험 목록 산출 영역을 문학의 내용요소, 문학의 형식 요소, 학습자의 독서 상황으로 나누면서 그 영역별에 포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나열했다. 이는 문학교육과정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경험 목록에 속한 다양한 내용들을 위계화 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주원(2013)은 소설교육에서의 문학경험을 논하면서 수용의 차원에서 그 내용범주를 정했다. 범주 관련 요인인 작가, 텍스트,

---

[13] 문학능력을 간단히 요약하면 문학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즉 문학을 한다는 것은 문학현상과 다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 일체를 포괄한다. 따라서 문학을 창작하는 주체는 문학 생산의 주체이고, 문학을 수용하는 주체는 수용주체이다. 문학능력은 이러한 두 주체의 능력으로 구체화된다.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2010), 『문학능력』, 역락,p.20.

[14] 첫째, 교재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현대시 교육을 주로 이해 등 인지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시에 대한 정서 교육 연구가 부족하다. 셋째, 한국 현대시에 접근하는 독자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학습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시 교육 연구가 드물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 현대시 수용 교육에 집중하고 생산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명봉(2017),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검토」,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제6권, 한중인문학회, p.116.

[15] 고광수(2005), 「문학 감상의 경험 교육적 성격에 대한 예비적 고찰」, 『문학교육학』1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p.103.

학습자, 맥락에 따라 문학경험 내용을 범주화 시켰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문학경험 작동 양상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고등학교 졸업과 더불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시와 결별하게 된다. 교과서에서 배운 몇 편의 정전 작품을 기억할 뿐이다. 그것은 일상에서 즐기는 타문화 예술과 달리 낯선 것으로 인식되면서 학습자의 생활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시와 관련한 입시교육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적 체험으로서의 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시 이해와 감상을 위해 학습자 문학경험의 소환과 창출에 필요한 내용을 설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교육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문학교육과 인지적, 정서적으로 결별한 학습자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문학경험 본연 쪽으로 복원시키고자 한다.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과 문학경험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문학경험의 역	문학경험의 내용
인지적 역	모티프를 통한 텍스트 이해
	시적 상황에 대한 반성
정의적 역	화자의 정서에 대한 공감
	운율을 통한 미적 감수성 형성

<표1> 학습자 문학경험의 역과 내용

두 가지 역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는, 한 인간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지적인것과 정의적인 것이 균형감 있게 작용,발전해야 만이 제대로된 개인성장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지적 역에는 주로 텍스트의 수용과 이해에 중점을 두면서 학습자의 일차적 문학경험을 이끌어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의적 역에서 가치의 발견과 감상에 중점을 둔 것은 한단계 높은 이차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수용의 단계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한국 현대시의 정전으로 불리는「진달래꽃」에서는 여인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비극적 상황을 설화적 모티프로 설정함으로써 더욱 애절한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학습자는 모티프를 통해 전반 텍스트의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시에서는 임이 가시는 길에 굳이 꽃을 뿌리겠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지니는 표면적인 의미와 내면적 진실이 상반될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는 꼼꼼한 읽기를 통해 그 시적 상황을 파헤쳐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안겨오는 것은 화자가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아두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학습자는 그 화자의 입장에서 임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헌신을 체험하거나 겪었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공감을 자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대립된 정서를 전통적 민요조의 가락을 이용해 7.5조의 음수율로 표현했는데, 이는 자국어 문학 교육을 통해 상당한 운율을 습득한 중국인

학습자의 또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단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매체 환경은 문학의 존재방식과 작용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문학교육에서도 다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매체 환경을 문학교육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을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문학 향유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문학을 읽고, 창작하고, 감상하고, 비평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고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다매체 플랫폼은 바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갈라놓을 수 없는 위챗(Wechat)이다. 위챗을 통해 현 시대의 중국인 학습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자기만의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물을 주위의 학습자에게 공유하면서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시청각을 활용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영상물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교수-학습 단계를 주로 '현대시 교수-학습 계획 단계', '현대시 교수-학습 실행 단계', '현대시 교수-학습 반성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	1) 교사가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주제 선택의 제한 없이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텍스트를 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학습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시 텍스트를 선정함으로써 내용에 관련된 정보(작가의 생애, 창작 배경, 주제의식)를 수집할 수 있다. 3) 위챗 공공계정 공간과 텍스트의 내용에 알맞는 이미지, 배경음악, 색상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학습 공간을 개성 있게 장식할 수 있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전반 구조를 간이하고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4) 시 읽기 연습을 통해 시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시 읽기는 독서 주체인 학습자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수한 경험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학습자의 경험과 정서에 따라 대상과 세계가 자유롭게 변주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에 대한 친숙감을 키울 수 있다. 5) 음성과 위챗 공간을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 혹은 타 학습자의 도움을 청할 수 도 있다.
실행 단계	1) 계획에 따라 위챗 계정의 학습공간을 순차적으로 장식한다. 시각적 효과는 독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2) 텍스트를 직접 타자해 넣음으로써 묵독과 함께 또 한 차례의 학습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시적 상황을 더 깊이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느낌에 따라 글자체와 색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3) 독자의 이해 편리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특정한 공간에 배치해 놓는다.

	4) 감정을 되살려 낭송-자신의 감정선에 따라 시를 읊는다. 오늘날 시를 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묵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순간의 읽기는 진정한 읽기로 간주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선별한 배경화면 및 배경음악에 따라 감정어린 마음가짐으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미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감성까지 소환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운률의 체험과 함께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5) 자신의 선지식과 스키마를 활용해 번역을 시도한다. 어려운 부분은 교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이중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문학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범주를 흔히 학생으로 간주해 왔고, 또 그러한 인식이 고착된 나머지 교사는 자연스레 그 속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비록 교사와 학생은 신분이 다르고,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사도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이다. 즉 교사는 누적했던 지식에만 기대어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따라 지식을 재구성하면서 보완해 나가기 때문이다. 함께 번역하는 과정이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그 가운데 새로운 문학 수용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성 단계	1) 반응 글쓰기-시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 느낀 자신만의 소감을 솔직하게 기술한다. 2) 기타 학습자에게 자신의 결과물을 공유한다. 3) 기타 학습자의 댓글과 상호 대조하고, 또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간다.

<표2> 현대시 교수-학습 설계

문학작품의 감상이나 평가가 문학작품을 사이에 둔 작가와 독자의 대화이기는 하나,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는 작품이 요구하는 해석의 틀을 너무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독자의 독창적인 해석이 요구된다.[16] 따라서 시 텍스트가 지닌 불확정성은 학습자의 문학경험에 의해 메워갈 수 있고, 이로써 학습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을 이해해 나가게 된다.

시를 놓고 볼 때, 한국어 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습자는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잠재된 기억을 활성화하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발산적 상호텍스트를 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7] 요컨대 상호텍스트는 문맥의 다중화며 확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문학경험이 작동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생활에서의 문학 맥락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해야 가동된다. 위에 제시한 현대시 교수-학습 설계는 학습자 스스로가 시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시적 상황에 대한

[16] 구인환 외(2007),『문학교육론』제5판, 삼지원, p.334.
[17] 전홍(2015),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4.

파악, 그리고 정서에 대한 공감을 비롯하여 운률을 통한 미적 감수성 형성에 단계적인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능 통합 활동이 가능하므로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대시 교육은 학습자에게 동시대의 시를 향유하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관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더 나아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접하게 한다. 시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해 내포된 정서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공감을 통하여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문학경험을 적극 소환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현대시 교육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다. 듀이의 경험론으로부터 문학경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 역을 인지적 역과 정의적 역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필요한 문학경험의 내용을 설정하였고, 교육적 경험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균형적으로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현대시의 교수-학습 설계를 그 절차에 따라 '현대시 교수-학습 계획 단계', '현대시 교수-학습 실행 단계', '현대시 교수-학습 반성 단계'로 나누면서 각 단계에 수행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러한 시 교육방법을 통해 텍스트를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 문학경험을 능동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의 다양한 문학경험을 소환하여 총체적 삶에 조응시킴으로써 현대시를 통한 자아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적 패러다임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매체의 발전에도 적응해 나가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매체 문식성의 확장에도 기필코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수(2005), 「문학 감상의 경험 교육적 성격에 대한 예비적 고찰」, 『문학교육학』16권, 한국문학교육학회.

구인환 외(2007), 『문학교육론』 제5판, 삼지원.

김영(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욱동(1996),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로버트 C. 홀럽, 최상규 역(1999),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루이스 엠 로젠블렛, 김혜리·엄해영 옮김(2008),『독자, 텍스트, 시-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한국문화사.
류수열(2006), 「문학교육과정의 경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1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선주원(2013), 「소설 학습자의 문학경험 범주 내용과 작동 양상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47권, 청람어문교육학회.
송도선(2004),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문음사.
엄태동 편저(2001), 『존듀이의 경험과 교육』, 원미사.
오지혜, 윤여탁(2010),「한국어교육에서 비교문학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국어교육』 131호, 한국어교육학회.
윤여탁 외(2011), 「현대시 교육에서 지식의 성격과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27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윤여탁(2017), 『한국 근·현대시와 문학교육』, 태학사.
이명봉(2017),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검토」,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이명봉(2017),「중국의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중국에서 출판된 문학교재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학』제14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전홍(2015),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존 듀이 지음, 이재언 옮김(2003),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최홍원(2014), 「문학 경험의 구조와 기제 탐구 서설」, 『문학교육학』45권, 한국문학교육학회.
하근희(2011),「문학 경험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독자 경험의 연관 유형 연구」,『청람어문교육』44권, 청람어문교육학회.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2010), 『문학능력』, 역락.
公秀梅. 文學經驗-文學理論的基點. 文藝理論與批評, 2006(3).
萬娜. 文學經驗-文學本質界說的邏輯起點. 文藝理論與批評, 2011(3).
Wolfgang Iser(1993), 이유선 역, 『독서행위』, 신원문화사.

상호텍스성을 활용한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방안 연구

-한·중 합작 영화 <重返20歲>과 <수상한 그녀>를 중심으로-

서혁 • 진정

(이화여대)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는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매체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매체 중 젊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교수·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드라마, 영화 등 매체 활용의 장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하였다(김영서, 2003; 김서형, 2009 등). 김영서(2009)에서는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언어적 지식과 4 가지 언어 기능 습득에 도움이 되며 학습과 교수요목, 그리고 문화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형(2009)에서는 영화의 활용은 실제성이 있는 장면에서 표현과 화행,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언어 교육에서 영화 활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영화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한국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내용을 마련하거나 드라마와 영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방안이나 수업 모형을 모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전은주(2013), 김하나(2014)에서는 드라마를 분석하고 질문 화행, 요청-거절 화행 등 교육 내용을 마련했고, 윤은미·우인혜(2017), 오선영(2017)에서는 드라마를 활용하여 속담이나 지역어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나 문화 한 쪽에만 치우쳐 언어와 문화를 분리해서 연구한 것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문화적 배경을 학습하고 교육한다는'

것이다(박갑수,2005:238). 즉 언어 학습은 반드시 문화 학습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서혁(2017)의 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이나 제2언어 교육과정이든, 자국어 교육과정이든 문화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 간의 불가분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를 활용하는 데 한국 영화만 사용하기보다는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모국어로 된 영화를 함께 이용하면 학습자들이 중한 언어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한·중 합작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2 선행 연구 검토

그 간에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도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드라마,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언어나 문화의 교육 내용을 추출한 연구와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이나 수업 구성 모형을 모색한 연구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2.1 드라마, 영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육 내용 구성 연구

김정은(2006), 오현정(2010), 이영준(2012), 사와다히로 유키(2013)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통한 한국어 화행 교육 내용을 연구하였다. 장미미(2016)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부탁과 관련된 화용적 의미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정은(2012), 이문화(2014)에서는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문법을 연구하였다.

언어 차원 외에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드라마를 이용해 어떻게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본고와 관련이 있는 연구는 서보영·김종철(2015)이다. 서보영·김종철(2015)에서는 <84장본>과 <임본>의 상호텍스트적 분석을 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1.2.2 드라마,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화행, 어휘, 문법 등 언어적 내용, 문화 내용 외에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수업 구성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정희(1999), 최인자(2004), 김영만(2007), 권순대(2009), 손진희(2010), 권용해·최정윤(2011), 정영선(2011), 조인옥(2015), 안젤라·리-스미스·노재민(2016), 윤은미·우인혜(2017), 오선영(2017) 등의 연구에서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한국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이나 수업 구성을 모색하였다.

신혜원·김은아·김은영(2006)에서는 한국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 방안이나 수업 구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 개발을 시도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드라마, 영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어나 문화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마련했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언어나 문화 한 방향에만 집중되어 연구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교육시키면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를 설정하였다.

- 한·중 의사소통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가?
-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은 무엇인가?

2.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2.1 분석 대상

2014년에 한국과 중국은 <중한영화합작협약(中韩电影合作协议)>을 체결하였고, 이는 중·한 양국의 합작 영화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교녕, 2017:18). 최근 10년에 한·중 합작 영화는 총 31편이 있는데 이 중 <分手合約(이별계약)>, <我是證人(나는 증인이다)>, <重返二十歲(20세여 다시 한 번)>, <外公芳齡38(외공방령38)> 4편의 영화만 한국에서 한국판이 제작된 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리메이크 중국판 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4편 영화의 한국판은 각각 <선물(2001)>, <블라인드(2011)>, <수상한 그녀(2014)>, <과속스캔들(2008)>이다. 특히 영화 <重返二十歲(20세여 다시 한 번>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반(豆瓣) 평점 7.2점으로 한·중 합작 영화 중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교녕(2017)에 따르면 한·중 합작 영화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은 <我是證人(나는 증인이다)>와 <重返二十歲(20세여 디시 한 번)>이고, 특히 <重返二十歲(20세여 다시 한 번)>은 새로운 흥행수입 기록을 만들어 '하나의 대본 두 작품'의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한·중 합작 영화 <重返20歲(20세여 다시 한 번)>과 <수상한 그녀>를 분석 대상 영화로 선정하였다.

2.2 분석 기준

본고에서도 화용언어적과 화용문화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화용언어적 경우는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감안하여 호칭 표현, 존대 표현, 완곡 표현, 관례적 표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상미(2005)에 의하면 호칭 표현, 존대 표현, 완곡 표현, 관례적 표현은 흔히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실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용문화적 경우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일상생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복, 식사, 주거, 교통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대상 영화 분석 기준

화용언어적 측면	호칭 표현 존대 표현 완곡 표현 관례적 표현
화용문화적 측면	의복 식사 주거 교통 기타(여가, 노래, 인사예절 등)

3. 분석 결과

이 장에서 앞서 마련된 영화 분석 기준으로 한·중 합작 영화를 분석하였다. 영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3.1 화용언어적 측면

(1) 호칭 표현

① 일인칭 복수 대명사

한국에서 '우리'를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 1:

ㄱ:

애자: <u>우리 지하</u>한테 이쁜 친구가 있었네.

반하나: 요즘 애들이 수술해서 저 정도 다 돼. 너 티 안 나게 잘했네. 어디서 했어?

오두리: (마음속에서) 저 싸가지 누가 닮은 거야.

반지하: 신경 쓰지마. **우리 할머니** 닮아서 그래.

ㄴ:

杨琴：谢谢。没想到**我们前进**还有你这么好看的朋友。(고마워. **우리 전진**이 너와 같은 예쁜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

项欣然：小妹妹是挺漂亮的，哪里整的啊？(작은 여동생이 예쁘긴 하네. 어디서 수술 했어?)

项前进：去，去切西瓜。不要理她。她说话就是这么难听。像**我奶奶**。(가, 수박을 잘라라. 그를 상대하지 마. 그녀는 원래 말 예쁘게 하지 못해. **내 할머니** 닮아서.)

위의 예문 1에서 보듯이 반지하와 오두리는 가족이 아니더라고 반지하가 오두리에게 자신의 할머니를 얘기했을 때 '우리 할머니'라고 하였다. 이 경우의 '우리'는 복수의 인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 자신보다 높지 않은 청자에게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우리'는 친근감을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에게 모두 익숙하고 공동체에 공동으로 속한 것이 더 친근하다고 느끼는 화자의 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유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서 복수 인물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일인칭 복수 대명사 '我们'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 관계에 따라 '我的奶奶(내 할머니)' '她的奶奶(그녀의 할머니)' 같은 '我的/他的/她的+ 명사'의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허완열(2017)에 의하면 친근감을 나타낸 '우리'는 중국어 '我们'에 완전히 대응되지 않고 중국어에는 '我+ 명사'의 구조가 더 많이 사용된다.[1] 이점에서 한·중 일인칭 복수 대명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호칭어

본고는 영화에서 사용된 호칭어는 상-하 관계, 하-상 관계, 친한 관계, 낯선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편 영화에 나타난 호칭어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한중 호칭어 목록

청자와 화자 간 관계	한국	중국
상-하 관계	• 이름+ 호격조사: '지하야' • 이름+ 접사: '두리 씨' • 성+ 직함: '반 교수'	• 이름: 前进(치엔진/전진), 国斌(꾸오삔/국빈), 同学(통쉬에/동학) • 성명: 项欣然(시앙신란/항신연) 孟丽君

[1] 허완열(2017)에서는 한국어 '우리 남편'의 경우 중국어에는 '我丈夫(내 남편)'라고 하고 '我们丈夫(우리 남편)'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의미자질은 [-한 사람 이상], [+화자], [-청자], [친밀감]으로, '我们'의 의미자질은 [+한 사람 이상], [+화자], [+청자]로 보았다. '우리'와 '我们'의 의미자질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는 화자와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친근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멍리쥔/맹려군) • 성+ 사회호칭어: 小帅哥(샤오솨이거/꽃미남)
하–상 관계	• 친족호칭어: '어머니', '할머니' • 사회호칭어: '선배' • 직함+ 접사: 'PD님' • 이름+ 친족호칭어: '말순 언니'	• 친족호칭어: 妈妈(마마/어머니), 奶奶(나이나이/할머니) • 직함: 总监(쫑지앤/총감) • 성+ 친족호칭어: 李叔(리수), 李大爷(리다예), 李爷爷(리예예)
친한 관계	• 이름+ 호격조사: '미애야' • 친족호칭어: '오빠', '누나' • 성+ 접미사: '박 씨' • 성+ 직함: '김 박사'	• 사회호칭어: 学姐(쉬에지에/선배) • 친족호칭어: 哥哥(거거/형/오빠), 姐姐(지에지에/언니/누나) • 접두사+ 성: 老李(라오리/이 씨) • 성+ 직함: 谭总监(탄쫑지앤/탄총감) • 담화표지: 哎(애)
낯선 관계	• 친족호칭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아저씨' • 직함+ 명사: '기사 양반', '약사 양반' • 사회호칭어: '아가씨', '어르신', • 담화표지: '저기', '저기요'	• 사회호칭어: 帅哥(솨이거/꽃미남) • 명사: 小伙子(샤오후오쯔/젊은이) • 사회호칭어: 小姐(샤오지에/아가씨)

위 표를 통해 한중 호칭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아래에 낯선 관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예문: 2

ㄱ:

빈치하밴드 팀원: **이모**, 여기 족발 대자.

ㄴ:

前进乐队朋友：**老板娘(라오빤니앙/주인 아줌마)**

老板娘：来嘞(왔어.)

위의 예문 2에서 보듯이 모두 식당에서 주문하는 장면인데 종업원을 부를 때 한국 영화에서는 친족 호칭어 '이모'라고 하였으며, 중국영화에서 '老板娘(라오빤니앙/주인 아줌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낯선 사람을 부르는 경우 '저기', '저기요' 등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주의를 끌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중국어에는 '저기', '저기요'의 대응 표현은 '这个(이것), 那个(그것/저것)'이 있으나 낯선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많이 쓰지 않는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예문 3:

ㄱ:

반현철: **저기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붙들이라는 아이 알아요? 알아요?

ㄴ:

项国斌：**丽君同学**，我想问一问，你认识一个叫沈梦君的女人吗？认识吗？(리쥔 통쉬에/려군 학생, 저 물어보고 싶어요. 너 심몽군이라는 여자 알아요? 알아요?

위의 예문 3ㄱ에서 보듯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꺼낼 때 한국에서 '저기'나 '저기요'로 남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의 '저기'와 '저기요'는 부름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중국 영화에서 '저기','저기요'의 중국어 대응 표현 '这个(이것), 那个(그것/저것)'을 사용하지 않고 '丽君同学(리쥔 통쉬에/려군 학생)'이라는 '이름+직함'형의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저', '저기'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담화를 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데 비해 중국어의 '这个', '那个'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담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맹강, 2014). 맹강(2014)에 의하면 대화 상대와 낯선 사이라면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먼저 '你好', '请问' 등과 같은 인사말로 담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劉麗艷(2006: 72-73)에서 지적하였듯이 '这个', '那个'의 사용은 대화 상대와 대화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데 윗사람과 대화할 때 '这个', '那个'보다 예의가 바른 호칭어를 사용한다. 즉 중국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려고 할 때 상대방에 맞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반현철은 오두리와 친한 사이 아니지만 '저기요'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항국빈은 맹려군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때 호칭어인 '丽君同学(리쥔 통쉬에/려군 학생)'을 사용해야 한다.

(2) 존대 표현

한국어는 존대법이 발달한 언어로서 청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기 위해 종결법이나, 어휘, 조사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중국어에는 주로 어휘를 사용하여 존경을 나타낸다. 아래에서 예문을 통해 한·중 존대법의 차이를 살펴보자.

예문 4:

ㄱ:

애자: **어서 와요.** 더워서 오는데 힘들었죠.

오두리: (허리를 90도를 업혀서) **안녕하세요?**

ㄴ:

项前进：**请进。**妈，我朋友来了。(들어와요. 엄마, 내 친구 왔어요.)

杨琴：哦(어)

孟丽君：气色挺好看啊。(안색이 좋네요.)

杨琴：啊？（아?)

孟丽君：哦，我是说阿姨**您**真是荣光焕发。(어, 내 말은 이모는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좋네요.)

예문 4에서 보듯이 한국 영화에서 오두리가 변신 후 처음 자신의 본가를 방문했을 때 집주인으로서의 애자는 "어서 와요."라고 하여 오두리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애자는 오두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애자는 해요체 '-아/어/여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오두리에게 좀 높여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 영화의 경우는 "请进。" 경어(敬辞)[2] '请'을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 영화에서 오두리가 애자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종결 어미로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는데 중국 영화에서 제2인칭 대명사 '你'의 존칭인 '您'을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다. 吕承英(2007)에 의하면 중국어에는 주로 어휘와 어조로 청자를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며 한국어에는 어휘 외에 조사, 어미 등 통사적 형태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여서 이야기한다. 이는 한·중 존대법의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객체 높임법에 관한 것이다.

예문 5:

ㄱ:

오말순: 그라도 우리 현철이 잘 되지 않네?

박씨: 그렇지. 대학교 교수님이**시**네.

오말순: 어디 그냥 대학교 교수요? 국립대학 교수야 이 노인문제 전문가 아니다라구.

박씨: 알지, 아니 여기 노인네 까페도 그 다 반교수가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생긴 거 아니오? (중략)

ㄴ:

沈梦君：就算我嫁错了人，可我没生错人吧。我们家国斌长得又帅，又孝顺，还是大学老师呢。你们那几个呢？(맞아. 당초 내가 잘못 시집갔더라도 저 아이를 잘못 낳지 않았지? 우리 집 국빈은 잘 생겼고 효도 잘하고, 대학 교수이거든. 너희들 자식은?)

李大海：打牌吧(마작을 해.)

李大海：我们都知道国斌有出息，名牌大学教授。(우리는 모두 국민이 유래성이 있는 거 알아요. 명문대학 교수이야.)

위의 예문 5(ㄱ)에서 보듯이 박 씨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반현

[2] 경어(敬辞)와 겸어(谦辞)는 중국어에는 전형적인 존대법이다. 경어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이고 청자나 청자와 관련된 일, 사물을 지지하여 청자에게 존경을 나타낸다. '请', '高见', '垂爱', '拜别' 등이 있다. 겸어는 겸손한 뜻을 나타내는 어휘이고 자신을 지칭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일, 사물, 행위 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鄙人', '家父', '愚见', '献丑' 등을 들 수 있다.

철'에 대한 높임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높임의 특수 어휘 '말씀'과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인 '구청장'에 대한 높임을 나타냈다. 한국 영화의 경우와 달리 중국 영화 대사에서 라오리는 국빈에게 높여서 애기하지 않았다. 이는 중한 양국에서 존경 대상의 차이도 보여 줄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인 현철은 박 씨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구청장은 현철보다 지위가 높아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을 때 면대면 대화할 때 존경을 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언급하면 굳이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예문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는 높임의 어휘뿐만 아니라 조사, 어미의 사용을 통해 존경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나 중국어에는 보통 어휘와 어조로 높임의 뜻을 표현한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높임법이 더욱 체계적이고 높임의 방법도 다양하다.

(3) 완곡 표현

남과 의사소통 시, 강요성이나 부담이 큰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남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경우,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으나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지어 대화 실패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상미(2005)에서는 남과 의사소통 시, 통사적 완화장치, 어휘·구 완화장치를 사용하면 의사소통 시의 강요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완화 장치의 사용은 순조롭게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 6:

ㄱ:

오두리: 저기, 말씀을 **좀** 불어봅시다.

식당 주인: 뭔데요?

ㄴ:

孟丽君：这里刚才不是一个照相馆吗？(점포 주인의 어깨를 톡 치며, 여기 사진관 하나 있지 않았어요?)

店铺老板：什么照相馆？ 你不识字的？(무슨 사진관이에요? 너 글자 몰라요?)

위의 예문 6(ㄱ)에서는 오두리가 사진관을 찾고 있는데 '중화요리' 식당 주인에게 사진관의 위치를 물어보려고 하였다.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을 때 강요성이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사 '좀'을 사용하였다. 한상미(2005)에 의하면 강요성이나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사 '좀', '조그만' 등 부사를 사용하면 남에게 부탁이나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 청자에게 강요성이나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사를 사용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부드

럽게 만들어줌으로써 의사소통을 잘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문 6(ㄴ)에서 보듯이 맹려군이 사진관에 대해 점포 주인에게 물어봤을 때 가용성이나 부담을 줄여주는 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상황이지만 중국어에는 직접적으로 여기 사진관이냐고 물어보았다. 대화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한국어의 표현은 강요성이 완화되고 좋은 대화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강요성이나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사를 제외하고 발화할 때 보조동사 구문, 내포 구문, 연결 구문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드럽게 나타내 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 7:

애자: 지하야. 친구랑 방 가서 놀고 있어. 저녁 다 되면 부를게.

반지하: 네, 올라가자.

오두리: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먼저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애자: 예.

예문 7에서 보듯이 오두리가 다시 소녀로 변신 후, 처음 자신의 본가를 방문했을 때 애자에게 집 구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애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 오두리는 연결어미 '-면'으로 연결 구문과 부사 '좀'을 함께 사용해서 자신의 발화를 부드럽게 하였다. 이러한 연결 구문과 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태도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청자가 덜 부담을 느낀다.

(4) 관례적 표현

한국인들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관례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에 고정된 표현으로 사용된다.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한 한·중 영화에 나타난 관례적 표현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주제 상황	화용적 관례어	
	한국	중국
만남	• 안녕하세요?	• 你好/您好。(안녕/안녕하세요?)
작별	• 잘 다녀오세요.	• 慢走。(천천히 가세요.)
부탁	• 뭐 하나 물어봐도 되요? •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 请问一下。(말씀 좀 물을게요.) • 我有一个请求。(부탁이 하나 있어요.)
개인정보 물음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请问你/您多大了？(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 请问你/您的名字是？(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어의 관례적 표현은 가장 높임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하여 청자를 최대로 높이고 인사하거나 청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물어보았다. 그리고 남에게 부탁을 할 때 명령형 문장을 피하고 의문형 문장으로 먼저 청자의 허락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의 경우와 같이 중국어에는 보통 높임의 제2인칭 대명사 '您'을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다. 그리고 부탁을 했을 때 최대로 발화의 가용성을 완화시켰다.

3.2 화용문화적 측면

한국판과 중국판 영화에서 같은 장면이더라도 한중 양국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의식주행과 관련된 문화를 중심으로 양국의 문화를 살펴보았다. 같은 장면에 나타난 양국의 문화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주제 유형	한국	중국
의복	한복	旗袍(치파오)
식사	불고기 족발 어뗑 소주	스테이크 볶음 요리 양꼬치 맥주
주거	한옥, 아파트	아파트
교통	오토바이 버스 지하철	오토바이 버스 지하철
인사 예절	배꼽 인사	호칭 사용
여가 활동	커피 마시기, 노래 부르기	麻将(마작), 广场舞(광장무)
노래	심은경: 나성에 가면	邓丽君(덩리쥔/등려군):《给我一个吻》(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위 표에서 살펴보듯이 한국판과 중국판 영화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의복, 식사, 주거 등 문화가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이 나타났으며 중국 전통 의복

인 치파오가 나타났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사용된 언어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인사 예절,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등은 모두 언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

4.1 한국의 언어문화의 통합적 접근 방안

이 절에서 앞서 한중 리메이크 영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어문화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내용
전체적 접근	교사의 안내와 설명
부분적(분석적) 접근	화용언어적 측면과 화용문화적 측면에서 한·중 영화 대조 보기
통합적 접근	언어문화적 맥락의 이해.
적용 연습	역할놀이
평가 및 정리	해당 영화 장면에 나타난 화용언어적과 화용문화적 내용 정리하기

4.2 언어문화의 통합적 접근 방안의 실제

- 교사의 설명: 식당에서 주문할 때, 식당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어 학습,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
- 식당 주문과 관련 장면 보여 주기(중국판과 한국판 영화)
- 한·중 영화 대조 보기: 종업원을 부르는 경우 사용된 호칭어,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한중 영화를 대조하면서 보기
-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여/저기요. 아줌마, 이모 등 호칭어를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된 청자한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중국어의 경우와 대조하면서 가르쳐 주기
- 식당 호칭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쳐 준 후, 역할놀이를 실시. 팀별로 종업원 캐릭터, 손님 캐릭터를 각각 맡아서 식당에서 주문한 역할놀이를 진행.
-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종업원의 나이, 식당의 격식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호칭어를 정리해 주기.

5. 결론

본고의 목적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 리메이크한 중국판 영화 <20세여 다시 한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두 편의 영화를 화용언어적 측면과 화용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인칭 복수 대명사는 중국어의 경우에 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드러냈고, 한국어 호칭어는 높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될 수 있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대화 참여자 간의 친소관계에 따라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존대 표현에 있어서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다양한 존대 표현을 사용하여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완곡 표현의 경우 한국어에는 어휘나 구, 통사적 장치를 통해 발화의 강요성을 완화시키지만,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어조사를 통해 발화의 강요성을 완화시킨다. 관례적 표현 차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최대한 상대방을 높여서 말을 시작하거나,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발화로 시작하였다. 한중 영화에서 같은 장면이더라도 서로 다른 양국의 문화가 반영되고 있었다. 본고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 통합적 접근, 적용 연습, 평가 및 정리'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순대(2009),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시론, 한국언어무화교육학회 학술대회 1, 한국언어무화교육학회, 193-199.

권용해·최정윤(2011), 초급 한국어 교실에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46.

김련옥(2013), 한·중 지시어 용법의 의미 해석-'저기', '저기요', 동남어문논집 35, 동남어문학회, 5-26.

김서형(2009), 영화를 활용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 교육용 영화 선정의 원리와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 161-187.

김영만(2007), 영화 및 관련 웹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 구성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53-72.

김영서(2003), 『영화와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김정남(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57-274.

김정은(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표현 대조 분석: TV드라마의 대화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173-192.

김하나(2014),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어 요청 화행-거절 화행 분석, 한국어와 문화 15,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31-164.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5.

김훈태(2017), 한국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사례-루마니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두도·장리·한교(2010),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말하기 통합 교욱 방안: 중국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6, 227-265.

맹강(2014), 한중 망설임형 담화표지 대비 연구-'저, 저기'와 '这个, 那个'를 중심으로, 연변대학교 학위논문.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선희(2006),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고급반 프로젝트 수업: 공동 영화평 쓰기, 영화 가이드북 제작, 영화 제작 프로젝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179-207.

박찬숙(2008), 한국문화 교육과 한류의 연관관계 연구-드라마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4-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9-138.

박찬욱(2017), 한·중 호칭의 실제와 규범 간 양적 비교 분석과 교육적 함의 고찰 : 일반 식당에서의 “여/저기요”와 “帅哥/美女”를 중심으로, 중국학 61, 대한중국학회, 295-314.

사와다히로유키(2013), 리메이크 드라마에 나타난 한국어와 일본어의 요청 화행 비교 연구, 화법연구 22, 한국화법학회, 133-161.

서보영·김총철(2015), 소설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완판 84장본<열녀춘향수절가>와 임권택의 <춘향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48, 한국어교육학회, 451-484.

손진희(2010),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영화 '기다리다 미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4, 중앙어문학회, 55-73.

신혜원·김은아·김은영(2006),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ENJOY한국어(韓國語)]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86.

서혁(2017), 학교교육과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47(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21-248.

안젤라·리-스미스·노재민(2016), 고급 한국어 교과과정에서의 사회어문화적 능력 함양 방안-드라마 [미생] 활용-, 언어와 문화 1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3-142.

양지선(2011),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단편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3-176.

오선영(2017), 외국인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역어 교육 연구-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사례를 통해, 한국언어문화학 14(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49-285.

오현정(2010), 한국어 교재와 드라마에 나타난 거절표현 특징 연구- 추론단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1-328.
유경수·홍웅기(2011),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시크릿 가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291-328.
윤영(2008),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1, 1-28.
윤은미·우인혜(2017), 한국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속담 교육 연구-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의 한국어 대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213-245.
이명아(2016), 한·중 이름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 철학, 사상 문화 2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92-214.
이문화(2014), 한국어 "있다"와 "없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한중 드라마 병렬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89-214.
이미혜(2011),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 구성-수업 모형과 비디오 클립 제작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89-216.
이영준(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드라마의 간접화행 분석, 어문논집 49, 중앙어문학회, 31-49.
이은숙(2003), 영화를 활용한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엽기적인 그녀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499-518.
이정현(2016),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겠-' 결합형 화행 의미 실현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38-4, 한국문화융합학회, 301-328.
이정희(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0-1, 221-240.
임금복(2009),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 나타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82, 309-340.
전미미(2016), '부탁' 관련 표현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 분석- 드라마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3-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1-136.
전은주(2013), 드라마 직장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화행 분석, 화법학회 22, 한국화법학회, 221-257.
정영선(2011), 드라마형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조영미(2012),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문화교육 6-2, 한국어문화교육학회, 195-222.
조인옥(2015), 드라마를 활용한 대화모형의 도출과 적용 방안-중국 대학 시청 수업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4, 한국국어교육학회, 363-399.
최인자(2004),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8, 한국어문교육학회, 267-286.
최정순, 송임섭(2012), 영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공동경비구역JSA>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639-668.
최정은(2012), 남녀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와 청자 대우법의 양상-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315-351.
학회(2009),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191-211.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의 연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학위논문.
한청(2010), 한중 호칭어 대비 연구, 국제문화연구 3(1),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87-100.
허완열(2017), 조선어 일인칭복수대명사와 한어 일인칭복수대명사의 대조분석, 중국조선어문, 52-58.
황병홍· 이명현(2017), 드라마 <도깨비>에 나타난 도깨비 캐릭터 연구 39(5), 한국문화융합학회, 149-176.
刘丽艳(2005), 口语交际中的话语标记,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吕承英(2007), 汉韩礼貌语对比研究, 吉林大学硕士论文.
赵光(2007), 现代汉语敬辞 谦辞 客气词语研究, 山东大学硕士论文.

서혁(Suh Hyuk) / 진정(Chen Zing)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 대한민국**
03760
+82-2-3277-4524
shcore**@hanmail.net** / chenjing19891025@126.com

중국조선족과 충칭 지역 설화에 반영된 민속문화 요소 비교

최향

(사천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중국에서 조선족에 관해 본격적으로 민속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며, 그 시점이 바로 1982년에 출간된 정길운의 『조선족민속』이다. 이 책에서 정길운은 조선족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민속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 뒤 기타 조선족 민속학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조선족 민속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선족민속의 중국적 특색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구체적으로 『조선족민속연구』(1/1991, 2/1996, 3/2001),『중국조선족풍속백년』(2011),『중국 알라디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2014), 『중국 명성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2015), 『중국 삼도구촌 조선족의 생활과 민속』(2016),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의 일생의례와 풍속』(2018) 등 조선족 전체와 지역별 민속에 관한 연구성과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혼속, 주택, 음식, 민간신앙, 춤, 놀이, 설화 등 여러 영역을 둘러싼 연구 업적을 이루었으며 거의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정치성에 치우친 편이다. 물론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자료를 통해 전승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교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족과 한국, 한족, 요족, 만족 등 지역의 민속문화와 비교한 기존 연구는 적지만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민속문화는 80년대에 『민속문고(民俗文庫)』(전집)로 정리, 출판되었는데 음식, 복식, 생산, 혼인, 세시, 명절 등 풍속들을 소개하였다. 물론 그 출판 취지는 중국 각 민족 사이의 상호 이해와 단결 및 중국 민속학과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본고는 비교 연구의 연장선에 있긴 하나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조선족설화집[1]과 충칭 지역의 설화집[2]에 반영된 유사한 민속문화 요소를

[1] 조선족 자생설화의 서사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변 지역의 설화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향토전설집』(연세국학총서73, 2006), 『지명전설집』(연세국학총서73, 2007), 『민간설화자료집』(1~3)(보고사, 2006), 『황구연전집』(연변인민출판사, 2007~2008) 등 참고 자료를 포함한다.

[2] 충칭 지역의 설화집으로 『魏显德民间故事集』(重庆出版社, 1991)과 『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巴县冬笋印刷厂, 1989)을 참고하였다. 그 중 『魏显德民间故事集』은 '구비문학 동네'로 불리우는 충칭시 九龙坡区走马镇에 거주하는 중국 10대 이야기꾼인 魏显德(1923-2009)이 구술한 이야기집이다. 走马镇은 그 역사가 한나라 때부터 명나라 중기까지 흥성하여 지금까지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이곳은 당시 충칭에서 청두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으로서 각종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다. 또한 서쪽으로 璧山, 남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민속학 범주에 속하는 설화를 통해 그 중의 민속문화 요소를 범인류적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중국 내 각 소수민족은 자연적,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생활과 민족문화에서 각자의 특색을 보여주지만 유사한 민속문화를 공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민속문화는 곧 민중의 사소한 일상'이라는 민속학 본연의 의미를 각인시키고자 공히 이민사회를 형성한 조선족과 충칭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2. 민속학에서의 '역사' 그리고 이민공동체의 문화 구축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세계관이라고 하면 의례나 신화, 혹은 공간의 전통적인 이용 형태로부터 추출되어 논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상이란, 사람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완만하게 이어지며 상상을 허용하는 범위이라고 할 때 설화 연구에서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어화되고 주관적인 뉘앙스가 강한 '세상'인 것이다.[3] 이러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야기에서 다루는 '세상' 이란 객관적이고 확고한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이나 장소에 의해 그때마다 생성되는 커뮤니케이션 권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틀을 인식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야기에 담겨진 민중의 다양한 '지식'들은 보다 정태적인 문헌 자료들보다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민속학에서는 이런 민중 지식이 끊임없이 재편되는 과정을 '역사'라고 명명하였다.

이민공동체는 문화의 융합과 재편 과정을 통해 '역사'를 형성한 전형적인 사회형태이다. 문화는 근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의 산물이며 인류가 자연을 개조하고 문명을 창조한 인문적 성과이다. 특정 지역의 문화적 본질로부터 볼 때에는 곧 자연환경과 인문 사회환경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 문명 활동을 지속한 산물이다. 하지만 이민사회는 본토의 문화와 이민들에 의해 유입된 문화가 융합되어 자연스럽게 이색적인 풍경을 이룬 것이다. 어쩌면 이민사회의 형성에서 이민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사회라고 칭했는지도 모른다.[4]

조선족은 19세기 중엽에서 1910년 사이의 이민을 기초로 1910년~1945년 사이의 이민을 주체로 형성된 민족공동체이다. 대체로 19세기 중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시기

江津이 이어져 '세 개의 현을 동시에 딛고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숙하면서 도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현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1500여 편(어떤 자료에서는 1700여 편이라 함)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는 魏显德가 단연 으뜸이며 역시 천 여 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의 아우 魏显发와 함께 유네스코 전문가로부터 '중국의 그림 형제'로 불렸다. 한편, 『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은 창장, 자링강이 만나는 곳, 수로로 쓰촨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서남 물자교류와 센터였던 옛 巴县(현재 충칭 도심의 옛 명칭)의 이야기를 수집, 정리한 것이다.

[3] 고이케 준이치, 「민속학에서 세간이야기 연구의 위치와 가능성」, 『중앙민속학』15, 2010. 53쪽.

[4]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을 떠나 논할 수 없고 구성원들의 민속문화가 사회문화의 특색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에 이르는 약 100 여 년의 과정을 거쳐 중국소수민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들은 보다 성숙한 조선민족으로부터 이미 형성된 민족문화를 전승받은 채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조선족 이민은 초기 90%가 농민이었고 그 중 절대다수가 소작인이었다. 즉 초기 이민들은 생존문제가 우선이었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평민 생활습속을 형성하였기에 조선족민속은 빈곤층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다.[5]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 및 한중 수교 이래 조선족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져 소박함을 상실한 면도 있지만 저변에는 여전히 서민적 정서가 깔려 있다.

충칭은 중국 서남 지역의 가장 전형적인 이민공동체 중의 하나이다.[6]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창장 연안은 남부, 동부 및 기타 서남 지역 이민의 중요한 유동 지역이었다.[7] 충칭 문화 하면 충칭의 도시문화를 상기시킬테지만 그 바탕에는 巴渝문화(巴渝:충칭의 약칭, 역사 발전 과정에 巴族과 巴国이 형성한 지역문화) 형태의 복잡하고 방대한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 清정부가 후난 등 지역을 포함한 10여 개 성의 이민자를 쓰촨으로 이주시킨 '湖广填四川' 이민 운동, 항일전쟁 임시수도 시기의 이민, 三线建设(1964년부터 중국 중서부 지역의 13개 성, 자치구에서 전쟁 대비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국방, 과학기술, 공업, 교통 기본 시설 건설) 시기의 이민, 중앙직할시 시기의 이민은 모두 충칭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충칭의 이민은 모두 성을 넘나드는 정거리 이민, 향토적 정서를 지닌 종족·가족 단위의 이민, 유동의 맹목성[8], 여러 지역 문화와 습속의 융합 등의 특징을 지닌고 있다.

이로부터 조선족과 충칭 지역은 모두 이민들의 원래 거주지보다 생존 조건이 좋았고 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하층민들의 이동에 의해 역사성과 인문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9] 다만 전자는 부동한 지역 동일한 민족의 이민들로 구성된 가운데 조선족을 주체로 하는 민족문화 형태를 이루었고[10] 후자는 다른 민족 부동한 지역의 이민들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조선족은 지역 별(동북3성) 민속문화에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충칭은 여러 지역의 향토문화 교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타 지역의 민속문화들은 '충칭'이라는 인문, 역사적 도시 아래 융합·은폐되어 남게 되었다. 또한 충칭으로 유입한 대부분 이민

---

[5] 许辉勋,「中国朝鲜族民俗的文化特点之宏观考察」,『东疆学刊』第26卷第3期, 2010. 34쪽.

[6] 충칭 외에 쓰촨성도 이민공동체에 속한다. 진나라가 巴蜀(선진 시기의 지역명칭과 지방 정권 명칭으로 현재 충칭시와 쓰촨성 경내)을 멸망시킨 뒤 청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쓰촨성으로 들어간 대규모 이민이 총 다섯 차례가 있다. 진나라 이민, 동한 말년의 이민 및 서진 말년 僚人(장족의 조상)들의 이민, 남송 초기 북민들의 남행, 원말명초 후베이, 후난, 광둥 등 남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 청나라 전기 10여 개 성으로부터의 이민을 포함하는데 대량으로 유입된 이민은 쓰촨성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였다.

[7] 李禹阶、岳精柱,「历史上的重庆移民及其信仰」,『重庆师范大学学报』4, 2017.5쪽.

[8] 창장 중하류로부터 쓰촨으로 이동하는 이민들은 대부분 길을 따라 가는 도중 생존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창장 유역의 충칭부와 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9] 물론 조선족은 '생계이민' 외에도 '문화이민'과 '정치이민'에 속하는 지식인과 애국지사들도 있었고, 쓰촨 지역에는 남, 북 관료들의 이민(특히 청나라 시기)도 있었지만 문화 형성의 주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만족 문화, 중원 문화가 침투되긴 했지만 중국 최대의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단일문화 양상을 보이고 기타 지역의 조선족 또한 한족들과 잡거하고 있긴 하지만 마을 단위나 여러 이웃을 단위로 전통문화를 전승해 왔다. 물론 현재는 마을공동체가 사라지면서 한족에 의해 동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들은 무속문화가 성행하는 남부 지역에서 왔기에 문화적 충돌이 크지 않다.[11] 따라서 조선족과 충칭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과 적응, 잘 먹고 잘 살려는 인류 공통의 바람'이란 공통분모가 민속문화 요소의 비교에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샤머니즘-지역수호신

앞선 연구[12]에서는 조선족 이야기꾼 차병걸의 옛이야기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표현을 신비체험인 꿈, 신령이 강신하여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고 신력을 옮겨주는 점, 동물계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동물과 직접 내왕하며 접선하는 점으로 요약했는데 이는 조선족설화 전반의 샤머니즘적 표현이기도 한다. 그 중 신비체험인 꿈 속에서 주인공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해주는 산신은 충칭 지역의 설화 속에 등장하는 토지신과 함께 지역수호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본연적 기능을 따져 보면 산신도 토지신의 일종이다. 산신과 토지신은 비록 불교, 도교 등 종교와 습합되어 번형되었지만[13] 민간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들의 경건한 숭배를 받는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은 백악산아사달에서 장당경으로 천도한 후에 다시 아사달로 돌아가 은거하여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산신숭배는 건국신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4]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은 일산삼수(一山三水), 즉 백두산과 송화강, 압록강, 도문강을 천혜의 자원으로 삼고 있기에 백두산, 천지, 장백약수, 두만강, 세 자매강 등 전설이 전승되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도 파생하였다. 산신이 등장하는 조선족설화는 주로 『지명전설집』,『향토전설집』,『황구연전집』(7, 향토이야기 편)에 집중 수록되었다. 대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웬 노인, 웬 백발 노인, 백발노인,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 호호백발의 할머니, 백설같이 하얀 옷을 입은 도승, 신선할아버지, 백의백발의 노인, 백발이 성성한 낯선 노인 등 아주 유사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주인공에게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고 사라지는 데까지만 꿈에 해당된다. 그리고 꿈에서 깬 주인공은 그 방법대로 행하여 소원을 이룬다. 산신은 대체로

---

[11] 王倩予,「重庆民间祭祀的精神内核及其对未来的意义」,『西南民族文化研究』23, 2007. 61쪽.
[12] 사천, 「차병걸옛이야기에 나타난 샤머니즘적표현」, 『조선족민속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1. 162쪽.
[13] 불교는 다른 문화권에 포교를 하면서 그들 신앙과 갈등을 보이기보다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중시하며 습합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교가 주개념이 되고 민속이 거기에 종속되는 '민속불교', 민속이 주개념이 되고 불교가 종속개념이 되는 '불교민속'이라는 신앙형태가 생길 정도로 일반대중들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습합 형태를 보인다. 도교와 산신이 만나 산신과 칠성을 하나의 장소에 모시는 신앙형태나 불교 사찰 어디에서나 산신의 흔적(산신각, 산령각, 산성각 등)을 볼 수 있듯이 토착 신과 외래 종교는 서로 습합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장정태,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한국사상과 문화』(52), 2010. 요약 인용.
[14] 우리 민족에게 산은 사람이 사는 마을과 하늘을 연결하는 곳으로 여겨져 저승사자가 산길을 따라 명부의 명을 받고 내려오며 산 길목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먼 길을 온 사자가 음식을 먹고서 자신이 잡아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잡아간다고 믿기도 했다.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산에 묘를 짓게 되고 산에 자리를 잡기 전 가장 먼저 산신께 예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산신께 살아서는 복과 재수를 구하고 죽어서는 그 산에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구한다. 장정태, 위의 논문. 144쪽.

인간의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그 상황에 걸맞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를테면 조선족설화 속 백두산 기슭에 사는 주인공이 산으로 들어가 난관에 부딪힐 경우 노인의 모습을 한 산신으로 등장해야 위화감 없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으며 조선족의 삶의 환경과 설화를 매치시킬 수 있다. 이 외에 주인공이 호랑이와 직접 대화하고 접신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선족설화에는 권선징악의 정의적 화신에 해당되는 호랑이가 더 많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충칭 지역은 산이 많은 도시이며 창장과 자링강을 끼고 있으므로 옛 사람들은 채집을 하거나 부두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15] 그러다 기온 상승과 함께 사람들은 과일 종류와 일부 초본식물을 분별해냈고 드디어 곡물을 발견하였다. 그 후 곡식에 의해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점차 자연, 태양, 토지의 역량을 믿게 되고 고마운 마움을 표하게 된 것이다. 토지신은 넓은 평야의 비교적 광대한 토지 속에서 군림하고 있는 신령으로 한 동네 한 읍의 전체를 지배하며 그것을 수호하고,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수많은 취락의 신앙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한족 지역에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토지묘가 출생지와 같으며 사람이 돌아간 후 도사가 죽은 망자를 위해 경을 읽어줄 때 당사자가 소속된 토지묘에 가서 제사를 올린다. 혹은 망자의 가족이 토지신에게 망자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망자를 위해 길을 안내해 줄것을 기원한다. 하지만 충칭 지역의 토지신[16]은 기능은 아주 다양하다. 옛 충칭 지역에는 곳곳에 토지신이 있었다. 토지신과 충칭 지역민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雞毛土地, 總土地, 紅土地, 較場壩土地, 黃桷土地,雙土地,矮土地,竅角土地,倒坐土地,三層土地 등 토지신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17]들로부터 보아낼 수 있다. 그만큼 생활의 각 영역마다 관장하는 토지신들이 있으며 음력 2월 2일이 되면 향불과 술, 고기를 바치고 행복을 염원하는 통속적인 글귀를 써 붙인다.

충칭 지역 설화에는 꿈모티프가 들어간 토신회(土神会) 유래담[18]이 있다. 어느날 토지신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앓고 있는 늙은이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이 태어난 2월2일에 토양을 건드리지 말고 토양에 오물도 묻히지 말라고 한다. 그래야만 수확이 많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는 사라진다. 늙은이가 일어나 보니 그날이 바로 2월2일이었고 가족들에게 토지를 건드리거나 오물을 묻히지 말라고 하며 집모퉁이에 있는 토지신에게 향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친다. 그랬더니 토지신의 말처럼 1년 동안 온 가족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고 농작물 수확도 많았다. 그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도 따라했으며 영험하자 절에 토지신 신상을 안치하고 매년 2월 2일 토지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 충칭에 토지신이 많기 때문인지 설화에서 일부 토지신은 지역민들이 자기에

[15] 예전에 동력선이 나오기 전 인력으로 배를 끌어 올리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배를 끌어 올리며 함께 부르는 노동가요(川江号子)가 현재 충칭 우롱(武隆) 관광지의 인기 공연종목이 되었다.
[16] 흔히 토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함께 제물들을 나누며 해당 지역민들의 호소를 들어준다.
[17] 欧阳平,「旧重庆土地神谈趣」,『红岩春秋』(第一期), 1994.
[18] <土神会是啷个来的>, 『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622쪽.

게 예를 갖추지 않자 고의로 그들의 일을 방해하고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秧苗会的来历>[19]에서 자기에게 향을 피워 올리지 않는 지역민들이 괘씸한 벼싹 관장 토지신이 할아버지로 변신하여 토지묘 뒤의 논밭에 심어 놓은 볏모를 뽑아 놓는다. 그러다 논밭 주인에게 발견되자 토지신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며 홀대당한 서러움을 토로하고 사라진다. 이에 논밭 주인은 토지신이 또 볏모를 뽑을까봐 해당 토지묘에 향, 촛대, 절여 말린 돼지 고기를 제물로 올리고 감방의 양쪽에 글귀를 써 붙인다. 과연 그 해 수확이 예년보다 더 좋아지자 매년 4월5일 토지신에게 예를 갖추게 된다. 이 외에 사람들의 음식을 얼러 먹다가 처형당하거나[20] 고의로 설맞이 물품을 훔치는 행각을 버리는[21] 토지신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선택한 토지 위에 살아가며 대대손손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빌고 수확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곤 한다. 이로부터 '제의'라는 민속이 나타났다. 산신과 토지신은 모두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수호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수호신은 사유와 상상의 세계가 시청각적으로 구체화된 샤먄에 해당된다. 샤만은 원래 지상세계의 인간과 자연, 신의 세계의 영혼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족 민간신앙에서의 산신과 충칭 지역의 토지신(또는 도교적인 영향을 받은 선풍도골의 노인)으로부터 화신한 할아버지는 신의 세계와 지상세계를 넘나드는 샤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는 인간과 신을 원활하게 연결시키는 이상적 샤만으로, 후자는 신과 인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질투심이 강한 샤만으로 등장한다.

4. 토템-호랑이

호랑이는 한국이나 조선족설화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 신으로 숭배되는 호랑이, 효부·효자를 도와주는 호랑이, 은혜 갚는 호랑이, 역사인물의 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인간에게 포획되는 호랑이 등 다양한 호랑이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는 호랑이 설화가 아주 풍부하다. 선행 연구는 우리 민족의 호랑이 숭배 양상을 <단군신화>

---

[19] 重庆巴县民间文学三套集成编辑会,『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633쪽.

[20] <八月十五天门开>에서 南天门의 토지신 할머니는 자기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없자 할머니로 변신하여 점쟁이에게 사기당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팔자가 나쁘다고 알려준 점쟁이의 거짓말을 밝히면서 좋은 팔자를 유지하자면 南天门의 토지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바치면 매년 운수가 좋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에 그 사람은 南天门의 토지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치고 토지신 할머니 또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토지신 할머니는 천상의 계율을 위반하고 민중들의 음식을 얼러 먹은 죄로 옥황상제에게 잡혀가 곤장에 맞아 죽는다. 彭维金, 李子硕 主编,『魏显德 民间故事集』, 重庆出版社, 1991.110-113쪽.

[21] 长生 토지신은 설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집안의 성주신, 조왕신, 재물신에게만 새로운 위패를 바꿔주는 것을 보고 불만감에 사람들이 사 둔 설맞이 용품들을 고의로 숨겨둔다. 이어 사람들은 분실된 신발 한 짝이 감실 귀퉁이에 있는 토지신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운한 토지신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도 위패를 써 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토지신을 무시하자 그들의 설맞이 용품을 또 훔쳐간다. 결국 사람들이 용품을 잃지 않으려고 토지신에게 위패를 올리자 토지신은 더이상 용품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腊月三十守夜的来历>,『魏显德民间故事集』, 重庆出版社, 1991.115-116쪽.

에서 찾았다.[22] 고조선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예씨족 집단이 있었는데[23] <단군신화>에서 호랑이가 인간으로 화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 곰을 토템으로 한 맥씨족 집단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예씨족 집단을 타승하여 노예제 국가의 통치권을 취득한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이 호랑이젖을 먹고 자랐다는 <삼국유사>의 기록[24]과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어머니가 호랑이 발자국을 밟고 잉태했다는 <고려사>의 기록(《高丽史》世系)에서도 호랑이의 신성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산이 많은 조선족 지역에는 장백산을 배경으로 하는 호랑이 이야기보다 한국에서 전래된 이야기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25] 때문에 조선족설화에서 호랑이의 토템신 이미지는 한국과 중첩되어 <단군>(예씨족의 호랑이 토템), <호랑이 처녀와 호원사>(호랑이 처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아무 절간의 된장을 가져다 발라주면 상처가 낫는다고 함, 처녀의 소원대로 김현이 절을 지어줌), <효성에 감동된 호랑이>(호랑이 눈썹 하나 뽑아서 어머님의 입술과 손과 발목에다 침을 놓으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으며 만가지 병이 뚝 떨어짐) 등 몇 편으로 한정된다. 산이 많은 조선족 지역에서, 특히 장백산 아래 거주하는 조선족들에게 호랑이는 용맹한 영물보다는 인간을 해치는 무서운 존재[26]나 효부·효자를 도와주는 호랑이, 은혜 갚은 호랑이, 낭패당한 호랑 이 등으로 나타나 호랑이가 토템신으로부터 점차 설화의 친숙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왜냐 하면 <단군신화>에서 비록 곰이 이겼지만 호랑이는 사냥꾼과 민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등 곰보다 민중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옛 충칭 지역도 호랑이를 토템신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巴人(중국 先秦시기 산시성 동남부, 후베이성 서부, 쓰촨성 동부에 있었던 민족)의 백호랑이 숭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巴人의 백호랑이 신앙에 대해 『世本』에 "廪君[27]死, 魂魄世为白虎。巴氏以虎 饮人血, 遂以人祠焉。"라는 기록이 있다. 특히 토가족[28]은 廪君을 선조로 받들면서 호랑이를 토템신으로 여겨왔기에 '白虎复夷'[29], '白虎之后' 등의 족칭이 있다. 『土家族 民俗志』에 의하면, 토가족의 여성 생육신(토가족어로 '苡禾娘娘'이라 함)이 처녀 시절 산에 찻잎을 따러 갔다가 찻잎을 먹은 후 잉태를 하게 된다. 3년 6개월 만에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 아이들을 산에 버렸더니 호랑이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

[22] 전신자, <조선민속에서의 호랑이숭배>, 『조선족민속연구』 1, 연변대학출판사, 1991. 123쪽.
[23] 《三国志魏志东夷传》载, 韩民族之一濊"总在十月进行祭天…把虎奉为神"。사실 호랑이 신앙은 동예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보편적인 신앙이다.
[24] 《三国逸事》卷二 纪異二 后百济 甄萱條.
[25] 『황구연전집』(9집, 동물이야기편)만 보아도 60여 편의 호랑이 설화 중 <최포수와 세 아들>(배경: 장백산), <호랑이, 물개와 토끼>(배경: 대동강, 압록강, 백두산), <유복이 범을 잡다>(배경: 백두산), <호랑이와 고슴도치> (배경: 장백산 밀림), <뽐내던 두 호랑이>(배경: 금강산, 백두산) 등 외의 이야기는 모두 '옛날 어느 산골에…'로 시작한다.
[26] "옛날옛적에 룡수평마을에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고 소문이 자자한 박지주가 있었다.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호랑이지주의 뉘우침>(『황구연전접』 9, 230쪽)
[27] 巴人의 선조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토가족의 선조 巴务相이 5개 성씨의 부락 수령으로 뽑혀 '廪君'으로 불렸다고 한다.
[28] 토가족과 묘족은 충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널리 분포된 두 소수민족이다.
[29] 秦汉 시기 서남 소수민족 중 전문 호랑이를 잡는 자에 대한 호칭이다.

각기 비범한 재능을 키워 다시 어머니를 찾아간다.[30] 충칭 지역에는 이처럼 호랑이 젖을 먹은 아이가 장성하여 호씨(虎氏) 성을 가지게 된 가족들이 산을 옮기는 <愚公姓啥> 이야기가 있다.

> 옛날 홍수에서 살아남은 어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다 아이 혼자 두고 먼저 죽는다. 이어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데 나중에 호랑이가 죽은 후 아이는 인간들 무리로 돌아가 어떤 할아버지의 수양 아들이 된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죽은 후 아내를 얻으며 성을 호씨(虎氏)로 정한다. 그 후 식구가 점점 늘어나 토지가 부족해지자 집 앞의 산을 농토로 개간하고자 대대로 산을 파기로 결심한다. 이로부터 팔순 구순이 되도록 산을 판 愚公의 성은 호씨임을 알 수 있다.[31]

위의 이야기는『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愚公移山'의 유래담[32]과 호랑이 토템을 결부시켜 '愚公'의 성씨를 호씨라는 성씨 유래담으로 엮었다. 이 외에 어떤 부락을 '호족'으로 칭하게 된 유래담 <虎兵>[33]도 있다. 위의 설화들은 호랑이를 토템신으로 모시게 된 이유를 '젖'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통해 각인시켰으며 끈기와 인내심의 '대명사'인 '愚公'을 호랑이와 연계시켰다. 이는 해당 지역민들의 민족성을 표현하기 위해 토템신을 활용한 경우로 충칭 지역민들의 완강함, 근면함과 인내심[34]을 호랑이토템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는 인내심이 부족한 <단군신화> 속의 호랑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물론 충칭은 여러 소수민족의 집거지이기에 호랑이 토템 외에도 뱀, 소, 룡 등을 토템신으로 여긴다. 특히 충칭 동남부는 토가족과 묘족을 위주로 하는 소수민족 집거지로 토템문화의 단계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는 가까운 씨족을 정복하기 위해 주

---

30 『土家族民俗志』(民俗文库之九), 中央民族学院出版社, 1987. 191쪽.

31 重庆巴县民间文学三套集成编辑会,『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83-85쪽.

32 옛날, 중국의 북산(北山)에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 사이에 살고 있었다. 이 산은 사방이 700리,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큰 산으로, 북쪽이 가로막혀 교통이 불편했다. 우공(愚公)이 어느 날 가족을 모아 놓고 말했다. "저 험한 산을 평평하게 하여 예주(豫州)의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는 동시에 한수(漢水)의 남쪽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아내만이 반대하며 말했다. "당신 힘으로는 조그만 언덕 하나 파헤치기도 어려운데, 어찌 이 큰 산을 깎아 내려는 겁니까? 또, 파낸 흙은 어찌하시렵니까?" 우공(愚公)은 흙은 발해(渤海)에다 버리겠다며 세 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와 광주리 등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황해 근처의 지수라는 사람이 그를 비웃었지만 우공(愚公)은 "내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내가 죽으면 아들이 남을 테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산이 평평해 질 날이 오겠지."하고 태연히 말했다. 한편 두 산을 지키는 사신(蛇神)이 자신들의 거처가 없어질 형편이라 천제에게 호소했더니, 천제는 우공(愚公)의 우직함에 감동하여 역신(力神) 과아씨(夸蛾氏)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두 산을 하나는 삭동(朔東)에, 또 하나는 옹남(雍南)에 옮겨 놓게 했다고 한다.

33 "옛날, 세력이 강한 조족(鸟族)과 몇 백명 규모밖에 안 되는 이름 모를 부락이 있었다. 이름 모를 부락에 14세 되는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산에 사냥하러 갔다가 굶주리고 있는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안고 와 키우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조족의 독수리가 그 아이가 안고 있는 새끼 호랑이를 덮치려다가 오히려 호랑이에게 긁혀 상처를 입는다. 이에 조족이 남자 아이가 속한 부족 두령과 남자 아이의 어머니를 죽이자 그 아이는 복수를 결심한다. 후에 부족 두령이 된 아이는 부족 이름을 '호족(虎族)'이라 하였으며 두 호랑이의 전략대로 행하여 조족을 물리친다. 나중에 두 호랑이가 죽은 후 신으로 모셨으며 호랑이 사당까지 만들어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重庆巴县民间文学三套集 成编辑会, 『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77-80쪽.

34 산이 많은 충칭을 현대화 도시, 특히 산을 뚫어 '다리의 도시'로 건설한 충칭의 지역민들은 현대판 '愚公'들인 셈이다.

변 지역을 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를 토템으로 삼아야 욕망을 표현하고 확장의 신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호랑이는 뱀보다 더 사나운 존재이다. 이에 뱀을 숭배하는 부족이 점차 호랑이 부족에게 밀려나고 중원문화가 융합되면서 용토템, 소토템도 추가된 것이다.[35] 이는 곰 토템에게 패배한 호랑이 토템을 그린 <단군신화>와 유사하다. 다만 충칭 지역에서는 뱀 토템 이야기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반면 조선족설화에는 한국에서 전승되던 호랑이나 뱀 토템 이야기를 배경만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구전했을 뿐이다. 어쩌면 이는 문화의 형성시점에 의해 좌우지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은 비록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으로 이주했지만 '조선족'이란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생겼으며 조선족문화 또한 그것을 시점으로 이미 형성된 동일 민족의 문화를 전이·융합시킨 것이다. 하지만 충칭 지역은 전근대부터 신앙이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살았기에 토템이 다양하며 생존환경에 따라 삶을 지킬 수 있는 보다 나은 동물을 함께 추존했다고 볼 수 있다.

5. 민속음식-떡

식생활은 인간생존의 기초이다. 때문에 인류가 창조해 놓은 모든 문화재부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고 민족적 특성이 가장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음식문화이다. 한 민족의 식생활 풍습은 그 민족이 형성되던 때에 기점을 두고 장구한 역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천을 거듭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한 민족의 기본 음식류는 그 민족 특유의 자연배경을 기본 요인으로 한다.

조선족 민속음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조선족과 한족의 식생활의 특징을 비교하거나[36] 조선족 특색이 있는 음식문화에 대한 논의[37]였다. 물론 이들은 설화를 통한 연구가 아니라 음식 풍속을 소개한 글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족과 충칭 지역의 설화에 등장하는 민속음식-떡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조선족의 기본 식품은 곡물이며 음식 풍습에는 농경민의 공통의식이 기저를 이룬다. 『三国誌』魏志 • 东夷传에서 전하고 있듯이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迎鼓, 舞天, 东盟과 같은 기농제를 부락공동제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오늘의 洞祭, 山神祭, 堂祭 등 부락 공통의 농경의례로 이어져 제의음식에도 상고 시대 천제를 행할 때 만들던 음식의

[35] 刘玉丽, 「渝东南少数民族图腾文化中的民族地域性格解读」,『戏剧之家』19, 2016. 246-247쪽.
[36] 김정일·김섭, 「조선민족 식생활의 특징」, 『조선족민속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1. 71-80쪽.
[37] 성치원,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한국민속학』61, 2015. 141-178쪽.
钟伯清,「略论朝鲜族饮食文化的特色和价值」,『黑龙江民族丛刊』, 1998.
全信子,「民族学视野下的朝鲜族传统饮食文化及其传承」,『南宁职业技术学院学报』, 2010.
车正太,「朝鲜族酱文化的民族学研究」, 延边大学硕士论文, 2011.5.
孙菲,「从冷面看朝鲜族饮食文化的价值」,『南宁职业技术学院学报』45, 2012.3.
黄清波,「朝鲜族民族特色餐饮业发展研究」, 延边大学硕士论文, 2017.5.
刘玥,「论中国朝鲜族传统美食的价值体现」,『现代商贸工业』28, 2017. 56-58.
李时凤,「基于民族学视觉下的朝鲜族饮食文化探析」, 西南大学硕士论文, 2017.04.

원형이 그대로 전승되어 온다. 조상을 섬기는 곡물에 다른 음식을 할 수는 없었으며 이 같은 의식은 햇곡식을 담아서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이어주는 성주독의 풍속이나, 어린이 생일이면 수수팥 떡을 해주어야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승되어 오는 풍속 등 모두가 조상을 섬기고 후손의 免厄을 빌고 가운이 길하기를 기원하는 인간의 진정에서 저버려 지지 않은 의식이고 민속이다.[38]

충칭 문화는 지역적으로 남방문화에 속한다. 중국 남방, 특히 창장 중하류 지역은 벼문화의 발원지이며 무속문화의 중요한 전승지이다. 통계에 의하면 충칭에는 전국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나의 큰 소수민족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39] 그 중 중국 고대 越族의 후예인 따이까다이어족(壮侗语族)은 찰벼를 가장 일찍 심은 민족으로 '찰벼민족'이라 불렸다. 그들은 명절, 경사, 방문, 손님 대접, 제사 때 찰벼로 음식을 만들어 예를 갖추었다.[40] 현재 충칭에서 볼 수 있는 찰떡(糍粑라고 함) 또한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풍습이 해당 지역의 생활습관과 융합되었다고 본다.

한국에는 <떡보를 출세시킨 떡> ([설화] "떡보애기" 중에서), <호랑이도 좋아한 떡>([한국의 민담] "햇님 달님" 중에서), <아내보다 떡을 좋아한 남편>([한국의 민담] "아내보다 떡" 전문), <게으른 남편에게는 밥보다 떡>([한국의 민담] "게으름뱅이" 중에서) <송편을 벗겨 먹은 신랑>([한국의 민담] "바보 이야기(2)" 전문), <놀이꾼들이 꿀떡한 떡>([한국의 민담] "꿀떡" 중에서), <쥐도 만든 떡>([한국의 민담] "세 딸" 중에서) 등 떡 관련 설화들이 있는데 떡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으로 나온다. 조선족 설화에서도 찰떡은 제물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담이나 우스운 이야기에서 '누구나 환장하는 음식', '내기의 대상물'이나 '동물을 유혹하는 음식'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두꺼비와 토끼와 호랑이의 내기>[41]에서 호랑이, 두꺼비, 토끼가 찰떡 한 덩이를 놓고 내기를 하는데 셋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 제일 높은 곳에 갔다 온 자, 술을 제일 못 먹는 자, 압록강을 먼저 뛰어 건너는 자, 높은 산언덕에서 굴러내리는 떡을 가장 먼저 잡는 자 등 치열한 경쟁을 벌여 두꺼비가 실컷 먹게 된다. 떡 한덩이 먹기 위해 내기를 거듭하는 동물들의 집착을 통해 떡의 소중함을 암시한다. 물론 찰떡을 만드는 과정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이야기 <민족 특색이 있는 찰떡(富有民族特色的打糕)>[42]도 있다. 장백산 아래 어떤 조선족 내외가 아들 셋을 데리고 사는데 생활이 좋아질수록 단합심이 점차 사라지자 아버지는 막내아들이 결혼하는 기회에 온 가족 함께 찰떡을 만들기로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아들들은 단합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찰떡은 찹쌀을 물에 담갔다가 밥으로 지어서 나무절구에 넣고 친 후 칼로 한 덩이 한 덩이씩 베어 콩가루를 묻히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가족,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

[38] 윤서석, 「민속과 음식」, 『한국민속학』 10, 1977. 169-172.
[39] 胡牧,「重庆少数民族民歌及其分类」,『重庆文理学院学报』(社会科学版) 36, 2017. 28-33.
[40] 黄桂秋,「中国壮侗语族群的糯稻、糯食与糯祭文化」,『广西民族研究』, 2016年第1期.
[41] 김재권 정리, 『황구연전집』(9, 동물이야기편), 연변인민출판사, 2007. 95쪽.
[42] 公羽、晓玲, 『长白山金达莱』, 延边日报印刷厂, 2000. 59-63쪽.

고 끈끈한 관계도 유지하기도 한다.

한편 충칭 지역의 설화에서 떡은 여전히 제물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娃儿生疮为啥要敬茶婆婆>[43]이다. 아이가 부스럼이 났을 때 茶婆婆에게 예를 갖춰야 하는 유래담이다. 茶婆婆는 중국의 유명한 목공인 노반(鲁班)의 어머니가 죽은 후 귀신이 된 후의 명칭이다. 한 번은 노반의 어머니가 호기심에 노반이 타고 다니는 목마를 시승하게 되는데 멈추게 할줄 몰라 목마에서 뛰어내려 사망한다. 죽은 후 茶婆婆가 되어 어떤 아이가 있는 집의 구석에 숨게 되며 어른이 없을 때 그 아이를 어르며 놀곤 하는데 茶婆婆의 손이 닿았던 아이의 몸에 부스럼이 난 것이다. 이어 아이 어머니의 꿈에 나타난 장생보살이 찹쌀떡을 만들어 茶婆婆에게 드리고 빌면 된다고 알려준다. 아이의 어머니가 보살의 말대로 했더니 아이의 부스럼이 사라졌으며 그 후부터 아이 몸에 부스럼이 나는 집에서는 모두 이렇게 했다고 한다.

이 외에 떡이 제물(예물)용으로 나오는 이야기 <牛王会的来历>[44]가 있다. 어떤 절에서 소 모양의 보살상을 만들어 온 몸에 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두었다. 이에 소를 키우는 사람과 소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그 방법들을 베껴가곤 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자 절간의 스님은 매년 10월 초하루에만 문을 열기로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스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햇곡식으로 찰떡을 만들어 스님에게 드리기로 한다. 하지만 너도나도 찰떡을 만들어 가자 먹고 남은 찰떡을 소뿔에 걸어놓는다. 그로부터 10월 초하루는 소의 생일로 되었고 그날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흔히 신령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들을 제물로 올려 환심을 사려고 한다. 동북이나 서남 지역은 같은 벼문화 지역으로 무병무재에 대한 바람과 제물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45] 그들은 떡을 음식 자체로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는 제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두었기 때문에 떡은 전통적으로 주식이 아닌 비일상식이나 별식으로 즐기는 기호식이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원래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이기에 쌀을 주식으로 한 역사가 길고 쌀로 만든 음식도 다양한 편이다. 조선족 선조들의 생존환경도 농업 발전에 유리하기에 오래된 실천 중에서 그들은 풍부한 농경 경험을 쌓았고 벼농사 기술을 추운 동북에 접목시켰다. 전반적으로 동양에서는 기념일에 서양의 케익 대신 떡을 올렸다고 할 때 조선족 지역(동북)과 충칭 지역(서남)도 범인류적인 의례음식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셈 이다.

[43] 彭维金、李子硕, 『魏显德民间故事集』, 重庆出版社, 1991. 100쪽.
[44] 重庆巴县民间文学三套集成编辑会,『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650-652쪽.
[45] 다만 남부 지역은 향이나 절여 말린 고기도 제물에 속한다.

6. 맺음말

어떤 지역의 문화든 자연적, 경제적, 종교적인 요인들이 융합되어 형성된다. 때문에 각 나라·지역의 문화는 똑같을 수 없다. 조선족은 중국의 기타 소수민족과 달리 본 민족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본토에서 형성된 문화를 타민족과의 문화 충돌 속에서 지켜 왔다. 충칭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민족들도 본 고장을 떠나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한 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자는 민족자치주를 형성할 정도로 보다 집중되었을 뿐더러 언어와 문화도 잘 보존되어 온 편이다. 한편 후자는 한족을 주체로 하는 여러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이민공동체로서 해당 지역 여건 및 한족 문화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들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형성된 이상 두 이민공동체는 그 형성 배경도 무색할 정도로 유사한 민속문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민중들의 생활을 기반으로 상상력에 의해 구축된 설화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고민과 바람은 대체로 유사하다. 집안 가족들이 무병무탈하기를 바라고 배를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러한데, 주로 자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시대에는 신에게 빌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 지역과 충칭은 모두 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조선족설화에는 주로 산신이 등장하고 충칭 지역 설화에는 토지신이 등장한다. 산신과 토지신은 모두 지역수호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선족설화에서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노인의 모습을 한 산신으로 등장하고 충칭 설화에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격 유지에 집착하는 희화된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리고 토템신에 있어서 공히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했는데 호랑이가 우리 민족 전반에 걸쳐 토템신으로서의 신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만큼 조선족설화에서도 한국과 중첩된 몇 편에서 토템신으로 등장할 뿐 기타 설화에서는 민속에서의 토템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이에 비해 충칭 설화에서는 오래된 신격에 걸맞게 토템신과 민족성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엮었다. 이는 조선족과 충칭 지역의 민속음식인 떡과 관련된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벼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모두 떡을 의례음식으로 삼았으나 조선족설화에서는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귀한 음식, 제조과정을 통해 단합심을 키울 수 있는 음식으로 나오지만 충칭 지역 설화에서는 제물(예물)용으로 사용된다. 이로부터 고국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 조선족들은 본토의 민속 요소와 함께 새로운 다양한 양상을 보인 반면 충칭 지역은 주요 소수민족에 의해 본연의 민속요소가 큰 변이없이 전승된 편이다. 설화에서 반영된 전면적인 민속문화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의 후속으로 금기, 속신, 통과의례 면의 검토도 진행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고이케 준이치, 「민속학에서 세간이야기 연구의 위치와 가능성」, 『중앙민속학』, 33-57쪽.
2. 许辉勋, 『朝鲜族民俗文化及中国特色』, 延边大学出版社, 2007.
3. 『魏显德民间故事集』, 重庆出版社, 1991.
4. 重庆巴县民间文学三套集成编辑会, 『中国民间故事集成-重庆市巴县卷』, 巴县冬笋印刷厂, 1989.
5. 『향토전설집』, 연세국학총서73, 2006.
6. 『지명전설집』, 연세국학총서73, 2007.
7. 『민간설화자료집』(1~3), 보고사, 2006.
8. 『황구연전집』, 연변인민출판사, 2007~2008.
9. 李禹阶、岳精柱, 「历史上的重庆移民及其信仰」, 『重庆师范大学学报』4, 2017,5-10.
10. 王倩予, 「重庆民间祭祀的精神内核及其对未来的意义」, 『西南民族文化研究』23, 2007, 45-47.
11. 연변조선족민속학회 편, 『조선족민속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1
12. 박창묵, 『조선족민속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6
13. 박창묵, 『조선족민속연구』3, 연변대학출판사, 2001
14. 장정태,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한국사상과 문화』(52), 2010, 139-160.

이름: 최향

소속: 사천외국어대학교

주소: 重庆市沙坪坝区烈士墓壮志路33号

전화: 18502350062

전자우편: cuixiang1242@qq.c

한국 해외 언어 교육 주의 문화 요소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喬宇博

(揚州大學)

1. 연구배경

언어는 문화의 매개체이고 문화는 언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 학습과정에서 문화는 불가피의 학습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이 대두되면서 외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송명진, 2014:18). 그리고 박영순(1989)은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단순하게 언어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문화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중의 문화 요소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한국어의 해외 보급 교육의 고속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여명 밖에 안 되는 나라로서 그 언어의 사용률은 세계 언어에서 13위를 차지하고(吳應輝, 2013: 6) 그의 문화제품은 세계의 시장점유율은 3.5%에 달하여 세계 5대 문화 산업 강구의 자리를 잡았다(謝曉娟, 2012). 세종학당은 한국의 언어 해외 보급 기구로서 이 성과를 거두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세종한국어>는 한국의 언어 해외 보급 기구인 세종학당의 전용 교재로서 어떤 문화 요소를 다루어 있는지, 그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 편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해외 보급 교육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2. 연구방법과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하여 통계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외국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의 정의와 분류를 밝혀냄으로써 문화 요소 데이터베이스의 틀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문화 요소의 하위 분류에 따라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를 추출하여 하위분류를 한다. 그를 기초로 하여 인지적 특징, 기능적 특징, 시대적 특징, 문화의 고유성, 그리고 도입의 형식, 제시 시각, 언

어와의 관련 방식 등 7개 측면에서 표기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 요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통해서 아래 명 가지 문제를 밝혀 내고자 한다.

(1) <세종한국어>에 어떤 문화 요소를 다루어 있어?

(2) <세종한국어>에 다루어 있는 문화 요소들의 내용적 특징은 어떤가?

(3) <세종한국어>에 다루어 있는 문화 요소들의 형식적 특징은 어떤가?

(4)<세종한국어>에 다루어 있는 문화 요소의 내용적 특징은 학습 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

(5)<세종한국어>에 다루어 있는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은 학습 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

(6)현대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의 기능적 특징과 인지적 특징은 어떤가?

(7)현대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은 어떤가?

(8)고유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은 어떤가?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1 문화요소의 분류

季羨林(1995)에 따라 세계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500여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뻔했다. 지금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500여가지의 정의 외에 또 501번째, 502번째 정의를 추가할 뿐이다. 그는 문화에 대한 이해는 넓다. 즉, 정신적 측면, 물질적 측면, 인민들에게 좋은 것은 다 문화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인류 학자 Humbolt와 미국 인류학자 Wolfe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제일 먼저 발견한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언어 상관성 원리를 제출했다. 즉 화자의 세계관은 화자 모국어 문화의 언어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법적 범주 및 하위 분류에 결정된다(張夢瑤, 2013: 17). 許國璋은 1980년대 초에 사회 언어학을 중국 내의 외국어 교육학계에 도입했음에 따라 중국의 외국어 교육확계에서 외국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를 중시하게 되었다. 1988년 6월에 중국 대외 중국어 교육 지도 그룹 사무실(漢辦)에서 <1988-1990년對外漢語教學科研課題指南>을 반포하여 “문화 요소가 대외 중국어 교육 중의 역할”, “중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양방향이나 다방향 비교연구”, 그리고 “외국인이 중국 문화를 받아드리고 중국 문화관을 형성하는 과정 중의 중국어와 중국어 교육의 역할” 등을 기초 이론 연구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대외 중국어 교육의 다문화 이론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 요소가 대외 중국어 교육 중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언어 교육의 특징을 지향하여 문화 요소의 범위를 기술했다. 林立國(1997)에서는 문화 요소를

문화와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외 중국어 교육에 걸친 문화 내용은 문화 요소이라고 했으며 문화 요소의 범위를 확정해야만 문화 지침서의 제작의 토대로 될 것이다. 趙金銘(2008)에서는 대외 중국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에 대하여 깊이 따졌다. 그에 따라 목적어에 대한 이해와 목적어로 표현하는 것에 긴밀하게 관련하는 문화 요소는 목적어의 구조 시스템에 숨어 있어 시스템에서 민족의 가치관, 시비의 판단 경향, 의식주, 풍속 습관, 심미관, 도덕규범, 생활방식, 사유방식 등 측면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표현한다. 盧偉(2003)에서는 요구분석을 기초로 하여 문화 요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문화 요소는 총 10종류로 나누고 하위분류 31개를 해서 총 190개 문화요소를 미쳤다.

한국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언어 교육의 단계적 특징에 따라 문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김정숙(1992)와 장경은(2001)에서 는 학습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에 다루어야 할 문화 내용을 살펴보고, 우인혜(2004)에서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과정을 초급과 중·고급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에 다루어야 하는 문화 요소의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 또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다루어야 하는 문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해영(2000)은 외국어와 한국어 교육에서 주장한 문화 교육의 내용을 언어, 생활 양식, 가치관, 지리, 역사, 제도 그리고 성취 문화로 부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박영순(2003)은 문화교육의 내용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과학기술문화 등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그 외에 조항록(2004)은 한국어 문화론에 대한 4단계 접근 방식(문화일반론→한국적특성의 문화론→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론→한국어 교육 과정과의관련성→한국어 교육과의 관련성)에 기준을 두어 의식주 문화, 역사 문화, 민속 문화, 사상 문화, 관념과 가치관, 일상생활 문화, 제도문화, 예술문화, 문학, 기타 등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김수현(2006)은 문화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한국어 문화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문화 교육의 범위를 전통문화, 생활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5가지로 분류했다. 권오경(2009)은 문화 요소를 성취문화, 행동문화, 관념문화로 크게 분류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중국이나 한국에서 자신의 언어적 특징과 자신의 언어 교육 전략 및 목적에 따라 언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를 연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어 교육의 단계별에 다루어야 하는 문화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구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분류에는 언어문화, 성취문화 등 중국 학자들이 제시하지 않는 분류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의 한국어 교재 편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대외 중국어 교육에도 참고할 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 요소의 분류는 중국과 한국의 분류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문화 요소의 분류

유형	하위분류
생활방식	음식, 교통, 쇼핑, 여가생활, 생활거주, 일상생활, 이미지관리
풍속습관	명절, 행사, 특별 날짜(결혼, 장례, 생일 등)
사회구조	정치,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민족/종족, 환경
사상관념	시간, 공간, 가치관, 상징
성취문화	과학기술, 예술, 문학, 인물, 영예, 전적
사회 교류	언어, 행위

3.2 특징의 표기

3.2.1 내용적 측면의 표기

(1)기능적 특징

張占一(1984)에 따라 언어 교육 중의 문화 배경지식은 기능적 측면에서 지식 문화와 사교 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 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할 때에 어떤 단어, 문장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화배경지식이다. 사교 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할 때에 어떤 단어, 문장에 관한 문화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켜서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지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요소의 기능적 특징을 張占一(1984)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분류를 빌어 표기하고자 한다.

(2)인지적 특징

언어 학습이든가 문화 학습이든가 일정한 인지적 규칙에 맞는다. 張英(2004)에 따라 언어 측면의 교육이나 문화 측면의 교육에서 미치는 문화 범위는 인지적 시각으로부터 표층 문화와 심층 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층 문화란 보통 시각과 청각이나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 현상이고 음반과 영상물 등 대중매체 수단으로 초·중 급 수준의 언어 학습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심청문화란 사상, 관념, 제도 등에 속하는 것이고 민족 전체 문화의 기본이며 문화에서 제일 이성적인 부분이다. 심층 문화를 인식하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심층 문화를 받아주려면 일정한 언어와 문화 기초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심층 문화는 고급 수준의 언어 교육 범위에 속한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는 일정한 발전 순서가 있어야 한다. 즉 표층문화부터 심층문화까지의 발전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張英(2004)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분류를 빌어 인지적 측면에서 문화 요소를 표기하고자 한다.

(3)시대적 특징

劉和平 등(2010)에서는 양적 통계와 질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 문화의 해외 보급은 “3접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중국 발전의 실제에 접근, 외국 학습자가 중국에 관한 요구에 접근, 외국 학습자의 사유와 언어 습관에 접근이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외 문화 보급을 촉진시키려면 먼저 중국 국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의 누적을 통해서 형성된 “중국문화” 내포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문화 습관에 따라 언어 문화 교재를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06년에 미국 <뉴스위크>에서 선출한 세계에서 문화적 영향력이 제일 큰 중국 문화 이미지는 전통적인 이미지 부호에 많이 집중했다(胡曉明, 2011). 謝曉娟(2012)에서도 서양 학습자들은 중국 전통 사회 물품과 예절에 더 관심하고 중국 현실 사회의 관념과 가치를 상대적으로 무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과 현대 두 측면에서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를 표기하여 한국 해외 언어 교육 중의 문화 요소의 시대적 특징을 밝혀 내고자 한다.

(4)고유성 특징

스페인 통·번역 학자인 Aixelá .Javier Franco는 번역 연구를 위하여 1996년에 고유 문화 항목(Culture-specific item)을 제출했다. 즉, 글 중의 어떤 항목은 번역자의 언어 시스템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거나 이 항목과 서로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문 중의 기능과 내포를 역문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언어 항목이다.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적어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차이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서 목적어 나라의 고유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독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학 중의 고유문화항목의 개념을 빌어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의 고유성을 표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해외 보급 교육에서 고유 문화 요소의 처리 방법을 밝혀 내고자 한다.

3.2.2 형식적 측면의 표기

(1)도입의 형식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며 문화의 캐리어이다. 趙賢州(1992)에서는 문화 차이의 시각으로부터 교제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요소를 도입한다고 했다. 陳光磊(1992)에서는 문화 도입의 방법은 직접 서술법, 상호 용합법, 교제 실천법과 비교법 4가지로 귀납했다. 李瑋(2009)에서는 대외 중국어 교재 6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요소의 도입 방식을 과문, 어휘, 연습과 기타 4부분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형식을 표2와 같이 정리했다.

표2: 문화 요소의 도입 방식

유형	형식
과문	직접 소개, 상황 설명, 주석
어휘	열성적인 문화 어휘, 전문어
연습	독해, 빈칸 채우기, 토론, 선 연결하기, 문장 짓기, 낭독, 순서 배열
기타	그림, 보충지식

본 연구에서는 표2의 분류에 따라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의 도입 형식을 표기함으로써 문화 요소를 도입하는 형식 특징을 밝혀 내고자 한다.

(2)제시 시각

吕必松(1990)에 따라 언어와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야만 문화 차이의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박영순(2011)에서 문화 교육 내용을 분류하고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할 때에 목표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문화와 목적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를 통해서 두 언어 문화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辛平(2015)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의 중국어 교재 6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의 제시 시각을 차이 중심, 변화 중심, 전면설명 3가지로 나누어 봤다.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분류를 기초로 하여 문화 요소의 제시 시각을 차이 중심, 변화 중심, 전면 설명, 독립 설명 4가지로 나누어 <세종한국어> 중의 문화 요소의 제시 시각을 표기하고자 한다.

(3)언어와의 관련 방식

吕必松(1996)에 따라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문화 요소가 없으면 안 된다. 언어를 학습하는 동시에 해당 문화 배경 지식도 배워야 하고 언어 교육을 하는 동시에 언어 이해와 사용에 긴밀하게 관련하는 문화 배경지식도 가르쳐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교재 중의 문화 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방식은 교육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辛平(2015)에서는 대외 중국어 교재 6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방식을 주석, 보충, 상관, 유발, 무관련 등 5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5가지 유형을 기초로 하여 융합을 추가하여 문화 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형식을 융합, 주석, 보충, 상관, 유발, 무관련 6가지 측면에서 표기함으로써 <세종한구어> 중의 문화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과 해석

<세종한국어>는 한국의 해외 언어 보급 기구인 세종학당의 전용 교재로서 총 8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예비편과 단원 12개로 구성되고, 2~8권은 각기 단원 14개가 있다. 세종학당의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한국어 TOPIK시험의 초급, 중급, 고급과 대응한다. 세종학당의 기본과정은 TOPIK의 초급과 중급과 대응한다. 즉, 지금 개발 완료된 교재는 세종학당의 기본 과정에 해당하고 TOPIK 중급까지만 대응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표3과 같다.

표3: <세종한국어> 교재 상황

<table>
<tr><td colspan="8">기본과정</td><td colspan="2">심화과정</td></tr>
<tr><td rowspan="2">교육과정</td><td colspan="2">1급</td><td colspan="2">2급</td><td colspan="2">3급</td><td colspan="2">4급</td><td>5급</td><td>6급</td></tr>
<tr><td colspan="2">초급1</td><td colspan="2">초급2</td><td colspan="2">중급1</td><td colspan="2">중급2</td><td>고급1</td><td>고급2</td></tr>
<tr><td rowspan="2">교재운영표준안</td><td>세종1</td><td>세종2</td><td>세종3</td><td>세종4</td><td>세종5</td><td>세종6</td><td>세종7</td><td>세종8</td><td colspan="2" rowspan="2">기관선택</td></tr>
<tr><td colspan="8">개발완료</td></tr>
</table>

*세종학당재단 사이트: http://www.ksif.or.kr/business/businessKoreanedu.do

4.1 문화 요소의 유형 분석

4.2 문화 요소의 내용적 특징

4.2.1 문화 요소의 기능적 특징

4.2.2 문화 요소의 인지적 특징

4.2.3 문화 요소의 시대적 특징

4.2.4 문화 요소의 고유성 특징

4.3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

4.3.1 문화 요소의 도입 형식

4.3.2 문화 요소의 제시 시각

4.3.3 문화 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방식

4.4 학습과정에 따른 문화 요소의 내용적 특징의 번화

4.4.1 문화 요소 기능적 특징의 변화

4.4.2 문화 요소 인지적 특징의 변화
4.4.3 문화 요소 시대적 특징의 변화
4.4.4 문화 요소 고유성의 변화

4.5학습과정에 따른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의 번화
4.5.1 문화 요소 도입 형식의 변화
4.5.2 문화 요소 제시 시각의 변화
4.5.3 문화 요소가 언어와의 관련 방식의 변화

4.6 현대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의 기능적 특징과 인지적 특징
4.6.1 현대 문화 요소의 기능적 특징과 인지적 특징
4.6.2 전통 문화 요소의 기능적 특징과 인지적 특징

4.7 현대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
4.7.1 현대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
4.7.2 전통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

4.8 고유 문화 요소의 형식적 특징

5. 결론

참고문헌

송명진, 교재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제 및 발전 방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영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23호, 이중언어학회, 1989

吳應輝, 《漢語國際傳播研究理論與方法》,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3

謝曉娟, 論對外文化交流中的中國國家形象,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12

季羨林, 《東方不亮西方亮—在北京外國語大學的演講》, 《中國文化研究》, 1995年第4期

張夢瑤, 對外漢語教材中的文化內容教學研究, 廣西大學碩士論文, 2013

林國立, 對外漢語教學中文化因素的定性、定位與定量問題, 中國對外漢語教學學會第五次學術討論會論文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趙金銘, 對外漢語教學概論, 北京: 商務印書館, 2008
김정숙, 「한국어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장경은,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001
우인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2004
이해영,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외국어교육, 2000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2003
조항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구성 시론. 한국 언어문화학제1-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김수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고찰: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소, 2006
권오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 구출 방안, 언어와 문화, 제 5권 제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刘珣, 对外汉语教学引论 ,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5
張占一, 談漢語個別教學及其教材, 《語言教學與研究》, 第64頁1984年第3期
張英, 對外漢語文化教材研究-兼論對外韓語文化教學等級大綱建設, 漢語學習, 2004年2月
劉和平、許明、張威, 中國文化對外推廣與"三貼近"原則, 中國文化研究, 2010（1）
胡曉明, 《國家形象》, 人民出版社, 2011
謝曉娟, 論對外文化交流中的中國國家形象,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12
趙賢州, 關於文化導入的再思考, 語言教學與研究, 1992（3）
陳光磊, 語言教學中的文化導入, 語言教學與研究, 1992（3）
李瑋, 對外漢語初級精讀教材中的文化因素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呂必松, 關於教學內容與教學方法問題的思考, 《語言教學與研究》, 第4頁1990年第2期
박영순, 문화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2011
辛平, 初級漢語教材中文化匹配度研究——以中、美、日六部教材為例,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1)
呂必松, 對外漢語教學概論講義, 1996

이름: 喬宇博
소속: 揚州大學
주소: 江蘇省揚州市華揚西路196號, 揚州大學揚子津東校區篤行樓N411室
우편번호: 225127
전화: 18652573736
전자우편: 215979562@qq.com

통합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1]

Cultural Differences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erspective of Shared Development

김 정[2]

(동북사범대학교인문학원 한국어학과)

논문요약: 동아시아 각 경제체들은 지연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인문교류를 추진해 왔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 발전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생존여건과 사회제도, 인문환경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가치적 취향과 문화적 차이를 형성하였다. 최근 들어, 지역협력의 추진과 더불어 역 외 요소들의 관여로 동아시아 각 경제체들의 국가별 문화차이가 지역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과 아울러 문화적 공통성, 다양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통합발전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교류 및 융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키워드: 통합발전, 지역협력, 문화적 차이, 문화적 공통성

Abstract: The economies of the East Asian region are geographically similar, closely linked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have frequent cultural exchanges. In the course of long-term histor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different countries, nationalities and ideologies have changed their living conditions, social systems and human environment, forming different values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involvement of extraterritorial factors, the impact of the country-specific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conomies of the East Asian region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s evident.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cultural commonalities and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identity in East Asia. Constructing all-direc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eeking cultural identity and avoiding

[1] 吉林省教育厅十三五科研规划项目，“中国大学韩国语专业翻译教材建设的研究”(2016516)。

[2] 金晶，东北师范大学人文学院韩语系讲师，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在读博士，长春（130117）。

differences and conflicts in the interests of shared development, is the basis for forming benign interaction and promoting cooperative development in East Asia.

Key words: Shared development, Regional cooperation, Cultural differences, Cultural identity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있어서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발전 불균형은 현실적인 문제이자 장기적인 과제기도 하다. 중국과 아세안은 우월한 협력기반와 지역우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연선국들이다.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으로 중국은 주변국들과 호혜호리, 통합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동아시아 지역 다자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연적 포용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증진시켜 정치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와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들 간의 통합발전체계 형성에도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1.통합발전을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현황

2013년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 순방 기간에 아세안 각 국들과 협력하여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추진 의향을 제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손에 손잡고 중국과 아세안 운명 공동체를 형성”할 데 관한 연설을 하였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중국이 대외 협력에 있어서 첫번째 FTA협상이다. CAFTA의 추진은 이미 마감 단계에 들어섰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지역 경제 통합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연합은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기초로 지역 내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개발 도상국들에서 지역 내 균형 통제와 국제 협력, 경제 통합 발전의 성공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최초 설립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 진보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등 5개국이었으며, 그 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설립 초기에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통합 발전의 추진과 함께 점차 정치 경제, 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지역 협력과 상호 지원을 강조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지역 조직으로 거듭났다. 수십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기초로 하는 경제 통합 조직이자 역내외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중요한 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아세안과 중일한 3국(10+3) 정상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면서 아세안 각 회원국들과 동북아 지역 간 다자 협력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2001년, 5차 중국+아세안 (10+1)회의에서 양국은 10년 내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데 관해 합의하였고, 중국은 그 뒤 2003년에 아세안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동남 아시아 우호협력 조약"에 가입한 첫번째 아세안 비회원국이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체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무역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은 대 중국 무역에서 3위를 차지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우월한 협력 기반과 지역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경제도 최근 몇년 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양자 간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한 상호 보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양자 간 무역품 중 95%가 0%관세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양자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 국들에서도 신흥 발전국으로서 경제무역에 더욱 확실한 추진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대일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상과 상부상조의 특성을 보인다. 2016년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일대일로" 연선 무역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중에 아세안 국가들 중 4개국이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중국과 아세안 각 국들 간의 무역액은 "일대일로" 연선 64개국 총 무역액의 47.8%를 차지하기도 한다. "일대일로" 연선 64개국들 중에서 중국 대 아세안 수출이 총 수출액의 4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대 아세안 수입액도 53.6%로 가장 많다. 2017년5월, 중국-아세안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30 전망"을 체결할 데 관해 합의하면서 산업과 자원협력, 인문교류 등의 방식을 통해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약속하였다.[3]

2.통합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과제

다른 한편, 중국과 아세안 각 국들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각 국들 간에 통합 협력은 복잡한 역내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오래된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도 다양한 민족적 모순과 종교적 문제로 인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회원국들 사이의 불안정한 정세와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수준은 지역 협력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부

[3] "中国地方与东盟经贸合作展新姿", 2017-07-27, 中国—东盟自由贸易区, http://www.cafta.org.cn/。

각되어 경제통합과 공통된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장애를 조성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는 아시아 경제 성장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다. 또한 중일한 3국 간 경제협력과 교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에 막대한 내성동력과 경쟁우위를 마련해 주고 있다. 중일한 3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90%에 달하는 경제 총량과 70%에 달하는 무역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3국 인구는 동아시아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중일한 3국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교류에 관해서도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양자 혹은 다자 간 협력 전망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발전 추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일한 3국은 지연, 경제 협력에서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비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최근 들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중일한 3국은 비록 동아시아 지역 내 중요한 경제체이자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이지만 경제 발전 수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중일한 3국의 경제 분업과 무역 구조는 “수직보완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경제의 발전패턴 변화와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수평경쟁성”의 부담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 내에 경제적 차이와 역사적 모순, 문화적 충돌의 존재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내 협력과 발전 기회가 병존하고 있으며 제도적 통합체계의 형성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초점으로 지역 통합을 위한 다자 간 협력 욕구가 더욱 간절해지면서 동아시아 지역과 차지역 협력을 목표로 하는 지역 내 다자 간 협력이 활발한 발전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2003년10월, 중일한 3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파리에서 “중일한 3자 간 협력을 추진할 데 관한 연합성명”을 체결하였으며 FTA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중일한 3자 간 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2015년에는 중국과 한국이 한발 앞서 양자 간 FTA협상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동북아 지역 내 협력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 외교 등 전통 분야에서의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연환경과 인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지역 통합이 핵심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3.동아시아 지역 내 문화적 차이 해소 및 협력 전망

인류사회는 공통된 지역 환경 속에서 유사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면 비슷한 가치관과 이익욕구를 형성하게 된다. 공통된 종교와 언어습관, 그리고 세계를 향한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는 한 민족 또는 사회와 국가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불러 일으킨다. 개인의 문화적 성질은 단체의 문화적 공통성으로 확대될 수 있고 지역이나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는 상호 교류와 협력에 추진력 혹은 방해가 되어 상이한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중국, 일본과 한국은 아세안 각 회원국과 대화 파트너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문화적 공통성을 인문 교류의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적 충돌을 피하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3.1 지역 내 나라 별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경제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일한 3국이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 통합을 가장 먼저 현실화한 아세안이나 나라 별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랜 역사문화 발전 속에서 나라, 민족,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더불어 생존여건과 사회제도, 인문환경의 변화를 거치면서 각 국은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역 협력은 각 경제체들 간의 공통성을 대화 협상의 기반으로 강조함과 아울러 반드시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중일한 3국은 오래 전부터 함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仁”、“义”、“忠”에 대한 치중에 차이를 보인다. [4]또한, 아세안 각국의 종교신앙과 언어문화,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등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소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각 경제체들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생산요소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협동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상호 협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또는 차지역 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통합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3.2집단주의 의식을 강조하고 지역 내 신뢰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여전히 역 내외 복잡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중일한 3국과 아세안 각 국은 공통으로 강한 집단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5] 이는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협력 체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이데올로기적 우위기도 하다. 동아시아 지역 내 각 경제체들은 발전 불균형이 심각하며, 심지어 아세안 각 회원국들 간에도 불균형한 발전 수준으로 인해 모순과 갈등이 병존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체들은 집단주의 뿐만 아니라 강한 자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공통성은 지역 협력의 응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동아시아 지역 “10+3”, “10+1” 협력체제의 신속한 발전과 중일한 FTA협상의 단계적 성과에 따라 역 내 협력 관계도 보다 더 다양해지고 밀접해 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는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 지역 발전 불균형, 민족 모순과 접경지역 갈등 등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와 이에 따른 도전이 병존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통합을 추진하

[4] 표1을 참조.
[5] 표2를 참조.

려면 불안정한 국면을 조성하는 모순과 충돌을 피하고 다양한 대화 통로를 형성하여 각 경제체들 간의 이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3.3폐쇄 혹은 개방적 조직의 특성을 이용하여 산업 발전의 상호 보완성 우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 내 폐쇄적인 경제협력 조직이다. 이런 조직 구성 상 특성은 각 회원국의 뚜렷한 집단주의 의식과 더불어 조직 내 강한 응집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외부적 경쟁과 도전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은 폐쇄적 조직성으로 인해 배타적이고 내향적인 발전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아세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지역 또는 차지역 무역장벽이 형성되면 역 외 경제체들을 향한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감정이 조성될 위험성도 커지고 분업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아세안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6] 사회 또는 조직 내 불평등한 배분관계에 대해 수용 범주가 크며 사회 계급 관념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인 불확실성 회피로 보면 대부분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비상사태에 대한 응변력과 위기 통제력도 향상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은 문화적 차이를 일방적으로 회피만 해서는 안 되며 각 경제체들 간의 국 별 차이를 충분히 이용해 주변 지역이나 인접국과의 차별화된 발전 패턴을 모색하여 지역 내 산업 이전 또는 산업 발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개방적 조직 특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열린 대화의 장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체들의 우월적인 분업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자 또는 다자 간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 발전의 우위를 향상시켜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2017년은 한국 문재인 정부 대 아세안 실용 외교 정책의 첫 해이다. 2017년 11월8일부터 1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했다. 순방 중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 비전으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 중국에 있어서 아세안 역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국이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以点带线、一线带面”의 시범구이자 전략적 핵심지기도 하다. 2018년은 중국이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지 15주년이 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역 내 복잡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비경제적 영향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협

[6] 표2를 참조.

력의 다양성 발전 속에서 양자는 CAFTA의 잠재적 산업 발전 속도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며 FTA협상과 협력의 순조로운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협력에 주력하여 더욱 다양화된 차지역 경제 협력과 초국경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3.4지속적인 협동협력에 기존하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내 경제체들의 공통된 이익 추구는 지역 경제 협력의 전제조건이다. 중일한 3국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서 지리적으로도 접근되어 있어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에서 공통된 이익을 향한 욕구와 잠재적인 발전 공간이 아주 크다.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는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과 아울러 비경제적인 요소, 예컨대 일본과 한국은 강한 도전정신을 갖고 있고 위기에 대해 낙천적이며 미래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3자 간 소통과 교류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재조명될 수 있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을 동반하기도 한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강한 집단주의 의식과 엄격한 자율성, 그리고 제도화, 규범화된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 공통성도 유지하고 있는바 산업 내 분업에 있어서 “수직 보완”적 특성이 “수평 보완”으로 변화되고 첨단 기술 발전 수준의 차이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앞서 제시한 일련의 문화적 공통성은 경제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지속 가능한 발전 추세를 확보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동북아 지역은 지연정치적 욕구와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우회적이며 다양화된 협력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발전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에 일본 아베 총리는 “아베 경제학”을 동남아시아를 향한 외교,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여 아세안을 주요 목표로 경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확대하여 일본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시도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동남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목표로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주력하는 한편, 러시아와 유럽 각 국 정상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겹친 부분이 많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정치, 문화 교류와 협력의 체계화된 구상이자 중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을 포괄한 통합 발전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3.5 서로의 문화적 공통성을 최대화하여 통합 발전 이념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최대 경제체이자 민족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병존하는

나라이다.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은 한족 외에 회족, 조선족, 몰골족, 만족, 묘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민족 다양성 공존은 문화의 다양화된 발전을 추진하고 인접 지역 또는 나라 들과의 상호 융합과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몽골국,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으며 비슷한 인문, 지연, 기후 환경 속에서 상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공통성은 “중러몽 경제회랑” 건설에 도움이 된다. 또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북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공통된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 다양성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초국경 협력의 문화적 공통성도 보유할 수 있다. 경제 글로벌화와 통합발전 이념으로 각 지역, 각 나라들 간의 연결이 더욱 밀접해지고 운명공동체의 특성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초국경 교류와 함께 국제 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여성 가정부의 관련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다문화 가정이 131, 702개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17년3월, 한국 법무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여성부 산하에 다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인권보장, 건강의료, 언어소통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문화 다양성 발전의 사회적 체현이다. 2017년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57개 국에 89곳의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보편화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도 세계 140여 개 나라와 지역에 513곳의 공자학원과 1072곳의 공자학당을 설립하여 민족언어 교육을 보급하고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인문 교류는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문화 통합을 추진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자 지역 내 각 국과 민족들 간의 동질감을 부각시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다. 다양화된 문화 교류는 동아시아 지역에 인문 교류와 소통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은 국 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과 아울러 문화적 공통성도 유지하고 있다. “일대일로”구상을 기반으로 중국과 주변국들 간 통합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동질감을 토대로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다자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의 다양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1]中国地方与东盟经贸合作展新姿[DB] ， 2017-07-27 ， 中国—东盟自由贸易区 ，http://www.cafta.org.cn/

[2]爱德华·泰勒，原始文化[M]，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5年1月

[3]霍夫斯塔德[DB]，https://geert-hofstede.com/cultural-dimensions.html，访问日期：2018-02-26

[4]김동연[韩]，韩国经济副总理，中韩经济会谈上的发言[DB]，韩国“世界日报”，2018-02-01

[5]孔子学院2016年度发展报告[DB]，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http://www.hanban.edu.cn/

[6]尤安山，“一带一路”建设与亚洲区域经济合作新格局[M]，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2017-01，P107-123

부록:

<표1> 中日韩以及东盟各国情况[7]

	宗教	民族	语言	货币	政治体制	国家性质
中国	道教、佛教、基督新教、天主教、伊斯兰教	汉族、满族、蒙古族等56个民族	汉语	人民币	人民代表大会制度	中国特色社会主义国家
日本	神道教、佛教	大和族、琉球族、阿伊努族	日语	日元	议会制、君主立宪制	高度发达的资本主义国家
韩国	基督新教、佛教、天主教	韩民族	韩语	韩元	总统制、共和制	发达的资本主义国家
印度尼西亚	伊斯兰教、基督新教、天主教	爪哇族、巽化族、马都拉族	印度尼西亚语	印尼盾	总统制、共和制	东南亚最大经济体
马来西亚	伊斯兰教、佛教、印度教、基督教	马来人、华人、印度人	马来语	林吉特	议会制、君主立宪制	多民族多元化资本主义国家
菲律宾	天主教、伊斯兰教、基督新教	米沙鄢人、塔加洛人	塔加洛语	菲律宾比索	总统制、共和制	新兴工业国、发展中国家
新加坡	佛教、道教、伊斯兰教、印度教、基督教	华人、马来人、印度人	英语、马来语、华语	新加坡元	议会制、共和制	新兴工业国
泰国	上座部佛教	泰族	泰语	泰铢	议会制、君主立宪制	新兴工业国、世界新兴市场
文莱	伊斯兰教、佛教、基督教、道教	马来人、华人	马来语	文莱元	君主专制	石油天然气生产国
越南	上座部佛教、天主教、和好教、高台教	京族	越南语	越南盾	人民代表大会制度	不发达社会主义国家
老挝	上座部佛教	老龙族、老听族、老松族	老挝语	基普	人民代表大会制度	不发达社会主义国家

[7] 根据各国情况自行整理。

缅甸	上座部佛教	缅族	缅甸语	缅元	总统制、共和制	不发达国家
柬埔寨	上座部佛教、伊斯兰教	高棉族	柬埔寨语	瑞尔	议会制、君主立宪制	不发达国家

<표2> 东亚区域各国文化维度分值对比[8]

	权力距离	个人主义/集体主义	男性化/女性化	不确定性规避	长期取向/短期取向	放纵/约束
中国	80	20	66	30	87	24
日本	54	46	95	92	88	42
韩国	60	18	39	85	100	29
印尼	78	14	46	48	62	38
马来西亚	104	26	50	36	41	57
菲律宾	94	32	64	44	27	42
新加坡	74	20	48	8	72	46
泰国	64	20	34	64	32	45
越南	70	20	40	30	57	35

注：霍夫期塔德文化维度基础数据范围不包括文莱、老挝、缅甸、柬埔寨。

인적사항:

이름: 김정

소속: 동북사범대학교인문학원 한국어 학과

주소: 중국 길림성 장춘시 정월경제개발구 박석로 1488호

우편번호: 130117

연락처: 15043028931

메일주소: 40701089@qq.com

[8] 数据来源：GEERT HOFSTEDE, https://geert-hofstede.com/, 访问日期2018-02-26

현대시를 활용한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의 실제

김소월의「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정순희

요성대학교(聊城大学)

1. 들어가는 말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문학 작품은 언어활동의 가치 있는 자료로 다양한 언어활동의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상언어가 통용되는 사회의 문화도 잘 보여준다.

윤여탁(2003:135)은 문학작품은 언어활동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이자 살아 있는 언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곧 언어교육 자체라고 했다. 신주철(2003:112-114)은 시 교육은 정서적 언어구사, 지적인 사유훈련, 언어의 경제적 인식 등 여러 방면에서 언어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는 한 민족의 고유의 정서, 전통, 가치관, 한국의 역사·사회적 배경이 배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문화적 유산이다. 시의 리듬감은 문장 단위의 암기를 용이하게 하고 발음을 향상시키며, 압축되고 절제된 시어는 학습자의 흥미를 표현하려는 의욕을 자극함으로써 말하기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시는 도치, 생략, 비유 등을 통해 사유의 과정을 활성화하고 정서를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시의 애매성은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길러주며 학습자 사이의 상호적 언어소통을 촉진한다. 시는 가장 정제되고 함축된 언어로 구현된 산물이며, 작품의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텍스트를 활용한 문학·문화교육에 있어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시는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 갖고 있는 문학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개성적 사용, 생략과 도치의 빈번함, 다양한 의미로의 해석 등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어 학습 자료로써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현대시가 한국어교육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극복하고 중국인 한국어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기반한 언어와 문화 교육의 통합적인 교육 내용과 수업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와 문화의 습득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2. 현대시의 교육 내용

본 연구는 현대시의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언어적 측면에는 어휘, 수사법, 낭송, 쓰기 등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문화적 측면에는 문단상황, 시인의 생애, 시의 특징, 한국적 정서 등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표 1>「진달래꽃」 원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진달래꽃(1925)」 전문[1]

2.1. 언어 교육 내용

2.1.1. 어휘 교육

<표 2>「진달래꽃」의 어휘 해석

난해한어	제시	역겨워, 고이, 아름, 즈려밟고.	
	해석	역겨워	품사 분류: 형용사
			결합 형태: 기본형 '역겹다'의 어간+'-아/어'의 결합형으로, 'ㅂ'의 불규칙활용에 의해 '역겹다→역겹어→역겨워'로 변화된 형태.
			활용정보: 역겨워, 역겨우니, 역겨운 등.

[1]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1922년에 발표되었고 개작을 걸쳐 1925년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다.

휘			사전적 의미[2]: 역정이 나거나 속에 거슬리게 싫다.
			예문: 그의 위선적인 웃음소리는 듣기 역겨울 정도였다.
		고이	품사 분류: 부사
			사전적 의미: ①겉모양 따위가 보기에 산뜻하고 아름답게 ②정성을 다하여 ③편안하고 순탄하게 ④온전하게 고스란히 ⑤성질이나 태도가 순순하게
			예문: 수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고이 간직했다.
		아름	품사 분류: 의존명사
			결합 형태: 한 아름
			사전적 의미: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둘레의 길이.
			예문: 누나는 들에 핀 코스모스를 한 아름 안고 들어왔다.
		즈려 밟고	품사 분류: 동사
			결합 형태: ‘지르밟다’의 시적 창조.
			활용 정보: 즈려 밟으니, 즈려 밟아서, 즈려 밟는 등
			사전적 의미: 위에서 내리 눌러 밟다.
			예문: 어머니의 근심을 뒤로 한 채 낙엽을 즈려 밟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 어휘에 대한 사전적 의미 해석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에 준한 것이다.

2.1.2. 수사법 교육

「진달래꽃」은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진달래꽃」에는 도치법, 반복법,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아니'는 부사로서 용언 앞에 쓰여 용언을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진달래꽃」에서는 '눈물'이라는 체언 앞에 쓰여 도치법을 실현했다. 1 연과 4 연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라는 구절로 반복법을 보여 주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대단히 슬픈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아내겠다는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1.3. 낭송 교육

발음교육의 일환으로 시낭송과 외우기를 적용할 수 있다. 시에 내재되어 있는 운율 교육은 낭송과 외우기를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김소월의 시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움을 잘 살린 민요적 율격에 바탕을 둔다.

김소월의 시 중에서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달래꽃」이다. 「진달래꽃」은 전반적으로 7·5 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다. 4 개연 모두가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3 연을 제외하고는 각 연의 마지막 음절이 '-우리다'로 끝나는 소리 효과를 잘 살린 시이다. 반복적인 낭송을 통해 '님'의 떠남을 마음 아파하는 감정을 살려 외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달래꽃」에 대한 읽기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2.1.4. 쓰기 교육

「진달래꽃」은 시가 길지 않고 운율이 뛰어난 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진달래꽃」을 모방하여 시를 지어보게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2. 문화 교육 내용

2.2.1. 시대 배경

1920 년대 초기 시단은 감상적 낭만주의가 만연했다. 낭만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등 서구의 문예사조가 한번에 유입되었지만, 당시 상대적으로 젊었던 시인들은 그런 사조를 정확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본강점이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절망, 좌절, 또는 젊음이 갖는 낭만성으로 인해 감성적 낭만주의에 빠져들었고 시 또한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애국계몽기였던 1910 년대를 걸쳐 시문학은 가사·시조·사설시조·국문풍월·한시 등의 전통적인 시가 형태와 창가·신체시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1920 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한국의 자유시는 시작되었다. 이런 속에서 김소월은 민요를 중시했고 김억의 영향을 받아 민요적인 성격이 강한 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

2.2.2. 작가 소개

김소월(1902-1934)은 평안북도 출신으로, 「진달래꽃(1922)」,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1923)」, 「산유화(1924)」 등 주요작품이 있다. 저서로 1925 년에 출간한 『진달래꽃』 외에 사후에 김억이 엮은 『소월시초(1939)』 등이 있다.

1920 년대 시에서 ‘님’을 가장 탁월하게 노래한 시인 중 한 명이 바로 김소월이다. 김소월은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님’이라는 주제를 탑재하여 독자적(獨自的)인 시세계를 이루었다. 「진달래꽃」은 1920 년대 한국 시문학사에서 본격적인 근대적 변용이 이루어진 시기에 창작된 김소월의 대표적 작품이다. 김소월은 특히 전통적인 가락으로 정서를 노래했는데 그의 작품은 3·3 조, 3·4 조, 4·4 조, 3·3·4 조, 7·5 조 등의 다양한 음수율을 보인다.

2.2.3. 김소월 시의 특징

김소월의 시는 민족정서인 사랑, 이별, 슬픔, 그리움 등을 다루고 있다. 김소월의 시를 특징짓는 제일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떠남’과 ‘만남’이다. ‘떠남’의 유형은 시적 화자가 상대를 보내는 경우와 시적 화자가 상대로부터 떠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진달래꽃」은 전자에 속한다.

「진달래꽃」은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사랑의 상징적 징표이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은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다. 이 때 진달래꽃의 이미지는 ‘님’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님’이 진달래꽃을 밟으면서 떠나겠다는 마음을 되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또한 진달래꽃은 자연적 현상인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떠나는 ‘님’을 잡지도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님’의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는 ‘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별을 받아들여 ‘님’의 가는 길에 축복을 담아 꽃을 뿌릴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비참한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2.2.4. 한국적 정서

한은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이다. 김소월의 시에서는 이별로 인한 ‘님’의 부재’, ‘조국(고향)상실의 인식’ 등 한의 정서가 있다. 「진달래꽃」은 사랑하는 ‘님’이 떠남으로 인해 겪은 시적 화자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한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진달래꽃」에서 ‘님’의 실체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라는 표현을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릴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적 화자는 ‘님’과의 이별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에서 ‘님’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시하고 이별을 예견하며 원망과 자책을 동반한 이별과 슬픔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 정서를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다.

「진달래꽃」은 ‘님’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으로 ‘님’을 향한 사모의 정을 이별의 순간까지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님’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원망은 사랑하는 ‘님’을 위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길’은 처음에는 슬픔을 주는 길이 되지만, ‘님’이 웃으면서 돌아오는 길이 될 수도 있기에 희망을 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진달래꽃」은 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정서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3. 수업의 실제

수업 모형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3.1. 언어 교육 수업 모형

<표 3 >「진달래꽃」 언어 교육 수업 모형

<table>
<tr><td>주제</td><td>김소월의「진달래꽃」</td><td>학습대상</td><td>고급 학습자</td><td>수업 시간</td><td colspan="2">50 분</td></tr>
<tr><td>학습
목표</td><td>언어교육
(1 교시)</td><td colspan="5">1. 어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사법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학한 발음으로 시낭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 풀어쓰기와 모방하여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수업
단계</td><td>수업 절차</td><td colspan="3">수업 내용</td><td>교수내용, 방법</td><td>준비물</td></tr>
<tr><td>도입
5 분</td><td>흥미, 동기
유발</td><td colspan="3">1. 교사와 학습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눈다.
2. 진달래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3.「진달래꽃」을 들려주어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수업 내용을 제시한다.</td><td></td><td>음악</td></tr>
<tr><td rowspan="3">제시
및
연습
25 분</td><td>어휘
해석</td><td colspan="3">교사가「진달래꽃」을 범독한 후, 난해한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난해한 어휘를 이용하여 예문을 만들도록 한다.</td><td>어휘해석,
직접식</td><td>PPT</td></tr>
<tr><td>수사법
찾기</td><td colspan="3">학습자들에게「진달래꽃」에서 나타난 수사법을 찾아보게 하고 그 수사법 관련 연습을 한다.</td><td>수사법설명
직접식</td><td>PPT</td></tr>
<tr><td>시낭송</td><td colspan="3">「진달래꽃」의 음성파일을 들려주고, 학습자들에게 발음과 정서에 유념하면서 낭송하도록 한다.</td><td>청화식</td><td>음성
파일</td></tr>
</table>

활동 15 분	풀어 쓰기	1. 짝활동을 통해 「진달래꽃」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서로 교환한다. 2. 교사와 학습자들은 토의를 걸쳐 「진달래꽃」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다. 3. 학습자들로 하여금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글로 정리하게 한다.	토론식	
마무리 5 분	수업 내용 정리 과제 제시	1.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2. 학습자의 질의에 응답한다. 3. 과제를 제시한다.		문제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도입단계에서 시작된다. 도입단계는 할당되는 시간이 적고 내용이 많지 않지만, 전반 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입단계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가사로 한 음악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어 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더 해준다.

제시 및 연습 단계는 어휘 해석, 수사법 설명, 시낭송 등 세 부분으로 나눈다.

제시 단계에서 먼저 교사의 낭독을 통해 난해한 어휘를 추출하여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학습자들에게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 묻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습 단계에서는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다음 교사는 학습자들과 함께 「진달래꽃」에 적용된 수사법을 찾아 설명하고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연습으로 학습자들에게 그 수사법을 활용하여 예문을 만들어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진달래꽃」의 낭송 음성파일을 학습자들에게 들려준다. 학생들이 음성파일의 정서에 유념하면서 감정을 넣어 단순한 낭독이 아닌 낭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활동 단계에서는 「진달래꽃」에 대한 토의를 한다.

제시와 연습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은 「진달래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토의의 일환으로 먼저 짝활동을 한다. 짝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진달래꽃」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시 풀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과 함께 「진달래꽃」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을 유추,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게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이 있는 학습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응답한다.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3.2. 문화 교육 수업 모형

<표 4>「진달래꽃」 문화 교육 수업 모형

<table>
<tr><td>주제</td><td>김소월의「진달래꽃」</td><td>학습 대상</td><td>고급 학습자</td><td>수업 시간</td><td colspan="2">50 분</td></tr>
<tr><td>학습
목표</td><td>문화교육
(2 교시)</td><td colspan="5">1. 시대와 문단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시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3.「진달래꽃」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4.「진달래꽃」의 한국적인 정서를 알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수업
단계</td><td>수업 절차</td><td colspan="3">수업 내용</td><td>교수
방법</td><td>준비물</td></tr>
<tr><td>도입
5 분</td><td>흥미, 동기 유발</td><td colspan="3">1.「진달래꽃」의 창작 시기에 대해 물어본다.
2.「진달래꽃」에 반영된 한국적인 정서에 대해 물어본다.
3. 수업 내용을 제시한다.</td><td></td><td></td></tr>
<tr><td rowspan="2">제시
20 분</td><td>시대
문단 상황</td><td colspan="3">「진달래꽃」의 작품 생산과 연관되는 시대와 문단 상황을 소개한다.</td><td rowspan="2">직접식</td><td rowspan="2">그림,
PPT</td></tr>
<tr><td>시인 소개</td><td colspan="3">김소월의 주요작품과 시집을 소개한다.</td></tr>
<tr><td rowspan="2">활동
20 분</td><td>미적 특징 찾기</td><td colspan="3">「진달래꽃」의 특징에 대해 팀 활동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몇몇 학습자의 발표를 들어보고 교사는「진달래꽃」의 특징을 종합해준다.</td><td rowspan="2">토론식</td><td rowspan="2">조사자료</td></tr>
<tr><td>정서 이해하기</td><td colspan="3">한국적 정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한다. 학습자의 발표를 통해「진달래꽃」에 나타나는 한국적인 정서를 유추해낸다.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한다.</td></tr>
<tr><td>마무리
5분</td><td>수업 내용 정리
과제 제시</td><td colspan="3">1.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2. 학습자의 질의에 응답한다.
3. 과제를 제시한다.</td><td></td><td>문제지</td></tr>
</table>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과 달리 수업 단계에서 연습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 교육은 도입, 제시, 활동, 마무리 네 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도입단계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화 교육은 교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은 문화 수업에 따분함을 느껴 학습 효과가 높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최대한 불러 일으켜야 한다.

제시 단계에서는 먼저 「진달래꽃」이 창작된 시기의 시대와 문단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학습자들의 전공이 한국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너무 깊이 소개하면 학습자들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지루함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어서 김소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시인에 대한 소개는 출생 연도, 주요 작품, 저서 등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교수 내용이 많고 교사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워포인트는 수업 내용 관련 이미지 등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분함을 피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활동 단계는 수업을 제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학습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활동 단계를 잘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여주고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이다.

활동 단계에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직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수업 전에 미리 원형이나 네모 모양의 자리배치를 할 수 있다. 충분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5 명 내외의 학습자들로 한 팀을 구성한다.

활동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사는 시에 내포되어 있는 한국 시사에서 주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과 견해가 학습자들의 토의를 걸쳐 충분히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이번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응답한다.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4. 나가는 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도 배우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활용한 언어와 문화 습득은 언어 능력, 문화 능력, 문학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

는 한국어의 미와 한국적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두 개 측면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경우, 언어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에 도움을 주고 수사법의 활용도를 높여 주며 시 낭송과 시 외우기를 통해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법을 익히게 한다. 또한 쓰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 문화적 측면에서 시인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에 반영된 한국의 미적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시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 등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추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 내용과 수업 모형을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시키는 가운데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혜란(2011), 「김소월 시에 나타난 한의 정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소월(2011), 『김소월 시집』, 범우사

김승환(2002),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문학교육 방법론」, 『제3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김진호(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시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김소월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주철(2003), 「한국 시교육의 실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고급과정 경우」,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순희(2015), 「현대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인적 사항

이름: 정순희(郑顺姬)

소속: 요성대학교 (聊城大学)

우편번호: 252000

전화: 136-2635-0307

전파우편: 21057390@qq.com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이해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목 차

1. 문제제기
2.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 개념
3.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이해 양상
4.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이해 교육 방안
5. 결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이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교육을 받아온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국의 고시사(古詩詞) 교육을 통하여 고전시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이미 상당한 문학 경험[1]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고전시가 이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교사 전달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텍스트 의미는 곧 작가의 의도이고,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교

[1] 중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어문(語文)' 수업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문학 텍스트(古詩詞가 총 232 수 수록됨)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고시사 교육, 고전 문화 전승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61-166 쪽 부록 참조.)

육의 주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전시가의 경우 작가가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란 그 누구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으며 고전시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독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면서 텍스트의 빈틈을 메우는 활동이다. 따라서 그동안 배제되고 간과되어온 학습자를 문학의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고전시가의 소통 구조 중 시기를 막론하고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 가능성을 지닌 통로는 고전시가와 독자의 관계이다. 이 국면의 유동성은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비롯한다. 독자 개개인이 저마다 지닌 경험과 세계관의 차이 혹은 독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의 차이가 고전시가와 독자가 만나는 국면을 개별화하며 보편적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동성을 만들어낸다.[2]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시가와 독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중국인 학습자가 스스로 상호텍스트적으로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 개념

2.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과 그 인식의 차원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해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주의가 소개된 이후이다. 바흐친은 '다성적 텍스트'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언어는 상호텍스트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즉, 모든 언어는 존재 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핵심은 어떤 말도 다른 말이나 현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간단한 말이라도 다른 말이나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완전하게 독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발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백이 아니라 무수한 타인의 목소리가 참여하는 대화 같은 속성을 띤다는 것이다.[4] 바흐친은 이러한 현실과 말의 대화성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설의 다성성(多聲性)에 대해 깊이 천착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다성적 문학이 존재하며, 다성성을 가장 효과적인 예술적 원칙으로 삼은 작가로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지목하였다. 이러한 다성성의 원칙이 작용되는 소설에서 작중 인물은 단순히 작가에 의해 조종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어디

[2] 조희정, 「고전시가 비평 교육 연구: 탈연대기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2013, 128 쪽.

[3] Mikhail Bakhtin, *Voprosy literatury I estetiki*,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106-107쪽.

[4] 미하일 바흐친, 김동욱 역,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139 쪽.

까지나 작가와 나란히 공존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5] 즉, 다성적 문학의 경우 작가는 더 이상 태양처럼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러 행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작중 인물들과 함께 공존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과 함께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흐친은 최초로 '텍스트 간의 연관성과 텍스트 안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그의 대화성과 다성성은 당시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후에 줄리아 크레스테바에 의해 '상호텍스트성'으로 명명되었다.

크리스테바는 바흐친의 이론과 통찰에 영향을 받아 최초로 문학의 구조를 '존재'가 아니라 '형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언술 행위의 '장'과 지시된 '대상'은 결코 유일하고 완전하며, 그것 자체들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적이고 파열되어, 탁상 모형이 될 수 있는 것"[6]이라고 지적하며 텍스트의 개방성에 착목하였다. 텍스트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한 저자에게서가 아니라 상호텍스트적 관계, 즉 텍스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발굴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를 인용의 모자이크로 보았으며,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미 무수한 텍스트[목소리]가 참여한 인용의 모자이크로서 그 자체로 상호텍스트적이라고 보았다. 그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도 이미 무수한 텍스트를 접해 본 경험을 가진 상호텍스트적 유기체로서, 본인이 의식하거나 못하거나 이미 자신이 접한 무수한 텍스트들을 배경 삼아 텍스트 해석에 참여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기표, 페노 텍스트(현상 텍스트, pheno-text)와 제노 텍스트(생성 텍스트, geno-text)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텍스트의 차원을 표면과 심층으로 분리하였다. 그는 생성 텍스트를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위하여 외적으로 드러난 언어 구조인 현상 텍스트의 해석에 참여하는 심층의 텍스트로 정의하였다.[7] 생성 텍스트는 현상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독자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구성 언어이며, 자신의 상호텍스트적 맥락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은 자신의 생성 텍스트를 타인과 달리 각각 고유의 형태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구조주의적인 관심 속에서 정신분석학에 기대어 현상 텍스트와 생성 텍스트의 구분을 짓고 그 층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는 언어활동의 차원에서 규명을 시도한 것으로써 본격적인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의 활용 양상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

[5] 미하일 바흐친, 위의 책, 163 쪽.
[6]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66 쪽.
[7]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330-332 쪽.

2.2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분석은 '텍스트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저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텍스트를 열린 상태로 간주하여 독자의 역할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넓은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취하는 관점들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바흐친과 크리스테바의 맥을 잇는다. 그러나 그가 선행의 논의들과 달리 특별히 주목한 지점은 텍스트 수용 측면에서의 '독자의 탄생'이었다. "텍스트는 하나의 유일한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느 것도 근원적이지 않은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서로 결합하며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며, 텍스트는 수많은 문화의 온상에서 온 인용들의 짜임"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단정하였다. 바르트에게 있어 독자는 텍스트의 주인이며, 저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할 자격이 없다. 독자는 그의 상호텍스트로 인용들의 짜임을 모아서 분석하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는 저자의 의미를 해독(dechiffrer)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 나가야(demeler)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8] 그는 문학 작품은 작가에 의해 써지고 독자에 읽히는 것이 아닌 독자에 의해 새롭게 써질 수 있는 텍스트(le scriptible)라는 점을 밝혔다.[9] 즉,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단순히 해독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아닌 텍스트를 재생하게 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존재로 상정하였다.

이탈리아의 고전학 교수 지안 콩테(Gian Biagio Conte)는 독자가 다중 텍스트를 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학적 전통, 시적 언어 내지 시적 기억을 축조하여 문학적 가독력인 상호텍스트성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전통, 시적 언어 내지 시적 기억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로 삼아 문학 언어를 해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0] 그는 독자의 강력한 권한을 중요시하는 바르트의 맥을 이어 독자가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주체임을 다시금 천명(闡明)하였다.

독일의 수잔 홀튀스(Susanne Holthuis)도 본격적으로 텍스트의 내부가 아닌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상호텍스트성은 수용의 연속성상에서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지 오로지 작품 내적 방식에 따르는 구상에서처럼 텍스트 자체 속에서 그리고 그것 자체를 통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11]라고 하며 상호텍스트성을 지속적인 수용과정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실현 양상에 있어 어윈(Weiser Irwin)[12]은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상호텍스트 결합 양상에 따른 읽기의 유형을 (1) intratextuality: 텍스트 내적인 관계로

---

[8]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7 쪽.

[9] Raland Barthes, *S/Z,* 김웅권 역, 『S/Z』, 동문선, 2006, 12 쪽.

[10] G. Conte, *The rhetoric of imitation: genre and poetic memory in Virgil and other Lation poets.* Cornel University Press, 1986, p.29.

[11] S. Holthuis, *Intertextualitat, Aspekte einer rezeptionasorientierten Kozeption*, Tubigen, 1993, p.31.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 39 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37 쪽 재인용.)

[12] W. Irwin, "(Inter)textuality, Semantics, and Coherence", ERIC ED 293 132, 1988, P.4-10.

접근, (2) extratextuality: 텍스트 외적인 관계로 접근, (3) intertextuality: 텍스트 간 관계로 접근 등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공통적으로 독자가 상호텍스트적 능력을 갖는 주체이며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이 뒷받침하듯이 상호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이를 문학 작품 읽기에 활용하는 것은 텍스트 해석을 풍부하게 하고 독자 스스로 문학 작품의 의미를 만들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이전의 문학 학습 경험을 활성화하고 진전된 새로운 문학 경험을 획득하는 데 유의미하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문학의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켜 그간의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속에서 쌓아 온 지평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텍스트들과 자신이 처한 현재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자나 텍스트 자체의 상호텍스트성의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독자의 차원에서의 상호텍스트성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이해 양상

고전시가를 둘러싸고 있는 문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선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하여 고전시가의 “독창성을 다른 식으로 보게 해주는 텍스트들”은 무엇이든 비교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13] 이때 비교 대상 작품은 고전시가와 다른 시기, 다른 지역, 다른 갈래의 문학 작품일 수도 있지만, 문학의 틀을 넘어선 영화, 드라마일 수도 있으며, 미술, 음악, 스포츠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열린 상태로 간주하여 독자의 역할을 확장하는 넓은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취하는 관점과 그 궤를 같이 하고자 한다. 본고의 예비 실험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 실험	조사 대상	제시된 텍스트	실험 방법
2018년	S대학교 대학원 중국인 학습자	A: 향가 <헌화가> 4부 B: 고려가요 <쌍화점> 4부	어휘의 뜻풀이가 부가된 고어 및 현대어가 제시된 텍스트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함/심층 면담 (240분)

[13] 이러한 방법론을 조희정(2013)은 “탈연대기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하였는데, 역사에서 탈연대기란 “현재 시간의 정신적 범주들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탈연대기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은 학습자들에게 더 익숙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발판으로 삼아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피에르 바야르, 백선희 옮김, 『예상 표절』, 여름언덕, 2010, 143-164 쪽.)

6월	8명	C: 시조 <어부사시사> 4부 D: 가사 <사미인곡> 4부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생산된 반응 양상을 어윈(Weiser Irwin)의 세 가지 읽기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intratextuality: 텍스트 내적인 관계로 접근

텍스트 내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텍스트의 이해가 텍스트의 내적인 단서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참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doctor'라는 단어를 두고 글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정보 ('adult', 'study medicine', 'receive patients', 'diagnose and cure disease', 'hospital') 등을 보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중국인 학습자가 가사 작품인 <사미인곡>과 고려가요 작품인 <쌍화점>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처음 <사미인곡> 작품을 접했을 때 남녀 간의 이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앞뒤 글을 자세히 읽다 보니 '광한전(廣寒殿)', '하계(下界)' 등 단어를 통해 정철이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현재 유배된 상황이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자신은 여전히 임금을 그리워하고 충성하고 있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D-3)
- <쌍화점>에서 시적 화자는 모두 네 사람한테 억울하게 손목을 잡혔다. 각각 회회(回回)아비, 삼장사 사주(三藏寺社主), 우물의 용(龍), 술집아비인데 처음에는 '회회'의 뜻을 잘 몰랐다. 앞뒤 글을 자세히 보니 여자가 만두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었는데 회회아비한테 손목을 잡혔다는 뜻인데 '회회'는 중국에서 아랍의 상인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다. 그렇다면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한테 손목을 잡혔다는 것인가? (B-2)

D-3 학습자는 <사미인곡>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남녀 이별시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앞뒤 글의 내용 및 단어를 참조해보니 작가인 정철이 유배된 상황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학습자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수성[14]이라 칭할 수 있다.

B-2 학습자는 <쌍화점>의 '회회(回回)아비'의 뜻을 처음 접했을 때는 몰랐지만 앞뒤 글의 정보 및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해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인 회회아비한테 손목을

[14] 그 이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미인'이라는 단어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쓴 <봉구황(鳳求凰)> 작품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네. 하루만 만나지 못해도, 미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네. (有一美人兮, 見之不忘 / 一日不見兮, 思之如狂)"에서의 '미인'은 사마상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탁문군(卓文君)을 의미한다고 배웠고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작품인 "초목이 시들어 떨어질 것 생각하니 아름다운 분 늙어가는 것이 염려스럽구나.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에서는 '미인'이 초왕(楚王) 또는 자신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잡혔다고 해석하였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가는 축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어, 시적 이미지, 시적 구성 등에 대한 단서로부터 다각적으로 읽어야 표면적인 이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 두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제시된 내적 정보에 근거하여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반응 양상이다. 하지만 텍스트 내적 맥락에 대한 활성화가 부족하여 오독하는 반응 텍스트들도 존재한다.

3.2 extratextuality: 텍스트 외적인 관계로 접근

텍스트 외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글 외의 정보이며, 흔히 말하는 '맥락'에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의 관계를 통한 접근이며, 여기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고려가요 작품인 <쌍화점>을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쌍화점>의 여성화자가 평소에 음탕한 본성을 잘 감추면서 정조를 잘 지키는 척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쌍화점의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남자와 거리를 두어 부덕을 엄수하는 여자인 체하며 몸을 아끼는 좋은 여자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한편, 본성을 노출하여 남몰래 다른 남자와 사통하곤 했다. <쌍화점>을 이런 시각으로 해독해 보니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한 작가의 말이 떠올랐다. '생명이라는 화려한 가운에 수많은 벌레가 착생한다'라는 이 말은 <쌍화점>의 여자와 딱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쌍화점>의 여자처럼 인성의 약점을 가지는 법이다. 질투, 탐욕, 사념(邪念) 등은 기생하는 벌레와 같이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일부로서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결국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인성의 암흑면을 잘 감추고 완벽한 사람인 척하는 것일 뿐이다. (B-5)

B-5 학습자는 <쌍화점>의 여성 화자의 인격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유언비어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은 원인은 자유분방한 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시적 화자가 곧은 성품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스캔들이 나더라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생명이라는 화려한 가운에 수많은 벌레가 착생한다'는 한 작가의 말을 환기하면서 질투, 탐욕, 사념(邪念) 등은 기생하는 벌레와 같이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일부로서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인성의 암흑면을 잘 감추고 완벽한 사람인 척하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와 고전시가 텍스트의 '맥락'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3.3 intertextuality: 텍스트 간 관계로 접근

텍스트 간 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미 읽은 텍스트를 참조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양상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향가 작품인 <헌화가>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헌화가> 작품을 읽고 나서야 '진달래꽃'이 귀한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길가에 흔히 자라는 꽃이라고만 생각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작품에서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이 구절은 <헌화가>를 읽기 전에는 '진달래꽃'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헌화가> 작품에서 노인은 수로 부인한테 말한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그 꽃(진달래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노인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그 험한 바위틈에 자란 진달래꽃을 따주겠다고 되묻는다. <진달래꽃> 작품의 시적 화자도 험한 바위틈에 피어난 진달래꽃을 가시는 임이 "사뿐히 즈려밟을" 정도로 채취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진달래꽃을 따게 되었을까? '진달래꽃'이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상징한다면, <헌화가>의 노인과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는 '진달래꽃'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의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A-1)

A-1 학습자는 향가 작품인 <헌화가>와 현대시 작품인 <진달래꽃>의 '진달래꽃'이라는 공통 요소를 포착하여 두 작품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 학습자는 <헌화가> 작품을 통해 '진달래꽃'의 심층적인 의미를 터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달래꽃'이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와 <헌화가>의 노인은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의지 표현 즉 '진달래꽃'과 대립된 상황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두 작품의 공통 자연물인 '진달래꽃'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다음은 학습자가 시조 작품인 <어부사시사>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춘사를 읽은 후에 그런 유유자적한 생활을 아주 동경하는 한편, 현대 사람들의 빠른 생활 패턴을 다시 성찰하고 재조명하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훈계하는 명구를 많이 공부해 왔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내일가(明日歌)>이다. '내일 다시 내일, 내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날마다 내일을 기다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리'(明日複明日, 明日何其多. 我生待明日, 萬事成蹉跎)라는 인구에 회자되는 이 시구는 바로 사람들에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한다. <어부사시사>의 춘사를 읽은 후 시간에 쫓기는 긴박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내일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몃츳 새리'와 같이 오늘 흥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을 누릴 수 없다. 바쁜 상태에 빠

> 져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모른다면 생명이 없는 로봇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활을 감상하고 미를 터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이상을 성취할지라도 밭갈이만 할 줄 아는 황소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윤선도의 이런 유유자적하고도 초연한 정신적 경지는 바로 현대 사람들이 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5)

C-5 학습자는 <어부사시사> 작품을 읽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동경하는 한편, 현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다시 성찰하고 재조명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훈계하는 명구인 <명일가(明日歌)>를 환기하면서 현대 사람들의 이러한 생활방식이 오히려 일종의 허송세월이라고 제시하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읽고 자기 자신도 시간에 쫓기는 긴박감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하였다. 생활을 감상하고 미를 터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생의 이상(理想)을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밭갈이만 할 줄 아는 황소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어부사시사> 작품을 읽으면서 '시간'에 주목하여 <어부사시사>와는 반대 성격인 고시사 <명일가>를 환기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 학습자의 반응 양상은 다른 주제, 상반된 정서인 작품도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향가 작품인 <헌화가>를 읽고 작성한 반응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 <헌화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중국의 시가 작품들 가운데 미를 추구하는 이야기에 대한 작품도 적지 않다. 『시경』에 실린 <관조>와 <겸가>도 비슷하게 남자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예쁜 여자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양국의 비슷한 시가 작품을 대조해 보면 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이며 본성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장품과 패션에 대한 열광 그리고 아이돌이나 스타에 대한 사랑 등은 현대 사람들이 미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시가를 통해 사물이나 인간을 향한 사람들의 미적 욕구에 대해 잘 터득하면 지금 대중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A-8)

A-8 학습자는 <헌화가> 작품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에 포커스를 두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시가 작품에서 미에 대한 추구를 언급한 작품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면서 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이며 본성이기도 하다고 제시하였다. 고전시가 작품을 통해 사물이나 인간을 향한 사람들의 미적 욕구를 이해하면 현대 사회에서 패션, 스타 등을 추구하는 심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의 학습자들은 고전시가 작품을 자신의 세계의 경험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여 그에 따른 자신만의 전유가 일어났다. 즉 고전시가 작품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확장하는

데 활용하였던 ‘공통 요소’를 나의 삶과 경험, 즉 자아 세계에서도 펼쳐보아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로써 학습자는 고전시가에 대한 문식성은 물론 현대문화에 대한 문식성조차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반응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전에 배운 중국 고시사 작품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전시가 학습에도 공헌하여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분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이해 미흡’, ‘참여 의식 부족으로 인한 텍스트 전유 실패’ 등 일정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4.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고전시가 이해 교육 방안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풍부한 모국어 문학 경험을 가진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티프를 중심으로 상호텍스트를 발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독자에 따라, 또는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기하는 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기억의 능동적 투사를 통해 발산적인 상호연관성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교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소환하여 조응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까지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고전시가 텍스트를 나의 상황이나 삶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작품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게 하는 것이다.

4.1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학 작품의 환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학 작품의 환기는 학습자가 자국어 문학 경험을 소환하여 풍부한 시각으로 한국 고전시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중국 문학 학습 경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모티프란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로서의 사건이나 공식을 지칭한다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은 풍부하지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문학 작품을 환기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모티프는 공통 요소가 되어 문학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로서 성립하게 하는데, 이러한 상호텍스트 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모티프들이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게 된다. 학습자는 모티프 중심의 상호텍스트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태도, 또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 모티프가 작품 내에서 기능하고 있는 양상을 대조와 분석을 통해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학 작품의 환기는 한국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고시사 작품을 통해 고전시가를 더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학 작품의 환기를 교육의 방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4.2 개인 경험의 소환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연합

개인 경험의 소환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연합은 학습자의 개인 경험의 소환을 통하여 한국 고전시가에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이해의 활성화를 위해 설정한 것이다. 텍스트에 공감되는 부분들은 각자 다르지만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개인적 경험의 소환과 조응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의 개인 경험과의 연합은 고전시가 텍스트와 관련된 생각, 사건, 장소, 사람을 독자의 경험과 관련 지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 융합 과정"이라는 가다머의 말처럼 "상호 융합을 통해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부단히 합쳐져서 새로운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15] 이는 한국 고전시가의 감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삶과 융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고전시가가 자신의 삶에까지 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전(正典)'이라고 부르는 텍스트들이 오랜 기간을 지속해 온 이유 중의 하나는 분명, 우리 자신의 상황과 일치될 수 있는 반성을 우리 속에서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학습자가 처한 상황 혹은 현대의 텍스트와 연결될 수 있는 반성을 유발시킬 때야말로 고전시가는 실로 고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 경험의 소환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연합을 교육의 방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이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는 텍스트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텍스트 자체의 상호텍스트성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구성하는 상호텍스트적 연관망을 중점으로 다루어 독자를 절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콘텍스트로 간주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이해 양상을 어원의 읽기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학습자들의 반응 텍스트를 통해 자국어로 익힌 문학능력은 한국 고전시가를 수용하는 데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동시에 일정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에 근거하여 교육 방안을 '자국어 문학 작품과의 상호텍스

[15]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2012, 192 쪽.

트적 연합'과 '개인적 경험과의 상호텍스트적 연합'으로 마련하였다.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성은 현재의 텍스트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전시가를 통해 현재 텍스트도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고전시가 교육 연구 – 자국어 문학 학습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미하일 바흐친, 김동욱 역,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제 39 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조희정, 「고전시가 비평 교육 연구: 탈연대기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2013.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피에르 바야르, 백선희 옮김, 『예상 표절』, 여름언덕, 2010.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임홍배 역,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2012.

Bakhtin, Mikhail., *Voprosy literatury I estetiki*,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Barthes, Raland., *S/Z*, 김웅권 역, 『S/Z』, 동문선, 2006.

Conte, Gian Biagio., *The rhetoric of imitation: genre and poetic memory in Virgil and other Lation poets.* Cornel University Press, 1986.

Holthuis, Susanne., *Intertextualitat, Aspekte einer rezeptionasorientierten Kozeption*, Tubigen, 1993.

Irwin, Weiser., "(Inter)textuality, Semantics, and Coherence", ERIC ED 293 132, 1988.

인적사항 (김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1-217, 08826, 82-10-4950-1430, caramel724@naver.com)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작품 속의 중국이미지

박은숙

(산동대학교)

1. 일제강점기의 한국과 상해

상해는 수·당 시기 남과 북을 잇는 대운하의 개통,원대의 상해현 설치,명대의 면방직업 중심으로의 발전,청대에 들어 면방직생산 등에 기반한 상업의 번성 등을 통해 아편전쟁 전까지 상해는 이미 장강삼각주 일대의 상업 중심이 되었고 일본 등 나라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해의 발달한 사회경제와 우월한 지리적 위치는 국제적인 대소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상해가 개항되기 이전 유럽 국가들은 이미 상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842년8월 영국과 남경조약을 통해 광주,하문 등과 함께 중국에서 제일 먼저 통상항구로 개항되면서 1890년에 이르러 상해는 이미 근대적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1845년 상해에 조계가 설치되고 1880년대에는 전등,전화,전보 등 근대과학기술과 관련된 기업체가 나타나고 조계에 거주한 외국인은 12,328명에 달하고 상해 인구도 1910년의 1,289,352명으로부터 1930년에는 300만명[1]을 넘어 상해는 중국의 최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0세기 초에 상해는 동양 최대의 국제도시이며 또한 서양문물과 사상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전초이기도 했다. 서양의 문화와 사상은 중국의 전통문화사상과 충돌하고 교섭하면서 상해를 비롯한 이 지역에 큰 활력을 불러넣어주었다. 상해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충돌과 혼재는 중국혁명당인들로 하여금 상해를 중요한 활동지역으로 삼게 하여 1911년 7월 혁명당인들은 동맹회중부총회를 설립하여 혁명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적인 대도시이자 여러 가지 사상이 혼재하는 상해의 이같은 특징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사상적 지향, 경제적 활동,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또는 생존을 위해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끊임없이 이곳으로 찾아들게 하였다.

일찍이 상해로 온 한국인들은 정부 관리, 양반들 자녀 또는 상인들로 구성되었다. 1883년 민병익이 해관설치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해관 요원 확보를 위하여 상해에 파견된 것으로부터 1884년 갑신정변 후 개화당의 윤치호가 4년간 상해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상해 유입은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기간을

[1]邹依仁， 《旧上海人口变迁的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80年，p. 141.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1910년 국권상실로부터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로 이 시기에 상해로 망명해 오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계몽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은 교통과 통신이 편리하고 세계여론과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해가 운동전개에 적격이었다. 이 시기에 상해로 들어온 독립운동가들로는 신규식, 민필호, 정인보, 박은식, 신채호, 여운형 등이 있다.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1920년대 초까지는 두번째 시기로 독립운동가들과 중산층이 상해로 흘러드는 시기였다. 1919년 3월일 玄楯 등은 프랑스 조계 宝昌路에서 조선의 13개 도에서 온 대표로 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총 기관으로 공식출범하였다. 이 시기에 상해로 모인 한인들은 대부분이 '爱国者와 有志人士'였다. 세번째 시기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말까지로 한국인들의 이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시기의 이주자는 주로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가족, 상해에서 정착하려는 중산층들이 위주였다. 1930년 초부터 광복될 때까지는 네번째 시기이다. 1932년 윤봉길 의시가 虹口公园(현재 노신공원)에서 일본의 天长节庆祝会场에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있은 후 일제가 상해 한국인들 대거 체포를 감행하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상해를 많이 빠져나간다. 1932년 1·28 상해사변에 이어 1937년 11월 상해가 일본군에 점령됨에 따라 상해의 한국인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친일적인 한국인들이 대거 상해로 들어오면서 1937년말에는 재 상해 한국인 수는 3138명에 이르렀으며 상해 한국인의 구성과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2]

상해에 있어던 한국인에 대해 중국 정부와 영미의 공공조계, 프랑스 조계는 때로는 보호하였고 때로는 일제에 협조하여 한국독립운동 기관이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체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당시의 국제 정세 및 중국 정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소련 소비에트 정권 수립 후 영·미·불·일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협공태세와 중국에서 중국공산당 탄압 정책 등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상해는 일제강점기에 있어 한국인 이주자의 성격에 따라 한국인 사회는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역으로 한국인 사회 역시 상해 사회현실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국현대문학에서 상해 관련 작품들에 대해서는 제법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일의<한국현대문학중의 중국형상연구>[3]에서는 20세기 20~30년대 중국의 도시, 중국의 농촌, 중국인 형상을 추출하였고, 김호웅의 <1920~30년대 한국문학과 상해-한국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인식을 중심으로>[4]에서는 근대한국문화인들이 상해의 식민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다. 이승하의 <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소설의 의의>[5]에서는 상해가 엄청난 규모의 국제도시, 홍등가가 발달한 환락의 도시로 형상화하

[2]孙科志,《日帝时代上海韩人社会研究》, p.40~46.
[3]崔一,《韩国现代文学中的中国形象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2002年6月。
[4]김호웅,<1920~30년대 한국문학과 상해>, 한국문학연구학회 편,≪현대문학의 연구≫23호, 2004년.
[5]이승하,<주요섭 초기작 중 상해 무대 소설의 의의>, 국제비교한국학회 편,≪비교한국학≫17권 3호, 2011년.

여 작가의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상해 시절에 창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양국화의 <한국 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6]에서는 상해를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공간, 서방으로 향하는 기착지로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지희의 <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주요섭의 소설을 중심으로>[7]에서는 주로 상해의 식민성과 유토피아성을 고찰하여 상해를 중층적인 부정성의 공간, 각성과 저항의 공간, 소통과 정신적 사랑의 공간임을 추출했다. 최학송의 ≪주요섭 연구≫[8]는 주요섭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로 그의 문학 창작에서 보인 기독교 부정과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 주제의 다양화와 기교에 대한 탐구, 동아시아를 잇는 매개-인력거 등 항으로 나누어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진아위의 <김광주 상해 체험소설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9]에서는 상해의 국제성과 근대성, 근대적 도시로서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주민들의 기구한 삶, 작가의식의 깊이를 규명하였다. 하상일의<근대 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10]에서는 식민지시기 한국근대문학을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중의 시선과 양가적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상해 소재 작품들에 대한 연구로 선정한 작가와 작품, 연구 시각과 연구 방법이 다르지만 각자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 명이나 두세명의 작가의 대표작에 대한 연구로 부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섭의 <인력거꾼>, <첫사랑값>, 김광주의 <애지>, <상해와 그 여자>, 심훈의 <동방의 애인>, 강노향의 <지붕 밑의 신추>등 소설 16편과 주요한의 시 <상해 소녀>, <불란서 공원>과 심훈의 <상해의 밤>등 시 3편,수필 3편 총 20편의 작품에 드러난 상해와 상해사람들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2. 상해 소재 작품들에 드러난 상해와 중국인들의 다양한 이미지

1) 근대 국제적인 도시와 혁명자들의 집합소로서의 상해

상해는 20세기에 들어 교통과 통신의 편리, 근대적인 산업경제와 상업의 비약적인 발전, 외국 문물과 사상의 활발한 유입, 다양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도시, '동양의 빠리', '동양의 런던'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1910년에 상해의 인구는 1,289,533명에 달했고 1930년에는 300만명을 넘었으며 상해의 공공조계와 프랑스 조계에 있는 외국인 수는 1930년에 58,607명에 달[11]했다. 특히 상해의 공공조계나 프랑스 조계의 치외법권은 한국의 지사들뿐만 아니라 인도나 러시아 등 나라의 망명객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 되었다.

---

[6]양국화,<한국 작가의 상해지역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7]강지희,<상해와 근대문학의 도시 번역>, 이화어문학회 편,≪이화어문논집≫29호, 2011.
[8]최학송,≪주요섭 연구≫,료녕민족출판사, 2014년12월.
[9]진아위,<김광주 상해 체험소설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 전남대학교 한국어무학연구소편,≪어문논총≫28집, 2015년 12월.
[10]하상일, <근대 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 《영주어문》제36집, 2017년 6월.
[11]孙科志, 《日帝时代上海韩人社会研究》, p.17~18.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가 식민통지 초기 '보안법', '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회사령' 등 일련의 식민정책을 공포실행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은 정치적·경제적 원인으로 해외로의 유출을 촉구했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많은 한국인들이 상해로 모여들었는데 1919년 말경 상해에 있던 한국인은 109세대로 합계 688명으로부터 1932년에는 1352명, 1937년11월에는 1083명[12]에 달했다.

비교문학 형상학에서의 형상은 하나의 광범하고도 복잡한 총체-상상물의 일부로 연구한다. 모든 형상은 일종의 자아 의식에서 만들어진다.[13] 타국문화 현실에 대해 집단적상상물로서의 형상은 한 작가 또는 집단의 여러 가지 태도를 표출하는 데, 그 중에서 타국형상이 본 "민족" 문화, 본토문화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 아래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의 타국에 대한 묘사는 일종의 "환상"이지 "형상"은 아닌 것이다.[14]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온 한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의 최대도시 서울보다 크고 발전되었으며 자유로와 '동양의 빠리'로 불리는 상해는 서책에서만 본 서양의 대도시 모습이었던 것이다.

김광주(金光洲, 1910.7~1973.12)의 <상해(上海)와 그 여자>(조선일보,1932. 3.27~4.4)에는 상해의 거리 풍경이며 불란스 공원이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해 법계(法界)에 있는 외국인들의 뮤-직 홀에서는 우렁찬 색스폰 음악소리가 담밖으로 흘러나오고 양-키들은 떠들고 웃으며 상해의 해빛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법계는 상해 안에 있는 불란서이며 이 곳에는 그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음악, 아이들이 다니는 불란스 초등학교, 그들을 보호해주는 순사가 있어 바깥 세상 사람들이야 춥든 덥든 고통스럽든 그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법계 안에 있는 불란스 공원은 그들이 낭만과 자유를 한껏 누리고 발산하게 하는 곳으로 그들의 상해에서의 생활과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자 장치이다. 불란서공원은 당시 상해에서 명물로 제법 유명한 듯하다. 당시 한국문인들의 많은 작품들에서 불란서공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당시 불란서공원은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드나들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곳으로 상해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法大马路의 中央大戏院에서는 한국청년이 감독한 영화가 봉절'[15]되고 佛租界霞飞路 적은 골목 안에 있는 茶房 杨林에는 '젊은 중국 문학청년들, 평범한 불란서 젊은 사나이들, 엄숙한 인도지사들, 초라한 조선 젊은이들이 모퉁이 모퉁이 테이블 싸고' 앉아 이야기들은 하고 있고 '유성기에서는 슈-바-드의 <미완성의 교향곡>이 새어 흐르고' '黃埔滩 나루에는 과히 크지 않은 군함-순양함(巡洋舰)이 닻을 내리고 있다. 그 순양함 위에는 이태리 깃발이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외국 군함과 상선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해는 '국제의 도시이며 망명객의 굴'이었

[12]孙科志,《日帝时代上海韩人社会研究》, p.46.
[13]达尼埃尔·亨利·巴柔著, 孟华译, <形象>, 孟华主编,《比较文学形象学》, p.121.
[14]达尼埃尔·亨利·巴柔著, 孟华译, <形象>, 孟华主编,《比较文学形象学》, p.141.
[15] 김광주,<상해와 그 여자>, 민현기 편,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선집≫, p.255.

다.[16] 그런가 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조선 청년이 중국인 여학생에게 연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도시이면서 그 사랑의 장벽을 깊이 느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외면해야 했던 현실적 공간이기도 하다.[17] 상해의 이런 도시 풍경은 상해의 경제 발전 상황이나 무역 규모의 수치를 제시할 필요 없이 한국의 젊은이들과 문인들에게 한국과는 다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게 하였고 자유롭고 번화한 모습에 황홀함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한국인들은 취직차, 사업차, 유학차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들어왔고 상해의 네온등이 번쩍 거리는 모습에 한국과는 다른, 동양 최대의 국제도시-상해의 매력에 빠지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을 것이다. 현상학의 타자 이미지에 대한 두 가지 분류 중 상해의 국제적인 대도시의 이런 이미지는 '이상적 이미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상해의 이런 모습을 동경하고 지향하면서 상해로 흘러들었고 한국에는 부재한 대소시, 국제적인 도시 모습과 비교해 한국의 모습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상해의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모습은 한편 한국의 지사들로 하여금 상해를 망명지, 혁명적 도시로서 인식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1919년 상해에서 한국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의 독립투사들로 하여금 하루에도 '수십인의 한인이 상해로 모여 들'[18]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독립의식과 의지가 있는 많은 한국인들을 상해로 인도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1년에 신규식, 민필호를 비롯하여 1913년에 정인보, 신채호, 민필호, 박은식, 박찬익이, 1916년에 민충식, 여운형 등 임정의 중요한 수뇌들이 선후로 상해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상해 한국인의 수는 1919년 연말의 688명으로부터 1926년의 847명으로 증가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하여서부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까지 상해로 이주하는 한국인 대부분이 애국자와 독립사상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이 시기에 상해로 이주한 여타의 외국인들과는 좀 달랐다.

조벽암의 <불멸의 노래>의 범웅이는 상해에 불조계에 있는 양림 차방에서 소제부로 일하면서 독립혁명에 몸 담고 있는 조선 청년이다. 차방에 와서 차를 마시는 조선인 여자 한숙이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과 일에 영향을 줄까 항시 경각성을 높여 경계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다. 조직이 탄로나 검거를 피해 상해를 탈출하면서 한숙에게 편지를 남겨 자기는 망명객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당시의 조선 현실을 말해주면서 젊은이들이 조선의 어두운 현실을 깨드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조선을 구해야 한다고 일깨워줌으로써 한숙 역시 혁명의 길로 나선다. 심훈의 <동방의 애인>은 1920년대 상해를 무대로 활동했던 공산주의계열 독립운동 조직의 활약상을 담은 작품이다. 주인공 박진은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공산주의계열 독립운동 조직에 속해 있으며 국내로 잠입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그려진 데서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의 활동과 상당

[16] 조벽암, <불멸(不灭)의 노래>, 민현기 편,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선집≫, p.284~303。
[17] 주요섭 <첫사랑값>, 신채호·주요섭 등 소설,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제6집≫, 연변인민출판사, p.254~262.
[18] 鲜于燻, 《民族의 受难》, 独立精神普及会, 1955년, p262.

한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19] 이 작품은 박진과 영숙, 동력과 세정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혁명적 정치성과 낭만적 사랑이 혼재하는 연애소설 형식을 갖기도 하지만 무사계급의 해방 실현을 위해 모스크바에 가서 직접 혁명을 배우는 동렬과 세정의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 청년들의 진정한 사랑과 연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혁명적 정치성과 낭만적 사랑의 일치, ×씨와 동렬의 동지적 연대를 통해 당시 상해 독립운동의 대립적 노선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회주즤 운동의 방향을 확고하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20] 이외에 김광주의 <상해와 그 여자>, 최상덕의 <황혼>, 김산의 <기묘한 무기>, 김광주의 <남경로의 창공>, 홍사용의 <봉화가 켜 질때> 등 작품들에도 상해에 망명한 독립투사들의 상해에서의 투쟁과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듯 당시 상해는 한국문학 작품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집합소로 형상화되어 혁명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32년 이전까지 상해에 있는 직업적인 한국인 독립운동가 수는 2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2) 자본주의 독성에 침윤된 타락한 도시로서의 상해

근대 상해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며 그 화려함과 생명력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그 표면에 가리워진 내면의 병폐와 타락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경제, 상업 및 근대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해로 몰려들어 1910년에는 1,289,353명에 달하고 193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 동양의 최대 도시가 되었다. 외국인 수도 1930년에는 58,607명에 달했다.[21]중국과 제국주의 열강들의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체결의 결과 상해에는 많은 외국인들의 조계가 형성되었다. 조계는 외국인을 위해 설립된 거류지였으므로 조계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한 일부 중국인을 제외하고 조계에 들어가거나 거주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1853년 태평천국운동 때까지 유지되었으나 후에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조계지로 들어가면서 '华洋杂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훈의 <동방의 애인>에서 상해에서 독립혁명을 하고 있는 ×씨, 박진, 동렬과 세정 등 한국 망명객들의 투쟁생활을 그리면서 당시 상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공원에 드나드는 공원 문 앞에는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적혀 있다. 당시 조계지나 공공조계의 공원 입구에는 이런 글귀들을 써 세워놓고 중국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꼭 그곳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통과토록 하였다. 조벽암의 <불멸의 노래>에도 범웅이가 한숙을 만나러 공동공원 문앞에서 '개와 지나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을 보았던 일을 떠올리며 중국의 일이 남의 일같지 않게 다가오며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물리적 힘에 밀려 조계지로 빼앗신 중국인의 땅, 이것은 당시 국권을 잃고 국토를 빼앗긴 한국인들의 처지를 방불케 하며 동병상련의 아픔이고 치욕으로 그런 간판은 한국의

[19]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상해>, 한국언어문화학회 편,≪한국언어문화≫제36집, 2008년 8월, p.299~301.
[20] 하상일, <근대 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 ≪영주어문≫ 제36집, 2017년 67월, p.227~229.
[21] 邹依仁, 《旧上海人口变迁的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80年, p.141.

젊은 투사들의 피를 끓게 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 문명과 인권을 최상의 이념과 가치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유 자본주의 이념, 자본주의 문화의 문명과 포용력을 과시하는 공원 문 앞에 세워놓은 것은 인종과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내용의 문구로 그들의 내심 속 자본주의 사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식민지 문화에서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인종우열론과 양육강식론, 식민지 지배론은 그들의 소위 선진적인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미명 하에 엄폐된 자본주의 문화의 암흑면이며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과 정복의 이론적 핵심이다.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건설했던 '공원'이라는 공간적 매개를 통해 생동하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에서는 중국인 인력거꾼 아찡이 과도한 달음박질로 다른 인력거꾼보다 1년 일찍 죽는다. 그들의 고된 생활과 삶에 대해 양복 입은 선교사는 하느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으로 가게 된다고 설교하고 공보국 인도 순사와 의사는 아찡의 주검을 보고 폐품 처리되는 기계를 대하듯 무감각하며 그의 동거하고 있는 인력거꾼 뚱보 역시 마찬가지다. 김광섭의 <예지>, 주요섭의 <살인>의 갈보나 창녀들은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팔아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돈은 그 몸의 주인의 소유가 아닌 이 창녀들의 주인인 포주들의 소유가 된다. 창녀들은 자본주의 도시 상해에서 돈에 팔리는 상품이며 육체는 돈을 버는 기계인 것이다. 여기에서 인력거꾼이나 창녀들은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존엄은 없으며 타인과의 평등 관계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자들의 삶의 편안함과 편리를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존재하며 부자들을 그들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재부를 늘린다. 이들 최하층인들에게 있어 상해는 인간이 물화되고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논리가 구현되고 자본주의 본성이 드러나는 현장인 것이다.

자본과 금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해에서 사람들은 돈이 가져다 주는 힘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점차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광주의 <남경로의 창공>에는 처음 상해로 금방 왔을 때는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던 이들이 상해의 물화된 자본주의문화에 젖어 타락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J로에 약국을 내고 그날그날의 생활에 조들리면서도 아들 딸을 공부시키겠다고 허덕허덕하던 아버지는 이 넓은 대륙을 좀 먹이고 있는 수천수만의 아편중독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아편밀수업자, 브로커가 되어 지사, 명사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온갖 추악한 행동을 떡 먹듯이 하면서 나이 오십이 넘은이가 술과 계집을 좇아 밤을 세우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마작에 정신을 쏟고 있다. 중학시대의 영어 교수 A선생은 전에 제자들을 아들 딸같이 귀히 여기며 올바른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낮에 잠자리 옷을 입은 체 댄서인 안해 소니아와 화토장을 치고 교사 자리를 얻으려면 땐싱, 츼겔징아라도 사가지고 와야 한다며 웃

는다.[22] 상해의 한국인 사회는 원래의 독립혁명적 성격이 농후하던 데로부터 1933년을 전후하여 친일적인 한국인들이 상해로 많이 들어오고 원래 독립운동을 하던 일부 지사들도 변절하거나 하여 아편밀매업.[23]이나 일본군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업에 종사하는 등 변모를 보였다. 이처럼 상해는 사람들이 이상을 쫓아 이곳으로 모여들게도 하는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국제도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이 이상과 꿈을 버리고 금전과 안락함을 쫓아 타락하게 하는 자본주의 독성을 내뿜는 도시임을 읽을 수 있다. 상해의 상이하고 대립적인 이러한 두 모습은 자본주의 이념과 가치관의 양면성 또는 양가성이기도 하다.

3) 근대 자본주의 사상과 가치의 구현자인 유산계급

근대의 국제적인 대도시 상해의 번화하고 현란한 모습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권력을 손에 쥐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자기 일의 일부로 대하거나 관심의 대상 또는 압박과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였다.

<인력거꾼>(1925)은 주요섭이 상해 호강대학 재학시절 사회학 과목 실습으로 인력거꾼 합숙소를 현지 조사했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아찡은 인력겨꾼 생활 8년 만에 죽음을 맞는 되는데 양복 신사는 선교사라는 신분에서 하등의 진심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하는 체하며 기계적으로 성경 속의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주요섭은 이 작품 이외에 <천당>(신여성, 1926년 1월)에서도 '천당'은 '天上의 虛国'이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며 반기독교적 정서의 사회주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력거꾼>에서 검시관으로서의 의사, 죽음 원인과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인도 순사부장은 과도한 달음박질땜에 젊은 나이에 급사한 아찡의 죽음을 아주 예사롭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담담하다. 그들에게 있어 아찡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제도에 정해진 데로 행하는 자신들의 업무이며 그들이 알고 있는 조사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타인의 죽음, 특히 사회 하층인들의 죽음은 자본주의의 대규모 기계제 생산과 판매 및 소비의 원리처럼 하나의 사실 확인의 일환일뿐 그 죽음의 사회역사적 의미 규명이나 같은 인간으로서의 정감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상과 제도의 물화와 기계화된 장치의 예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주요섭의 <살인>(1925)의 갈보인 우뽀와 포주인 뚱뚱 할미, 김광주의 <애지> (1936)의 예지인 이쁜이와 포주 영감과 그의 마누라의 관계는 당시 상해의 '악마적인 도시' 의 악마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전형이다. 당시의 국제도시인 상해에서는 아찡과

---

22 김광주, <남경로의 창공>,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해방전소설문학편 상)≫, 민족출판사, p.768.
23 孙科志, 위 논문, p.116.

같은 인력거꾼이 자신의 노동과 몸을 상품으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여인들은 몸을 돈 버는 기계로 동원되고 강요당한다. 그들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그녀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일 뿐이다. 포주들은 갈보들의 몸을 팔아 돈을 벌어들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늘리는 자본가, 흡혈귀 같은 존재로 자본주의 생산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상과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집단으로 인간의 악과 자본주의 가치관이 결합된 근대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주요섭의 <개밥>(1927)은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인 빈부 격차, 부자들의 이기주의와 인색함, 주인집 부부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사회 부자들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여과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상해의 중국인들의 자본주의 사상과 체제 수용에서 보인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지배계급들의 형상이라 부정적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작품에서 그려진 중국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4) 자본주의 제도와 가치의 희생물로서의 하층민

형상학 이론에 따르면 “나”는 타자를 주시하고 타자의 이미지에는 한편 “나”라는 주시자, 화자, 작가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한다. 개인(작가), 집단(한 사회나 국가, 민족), 집단의 일부(일조의 사상 유파, 의견, 문학)등 층면에서 타자 이미지에는 불가파하게 타자에 대한 부정과 “나”와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보완과 연장을 표현한다. [24] 상해의 하층민의 고통과 비참한 삶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작가는 상해와 그 속에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부자들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드러내며 나아가 같은 처지에 있는 식민지 조선과 내지의 하층민들의 바참한 삶에 대해서도 고발하면서 그들의 각성과 반항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에는 인력거꾼인 아찡과 그의 동료인 뚱뚱보 등이 등장한다. 인려거꾼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인력거에 손님을 태우고 달리지만 거리에서는 자동차에 치이기도 하고 순사에게 얻어막기도 하는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가득해 아찡은 죽어가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이키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도 인력거를 끌 수 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다. 심훈의 <동방의 애인>에도 상해 왕뽀처(黃包车)꾼들이 손님들을 서로 태우기 위해 경쟁하다시피 달려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요섭의 <살인>에는 상해로 팔려와 창녀로 살고 있는 유뽀가 등장한다. 삼년을 하루같이 하루밤에도 서방을 적어도 네다섯명씩 갈아대는 과도한 생색기 노동과 번민, 실없는 한숨이 소녀이든 우뽀를 3년이 못 되어 삼십이 넘어 보이는 로파로 만들어 놓았다. 곱던 그의 얼굴은 뼈만 남도록 수척해졌고 샛별같은 눈은 공포를 비산하는 두려운 동굴처럼 우둔해 지고 영양부족으로 눈아래는 퍼런 멍이 지고 벌써 한해 전에 올린 매독은

[24] 亨利·巴柔著，孟华译，〈形象〉，孟华主编，《比较文学形象学》，p.157.

코와 입가에까지 퍼졌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그의 창문 앞을 지나다니는 학교 교사같은 어떤 미남자를 보며 가슴이 울렁울렁함과 동시에 자신의 더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불행과 운명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주인 할미라고 생각하며 할미를 죽이고 이곳을 탈출해 거리를 달린다. 김광주의 <얘지>, 강로향의 <지붕 밑의 신추>, 심훈의 <동방의 애인> 등 작품에도 순사에게 쫓기고 포주들에게 얻어맞고 손님들에게 짓밟히고 상품으로 팔리면서 그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끝없는 궁핍과 억압, 몸을 썩게 하는 매독과 세상 사람들의 멸시뿐인 창녀들의 삶이 그려진다. 자신의 육체를 상품으로 팔아 포주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사그러지는 창녀들은 당시 억압 받고 착착 받는 인력거꾼과 함께 당시 상해 최하층민들의 전형이며 중국인들의 인물 형상의 한 유형이다. 주요섭의 <개밥>에는 부자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어멈과 그의 딸 단성이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당시 상해 최하층민들의 궁핍과 그들의 신산한 삶, 그리고 생존을 위해 창녀 우뽀처럼 점차 각성하고 저항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의 비참한 삶과 파멸적인 말로는 자본주의 제도의 희생물로서의 그들의 운명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애쓰며 살아가거나 점차 각성하여 반항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여 그녀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하층민들의 전망 있는 미래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3.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상해 이미지 작품의 의미

이미지는 어떤 문화 현실에 대한 묘사이다. 이런 묘사를 통해 그런 이미지의 개인이나 집단을 창조(동감하거나 홍보)하여 그들이 몸담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허구적인 공간을 제시하거나 표현한다. 상해 소재의 작품들은 상해의 여러 군상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상해를 유심히 살피고 주시하면서 상해에 대한 동경과 비판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조선 사회에 대한 주시와 반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일제 강점기 상해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다음 몇 가지로 추출해 본다.

1) 상해 소재 작품들에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들은 한국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비롯한 상해에서의 한국인들의 다양한 삶을 증언해 주는 증언문학의 성격을 지닌다.

2) 상해 이미지의 작품들은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한국 국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배경, 작품 소재와 주제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의 저변을 확대해 주었다.

3) 상해 이미지 작품들은 일제시기 한중 양국의 공동체적 운명 속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케 한다.

4) 당시 국제적인 도시 상해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양면성을 생동하고 리얼하게 반영해 주었다.

이처럼 근대 상해를 소재로 한 한국작가들의 작품은 내부자 혹은 외부자의 시선을 동

시에 가짐으로써 상해의 이중성과 모순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나아가 상해가 한국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한국문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발굴해 한국문학 속에 그려진 상해의 모습을 환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상해가 한국현대문학 속에서 갖는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리기영 초기소설의 변모양상 고찰

김휘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론문요지]

리기영은 1924 년 신경향파시기에 등단하여 이후 줄기차게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가난을 적극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작가이며 아울러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발표하여 남북한 문학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리기영의 초기작품세계는 신경향파가 문단을 주도하던 때에 부응하여 무산자로서의 계급의식과 식민지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고와 인식의 결과물로 손색이 없다. 본고는 리기영의 등단작인"오빠의 비밀편지"로부터 시작하여 초기작품인 "민촌"과 신경향파에서 완전히 탈피한 "원보"를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리기영 작품의 창작리념의 변모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키워드] 리기영,초기소설, 변모양상

1. 머리말

리기영은 1924 년 신경향파시기에 등단하여 이후 줄기차게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가난을 적극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작가이며 아울러 문학적 형상성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발표하여 남북한 문학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리기영은 개인과 사회, 개인과 력사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현실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당파성과 계급투쟁이라는 프로문학의 원칙을 옹호하면서도 실제 창작에서는 체험을 통한 구체적인 현실성이 있는 문학을 주장해 왔다. 소설작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작가에 의해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다. 이때 현실은 작가가 소설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준과 작가의 세계관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리기영의 초기작품세계는 사회주의 운동가, 도시빈민, 자생적인 개혁의지를 드러내는 농민이 등장하는 소설이며 직업적인 혁명가에 의한 사회적 모순 극복을 이루려는 맹몽적인 투쟁양상; 이농한 지식인이나 도시근로자, 공장로동자들의 빈궁양상을

[1] 재인용, 조성준 강원대학교 석사론문《리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전형적 인물과 전망을 중심으로》p.2

통한 사회모순폭로는 의식하고 있지만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계급적 모순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행위에 정당한 론리성을 획득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기영의 초기작품세계는 신경향파가 문단을 주도하던 때에 부응하여 무산자로서의 계급의식과 식민지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고와 인식의 결과물로 손색이 없다. 본고는 리기영의 등단작인“오빠의 비밀편지”로부터 시작하여 초기작품인 “민촌”과 신경향파에서 완전히 탈피한 “원보”를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리기영 작품의 창작리념의 변모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2.1 사이비 경향주의작품-“오빠의 비밀편지”

리기영의 등단작인 “오빠의 비밀편지”는 신경향파로 분류되기 어려운 작품으로서 오히려 계몽주의 색채가 짙은 작품이라고 보아진다. 이 작품은 실제 생활에서 누이동생을 계집애라고 구박하고 아무런 갈등없이 여러 녀자를 전전하는 남자를 통하여 책에서 얻은 지식과 몸에 깊게 배어 있는 녀성 멸시의 봉건적 습성사이의 괴리를 비판한 작품이다.

마리아는 오빠와 여러번 싸웠다. 싸울 때마다 리론으로 당치 못할 때는 반드시 《계집애년이 무슨 잔말이냐!》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 자기는 계집애가 무슨 죄인은 아닌 줄 알았지만 그래도 계집애면 어떠냐고 끝까지 항거할 용기는 없었다. 벌써 그 소리가 나오면 어쩐지 기가 풀리여서 당당히 할 말도 못하고 그대로 눌리고 말았다. 하긴 그것은 오빠만은 아니였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도 걸핏하면《이년, 계집애년이…》하고 눈을 흘겼고 이웃사람의 입에서도 이 《계집애》라는 말이 그칠 때가 없었다.-“오빠의 비밀편지”

보다싶이 작품은 당연 인간성, 나아가 계급의식의 각성을 기본으로 하는 신경향파 소설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소설은 녀성에 대한 봉건적 억압과 수탈에 대한 비판이 근본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기의 불우한 출신과 처지에 대한 마리아의 내심적인 의문에 그치고 있을뿐 반항은 감히 발로시키지 못한다. 고작해야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오빠를 골려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심리적 평형을 얻고 갈등을 무마해 버리고 마는데 그치고 있는 이 작품은 비판적 사실주의의 자대로 재어 보아도 개인적 반항의 계기는 커녕 성별의 불평등으로 인한 한 녀성의 내심적인 의혹과 그에 대한 소극적이면서도 자연발생적인 심리적인 안위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2.2 비판적사실주의의 관념론적 도입-“민촌”

비판적 사실주의는 국가상실이라는 당시 특수한 사회력사적 배경을 직면할 수 없었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었기에 근본적인 사회의식의 변화와 생활의식의 변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식민지 현실생활을 감상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살인, 방화, 폭력, 자살 등 원초적이고도 개인적인 반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한 조직적인 투쟁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의 자연발생적 울분을 표출한 것인데 파격적이고도 원초적인 반항과 개인의 내심적인 울분과 현실에 대한 무작위거나 심리적인 억압감 량자는 적어도 당시 조선문단에서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아진다.

리기영의 초기작품중 "민촌"은 "오빠의 비밀편지"에 이어 개인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 내지는 반항에서 방향모색은 아니지만 막연하나마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들이다. 즉 이런 작품들은 인물구성에서 이분법적인 구조인 유산자와 무산자,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적인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작가는 지주와 소직인들의 계급적 대비를 통해 소작인들의 궁핍한 생활과 지주들의 억압과 횡포를 드러내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당시 농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농민들의 계급적인 현실과 현실변혁의 추구와 리상 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인물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농촌의 궁핍원인을 가진자의 횡포의 결과로 인식하는 리념지향적인 인물에 불과한 한계를 갖고 있다.

리기영이 농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한 작품이 바로 "민촌"이다. 작품은 리기영 소설의 기본적인 틀인 지주와 소작인간의 대립적인 갈등구조를 통해 량자간의 계급적 대비를 그리고 있으며 또 소작인들의 궁핍한 현실과 지주의 억압과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은 또 비판적 사실주의작품에서는 특이하게 농민들에게 계급의식을 일깨워 주는 전형적 인물까지 등장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다. "민촌"에서 "서울댁"은 소작권을 떼이지 않고 삶을 연명해 가는 소작농들에게 희망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그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인으로 소작농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불어 넣으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접촉하는 인물이 한정되여 있고 영향력이 약하므로 서울댁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서울댁은 결말에서도 여전히 농민과는 별개의 인물로 남아있고 그가 제시하는 전망은 리상적인 세계에 불과할 뿐이다.

낮에는 햇빛 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달 아래서 피곤한 몸을 쉬는 천만 사람이 다같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민촌"

이처럼 농민들의 굶주린 생활과 지주에게 시달리는 현실을 서울댁은 냉철하게 인식할 능력이 없다. 서울댁은 점순이가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무기력하고, 그를 매개로 한 자각과정의 결과가 현실적 상황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의식은 추상적인 것이며 그는 실천력이 없는 관념적인 인물인 것이다. 이는 리기영이 농민을 단순히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고 관념적으로 농민문제에 접근하여 지주의 횡포와 농민의 궁핍상을 고발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문제는 미해결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결말은 비극적인 것이다. 총적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수준에서 결말을

짓는데 그치고 만 현실고발의 작품이다. 즉 현실의 모순을 폭로분석하는데 력점을 두고 대안이 없는 비판을 가하는데 그쳤다고 할수 있다.

2.3 사회주의사실주의에로의 과도작-“원보”

1927 년 카프는 자연발생적인 문학운동에서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문예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이 시기 리기영소설에서는 진보적인 지식인에 의한 로동자, 농민의 계급의식고취와 운동성을 내세워 필연적인 교훈성, 대중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전위적 인물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여 조직적 계급투쟁으로 귀결되는 계몽적 구조와 로동계급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강한 목적의식을 지닌 예술을 지향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리기영의 역할이 돋보이기 시작한다. 프로소설이 어떤 벽에 부딪쳤을 때 리기영은 새로운 문제작을 발표함으로써 그 난관을 돌파하였고, 이것은 프로소설 전체의 일반적 경향이 되였다.[2]이 시기 리기영의 작품에서 무지한 상태의 농민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원보”이다. 원보의 각성은 도시로동자 석봉에 의해 이루어 지며 이는 선진적 로동자가 농민에게 자신의 계급적 위치와 사회모순을 자각시켜 함께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인제 죽어도 괜찮겠오. 당신은 내 죽은 뒤라도 우리 농군들한테 가서-그런 소리나 일너주소.—우선 내 외손자한테 잘 일러주소-아 내 소원은 기밧게 업지오.—응.”-“원보”

원보가 운명하며 남긴 유언은 무지한 농민을 일깨워 달라는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석봉에 의해 원보가 계급의식을 자각하고 사회모순을 인식함은 로동자를 중심으로 한 로동동맹을 말한다. “원보”는 리기영 소설에서 로동자와 농민간의 련대관계와 상호영향이 잘 이뤄진 작품이다. 석봉과 원보의 만남과 의식의 교류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로동자와 농민의 대체방안, 즉 같은 프롤레타리아계급관계속에서 상호련대를 통한 공동대응을 의미한다. 아울러 석봉은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투쟁형의 인물이면서도 농민이 처한 사회적 모순, 계급적 위치, 해결방안을 원보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단순히 농민을 계몽하는 대상이 아니라 농민을 같은 계급의식을 지닌 동맹자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원보의 죽음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 식민지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계급적 자각과 사회적 변혁의 필요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 이 작품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에로 과도하기 위한 준비작으로도 볼 수 있겠다.

3. 결말

이상으로 리기영의 “오빠의 비밀편지”,“민촌”,“원보”를 살펴보았다. 이 세 작품은 작

[2] 김재용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 2》 p.148 한길사 1996.8
[3]조성준 강원대학교 석사론문 “리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전형적 인물과 전망을 중심으로” p26

가로서의 리기영의 사회, 정치에 대한 관찰과 인식의 점진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작품인 바 신경향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에로의 전향의 궤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아진다. 신진작가로서 “오빠의 비밀편지”는 갓 등단한 햇내기답게 작품의 폭과 깊이를 식민지시대와 계급적대립에로 끌어들이지 않고 성별적 차이와 봉건륜리도덕에 대한 의혹과 타파를 념원하는 “깜찍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1920 년대 중반후부터 대두하기 시작했던 신경향파사조에서 리기영은 가장 전형적인 비판적사실주의(개인의 울분과 반항의 표출은 흔히 살인, 방화와 온갖 파격적인 파괴로 연장된다)보다는 비교적 온화한 비판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민촌”과 같은 작품을 통해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은 역시 후기 카프문학의 도식성과 같은 단점을 내포하기 시작했으며 관념적인 인물들의 미미한 인식과 저렬도의 각성 반항의식을 담고 있다. “원보”에서부터는 프로문학의 정치투쟁화를 목적으로 투쟁형 인물과 조직적인 투쟁을 고취하기 시작하면서 후기 완전한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모태적이고도 초보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또 리기영의 창작관습(풍격)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총적으로 리기영은 “오빠의 비밀편지”, “민촌”, “원보”를 통하여 카프해체후 작가로서 사회주의 사실주의에로의 완전한 전향을 위해 자기 정진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김재용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2》 한길사 1996.8

《문학작품선 2-조선현대부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9

조성준 강원대학교 석사론문 《리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전형적 인물과 전망을 중심으로》

혼성적 주체, 흐릿한 예술

-80후 중국조선족개념예술가들의 간(间) 사이적 혹은 탈(脱)아이덴티티 탐사에 대한 소고[1]

리영일

(연변대학교 미술학원 부교수, 미술학 박사)

1. 서문

당연히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예술작품을 요청한다. 그것은 매체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내용의 변화이다. 개념예술에 전착한 일군의 젊은 조선족예술가들은 흐릿한 예술로 모호한 정체성을 묻고 있다. 아래에 그들의 작품을 일별해봄으로써 중국 조선족예술의 지정학적 변화와 일련의 징후를 살펴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로서 그들은 모더니스트들의 유사 본질주의에 대항하면서, 혼성적 주체를 근간으로 동시대적인 아이덴티티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의 여백을 불러들인다. 본고에서 언급할 신광, 최명, 황호빈은 한국에서 석, 박사 공부를 하였거나 혹은 장기체류하면서 작품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동시대적 문화환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과 접전을 보여줄 것이다.

2.1 이주와 이사사이에서-신광의 서사

1.

신광[2]의 개념미술의 컨셉은 간 (间) "정체성"에 대한 탐색인데 제2회 개인전 주제도 " 이사와 이주"였다. 이주는 이사보다 큰 범주이다.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하지 결코 "이사민"이라고 하지 않는다. 유럽대륙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이주"를 사용하고 A구역에서 B구역으로 옮겨간 경우 "이사"를 사용한다. 예컨대 유럽대륙에서 미국으로 이사 온 사람들 ... 뜻은 읽히지만 뭔가 느낌의 아귀가 좀 그렇다. 또한 이주란 “집단적

[1] 본고에서 언급한 세명 예술가중 한명인 최명의 작품분절은 2016년 12월호 제6호 『예술세계』에 등재했던 바 있는데 금번에 다시 다듬었다.

[2] 신광(申光):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예술학 박사, 개인전으로는 <출입국사무소 프로젝트>, (성균갤러리, 서울, 2010년), <이사와 이주>, (스페이스 윌릴앤딜링, 서울, 2015년), 단체전으로는 <여의도 비행장에서 인천공항까지>, (일민미술관, 서울, 2012년), <제3의 국적>,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4년), <동북아시아 지역사와 시대정신>, (산시성 미술박물관, 중국 서안, 2015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2016년) 외 다수 초대전, 그룹전이 있다.

이사”를 함축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사란 소단위규모의 이동을 말할 것이다. 이런 규모나 범주의 크고 작음, 용어사용의 차이를 떠나서 양자 모두 공간이동을 뜻한다. 즉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미끄러져나가는 것이다. 신광은 이사와 이주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코드가 정확하고 매끄럽다. ...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70만이 된다는 (한국국적획득자 10만 포함) 어느 매체의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들은 이주민인가, 잠시 국외로 생활공간을 이동한 사람인가. 신광예술가는 이주와 이사 사이에 있을 것이며 적지 않은 한국의 조선족들 또한 그러하리라. 이는 자율적인 것도 있고 타율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2.

필자는 한국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조선족임을 자각하면서 살았다. 때론 많은 경우에 잊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수시로 "알려주었다". 특히나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무릇 외부인(조선족)이라면 누구나 모두 비근하게 느끼는 경험일 것이다. 예술가 역시 그러하다.

> 나는 한국에 도착해서 중국에서 겪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경험은 출입국 사무소였다. ... 따라서 출입국 사무소는 내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한국과의 동질감이 깨지기 시작하고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원인으로 나의 첫 두 작업은 출입국 사무소라는 한국인에게는 낯선 외국인에게는 익숙한 특수한 장소로부터 시작된다. - 예술가노트 중에서

한국에서의 "조선족"은 (내부적) 외부인이다. 등급이 낮으면서 낯설고 익숙한 자이다.

필자의 한국유학생활 십년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다면 "조선족"이란 결코 친절하거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용어가 아니라 조금은 폄하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욕되는 말”처럼 들리는 언어일 것이다. 그것보다 친절한 경우가 "교포"란 용어이다. 한국의 적지 않은 조선족은 언젠가부터 스스로를 "교포"라고 지칭한다. 근데 "교포"는 맞긴 한데 그것은 재미교포하고는 다른 의미이다. 이를테면 재미교포란 "매너 있고 세련되고 돈도 있고 문화의식도 높은 원주민 한국인들과는 우월하게 다른 그런 무리"를 지칭한다면 재중교포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층을 거느리는 용어인 셈이다. "왠지 세련되지 못했고 왠지 촌스럽고 왠지 물질적으로 빈약하고

왠지 한국인과는 못한 그런 다른 무리"일 것이다. 신광예술가가 출입국사무소같은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로지르는 공적공간과 장소에서 느끼었던 경험과 느낌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반복강화적인 수행적 느낌과 과잉집착적인 확인적 행위를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예술가는 일년간 출입국사무소에 "출근"했다. 그만큼 예술가는 정체성 혹은 타자문제에 있어서 병적일 정도로 열정적인 것이다. 대기표는 말 그대로 "평준화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체현하기도 한, 대기하는 순서표이다. 그런데 예술가는 뽑기만 함으로써 일반적인 대기표를 예술작품으로 전환시킨다. 본래의 목적에서 탈구하였기에 과정으로서의 예술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일(공휴일 제외) 방문해서 직접 뽑은 대기번호표이다. 이 행위는 1년 동안(2008.11.1.~2009.10.31.)진행되었다. ... 번호표는 출입국사무소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등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나 그 장소가 다름에 따라 기다리는 목적 또한 각각 다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은 심사를 받는 입장이며 따라서 자기 순서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본인은 1년간의 번호표를 뽑는 지속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 관계를 부정하려 한다. 즉 나는 번호표를 뽑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번호표를 뽑는 행위의 목적은 심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본인이 그 시간에,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물로 대체된다. - 예술가노트 중에서

신광의 이런 일년간의 행위를 목도한 예술과 무관한 신실한 출입사무소 공무원이라면 은근히 신경질이 났을 것이다. 젊은 친구가 허구한 날 맨날 와서 할 일없이 번호표를 뽑아서 그것을 일년 내내 주기장창 "낭비"해대니깐 말이다. 그것의 본래용도로 말하면 말 그대로 낭비이다. 또한 사무소 측에서는 매일 신광이 뽑은 그 무의미한 번호를 한번 씩 무가치하게 호출해야 한다. 부박하게 말해서 국경과 국적에 대한 (재)비치가 민족국가의 형성과 불가피하다면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심사는 모더니티의 산물인터이니 그것에 대한 관련심사는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신광이 수행한 "무의미한 대기표 뽑기 유희"와 그것을 통하여 귀엽게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기표에 해당된 타자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불편함인 것이다. 대기표자체에는 의미가 없을 터이니 그것에 지정된 외부인이로서의 "나"의 불편한 위치에 대한 좌표적 확인인 셈이다. “그 시간에, 그 장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물”말이다.

당신은 매일 똑같은 옛길을 가다가 / 길을 가는 도중 친구를 만나보게 / 머리를 물들이고 /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해보게/난 당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놀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 내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 어느 록밴드그룹 가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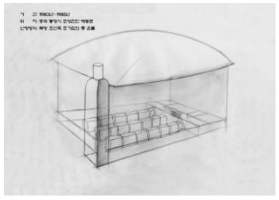
어쩜 대기표를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행위자체는 "정치"적이기도 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다른 일렬번호를 뽑을 대기표의 속성으로 말하면 이는 일년 간 그 장소 그 자리에 서성거렸을 심기가 불편한 익명의 투명인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한다. 이때 신광을 대신할수 있는 것은 무수한 투명인간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래서 어쩌겠단 말인가? 어쩜 개념미술답게 집약적인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광은 일년간 행위예술을 열심히 수행했고(그것은 무의미하기에 유의미하다) 대기표를 다시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념예술가이다(이것 또한 무의미한 대기표이기에 유의미하다). 그것은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의이기도 하다. 조선족이 한국인에게 조선족 자체가 아닌 다른 의미다발을 거느린 "조선족"으로 읽히니깐 말이다. 그들에게는 조선족이 없고 오로지 "조선족"만 일을 테니깐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겐 한국인은 없고 우리가 보는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만 존재한다. 때론 "우리"란 말 만큼 폭력적인 말도 없다. 우리란 말은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이고 그들은 그들이니깐 말이다. 우리가 그들이고 그들이 우리라면 우리와 그들이라는 범주가 붕괴되는 문법적인 혼란과 인식론적 혼란을 야기할 테니깐 말이다. 신광이 든 대기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타자적 기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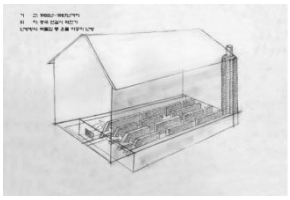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나는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신분으로 ... 나의 작업은 이러한 본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 그러나 이 이중적인 정체성은 본인이 생활하는 장소, 시간, 문화에 따라 그 성질이 바뀐다. ... 나의 복합적인 정체성은 하나로 선택되거나 고정될 수 없다. 문맥에 따라 고정될 수 없는 내 정체성의 복합성에 대한 탐구는 문화현상의 다양성, 이중성 복합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 예술가 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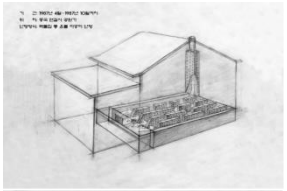
“선택되(어지)거나 고정될 수 없는 이중적 복합성”으로 놓고 말하면 이는 비단 정체성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주체성 역시 그러하다. 한국에서 생활하고는 조선족예술가이자 유학생으로서 신광의 작품은 절절하고 신실하고 급촉하다. 본디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환경적으로 그렇게 호출되어지고 불러세워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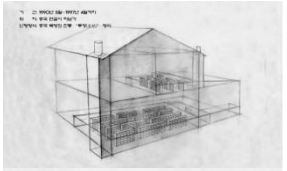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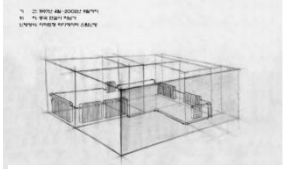
예술가는 "이주와 이사"에 대한 경험을 아래와 같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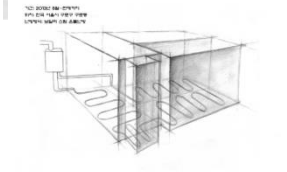












“이사”와 “이주”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본인의 이사과정은 이주를 동반한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이사와 이주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 본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두 9채의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여섯 채의 집을 거쳐 왔고 한국에서 총 세 채의 집에서 살았었다. 이 집들의 난방시스템은 지역과 시간, 문화적 특성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예술가노트 중에서

그러면서 예술가는 지루할 정도로 9개의 집의 모형을 일일이 드로잉하여 보여주고 있다. 민속박물지를 연구하는 학자나 거주공간공학을 연구하는 건축가처럼 말이다. 사실 집이란 수렵생활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정착민으로 이전하는 기표이다. 또한 근대화와 더불어서 집은 그 모양새를 끊임없이 바꿔왔다. 집은 사람은 담고 있는 그릇이니 그릇의 크기나 모양과 구조는 "내용물"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농작물을 지배하는 토지위치와 그 면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된 단층 농가집은 그 삶의 형식에 부응한 것이라면 인구가 밀집하고 사용할수 있는 땅이 유한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간으로 말하면 고층건물은 현대인의 삶을 담기에 효율적이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이주할 때 그것을 실감나게 하는 것은 거주공간의 차이와 다름이다. 그런 점에서 말하면 신광예술가는 미끄러져나가는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주자의 이동시간과 노선을 그릇의 모양새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동과 체류는 이주와 이사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예술가는 "이주를 동반한 이사"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이사도 이주도 아닌 중간 임계점 같은 것이다. 이사란 이곳에서 저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점에서 원래 거주했던 공간과의 유사절단을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 조선족은 잠시 한국으로 "이사"를 했을 뿐이다. 또한 그것은 이주일수도 없는데 이주 역시 새장소로의 집단적인 절대적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주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이동, 그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동에서 간(间)사이적 존재인 조선족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사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동일성의 원리에 근저를 둘터인데 그런 의미에서의 정체성은 포스트 모던한 삶의 내면을 이야기하기엔 무능하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신광은 거주공간의 변천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이 전통적 우주론에 속한다면 “타자인 나는 왜서 너와는 다를 수

밖에 없는가”는 맥락이 적이 다른 이야기이다. “나”는 여러 겹의 양파껍질 같은 존재이다. 까면 새로운 겹이 나아고 까고 또 까다보면 안은 텅 빈 것이다. 그러하니 우리가 물어야 할 정체성이란 어쩜 이 겹과 저 겹이 연접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어야 정확할지도 모른다. 혹은 텅빈 아이덴티티같은 것 말이다. 몇층 너머의 겹과 겹은 직접 잇닿아있지 않다. 거주공간의 진화처럼 그것은 사슬같은 고리적 관계일뿐이다. 명석한 "정체성" 이야기란 그 고리와 고리의 관계 매듭과 매듭의 이음새에 관한 질물인 것이다. 인간은 무수히 위로 소급될수 있는 오로지 아버지와 어머니이야기에 익숙할 뿐이고 무한히 아래로 이어갈수 있는 아들들과 딸들에 익숙한 것일 뿐이듯이 그 익숙함에서 "근사함의 철학과 동일성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깐 말이다.

4.

조선족 젊은 예술가들에게 유학생활은 독특한 경험이다. 물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한국에서의 조선족, 한국에 시집간 조선족여성들, 공무때문에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 등등 이들에게 외국으로서의 한국은 낯선 것인데 동시에 다른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국이기에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예술가들로 말하면 한국생활을 중국에서의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서사적 영역을 개척할 것 같은 환상을 주기에 족하다. 그만큼 우리는 차이에 민감한 것이다. 신광예술가 역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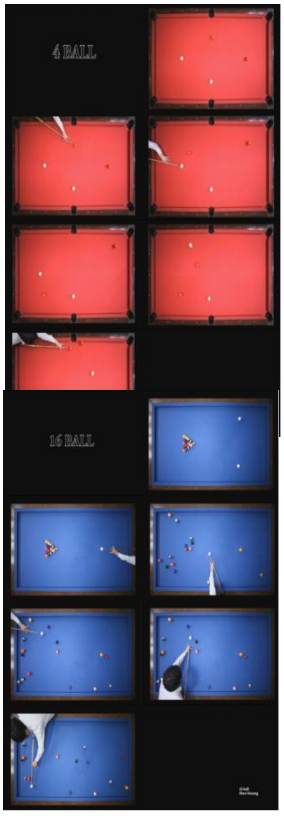
> 2007년부터 시작된 나의 한국 유학생활을 통하여 나는 한국의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은 매우 다른 교육 경험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찌 보면 상충되는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나에게는 매우 연속적인 과정으로 경험되면서 일관성, 이질성 또는 복합성에 대한 차별화된 경험과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동질감 또는 이질감에 대한 나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작업은 이분법적인 선택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공존시키면서 나의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내가 속한 지역과 문화에 이르기까지의 혼성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사례들의 긍정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 예술가노트 중에서

"예술"은 무엇인가? 아니, 예술은 무엇에 대한 연연인가? 예컨대 그것을 동시대적 맥락에서 차이에 대한 사유이고 타자에 대한 고민이고 경계에 대한 민감함이고 혼종성에 대한 사유와 구축이고 낯선 자에 대한 배려이고 다원주의에 대한 성찰이고 동시에 양가적이며... 도덕과 양심의 수치에 대한 최저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일군의 동시대) 조선족 예술가들은 때론 선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다. "우리"는 본디 차이에 민감한 자들이고 우리는 본디 타자이며 우리는 본디 경계인이며 우리는 본디 혼종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본디 다원주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본디 양가적 입장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본디 우리를 위하여 양심적 고백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던가? 전부는 아닌

한에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우리를 "조선족"으로 읽지만 전부가 아닌 한에서의 "우리"는 미안하고 불편하게도 그들의 협애한 일원주의와 이원론을 웃어줄 수 있을 만큼 비위가 막강하고 넉살이 좋은 자들이다. 또 전부는 아닌 한에서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이기주의자들이었고 눈치주의자들이었고 투기주의자들이었고 도구적 실용주의자들이었고 양반 반대항의 후예들이었고 척박한 사막에서의 구불구불한 선인장 같이 품위와 격조가 떨어지는 자들이었다. 필자는 조선족이지만 조선족의 치명적인 결점들을 혐오하며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인의 사랑스러운 점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5.

일전에 서울인사동 모전시공간에서 우연히 신광과 마주치게 되었다. 형상이 예술가 같았다. 약간은 이방인 같았고 조금은 저항자 같았고 또 불평분자와 비슷한 회의론자같아 보였다. ...얼굴은 기호이고 옷은 얼굴의 연장이고 매너나 포즈는 그 기호의 흐름들이다. 신광예술가는 기호학적으로 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경계인이었고 조금은 어딘지 모르게 이단자 같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단자이다. "이단자"란 일반적인 기호적 흐름에 배치된 자이고 배치되기를 자청하는 자이다. 파롤이란 우리의 말(랑그)을 회집하는 문법일반의 준거점이라면 그 문법라인에서 탈구된 자를 일러 예술가(상상을 요청하는 대목이지만) 내지 이단자라고 해도 될 것이다. 아울러 삶의 방식을 유희의 방식



내지 말하는 방식에 비견한다면 그것은 필연보다 우연적인 문화적 관습의 복합체이고 집약물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에 준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을 할 수 있다. 신광예술가는 게임의 다른 방식을 당구놀이에 비유한다. 놀이의 규칙, 말하기의 규칙,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16ball”과 “4ball”의 차이처럼 말이다.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16식”이던지 “4식”이던지 놀이 방식을 통일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를테면 우리는 “4식”을 원하는데 다수가 “16식”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의 방식에 맞추던지 유희장을 떠나던지 혹은 그네들이 기분이 나쁘게 딴 짓거리를 하든가 해야 한다. 그 “딴 짓거리”를 하는 자를 일러 이단자 혹은 타자 혹은 예술가들이라고 침칭하자. 상식일반에 규칙일반에 공통분모 일반에 반(反)하여 다른 방식을 말을 함으로써 통일되고 일관되고 정리된 문법에 이물질을 외삽하는 자처럼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식, 말하기의 방식, 유희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도록 다른지를 알 수 있듯이 그만큼 다수의 관성적인 힘으로 수행한 유희의 게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16ball>은 원 <4구>당구대 위에서 <포켓볼> 공으로 게임을 한다. 공은 1~15의 숫자로 된 15개의 칼라공과 하나의 흰색 수구(큐로 타격하는 공)가 있다. ... <4ball>은 원 <포켓볼>의 당구대 위에서 <4구> 공으로 게임을 한다. 공은 2개의 빨간 공과 2개의 흰 공이 있다. ... 적구를 구멍에 넣지 못하거나 적구가 정한 순서대로 구멍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예술가노트 중에서

6.

이주와 이사사이에서 신광은 혼종적이고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보면 예술가가 잡다한 물건들을 뒤섞는 목적은 명확하게 혼종적이고 양가적이고 분열증적이다.

이 작업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작가포함)의 협업작업이다. 8개 나라에서 한국에 이주를 한 이주민들이 그들이 고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중 ... 또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을 뒤섞어 보여준다. 개인에게 있어 이주라는 경험은 문화적인 교집합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개인은 형성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하면서 그 개인은 필연적으로 두 문화의 혼성적인 교집합으로 변화하게 된다....참여자국적: 몽골-KHISHIG DALAI, 우즈베키스탄-PARK ANNA, 방글라데시-MD.PARVEZ HOSSAIN, 필리핀-MA.RIZA ANNA O.SUMAYOD, 인도네시아-RISA NOVIANA, 베트남-SEO NA RAE, 캄보디아-JI DAHEE, 중국-SHEN GUANG - 예술가노트 중에서

7.

신광은 개념미술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냐고, 조선족은 무엇이 아닌 한에서의 어떤 잉여적 존재냐고 묻고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개념미술은 "개념"에 대한 단단한 파악능력을 근간으로 한다. 평범한 사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인 사물로 의미론적 전이시킬 수 있는 힘, 논리적 투명성과 사유의 점프능력, 모래알 무늬에서 잘못된 우주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저력, 논리적 사변능력, 양가적인 서사구성능력 ... 등등을 말이다. 전통적인 예술이 “보여주기”라면 개념예술은 “말하기”인 것이다. 신광예술가는 일일이 서술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유의 핵심을 날카롭게 횡단하는 서슬 푸름에서 강도가 조금 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열증적인 정체성과 상황과 문맥속에서 부단히 미끄러지고 움직이는 아이덴티티라는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에 대한 비본질적이고 혼성적이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2 홈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 - 최명[3]의 서사

이성을 단순한 도구로 환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지어 이성의 도구적 성격까지 훼손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비판》

1.

최명은 비틀어지고 착종된 숫자와 잣대로 올바르고 정확한 수자의 폭력성을 비판한다. 조금 논의를 더 확장시키면 주체가 사실 얼마나 숫자적이고 잣대적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잣대와 수치의 폭력 속에서 그 폭력을 벗어나길 꿈꾸는 자는, 그 꿈이 불가능한줄 알기에 자꾸 말해야만 되는 것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2.

시민사회는 "등가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시민사회는 "동일하지 않은 것"을 "추상적인 크기"로 환산함으로써 비교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계몽"에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것,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이 "가상(Schein)"으로 여겨진다.[4]

"숫자" 란 근대성, 합리성, 계몽주의 및 소비사회에 대한 하나의 완전하고 성공적인 은유이다. "수", 그것은 계산가능 할뿐만 아니라 고도의 이성을 내포한 상징적이고 실사적인 완정한 개념이다. 인간의 역사가 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면 근대적 지평안에서 계산 가능한것만 실체적 존재가 된다. 인문과학과 달리 수에는 어떤 다원주의적 상대성이 존재하기 힘들다. 즉 3에 7을 더하면 시간과 공간과 문화에 상관없이 10인 것이다..... 수는 진리에 대한 완벽한 은유이고 이성에 대한 종교적 확신과 계산 가능한 세계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상징하기에 족하다.

수학은 물질의 관계들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물질 그 자체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개의치 않고 불변하는 관계들, 결코 변하지 않은 관계들을 연구한다.[5]

"수" 안에는 어떤 비동일자도 들어서지 못한다. 끊임없는 동일자에로의 환원만 가능할 뿐이다. 그것은 빈틈없이 철저하기에 항상 "합리"적이며 그 합리성으로 인하여 자주 불합리하다. "수" 앞에서는 어떤 신비적 경이나 이해불가한 신비함이 없다. 모든 것이 두께, 너비, 무게, 체적...등으로 계산가능한 것들이듯이 명료하고 판명한 것이다. 충분히 증명

[3] 최명(崔明): 201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中国青年艺术家++展>, (북경, 2015년),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 2014년), <예술의 전당 부스전>, (서울, 2014년), <그룹 전 쑹좡A+A갤러리>, (북경, 2012년)등을 포함하여 다수 단체전 참가 외 개인전 수차. 연변대학교에 2018년 9월부터 재직하게 된다.
[4] Th.W.아도르노,M. 호르크하이머, 김유동, <계몽의 개념>,『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4년, p.28.
[5] 가라타니 고진, 김재희, <건축에의 의지>,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출판사, 2007년, p.71.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계산가능하고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준하여 하나의 돌맹이, 하나의 풀잎파리, 한줌의 흙,...거기에는 어떠한 신비한 것이 들어설 틈이 없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독일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계산 가능"한 이였다. 하루에 얼마나 학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유대인 말살프로젝트는 "완성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합리주의의 또 다른 양태로서의 "도구적 이성"의 극단적인 예이기도 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는 현대사회의 이성 개념을 "주관적 이성"으로 파악 하면서, 그것의 특점을 목적과 관계없이 그 목적에 가장 정합한 방법과 수단을 찾는데 초점을 둔 이성으로 파악한다.[6]

> 이성의 중성화는 객관적 내용과 그것을 판단하는 힘과의 모든 관계를 이성에서 제거 하는 것이며, "무엇" 보다도 "어떻게"를 다루는 수행능력으로 이성을 격하시킨다. 이러한 이성의 중성화는 점점 더 정도를 높여가며 이성을 단순히 사실을 정돈하기 위한 필요한 둔감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다.... 이성은 자신의 주관성을 형성하는 본질을 상실한다.[7]

그러하다면 이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성의 본래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압축적으로 말했듯이 이성의 힘이란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

> 스스로를 완전히 자각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계몽만이 계몽의 한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8]

이성이란 스스로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힘이듯이 편협한 이성 자체를 비판하고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에서 만이 참된 이성인 것이다. 내재적으로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그 부정성에 이성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부정성" 으로 보자면 "수"적 이성 혹은 "도구적 이성비판" 으로 환언하여 읽을 수 있는 최명의 일계열 작품은 근대(현대)적 지평 안에서의 탈근대(후기현대)적 작품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직도 "수"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므로 "수" 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말해져야 하고 이성과 계몽의 한계는 지속적으로 담론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최명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수"와 "홈" 에 있다....그럼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

[6] 막스 호르크하이머, 박구용, <목적과 수단>, 『도구적 이성비판』, 문예출판사, 2006년, pp.16-84. 목적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로지 효과적이고 효률적인 달성여부에 집중하는 이성으로 말하면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대인"이였다. 아렌트는 이러한 아이히만에게서 세가지 무능성을 주목하였다. 그것은 말하기의 무능성(inability to speak), 생각의 무능성(inability to think), 타인과 치환불가능한 생각의 무능성 즉 판단의 무능성이다.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년, p.106.

[7] 막스 호르크하이머, 동상서, p.82.

[8] 막스 호르크하이머, 동상서, p.311.

3.

화가는 <心-standard>에서 마음의 “기준, 표준, 규격(standard)”을 묻고 있다. 심장을 “마음”으로 치환해서 읽는다면 마음의 “기준과 표준과 규격”이란 무엇인가? 왠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마음이라면 “수순”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계산 가능한 규격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계산 가능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규격이란 무엇인가? 상품경제사회에서 말하면 그것은 “재물” 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도구적 이성”으로 총명하고 영민하다. 모든 것이 계산가능한 것이다. ... 작품 <남자와 여자-standard>를 보면 사랑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짙게 묻어나오는 것 같다. 계산 가능한 사랑만이 믿을만한 “사랑”인 것이다. 사랑다운 사랑은 “사랑”밖의 사랑인 것이다. “사랑”이란 사랑을 가리는 면사포이기에 참된 “사랑”인 것이다. 참되게 제구실을 잘한다는 것은 계산 가능한 그 수치를 극대화 시킬 줄 아는 것이다. 계산 가능한 수치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판명하다. 사랑을 느끼고 드러내는 수평적인 관계나 그 대화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수치적 변환관계에 따라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적 존재로 누군가는 전락되기 십상이다. “수” 의 마력은 파격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홈”은 블랙홀처럼 강력한 것이다. 돈(에 파인 홈)에는 “아무런 인격도 색채도” 없기에 그것으로 사랑을 포함한 이 다양한 우주를 골고루 그리고 올바르게 측량할 수 있다....(돈이 주는) 자유란 (그) 구속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 ... 이처럼(돈은-필자) 그 자체로 아무런 인격도, 색채도 지니지 않은 덕분에-이는 다른 모든 특정한 가치와 달리 돈에 특유한 것이며 또한 점점 더 다양한 사물을 측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문화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양할 것이다- 돈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9].

[9] 게오르그 짐멜, 김영덕, 윤미애, <현대문화에서의 돈>,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년, p.14. 저자는 인용문의 상하맥락 속에서 봉건체제에 대한 돈의 해제적“공헌”을 이야기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것을 부정적 뉘앙스로 활용하였다. “공헌”과 물화(物化)적 피폐화는 동전의 양면일터이니 말이다.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보자. “최초의 모나리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뒤집은 작품이다. 최초의 여성이란 얼굴이 못나도 괜찮고 몸의 비례가 시각적으로 불편해도 괜찮았다.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커서 아기만 잘 낳으면" 최고의 비너스였으니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다산(多产)은 다른 일체의 문제를 모두 압도하는 것이었다. 최명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태초의 비너스에 돈($)도 들어오고 종교적 기호(예수나 부처상)도 들어가고 악마(사탄적인 뱀의 형상)도 틈입하고 ... 붉은 색으로 말하면 중국의 것이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그것을 측정하는 수열 역시 “ 엉망진창 ” 이긴 마찬가지이다. 1-2-3-50-100-133-132-2-200....혼돈과 무질서가 질서에 선행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도구적이성의 무능을 역설 하는것 일까. 탈주술화에 압살당하는 원시 신화를 이야기 하고 싶은것 인가.

> 그러나 계몽의 제물이 된 “신화” 자체도 이미 계몽의 산물이었다. 일어난 사건을 과학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신화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제거된다. 신화는 보고하고 이름붙이고 근원을 말하지만 이로써 기술하고 확정하고 설명하는 것이다.[10]

신화가 다시 계몽적으로 읽혀지는 한에서 신화이듯이 신화가 아님으로 인하여 그것은 신화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화가는 이에 대하여 조금 다른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이는...자본이 다산에까지 개입되어도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허물어버린 것에 대한 작품입니다. 여성의 생리본능에 까지 깊숙이 자리 박혀 도덕과 윤리를 저울질 하는 것을 다산의 상징비너스로 표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13일, 저녁8:45분 인터뷰내용 중)

말하자면 원시 비너스의 “다산” 을 빌려서 (패로디하여) 주체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욕망, 제어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을 공격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해석하는 것이다. 화가의 표현을 빌리면 “여성의 생리본능”까지 상품화된 불우한 사회에 대한 회한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적인 것이나 생리적인 것은 자본의 다산적 증식에 참여(이용)하기에 제일 적절할법한 선호품목이기도 하다....

[10] Th. W. 아도르노, M. 호르크하이머, 동상서, p.28.

4.

『천재는 좌측에 미치광이는 우측에 (天才在左疯子在右)』라는 중국에서 처음 출판된 정신병자와의 대화록 책자가 있다. 소위 "천재"와 "미치광이"는 간발의 차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때론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이름하여 진정성을 구유한 예술가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신병환자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이름을 빌어 "-척"할 수 있고 그"-척"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을 대단히 무자비하게 해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 삶같이"가 아니라 "삶이 예술같이" 될 수도 있다. 예술가가 핍진하고 극진히"-척"하면 유사 천재적 부류에 들지 그 반대항으로 분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명도 그"-척"에 재능 있는 예술가이다....작품 <자아 시리즈>를 보면 예술가는 진작 괴물이 되어버렸다. "숫자"속에 포위되어 "잣대"속에 침몰 되고"홈" 속에 처박혀 "인간도 괴물도 아닌" 사이적 존재로 되었다. 화가는 묻고 있다: 들리나요?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화가는 왜서 무엇 때문에 괴물같은 자화상을 제작해야 하는지, 왜서 "미친" 척 하는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예술가는 "미친"잣대로 재고 또 잴 것이며 여기저기에 "홈" 을 "미친 듯이" 파고 또 팔 것이다.

> 분형기하(分形几何)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모래 한 알을 찾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면 그것의 요철이 실은 산맥을 응축한 것입니다. ... 또 지금 원자내부의 결구와 우주의 그것과 같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거대한 것이든 세미한 것이든 모두 일정의 분형(分形)결구의 유사유형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 나는 미쳤습니다. ... 사람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화초수목이나 동물과 곤충과 동일결구구조입니다. 사람두뇌신경의 분형(分形)비례와 물고기의 뇌신경분형비례는 어떠한 구별도 없습니다. 왜서 이 부분은 진화를 안 한답니까....나는 이 문제 때문에 미쳤습니다.[11]

이상은 어느 생물학자의 "정신착락증세"의 발병 원인과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당사자는 "보편내재적인 거대한 진리"를 발견했고 또 어디에서나 모두 확인하는 진리적 경이 때문에 주체가 붕괴되는 사태를 리얼하게 보여준 것이다.... "보편내재적 원리"로 말하면 모두 동일한 사유결구인데 생물학자는 불행하고 우리 예술가는 행운스러운 것이다. 말하자면 예술가에게서의 진리란 연기된 환영 혹은 허구라는 등가물적 기제를 통하

[11] 高铭, <永不停歇的心脏>, 『天才在左, 疯子在右』, 北京联合出版公司, 2016年版, pp.187、188、189、191.

여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발화되는 대신 생물학자에게는 모든 것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발언과 그 수행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세상을 상식에 위배되게 읽음으로써 상식일반이 내재한 비상식성을 충분히 전복시킬 수 있다. 예술의 또 다른 힘과 전복성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5.

최명은 잣대(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명석판명함을 부정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우리”는 모더니즘적 담론 안에서 항상 선명함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왔다. 최명은 그 판명함을 지움으로써 흐릿한 경계, 선명함의 폭력을 이야기한다.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린 숫자들, 위계들, 원리들, ... 예술은 불가능한 가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틀린 잣대와 뒤틀린 수자로 얽혀버린 얼굴, 그것은 틀렸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일말의 회의도 없이 항상 맞(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항상 맞(다고 하)는 것만 지향하고 항상 맞(다고 하)는 것만 확신하고 그 “맞음”의 폭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틀렸”다고 규제되어진 것들이 강제 사산되었을까. 분명한 예술이 흐릿해질 때 일관적인 주체성이 탈각될 때 혹여 내일 아침의 태양이 다른 모습으로 유리창을 만지지는 않을까.

2.3 흐릿한 분명함- 황호빈[12]의 서사

> 우리는 오히려 "불안"에, 즉 경계의 불안정성에 머물러야 한다. 어디에 명료한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들이 다른 "세계", 다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확정지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 가라타니 고진 <세계의 경계>, 《탐구 1》

1.

황호빈의 작품은 “성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충" 비벼서 얼버무리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피부의 돌기처럼 불그스럼하게 융기되어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그렇게 연기해 보이는 "영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울에 비뚤비뚤하게 새겨 넣은 낙서미술을 연상시키는 작품도 그러한데 젊은이는 아래와 같이 아주 대충,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적고 있다.

---

[12] 황호빈(黃豪斌): 충북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과 석사와 학사. 개인전으로는 <낄 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년), <컵 속에서>, (연변대학교미술관, 연길, 2013년), <다중노출-도시와 빌딩>, (연변대학교미술관, 연길, 2012년), <Multiple Exposure>, (충북대학교미술관, 청주, 2012년)등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공주 국제미술제 프리뷰쇼>, (임립미술관, 공주, 2015년), <On The Island, Gallery Burgeum>, (제주도, 2015년), <Warming Up>, (청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5년), <두개의 시선>, (스페이스 세이, 서울, 2014년), <부산비엔날레 아시안큐레토리얼전>, (수영공장, 부산, 2014년), <여생구래(与生俱来)>,(HONG STUDIO, 북경, 2014년)외 다수 그룹전과 초대전이 있다.

안 믿어 난 너를(?) 찾아야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나랑 달랐어 나는 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영원히 나의 뒤통수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얘기네 ... 너는 나를 보... 말했 ...그래 ...내가 아니 ... 너는 존재하 ... - 예술가노트 중에서

젊은 예술가는 거울에 흰 물감이 아닌 백묵(쉽게 지워지는 물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이 그대로 줄줄 품위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의 “속심 말”을 적고 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비어같은 것이다. 무엇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아님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런 내가 상대방인 너를 느낄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제3의 음성같은 것을 끌어들이면서 너를 느끼는 나의 존재자체를 부정한다. 나의 뒤통수를 내 눈으로 보(볼수 없)는 것과 같이 넌 내가 느낄 수 없는 존재라고 중얼거린다. 베케트의 『이름 붙일수 없는 자』에서 이런 글이 나온다.

나와 함께, 전 우주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기이고, 벽이며, 유폐된 자야, 모든 것이 버티지 못하고, 열리고, 흘러나오기도 하고, 역류해 들어가기도 해, 여러 작은 덩어리들,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그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나야.... 단어들, 내가 그 모든 단어들이야, 그 모든 낯선 단어들, 먼지 같은 그 말들이 다 나냐, 내려앉을 바닥도 없고, 흩날릴 하늘도 없는데도 말을 하려고 서로 충돌하고, ... [13]

“엇갈리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는 분리되기도 하는”그러한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수 “들”이다. 즉 나는 하나가 아닌 복수적 존재이고 또한 낯선 단어이다. 나는 단어이다. 먼지같은 말들이다. 내려앉을 곳도 흩날릴 하늘도 없는 그러면서 말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공기이며 벽이며 또 유폐된 그 무엇이다. ... 우리의 황호빈은 거울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물감이며 말의 아귀를 아직 맞추지 못한 존재이며 횡설수설하는 낱말들의 무작위한 조합이며 ...

2.

거울이란 아주 신비한 물건이다. 그것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것만큼 뒤집어졌기에 착종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찌 알겠는가. 거울의 발명만큼 위대한

[13] **사뮈엘 베케트, 전승화,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워크룸프레스, 2016년, p.153.**

것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거울"은 자신의 경계를 묻는 황호빈에게 확실히 정확하다. 그것은 익숙한 것만큼 낯선 것이다. 나의 모습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것인데 또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다면 익숙한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지만은 아닐 것이다. 황호빈은 이렇게 작가노트에 적고 있다. ...

>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몹시 생소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사지가 성장을 멈춘 현재, 그 생소함의 기억은 슬그머니 커졌다. / 그것은 이제 내 앞에 가로 막아 선다. / 모든 것의 의미를 소거해버리는 무기력함, / 존재의 가치를 잃어 소멸될 듯한 극심한 불안, /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 예술가노트 중에서

어느날 문득 "자신의 낯선 모습"을 발견한 젊은 예술가, 그것은 거울 안에 있는, 거울 밖의 자기 자신이었다. 낯 설은 "몸"("사지가 성장을 멈춘 현재")은 성장을 재촉하는 거대한 부채처럼 예술가를 성장시킨다. 앞을 가로 막는 그것, 나의 또 다른 나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하도 강력한 것이고 동시에 익명적인 것이라서 예술가를 "무기력함"과 "극심한 불안"의 음악 그 혼돈 속에 끌어넣는다. 그러나 동시에 화가의 질문은 아주 근대적이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묻는 말하자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테제인 것이다. 오래된 현재인 셈이다.

> 시험에 들게 되었다. / 너는 네가 누군지 아느냐? / 너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 그 질문들을 되뇌어 봐도 답할 길을 찾기 어려웠다. - 예술가노트 중에서

화가는 동시에 곧 영민한 반전을 보여준다. 아주 진지하게 근대적인 아이덴티티를 묻다가 갑자기 그것이 "일개의 표본"임을 다 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표본이 된 나"를 관찰하는 자로써 지금 거울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분열증적인 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열함으로써 유리벽 안에 있는 표본과 그러한 표본을 보여(관찰)주는 나 사이의 간격을 벌려서 보여주는 것이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문을 세상에 다시 물어보는 것뿐이었다. / 일개의 표본으로써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찰 ... - 예술가노트 중에서

물론 이는 시어 따위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거울위에 흘러내리는 물감으로 독자에게 다가오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적 차원에서 아주 대충 문질러 놓는다는 자체가 텍스트의 함의를 역설적으로 가강시키는 것이다. 그 텍스트는 물성(物性)적이면서 언어적이면서 동시에 자조적이면서 오기에 넘쳐난 것이다. ... 그렇듯 황호빈의 작품은 애매모호하고 양가적이고 중층적이다.

3.

비몽사몽 속에서 "글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나름대로 파격적인데, 왜냐하면 글이란 대저 의식적인 활동이듯이 예술도 통상 "정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동기술법은 이야기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유롭다.) 젊은 예술가는 그러한 의식적인 예술에 대하여 반어적으로 묻고 싶어서 잠자듯이 글 쓰고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작금의 주위세계에 에포케하듯이 그것은 의미보류의 대상인 것이다. 훗설식의 현상학적 에포케는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면 황호빈에게 그것은 답안이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본디 답안이 없다. 그래서 답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찾기 자체가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잠자면서 쓰는 글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 이를테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의미)일까? 의미 없는 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의미 없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의 반대 항에 거하기에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당신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왜서 굳이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잘났”으니 난 그 심오한 도리를 전연 모르겠고 그러하니 난 차라리 누워서 텍스트를 구성하겠다. ... 그러므로 무의미, 의미 없음은 그 의미 없음으로 인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상당한 연기력을 보이는 황호빈의 일련의 제스처는 그대로 텍스트를 읽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함정을 파놓고 젊은이는 함정 저쪽 켠에서 즐겁게 웃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의 웃음은 항상 익살맞고 "음험"하고 신비하다. 그래서 진지함을 넘어서는 진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 내가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물들 현실들 느낌들...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가 흥미롭다. ... - 예술가노트 중에서

기존의 의미가 부정될 때 그래서 말할수 없이 창백해질 때, 그 자체가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주 긴장한 자장인데 내가 살면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식하라

고 부여되는 의미자장에서의 나와 거리를 줌으로써 의미가 획득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미롭다". 어쨌거나 ...

4.

분명히 부재하는 나를 찾기 위한 허황된 몸부림, 젊은이는 그것이 허황된 것임을 번연히 알면서 지꿎게 장난하고 희화화하고 또 그 유희에 과잉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개의 나를 보여주는 거울을 매개로 한 작품도 그러하다. 바라보는 나와 연기하는 나처럼, 하나의 나를 두 개로 분열시켜 자기가 올바르게 연기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황호빈의 말대로 하면 "그 과정이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과정"인 것이다.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행위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마주한 두 개의 나는 에셔의 관련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는 대상과 그려지는 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려지는 대상이면서 그리는 대상이기도 하다. 내부적인 순환관계구조인 것이다. 거울을 마주하면서 그리는 자는 그 그려진 자를 통하여 자기를 인식한다. 황호빈에게 있어서 두 장면은 일치하지 않기에 어느 것이 거울 속 이미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에셔의 두 손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 어느 것이 그리는 손이고 어느 것이 그려지는 손이란 말인가. 황호빈은 에셔의 것보다 다르게 재현 자체가 불가능한 유희라고 더 힘차게 역설하는 것 같다. ... 전통적인 구조라면 그리는 자와 그려지는 자는 완벽한 하나이다. 재현적 인식이란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적 재현장치와의 유비관계 속에서만 황호빈의 거울 작품은 심각한 자기 자장적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이런 모순적(불가능한 것을 알기에)이고 연기적(분열증적이기에)인 정체성을 묻는 작업을 황호빈은 몇해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튜브를 온몸에 감고 전시장을 엽기토끼처럼 뛰어다니는 작업 역시 그러하다. 이 작업 또한 지극히 은유적인데 삶의 곤경을 튜브 속에 싸인 신체적 상황으로 숨막히고 동시에 귀엽게 드러내 보인다. 튜브가 존재적 상황이라면 존재적 상황이 많은 경우 존재자체를 선행한다고 할 때 튜브가 곧 너나 나다. 한

국의 모 평론가는 튜브작업을 이렇게 읽었다.

> 포스트모던 논의가 한참 진행된 한국의 미술상황에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황호빈에게는 자신의 위치와 삶의 방향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온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작업의 바탕이 되고 있다.... - 서준호, <"낄夾협" 틈을 벌리다> 중에서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적 논의를 경과한 한국적 상황으로써 그것이 철 지난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은 상황적으로 맞을 터인데, 그러나 논자는 황호빈의 작업을 너무 일의적으로 즉 너무 단순하고 진지하게 읽은 것 같다. 황호빈은 연기적이고 분열증적이다. 그는 어쩜 "표본"(위에서의 언급처럼)으로서의 자기를 타자화시켜 들여다보기를 즐기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 "튜브수트" 작업은 자신이 처한 다층적인 사회적 정치적 상황아래 소수민족으로서의 방어기재가 작동된 작업으로 생각된다. ... 자본주의 아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자립문제와 작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뒤엉켜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으로 ...- 서준호, <"낄夾협" 틈을 벌리다> 중에서

물론 읽기는 자유이다. 아울러 이하는 당연히 코빼기도 모르는 서모모를 겨냥한 말이 아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조선족의 작품을 가독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대목을 짚어봄으로써 젊은 예술가의 작품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곤경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는 "튜브"를 조선족이 안고 있는 문제로 간단히 치환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튜브는 그들에게 “조선족적”인의 것이다. 한국인작가들은 자본주의 상황아래에서 경제적 자립문제로 누구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한 회의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황호빈은 생각보다 한참 영민한 젊은이다. 예술은 어디까지나 연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연기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실을 훨씬 자유롭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그네들은 얼마나 연기적이고 천연덕스럽고 "뻔뻔"스러운가. 그 극단화된 연기를 통하여 삶의 무게와 깊이는 가벼운 형식으로 무겁게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튜브는 익살스럽기에 무거울 터인데 그렇다고 그 무거움에 너무 빠지면 연기의 연기성을 망각한 것이 되기도 한다.

3. 결말

이상으로 관련 예술가 세명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당연히 표현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한 특질로는 선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탐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간(间)사이적 정체성, 혹은 탈(脱) 아이덴티티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식론적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광은 문화와 제도적 상황 속에서 제조되고 가변하는 정체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주목한다면, 최명은 현대소비사회에서 분해되는 주체성의 위치에 주목함과 동시에 유사 재구성을 저 멀리에서부터 욕망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보였다면, 황호빈은 몽롱하고 흐릿흐릿한 “나 자신”을 연기적으로 이야기한다. 동시에 그들의 예술은 또한 애매하고 민감하며 진솔하다. 독백적 서사구조로 놓고 말하면 황호빈의 것과는 상대적으로 신광과 최명의 작품결구는 사회적이다. 물론 독백구조 역시 사회적 산물이다. 아울러 이들은 큰 이야기보다 시시한 이야기를 진실하게 욕망하면서 혼성적 주체 혹은 흐릿한 아이덴티티의 지평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상응한 주목을 요청한다.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김재희, <건축에의 의지>, 『은유로서의 건축』, 한나래출판사, 2007년

게오르그 짐멜, 김영덕, 윤미애, <현대문화에서의 돈>,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년

막스 호르크하이머, 박구용, 『도구적 이성비판』, 문예출판사, 2006년

사뮈엘 베케트, 전승화,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워크룸프레스, 2016년

신광, 최명, 황호빈, 관련 전시도록 및 작가노트

Th.W.아도르노,M. 호르크하이머, 김유동, <계몽의 개념>,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4년

高铭, <永不停歇的心脏>, 『天才在左, 疯子在右』, 北京联合出版公司, 2016年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이해와 언어 외적 요인의 상관성에 대한 통계 분석

이해영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구어 의사소통에서 듣기 능력은 중요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난이도 높은 어휘와 문법, 발음이나 속도는 물론 말하는 습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화용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 듣기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나 듣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와 같은 언어적 지식의 부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듣기 이해는 청자가 어휘의 뜻, 문법적 구조, 강세, 억양 등을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 이해에 있어 언어 지식 못지않게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s),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 매우 중요하다(Brown, 2007:16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듣기 교육과 관련한 지난 5년간의 한국에서의 연구를 정의적 측면, 인지적 측면 등 언어 외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이해영,2016). 이에 본 연구는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정의적 요인인 듣기 효능감과 듣기 불안, 인지적 요인인 듣기의 인지 전략, 그리고 상황적 요인인 한국어 노출 시간과 듣기 이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해영,박지연(2017), 신선경(2013)의 결과를 반영하여 듣기 전략 중에서는 인지 전략만을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의적 요인의 하나인 성격적 요인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력 사용, 노출 시간, 성격 유형은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2]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 성격 유형은 듣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1]에서는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이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듣기 이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본다. [연구 문제2]에서는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관성을 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 봄으로써 듣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양적 연구를 위한 측정의 편의성으로 인해, 듣기 이해는 듣기 평가 점수로 측정된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실제의 면대면 상황에서 기대되는 것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1) 듣기 효능감 연구: 이해영, 박지연(2017)
(2) 듣기 전략 연구: 김은정(2002), 한수민(2012), 신선경(2013), 이해영, 박지연(2017)
(3) 듣기 불안: 한인숙(2014), 이해영, 박지연(2017)
(4) 듣기 노출: 이순영(2009), 이해영, 박지연(2017)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 가지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요인 간의 영향력의 차이나 상관성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3. 연구 방법

(1) 실험 참여자: 중국의 대학교 한국어 전공 2학년 학생 61명
(2) 측정 도구로는 실험 도구로 듣기 능력 측정 도구(공인된 시험), 듣기 효능감 설문지(Cronbach α=.942), 듣기 불안 설문지(Cronbach α=.901), 듣기 인지 전략 설문지(Cronbach α=.669), 듣기 노출 설문지(주관식 기재, 대화와 방송 시청 시간 합산), 성격 유형 검사(국제 MBTI 테스트를 공인 온라인 테스트)
(3) 통계 분석 방법: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두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

4. 연구 결과

4.1.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요인

[연구 문제1]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력 사용, 노출 시간, 성격 유형은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 1]은 영향을 주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문제이다. 먼저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이 각각 듣기 점수로 측정된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Pearson의 상관분석(*n*=61)

		듣기 점수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
듣기 점수	Pearson 상관계수	1	.392**	-.250	.147	.301*
	유의수준(양쪽)		.002	.052	.259	.018
	N	61	61	61	61	61
듣기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392**	1	-.534**	.594**	.152
	유의수준(양쪽)	.002		.000	.000	.242
	N	61	61	61	61	61
듣기 불안	Pearson 상관계수	-.250	-.534**	1	-.123	-.134
	유의수준(양쪽)	.052	.000		.344	.305
	N	61	61	61	61	61
인지 전략	Pearson 상관계수	.147	.594**	-.123	1	.226
	유의수준(양쪽)	.259	.000	.344		.080
	N	61	61	61	61	61
노출 시간	Pearson 상관계수	.301*	.152	-.134	.226	1
	유의수준(양쪽)	.018	.242	.305	.080	
	N	61	61	61	61	61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점수와 듣기 효능감(r = .392, p = .002), 듣기 점수와 듣기 노출시간(r = .301, p = .018) 사이의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험 참여자인 중국인 대학생들의 듣기 이해 여부는 듣기 효능감과 노출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는 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해영,박지연, 2017)와 동일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듣기에 대한 효능감과 (후술 되겠으나 이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노출 시간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듣기 효능감과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역시 후술될 예정이다.

다음의 <표2,3>은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6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119.774	4	29.943	4.344	.004
잔차	385.997	56	6.893		
총계	505.770	60			
R^2(adj R^2) = .237(.182)					

<표3> 중다회귀분석(*n*=61)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듣기 점수	(상수)	18.143	3.681		3.497	.001
	듣기 효능감	.105	.039	.476	2.676	.010
	듣기 불안	.004	.039	.017	.115	.909
	인지 전략	-.112	.088	-.197	-1.273	.208
	노출 시간	.095	.041	.276	2.283	.026

<표2>는 네 개의 독립변수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이 한국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네 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F 통계값은 4.344, 유의확률은 .004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총 변화량의 24%(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1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3>에 따르면 듣기 효능감(t=2.676, 표준화계수=.476), 듣기 노출(t=2.283, 표준화계수=.276)의 순서로 듣기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구 문제1]에서 알아보는 것은 성격 유형에 따른 듣기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로 관련 표는 <표4,5>이다. [연구 문제 1]이 여러 요인들이 듣기 점수로 표현된 듣기 이해에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성격 유형은 연속 변수인 다른 변수들과 다르게 명목 변수이다. 따라서 성격 유형은 다른 요인과 별도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4>는 기술통계를, <표5>는 두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표이다.

<표4>성격 유형에 따른 듣기 이해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E(외향)-I(내향)	E(외향)	18	16.67	2.473	.583
	I(내향)	43	16.65	3.093	.472
S(감각)-N(직관)	S(감각)	31	16.35	2.823	.507
	N(직관)	30	16.97	3.000	.548
T(사고)-F(감정)	T(사고)	15	17.20	2.624	.678
	F(감정)	46	16.48	2.994	.441
J(판단)-P(인식)	J(판단)	25	16.56	2.219	.444
	P(인식)	36	16.72	3.326	.554

<표5>성격 유형에 따른 듣기 이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n*=61)

	Levene 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E(외향)-I(내향)	1.311	.257	.019	59	.985	.016	.822
S(감각)-N(직관)	.186	.668	-.821	59	.415	-.612	.746
T(사고)-F(감정)	.111	.740	.834	59	.408	.722	.865
J(판단)-P(인식)	3.891	.053	-.213	59	.832	-.162	.762

<표 4, 5>를 보면, 기술통계에서 미세한 점수 차이가 있으나 큰 의미가 없으며, 외향적인 학생이 더 잘 듣는다든지, 내향적인 학생이 잘 못 듣는다든지 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다른 성격 유형 간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E(외향)-I(내향), S(감각)-N(직관), T(사고)-F(감정), J(판단)-P(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2. 듣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요인

[연구 문제2]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 성격 유형은 듣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이 듣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Pearson의 상관분석(*n*=61)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시간
듣기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1	-.534**	.594**	.152
	유의수준(양쪽)		.000	.000	.242
	N	61	61	61	61
듣기 불안	Pearson 상관계수	-.534**	1	-.123	-.134
	유의수준(양쪽)	.000		.344	.305
	N	61	61	61	61
인지 전략	Pearson 상관계수	.594**	-.123	1	.226
	유의수준(양쪽)	.000	.344		.080
	N	61	61	61	61
노출 시간	Pearson 상관계수	.152	-.134	.226	1
	유의수준(양쪽)	.242	.305	.080	
	N	61	61	61	61

상관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효능감과 듣기 불안(r = −.534, p = .000), 듣기

효능감과인지 전략(r = .594, p = .000) 사이의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듣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듣기 효능감을 높여야 하고, 또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듣기 전략 교육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고 듣기 불안을 낮추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어휘 문법 중심의 세부 내용 파악에 중점을 준 듣기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7,8>은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6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5923.281	3	1974.427	25.146	.000
잔차	4475.473	57	78.517		
총계	10398.754	60			
R^2(adj R^2) = .570(.547)					

<표8> 중다회귀분석(n=61)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듣기 효능감	(상수)	50.177	10.496		4.781	.000
	듣기 불안	-.568	.106	-.471	-5.348	.000
	인지 전략	1.401	.231	.544	6.070	.000
	노출 시간	-.053	.140	-.034	-.379	.706

<표7>은 세 개의 독립변수 듣기 불안, 인지 전략, 노출 시간이 듣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세 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F 통계값은 25.14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 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총 변화량의 57%(수정된 결정 계수에 의하면 5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8>에 따르면 인지 전략이 듣기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t=6.070, p=.000, 표준화계수=.544), 듣기 불안 역시 듣기 효능감에 (t=-5.348, p=.000, 표준화계수=-.47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성격 유형에 따라 듣기 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표 9,10>과 같다. <표9>는 기술통계를, <표10>은 두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표이다.

<표9>성격 유형에 따른 듣기 효능감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E(외향)-I(내향)	E(외향)	18	61.89	12.194	2.874
	I(내향)	43	62.63	13.684	2.087
S(감각)-N(직관)	S(감각)	31	58.19	10.706	1.923
	N(직관)	30	66.77	14.190	2.591
T(사고)-F(감정)	T(사고)	15	66.93	13.557	3.500
	F(감정)	46	60.93	12.840	1.893
J(판단)-P(인식)	J(판단)	25	60.88	12.706	2.541
	P(인식)	36	63.47	13.549	2.258

<표10>성격 유형에 따른 듣기 효능감의 두 독립표본 t검정(n=61)

	Levene 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E(외향)-I(내향)	.801	.374	-.198	59	.843	-.739	3.726
S(감각)-N(직관)	3.775	.057	-2.669	59	.010	-8.573	3.212
T(사고)-F(감정)	.079	.780	1.550	59	.126	5.999	3.869
J(판단)-P(인식)	.012	.913	-.754	59	.454	-2.592	3.440

위의 <표 10>을 보면, 감각의 선호 지표를 보인 학생들에 비해 직관의 선호 지표를 보인 학생들 그룹이 듣기 점수가 좋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다른 선호 지표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적용

참고문헌

김은정(2002),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선경(2013), “KSL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듣기 전략 사용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영(2009), “듣기 노출 전략이 한국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2016), “한국어 듣기교육 연구의 현황과 탐색”, 한국어교육, 제 46차 추계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20쪽.

이해영, 박지연(2017),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 듣기 전략, 듣기 불안, 듣기 노출 시간의 상관성: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28(3), 85-104.

한수민(2012),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 사용 연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인숙(2014),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ms, NY: Pearson Education.

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02-3277-2891

youngewha@ewha.ac.kr

불안도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김해령
(대련외국어대학 한국어학원)

1. 서론

Krashen(1982)의 정의적 여과 가설(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에 따르면 언어 습득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불안, 자신감 등의 심리적 기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학습자의 불안도가 낮고 동기 부여가 강하며 자신감이 있을수록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며 반대로 불안도가 높고 동기 부여가 낮으며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언어 습득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제2언어 학습자에게 목표어 학습 불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Price, M. L(1991)은 실수에 대한 지적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아 효능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관계 등이 학습자의 학습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Young, D. J(1991)와 Horwitz, E. K.(1986)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제2언어 능력을 저평가하거나 다른 학습자가 자신의 실력을 무시한다고생각하는 경우, 혹은 자신이 다른 학습자 보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안감이 생겨나기 쉽다고 제언했다. 이렇듯,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불안은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심리적 두려움을 뜻한다. 王建勤(2009)은 적당한 불안은 제2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불안은 학습을 저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어느 정도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한 실험음성학적 실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대다수의 연구는 학습 불안에 관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불안이 외국어 말하기의 유창성 또는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의 高低 정도가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전의 연구 성과들을 반추하고 이를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해보겠다.

2. 불안도와 말하기 유창성에 관한 연구

2.1 외국어 학습 불안

고급 수준의 제2언어 학습자일지라도 목표어를 구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2언어 습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언어 학습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Horwitz, Horwitz&Cope(1986)가 고안한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와 MacIntyre와 Gardner(1994)의 MLAT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FLCAS의 문항은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시험 불안(test anxiety),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 MLAT는 MacIntyre와 Gardner(1994)가 개발한 언어 불안 측정 도구로써 언어 불안을 '언어학습의 입력시 경험하는 불안(입력 불안)', '언어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진행 불안)', '언어학습의 산출시 경험하는 불안(출력 불안)' 세 단계로 구분한다.

Horwitz와 Cope(1986)는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언어 불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언어 수업에서 생겨나는 불안은 의사소통 불안, 부정적 평가 불안, 시험 불안이 서로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심리 상태라고 보았다. 张妍铭(2012)과 蔡德聲(2014) 역시 외국어 학습의 불안을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불안은 학습자가 타인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여 생겨나는 불안한 정서를 뜻하며 시험불안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일종의 성과 불안 유형으로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 또는 평가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이다. 부정적 평가 불안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생겨나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특히,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수업에서의 교사 또는 동기로부터의 평가를 회피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Young(1991)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자신과 다른 학습자를 비교하면서 불안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언어 학습 과정에서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즉 말하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학습자는 쓰기나 문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Mizruchi(1991)는 불안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개체의 문제인지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으킨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Ellis, R.(1994)는 언어 불안을 상태 불안(state anxiety)과 특성 불안(trait anxiety), 그리고 상황 특수적 불안(situation-specific anxiety)으로 나누었다. 특성 불안은 일종의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불안 성향을 뜻하며 상황 특수적 불안은 공개 강연, 시험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빚어지는 불안한 상태를 뜻하고 상태 불안은 갑작스러운 순간에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王银泉, 万玉书(2001)는 타인과 비교하길 좋아하고 경쟁 심리가 강한 학습자의 경우 불안감이 생겨나기 쉽다고 제언하였다. 江新(2007)은 언어 불안이란 학습자가 낯선 제2언어 언어 환경에서 겪게 되는 주저함과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른 유형의 불안과는 다르게 언어 불안은 스스로를 폄하하며 우울함을 느끼거나 생리적 반응이 동반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2.2 학습 불안과 말하기의 상관관계

金楷昤(2015), 王蜻(2012), 张莉(2001), 饶清清(2012) 등 적지 않은 연구들이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王蜻(2012)는 준비 시간, 언어의 복잡성, 그리고 불안이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불안이 이야기 구술 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준비 시간, 언어의 복잡성과 이야기 구술의 유창성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张莉(2001)는 발화 속도와 비자연적 휴지를 변량으로 초급 중국어 학습자의 불안감과 회화 유창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국어 학습 불안감과 회화 유창성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饶清清(2012)은 초급 중국어 학습자의 불안감과 말하기 유창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중국어 학습 불안감과 말하기 유창성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으며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말하기 유창성의 좋고 나쁨 역시 중국어 학습의 불안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金楷昤(2015)은 면접 상황과 일상 대화 상황으로 나누어 한국인 학습자와 유럽 학습자의 중국어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을 실험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국인 학습자는 불안도가 높은 면접 상황에서는 말하기 정확성이 좋아지는 반면 유창성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말하기 유창성이 좋아지는 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어 학습 과정 중에 생겨나는 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학습자의 불안 정도와 그 영향 요인(문혜리, 2009)을 분석한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 불안과 학습 성적(박정숙, 1998; 강영아,2001) 등의 상관관계 연구이다. 김동선(2016)은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발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불안 정도에 따라 총 발화량과 1분당 평 균 발화량은 개별 학습자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희(2017)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불안 정도를 보이며 20 대, 30 대, 50 대 순서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불안 역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학습 기간의 경우 6 개월에서 1 년 미만 사이의 학습자에게 한국어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4 급과 5 급 학습자의 한국어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정설군(2016)은 설문조사와 말하기 과제를 통해 한국어 4 급, 5 급, 6 급의 실력을 각각 갖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말하기 유창성, 정확성, 복잡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준비 부족, 생소한 주제에 따른 불안, 오류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말하기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하기 유창성, 정확성, 복잡성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4 급과 5 급 학습자 모두 불안이 학습자의 말하기 산출의 유창성과 정확성 간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말하기 복잡성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 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 복잡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확성과 유의수준에 근접한 약한 음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제 2 언어 학습자의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 정확성, 복잡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실험 연구

3.1 실험목적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습자의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에 상관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게 될 한국어 학습자가 지닌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불안 정도의 환경이 학습자의 회화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심리적 불안 정도와 유창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불안도와 저불안도의 말하기 상황을 각각 통제하도록 하겠다. 고불안도의 실험 환경은 피실험자에게 시험불안, 의사소통 불안, 부정적 평가 불안의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불안도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통제하였으며 저불안도 환경은 고불안도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부정적 평가 불안이 모두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통제하였다.

3.2 피실험자

대련외국어대학 한국어학원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10명의 중급 한국어 실력을 갖춘 중국인 학습자들로 평균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2년 정도이며 이들 모두 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정도인 만큼 학습자들의 한국어 구사 습관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들이 가지기 쉬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3.3 실험자료

불안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 전에 지시어를 설계하였다. 지시어는 각각의 불안 정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였고 피실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지시어를 제작하였다. 본 실험은 서로 다른 불안 정도에서 학습자의 말하기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실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실험자가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피실험자의 목표어 수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생일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4 실험 방법

우선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세 번호 중 한 번호를 선택하게 한다. 피실험자가 선택한 번호에 따른 문제를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관련 질문을 하는데 이때의 실험 조건에 따라 두 실험조로 분류하였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불안도 실험조(피실험자 5명)의 경우, 피실험자에게 시험 불안도, 의사소통 불안도, 부정적 평가 불안도 등이 비교적 높은 상황을 제공한다. 피실험자가 선택한 번호에 상응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어떠한 준비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2분 동안 한국어로 대답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낯선 상황(의사소통 불안)에서 피실험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즉문즉답(시험 불안)을 하도록 하고 그 답변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고 사전고지(부정적 평가 불안도)하는 등의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저불안도 실험조(피실험자 5명)의 경우 피실험자에게 시험 불안도, 의사소통 불안도, 부정적 평가 불안도 등이 비교적 낮은 상황을 제공한다. 즉, 피실험자가 선택한 번호에 상응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1~2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험은 녹음을 한 후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를 사용하여 음성 자료를 절분하여 전사한다. 이때 감탄사와 같은 무의미한 음절은 제거하였고 유의미한 음절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말하기 유창성의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하기 유창성=분당 유의미한 음절수=(총 유의미한 음절수 / 발화 시간(초)) * 60

4. 연구 결과

수집한 피험자의 발화속도 수치를 가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서로 다른 불안 정도에서의 발화속도 평균값

고불안도		저불안도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116.834	19.214	132.12	16.046

계속해서 서로 다른 불안 정도가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발화속도 수치를 가지고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발화속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2<0.01$)

이는 불안 정도가 말하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피험자의 말하기 유창성이 불안 고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불안도 상황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속도는 문법의 정확성에 집중한 나머지 느려지는 반면 저불안도의 일상 회화 상황에서는 발화속도가 눈에 띠게 빨라지면서 유창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고불안도와 저불안도 상황에서 각각 수집한 피험자의 전사자료 중 일부이다.

<고불안도 상황M1> 생일 때 가장 받고 싶은 생일/생일선물은 친한 친구과 친척에게서 축하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축하하는 말을 들은 후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축하하는 말은 쓸 수 없지만 그들은 다 소중해요 그들은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불안도 상황F3> 친구는 친구는 진심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를 직접 만든 생일 선물/ 마음을/마음을 담긴 생/생/생/생일선물 받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구와 가족들 관심/관/관심을/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느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위의 전사자료를 살펴보면 유창성은 저불안도 상황에서 현저히 좋아질지라도 정확성 방면에서는 교정, 대체, 반복의 오류가 고불안도의 상황에 비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해령(2017)은 면접과 일상적 대화라는 서로 다른 발화 상황이 제2언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성언어학적 실험을 진행하였고 발화 상황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면접 상황에서 학습자는 말하기 산출의 정확성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유창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그렇지 않은 상황의 경우 동일한 과제라도 유창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정확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급 수준에 도달한 제2언어 학습자일지라도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아닌 면접과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균형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钱旭菁(1999), 施仁娟(2005) 등 일부 학자들은 모국어 문화 배경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 불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불안도와 저불안도의 상황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불안도 상황에서는 유창성이 낮아지는 반면 저불안도 상황에서는 유창성이 빨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해령(2015)에서는 한국인과 유럽 출신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불안 정도에서의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불안 정도는 문화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심리상태는 유럽 학습자에게는 일종의 촉진 작용을 일으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지만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즉, 한국인 학습자에게 불안 요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습자에게 불안 정도는 다른 양상의 영향을 끼치며 불안감이 단순히 부정적인 요인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변량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2 언어 습득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교수법을 강구할 때 중국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 숙고해야한다. 중국 문화가 모국어 배경인 학습자는 자신에 대한 교사와 동기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주동적인 발표 또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여 좋은 성적, 칭찬 등을 받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취업, 또는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감과 불안감이 크다. 피동적이고 내향적인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수업 말하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중국인 학습자의 말하기 습득에서 생겨나는 불안도는 그 전통적인 문화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속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영아(2000).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요인과 성취도와의 관계: 일본 대학 내의 한국어 교육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선(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의 상관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령(2017), 발화 상황이 말하기 유창성과 정확성의 상충효과에 미치는 영향. <언어와 정보 사회>, 32.

문혜리(2009). 원어민과 비원어민 수업자에 의한 수업이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성취도, 불안 및

모험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숙(1998). 영어 회화 수업에서 불안심리와 학습동기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 53(1).
원종희(2017).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안과 구어 유창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설군(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과 구어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成豔萍, 何其光(2007). <韓睜立革語課堂焦慮對大學牛日語表伏的影響>,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蔡德聲(2014). 来华美国大学习者心理防铷机制与汉语学习焦虑的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江 新(2007).《对外汉语教学的心理学探索》, 教育科学出版社.
金楷昤(2016), 第二語言學習者漢語口語產出的權衡效應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學位論文.
王 蜻(2012). 准备时间、语言复杂性和焦虑对二语学习者复述故事的影响, 南京工业大学硕士学位论文.
钱旭菁(1999). 外国留学生学习汉语时的焦虑, 语言教学与研究, 第2期.
饶清清(2012). 初级水平留学生汉语学习焦虑感与口语流利性关系研究, 厦门大学硕士学位论文.
施仁娟(2005). 留学生汉语学习焦虑的状况、成因和应付方式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王建勤(2009).《第二语言习得研究》, 北京：商务印书馆.
王银泉, 万玉书(2001)外语学习焦虑及其对外语学习的影响, 《外语教学与研究》, 第2期.
张 莉(2001)留学生汉语学习焦虑感与口语流利性关系初探, 《语言文字应用》, 第3期.
张妍铭(2012)外语焦虑与压力应对－中日青年跨文化的语言学习心理,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Horwitz, Horwitz & Cope(1986). Preliminary Evidence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Foreign Language Anxiety Scale. *TESOL Quarterly* 20: 559-564.
Krashen(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Ellis, R.(1994).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 .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Mizruchi (1991) . Urgency, motivation, and group perfor-mance: The effect of prior success on current success among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Social Psychology*.
Price, M. L.(1991).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foreign language anxiety: Interviews with highly anxious students. In E. K. Horwitz and D. J. Young (eds) *LanguageAnxiety: From Theory and Research to Classroom Implication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01-108.
Young, D. J.(1991). Creating a Low-Anxiety Class room Environment: What does language anxiety research sugges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5:426-439.

김해령
大连外国语大学韩国语学院
中国辽宁省大连市旅顺南路西段 6 号大连外国语大学韩国语学院 8B402 号
邮编:116044 电话：86-13121971457 E-MAIL: kailingkim@163.com

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방식 및 실행 과정 연구

김정숙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외국어 숙달도 말하기 능력 평가는 직접 평가나 반직접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CTFL OPI, IELTS Speaking, ZD는 면대면 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시험들이 사용하는 직접 평가 방식은 실제로 구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과 조건을 조성한 후 수험자에게 구어를 산출하게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직접 평가는 대화 상대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 평가에 비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말차례 교체 등 대화의 형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가자가 수험자의 응답에 맞춰 질문을 조정해 제시함으로써 수험자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직접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평가자의 양성이 요구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및 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이에 공인 영어 시험인 TOEFL Speaking, TOEIC Speaking, ACTFL의 OPIc을 비롯하여 중국어 HSKK(Hanyu Shuiping Kouyu Kaosh)와 일본어 SJPT(Spoken Japanese Proficiency Test)는 모두 컴퓨터 기반의 반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공인 인증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도 현재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는 비록 면대면 상황은 아니나 직접 평가 상황에서와 유사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언어 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직접 평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인 실용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숙련된 평가자가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반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개발에서 측정 가능한 평가 샘플을 가장 잘 추출해 낼 수 있는 평가의 방식을 시험의 종류 및 평가 방식, 시험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타 언어 및 한국어 숙달도 시험의 평가 방식

위에서 언급한 반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시험 중 TOEIC Speaking, TOEFL Speaking, SJPT, KPE는 1종의 문제를 이용해 등급이나 점수로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HSKK는 3종의 문제를 이용하고 있고, ACTFL OPIc는 수험자가 자신의 숙달도에 맞는 수준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어능력시험도 1종의 문제를 이용해 6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 중이다.

<표 1> 컴퓨터 기반 말하기 시험의 평가 방식

시험	평가 방식
TOEFL Speaking	1종 이용 점수 부여
TOEIC Speaking	1종 이용 8등급(1~8급) 부여
ACTFL OPIc	다종 이용 9등급 부여: 고급(하), 중급(상-중(중3-중2-중1)-하), 초급(상-중-하)
HSKK	3종 이용 3등급 부여: 초급/중급/고급(등급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SJPT	1종 이용 10등급 부여
TOPIK 말하기 (연구 중)	1종 이용 6등급(1~6급) 부여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자 분포[1]와 중급・고급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 2' 응시자들의 시험에 대한 반응을 고려할 때 1종을 이용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ACTFL OPIc과 HSKK가 다종의 시험을 이용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시험의 평가 방안

3.1. 시험의 종류 및 평가 방식

인터넷 기반 반직접 평가는 수험자에게 질문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정해진 질문을 해당 시험을 선택한 모든 수험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시 ① TOEFL Speaking, TOEIC Speaking과 같이 1종의 문제를 이용해 전체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과 ② HHSK와 같이 초급, 중급, 고급 3종의 문제를 이용하거나 1~6급에[2] 해당하는 6종의 문제를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둘째, 수험자의 요구를 반영해 수험자에게 맞춤형 질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1~6급의 대표적 등급 특징을 컴퓨터 화면에 제시하고 예시 질문을 음성으로 제시하여 수험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 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수험자에게 난이도를 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도 세부 실행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③ 선택

[1]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초기에는 응시자 수가 초급>중급>고급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부터 중급 응시자 수가 초급 응시자 수를 넘어섰고, 2008년부터는 응시자 수가 중급>고급>초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초급과 중급 응시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수준을 고려할 때 1종의 시험을 이용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제시 방식과 평가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등급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6등급 체제를 따른다.

한 난이도별로 미리 정해진 문항을 같은 난이도를 선택한 모든 수험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④ ACTFL OPIc와 같이 본 시험 시작 전에 수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국적, 나이, 직업, 취미 등)를 문항 선택에 반영하여 수험자별로 특화된 질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1종의 문제를 이용해 평가하는 ①의 방식은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에 적절하지 않다. ②~④의 방식은 ①과는 달리 수험자의 한국어 숙달도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②가 수험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 응시 등급을 결정하면 시험 실행 시 수험자가 느끼는 난이도와 무관하게 신청 등급의 문제가 끝까지 제공되는 반면, ③과 ④는 제시되는 등급 기술과 예시 문항을 참고해 응시 현장에서 수험자가 응시 등급을 선택하며,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응시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에 비해 ③과 ④가 보다 수험자 맞춤형 평가의 특성을 갖는다.

③과 ④는 수험자 맞춤형의 평가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질문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③에는 ㄱ), ㄴ)의 방법이, ④에는 ㄷ)의 방법이 있다.

ㄱ) 문항을 세트별로 개발한 후 시험 회차별로 한 세트씩 사용하는 방식

ㄴ) 문항을 번호별로 개발한 후 각 번호에 해당하는 문항을 임의로 선택해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ㄷ) 구축된 문제은행 시스템을 이용해, 준비 단계에서 수집한 수험자 정보를 반영해 각 수험자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는 방식

④ 즉 ㄷ)의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반직접 평가 방식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평가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문제은행 시스템의 구축과 전문적인 평가자의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ㄱ)의 방식은 이미 정해진 문항을 이용해 같은 수준을 선택한 모든 수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문제은행 구축의 부담이 없고 채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나 인터넷 기반 평가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문제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③-ㄴ)는 문항별로 문제를 무작위로 추출해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은행의 구축을 전제로 하기는 하나 문제은행 구축의 정밀도나 문항 태깅의 부담이 ④의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채점할 채점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있는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방법으로, 수험자 맞춤형 평가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평가 체계 구축 및 실행 부담이 비교적 적은 ③-ㄴ)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의 평가 방법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③-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평가 방법

은 직접 평가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ㄷ)과 같은 수험자 맞춤형 평가 방식이다.

3.2. 시험 실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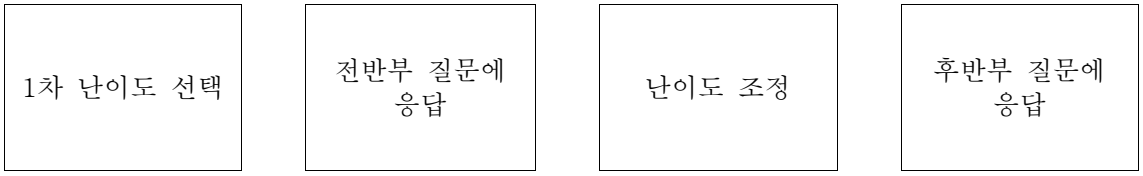
인터넷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위한 사이트를 이용해 시험 신청으로부터 응시, 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가능하다. 인터넷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1> 말하기 숙달도 시험 실행 과정

본인 확인 단계는 수험자가 수험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온라인상의 시험장에 입장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는 수험자로 하여금 본 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게 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에는 수험자 정보 수집 활동과 시험 절차 및 방법 제시 활동, 모의 질문 청취 후 답변 내용 녹음 및 확인 활동이 포함된다. 수험자 정보 수집 활동은 수험자의 국적, 모어, 응시 목적, 직업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그 결과는 수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수도 있고 수험자 맞춤형 평가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수험자 맞춤형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의 정보 이외에 수험자의 취미나 관심 분야 등을 묻는 설문을 추가할 수 있다. 시험 절차 및 방법 제시 활동은 수험자가 순조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의 절차와 방법, 화면 구성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모의 질문 청취 후 답변 내용 녹음 및 확인 활동은 모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녹음한 후 녹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험 시행은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험자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2> 말하기 숙달도 시험 시행 절차

수험자가 <표 2>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 여러 단계의 등급 기술과 음성으로 제시되는 각 단계별 샘플 질문을 확인하고 자신이 응시할 시험의 난이도를 선택하면 시험이 시작

된다.

<표 2> 난이도 선택용 등급 기술 및 샘플 질문

등급	등급 기술[3]	샘플 질문
1급	한국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일상생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2급	친숙한 일상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물건사기나 길 묻기와 같은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왜 한국어를 배워요?
3급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말하고, 친숙한 사회적 소재나 추상적 소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여행을 좋아해요? 재미있었던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4급	일상생활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친숙한 사회적 소재나 추상적 소재에 대해 문단 단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그 도시를 설명해 보세요.
5급	친숙한 사회적 소재나 추상적 소재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덜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며, 능숙하지는 않지만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6급	덜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이나 직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어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제점을 두 가지 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수험자가 선택한 수준에 맞춰 문항이 제시되다가 전체 문항의 30% 정도에 대한 응답이 진행된 후 수험자가 문항의 난이도를 재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둔다. 수험자는 1차 난이도 선택 시 이용한 <표 2>의 등급 기술과 샘플 질문을 다시 확인한 후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이후 수험자가 재선택한 수준에 맞춰 문항이 주어진다.

채점은 평가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된 수험자 발화 자료가 보안 체계를 갖춘 평가 서버로 보내지면 권한을 부여받은 채점자가 채점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결과 확인**은** 수험자가 시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험 결과 유효 기간 중 수험자가 시험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기술을 따랐다.

4. 나가기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측정 가능한 평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반직접 평가에서도 직접 평가의 요소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수험자가 자신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준 맞춤형 평가를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방식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김정숙(2017). "한국어능력시험 20년 발전사와 최근 동향 -1997년 제1회 시험부터 2016년 제52회 시험까지-". 한국어교육 28권 3호. 1~24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http://www.ets.org/ko/toefl (TOEFL)

http://exam.ybmnet.co.kr/toeicswt/ (TOEIC)

http://exam.ybmnet.co.kr/kpe (KPE 한국어능력시험)

http://www.opic.or.kr/opics/jsp/senior/index.jsp (ACTFL OPIc)

http://www.newhsk.org/main.htm (한어수평고시)

http://exam.ybmnet.co.kr/sjpt/index.asp (일본어능력시험)

김정숙(金貞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82-2-3290-1977

kmjane@korea.ac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조영승

(사천외국어대학교)

<요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등 인간 삶의 전방위에 거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교 외국어교육은 대체로 언어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변화에 걸맞게 인문학의 한 분야인 외국어(한국어)교육은 현재의 교육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고차원적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중 한 실천 가능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과 한국어 교육의 융합 및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언어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한국어 교육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향후 질적으로 향상된 한국어 교육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도입을 계기로 신생 디지털 세대에게 언어적, 인문학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사고(Digital Thinking)' 능력과 소양도 함께 키워주고자 하는 것이다.

키워드: 디지털 인문학, 한국어 교육, 교육과정 설계

1. 서론

사회 전체가 디지털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디지털문명은 인간 삶의 양태는 물론 인간의 인식과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신생 세대들한테 디지털세계는 어쩌면 당연한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은 중한 양국 수교 20여 년간 양적·질적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단순 언어교육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해 기존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본 고에서는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어 교육의 융합 가능

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융합학문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은 2008년부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생하여 현재 많은 국가에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인문학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성, 지식의 재생산, 융합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특성상 현재 한국어교육과의 접목 가능성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현 단계 한국어 교육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디지털 인문학의 융합을 통하여 학생들로하여금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지식의 재생산을 거쳐 지식체계를 완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중 주요하게 디지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인문학의 탄생과 연구방법

21세기는 지식의 융합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오늘날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학문 분야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 인문학에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지식 검색을 통하여 정보의 획득이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해진 이 시점에서 지식의 연결과 융합을 실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식을 재생산하는 것은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 또한 인문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문학에 새로운 사명과 의미를 부여하였고, 인문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인문학에 ICT를 접목한 디지털 인문학의 탄생은 전통적인 인문학연구에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과 과학정신을 갖게하여 이는 한차례의 혁명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1) '디지털 인문학'의 탄생

오늘날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인류문명의 각 영역에 침투되어 사회발전과 번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전파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문학의 경우 인문학적 사고, 열독, 연구 및 체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문학과 디지털기술의 융합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찍 2008년 미국 인문재단의 적극 지원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디지털 인문학의 탄생은 인문학 연구의 영역확장은 물론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인문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주요하게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전통 인문학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연구방면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는 지적 재산권, 인문학 연구 도구의 개발, 디지털도서관, 데이터마이닝, 멀티미디어 출판, 데이터 시각화, 지리 정보시스템, 디지털 복원 기술 등 영역에서의 영향연구, 교육과 학습 기술의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및 미디어 연구 등이 포함된다. 보다시피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는 이미 전통 인문학의 연구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가치 방면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보다 오픈된 가치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가치로는 (1) 오픈 소스(Open Source)의 공개; (2) 풍부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기반; (3) 생성의 인문학(Generative Humanities); (4) 공동창조의 인문학 (Co-Creation)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실천을 중심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방과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기존의 종이 매체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뀐 만큼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방법 또한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인문학의 연구방법과 차별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 설계, 데이터수집, 데이터 분석, 해석, 시각화의 과정이 포함된다. (1)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여 연구의 틀과 진행의 과정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 데이터 수집에서는 연구 설계에 따라 인테넷, 데이터 베이스에서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한 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질을 높여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3)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정의 다양한 연산을 통하여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4) 해석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방법론과 결부하여 해석을 진행하며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한다. (5) 시각화 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시각화 수단을 통해 결과물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ICT와 결합한 디지털 인문학은 연구내용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에서도 연구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

1) 교육 목표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은 학부 3, 4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글 자연언어처리를 기반으로 주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하여 텍스트 중심의 디지털 정보를 가공, 분석, 해석 및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2) 교육 프로그램 설계

한글 디지털 텍스트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과 실기 교육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참고 <표1>)

<표1>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교과 주제	교육 내용
이론	디지털 인문학의 이해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과 범위, 사용되는 기술 및 응용분야
실기	한글 자연언어처리 기술	Python 기반의 자연언어처리, 형태소 분석, 통사분석, 의미분석, 화용론분석
	디지털 텍스트 마이닝	반정형/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정형화, 웹사이트 스크래핑, 데이터 베이스 저장
	디지털 텍스트 마이닝 결과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의 정형화를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대해 인문학적 분석을 진행, 그리고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

3) 교육 방법

한 학기 약 18주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이론 수업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방법론 소개,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디지털 인문학의 응용분야 등 디지털 인문학의 환경 및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다. 실기 수업에서는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인문학 분야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론과 실기의 수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부생들로 하여금 디지털 사고 능력과 실질적인 응용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4) 사례 연구

현재 국내 많은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는 보편적으로 <인터넷 열독(网络阅读或报刊选读)>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교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제때에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 여러 방면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어느 한 분야, 현재의 이슈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열독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 담당 교수의 지식 범위 내에서 혹은 비교적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열독 내용이 선택되는 만큼, 대량의 인터넷 디지털 정보와 비교할 때 이는 미비한 수준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종합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재구성·재생산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열독> 교과목은 여전히 단순 텍스트의 열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진정한 디지털 인문학이 지향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디지털 인문

학의 연구방법 이용하여 어떻게 지식을 재구성·재생산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기본 이념과 방법을 결합하여 <인터넷 열독> 교과목을 새롭게 설계하였다.(참고 <표2>)

<표2>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인터넷 열독> 교과목 설계

	절 차		결 과
1	수업 전 인터넷 열독 자료 준비		열독 자료에 대한 이해
2	열독 내용을 이해한 후 키워드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이해		열독 자료의 핵심 내용 추출 (키워드 중심으로)
3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 뉴스 내용 수집,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키워드 중심으로 한국 뉴스 사이트에서 관련 뉴스 수집
4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 내용에 대한 분석	→	빈도수 높은 어휘 및 관련 어휘 추출, 그리고 댓글 내용에 대한 감정분석
5	분석 결과 시각화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현
6	유의미한 결과 도출		뉴스 원문 및 관련 뉴스 기사 내용과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
뉴스 기사 원문을 이해한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관련 지식을 장악하여 자신만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터넷 열독> 수업에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인터넷 기사 열독 내용이 단편적인 '파편'이 아니라 기타 관련 뉴스 기사와 논리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예로 한국 뉴스 사이트에서 2018년 3월 한 달 동안 뉴스 중 '한국'을 키워드로 100개의 뉴스를 클로링 한 후 그중 200개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댓글 중 가장 많이 나타나

는 어휘를 50개를 골라 위드 클라우드를 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참고<그림1>) 이와 같은 결과물을 통하여 이 기간에 인터넷 뉴스의 댓글 중 '세금' '지엠' '기업' 등 어휘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의 키워드는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관심 두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어휘를 키워드로 같은 방식으로 댓글을 분석하여 관련 어휘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다.

<그림1> 인터넷 열독 뉴스 기사 클로링 및 워드 클라우드

```
/Users/cho/anaconda3/envs/tensorflow/bin/python /Users/cho/PycharmProjects/AI/Lianxi-14.py
$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한국
$ 클로링해 올 뉴스의 갯수를 입력해 주세요~^^ : 100
$ 클로링해 올 댓글의 갯수를 입력해 주세요~^^ : 200
```

(2018.3월 기준)

5)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 조건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은 디지털 기술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융합 교육이다. 이와 같은 융합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화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글 자연언어처리,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등 디지털기술의 교육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지식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의 교육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1) 디지털 인문학 이론과 방법론을 숙지한 교수 인력

(2) 한국어 지식을 디지털 방법론을 통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

(3) 디지털 인문학의 기술적 교육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4)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 교재의 개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교수 인력의 양성으로, 담당 교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디지털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특히 기술 면에서 Adobe 계열의 Photoshop, Premiere, Audition과 같은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Python,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이다. 즉 인문학과 기술 융합형 교수가 필요한 것이다.

6) 기대효과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 단순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고'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분석과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4. 결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차 바꾸고 있다. 교육 역시 거대한 사회발전·변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본 고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국내 한국어 교육이 중한 수교 이후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데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보다 오픈된 자세와 융합적인 안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바라보고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1. 김현 등,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5

2. 王宁, 《跨文化对话: 数字化时代的比较文学》, 燕山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7.1

3. 史睿, 《数字人文研究的发展趋势》, 文汇报, 2017.8.25

4. Kirschenbaum, Matthew G. "What is Digital Humanities and what's it Doing in English Departments?" *ADE Bulletin* 150. 2010

5. Smith k.Q & A with Brett Bobley, Director of the NEH's office of Digital Humanities [EB/OL]. [2015-01-20]. http://has?tac.org/node/1934.

6. "The Digital Humanities Manifesto2.0"
参考：http://manifesto.humanities.ucla.edu/2009/05/29/the-digital-humanities-manifesto-2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 방안: 수업 구성 원리와 교사 역할을 중심으로

김세나

(연태대학교)

<초 록>

최근 각 교육 분야에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수업 방안 및 효과성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플립 러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본고는 중국 대학 내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하여 플립 러닝을 통한 수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 방안을 제안한다. 플립 러닝이 한국어 교육에서 지속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플립 러닝 체제에 필요한 수업 구성 요소와 실행 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제 기반 접근법의 활성화'라는 플립 러닝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제 기반 플립 러닝 수업의 핵심 구성 요소와 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플립 러닝 체제에 따라 전환되어야 하는 교사의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과제 기반의 플립 러닝 수업이 효과적으로 시행·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한국어 교육에서의 플립 러닝 선행 연구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플립 러닝: 과제 기반 접근법의 활성화

2.1. 플립 러닝의 특징과 역할

2.2. 플립 러닝에서의 과제 기반 수업 구성과 원리

3. 과제 기반 플립 러닝을 위한 교사의 핵심 역할

3.1. 수업 전: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수업 과정의 재구성

3.2. 수업 중: 과제에 대한 교사의 스캐폴딩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목적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의 구조적 문제, 즉 교사 구성과 수업 시수, 교재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판준, 2016; 이호, 2016). 특히 교수 방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법 번역식과 청각 구두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중심, 과제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동효령, 2017). 사실 기존 수업 방식 및 교수 방안 전환의 필요성,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심의 학습 방안은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정적이고 탈맥락적 상황에서의 단순한 과제와 실제성이 낮은 응용 과제가 수업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실 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의 요인으로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보다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말하기를 위한 과제 중심의 교수 방안, 즉 과제 기반 접근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립 러닝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플립 러닝 체제에 따른 수업의 핵심인 과제(task)의 구성 요소 및 실행 원리를 마련하여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수업의 내적 구성 요소인 '교사 역할' 전환의 필요성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플립 러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한국어 교육에서의 플립 러닝 선행 연구

먼저 국내 한국어 교육 플립 러닝 연구의 박진욱(2014)에서는 대단위 학부 수업에서의 수강 인원수와 시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플립 러닝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플립 러닝을 한국어 교육에 도입하여 모형을 개발한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 및 교과 목표에 따른 수업 구성 요소가 세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이소현(2015), 이경 외(2017)에서는 문법 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자 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성을 도출하였으나, 플립 러닝 설계상 전제되어야 하는 실행 조건과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교실 수업 외 한국어 발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학습 환경과 부족한 수업 시수 문제를 갖고 있는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플립 러닝 연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혜민 외(2016)에서는 '미디어 한국어' 교과에 대한 플립 러닝 수업 설계 시 고려 요소 및 적용 사항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수업 절차를 상세화하여 플립 러닝 수업이 갖는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우연희(2017)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초급 문법 교과에 플립 러닝을 적용하여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연구는 선수 학습 자료 제작 방법과 학습자 활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업 성취도 및 학습자 인식 모두 매우 긍

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혔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 플립 러닝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도출하였지만, 플립 러닝이 한국어 교육에서 진정으로 실효성을 갖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플립 러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언어 교수-학습에 대한 특성과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업 구성 요소와 실행 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활동 및 환경 등 외적 요소의 전환뿐만 아니라 내적 요소의 전환, 즉 교사 역할의 전환과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플립 러닝: 과제 기반 접근법의 활성화

2.1. 플립 러닝의 특징과 역할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교사의 강의가 교실 밖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던 과제 활동이 교실에서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이다(Bergmann & Sams, 2012). 기존의 수업에서는 교사와 교과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플립 러닝에서는 학습자와 학습자 활동이 중심이 된다(이민경, 2014).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 구성주의(Vygotsky, 1978)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플립 러닝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다. 플립 러닝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한 유형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과 교육적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플립 러닝 체제를 구축하는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Strayer, 2007:16).

이와 같은 플립 러닝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수업 전에 동영상 시청으로 선행 학습을 수행하고, 이후 교실 수업(In-Class)에서는 토론이나 문제중심학습(PBL)과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된다. 플립 러닝의 교수-학습 절차는 '수업 전'(Before-Class), '수업 중'(In-Class), '수업 후'(After-Class) 단계에 따라 나뉘게 되며 교과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구조와 특징을 지닌 플립 러닝을 통해 학습자 중심 활동과 그에 따른 효과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플립 러닝 절차에서 수업 전 단계의 사전 동영상 학습 자료를 어떻게 제작, 혹은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플립 러닝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선수 학습 실시와 그에 따른 교실 수업에서의 활동 증가 및 효과성이 강조되고, 각 단계에 따른 수업 구성 요소와 그들 사이의 연계성 및 실행 원리가 명확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방진하 외, 2014; 최지현, 2017). 이에 따라 한국어 수업을 위한 전환(flip)의 요소와 실행 원리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내적 구성 요소인 '교사의 역할'이 플립 러닝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성공적인 플립 러닝 한국

어 수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1. 한국어 수업을 위한 플립 러닝의 역할은 무엇인가?
2. 플립 러닝 수업에서의 핵심 단위와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3.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플립 러닝에서의 핵심이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활동 학습이라고 볼 때, 이를 한국어 수업에 적용할 경우 언어 사용법(usege)이 아닌 언어 사용(use)을 위한 언어 과제 수행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위한 플립 러닝의 역할을 과제 기반 접근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에 대한 활성화로 보고, 수업을 이루는 핵심 단위를 과제(task)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제 기반 수업의 구성 요소와 과제 유형에 따른 실행 원리를 마련하여 플립 러닝 체제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한다.

2.2. 플립 러닝에서의 과제 기반 수업 구성과 원리

과제의 수행은 의사소통 말하기를 촉진하는 과정이 되며,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말하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Long, 1985; Richards et al., 1986). Breen(1987)은 언어 학습에서의 과제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학습 활동'이며, '단순한 연습에서부터 의미적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계획에 이르는 모든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과제 기반의 언어 학습에서는 '의사소통 및 의미 중심의 언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계획과 이해 과정'을 포함하며 '실제적인 언어 활동과 언어 사용에서의 의미'를 강조한다[1].

이와 같은 과제 기반의 한국어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 구성 요소와 수업에서 수행될 과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본고는 Nunan(1989)이 분류한 '목표', '입력', '활동',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환경'에 따라 수업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준(準) 실제 과제'(quasi-real task)의 도입을 제시할 것이다.

[1] Long & Crooks(1993)를 비롯한 SLA 연구들에서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문법 중심 활동의 경우 교실 밖 실제적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인지적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 질문하며 '의미를 협상'하게 하는 과제 기반 접근법으로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을 강조하였다(Richard & Rodgers, 2001:223-224).

① 목표: 학습 단원과 내용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과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② 입력: 교사는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
③ 활동: 학습자는 입력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가?
④ 교사의 역할: 과제 기반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⑤ 학습자의 역할: 과제 기반 수업에서 학습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⑥ 학습 환경: 과제가 수행되는 환경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표 1> 과제 기반 수업의 구성 요소

과제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과제 유형 또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목적에 따라 '교육적 과제'(pedagogic task)와 '실제적 과제'(real-world task)를 통해 과제 유형을 분류하기로 하였다[2]. 기존 교실 수업에서는 주로 교재에서 제시된 한정된 상황 및 대화문 안에서 과제 활동이 수행되어 왔다. 즉, '실제 과제를 위한 연습 과제'인 교육적 과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맥락·상황 반영의 실생활 관련 과제의 경우 교육적 과제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제적 과제를 교육적 과제의 상위로 보고, 초급 학습자들이 수행하기에는 복잡성을 지닌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로 분류하여 교실 수업 내에서는 교육적 과제를 위주로 학습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실 실제적 과제 수행은 교실이라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실제 상황(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real-world) 과제이고, 교실 내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결국 교육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본고는 실생활에서 수행되는 중요하고 유익한 과제를 교실로 도입하여 '준(準) 실제 과제'(quasi-real task)로서 실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예행연습(rehearsal)이 되게 할 것이다. 이를 플립 러닝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수업 구성 요소 및 과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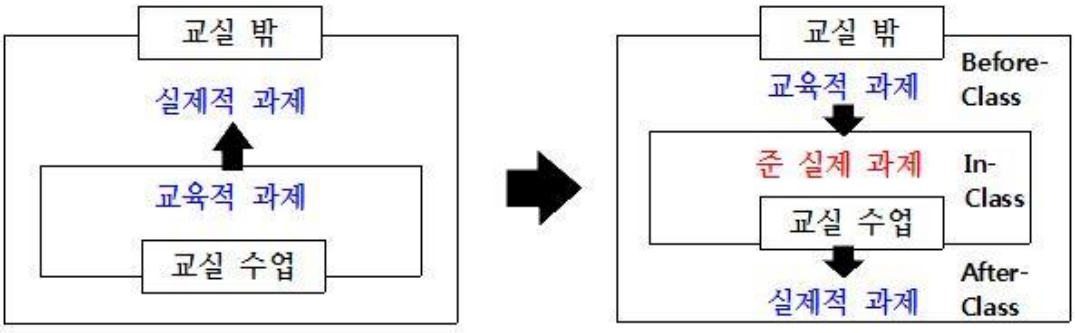
	수업 전(Before-Class) 단계	수업 중(In-Class) 단계

[2] Nunan(1989:40)은 과제의 목적에 따라 실제적 과제와 교육적 과제로 구분하였다. 실제적 과제는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유익하고 중요한 과제들이며, 교육적 과제는 실생활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는 과제로, 교육을 위한 인위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 찾기'나 '물건 사기'와 같은 것은 실제적 과제이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나 '대화를 듣고 상황 말하기'는 교육적 과제이다.
[3] 김세나(2017)에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모형에 대한 개발 단계와 설계 원리를 상세화하였다.

과제 목표	의미 이해와 형태의 정확성에 초점[4]	언어 사용에서의 유창성에 초점
입력 방법	명시적 입력, 혹은 입력 강화	상호작용 강화, 의미 협상
활동 유형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 활동	창의적·실제적 상호작용 활동
교사의 역할	언어 형태에 대한 정보 제공자	의사소통 과제 출력 촉진 및 안내자
학습자의 역할	언어 학습자(learner)	언어 사용자(language user)
학습 환경	온라인	오프라인

<표 2> 플립 러닝에서의 과제 기반 수업 구성 요소와 특징

<그림 1> 플립 러닝 체제에 따른 과제 수행의 전환



〈기존의 과제 기반 수업〉 〈플립 러닝의 과제 기반 수업〉

3. 과제 기반 플립 러닝을 위한 교사의 핵심 역할

3.1. 수업 전: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수업 과정의 재구성

[4] 교실 수업에서 수행되는 의사소통 중심 과제가 유창성을 획득하는 대신 정확성을 포기하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llis(2001)의 '형태 초점 교수'(Form-Focused Instruction, FFI)를 도입하였다. 이에 수업 전 단계에서는 형태의 정확성 제고에 과제 목표가 있으며 이후 교실 수업에서 유창성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중심 과제가 수행된다.

본고는 <표2>와 같이 플립 러닝의 수업 전(Before-Class)과 수업 중(In-Class) 단계에서 수행되는 과제 구성 요소를 유기적이고 의존적으로, 동시에 보다 분명하게 분리된 것으로써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체제적 접근 방법으로 Ellis(2001)의 '형태 초점 교수'(Form-Focused Instruction, FFI)에 따라 한국어 학습에서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과제 연계 전략을 수립하였다[5]. 특히 '계획된 형태 초점'(planned focus on form)에 따른 '의도된 내용'(Intentional Content)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을 설계 원리로 두었다. 이것은 '학습자 요구 분석'(needs analysis)을 사전에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한 과제 선정과 교수 내용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과 연결이 되며, 이와 같은 선행적(proactive) 특성은 계획된 형태 초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6].

수업 전 단계는 교실 수업에서 준 실제 과제가 수행되도록 하는 사전 준비 단계로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교실 수업 전에 학습자 요구 분석과 이에 대한 과제(교육적 과제 및 준 실제 과제, 과제 목표와 입력 자료) 선정이 중요하다. 수업 전 단계의 핵심은 사전 동영상 학습의 실행이기보다는 교실 활동 과제를 구성하는 준비 과정으로, 교사는 이에 따라 학습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업을 재구성하게 된다[7]. 이러한 상호작용은 LMS[8]의 Web이나 App을 활용한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플립 러닝 수업 전 단계에 대한 교사의 핵심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과제 항목을 얻기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실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단원 및 내용에 따른 다양한 과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실생활에서 중요하고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9] 단원의 경우 '여행'이라는 주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과제의 목록이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 구성된다. '가장 좋았던 여행 장소 소개하기', '가고 싶은 여행 장소 발표하기', '여행 상품 설명하기', '여행 계획 및 준비하기', '여행 광고 만들기', '여행 문화 발표하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설정된 과제로써 분류될 수 있다.

---

[5] 김세나(2017)에서 제시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모형에서 수업 단계별 말하기 과제 연계 전략과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 개발 모형에 대한 지침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6] 만약 언어 형태에 대한 교수를 미리 계획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의미 중심 언어 활동 이후 나타나는 오류에 따라 올바른 형태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후행적(reactive) 방법을 적용한다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박신향, 2014:14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요구되는 언어 항목을 선행적(proactive)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두었다.

[7] 플립 러닝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에 의해 수업이 전 과정에 있어 융통성 있게 설계된다(김세나(2017:35).

[8] 유용한 LMS의 App으로 'Flipgrid'를 꼽을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 범용화된 QQ나 Wechat과 같은 App를 LMS로써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영상 자료에 대한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여 학습자 의견 및 교사 피드백이 상호 간에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9] <서울대 한국어 2A>에 수록된 5과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를 참고하였다.

2) 단계별 수행 과제 선정 및 재구성: 먼저 교육적 과제, 즉 선수 학습 과제에 대한 목표 및 입력 자료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 및 준비하기' 과제에서 '어디에 가면/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장소)에 갈 거예요/(장소)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처럼 'A/V-(으)ㄹ까요?', 'A/V-(으)ㄹ 거예요'가 주요 문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형태,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한다. 선수 학습 자료는 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 외 텍스트 및 음성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해당 문형의 'ㄹ'받침이 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교사 발화를 녹음한 음성을 LMS에 탑재하여 듣고 말하기 연습 과제로 선수 학습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후 교실 수업에서의 준 실제 과제에 대한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준 실제 과제에서 사용되는 언어 항목은 교육적 과제를 토대로 하되, 수정·보완 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3.2. 수업 중: 과제에 대한 교사의 스캐폴딩

수업에서 교사-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플립 러닝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가 그들 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태도, 동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의미 협상을 이루게 하는 '교사의 노력과 책임'이 더욱 요구되므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교사는 과제 기반 플립 러닝 수업 중(In-Class)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적 과제를 출력하도록 촉진·안내하는 과정에 있어 그들을 언어 학습자(learner)로 인식하기보다, 언어 사용자(language user)로 인식하여 상호작용하고 의미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

교실 수업에서의 과제 수행은 교실 밖 실제 활동에서의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에 대하여 교사가 '스캐폴딩'(Scaffolding)을 통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스캐폴딩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도움과 단서를 제공하여 그들이 과제를 원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지적 도움 전략(Nunan, 2006)으로, 과제 기반 플립 러닝의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교사의 핵심 역할로 설정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또는 오랫동안의)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빠른 스캐폴딩 제거는 학습자들의 과제 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스캐폴딩을 위한 교사의 전략적인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진제희, 2004:249)[10], 이에 따라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교사의 스캐폴

[10] (진제희, 2004:249)에서 교사는 보다 효과적인 통제와 주도를 통해서 교실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을 지녀야 하며 이는 교실 상황과 학습자 반응, 과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딩 역할은 과제 기반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언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11]

4. 결론

본고에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플립 러닝 방식을 통한 수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과제 기반 플립 러닝 한국어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플립 러닝 설계 시 단순히 사전 학습 실행과 그에 따른 교실 활동 증가에 목적을 두기보다, 수업에서의 핵심 단위인 '과제'와 수업 구성 원리를 구체화하여 플립 러닝의 실행 조건 및 교사 역할 전환에 보다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에 교실 수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과제의 유형을 '준 실제 과제'로 하여, 이에 대한 과제 항목은 수업 전 단계에서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되며, 이로써 수업 과정의 설계가 매우 융통성 있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LMS 등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교사는 학습자 의견과 질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서 기존 수업의 내용과 방법 전반을 재구성하고 전환하게 된다.

플립 러닝에서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 학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려면 '교사 역할과 책임'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와 학습 환경, 입력 및 활동 자료의 특성에 따른 교사의 전략적인 '스캐폴딩'이 수업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교사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플립 러닝 수업에서 교사의 핵심 역할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수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교사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다[12]. 다시 말해 플립 러닝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학습 자료 및 방법의 전환(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통한 사전 학습 수행)과 다양한 활동 중심 교실 수업으로의 전환 등 외적 요소보다도, 교사 역할과 인식이라는 내적 요소의 전환이 먼저 제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역할과 수업 전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플립 러닝이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한 교수 방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1] 김세나(2017)는 과제 설계의 주요 원리에서 '스캐폴딩'과 '과제 의존성'을 강조하여 플립 러닝 수업 단계별 과제 연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과제 기반 플립 러닝 모형의 수업 전, 중, 후 단계에 대한 세부 전략과 실제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김세나(2017)에서 참조할 수 있다. 김세나(2017)에서 수업 각 단계별 절차 및 전략과 지침을 상세화하였다면, 본고에서는 개발 모형에 대한 실행 조건과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에 플립 러닝 수업 전과 수업 중 단계에서의 (전환이 되는) 핵심 구성 요소에 보다 초점을 두었으나, '실제 과제의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수업 후 단계에서의 심화 과제 제공과 피드백 및 평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 방진하 외(2014)에서 플립 러닝은 수업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마음가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보경(2014), “교직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모형 개발”, 교육종합연구, 12(2), pp.25-56.

김성수(2017),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pp.529-550.

김세나(2017), “과제 기반의 플립 러닝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영·정현미(2017), “수업기본원리를 적용한 플립드 러닝의 설계 및 효과”, 교육공학연구, pp.33(2), pp.295-326.

김판준(2016), “중국 대학 한국어과의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 모형 분석”, 전담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138-150.

동효령(2017),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적용 가능성 탐색 -중국 대학 내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0(1), pp.163-191.

민현식(2013),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조선)어교육연구, 8, pp.93-113.

박신향(2014), “한일 중학교 영어 교과서 형태초점 의사소통 활동 비교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46, pp.141-168.

박양주(2017), “플립러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탐색: 대화주의 관점에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 pp.173-179.

박진욱(2014), “대단위 한국어 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 모형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57, pp.75-102.

방진하, 이지현(2014),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교육적 의미와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1(4), pp.299-319.

백봉자(2013), 『한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가』, 하우.

우연희(2017), “플립트 러닝 기반 한국어 초급 문법 수업 모형 개발 및 효과 연구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6, pp.53-83.

이경, 운영(2017),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문법 교육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3(4), pp.333-361.

이동엽(2013),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pp.83-92.

이민경(2014),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41, pp.87-116.

이소현(2015),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 대학 학부 한국어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1(2), pp.221-262.

이호(2016), “중국 산둥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전망”, 국어문학, 61, pp.341-364.

정주영 외(2016),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교육과학사.

진제희(2004), “교실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 –스캐폴딩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3(1), pp.243-264.

최지현(2017), “국어과 교육에서 플립러닝(거꾸로수업)의 실행 조건, 국어교육연구, 40, pp.253-281.

한혜민 · 김선아(2016), “해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드 러닝 수업 개발과 활용 사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5, pp.391-419.

Bergmann, J. & Sams, A.(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Breen, M.(1987), “Learner contributions to task design”, In Candlin, C. & Murphy, D. (eds.), *Language Learning Tasks* (pp.23-4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llis, R.(2001), “Introduction: Investigating form-focused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51, pp.1-46.

Long, M.(1985), “A role for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ask-based language teaching”, In Hyltenstam, K. & Pienemann, M. (eds.), *Modelling and assess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evelopment* (pp.77-99), Clevedon, Avon: Multilingual Matters.

Nunan, D.(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unan, D.(2006), *Task-based language teaching*, Ernst Klett Sprachen.

Richards, J. C. & Rodgers, T. S.(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J. Platt & H. Weber(1986), *Longman Dictionary of Applied Linguistics,* London: Longman.

Strayer, J. F.(2007), “The effects of the classroom: Flip on the learning environment: A comparison of learning activity in a traditional classroom and a flip classroom that uses an intelligent tutoring system”, Ph. D., The Ohio State University.

이름: 김세나 金世娜

소속: 연태대학교 烟台大学

주소: 烟台市 莱山区 黄海路街道 烟台大学北校区 于濉泓学术交流中心 301号

우편번호: 264005

전화: 135-8987-9481

이메일: durumari321@naver.com

인문사회계열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내용 기반 언어 교육 연구

정서영

(북경대학교)

1. 들어가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외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한국어 능력은 필수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일상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인 동시에 대학 학업을 수행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기본 도구가 된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한국어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 목적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분류를 검토하여 재설정하고 대학에 진학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 대학의 개설 교양 교과목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내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은 대학교 부속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학부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은 특정 학문계열에 진학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학위 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 전체 유학생 49,270명 중에 65%으로 대략 32.000명이되고 이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하는 유학생들은 18, 322명으로 전체 학위과정의 57%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외국인 유학생 12만 명이 넘었으며[1] 이

[1]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 참조.

년도	학위 과정 유학생 수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 계열
2007	32,056	18,322	2,642	9,225	1,867	-
2009	50,591	35,269	3,502	8,156	3,143	521
2011	63,653	44,019	4,782	9,892	4,328	632
2013	56,715	38,361	4,520	9,219	3,917	698
2015	55,739	36,353	4,583	9,707	4,390	706
2017	88,124	47,637	11,575	5,313	6,794	713

중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하는 유학생들은 47,637명으로 전체 학위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의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계열로는 인문사회계열[2]을 가장 많이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한국어의 숙달도 미달과 전공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대학 강의 수강 및 대학 학업 수행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전공하는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하여 강의 중심의 수업과 전공 서적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전공분야에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 수업을 이해하고 학업 수행 수행을 위한 과제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내 대학의 교양 체제와 학부 유학생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특정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준과 전공 계열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하위 분류를 재검토하고, 국내 대학에 공통적으로 개설된 교양 교과목을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어를 추출하고자 한다. 즉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 기초과정 교과목의 주제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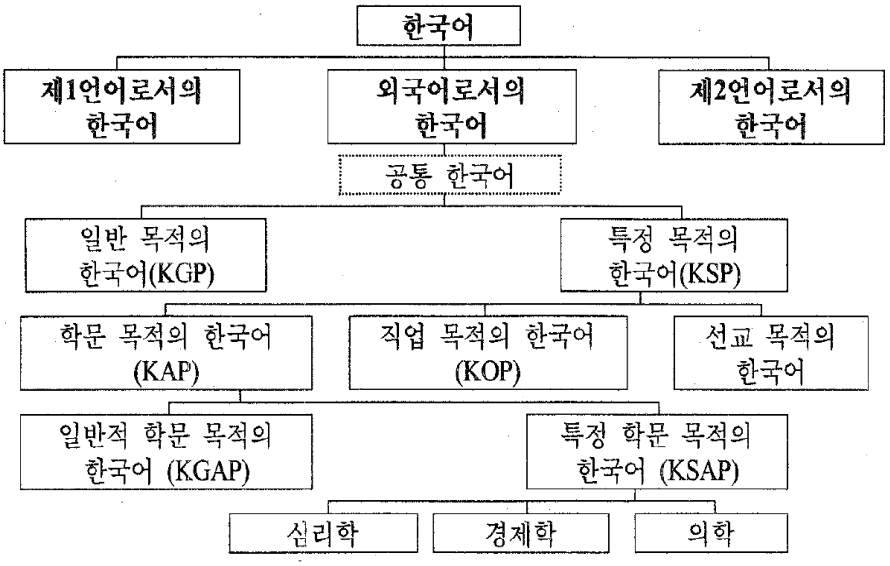
인문사회계열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부생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하류분류와 개념을 검토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하위분류의 목적에 맞게 과목이 적절하게 개설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초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학문 목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육 내의 학문 목적 개념과 범위, 학습자의 정의 등에 대한 논의한 연구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개념에 대한 비교적 초기의 연구 이혜영(2001), 김인규(2003), 유승금(2005), 최정순(200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를 일반 목적 한국어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연구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의사소

[2] 대학알리미 '표준분류 계열별정의' 설명에 의하면 인문사회계열이란 학문의 근간으로 전문 지식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앎' 그리고 '함'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함양하고 전수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 과학에 그 바탕을 두며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기초학문을 교육 및 연구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소양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은 언어문학,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경제·경영, 사회과학, 교육 영역으로 구분한다.

통 상황이나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한국어 숙달도와 학문적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대학 수학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는 다른 교육 내용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였다.

유승금(2005), 최정순(200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를 일반 목적 한국어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는 연구로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최종 목표점을 통해 '한국어'가 세분화되어 학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최정순(2006)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학습 목적에 따른 하위분류 전에 공통의 한국어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목적 한국어와 특수 목적 한국어로 구분되더라도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 한국어가 동시에 교수. 학습되다가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특수 목적 한국어가 우세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1> 최정순의 특수 목적 한국어 분류(2006: 282)

박석준(2008), 김유미·강현화(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의 분류를 확인할 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를 체계화하였다. 하지만 특수 목적 한국어 중에도 아주 기초적인 생활 한국어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는 일반 목적과 같다고 하였다. 이 점은 최정순(2006)에서의 분류체계를 동의하는 것으로 일반 목적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각각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 목적 한국어를 일반 목적 한국어와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박석준의 학문 목적 한국어 분류(2008: 30)

학문 목적 한국어	공통 한국어	기초에서부터 중·고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한국어 사용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한국어
	교양 한국어	대학 등에서 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전공 한국어	대학 등에서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박석준(2008)은 학문 목적 한국어를 대학 교양교과목의 한국어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유학생에게는 전공교육으로서의 한국어는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차이가 있어야 함을 구분하는 것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영역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양 한국어'라는 교과목은 대학 교양과정에서 학점 이수하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글쓰기 능력과 발표 능력의 의사소통 한국어 향상을 위한 언어 수업 및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양교과목을 모두 포함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김유미·강현화(2008)는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대학 진학 전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고 2단계는 대학 진학 후 한국어 교육으로 교양 기초교과목을 수강하는 단계이고 3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저학년으로서 전공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단계이다. 박석준(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구분이 된다.

1단계 언어교육기관	언어 ⇔	2단계 대학 교양과정	⇔ 내용	3단계 대학전공기초과정
언어강좌		교양강좌		전공기초 강좌
대학수학을 위한 언어기능별 교육 KGAP		교양서적 교양내용이해 수학용 언어보조 KGAP/KSAP		전문서적 전문내용이해 전공언어보조 KSAP

<그림 2>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의 단계(김유미·강현화 2008: 4)

박진욱(2014)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가 대학에서의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 목적 언어임을 명명하고 국내 대학 전공 진입 전과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 전공, 진입 후의 한국어로 나누었다. 전공 진입 후에 요구되는 수학 능력의 제고를 위해 전공 진입 전 한국어 교육의 전공 영역별 학문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공 진입 전 한국어 교육과 전공 진입 후 한국어 교육을 분절적으로 보기보다는 전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 역시 진입 전의 기초 학습 능력이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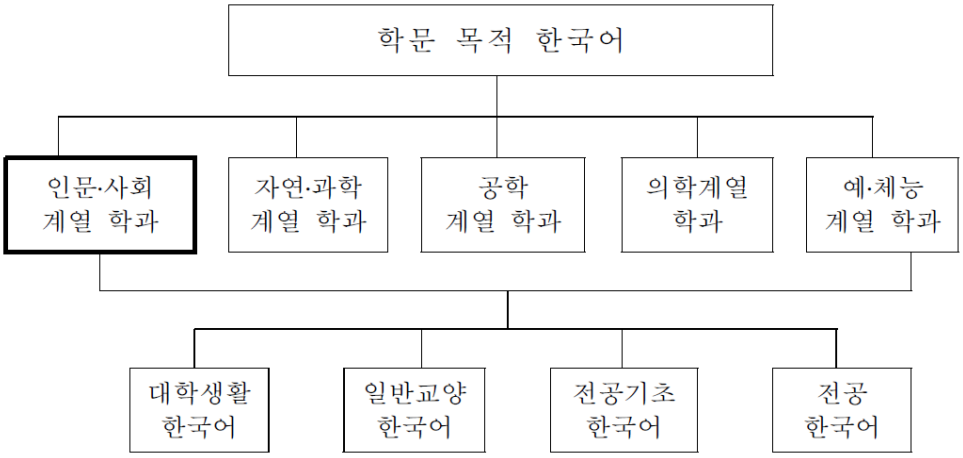
<표 2> 박진욱의 학문 목적 한국어 분류(2014: 21)

학문 목적 한국어	전공 진입 전 한국어	대학에서 일반적인 학문 수행에 사용되는 한국어
	전공 진입 후 한국어	전공 영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문 수행에 사용되는 한국어

앞선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한 후의 한국어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승금(2005), 최정순(2006)의 연구 논의로 한국어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최종 목표점을 통해 한국어를 세분화하여 학습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 후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계열별로 한국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석준(2008), 김유미·강현화(2008)에서는 교양 한국어로서 교양 관련 교과목을 위한 언어능력과 기초 교양 지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전공 진입 전의 전공 수업 이수를 위한 한국어 수업으로 전공 기초와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박석준(2008), 김유미·강현화(2008), 박진욱(2014)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공 진입 후의 한국어 교육으로 전공 서적 이해나 전공 영역에서의 학문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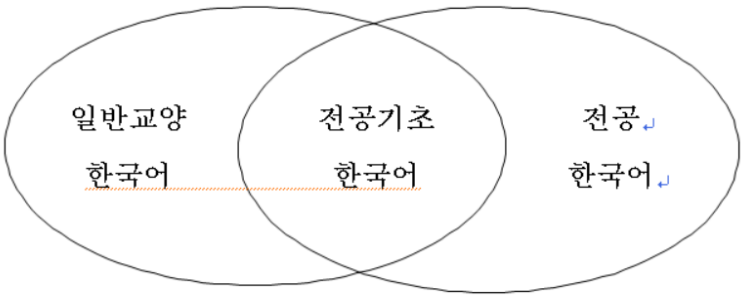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분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 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대학의 모든 전공학과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 체능계열 5개로 국내 대학에서의 모든 전공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공 학문 영역에서 요구되는 언어 교육이 전공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전공 학문 영역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 내용 및 기능,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 전공별로 대립적인 개념과 범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각 전공학과에 따른 하위분류는 국내 대학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학문 목적 한국어를 대학생활 한국어, 일반교양 한국어, 전공기초 한국어, 전공 한국어로 나누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생활 한국어 수준에서 교양 교과목을 위한 한국어와 전공 진입 후 필요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까지 수강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류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학문 목적 한국어 분류(정서영 2017: 36)

대학 생활 한국어는 일반 목적 한국어의 고급 단계 수준의 대학 수학을 위한 언어기능별교육으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집중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다. 일반 교양 한국어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논하는 능력으로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로 의사소통 기능과 학문 수행을 위한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한국어 교육으로 국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일반 교양과 핵심 역량 교양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다. 전공 기초 한국어는 전공 학문의 기초 영역으로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으로 보편적인 교양교육과 다른 전공 학업을 위한 예비과정으로서의 기초 한국어 교육이다. 즉, 전공 기초 한국어는 전공 학문과 관련하여 논하는 능력으로서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으로 보편성과 교양교육과의 다른 전공 학업을 위한 예비로서의 기초 교육이라는 개념도 포함된다. 전공 한국어는 교양 교육이 아닌 전공 교과목을 수업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로 전공 한국어는 동일 강의를 듣는 한국 학생들과 대등한 대학 수학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시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일반 교양 한국어 전공 기초 한국어의 관계 (정서영 2017: 40)

또한 위와 같이 대학 생활 한국어, 일반 교양 한국어, 전공 기초 한국어, 전공 한국어는 대리적으로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학문 목적 한국어이라는 공통된 범주의 하위 범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 교양 교과목과 전공기초 한국어 전공 한국어 및 전공 영역에 교과목에서 필요한 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2>은 학문 목적 한

국어 교육의 순차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연구

3.1.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

199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 몇몇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 중심으로 외교관 및 사업 상 한국에 머물렀던 주재원 등의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국외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99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이 양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늘면서 여러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이 개원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 교재도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이 무렵 국가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이 개발되면서 한국어교육기관마다 교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한국어 교육은 교과 체계를 6등급으로 갖추게 되었고, 이들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특별(단기) 과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한 학기에 집중된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대학의 500명 이상 규모의 30개 대학[3]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한국어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운영여부를 알아본 후에 2차 조사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사 방법은 기관 설문조사 및 전화인터뷰, 학술지 자료를 참고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과 운영을 살펴 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3] 2015년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한국어연수과정 포함). 출처'대학알리미' 상위 30개 대학.
가천대학교(656명), 건국대학교(1,785명), 경기대학교(530명), 경북대학교(899명), 경희대학교(3,144명), 계명대학교(947명), 고려대학교(3,336명), 국민대학교(1,621명), 동국대학교(1,751명), 부산대학교(948명) 상명대학교(1,177명), 서강대학교(1,002명), 서울대학교(1,356명), 선문대학교(907명), 성균관대학교(2,387명), 세종대학교(707명), 연세대학교(3,093명), 영남대학교(590명), 우송대학교(1,218명), 이화여자대학교(1,248명), 인하대학교(804명), 전남대학교(605명), 전북대학교(550명), 중앙대학교(1,454명), 충남대학교(977명), 충북대학교(802명), 한국외국어대학교(1,042명), 한양대학교(2,056명), 호남대학교(666명), 홍익대학교(694명)

일반 목적 한국어 (1급~6급)	학문 목적 한국어		
	최고급반(7급)	특별반	학문 목적반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선문대학교	한국어외국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송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단 한 곳뿐이다. 서강대학교는 3급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글쓰기 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은 학문 목적 교육보다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의 6급 연장선상의 교육으로 최고급반(7급)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연구반), 상명대학교(대학예비반), 선문대학교(심화반), 전남대학교(작문반, 발표반) 가천대학교(최고급반), 한양대학교(심화반)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은 학문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보다 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 전까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기관이 한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대학은 학생의 수요나 요구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최고급(7급)을 운영하고 있다.

3.2. 대학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기초교양 교과목 분석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 후 대학 학업 상황에서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초점이다. 대학의 학업 상황이란 교양 및 전공 강의를 듣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세미나 토론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외에 국내 한국인 동급생, 학교 행정 담당자와의 교류 또는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목적 기술과 세부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관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학업 상황에 요구되는 언어적, 상황적 요소들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내 대학에 개설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과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2015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수를 기준으로 상위 30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용 교과목을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각 대학의 대학요람을 열람하여 알아보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요람으로 유학생 전용교과목 개설 여부로 알 수 없는 대학도 있었다. 한

국어 및 한국사회에 관련된 교양교과목은 대부분 외국인 전용 교과목으로 순수외국인,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교과목이 대부분이었다. 30개 대학 중에 한국어 및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4개 대학으로 모두 209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숙달도 향상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의 이해를 위한 교과목으로 나눠 알아보았다.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로 제시한다.

<표 4> 외국인 전용 교양 교과목 분석(2017: 148)

(30개 대학)	외국인 전용 교양교과목				
	교양 한국어 (듣기기술, 말하기기술 읽기기술, 쓰기기술		한국학 관련 (한국사회, 한국 정치, 한국역사, 한국 지리 등)	한국 문화	기타
209과목	듣기	4	27	39	14
	말하기	18			
	읽기	11			
	쓰기	23			
	문법	4			
	발표보고서 읽기쓰기	10			
	통합한국어	59			
	전체	129			

대학 내 외국인 전용 교양 교과목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교양 한국어 교과목 개설이 전체 129과목(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합(종합)한국어가 59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통합(종합)한국어로 분류한 교과목은 한국어1. 2, 실용한국어,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 등으로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초급부터 고급까지 개설되어 있고 교과목 명으로 유추하면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강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용 교양교과목의 교과명이 대체적으로 혼잡스러워 보인다. 어느 대학은 비슷한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어 교과명만으로는 두 수업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언어기능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이 개설된 교과목은 쓰기이다. 쓰기와 결합한 다른 기능과 합해보면 33과목으로 교양 한국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향상을 위한 교양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학 관련 교과목 28개 중에는 대부분‘한국사회의 이해’혹은‘한국역사의 이해’가 개설되어 있었다. 한국문화관련 교과목은 한국학 관련 교과목보다 많은 39개 교과목이 개설되었는데 한국학 관련 교과목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교과목으로 주목할 만한 교과목이 있었는데 한자 교과목이다. 한국어의 어휘 특징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이며 특히 학문적 텍스트에서는 한자어가 출현 빈도가 높다. 글로벌 리더십 교과목 개설은 국내 대학의 글로벌.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대학생들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교육을 하였는데 이런 수업을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도 확대 개설이 되면서 대학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인재교육에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3.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주제어 선정

한국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에 진학 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 진입 전인 저학년 학생들에게 일정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위한 교양과목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의 목표로 삼고 이 과정의 교수 방법은 내용 기반 접근법의 하나인 주제중심 교수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를 추출 방법으로 5개 대학[4]의 교양교과목에서 인문.사회계열 공통 교양교과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대분류(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2차 중분류(언어문화, 인문학, 법학, 사회 과학, 경제경영, 교육)로 두 차례 분류하여 최종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표 5> 전공 계열별 교양·기초 교과목 대주제 분류

대분류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충남대
인문·사회계열	178 [73.8%]	105 [68.6%]	204 [77.5%]	267 [68%]	138 [55.4%]
자연·과학계열	34 [14.1%]	15 [9.8%]	44 [16.7%]	61 [15.6%]	63 [25.3%]
공학계열	5 [2%]	6 [3.9%]	7 [2.7%]	7 [1.7%]	13 [5.2%]
의학계열	-	-	-	-	-
예·체능계열	24 [10%]	27 [17.6%]	8 [3%]	56 [14.3%]	35 [14%]
합계	241	153	263	391	249
총합	1,297과목				

각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교양 교과목 개설은 평균 68.7%로 전체 교양 교과목의 ⅔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교과목 개설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균관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만 개설된 교양교과목만 분류를 했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 평균보다 8%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충남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등 조사한 다른 대학보다 이공

[4] 5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 3위 연세대학교(수도권/대형/사립), 4위 성균관대학교(수도권/대형/사립), 7위 동국대학교(수도권/대형/사립), 13위 상명대학교(수도권/중소형/사립), 16위 충남대학교(지방/대형/국공립)이다.

계 학과가 많이 조사되었다. 자연.과학대학 교양 교과목 개설은 평균 16.3%로 가장 많은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충남대학교이며 자연과학대학 전공과가 많지 않은 상명대학교는 가장 적은 자연과학계열 전공과목이 개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체능계열 교과목 교양교과목 개설은 평균 11.8%로 조사되었는데 상명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교양 교과목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교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공학계열 교양 교과목 개설은 평균 3.1%로 대부분 10개미만의 공학계열 교양교과목이 되었는데 충남대학교는 5.2%로 15과목의 공학계열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다음은 각 대학의 교양 교과목을 대분류 주제로 나눈 후 중분류 주제로 교양 교과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6> 인문사회계열 교양·기초 교과목 중주제 분류

대분류	중분류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충남대
인문사회계열	언어·문화	63	29	44	73	31
	인문학	62	30	88	96	41
	법학	6	4	2	10	6
	사회과학	35	29	52	73	42
	경제·경영	10	12	15	7	12
	교육	2	1	3	8	6
	N.C.E					
	합계	178	105	204	267	138
	총합	892과목				

각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교과목을 중분류로는 인문학 비중이 높았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학 교과목이 43%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연세대학교가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문화 교과목, 사회과학 교과목 순으로 개설되었다.

이렇게 5개 대학에 개설된 인문사회계열 교양 교과목 892개 교과목 중에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문사회계열의 교양 교과목 892개를 중분류 하여 5개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교 과목은 34개이고 4개 대학이 공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양 교과목은 22개, 3개 대학이 공통으로 개설된 교양 교과목은 31개 교과목으로 5개 대학이 3과목 이상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86개 과목이다. 이렇게 선정된 86개의 교과목을 두 차례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1차 선정은 5개 대학에 추출한 인문사회계열 공통 교양 교과목은 4개 대학 이상에서 추출한 56개의 주제어[5]를 선정하였다. 5개 대학에서 모두 개설되어 있는 교양교과목은 타

[5] 언어문학(14) - 한문, (기초)글쓰기, (심화)글쓰기, 말하기(화법), 영어, 시사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문학,

대학에서의 개설 확률이 100%로 개설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4개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교과목은 타 대학에 개설될 확률이 80%이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 대학에서 개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제외하였다.

2차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4개 대학이상에 공통 교양교과목으로 추출된 56개 주제어 중에서 언어문학에서 영어, 시사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과학명작, 인문학에서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프랑스 문화, (내국인을 대학생을 위한) 한국의 전통문화, 공학윤리 사회. 과학에서 자기경영, 경제. 경영에서 회계, 금융 등의 16개 주제어를 제외하고 최종 40개 주제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7>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위한 전공 기초 한국어 주제어

	주제	
5개 대학	한문, (기초)글쓰기, (심화)글쓰기, 말하기(화법), 한국문학, 세계문학, 철학, 한국역사,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 윤리, 인간, 예술과 인문학, 심리학, 진로, 대중 매체, 정보지식, 여성, 다문화, 리더십, 기업가정신, 창의력 문제해결, 정치,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학	25
4개 대학	언어와 사회, 인지과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한국문화, 현대사회와 법, 인권, 사회복지, 인구, 소비생활, 상상력, 국제 관계, 한국사회, 회계, 글로벌 경제, 창업	15
합 계		40

4. 결론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여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늘어난 유학생의 요구조사를 분석, 교육 방안 제시, 교재 개발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료를 개발하는 사용하였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후 겪게 되는 학문적 수행을 위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분류를 재검토하고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세계문학, 독일어,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과학명작
인문학(16) - 철학, 한국역사,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 윤리, 인간이해,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예술과 인문학, 언어와 사회, 인지과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프랑스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공학윤리, (외국인을 위한)한국문화
법학(2) - 현대사회와 법, 인권
사회과학(18) - 심리학, 진로, 대중 매체, 정보지식, 여성, 다문화, 리더십, 기업가 정신, 자기 경영, 창의적 문제해결, 정치, 과학기술과 사회, 사회복지, 인구, 소비생활, 상상력, 국제 관계, 한국사회
경영경제(6) - 경제학, 회계, 글로벌 경제, 창업, 금융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학문 한국어 교육이 실현이 되는 한국 대학의 특성과 학습자의 특성에 의해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학문 목적 한국어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대학 전공계열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의 전공을 세분화하여 특정 전공자를 위한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대다수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대학 학업에 대한 이해와 전공의 기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교양 교과목 강의의 수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의 기초교양 교과목을 분석하여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통해 40개의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가운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은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현화박동규(2004). 학문 목적의 변존 언어 교수 모델 적용 연구-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

권은영(2013).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2), 한국교양교육학회, 373-398.

김문준 외(2010).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10),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13-134

김유미·강현화(2008).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어휘 선정 연구: 한국어·문학·경영학·컴퓨터공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112.

김유미·박동호(2009).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한국 어학 전공생을 위한 내용 중심 교수법. 언어와 문화5(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3-215.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학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

김지영(201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내용. 영주어문 25. 영주어문학회. 75-106.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한국어 교육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200.

성아경·이경(201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방안 제언. 새국어교육 106,

한국국어교육학회. 267-299.
오경숙(2013),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과 미래,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3-56.
유승금(2005), 학문 목적 한국어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학점 이수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차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1-82.
이덕희(2004). 요구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형길·박진욱(2011),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의 구성 요소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177-210.
정미혜(2012). 공학계열 내용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서영(201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수학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희정·곽지영(2015),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정의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대학한국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당. 229-257.
최정순(200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277-313.

정서영
북경대학교
北京大学 外国语学院 朝鲜（韩国）语言文化系
中国北京市海淀区颐和园路5号北京大学民主楼112室
10087
130 5192 6198
rui-ying@hanmail.net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과제

-중산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상황을 중심으로

류우, 이지영

중산대학교한국어학과

1. 서론

2012 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의 꿈”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꿈”의 실시는 2013 년 9 월과 10 월 “실크로드경제 벨트”와 “21 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역설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15 년 3 월 28 일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 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전망과 행동”[1]이 정식으로 발표되면서 “일대일로” 건설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고 주변 60 여 개 국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조기 성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중국-러시아 동강철도 교량 건설, 중국-파키스탄 카라코람 도로 2 기 업그레이드 개조 공사 등의 교통, 물류, 정보통로, 국제항로건설 등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다.[2]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내용은 “정책소통과 시설연결, 원활한 무역, 자금융통, 민심소통” 이며, 이 “5 통” 과 “인재교환” 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소통”이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해 나가려면 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각국 국민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교육, 문화, 신문, 체육, 관광, 고고학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한 층 더 강화시키고 주변 각 나라 간의 도로와 민심연결의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각국 국민이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행정에서 서로 만나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대륙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손잡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일대일로”의 취지는 국제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주변 각국의 경제를 연결하며 국제 시장의 잠재력 발굴과 투자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 우리 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국책은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走出去”국책의 주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대학교의 외국어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전국 정치협상위원회 위원,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부총장 顾也力교수가 언급하였듯이 “일대일로” 배경하에 우리나라는 외국어를 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두루 갖춘 인재가 많이

[1]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htm（검색일：2017.02.01）

[2]人民网：《2013-2016”一带一路”项目成绩单》http://world.people.com.cn/GB/8212/191616/409002/index.html（검색일：2018.06.06）

필요하다.[3]사실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라는 개념은 비단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다. 그렇지만 '복합형 외국어 인재 양성' 은 “일대일로”배경 하에서 그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수요에 따라 복합형 한국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본문은 우리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성과, 문제점과 해결책 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어 교육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계에서 복합형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제의는 1989년도 사천외국어대학교 曹光久교수가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장기적으로 거의 단일적인 외국어 인재만 양성해 왔다. 사회의 발전과 업무의 수요에 따라 이러한 인재의 부족함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인재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다 할 줄 아는 인재다. 이러한 외국어 인재는 바로 복합형 외국어 인재이다.[4]

복합형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제의가 제기된 후 많은 대학교에서 이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해왔다.

중국에서는 영어전공에서 복합형 외국어 인재 양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대표적인 논문은 张冲의 “대학교의 영어전공에서 복합형 인재양성에 관한 소고”[5]가 있으며 주로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가 하는 토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 양성은 사회의 수요이자 시대의 요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후 부터刘天伦,[6] 杜瑞清,[7]罗世平[8]등 교수들이 복합적인 인재 양성방식, 양성하는 실천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논문검색사이트인 “中国知网”에서 복합적인 인재양성에 관한 주제어를 치면 관련된 논문이 몇 백 편이나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해 중요시하는 증거이다. 하지만 한국어 전공에서 복합형 인재 양성에 관한 논문은 5편 밖에 없었다.[9]한국의 대표적인 논문 검색 사이트인 KISS와 Dbpia에서도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과연 어떤 인재가 복합적인 외국어 인재인가? 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문자

[3]中国日报：《全国政协委员顾也力：国家急需复合型外语人才》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new/53002523/2017-03-05/cd_28439134.html(검색일:2018.06.15)

[4]曹光久，“关于外语院校培养复合型人才的思考”,《四川外国语学院学报(高等教育研究专版)》, 1989 (2):48-52

[5]张冲，“高校英语专业英语复合型人才培养对策的思考”，《外语界》,1996(1):6-10

[6]刘天伦，“培养目标与可利用资源——有关培养复合型英语人才的思考”，《外语界》, 1996(1):1-5

[7]杜瑞清，“复合型外语人才的培养及实践”,《外语教学》,1997(2):34-37

[8]罗世平，“也谈21世纪复合型外语人才培养模式”,《外语界》,2000(3):8-11+17

[9]刘宇，“论韩国语专业复合型人才的培养”，《 当代教育理论与实践》,2012,4(5):57-59,;张英美,”中国高校韩国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趋向特点”，《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3,46(6):138-143;王艺静;朴今淑,“独立学院韩国语专业复合型人才的培养”,《教育教学论坛》,2016(1):129-130,太香花，“以复合型人才培养为目的的第三语言韩国语教育——以延边大学汉语国际教育专业为例”，《亚太教育》,2016(35):230-231;车海兰, “‘一带一路’背景下理工类院校复合型韩国语专业人才培养模式探究”,安徽文学(下半月),2017(5):140-141

그대로만 해석해도 적어도 본인이 전공하는 외국어 지식 외에 제2 외국어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을 갖춘 사람을 가리킨다. “일대일로” 배경하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국어전공의 교육 방향을 재조정하고,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을 조절해 사회발전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초적인 언어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지식 습득의 단계에 도달하여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지식도 갖추고 있는 전문인력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국가를 위해 어문학분야의 연구자를 육성하 임무를 맡고 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졸업생 중에서 언어, 문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반면 수 많은 졸업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경제, 무역, 관광, 외교 등 분야의 복합적인 인재들이다. 이와 같은 복합형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한국어 전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이자 시대의 수요이다.

3. 한국어전공의 복합적 인재 양성 과정 상의 문제점

한국어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 나, 다, 라 자모부터 배우는 학생들이다. 4년 동안 한국어 한가지만 배워도 벅찬데 다른 지식을 배울 겨를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한국어교육계에서 복합적인 인재를 키우는 것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대다수는 키우기가 어렵다는 견해이다.

한편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전공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대 다수가 한국어학 또는 한국어문학 출신이다. 이런 상황 하에 다른 전공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한국어 전공에서 복합적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교과과정을 설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우선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교과과정을 설정할 때 너무 높게 설정하면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어렵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배출된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합적인 한국어 인재를 양산하려면 교수진의 전공도 다양해야 한다. 교과 과정을 설정할 때 폭넓은 교수진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한다면 결국 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어전공 교육에 있어 복합적인 한국어 인재 양성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4. 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산대학교 한국어학과 상황

중산대학교 한국어학과는 2009 년에 개설되었다. 학과를 신설할 당시 이미 전국적으로 150 개가 넘는 대학들이 한국어전공을 개설한 상황이었고, 졸업생 배출 규모도 매년 5000 명 정도였다.[10] 또 한국에서 유학한 후 귀국한 중국유학생들이 매년 수 천 명에 달하

[10]教育部高校招生阳光平台http://gaokao.chsi.com.cn/zyk/zybk/specialityDetail.action?specialityId=73383

였고, 이들은 한국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도 두루 갖추었다. 한국에서 볼 때 100 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인이 중국의 대도시와 연안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최근 10 여 년간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유학생이 중국으로 온다. 한국 내에서도 수십 만 명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지역학과를 많이 개설하여 외국어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식을 가르친다. 즉, "언어+ 전공"의 양성모델이다. 그래서 한국어전공 분야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과도 다른 학교와 차별 없이 학생들을 양성한다면 격렬한 경쟁 속에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부터 앞섰다. 차별화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즉, "한국어+ 영어+ 전공지식" 목표를 세웠다.

4.1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

첫째. 1,2 학년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기초지식을 전수해 주고 엄격하게 한국어 구사능력을 훈련하도록 하며 동시에 한반도의 개황을 전수해 준다. 초기단계에는 언어기능을 위주로 하여 1학년부터 한국어를 전공하는 동시에 영어를 부전공하게 하며 또 일정한 비율로 전체 공공 선택 과목과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양 과목 등을 통해 인문정신과 과학정신을 배양한다.

둘째. 3, 4 학년에서는 한국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각종 기능을 전면 강화하며 "3+1" 양성모델을 실행한다. 즉, 3 학년 때 1 년 동안 전체 학생들이 교환학생신분으로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한국대학교로 교환 유학학생들에게 한국 현지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현지 대학에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금융, 관광 등 앞으로 대학원 진학하거나 취업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하며, 학생들의 개인 발전에 기초가 되는 수업을 듣게 한다. 이렇게 하는 원인은 학생들의 개인 발전에 필요로 한 과목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전공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들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1 학년 하반기 전국 대학영어 4 급 시험을 치게 하고 반드시 4 급을 통과하게 하며2학년 상반기에는 전국 대학영어 시험 6급을 치게 하고 역시 반드시 통과하게 한다. 2 학년 하반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Ⅱ)과 중국조선어 4 급시험을 치게 한다.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는 교수가 강의하는 질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은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요구하는 수준에 달성했는지를 점검한다.그리고 4 년 상반기 중국 조선어 8 급시험을 치게 하고 또 한국어 능력시험 5 급 이상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가 있다.

넷째. 탄탄한 한국어 언어기초지식과 전공지식을 갖춘 복합형 인재를 배출하려면 우선 교수진의 전공구조가 다양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대학에서는 한국언어학과 한국문학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된 학과가 많다. 이런 분들에게<통상한국어>와 같은 수업을 맡게 하면 사실상 이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통상학에 관한 전공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문면상의 한국어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 이라는 단어를 볼 때 아마도 신용장이 중국어로 '信用证'라고 한다는 것과 국제무역에서 지불조건 중 하나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인재를 양

515(查索日期：2018.6.13)

성하려면 교과과정을 잘 설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전공분야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 학과의 교수진은 한국 어학, 문학, 경제학, 역사, 철학 등 전공을 졸업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4.2 지금까지 거둔 성과

첫째. 교육 수준상황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 전국 조선어 4 급 시험 성적 <표 1>

학년/시험 시간	전국통과율	중산대통과율	전국우수율	중산대우수율
10 학번(2012 년 6 월)	90.85%	100%	12.06%	25%
11 학번(2013 년 6 월)	79.77%	100%	6.34%	25%
12 학번(2014 년 6 월)	76.96%	100%	3.24%	38.5%
13 학번(2015 년 6 월)	88.54%	97.00%	18.45%	73%
14 학번(2016 년 6 월)	83.10%	100%	16.70%	92.86%
15 학번(2017 년 6 월)	86.10%	100%	26.60%	81.48%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 전국 조선어 8 급 시험 성적 <표 2>

학년/시험 시간	전국통과율	중산대통과율	전국우수율	중산대우수율
10 학번(2014 년 6 월)	76.98%	85.7%	2.74%	0%
11 학번(2014 년 12 월)	76.90%	100%	2.74%	0%
12 학번(2015 년 12 월)	89.28%	100%	6.86%	11.53%
13 학번(2016 년 12 월)	89.9%	100%	18.2%	81.8%
14 학번(2017 년 12 월)	72.6%	100%	5.6%	46.4%

<표 1>과<표 2>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학교가 전국 조선어 4 급, 8 급 시험에서 얻은 성적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인다.**4 급 시험에서는** 우리 학교가 거의 해마다 100%의 통과율을 달성했고 우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2016 년에는 전국의 우수율이 불과 16.7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의 우수율은 92.86%를 기록했다. **8 급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제 1 회 시험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00% 통과율을 유지해 왔다. 2016 년도의 시험에서 전국의 우수율이 18.2%인데 비해 우리 학교의 우수율은 81.8%를 기록했다.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 한국주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Ⅱ) 성적 <표 3>

2 학년 때 (TOPIKⅡ)시	4 급이상 통과 율 100%

험에서	6 급	5 급	4 급
13 학번(2015 년)	33%	53%	13%
14 학번(2016 년)	43%	54%	3%
15 학번(2017 년)	51.9%	29.6%	18.5%

우리는 학과의 교육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2 학년 하반기 학생들에게 한국의 TOPIK 시험을 치게 한다. 2 학년 학생들이 100% 4 급 이상을 통과할 수 있다. 특히 2015 년 이후 TOPIK 시험이 중, 고급 유형을 TOPIKⅡ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된 이후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15 학번 학생들의 2 학년 때 TOPIKⅡ 시험을 친 결과를 보면 고급 6 급을 통과한 학생이 51.9%나 되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성적을 보면 우리들의 교육 방법이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 학년 때 한국에 가 있는 교환학생들이 현지 대학교의 교수진들로부터 중산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둘째. 석사과정 진학 상황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는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하는 “한국어+영어+전문 지식”을 아우르는 복합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한국어+영어+전문 지식” 이런 교육 목표 아래 학생들은 두 가지 외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문 지식도 갖추었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 진학할 때 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어 교육, 한중번역뿐만 아니라 한국역사, 동양철학, 정치외교, 심리학,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국제경제학, 국제재무관리 등 다양한 전공에 진학하고 있다. 해마다 한국 명문대학교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 외대, 경희대 등에 가는 학생이 있고,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명문대학교에 가는 학생도 있다. 그리고 국내는 홍콩중문대학, 북경 외대, 상해 외대, 남경대, 중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원 진학률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50% 정도 유지하고 있다.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 학생들의 진학 상황<표 4>

학번/이름	진학한 학교와 전공	학번/이름	진학한 학교와 전공
09 왕해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 전공)	11 엽몽엽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역사 전공)
09 단 욱	고려대학교 (국어국문 전공)	11 주혜문	성균과대학교 (국제무역 전공)
09 이효단	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 전공)	11 임은유	영국 듀오 대학교 (경영학 전공)
09 강 성	서울시립대학교(역사 전공)	11 양길류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09 오과방	부산대학교 (국제무역 전공)	11 장 전	북경외국어 대학교 (번역 전공)
09 진일교	홍콩중문대학교 (교육학 전고)	11 임민진	영국 리즈 대학교 (광고와 경영학 전공)
09 동 연	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전공)	12 하가민	중산대학교 (대외중국어교육 전공)
10 장 적	호주 멜버른 대학교 (회계학 전공)	12 이사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경영학 전공)
10 장 민	호주 시드니 대학교 (회계학 전공)	12 유 한	중산대학교 (대외중국어교육 전공)
10 임흥연	홍콩 중문대학교 (언어학 전공)	12 홍괴령	홍콩과기대학교 (글로벌경영과 관리 전공)
10 노배동	홍콩 중문대학교 (도시주택 연구 전공)	13 공열항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10 진시달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회계와 금융 전공)	13 오중달	남경대학교 (기초심리학 전공)
10 한 정	일본 신주쿠 상학원 (상업정보 전공)	13 정빙빙	중산대학교 (국제사무 전공)
10 당립려	부산대학교 (무역학 전공)	13 설준방	대외경제무역 대학교 (한국어 통역)
10 유소소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13 왕사사	중산대학교 (대외중국어교육 전공)
10 왕 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13 장서호	고려대학교 (동양철학 전공)

10 황설매	영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13 노 경	연세대학교 (국제무역 전공)
10 이 염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13 황인인	연세대학교 (국제무역 전공)
11 하가희	경희대학교 (경영학 전공)	13 정운총	홍콩시티 대학교 (정보관리학 저공)

중산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양성한 학생들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지역의 명문대학교의 경영학, 무역학, 재무관리, 금융 등 학과로 진학할 수 있는 원인은 영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전공에 관한 기초지식도 어느 정도 습득했고 또 동양 언어인 한국어와 중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인재라고 인정받았다. 한국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원인도 한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를 잘할 수 있어서 유리한 것이다.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1년 동안 유학한 경력이 있어서 한국어를 구사할 때 쓰는 단어가 정확해서 유리하다.

셋째. 취업 상황

중산대학교는 화남지역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고 취업률은 매년 100%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다. 취업하는 기업은 삼성, LG, 현대, 효성, 대한 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의 대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기업, 정부 기관, 은행 등도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 영어+ 전문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업체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3 존재한 문제점과 해결책

중산대학교 한국어 학과가 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비록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제점들도 있다. 예를 들면, 3 학년 학생들이 1 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 있을 동안 이들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학생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 안전 교육이나 학업에 정진하는 교육 등을 한다. 그리고 각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조를 짜서 팀장을 선출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본 학과의 책임 교수와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지도해 주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진학 방향에 맞추어 해당 전공과목을 적어도 두 과목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정 형편 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교와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교환 협정을 맺거나, 일부 대학교와는 기숙사비까지도 면제해 주는 조건의 협정을 맺음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후 중국은 많은 나라와 경제 무역거래를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식경제화와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는 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원하는 한국어 전공 복합형 인재는 한국어능력이 탁월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까지 잘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어전공은 국가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인재 양성모델을 단일화에서 다양화로 전환하고 특색을 살려야 한다. 현재는 격변하는 시대이며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복합형 한국어 인재 육성 그 자체가 새로운 교육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복합형 외국어 인재 양성은 인재 양성의 법칙과 특성을 존중해 각 대학교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많은 연구와 논증을 통해서 교과목을 설정하여 학과의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강보유는 “일대일로 배경하에서 사회 정치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오늘날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대일로 발전 전략은 한국어학과에게 기회이고 도전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언어문화에 정통하고 영어와 같은 통용어 기초가 튼튼한 언어·문학·문화연구형인재, 국제관계전략형인재, 경제사회실용형인재 양성으로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지역 특성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11]라고 하였다. 인재양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장기성,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시종일관 되게 학생들에게 탄탄한 한국어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지식구조를 넓혀 주어야 한다. 확고한 목표를 갖추어야만 급변하는 시대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당하게 앞장서는 도전의 리더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보유,「한국어교육의 다양화와 지역 특성화 -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背景하에서의 中國의 韓國語教育 發展方向」,『한국(조선)어교육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7 (12)：69-85

曹光久,“关于外语院校培养复合型人才的思考”,《四川外国语学院学报(高等教育研究专版)》,1989 (2):48-52

车海兰, “‘一带一路’背景下理工类院校复合型韩国语专业人才培养模式探究”,安徽文学(下半月),2017(5):140-141

杜瑞清,“复合型外语人才的培养及实践”,《外语教学》,1997(2):34-37

刘天伦,“培养目标与可利用资源——有关培养复合型英语人才的思考”,《外语界》, 1996(1):1-5

刘 宇, “论韩国语专业复合型人才的培养”《当代教育理论与实践》,2012,4(5):57-59

[11]강보유,「한국어교육의 다양화와 지역 특성화 -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背景하에서의 中國의 韓國語教育 發展方向」,『한국(조선)어교육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7 (12) : 84

罗世平，“也谈 21 世纪复合型外语人才培养模式”，《外语界》，2000(3):8-11+17
太香花，“以复合型人才培养为目的的第三语言韩国语教育——以延边大学汉语国际教育专业为例”，《亚太教育》，2016(35):230-231
王艺静； 朴今淑，“独立学院韩国语专业复合型人才的培养”，《教育教学论坛》，2016(1):129-130
张 冲，“高校英语专业英语复合型人才培养对策的思考”，《外语界》，1996(1):6-10
张英美，“中国高校韩国语专业国际化复合型人才培养模式探析——兼论就业趋向特点”，《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3,46(6):138-143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15-03/28/c_1114793986.htm（查索日期：2017.02.01）
教育部高校招生阳光平台 http://gaokao.chsi.com.cn/zyk/zybk/specialityDetail.action?specialityId=73383515(查索日期：2018.6.13)
人民网：《2013-2016”一带一路”项目成绩单》http://world.people.com.cn/GB/8212/191616/409002/index.html（查索日期：2018.06.06）
中国日报：《全国政协委员顾也力：国家急需复合型外语人才》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new/53002523/2017-03-05/cd_28439134.html(查索日期：2018.06.15)

姓名：刘宇（副教授）
单位：中山大学国际翻译学院朝鲜语系
地址：广东省珠海市唐家湾中山大学珠海校区行政楼 10 楼
电话：13411365753
邮箱：rujam@163.com

姓名：李智暎（外教）
单位：中山大学国际翻译学院朝鲜语系
地址：广东省珠海市唐家湾中山大学珠海校区行政楼 10 楼
电话：13798952739
邮箱：awisegirl@hanmail.net

한자어가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 및 외국어로서의 교육방안

胡翠月

(大連外國語大學 韓國語學院)

초록

한국어에 대량의 한자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은 한국어를 습득하기 아주 유리하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를 마친 후 단어를 기억하는 과정에 모국어의 한자 기초의 우세를 빌어 단어의 절반 이상의 어휘가 한자어인 한국어 단어를 빠르게 받아드릴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언어 단계를 지나 초, 중급 단계에 이르면 중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 현상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주로 발음 면에서와 어휘 면에서의 부작용이 뚜렷하다. 이는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에 일정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사는 중국 학생들에게 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의 한자 어휘들을 다시 학습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교수하고, 학생들은 다각도에서 다차원적으로 변별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중국어의 방해로 인해 착오가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키워드: 한국어 습득, 중국어 부작용, 한자어

1. 서론

한국에서의 대외 한국어 교육 가운데서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은 전문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교수 계획과 교수 중점, 나아가 교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의 선결 조건이다. 그것은 모국어 배경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서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외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을 중국과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과 유럽 위주의 비한자문화권으로 구분한다. 이 중 한자문화권 국가는 한국과 관계가 깊다. 한국과 일본의 언어는 역사상 중국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가운데는 아직도 상당 부분 한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가 중국어인 필자는 일찍이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중국어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 즉 부작용 현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盛炎선생은 일찍이 “두 가지 언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학생이 제 2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천이의 근원이다. 두 가지 언어 가운데서 동일한 부분에서는 정천이가 나타나고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부천이가 나타난다.”[1]라고 했는데 ‘천이’는 부작용, 또는 방해라고도 한다.

한국어에는 대량의 한자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학생[2]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아주 순조롭다. 이 점은 한국어 교수 과정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많은 중국 학생들은 모국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초기 단계를 마친 후 단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기초로 한 모국어의 우세를 빌려 한국어 내 한자어를 빠르게 암기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언어 단계를 지나 초, 중급 단계에 이르면 중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부작용 현상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래에 발음과 어휘 두 분야에서의 부작용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부작용

2.1. 발음 면에서의 부작용

발음에 관해서 중국의 유명한 조선어(한국어) 학자이신 李得春 교수님(1992)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한자 발음은 중국어의 상고음에서 유래한다고 증명했다. 즉, 《诗经》을 대표하는 先秦, 两汉시기의 어음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한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조선(한국)에 전해진 후 곧 자신만의 어음 체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발전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 후 중국의 중고, 근고의 어음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1] 兩種語言的異同點是學生在學習第二語言中產生遷移的根源。兩種語言相同的，可能產生正遷移，不完全相同的，但有關係，發生負遷移.

[2] 여기에서 중국 학생은 모국어가 중국어인 학생을 지정함.

한국의 한자 독음은 결코 훗날 중국의 어음을 완전히 모방하지 않았다. 즉 같은 시기의 한자음이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다른 궤도로 발전한 것이다. 이 연구 성과는 한국어 속 한자음의 유래를 밝혔다.

이는 한국어 속 한자어의 발음과 현대 중국어의 표준음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家族"이란 단어는 한국어에서 [가족]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 음에 대하여 많은 중국 학생들은 "家"가 한국어에서 당연히 [가]의 음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주목하였으나 "族"에 대해서는 중국어 발음의 영향을 받아 [주]라고 읽었다. 또 "医院"의 한국어 한자는 "病院"[병원]인데, 적지 않은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 발음의 영향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빙원]이라고 읽어버린다. 마찬가지로 "会议"의 한국어에서의 발음은 [회의]이다. 그런데 중국 학생은 이를 자신의 모국어와 비슷한 "휘"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다. "紧张"의 한국어는 [긴장]인데, 많은 중국 학생들은 이것을 중국어와 비슷한 [진장]이란 음으로 읽는다. 그 외에도 한국어 한자에 없는 중국어의 "zh, chi, shi, r" 등 권설음을 읽을 때 중국 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자 기초에 근거해서 이런 권설음들을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과 교류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바로 화자가 중국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가운데서 가장 근접한 발음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중국 학생들이 자신의 한자어 기초 발음의 틀을 그대로 한국어에 가져간다면, 착위로 인해 편오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의 한자 독법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당시의 어음에 따랐기에 한자의 원음에 아주 근접하다. 즉 현대 한국어 가운데 중국어의 상고음이 대량 보존되어 있다는 것, 혹은 고대 중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의 중국어 발음이 변한 것이지 한국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지방 방언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아" 아직 많은 양의 고대 중국어 어음이 보존되어 있다. 한국어 가운데의 한자 어음은 중국 일부 지역의 방언에서 그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소성의 양주 방언 가운데서 "家"의 발음은 [ga]로서, 한국어로 표기하면 곧 지금 한국어 한자어 [가]의 발음이다. 또 돈을 표기하는 "五角"의 발음은 [ao gak]인데, 이는 한국어의 한자어 [오각]의 발음과 아주 흡사하다.

이에 필자는 위에서 수차 거론했던 "한국어 한자음"의 정의란 대체 한자가 한국어에 진입한 후의 독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차입시기의 한자의 독음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어 음계의 제약에도 영향을 받았다. 즉 당시의 한국어의 음계 구성 원칙과 발음 구조로 인해 원래의 중국어 독음이 변화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의 중국어 발음은 기나긴 역사 변화 가운데서 아주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한국어에 차입된 시기의 발음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표준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게 했고, 또 많은 연관도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 가운데 한자 독음과 현대 중국어 독음의 차이를 총괄해 보면 아래와 같다.

2.1.1. 성조

중국어는 4성이 있으며 의미를 구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 특징이 없고, 따라서 한국어 한자도 당연히 4성이 있을 수 없다. 중국 학생은 한국어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에 성조를 넣어 말하게 되며, 이 특징은 또 모국어가 중국어인 학생을 판단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조를 교정해 주는 수업은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어음을 가르칠 때의 중점이기도 하며, 또한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중국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중요한 특징을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틀리게 발음하기 쉽고 그대로 옮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나 성조 면에서 따를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바로 한국어 한자 원자 가운데의 [-k], [-l], [-p]로 끝나는 단어는 모두 한자의 入声音字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자의 "各, 角, 觉, 刻, 却"등은 [각]음에 해당하고, "日, 一, 逸, 壹, 佚"등은 [일]의 음에 해당하며, "答, 沓, 踏"은 [답]음에 해당하는 등이다.

2.1.2. 자음

① 중국어 자음의 권설음 "zh, ch, sh"는 한국어에서 각각 [ts], [ts'], [s]로 발음된다. 왜냐하면 중국어 가운데 평설음과 권설음은 한국어에서 구별이 없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组[zu](3)[3], 助[zhu](4)는 비록 중국어에서 모음이 같지만, 자음은 평설음과 권설음의 구별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모두 [조]라고 발음한다.

② 중국어 자음 "r"은 한국어에서는 零声母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 가운데의 人[ren](2), 儒[ru](2), 让[rang](4)은 한국어에서 각각 [인], [유], [양] 등으로 읽는다. (瑞자는 제외)

③ 한자 자음 "g, j, k, q"를 한국어에서는 [k]라고 읽는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故[gu](4), 己[ji](3), 可[ke](3), 去[qu](4)는 한국어에서 각각 [고], [기], [가], [거]로 발음한다, 그것은 위에서 제기했던 중국의 어떤 지방의 방언과 같은 상황이다.

④ 중국어 자음 "x"는 한국어에서 보통 [h]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한자의 贺[he](4), 学[xue](2), 乡[xiang](1), 晓[xiao](3)는 한국어 가운데서 각각 [하], [학], [향], [효]로 발음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으니 곧 小[xiao](3), 笑[xiao](4)인데, 이는 한국어에서의 발음이 [소]이다. 대응하는 한자 자음은 "s"이다.

[3] '[ ]'안에는 발음을 표시하하, '( )'안에는 성조를 표시한다.

⑤ 한자 자음 “d, t”(이 문자 바로 뒤 모음이 “i”인 경우 제외)는 한국어에서 [d]라고 많이 발음된다. 일부 중국어 자음이 “t”인 한자는 한국어에서 [t]와 대응한다. 예를 들면 한자의 东[dong](1), 图[tu](2), 统[tong](3), 泰[tai](4), 土[tu](3)는 한국어에서 각각 [동], [도], [통], [태], [토] 등으로 읽는다.

⑥ 중국어 자음 “d, t”는 그 뒤 첫 모음이 “i”인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z]나 [c]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地[di](4), 点[dian](3), 田[tian](2)은 한국어의 [지], [점], [정]과 대응한다. 중국어의 贴[tie](1), 铁[tie](3), 添[tian](1)은 한국어에서 각각 [첩], [철], [첨]이라고 발음한다.

⑦ 중국어 자음 “w”는 한국어 가운데서 보통 [m]의 음으로 많이 발음한다. 어떤 경우에는 零声母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未[wei](4), 无[wu](2), 文[wen](2)은 한국어에서 각각 [미], [무], [문]으로 발음하나, 중국어의 五[wu](3), 我[wo](3), 温[wen](1)은 한국어에서 각각 [오], [아], [온] 등으로 발음한다. 말하자면 자음이 零声母가 된 것이다.

⑧ 중국어 자음 “b”는 한국어에서 [b]나 [p]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本[ben](3), 宝[bao](3), 波[bo](1), 抱[bao](4) 등은 한국어에서 각각 [본], [보], [파], [포] 등으로 발음한다.

⑨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순치음 자음 [f]가 없어 모두 쌍순음으로 읽는다. 예를 들면 凡[fan](2), 风[feng](1), 发[fa](1), 分[fen](1) 등은 한국어에서 각각 [범], [풍], [발], [분] 등으로 발음한다.

2.1.3. 모음

① 한자의 [-n]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n] 혹은 [-m]이다. 예를 들면 한자 가운데의 安[an](1), 门[men](2), 三[san](1), 胆[dan](3) 등은 한국어에서 각각 [안], [문], [삼], [담] 등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贞[zhen](1), 祯[zhen](1), 桢[zhen](1) 등은 한국어에서 [정]이라고 발음한다. 이 점 또한 고대 중국어의 발음과는 대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글자는 모두 “陟盈切, 梗摄清韵字”이다.

② 한자의 [-ng]은 한국어의 [-ng]과 대응한다. 예를 들면 阳[yang](2), 党[dang](3), 英[ying](1), 旁[pang](2) 등이 한국어 가운데서는 각각 [양], [당], [영], [방] 등이다.

이상 한국어 한자음과 중국어 표준어 발음과의 성조, 자음, 모음의 대비와 총결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국어 한자음은 실제 발전 과정 가운데서 일정한 보수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한자음의 대부분은 한자가 한국에 차입되는 그 당시의 독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보다 많은 한국어 한자음과 중국

어 발음과의 연관을 찾아낼 자신을 돋우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우겠다는 결심도 불러일으킨다.

한국어 교사로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 발음 차이의 규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규칙을 이용하여 하나를 보고 열을 알도록 함으로써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의 한자어 독음을 학습할 때 더욱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울러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흥취와 자신감을 한층 더해 주어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의 한자어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어를 학습할 때 중국인 발음의 맹점으로 불리는 난관을 돌파할 것을 전망해 본다.

2.2. 어휘 면에서의 부작용

발음과 마찬가지로 언어 학습 초기 단계는 대부분 모방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 완성되므로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의 기초에 근거하여 한국어 어휘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정한 우세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암기한 단어를 안정적으로 기억하거나 한국어 한자를 해석하는 동시에 독음의 유사함을 빌려 비교적 정확하게 중국어 의미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중급 단계에 이르면, 특히 한국어로 표현하고 진행해야 할 때면 개인의 경험과 상상에 따라 스스로 단어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학부 2학년 첫 학기에 어떤 학생이 “저는 아침에 두강을 마셨어요.”라고 문장을 만들었다. 많은 학생들이 들은 후 머리를 끄덕이며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학생이 도대체 아침에 무엇을 마셨을까?”하고 생각했다. “두강”이라고 여러 번 발음해서야 나는 이 학생이 혹시 “아침에 두유를 마셨다”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추측한 것이 정확한지 단정 지을 수 없어 다른 한 학생에게 중국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다. 과연 그 학생은 “我早上喝了豆浆”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다.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던 학생에게 번역한 학생의 답이 정확한지 물었을 때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원래 이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빌려 “豆浆”이 한자어라고 생각하고 “豆”를 “두”라고 발음하고 “浆”은 “강”이라고 발음했던 것이다. “豆浆”은 한자어라고 할 수도 있어서 “豆”와 대응하는 한국어는 “두”, “浆”과 대응하는 한국어 발음은 “장”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 학생이 “두장”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해도 한국인은 이 학생이 아침에 대체 무엇을 마셨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한국어에서 “豆浆”을 “豆乳”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장을 만든 학생은 왜 단어를 틀리게 말했고, 많은 학생들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해했을까? 결국 이것은 또 모국어인 중국어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다. 아래에서 중국어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자.

2.2.1. 어휘의 형태면

의미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한국어 속 한자어의 어휘 형태는 현대 한국어와 어휘 형태가 대부분 같다. 그러나 일부는 같지 않거나 심지어 완전히 다르기까지 하다. 가장 흔히 보이는 현상이 곧 “中韩逆序词”이다. 즉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단어 뜻은 동일하나 글자 순서는 반대인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교사가 사전에 강조하지 않고,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모국어 기초에 근거해서 이런 한국어 한자어 단어들을 말한다면 곧 단어순서가 뒤바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초, 중 단계에서 비교적 큰 작용을 한다. 아래의 한자어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가운데서 순서가 다른 단어들이다.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제한（限制）	限制	호칭（呼稱）	稱呼	평화（平和）	和平
고통（苦痛）	痛苦	시설（施設）	設施	포옹（抱擁）	擁抱
채소（菜蔬）	蔬菜	한계（限界）	界限	철강（鐵鋼）	鋼鐵
소개（紹介）	介紹	영광（榮光）	光榮	위안（慰安）	安慰
위장（胃腸）	腸胃	대접（待招）	招待	운명（運命）	命運

2.2.2. 품사의 성질면

형태와 의미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한국어 속 한자어와 중국어의 품사의 성질은 아주 큰 구별이 있다. “结婚”、“登山”、“关心”、“录音” 등 단어들은 중국어에서 동사이나 한국어에서는 명사이며 그 뒤에 술어 어미 “-하다”를 붙여야만 동사로 변한다. 그러나 어떤 한자어는 그 뒤에 술어 어미 “-하다”를 붙여도 그 품사의 성질이 중국어와 일치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면 “成熟”이란 단어는 중국어에서 동사 성질과 형용사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뒤에 어미 “-하다”를 붙인 후 다만 동사 한 가지 품사의 성질만을 나타낸다.

2.2.3. 의미면

어휘의 형태가 같으나 어떤 한국어 한자와 중국어의 뜻은 다른데, 그것이 곧 “同形异义”어이다. 이런 어휘들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초급 단계에서 부작용 현상을 빚어내기 쉽다.

① 한국어와 중국어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것

아래의 표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가운데서 일부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어	한자	한국어에서의 의미	중국어에서의 의미
세수	洗手	세수	손 씻기
신문	新聞	신문	뉴스
만두	饅頭	물만두	찐빵
약속	約束	약속, 약정	일정한 범위로 제한
점심	點心	시간, 점심밥	다과류
합동	合同	공동	양측 합의 등 문서
노파	老婆	나이 많은 여자	아내

위 표에서 제시한 의미가 완전히 다른 한자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의미하는 범위가 약간 다르거나, 양자 간에 일치한 부분도 있는 동시에 일정한 차이도 존재하는 한자어들이 있다.

② 의미가 부분적으로 동일하거나 다른 것

부분적으로 의미가 동일하거나 다르다는 것이란 한국어의 한자어와 중국어의 의미가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文章"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쓰인 낱말 등의 한 덩어리"를 가리킨다. 그 외에 한국어에서는 "대개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를 포함한 낱말들의 연속으로 서술, 물음, 명령, 감탄 등의 형식을 통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뜻도 있으며, 중국어에서는 또 일의 처리 방법과 수단이라는 뜻도 있다. 또 예를 들면 "地方"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행정 구획이나 다른 어떤 특징에 의해 나누어지는 지역"이라는 뜻이 있고, 한국어에서는 "서울 밖의 지역"이라는 뜻과 중국어에서의 "위치", "주로 인체의 부위"라는 뜻도 있다.

이런 단어들이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을 방해하기 쉽다. 교사는 마땅히 이런 단어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함과 동시에 반복적인 연습을 결부시켜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런 부류의 단어들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어 의미 범주가 비교적 넓은 경우

한국어 의미 범주가 비교적 넓다는 것은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가 중국어의 의미보다 많으며 그것이 가진 의미들에는 중국어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말한다. "人间"이란 단어를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의 의미는 i)사람, ii)사람의 됨됨이, iii)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는데, 중국어에는 다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만 있다. 또 "自己"라는 단어를

보면 한국어에서의 의미는 i) (이야기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 '바로 그 사람', '자신', ii) (행동이나 이야기의 주인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 자신, iii) (젊은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너', '당신'의 뜻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행동이나 이야기의 주인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 즉 자신이란 뜻밖에 없다. 이런 단어들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틀릴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그러므로 교사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미 비교를 이용한 구절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강화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단어들의 특징에 익숙해지게 하고, 학생들의 모국어의 장점을 발휘하여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④ 한국어 의미 범주가 비교적 좁은 경우

한국어 의미 범주가 비교적 좁다는 것은 곧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가 중국어보다 적어서 거기에 포함된 의미항이 중국어 의미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先生"은 i)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 ii) 학문이나 학식 또는 기예 따위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iii)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그 일을 잘하는 사람, iv) (주로 '~선생'의 꼴로 쓰이어) 남을 높이어 부르는 말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의 의미항 외에도 자신의 남편, 혹은 다른 사람의 남편에 대한 존칭의 뜻이 있다. 또 "东西"는 한국어에서 i) 동쪽과 서쪽, ii)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 iii) 동양과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진영 국가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의 의미항들의 뜻 외에 또 "物品"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유형의 단어들은 한국어 습득을 방해하기 쉬우며, 중국 학생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회화와 글쓰기에서 단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유형의 단어의 정확한 사용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과 같은 "同形异义" 단어들은 만약 한국어 학습 초급 단계인 학생들이 양자간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중국어의 의미대로 표현하거나 약간만 암기를 소홀히 해도 많은 오류 현상을 빚어낼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단계에서 교사는 이런 "同形异义" 단어와 위에서 언급한 "순서 바뀐 단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들과 함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단어들을 귀납하여 학생들이 이런 단어들의 구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결론

위에서 우리는 중국어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몇 가지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런 부작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어는 일부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부담을 준 셈이다.

Kellenman(1979)이 얻은 결론은 “두 가지 언어가 차이가 비교적 크다면 (즉 관계가 없다), 학습이 느리나 비교적 정확하며, 차이가 적다면 (즉 관계가 있다), 학습이 빠르나 정확하지 못하다”이다.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이로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는 비교적 빠르지만 정확하지 못하다. 그것은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점이 있어서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일정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위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필자는 중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의 한자 어휘들을 다시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다각도에서 다차원적으로 변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마치 한 장의 종이와도 같아서 위에 이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원래의 내용에서 수정을 할 때 윤곽이 정해져서 대체로 방향이 정해지고 동시에 이 윤곽의 제한을 받게 되며, 반대로 만약에 흰 종이라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하겠지만 더욱 그리기 쉬운 것과 같은 도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들의 교수 방법을 최적화하여 교수 방법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중 두 가지 언어 전환의 교과 과정을 설치하거나, 한-중 번역, 중-한 번역 등으로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든지 하여 학생들이 무의식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공부하게 만드는 것 등이다. 이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중국어의 방해로 인해 착오가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甘瑞瑗, 「韩中同形异义汉字合成词的对比分析」, 『广东社会科学』4, 广东省社会科学院, 2002, pp. 153-158.

全香蘭, 「韓國漢字詞在學生習得漢語詞語的影響」, 『世界漢語教學』 1, 北京語言大學, 2006, pp.77-82.

潘先軍, 「漢字基礎在韓國留學生漢語學習中的負遷移」,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 3, 遼寧教育行政學院, 2004, pp.62-64.

徐建宏, 「漢語詞彙和韓國語漢字詞的對比研究」,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遼寧大學, 1999, pp. 107-110.

盛炎, 『語言教學與原理』, 重慶出版社, 1990.

宋尚美, 「漢韓同義詞對比研究-以名詞為例」, 『漢語學習』4, 延邊大學, 2001, 55-62.

李得春, 『漢朝語言文字關係史』,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92.

張光軍, 「韓國的漢字」,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5, 1999. pp. 18-22+ 38-2.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1992.

Kellenman. E, 「Transfer and non-transfer: Where are we now? 」,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 1979.

作者簡介

姓名：胡翠月

所屬：大連外國語大學韓國語學院副教授

地址：遼寧省大連市旅順南路西段6號大連外國語大學韓國語學院

郵編：116044

電話：13889586160

郵箱：hucuiyue@dlufl.edu.cn

생략현상의 배후에 있는 한일 언어 구조 차이에 관한 일고찰

-Twitter의 한 생략현상에 주목하여-

아라이 야스히로

동양대학(일본)

1. 서론

문장이나 담화에서는 생략이 일어나도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는 것은, 그 배후에 명확한 언어 구조가 존재하여 문장이나 담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수 많은 미디어가 태어난 현재, 각 미디어에 따라 그 지원 방법이 다르며 생략의 양상도 다양하여지고 있지만 역시 언어 구조가 생략의 배후에 잠재하여 큰 몫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새로운 미디어 중 하나인 Twitter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 Twitter의 한 생략현상인 “Tsuita 구조”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배후에 있는 한일 언어 구조 차이를 찾아 일고찰하고자 한다.

2. Twitter

Twitter는 140 문자 이내의 단문(Tweet)을 투고하여 공유하는 웹 정보 서비스이다(https://twitter.com/).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 정보도 투고할 수 있으며, 문자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문자 커뮤니케이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행하여진다. 본 연구에서 다룰 “Tsuita 구조”도 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진 공유 서비스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이나 위치 정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등, 외부 서비스와도 연계가 되어, 컴퓨터나 타블렛,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만 명, 일본에서는 40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고 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미디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Twitter의 한 생략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대조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잠재하는 한일 언어 구조 차이를 밝히겠다.

3. 선행연구

Twitter의 한 생략현상와 그에 대응하는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대조 연구함에 있어서 본 절에서는 생략현상에 관한 연구, 그리고 Twitter의 한일 대조 연구를 살펴보겠다.

髙木(2012)에서는 초대면 담화에 있어서의 '중도 종료 발화문'이라는 생략을 다루고 있어, 한국어와 비교하면 일본어는 발화 행위가 이루어질 때 단어이나 구절이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임과 동시에 문장과 같은 수준의 담화 단위로서 담화 내에서 넓은 작용역을 가지고 있으며 담화를 구성하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堀江 외(2011)는 한일 양 언어에 있어서의 '문중 형식'에서 '문말 형식'으로의 변환을 다루고 있는데 그 생략 과정의 생산성은, SOV 언어에 있어서의 화용론적 의미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문말'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였다. 金智賢(2016)은 담화에 있어서의 '는/은(ハha)'과 '가/이(ガga)', 무조사라는 생략을 비교하여, 한일 양 언어에서 조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편으로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무조사 현상에서 유사점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 담화 자료를 대상으로 한 생략현상의 한일 대조 연구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어 한일 양 언어 구조의 이동[異同]이 주목받은 바가 있다.

미디어에 따라 생략현상도 다양해지고 있음이 추측되는데, 新井(2013)는 일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尹盛熙(2015)는 신문 표제어 텍스트, 尹盛熙(2016)는 구미 TV 드라마의 자막을 각각 한일 대조 연구하여 각 미디어의 생략현상에 잠재하는 한일 양 언어의 구조를 밝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미디어인 Twitter의 대조 연구는 보이지가 않았다.

新井(2018)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Twitter를 중심으로 한 생략현상의 한일 대조 연구를 시도하였다. 문장면, 표현 구조면, 표기면, 기타 현상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 Twitter의 미디어 특징과 함께 한일 양 언어의 특징이 반영되어 생략현상이 나타남을 밝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Tsuita 구조"에도 표현 구조면 측면에서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분석은 하지 못한 관계로 언어 구조에 관한 고찰을 깊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일본어의 "Tsuita 구조"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응하는 한국

어 표현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그 생략현상 배후에 있는 한일 양 언어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4. 조사 방법

“Tsuita 구조”라는 일본어 Twitter의 한 생략현상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수집 및 분석함에 있어서 이하 요령으로 언어 자료를 만들었다. 2016 년과 2017 년에 투고된 한국어와 일본어 Twitter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Twitter 고도 검색(https://twitter.com/search-advance?lang=ja)을 이용하여 일본어는 ‘사용 언어: 일본어, 장소: 동경’, 한국어는 ‘사용 언어: 한국어, 장소: 서울’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뿐만 아니라 장소도 지정함으로써 모어화자가 아닌 학습자의 Tweet가 검색되는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2016 년 1월부터 2017 년 12월까지의 매달 1일부터 2일까지를 날짜로 지정하여 계절이나 요일에 따른 데이터의 편차를 방해하였다. 검색된 Twitter 중, 사용자가 모어화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거나, 인용 혹은 bot, 자동 입력뿐인 것은 제외하여 모어화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분명한 Tweet를 사용하였다. Twitter라는 미디어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Instagram 등 다른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입력되어 외부 링크를 보지 않으면 Tweet의 전모를 모르는 것은 제외하였다. 위의 조작을 통하여 매달 얻어지는 상위 50 건을 수집하여 한일 각각 1200 건의 Twitter 데이터를 언어 자료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5. “Tsuita 구조”와 대응하는 표현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Twitter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생략현상을 분석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구조 차이에 관한 일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생략현상 전부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 중의 하나인 일본어의 “Tsuita 구조”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 주목하겠다.

5.1. 일본어의 “Tsuita 구조”

Twitter에 나타나는 생략현상에 주목하면 일본어 Twitter에서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 + ‘ツイタTsuita(도착하다)계 표현’(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동사 과거형이나 명사)”이라는 “Tsuita 구조”가 잘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어 일상 구어와 문어, 다른 SNS 언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 Twitter의 특징일 수도 있다.

도착했다-!(@도쿄 디즈니시-@tdr_pr in 우라야스시, 지바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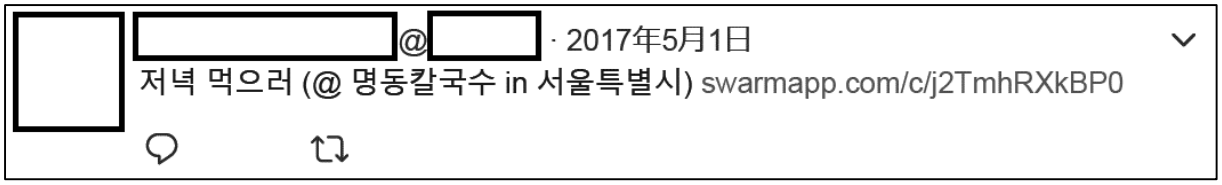
新井(2018)는 이 “Tsuita 구조”를 이하와 같이 분석하였다. “Tsuita 구조”에서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라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이루는데 일본어 모어 화자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지향성(三宅2005)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한다. Twitter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지니는데 그 지향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재 동작이나 상태 등을 투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수단적 특징도 가진다. 그러한 미디어적 특징이 일본어의 언어적 특징과 함께 활용되어 “Tsuita 구조”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표현 구조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 수는 꽤 적다. 더욱이 그 적은 예 중에서도 이하와 같이 ‘Tsuita(도착하다)계 표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부사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나타나, 도착한 사실이나, ‘사진 혹은 위치 정보’가 나타나는 도달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어와 반대로 시각 요소의 몫은 작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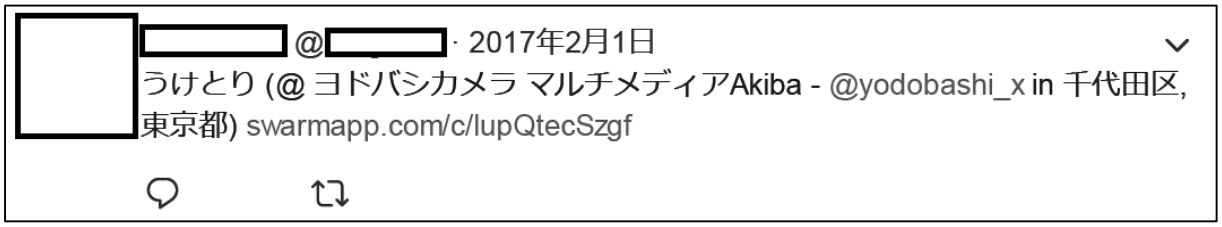
5.2. “Tsuita 구조”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5.1. 절에서는 Twitter의 한 생략현상으로 일본어의 “Tsuita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경우는 ‘ Tsuita(도착하다)계 표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부사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특히 2017 년 데이터에 주목하면, 한국어의 이러한 표현에서 ‘Tsuita(도착하다)계 표현’이 없어져 목적을 나태내는 표현, 즉 ‘동사 어간 + (으)러’만 남은 구조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이하와 같이 “‘사진 혹은 위치 정보’ + ‘동사 어간 + (으)러’”라는 표현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표현 구조는 “Tsuita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되어, 일본어의 “Tsuita 구조”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라 할 수가 있다.



한국어 ‘동사 어간 + (으)러’에 해당되는 일본어 목적 표현으로 주로 ‘동사 연용형 + にni’가 쓰이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일본어 Twitter데이터 중에서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 + ‘동사 연용형 + ニni’”라는 표현 구조는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다. 일본어는 동사 연용형에 어미를 달지 않고 그대로 씀으로써 명사화할 수가 있는데, 이 연용 종지와 ‘사진 혹은 위치 정보’를 함께 쓰는 예는 보인다. 마찬가지로 ‘명사 + スルsuru(하다)’로 구성되는 ‘suru(하다) 동사’에서 기능 동사 ‘suru(하다)”가 나타나지 않아 명사로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진 혹은 위치 정보’ + 명사’라는 표현 구조도 일본어 Twitter에서 많이 관찰된다. 한국어에도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빈도는 일본어가 더 많다. 新井(2018)에서도 Twitter에서 명사 종지문이 한국어보다 일본어에서 많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동사 어간 + (으)러’에 완전히 대응된 것이 아니더라도 연관성이 보이는 표현으로 위의 두 가지 일본어 예를 들 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목적을 나타내는 한편, 일본어는 목적보다 결과로 해석되는 바가 많아 대조적인 양상이 보인다.



받음(@요도바시 카메라 멀티미디어 Akiba-@yodobashi_x in 지요다구, 도쿄도)

첫 참배 (@요요기 하치만구 in 시부야구, 도쿄도)

6. 분석 및 고찰

5. 절에서는 Twitter의 한 생략현상으로 일본어의 “Tsuita 구조”를 들어,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관련 표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형론적으로 유사하고 Twitter란 같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본고에서는 한일 양 언어의 구조 차이에 주목하여 생략현상 배후에 잠재하는 요인에 대하여 일고찰하고자 한다.

6.1. 품사적 관점

첫째, 품사적 관점에 주목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생략현상을 분석하면 일본어의 “Tsuita 구조”에서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 과거형을 쓸 뿐만 아니라 기능 동사나 Copula가 나타나지 않고 명사만 쓸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사용하여 목적 표현, ‘동사 어간 + (으)러’로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井上・金河守(1998)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 술어를 대조하여, 일본어에서는 명사가 지니는 잠재적 동사성을 명사 술어문 전체에 비교적으로 용이하게 이어받는 한편으로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것이 곤란하다는 원칙을 도출하였다(한국어: 곧 동경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곧 동경역에 도착입니다. 일본어: まもなく東京駅に到着します。まもなく東京駅に到着です。) . 生越(2018)는 다른 문법 현상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는 명사와 동사의 경계가 명료한 한편으로 일본어는 경계가 애매함을 지적하였다[1].

[1] 塚本(2012)에서는 한국어는 단어와 문장・구절의 지위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어

이러한 품사적 경향이 Twitter의 생략현상에 반영되어,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쓰이는데 비하여 일본어는 경계가 애매한 동사와 명사가 쓰이지 않을까 고찰된다.

6.2. 의미적 관점

다음으로 의미적 관점을 보고자 한다. 일본어의 "Tsuita 구조"에서는 동사 과거형이라는 문말 표현이 쓰이는데, 한국어의 대응 표현에서는 '동사 어간 + (으)러'라는 문중 표현이 쓰인다. 堀江・金(2011)은 한일 양 언어의 화용론적 의미 확장과 획득 현상을 분석하여 'SOV 언어에 있어서 화용론적 의미 변화의 기점으로 '문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일 양 언어에서 문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두 언어는 언어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전치 부정 형식이 쓰이는데 일본어에는 보이지가 않는다(한국어: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나는 학교에 안 간다. 일본어: 私は学校に行かない。*私は学校にない行く。【新井2015a】). 또한 한국어에서는 문중에 위치하는 정보가 일본어에서는 문말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한국어: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일본어:??寒いから暖かく着ろ。寒いから着て暖かくしろ。【新井2015a】). 이와 같이 한국어도 일본어도 문말이 의미 결정에 중요하지만 그 비중이 다르다.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하면 문중이 의미 결정 역할이 큰 것이다[2]. 이 언어 구조 차이도 "Tsuita 구조"와 대응 표현 차이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6.3. 시점적 관점

셋째로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생략현상에 관하여 말하자면 일본어는 결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한편으로 한국어는 목적에 언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 혹은 목적 중 어느 쪽에 주목하느냐는 시점이 달라 보인다. 앞에서 한일 양 언어에서는 문중과 문말의 의미 결정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한국어: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일본어:??寒いから暖かく着ろ。寒いから着て暖かくしろ。【新井2015a】), 결과에 주목하느냐와 목적에 주목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타 일상 표현을 비교해도 일본어는 결과라는 앞의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국어는 목적이라는 뒤의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예가 있다(한국어: 아직 안 잤어? > (?)아직 일어나 있어?, 일본어:(?)まだ寝ていない? < まだ起きている？【작

는 단어와 문장・구절이 융합한 성질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는데 生越(2018)의 주장과 병행한다.

[2] 新井(2015a) 는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과 「だけdake」의 의미 변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주장을 하였다.

례】)[3]. 이러한 시점에 차이가 Twitter에도 나타나 생략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4].

6.4. 묘사적 관점

다음으로 묘사적 관점에 주목하겠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생략현상을 보면 한국어에 비하여 일본어에서 명사 술어문, 특히 Copula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 종지문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生越(2002)는 [A+N]구문을 주대상으로 하여 한일 양 언어의 연체 수식 표현을 대조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에 비하여 일본어는 [A+N]구문을 사용하는 데에 사용 조건이 적어 넓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한국어: (?)참 멋있는 넥타이네. 그 넥타이 참 멋있네. 일본어:すてきなネクタイ（ね）。そのネクタイすてきだ（ね）。) 또한 金恩愛(2003)는 표현 양상의 한일 대조 연구를 통하여 일본어의 명사 지향 구조, 한국어의 동사 지향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한국어: 아오이, 누구야?, 일본어: あおいって誰∅?).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형론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묘사 구조에 다른 점이 있다. 명사로 구조화하느냐, 동사로 구조화하느냐는 묘사 차이가 Twitter에도 활용되어 생략현상 차이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6.5. 표기적 관점

마지막으로 표기 면에 주목하여 한일 차이를 논하고자 한다. 일본어의 “Tsuita 구조”에서는 ‘사진 혹은 위치 정보’라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 경향은 Twitter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新井(2013, 2015b)는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여 문자에 나타나는 탈규범적 표기를 한일 대조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지향성이 보이며, 한국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글 중심적 이용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아라이(2016)는 스마트폰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미디어가 변하였다 하더라고 ‘문자활용’ 의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다룬 Twitter에서도 이러한 ‘문자활용’ 의식이 반영되어, 일본어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절에서는 일본어의 “Tsuita 구조”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차이에 대하여 한일 양

[3] 작례는 필자가 스스로 작성하였지만 한국어 예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 판단을 부탁하였다. 일본어 예는 필자에 직관에 따르고 있다.

[4] 井上외(2002)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제(와 상)을 대조하여 한국어의 서술은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으로 일본어는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한다고 논술하였다(한국어: [버스가]온다. *왔다., 일본어:*来る。来た。【井上외2002를 일부 수정】). 이 서술 경향 차이도 상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통일적인 설명은 못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언어 구조 차이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생략현상이 다른 언어적 요인으로 품사, 의미, 시점, 묘사, 표기의 다섯 가지 구조 차이를 들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Twitter의 생략현상으로 일본어의 “Tsuita 구조”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 주목하여 그 배후에 잠재하는 한일 양 언어 구조 차이에 대하여 일고찰을 하였다. 생략이 일어나도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는 것은, 명확한 언어 구조가 존재하여 문장이나 담화를 지원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보이지 않는’ 생략현상을 통하여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 언어 구조 차이가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많은 과제도 남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생략현상은 일부에 머무르며 이용한 언어 자료도 자위적인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일 언어 구조 차이에 주목하여 생략현상의 차이를 설명함을 시도하였는데 기존 연구를 연역적으로 받아들임에 머물러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함으로써 생략현상, 그리고 한일 대조 연구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참고문헌

아라이 야스히로(2016) ‘휴대전화 문자 언어의 경년변화 연구-‘문자활용론’의 관점에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6년도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新井保裕(2013)「携帯メール言語研究―日本語と韓国語の対照を通じて―」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박사학위논문

新井保裕(2015a)「韓国語における(間)主観化研究の新たな視点―韓国語学と言語学の融合の必要性―」『韓国語学年報』11

新井保裕(2015b)「携帯メール言語の分析を通じた「文字活用論」試論―東アジア言語の視点―」朝鮮語研究会편『朝鮮語研究6』ひつじ書房

新井保裕(2018)「Twitterを中心にした省略現象の日韓対照研究―言語とメディアの関係を探る―」韓国日本語学会第27回国際学術大会발표논문

井上優・金河守(1998)「名詞述語の動詞性・形容詞性に関する覚え書―日本語と韓国語の場合―」『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　研究報告書Ⅱ』

井上優・生越直樹・木村英樹(2002)「テンス・アスペクトの比較対照―日本語・朝鮮語・中国語―」生越直樹편『対照言語学』東京大学出版会

生越直樹(2002)「日本語・朝鮮語における連体修飾表現の使われ方―「きれいな花！」タイプの文を中心に―」生越直樹편『対照言語学』東京大学出版会

生越直樹(2018)「日韓対照研究の実践と課題―名詞文の使い方を例に―」韓国日本語学会第27回国際学術大会발표논문

金恩愛(2003)「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国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朝鮮学報』188

金智賢(2016)『日韓対照研究によるハとガと無助詞』ひつじ書房

髙木丈也(2012)「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いわゆる「中途終了発話文」の出現とその機能」『社会言語科学』15(1)

塚本秀樹(2012)『形態論と統語論の相互作用―日本語と朝鮮語の対照言語学的研究―』ひつじ書房

堀江薫・金廷珉(2011)「日韓語の文末表現に見る語用論的意味変化―機能主義的類型論の観点から―」高田博行・椎名美智・小野寺典子편『歴史語用論入門：過去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復元する』大修館書店

三宅和子(2005)「携帯メールの話しことばと書きことば　電子メディア時代のヴィジュア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三宅和子・岡本能里子・佐藤彰편『メディアとことば2: 組み込まれるオーディエンス』ひつじ書房

尹盛熙(2015)「新聞見出し語における日韓の省略と縮約」『日本學報』104

尹盛熙(2016)「日本語の翻訳字幕における省略・縮約の実現―韓国語との対照分析―」『社会言語科学』18(2)

아라이 야스히로（新井保裕）

동양대학（東洋大学）

5-28-20, Hakusan, Bunkyo-ku, Tokyo, Japan

112-8606

+81-(0)80-5658-9216

arai.hoyu@gmail.com

* 본 연구는 일본 과학연구비보조금(16H03413)의 조성[助成]을 받아 행하여졌음.

한국어 체육전문용어 교수에서 의사소통적 교수법의 적용

곽석뢰
(위남사범대학교)

요 지: 근년에 들어 의사소통 교수법은 한국어교수에서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 습득의 세계에서 제 나름의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켜주고 인지적, 창조적으로 학습을 하게 한다. 언어를 배우는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어휘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어 체육전문용어 교수도 의사소통의 원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본고에서 의사소통적 교수법의 특징 및 역할을 분석하여 그 교수법이 한국어 체육전문용어 교수에서의 적용 방법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워드블록 활용, 역할극, 팀워크, 어휘놀이 등의 방면에서 체육전문어휘 교수 전략을 밝히도록 하겠다. 마지막에는 어휘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국한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의사소통 교수법; 체육전문용어, 어휘교육

1. 어휘 교육의 필요성

어휘는 인간교제의 중심적 요소이다. '문법 없이는 의미전달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만, 어휘 없이는 아무런 전달도 할 수 없다[1]'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David Wilkins 라는 언어학자가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는 항상 단순적 외우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종속적인 지위에 처해 있다. 교사가 어휘의 의미를 밝혀주고 학생이 무조건 외우는 상황이 많아서 어휘 학습 효율이 낮고 어휘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휘교육에서 교사가 한국어 어휘의 구성, 의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휘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지 소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특정 학습 목표를 가지는 한국어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할 경우 그 학습자들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기초 어휘가 어떤 것인지, 어휘 습득 요구에서 일반 학습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 한국어, 관광 한국어, 체육 한국어, 한국어 교수 등 분야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휘 교수에서 학습자들의 지식 배경 및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학습자들의 실제 요구에 따라 어휘 교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어린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제시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은 '듣기'와 '말하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 '듣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말하기 교수에 일정

[1] Wilkins, David A.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v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1972:111)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어휘 학습의 중요성도 알게 된다.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습득된 것은 어휘이다. 그리고 어휘를 기반으로 점차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구절, 나아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문법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어휘가 의사소통의 기초이며 언어습득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외국어 사고 능력이 어휘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단계가 높아지면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특히, 듣기, 말하기와 읽기 등의 영역에서 어휘량이 부족해서 뜻을 이해하는 데의 지장을 받는 현상이 매우 흔하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늘 어휘를 무조건 외우는 대상으로 여기고 다만 교과서 본문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읽고 뜻을 풀어주며 학생들에게 외우게 한다. 이는 학생들이 어휘 습득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사실, 어휘는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휘 간에 밀접한 내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휘 교육에서 어휘와 어휘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의미장에 속하는 어휘, 뜻이 반대되는 어휘, 서로 어울려서 쓰는 어휘 등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생들의 연상적 어휘 암기와 어휘 활용에 적즉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한국어 어휘 교육의 중요성과 어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2. 의사소통교수법의 내표 및 장점

의사소통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은 영국 응용언어학자 Christopher Candli 과 Henry Widdowson 등이 20 세기 60 년대 말기에 제기된 외국어 교수법이다. 60 년대 말기부터 70 년대 전반기 유럽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호 이해를 위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사회 배경이다. 당시의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적인 기능보다는 의사 전달 능력을,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우선시했기 때운에 의사소통교수법이 등장하였다. 언어는 단순히 언어구조를 익히는 것보다는 의사소통 능력 익히기에 교수의 중점을 두어야 하고, 언어는 고립된 체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갖는 기능 위주로 분석, 기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의사소통교수법는 폐쇄적 교과서 내용보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시하고 언어 체계보다 언어 사용을 강조하며 문장이 아닌 담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이 중요하므로 학습자의 오류를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교수법을 응용할 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게임이나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을 이용한다. 그리고 문법은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지도한다. 의사소통교수법을 응용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는 중심이고 교사는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자이며 조언자이다.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데 대량의 어휘를 파악하는 것은 선결 조건이다. 어휘를 모르면 언어 교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Canale＆Swain(1980)은 교제능력을 키우는 데 언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환이며 어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언어 능력

중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분석되였다. 충분한 어휘량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이지는 것이다.

교사가 실시하는 교수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 적당한 교수법을 응용하면 학생의 학습 열정을 북돋우고 학습 효율도 높이는 반면 적당하지 못한 교수법을 응용하면 학생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된다. 필자가 의사소통교수법을 응용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첫째, 실제 언어 환경에서 배우기

화제중심교재, 과업중심교재, 실물교재 등을 사용하여 실제 의사소통에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다. 의사소통교수법을 응용해서 어휘를 가르칠 경우, 교사가 멀티미디어, 동영상, 그림, 실물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제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실제의 언어 환경에서 학생들이 더욱 편하게 배우고 배운 내용도 쉽게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습득한 어휘를 비슷한 언어 환경에 응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둘째, 친밀한 사제관계가 이루어지기

의사소통교수법의 응용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거리감을 없애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학습 효율을 높인다.

셋째, 학습 능동성을 일으키기

의사소통교수법의 응용은 학생의 학습 능동성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언어환경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의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상에 필요한 말 위주의 언어 습득이 더욱 쉬워지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는 학생의 시도가 장려되어 유창성이 길러진다.

3. 의사소통교수법을 주도로 하는 체육전문용어 교수 전략

2018 년 2 월 25 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이 전세계적인 체육잔치는 스포츠 팬들이 체육한국어를 배우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 갈수록 더 많은 국제 경기가 개최되고 한국 선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어는 한국 선수, 심판 및 대중 매체 교류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전파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체육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많이 시급해진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과학적인 체육전문용어 학습방법을 파악하는 데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체육한국어 교수의 선결 과제가 되었다. 지금은 체육전문용어 교수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시되긴 했지만 교수 효과가 그리 좋지 않다. 학생들이 보통 어휘 외우기 및 언어의 상황적 응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 체육전문용어의 교수를 예로 들어 전통적인 번역식 어휘교수법에 기반을 두고 의사소통교수법이 체육전문용어 교수에서의 응용 방법을 탐구하며 실제 언어 환경에서 체육전문용어를 제시, 교수, 습득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교수법은 아래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제

의도를 잘 파악한다. 즉 학생들이 교제 의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배우게 된다. 둘째,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요시한다. 교사가 보통 학생들에게 폐쇄적이고 프로그램화된 교수재료가 아니라 학습 목표와 요구에 따라 적응되고, 변형되고, 확장되고, 보충될 수 있는 '개방적으로' 구성된 교수자료를 제공해 준다. 셋째, 팀워크, 역할놀이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파트너작업이나 조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파트너와 한국어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또는 대화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관용표현이나 언어 구조의 보편성 및 규칙을 발견하게 한다. 위와 같은 특징에 따라서 필자가 아래와 같은 체육전문용어 교수 전략을 제기한다.

3.1 워드블록 활용

체육전문용어 교수에서 워드블록을 활용하는 것은 아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말덩어리로 교수하기. 대분분의 학생들이 아직도 어휘 공부를 할 때 한 단어에 대한 단순 암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말 덩어리로 교수하는 것은 어휘교수를 제대로 하게 되며 관련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표현을 통해 양질의 문법지식을 교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리킥'이라는 단어를 교수할 때 단순히 '프리킥'의 의미를 한국어로 반복하면서 한 단어의 의미만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리킥', 혹은 '간접프리킥'… 이런 방식으로 덩어리 표현을 교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둘째, 자주 쓰이는 구절로 교수하기. 예를 들면 '터치 라인', '쇼트 트랙', '금메달 획득' 등이다. 셋째, 관용구로 교수하기. 보통 문법 규칙에 맞추고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구문이다. 예를 들어 '…를 2 대 1 로 이겼다'와 같은 구문을 교수하는 것이다. 넷째, 빈자리가 있는 관용 어구로 교수하기. 예를 들면 '유명한 아이스하키/롱 트랙/컬링 선수' 등이다. 이와 같이 단순적 어휘 암기, 어휘 선택과 조합의 잘못을 피하도록 워드 블록을 활용해서 체육전문어휘를 덩어리로 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2 역할극 활용

역할극은 의사소통교수에서 널리 쓰이는 활동이며 학생들에게 접히기 쉽지 않은 실제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먼저 학생들을 2-5 명씩 짝을 만들어 스포츠에 관련된 몇 가지 상황을 제공해 준다. 각 팀은 그중에서 하나의 상황을 선택해서 관련 대화를 준비하고 나와서 연기를 한다. 역할극을 통해서 체육전문용어를 일상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수 있다.

3.3 실제 언어자료 활용

이왕 언어교육의 최종목표는 실제 상활에서의 의사소통이라면 언어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제의 언어자료를 제공해서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칠판이 제공된 단일한 시각적 자극과 달리 멀티미디어는 음성·문자·그림·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섞어서 시청각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 준다. 교사가 멀티미디어 매체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진실하고 생동적인 소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동영상, 스포츠 신문 기사, 스포츠 브랜드 광고 등 일상생활과 관계가 매우 긴밀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재 내용이 발생된 실제 상황을 느끼게 하고 연상 기억을 구촉하기를 도와주며 전문용어를 암기하도록 한다. 동시에 상관 문화 배경 지식을 소개

하면서 문화 차이를 알리고 다문화 소통능력을 높이기도 한다.

3.4 팀워크 활용

팀워크는 팀의 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4 명씩으로 단어팀을 나누고 단어팀 성원들이 수업 시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수업 시간 외에도 보충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휘 학습은 수업 안의 임무만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활동이 된다. 팀워크 활동은 명확한 활동 목표를 가지고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해야 한다. 성원들이 서로 계발하고 도와주며 전문용어를 응용하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팀워크 성원들이 보통 가까운 자리에 앉으며 처음에는 언어실력이 보다 나은 두 명의 성원이 책임을 져서 학습 활동을 주도한다. 즉 단어 읽기, 외위기, 예습하기, 복습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등의 활동 등이다. 그리고 팀 성원들이 서로 숙제를 고쳐주고 받아쓰기 하며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팀워크 활동은 학생의 학습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자아비판, 자아평가 능력을 키우며 학습 방법을 점차 습득하게 된다.

3.5 어휘놀이 활용

교수 실천을 하면서 전통적인 번역식의 어휘교수법을 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키우는 것 물론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사로서 학생의 학습 흥미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다. 어휘 놀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중의 하나다. 체육전문용어의 교수에서 훌륭한 어휘놀이는 학습목표 달성, 어휘 교육의 효율성 제고, 사제 간의 교류 증진 등 여러 방면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학습 욕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어휘놀이가 재미있는 편이어서 학습 욕망을 자극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어휘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우선 체육전문용어의 교수는 다른 영역의 교수, 예를 들어 말하기, 듣기, 읽기 등과 관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의 관심 분야를 미리 알아내고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어휘량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낯선 어휘가 학습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학습 흥미 유발시키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쉽게 하는 어휘놀이 두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3.5.1 단어카드찾기

중급 단계의 한국어 체육전문용어 학습자들이 단어카드찾기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놀이 방법은 아래와 같다.

ㄱ. 교사가 학생들을 4-5 명의 조로 나누고 각 조에 운동 종목 단어 카드를 1 세트씩 준다.

ㄴ. 책상 위에 운동 종목 카드의 내용이 보이게 놓는다.

ㄷ. 교사가 하나의 운동 종목의 특징을 말한다.

ㄹ. 학생이 그 특징에 따라 올바른 운동 종목의 카드를 재빨리 집는다.

ㅁ. 올바른 카드를 가장 많이 집은 팀은 이긴다.

단어카드찾기 놀이는 학생의 어휘량에 따라 제시문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운동종목 카드는 다른 유형의 카드로 바꿔도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중대한 체육 경기, 운동

기구, 유명한 운동 선수 등 주제의 놀이를 통해 그 유형의 어휘 암기에 도움이 된다.

3.5.2 주제가 있는 단어 확장 게임

주제가 있는 단어 확장 게임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ㄱ. 학급 인원이 10 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가 참여하고, 10 명 이상일 경우에 2 명씩 짝을 만들어 게임을 시작한다.

ㄴ. 교사가 주제를 말한다.

(예) 구기스포츠

수상스포츠

빙상스포츠

올림픽 개최국

…

ㄷ. 학생들은 순서에 따라 주제에 맞는 단어를 하나씩 말한다(조 활동일 경우 의논해서 하나를 말한다). 이때 제한 시간(10 초 정도)을 둔다.

(예) 교사: 하계 올림픽 개최국

학생 1: 중국

학생 2: 한국

학생 3: 브라질

…

ㄹ. 대답을 못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다음 주제를 정하게 한다.

ㅁ. 이렇게 계속 새로운 주제로 단어를 확장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어휘놀어는 의미장의 연상을 통해 유사한 대상을 뜻하는 체육전문용어를 한데 뭉쳐 단어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4. 맺는 말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어휘를 응용하기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 흥미를 충분히 유발시키고 적극적 학습 태도와 동기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어휘의 쓰임을 규정시키며 의사소통에서 새 단어를 이해시킨다.

그러나 의사소통교수법은 항상 학습자 중심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인데 교수계획과 교수내용, 그리고 평가방식의 선정 등은 모두 학생의 수요를 중요시한다. 이는 우리 나라 국내 한국어 교육의 보편적 실제와 어느 정도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교수법의 광범위한 응용은 어려움이 아직 많고 단기간에 보급하기가 힘들다.

또는 의사소통교수법은 체계적 교수활동을 강조하고 교사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학, 심리학, 교수법, 문화지식 및 언어능력 등 여러 방면에서 교사에

게 높이 요구한다.

그 외에는 상황이나 주제 등을 우선할 경우 어휘의 등급별 난이도를 고려하기 어렵다.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특정된 '실제상황'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소재를 준비해야 하고 교수자료의 선정과 배열의 기준이 좀 더 명시화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문법번역식의 교수법을 완전히 저버리고 의사소통교수법만 응용하면 체계적인 문법 규칙 습득, 읽기, 쓰기에 미비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도 교사가 의사소통교수법을 실시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실제 문제이다.

참고문헌

[1]Wilkins, David A.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M]. MA: MIT Press, 1972

[2]구본관. 한국어 어휘 교육론[N].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연구소 언어교육원 공편). 어카넷, 2012

[3]조현용. 한국어어휘교수법[C]. 2013 국외한국어전문가초청연수논문집. 국립국어원, 2013

[4]汪庆华. 关于我国大学生英语词汇量的初步探讨[J]. 外语界, 1998(2): 23-27

이름: 곽석뢰

소속: 위남사범대학교

주소: 섬서성 위남시 위남사범대학교

우편번호: 714000

전화번호: 18091361355

전자우편: 76558292@qq.com

한국어 말하기 교수에서 문화체험교수법의 적용 연구

최문정
(위남사범대학교)

요 지: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문화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인간교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문화체험교수법은 근년에 주목을 많이 받는 신흥 대외 중국어 교수법으로서 목표 문화의 체험, 출연, 습득을 그 목적에 둔다. 이 교수법은 목표 문화를 학습 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여기의 목표 문화는 오직 전통 문화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특정된 문화 배경에서 특정의 상황을 설정하여 적당한 처신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필자가 문화체험교수법을 한국어 말하기 교수에 응용하기를 시도하고 이 교수법의 응용 방안과 교수 효과를 검토하여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한구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키워드: 문화체험; 말하기; 교수법; 실제상황;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발전과 '일대일로'의 건설에 따라 세계 각국간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교류도 빈번해진다. 한국의 대중국 섬성성의 투자는 2012 년 한국 삼성반도체공사의 건설을 계기로 하여 몇 년 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 월 삼성반도체가 시안 공장에 향후 3 년간 총 70 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양해 각서를 섬서성 정부와 체결했고 올해 3 월 말 섬서성 시안 반도체 공장 제 2 기동 기공식을 했다. 현재 한국은 섬서성 제 1 의 투자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서북 지역에서는 한국어 능숙자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뛰어난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다문화 교제능력은 글로벌화 시대의 한국어 인재의 필수적 능력 중 하나이다.

5. 문화체험교수법에 대하여

문화체험교수법(The Pedagogy of Performing Another Culture)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우위커(Galal Walker) 교수에서 비롯된, 문화를 체험, 출연, 습득을 교수목표로 하는 제 2 언어교수법이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목표는 목표언어와 사회에서 암묵적이고 문화규범에 맞는 행위방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이다[1]. 문화체험은 언어와 문화개념을 일종의 매개로 삼아 학습자에게 자국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며서 말하기 능력을 키

[1] 吴伟克. 体验文化教学法[M]. 湖北教育出版社. 2010年6月, p9-p20

우는 교실활동이다. 그 핵심은 외국어 학습자가 꼭 목표국 문화에 접근하고 목표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법은 교사가 말하기 교수를 하면서 문화요소가 녹아있는 언어활동을 하고 학습자에게 문화를 체험하고 연기를 하며 문화 행위를 직접 하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문화체험교수법에 따르면 '문화체험'은 '특정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5 개의 규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2]. 1. 특정의 장소; 2. 특정의 시간; 3. 특정의 대본, 프로그램이나 규칙; 4. 특정의 배역, 역할; 5. 특정의 관중. 이 5 개의 규정적 요소를 더욱 분명히 밝히기 위해 아래의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필자에게 한국인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것을 불평한 적이 있다. 그 한국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우리 학생은 당연히 그 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할 때 그 한국 친구가 돈을 낼 기색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우리 학생이 밥을 사주었다. 식당 나오면서 그 한국 친구가 아까 밥값이 모두 얼마인지 물으며 더치페이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중국인의 방식대로 체면을 차리느라 그냥 괜찮다며 자기가 사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다고 필자에게 불평을 했다. 사실, 이런 오해는 두 학생이 목포나라의 계산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당연히 식사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밥을 산다고 여기지만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친구까리 식사하거나 만날 때 더치페이도 하거나 이번에 친구가 사주면 다음에 내가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사건에서

1) 특정의 장소(Specified place): 필자 학교 근처의 식당;
2) 특정의 시간(Specified time): 2018 년 4 월 어느 날;
3) 특정의 대본, 프로그램이나 규칙(Specified script/program/rules): 중국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밥을 사주는 관념과 한국 젊은이의 더치페이 문화 간의 충돌;
4) 특정의 배역, 역할(Specified roles): 계산관념이 다르고 상대국 계산 문화를 모르는 필자의 학생과 그 한국인 친구;
5) 특정의 관중(Specified audience): 식당 카운터 직원, 두 손님이 계산할 때 보통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의 돈을 받는다. 특히 손님 중 외국사람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중국사람이 '주인'이고 외국사람이 '손님'이며 중국사람이 밥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교사로서 필자가 위와 같은 실패한 교류에서 많이 배운다. 이 사건에서의 중국 학생이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좋은 편이다. 한국 친구와 식사하면서 유창하게 교류하는 걸 보니 일상대화에는 별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류에서 실패한 원인은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알지 못하고 제 나름의 예상대로 상대방의 행위를 해석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데치페이를 제안할 때 체면을 차리느리 사양했지만 은근히 불만이 많다. 이 사건은 한국어 교사에게 던져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바로 외국어 교육에서 교

[2] Carlson, Marvin. Performance: a critical introduction[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사가 학습자에게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강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화체험의 취지는 체험자에게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고 말을 하고 싶은 의욕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목표언어,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교수법이다. 한국어를 사용해서 문화 행위를 출연하는 것은 학습자들을 한국 문화의 체험자로 만들어서 한국문화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욕망과 잠재력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인다.

6.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의 원인 탐구

필자의 연구에 따라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 보통 의사소통능력이 보다 부족하다. 그 원인을 탐구해 보니 아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교수방법이 낡고 교수내용이 단일하다.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보통 과문 따라읽기, 과문 복창하기, 주제 대화하기 등의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계속 이 상태로 나아가면 학습자가 신선감 결여, 호기심 부족 등 현상이 나타나 학습에 관심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교사가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 등 다모드의 수단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실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수법에서의 교수내용은 과문에 나온 대화를 위주로 해서 내용이 낡고 단일하다. 학교에서 선정된 교과서도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재미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생활의 실제에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깊이 사고하고 말하는 욕망이 결여하는 동시에 교사의 창의적인 사고를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둘째, 이론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실천을 가볍게 여긴다. 교수목표의 달성에만 치중하지만 교수 내용의 재미와 실용성을 소홀히 한다. 이는 학습자 학습 흥미와 자신감의 부족을 초래하고 의사소통의 동기도 잃어버리게 한다. 말하기 수업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그 목표에 두는 것인데 전통적인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화제를 던져주고 학습자에게 무미건조한 대화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문화체험교수법에 따르면 교사가 준비 단계에서 관련 문화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고 특정된 문화 상황에서 대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교사가 교수활동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전에 화제와 관련 문화 배경 지식을 일찍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학습자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수업 내용의 중점과 난점을 알아보게 하며 문화 체험, 출연의 심리적 준비와 심리암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한중 언어, 문화, 사고방식 차이. 한국와 중국은 예로부터 빈번하게 교류해 와서 양국 문화 간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반면 역사, 지리와 지역 환경 등의 차이로 커다란 문화 배경 차이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 습관과 사고 방식이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과 사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제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7. 한국어 말하기 교수에서 문화체험교수법의 응용

문화체험교수법의 수업 유형은 실천수업과 이론수업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실천수업(Act)은 교사가 특정된 목표 문화 상황을 만들어 주고 학습자가 새로 배운 문법 표현, 문형, 어휘를 사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체험, 출연을 하게 하며 교사가 체험, 출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록하여 고쳐줌으로써 학습자의 행위에 즉석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다. 실천수업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수업 전에 학습자의 이론 지식 학습—어휘와 문법 표현에 대한 교사의 해석—특정된 문화 상황의 설정—새로운 지식을 사용해서 특정된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반복연습—교사의 피드백이나 평가—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정리, 습득.

이론수업(Fact)은 교사가 언어 지식을 설명하고 교수내용에 따라 특정된 상황을 설정하여 새로 배우는 문법표현, 문형, 어휘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론수업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수업 전 학습자의 대화 준비나 다른 형식의 언어 활동 준비—학습 단계에 따른 교사의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 정리—설정된 상황하의 학습자의 학습—교사의 피드백, 평가—수업 후 학습자의 복습. 이론수업은 한 단계의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이며 복습이다.

이어서 필자가 실제 교수사례[3]를 들어 문화체험교수업에서의 실천수업과 이론수업의 교수단계를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3.1 실천수업의 교수단계

1) 교수목표 소개.

교사가 들어가는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자와 교류한다. 학습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중국에서의 사과 방법과 대비하면서 소개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수업 전에 과문 내용을 예습해서 수업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익힌다.

2) 문법표현, 어휘와 문형 해석.

교사가 수업에서 새롭게 나오는 문법표현, 어휘와 문형을 상세히 밝혀주고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예문과 연습문제를 준비한다. 그리고 중요한 어휘도 상세히 해석해 준다. 예를 들어 'Vst-는지 알다/모르다', 'Ast-(으)ㄴ지 알다/모르다', 'Vst-는데요', 'Ast-(으)ㄴ데요', '얼마나+ Vst-는지', '얼마나+ Ast-(으)ㄴ지' 등이다. 사과와 변명에 관한 표현방식도 알려준다.

3) 체험, 출연 활동의 시범.

교사의 시범 내용을 통해 학습자를 문화상황에 빠르게 끌어들인다. 교사가 미리 사과의 내용이 담아 있는 비디오를 준비해 와서 언어지식과 문화 배경 간의 연관성을 세워주고 학습자의 머리 속에 '이야기'로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국 문화 지식 학습과 관련시켜서 한국에서나 한국 사람과 교류할 때 비슷한 사건을 실제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습자의 체험, 출연.

[3] 성균관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말하기>(초급 하) 제13과 <지각>을 교수사례로 든다.

팀을 나눠서 학습자를 설정된 상황에서 대화 연습을 시킨다. 교사가 학습자 출연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대화가 끝나면 다른 학습자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출연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서로 무슨 정보를 주고받았는가? '학생'이 왜 숙제를 안 했는가? '선생'이 무슨 일로 숙제 검사를 안 했는가? 이와 같이 묻고 답하는 것은 학습자의 집중력을 검사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시킨다.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말하기 수준을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출연자가 목표 없이 대화 연습을 하지 않도록 교사가 평가를 해야 한다. 대화 중의 좋은 부분에 대해 찬사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

5) 상황을 바꿔서 하기.

문화체험교수법의 5 가지 규정적 요소를 바꿔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특정된 장소를 '하교 길에서'로 바꿔서 사과 연습을 다시 시킨다. 이렇게 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실제 학습 효과를 검사할 수 있다.

6) 교사의 피드백과 평가.

평가는 없어서 안 되는 일환이다. 총괄 평가는 찬양을 위주로 하지만 학습자에게 자기의 출연이 한국 문화에 어울리는지를 알려야 한다.

3.2 이론수업의 교수단계

문화체험교수법에 따르면 하나의 주제는 보통 2 시간의 실천수업과 1 시간의 이론수업으로 이루이진다. 이론수업의 주요 내용은 문법표현, 어휘 및 용법, 사회 및 문화 문제, 발음, 읽기연습, 쓰기연습, 학습전략, 담론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론수업은 아래와 같이 5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 언어지식과 문화지식을 정리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배운 문법 표현, 문형, 단어를 복습시킨다.
2) 설정된 문화 배경에서 과문 내용 읽고 배운다.
3) 교사의 평가.
4) 수업 후의 복습. 이 단계에는 학습자가 문형, 문법표현, 단어를 복습하기도 하고 대화를 복습하기도 한다.
5) 심화 연습.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사과나 변명을 하겠는지 연습을 시킨다.

이론수업과 실천수업은 내용이 다르지만 서로 상호보완되는 것인데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목표문화 규범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맺는 말

문하체험활동은 언어교수의 모든 단계에서 쓰인다. 교사의 각도에서 보면 언어구조나 문법기능을 위주로 하는 교과서 문법 표현을 준비할 때 문법 표현을 실제 언어행위 활동의 상황에 어울려 준비해야 한다. 즉 한국어의 언어환경에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래서 교사가 한국어 능숙히 하는 동시에 활용론도 알아야 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언어학자처럼 한국어 사용자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활용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문장 연습을 할 때 그

난이도가 적당한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문장결합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모국어 사용자가 과연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가 간단한 성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를 특정된 언어환경에서 새로 배운 문법표현을 연습시킨다. 이는 쉽게 보이지만 실제 하기가 많이 어려운 일이다. 수업에서 교사가 감독, 배우, 소품 담당자 등 여러 역할을 한다. 학습자에게 올바르게 연습을 시키고 평가을 주며 직접 출연해서 시범을 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합리적, 효율적 도구를 준비해서 학습자가 문법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상황검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사가 하나 혹은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 배운 내용을 연결시켜서 학습자에게 역할연기를 하게 한다. 그리고 교사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역할을 하고 학습자와 대화를 해서 학습자의 발음, 문법, 구사능력, 활용능력을 검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체험교수법은 말하기 교수 외에 일기나 쓰기 교수에도 잘 쓰인다. 읽기나 쓰기 교수에서 문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생활과 아무 관계없는, 읽기, 쓰기 능력 제고하는 데 쓸데없는 교수활동을 피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읽기나 쓰기는 일정한 목적과 사회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시사문제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심심풀이로 신문을 읽는 사람도 있다. 친한 친구와 연락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마음 속의 우울과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읽기나 쓰기가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고 글쓴이나 독자도 제각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교수법에서 읽기와 쓰기도 일종의 문화체험으로 본다.

참고문헌

[1]Carlson, Marvin. Performance: a critical introduction[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2]이성희. 한국 문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M]. 서울: 박이정, 2015
[3]韩国成均馆大学语学院. 韩国语口语教程(初级下)[M].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1
[4]吴伟克. 体验文化教学法[M]. 武汉：湖北教育出版社. 2010, p9-p20

이름: 최문정
소속: 위남사범대학교
주소: 섬서성 위남시 위남사범대학교
우편번호: 714000
전화번호: 13992329355
전자우편: 49198502@qq.com

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 연구

정혜

(상해해양대학교)

1. 서론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각에서 유의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의 교육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문법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 따르면 전형적인 첨가어인 한국어는 문법적 의미나 기능이 주로 체언이나 용언 뒤에 붙어 쓰이는 조사나 어미 등 문법 항목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조사와 어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형태와 의미기능이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의 의미기능은 여러 개의 문법 항목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관계에 있는 문법 항목들이 많다. 유의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들은 의미기능에서는 유의성을 갖고 비슷한 환경에서 쓰이면서도 세부적인 의미에서나 통사, 화용적 측면에서는 세밀한 차이가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이러한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정확한 변별적 정보를 몰라도 언어 직관에 따라 쉽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의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한국어학에서의 연구가 중심으로 하다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 지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의미기능으로 쓰이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연구로는 안주호(2002), 진정란(2004), 배성애(2017) 등이 있다. 안주호(2002)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와 '-기 때문에'와 같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구를 중심으로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고 교수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정란(2004)에서는 '-아서', '-니까', '-느라고', '-길래', '-는 바람에', '-기 때문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유 표현 문법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유 표현 제시 순서와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배성애(2017)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한중 이유 표현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대조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이유 표현 연결어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 '까지', '마저', '조차'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조양(2012), 이려홍(2014)등이 있다. 조양(2012)에서는 한국어 보조사 '도', '까지', '마저', '조차'를 중심으로 각 보조사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오류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설명-연습-사용'의 교수 모형에 따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려홍(2014)에서는 보조사 '-도, -까지, -마저, -조차'의 의미기능, 통사적인 특성 및 중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보조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에 대한 연구로는 김은경(2006), 이경선(2007), 김동수(2011) 등이 있다. 이경선(2007)에서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반영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은경(2006)에서는 '-아서/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을 살펴보았다. 김동수(2011)에서는 '-고'와 '-어서'가 순서를 나타낼 때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한국어 교재,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하고 한국어 소설 말뭉치를 자동사 문형과 타동사 문형으로 분류하여 '-고'와'-어서' 의 차이를 기술하고 그 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다른 의미기능을 표현하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지면관계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한 의미기능을 표현하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미시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이외에 한국어 교육에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매개체인 교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2.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한국어 교재 분석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강의할 기본 내용과 교재에 대한 보충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유의간계 문법 항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변대학교, 연세대학교, 복단대학교 세 대학의 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출간도 활발해 졌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기관별, 학자별 출판된 한국어 교재들이 아주 많다. 본고에서는 国家精品课程教材인 연변대학교 한국어 교재와 中国韩国语教学学会에서 추천된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 그리고 21世纪韩国语专业系列教材인 복단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필자 정보가 없고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되어 있다. 학습자의 학습 편의를 위해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1 급에서 3 급까지 학습자의 모국어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출판된 교재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겠다. 연변대학교의 교재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마다 지필자가 명기되어 있다. 복단대학교의 교재는 초급(상, 하), 중급 (상) 3권까지 나왔고 각 권마다 지필자가 명기되어 있다. 각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문법 색인이 첨부하고 있다. 이 문법 색인에 따라 각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다.

문법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법 항목수를 통계해 보고자 한다. 통계할 때 형태가 같으나 의미기능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문법 항목으로 통계하고 이형태를 갖는 문법 항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통계하기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교재를 보면 선행어의 음운 환경에 따른 이형태들을 각각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서', '-어서', '-여서'는 선행요소의 음운 환경에 따른 이형태이다. '-아도', '-어도', '-여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문법 색인에서는 『연세한국어1』의 7과 1항에서 제시된 '-아서[1]', '-어서[1]', '-여서[1]'를 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7과 2항에서 제시된 '-아서[2]', '-어서[2]', '-여서[2]'도 문법 색인에서는 세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선행요소의 음운 환경에 따라 이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통계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말한 기준으로 각 교재의 문법 색인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법 항목수를 통계해 보았다. 『연세한국어1』에서는 89개, 『연세한국어2』에서는 101개, 『연세한국어3-4』에서는 각각 80개, 『연세한국어5-6』에서는 각각 40개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연변대학교의 『기초한국어1-4』에서는 각 135개, 90개, 74개, 76개의 문법 항목, 『고급한국어1』에서는 64개의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고급한국어2』에서는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복단대학교의 『초급한국어 (상)』에서는 143개, 『초급한국어(하)』에서는 124개의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별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의 수량이나 구체적인 문법 항목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들 중에서 유의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은 비슷하며 주로 원인관계, 대립관계, 양보관계, 선택관계, 시간관계를 나타나내는 의미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의미기능별 교재에서 제시된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주로 다

음과 같다.

원인관계: '-아서', '-니까', '-길래',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대립관계: '-는데', '-지만', '-는데도', '-으면서도', '-건만'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양보관계: '-아도', '-되', '-는데', '-을지라도'

시간관계: '-고', '-아서'

선택관계: '-(이)나', '-(이)라도', '-(이)나마'

포함관계: '도', '까지', '조차', '마저'

한정관계: 만, 밖에, 뿐

국립국어원(2005:116)에서는 연결어미를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한 바가 있는데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국립국어원(2005:116)의 연결어미 분류

의미 범주		연결어미
나열		-고,-(으)며
시간	동시	-(으)면서,-(으)며,-자,-자마자
	순서	-고,-아서/-어서
	전환	-다가
대립·대조		-(으)나,-지만,-는데/-(으)ㄴ데,-아도/-어도
이유·원인		-아서/-어서,-(으)니,-(으)니까,-(으)므로,-느라고
조건		-(으)면,-(으)려면,-아야/-어야
목적		-(으)러,-(으)려고,-도록,-게
인정		-아도/-어도,-(으)ㄹ지라도,-더라도
선택		-거나,-든지
방법·수단		-아서/-어서,-고
배경		-는데/-(으)ㄴ데,-(으)니

<표1>을 보면 각 의미 범주에 속한 연결어미들이 유의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2005:436-439)에서는 배타나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보조사 '만, 밖에, 뿐', 포함이나 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보조사 '도, 초차, 마저, 까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보조사 '(이)나, (이)든지, (이)나마, (이)라도'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거의 모든 의미 범주가 제시되어 있지만 각 교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문법 항목들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유의관계 문범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각 의미기능은 모두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데다가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학습자가 혼란을 일으키기가 쉬운 항목들이다. 따라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를 예로 하여 유의관계 문법 항목의 교재 제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와 '-아서'가 모두 시간적 순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경우에는 두 연결어미가 용법, 제약, 의미에 세밀한 차이를 보여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둘의 문법적 차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남수경·채숙희(2004:37)에서는 연결어미 '-고', '-으면', '-아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빈도에서 전체 연결어미의 7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혼란으로 인한 오류는 아주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희(2005)에서 초급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과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나 '-아서'에 대한 오류는 의미기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그 중에서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오류율은 44.2%, 나열을 나타내는 '-고'의 오류율은 17.3%,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의 오류율은 16.0%인데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오류율은 제일 높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다른 의미기능으로 쓰이는 '-고'와 '-아서'의 오류율은 줄어들었지만 순차의 '-아서'의 오류율은 54.7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아서'의 오류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문법 자체의 의미나 사용이 어려운 까닭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가 순차의 '-아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세 대학의 교재에서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각 교재의 내용을 다음 <표2>, <표3>으로 정리한다.

<표2>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의 교재 제시 양상

기관명	제시 순서	제시 내용
연세대	『연세한국어1』 제5과3항	-고[2](연세한국어1 제5과3항) 连接词尾，和动词词干连用，表示动作发生的先后顺序，此时，"-고"不和过去时的词尾"-았/었/였"连用。整个句子的时态是

		由“-고”后面的动词决定的。 숙제를 하고 잡니다. 我做完作业再睡觉。 밥을 먹고 이를 닦았습니다. 我吃完饭刷了牙。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毕业以后我要回家乡。 손을 씻고 오세요. 洗完手再过来吧。 영화를 보고 울었습니다. 我看完电影哭了。
연변대	『기초한국어1』 제5과	고(1)(连接词尾) 连接词尾“-고”接在动词后面，表示某一个主体的两个动作，一先一后地发生。可译为“……之后”。“-고”前面不能加时制词尾“-았/었/였”。 저는 세수를 하고 아침 운동을 합니다. 我洗完脸之后晨练。 누나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姐姐吃完饭之后去学校。 철수 씨는 숙제를 하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哲洙做完作业之后确认电子邮件。 왕강 씨는 오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王刚上午学完英语之后学韩国语。
복단대	『초급한국어상』 제14과	-고（连接词尾）(1) 用于动词词干之后，表示某一个主体的两个动作，一前一后的发生。 샤워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洗完淋浴后吃饭。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吃完饭后去学校。 숙제를 다 하고 잡니다. 做完作业后睡觉。 수업을 끝내고 기숙사에 돌아옵니다. 上完课以后回宿舍。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做完作业后看电视。

<표4>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아서’의 교재 제시 양상

기관명	제시 순서	제시 내용
연세대	『연세한국어1』 제7과1항	-어서/아서/여서[1] 用于谓词词干和体词谓词形后面的连接词尾，表示后面的动作或

		状态在某种情况下发生或形成。当前面的词干末音节元音为“아、오”时用“-아서”，末音节元音为其他元音时用“-어서”，动词以“하다”结尾时用“-여서”，一边缩写成“해서”。 양채를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我把蔬菜洗好放进冰箱里了。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我写完信寄了出去。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请你坐这等一下吧。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我回家吃饭。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 你早上起床后锻炼身体吗？
연변대	『기초한국어1』 제14과	-아서/어서/여서(2)(连接词尾) 用于动词的词干后面，连接一个主体的一先一后的两个动作。用“-아서”连接的前后两个动作有着密切的关系，前一个动作往往是后一个动作的前提。前面不同用时制词尾“-았/었/였,겠”。 속초에 들러서 생선회도 먹어 보세요. 到束草尝一尝生鱼片。 신촌역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세요. 在新村站下车，从4号出口出去。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去食堂吃饭。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朋友结婚，生了孩子了。 ※表示连接一先一后的“-아서”与“-고”的区别 用“-고”连接的一先一后的两个动作不像“-아서”那样有着密切的关系，前一个动作不是后一个动作的前提。试比较：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吃完早饭，去了学校。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去书店买书了。
복단대	『초급한국어상』 제14과	-아서/어서/여서 (连接词尾)(1) “-아서”用于“ㅏ,ㅗ”结束的词干之后，“-어서”用于以“ㅏ,ㅗ”以外的元音结束的词干之后，“-여서”用于“하(다)” 词干之后。用于动词的词干之后，表示“连贯”。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운동을 합니다. 早晨起床后先做运动。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去图书馆借了书。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去食堂吃午饭。

		한국에 가서 유학합니다. 去韩国留学。 학생 회관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去学生会馆见朋友。

교재 분석 결과, 제시 순서로 보면 세 대학의 교재에서는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를 모두 초급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결어미 '-고' 와 '-아서'의 고사용빈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래의 <표4>는 국립국어원(2005: 705-711)에서 통계된 어미 사용 빈도 조사 결과에 따라 만든 표이다. <표4>에서 보듯이 연결어미 '-고'와 '-아서'(이형태포함)의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사용 빈도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연결어미 '-고'와 '-아서'를 초급에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교재 이외에 다른 많은 교재에서도 '-고'와 '-아서'가 초급에 제시되어 있다.

<표4> 연결어미 '-고'와 '-아서'의 사용 빈도

항목	-고	-아	-아서	-어	-어서	-여
빈도	95914	56072	14292	60406	7397	20
순위	4	8	17	6	27	215

연변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교재에서는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를 먼저 제시하고 '-아서'를 그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복단대학교의 교재에서는 두 연결어미를 같은 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의미기능이 비슷하고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문법 항목들을 같은 과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경우는 통사적 제약도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제시하게 되면 학습의 어려움을 더하게 된다.

제시 내용의 측면에서는 <표2>와 <표3>을 보면 세 대학의 교재에서는 '-고' 와 '-아서'에 대해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제한적이고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태적 정보에서는 연결어미 '-아서'가 앞의 선행요소의 음운환경에 따라 이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형태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연세대학교 교재와 복단대학교 교재에서는 '-아서'의 이형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연변대학교 교재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도 이형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교재의 예문을 보면 차이가 많다. 연변대학교 교재에서는 '-아서', '-어서', '-여서'를 사용하는 예문을 다 제시해 주었다.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아서'와 '-어서'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고 '-여서'의 예문이 없었다. 복단대학교 교재의 예문에서는 '-아서'의 형태만 제시하고 있다. 음운 환경에 따른

이형태에 대한 학습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그리 쉽지 않고 늘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문법 설명에서만 이형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형태를 사용하는 예문도 제시해 주어야 학습자가 각 이형태를 선택해야 하는 언어 환경에 익힐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의 교재에서는 모두 한국어 예문과 중국어 번역문을 제시하고 있다. 교재에서는 의미기능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이 다르다. 그리고 통사적 정보의 제시 양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복단대학교 교재에서는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아무런 통사적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고' 의 앞에 시제어미 '-았/었/였'과 결합하지 못한다는 통사적 제약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아서'의 통사적 제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연변대학교 교재에서는 '-고'와 '-아서'의 시제제약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통사적 제약은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뿐만 아니라 주어 일치 제약, 서법 제약, 서술어 제약 등도 있다. 세 대학의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통사적 제약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속 학습에서 이와 관련된 반복 학습이나 강화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가 중급이나 고급이 되어서도 그 문법 항목에 대한 인지는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문제가 된다. 세 학교의 교재를 살펴보면 초급에서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후속 학습에서 '-고'와 '-아서'에 대한 반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가 중, 고급이 되어서도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를 잘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대학의 교재를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교재와 복단대학교의 교재에서는 유의관계에 있는 시간적 순차의 '-고'와 '-아서'에 대한 변별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연변대학교 교재에서는 '-고'와 '-아서'에 대한 변별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학습자가 정확하게 둘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

3.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제안

교재는 기본적인 교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면관계로 학습자가 필요한 만큼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해 주어야 한다. 2장의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의미기능이 유사해도 통사적 측면이나 화용적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 다차원에서 비교하면서 교육해야 한다. 형태, 의미기

능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제약, 서법의 제약, 서술어 제약 등과 같은 통사적 정보도 학습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문법적 능력은 문법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문법의 담화, 화용적인 정보, 사회언어학적 정보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간에 서로 독립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Larsen-Freeman(1991:280)의 삼차원의 문법 틀 (A three - 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 교재를 보면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하다. 의미기능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형태, 통사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의미기능보다는 통사적, 화용적 특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 다차원에서 문법 항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교육해야 학습자가 잘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강화 및 심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되도록 다른 과에서 제시하고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비교하면서 교육해야 한다. 교재를 보면 시간적 순차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에 대한 교육은 초급에만 한정되어 있다. 시간관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의미기능이기 때문에 '-고'와 '-아서'를 한국어 초급 단계에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정희(2005)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른 의미기능으로 쓰이는 '-고'와 '-아서'의 오류율은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오류는 초급 학습자에게만 높은 오류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급 학습자에게도 아주 높은 오류율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고'와 '-아서'의 변별은 학습자에게 어렵고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한다. 따라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은 한두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강화하고 심화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서도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차이점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재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재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부족했다. 정혜(2014:37)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세밀한 차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정확한 변별적 정보를 몰라도 직관에 따라 미묘한 차이까지 알고 표현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들의 변별적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교재에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을 기술할 때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기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재 기술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보충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가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면 유의관계 문법 항목을 잘 구분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

[1] 정혜(2012:171-172)를 참고하였음.

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을 교육할 때 대치하는 방법으로 의미가 비슷하여 같은 환경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와 서로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적절한 예문을 통해서 교육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한중/중한 대조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하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대응표현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응표현과의 비교도 같이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의 중국어 대응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문법 항목과 해당 중국어 대응표현에서는 완전 등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그냥 중국어 대응표현만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한중, 중한 대조분석의 성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법 항목과 해당 중국어 대응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오류분석을 활용하여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오류를 뽑아서 한국어 유의간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하면 학습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오류 문장을 보여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게 유도한다. 학습자가 고급 수준이 되면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말뭉치 활용하기가 학습자에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고급 수준이 되면서 선후행 문맥이 있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어 문법 항목은 의미기능에 따라 유의관계를 갖게 된다. 유의관계 문범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각 의미기능은 모두 언어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데다가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은 학습자가 혼란을 일으키기가 쉬운 항목들이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를 예로 하여 유의관계 문법 항목의 교재 제시 양상을 살펴았다. 교재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다차원의 비교가 부족하고 후속 학습에서의 강화 및 심화 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내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첫째,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은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 다차원에서 진행해야 하고 각 차원에서의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강화 및 심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의 차이점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한중/중한 대조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어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다섯째, 오류분석을 활용하여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오류를 통해서 학습자가 유의관계 문법 항목들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게 한다.

본고는 새로운 교재의 개발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관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유의관계 문법 항목 교육에 대해 나가야 할 방향적 제안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향후의 연구 과제로 하겠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동수(2011), "순서 표현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경(2006),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7-69.

김정숙(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원리와 방법', 『한국어학』 6-1, pp.117-133.

남수경, 채숙희(2004),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3-50.

오경진(2003), "인과관계 의미표현류 -'-느라고,-길래,-(으)므로,-는 바람에,-는 통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pp.103-126.

이정희(2005),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정혜(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사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201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 연구-교재의 문법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 5, pp.32-38.

진정란(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해서', 『한국어문학연구』 13, pp.279-291.

진정란(2003), '학습자 중심으로 본 이유의 연결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 국문화사, pp.103-126.

교재: 『기초한국어(1)』, 김영수·장영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기초한국어(2)』, 남일·김영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기초한국어(3)』, 장영미·심현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8.

『기초한국어(4)』, 심현숙·남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9.

『고급한국어(1)』, 마금선·이민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0.

『고급한국어(2)』, 심현숙·이민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1.

『초급한국어(1)』, 강은국·강보유·채옥자, 상해교통대학교출판사, 2005.

『초급한국어(2)』, 강보유·채옥자·황현옥, 상해교통대학교출판사, 2006.

『중급한국어(1)』, 채옥자·강은국, 상해교통대학교출판사, 2008.

『연세한국어1-6』,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세계도서출판회사, 2014.

정혜

상해해양대학교

上海市浦东新区临港新城沪城环路999号行政楼407

201306

156-1806-3263

hzheng@shou.edu.cn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전략 연구[1]

-결정 전략과 기억 전략을 중심으로-

강금염

(절강월수외국어대학)

1.서론

어휘력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기본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Virginia French Allen, 1983). 이처럼 어휘는 모든 영역의 언어 능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의 어휘 분류는 주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그리고 혼종어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 한자어가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어 학습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 수업에서 어휘 학습은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1. 학습전략에 관하여

학습전략이란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신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김현정, 2011:28). 아울러 학습자들은 학습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저장하고 재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동빈, 2011). 언어 학습전략의 분류에 대하여 연구의 대가인 Rebecca Oxford의(1990, 재인용) 주장에 따르면 언어 학습전략을 직접적 전략과 간접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직접적 전략(direct strategies)은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주로 기억 전략(memory strategies, 즉 어휘 연상과 이미지 사용),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즉 연습과 분석), 보상 전략(compensation strategies, 즉 단어를 추측하고 대화를 익숙한 주제로 이끄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간접적 전략(indirect strategies)은 언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전략을 말한다. 주로 언어 학습자들이 학습을 체계화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는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에 관련된 감정들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연관된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등이 포함된다. Rebecca Oxford의 언어 학습전략에 관한 이론은 후의 연구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

[1] 본 연구는 2016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5회 전국차세대한국어 교육자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이 한자어 학습의 결정전력에 목적을 두고 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그 기초상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자어 학습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기억전략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Rebecca Oxford의 영향을 받아 Schmitt(1997)는 어휘 학습전략을 체계화하여 크게 의미발견 전략과 기억 강화 전략으로 나눈다. 의미 발견 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단어 자체를 분석하거나, 문맥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고, 사전 등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전략 등을 포함한다. 기억 강화 전략은 새로운 어휘를 기억하는 데 단어의 정의 대신 뜻을 나타낸 그림,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목표 어휘를 새로운 목표 어휘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 품사 등에 따라 범주화 하는 것 등이 해당되는 전략이다. Schmitt(1997)은 Oxford의 6가지 언어 학습전략 중 어휘 학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회적, 기억, 인지, 상위인지 전략을 추출한 뒤, 의미결정 전략을 추가하여 총 5개의 개별 전략을 추출하였다. Schmitt에 의하여 다시 정리하면 의미발견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결정 전략, 사회적 전략을 두며, 의미강화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사회적 전략, 기억 전략, 인지 전략, 상위인지 전략을 두었다. 김미영(2010)은 의미결정 전략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며, 사회적 전략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묻거나 동급생이나 친구들과의 협동 학습을 통하여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다. 의미강화 전략에 있어서의 사회적 전략은 짝이나 그룹 등의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미 학습한 어휘를 연습, 기억, 재생하는 전략이며, 기억 전략은 기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특정 방법으로 조직하거나 부호화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인지 전략은 의미를 조작하는 기억 전략과는 달리 반복이나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전략이며, 상위인지 전략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학습을 계획, 통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목표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 쓰이는 전략이다. Schmitt의 학습전략의 분류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Schmitt(1997)의 어휘 학습전략의 분류

어휘 학습전략	의미 발견 전략 discovery strategies	결정 전략
		사회적 전략
	기억 강화 전략 consolidation strategies	사회적 전략
		기억 전략
		인지 전략
		상위인지 전략

한자어의 수량이 대단히 많으므로 수업에서 배울 시간이 부족하니 학습자가 독학을 통해 배울 수 밖에 없다. 설사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한자어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어도 그 어휘를 기억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몫으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결정 전략과 기억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조직하거나 부호화 하는 기억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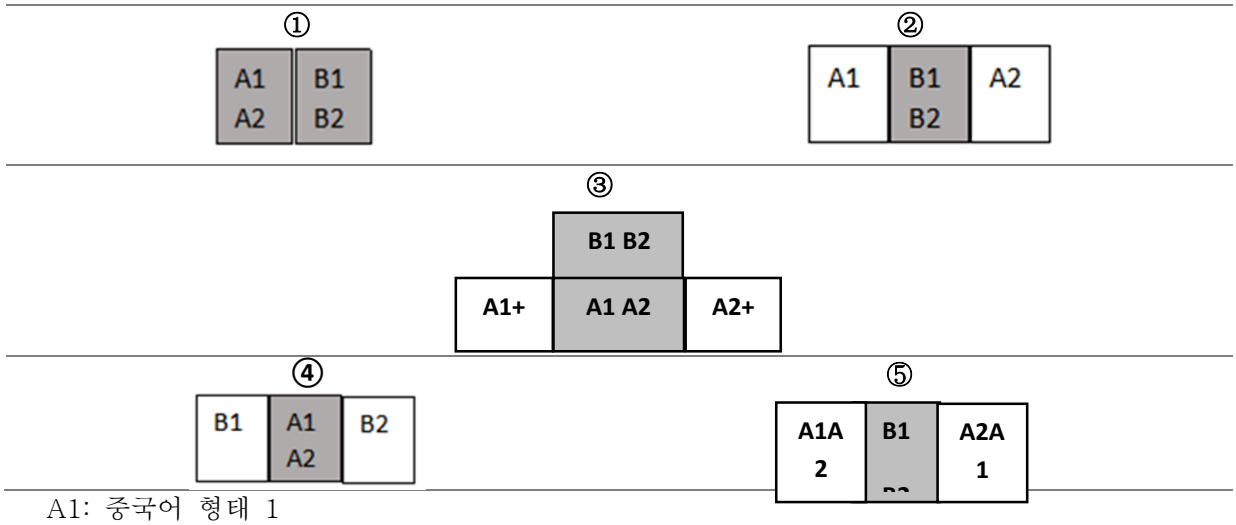
2. 학습내용 분석

본고의 학습 내용은 한자어이며, 학습대상은 중국인이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접할 때, 중국어와 연계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형태상·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①한자의 형태와 의미가 중국어와 같은 동형동의어, ②같은 의미를 갖지만 중국어와 전혀 다른 한자 형태로 구성된 완전이형동의어, ③같은 의미를 갖지만 중국어와 일부 다른 한자로 구성된 부분이형동의어, ④한자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형이의어, ⑤한자 형태와 의미는 같지만 순서만 바뀐 도치어(倒置语) 등 총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한자어와 중국어의 형태 및 의미적 관계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2 과 같다.

표2. 한자어와 중국어의 형태 및 의미적 관계



A1: 중국어 형태 1
B1: 중국어 의미 1
A2: 한자어 형태 2
B2: 한자어 의미 2

3.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전략에 대한 인지도 조사

3.1. 조사 대상

중국인 학습자가 한자어의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의 필요성과 학습전략 양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18 년 4 월 29 일부터 5 월 26 일까지 중국 X 대학교의 한국어를 배운지 1 년 이상의 한국어전공자인 학생 100 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의 한국어 학습 기간과 한국어 수준

항목	분류	수 (명)	비율(%)
한국어 학습 기간	1-2 년	34	34%
	2-3 년	56	56%

	3 년이상	10	10%
한국어 수준	초급	9	9%
	중급	55	55%
	고급	36	36%

3.2. 조사 결과

3.2.1. 한자어 학습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1%의 학습자가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 약 17%의 학습자가 어휘 학습은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약 47%의 학습자가 지금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어휘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약 78%의 학습자가 어휘학습은 수업 시간과 수업 외 시간을 결합하여 수행해야 한다며 어휘학습이 또한 자기의 몫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어휘 중 특히 한자어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습자는 약 42%가 되며 비교적 중요하다고 보는 학습자는 47%가 된다. 한자어의 양이 굉장히 많으므로 수업 시간만의 학습이 부족하여 스스로 어휘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약 50%의 학습자가 한자어 학습전략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약 43%의 학습자가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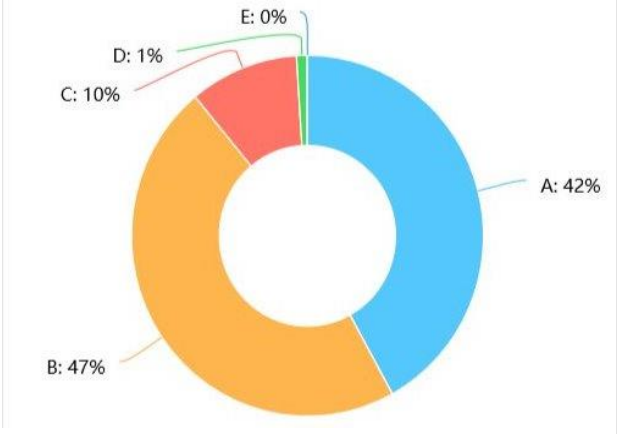


그림 1.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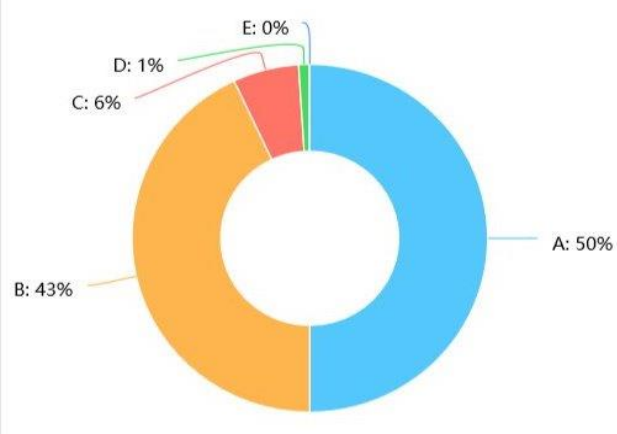


그림 2. 한자어의 학습전략의 필요성 인식 조사

A. 매우 중요하다
B. 비교적 중요하다
C. 보통이다
D. 별로 중요하지 않다
E. 전혀 중요하지 않다

3.2.2. 한자어 유형별에 따른 학습 난이도 조사

한국어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한국어 수준의 높임에 따라 학습해야 하는 한자어도 늘어나게 된다. 한자어와 중국어를 비교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한자어는 어떤 유형인지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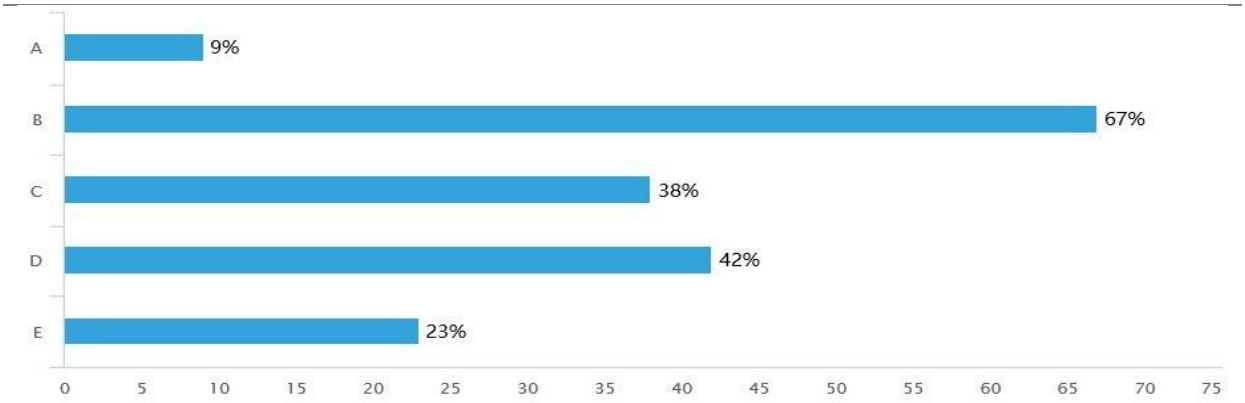


그림 3. 한자어 유형별에 따른 학습 난이도 조사

A. 동형동의어
B. 완전이형동의어
C. 부분이형동의어
D. 동형이의어
E. 도치어

위 설문조사의 대상은 모두 한국어를 배운지 일년 이상의 한국어 전공자이니 한자음에 대응되는 한자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이 설문을 응답하였다. 한자음에 대응되는 한자를 알면 동형동의어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다수 학습자는 동형동의어가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이형동의어는 중국어와 전혀 다른 한자로 어휘를 구성되어 있으니 학습하기에 가장 어렵다며 약 6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형이의어는 중국어와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 의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같은 2 위로 약 42%의 학습자가 어렵다고 한다. 부분이형동의어는 중국어와 어느 정도의 연관이 보이지만 차이점이 간과할 수 없어서 3 위로 약 38%의 학습자가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치어가 어렵다고 하는 학습자는 약 23%로 나타난다.

4. 한자어의 결정 전략과 기억 전략 연구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개별 어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므로 사회적 전략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

한 인지 전략의 반복이나 기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상위인지 전략은 계획, 통제, 평가하는 방식이기에 본 연구의 초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이에 본 연구자는 Schmitt(1997)의 이론 체계를 참고하여 한자어에 맞는 어휘 학습전략을 구현해 보았다.

표 4. 독학[2]을 위한 한자어 개별 어휘 학습 전략

한자어 학습전략	의미 발견 전략	결정 전략	한자음 익히기 한중 어휘 대조 목록 참조하기 한중 어휘 의미 변별하기 한자어 어휘소 분석하기 어휘소 순서 바꾸기 한자어 조어법 분석하기 그림이나 동작 단서로 의미 추론하기 문맥을 통한 추론하기 사전 찾아보기
	의미 강화 전략	기억 전략	한자음 익히기 한중 어휘 대조 목록 참조하기 한중 어휘소 차이 분석하기 한중 어휘 조어법의 차이 분석하기 단어의 소리 학습하기 단어의 철자 학습하기 연상하기(그림, 사건, 관련된 어휘 등) 새 문장 속에서 사용하기 그림이나 동작을 통해 학습하기

5.1. 한자어의 결정 전략

한자어의 결정 전략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자 유형별과 통합적 유형별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한자 유형별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한자어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목적에 두었다.

5.1.1. 유형별에 따른 한자어 결정 전략

(1) 동형동의어 결정 전략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가 동형동의어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자음에 대응된 한자를 이미 습득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동형동의어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한자음을 익혀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약 기원전 600 년 전후 무렵 한국어에 한자를 차용하였다고 한다. 중국어는 표의문자에 속하지만 '형(形), 음(音),

[2] 여기서 독학이란 남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가리킨다.

의(義)'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음문자인 한국어로 발음의 모방이 가능하였다. 이런 한자의 발음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한자음이다. 한자음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체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런 연관성을 이용하여 한자음을 익히면 대다수 한자어, 특히 그 중에서 동형동의어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형동의어는 중국어와 대조하여 한자 형태소가 모두 같다. 그러므로 동형동의어를 구성하는 한자음에 대응되는 한자를 알면 중국어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⑵ 완전이형동의어 결정 전략

완전이형동의어의 특징은 중국어와 대조하여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가 완전 다른 것이다. 이 유형은 학습자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한자어이다. 이런 한자어를 학습할 때 한자음을 알고 있어도 의미 파악에 도움이 안된다. 예를 들면 '역할(役割)'의 의미는 '作用' 혹은 '角色'인데 이 어휘는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니 중국어 한자를 보는 시각으로 '役割'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휘를 이해하려면 그 어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한자어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밝혀내면 그 어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 한자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더욱 많아졌고 한중 한자어 대조 목록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미 만들어졌다.[3] 이런 한중 어휘 대조 목록을 참조하면 그 어휘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

⑶ 부분이형동의어 결정 전략

부분이형동의어의 특징은 중국어와 대조하여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가 일부 다른 것이다. 이런 한자어를 학습할 때 한자음에 대응된 한자를 밝히면 의미 추측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짐작한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한자음을 밝힌 다음에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경주(競走)'는 달리기 경기를 말하는 것이나 현대 중국어의 시각으로 볼 때 '경(競)'은 경쟁을 말하는 것이고 '주(走)'는 걷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가 이것을 경보 경기로 착각하기 쉽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주'는 고대에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주(走)'는 고대 중국어에서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경주'는 달리기 경기를 말하는 것이다.

[3] 예를 들면 박경화(2009) <한중 이형동의어 대조 분석>에서 '한중 이형동의어 대조 목록'을 실려 있다.

⑷ 동형이의어 결정 전략

동형이의어는 중국어와 대조하여 한자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런 어휘를 학습할 때 먼저 한자음을 익힘으로써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한자로 전환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이미 습득된 바탕 지식인 중국어와 연계시키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국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로서의 한자어와 같은 한자 형태소로 구성된 중국어 어휘의 의미를 변별한다. 예를 들면 한자어인 문장(文章)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뜻한다. 그러나 중국어인 '文章'의 뜻을 분석해 보면 '독립된 한 편의 글'이라고 뜻한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 '문장'에 대응된 중국어는 '文章'이 아니라 '句子'이다. 중국어인 文章의 개념은 한자어인 문장의 개념보다 크다고 알 수 있다. 이런 변별 과정을 통하여 한·중 어휘의 의미 차이를 확실히 알아내며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⑸ 도치어 결정 전략

도치어는 중국어와 대조할 때 형태와 의미 면에서 모두 같지만 순서는 다르다. 이런 한자어를 학습할 때는 먼저 한자음을 익힘으로써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한자로 전환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자어의 형성방법을 대조하여 보면 조어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자어의 한자 형태소의 순서를 바꾸고 나면 현대 중국어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학습자가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도치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5.1.2. 통합적 결정 전략

⑴ 문맥을 통해 추론하기

문맥을 통해 한자어 의미를 추론할 때 Jenkins 외 (1989:221)에 참고하여 먼저 ① 모르는 한자어를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해 본다. ② 그리고 추론의 단서를 문맥에서 찾아본다. ③ 다음으로 추론한 한자어가 모든 문맥상의 단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만약 추론한 한자어가 어떤 문맥상의 단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추측이 필요할지 검토한다. ⑤ 문맥에 맞게 새로 추측해 본다. 다시 ①부터 시도해 본다. 이 학습전략은 모든 한자어를 학습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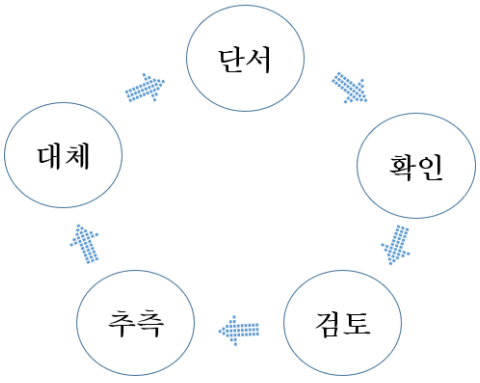


그림 4. 문맥을 통한 한자어 의미 추론 절차

어의 한자 형태소를 한자로 밝혀도 의미 파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형동의어를 학습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⑵ 사전 찾아보기

사전 찾아보기는 주로 한중사전이나, 한국어사전 등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중언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한국어사전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는 전략은 한자어가 물론 모든 어휘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자의 음을 통해서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동형동의어와 달리 이형동의어의 형태만 보면 의미 추측이 어려우니 사전을 찾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5.2. 한자어의 기억 전략

Schmitt(1997)에 따르면 기억 전략은 주로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연결시키며 기존 지식과의 통합에서 처리 수준 이론에서 장기 기억을 위해서 필수 수단이며 정교화 처러 과정을 어느 정도 수반한다고 한다. 한자어의 기억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자어의 유형별에 따른 기억 전략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분류한다.

5.2.1. 유형별에 따른 기억 전략

⑴ 동형동의어 기억 전략

동형동의어를 기억하는 데 한자음을 익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동형동의어는 중국어와 대조하여 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한자에 대응되는 한자음(한국어 발음)을 알면 한자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⑵ 완전이형동의어 기억 전략

완전이형동의어는 한자 어휘 형태소롤 구성되어 있지만 중국어와 전혀 다른 한자 형태소로 구성되므로 한자를 보면 그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어휘를 기억하기 위해 먼저 한중 한자어 대조 목록을 참고하여 중국어와 한자어는 구성 형태소의 차이점을 찾아낸다. 가능하면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어떤 것인지를 더 인상 깊게 남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한자음을 기억함으로써 이 한자어를 기억할 수 있다.

⑶ 부분이형동의어 기억 전략

부분이형동의어는 중국어와 대조하여 보면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일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인지해야 이 어휘를 제대로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문법(文法)'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语法''이라고 한다. 한자어의 일부 형태소는 '문(文)'으로 중국어의 일부 형태소는 '어(语)'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중 어휘의 공통적인 형태소는 '법(法)'이라는 것을 숙지하면 '문법'이란 한자어를 기억하게 된다.

⑷ 동형이의어 기억 전략

동형이의어의 특징은 어휘를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는 한국어로서의 의미와 중국어로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어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먼저 한중 동형이의어 대조 목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성하는 한자 형태소의 차이점을 인지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한자 행태소는 한자음으로 전환하면 이 어휘를 기억하게 된다.

⑸ 도치어 기억 전략

도치어는 중국어와 대조하여 형태와 의미 면에서 모두 같지만 순서만 다르다. 이런 어휘를 기억하려면 먼저 한중 어휘 순서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 다음으로 해당 중국어의 순서를 바꾸고 한자 형태소에 대응되는 한자음으로 전환하면 이 어휘를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멈 '소개(紹介)'는 해당되는 중국어는 '介绍'이다. '介绍'와 순서가 다르니 한국어는 '绍介'이고 한자음으로 전환하면 '소개'이다.

5.2.2. 통합적 기억 전략

⑴ 연상하기

어휘 연상하기 전략이란 어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상을 통하여 그 어휘를 머리속에 저장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 어휘를 보면 연상되는 개인 경험이나 다른 단어; 혹은 그 어휘와 형태가 비슷한 어휘를 연상하여 등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목표어를 머리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과 연관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영향'을 보면 '부정적', '긍정적' 등 어휘를 연상하게 된다.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을 생각하면서 영향이란 단어를 기억하게 된다.

⑵ 단어의 소리 학습하기

단어의 소리를 학습할 때먼저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부터 분석한다. 그리고 각 음절을 구성한 운소(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하나 학습한다. 다음으로 각 운소를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고, 음절을 결합하여 단어를 이룬 다음에 소리 내어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응되는 자모를 통하여 단어를 기억한다.

⑶ 단어의 철자 학습하기

단어의 철자를 모르고 소리가 나는 대로 적으면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단어의 철자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먼저 찰자를 음절로, 음절을 자모로 분해해 본다. 그리고 다시 자모에서 음절로, 음절에서 단어로 조합한다. 그러므로 단어의 형태를 기억할 수 있다.

⑷ 문장 속에서 사용하기

새 단어를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목표어가 빠진 문장을 완성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문장을 완성하는 전략부터 설명하면 먼저 목표어가 빠진 문장을 읽고 이해해 본다. 다음으로 문맥에 맞게 괄호에서 제시된 중국어에 대응된 한국어를 채우고 문장을 완성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목표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쓰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새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전략을 말하면 먼저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확인하다. 그리고 문장을 구상한다. 만약에 문장을 구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 등을 이용하여 예문을 참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완성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결정전략과 기억전략을 중심으로 한자어 학습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자어는 중국어와 형태상·의미상의 대조를 통해 동형동의어, 완전이형동의어, 부분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도치어로 분류할 수 있다. 한자어 학습은 중국인에게 적극적인 모국어 전이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이 또한 가능하다. 학습자가 특히 어려워하는 완전이형동의어는 바로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 한자어의 특징에 따라 유형별에 따른 학습전략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두 분류를 하여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자어의 결정 전략은 주로 동형동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한자음을 익히기, 완전이형동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한중 한자어 대조 목록을 참조하기, 부분이형동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한자 어휘소를 분석하기, 동형이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의미변별하기, 그리고

도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어휘소 순서 바꾸기 등이다. 통합적인 한자어 결정 전략은 주로 문맥을 통해 추론하기, 사전 찾아보기 등이다.

한자어 기억 전략으로 주로 한자어의 유형별에 따라, 동형동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한자가 대응되는 한국 음를 알아내기, 그리고 완전이형동의어, 부분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에 모두 효과적인 전략인 한중 한자어 대조 목록 참조하기와 어휘 형태소 차이점 인지하기, 이어서 도치어에 효율적인 전략인 어휘소 순서 바꾸기 등이다. 통합적인 한자어 기억 전략은 주로 연상하기, 단어의 소리 학습하기, 단어의 철자 학습하기, 문장 속에서 사용하기 등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과 기억을 할 때 이상의 연구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만 종류에 따라 학습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학습전략과 통합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있는 전략을 제시한 것뿐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 전략에 그쳐 실제적인 학습 효과에 따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후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미란(2013), ‘영어과 하위권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전략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화(2009), ‘한중 이형동의어 대조 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군(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음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윤(2017), '어휘 지식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전략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욱·남기춘(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학습전략 연구’, 『우리어문연구』17, 25~53.

장지영(2009), ‘문맥을 통한 어휘 추론전략의 교수가 우연적 한국어 어휘학습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chmitt, N.(1997),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27.

Virginia French Allen.(1983), *Techniques in Teaching Vocabulary Oxfoud American English.*

Jenkins, J. 외(1989), *Two approaches to vocabulary instruction: The teaching of individual word meanings and practice in deriving word meaning from contex t*, Reading Research Quarterly, 24-2, 215-235.

1. 이름: 강금염
2. 소속: 절강월수외국어대학
3. 주소: 절강성 소흥시 월성구 회계로 428호
4. 우편번호: 312000
5. 전화 : 15705851972
6. 전자우편: 1378816639@qq.com

텍스트 차원의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

- '-었-'의 비과거 시제 교육을 중심으로-

최인숙

(북경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텍스트[1]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경계를 허물고 공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텍스트 차원의 외국어 교수 학습이 문법 학습에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는 1996년 이후부터 텍스트 언어학 이론이 접목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화행 또는 문형 등으로 나타나는 표현 연구를 중심으로 모두 67편의 연구 업적들이 나왔다 (김정남, 2012:183) 담화문법의 교육 내용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개별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고 담화 층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박나리(2004)에서는 종결어미에 내재된 담화 화용적 의미를 고찰했고, 김유정(2009)에서는 '-구나'만을 대상으로 담화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장미라(2009)에서는 -은/는 것이다 문형이 텍스트 유형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짐을 논했다.

시간의 상위 개념인 '시간성'은 인간의 사고구조의 기본 원칙이자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언어를 하나로 연결해 하여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제다. 한국어는 시간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휘적인 표현 수단, 문법적인 표현 수단 그리고 담화화용적인 수단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제, 상, 서법이 문법적인 표현 수단이며 동사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개념을 표현한다. 동사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직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건시를 발화시를 지준으로 하여 그 시간의 유효범위를 나타낸다.

Lakoff(1986)는 시제 연구가 문장 차원이 아닌 텍스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홍수(1989)는 문학적 시점 논의에서 시제의 담화기능과 관련된 시간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최규수(2010)은 '-었-'과 '더-'가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기능에 대해 밝혔다. 해당 상황의 시간은 문장 내 '시간위치어'와 용언

[1] 텍스트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고영근(1990)이 정리한 학자들의 공통된 관점을 귀납하여, 문장보다 큰 단위로서 응집성(coherence)과 결속구조(cohesion), 의사소통적 기능을 지닌 문장의 연쇄로 보며, 노석기(1990), 체이프(Chafe,1994), 정희자(1998), 민현식(2008), 김은성(2012), 김태엽(2008) 등의 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텍스트=담화' 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의 시간형으로 반영되며, 어떤 문장의 시간상황은 담화의 시간상황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쓰임을 고찰하여, 담화의 시간상황은 문장의 시간상황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들은 동시적일 수도 계기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최규수, 2009:137).

한국어의 '-었-'[2]은 한국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 출현하는 시간 표현[3] 관련 선어말어미로서 여러 문법 해설서에서 '이미 일어났음', '이미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됨' 즉 '완결 지속' 등의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한국어의 시제체계 학습의 초보 단계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가 '-었-'을 단지 단순 과거 시제 문법 표지로만 모호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기에, 학습 단계가 높아져도 그 오류의 발생 정도가 줄어들지 않고 학습자들의 혼란만 가중된다. 기본의 의미로서의 '-었-'의 과거시제 의미를 습득한 후에는 그것의 확장된 의미인 상이나 양태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었-'의 비과거 시제 용법에 특별히 주목하여 텍스트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었-' 사용 오류 실태를 조사하거나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대조를 통한 교수 ·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고는 중국의 주요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선한 외(2001)저 <한국어1>의 7개 단원을 분석 자료로 삼아, 시간성이 부각된 문장이나 텍스트를 예를 들어, '-었-'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었-'의 비과거 시제 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 '-었-[2]' 의 의미 범주 설정

'-었-'의 시제 해석에 대해서는 국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 차가 있지만, 본고의 논의의 중심은 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었-'에 대한 한국어 교수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는바, 편의상 국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출판된 범용 문법 해설서를 토대로, 종결형으로 실현될 때의 양상을 중심으로 '-었-'의 비과거 용법을 정리해 보고, '-었-'을 단지 문장 차원에서 단편적· 이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그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 한국어 학습자 사전[4]에서 찾아본 '-었-'의 비과거 용법[5]을 정리해 보면, 그 정의는 다소 다르지만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2 한국어의 시제 체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들이 있는바. 본고에서는 편의상, -었-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었-[1] 후자는 비과거 용법으로서 '-었-[2]'로 표기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시간표현은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을 아우르는 개념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급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는 '-었-'의 양태, 서법 등의 용법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이희자 이종희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전>,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를 주로 분석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5 과거 시제 용법과 양태를 제외한 '-었-'의 의미를 본고에서는 비과거 용법이라 지칭하고 논의를전개하기로 한다.

있어[6]'완료 지속'이나 '현재 완료' 등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2-1] 범용 문법서에 나타난 -었-의 비과거 용법 해설 비교

국립국어원(2007)	백봉자(2008)	이희자· 이종희(2006)
1.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문장이 표현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침 예)•참 눈이 많이 왔다. •오늘 아침에 꽃이 활짝 피었다.	1.동작이 현재나 과거에 완료됨 예) •기차가 서울역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현재완료) •우리는 작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과거완료) 2.동작의 완료 상태가 지속됨 예) •할머니는 이모집에 가셨습니다.(가 있는 상태의 지속)	1.어떤 행동이 과거에 완결되었음. 예) •영숙아, 감기 다 나았니? 2.과거에 나타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예) •작년에 그 사람을 알았어요.

2.1 완료 지속

'완료 지속'이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지만 그 상황이나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비가 참 많이 왔네요.

목련이 활짝 피었네.

지수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철수는 청바지를 입었다.

1)은 이미 비가 많이 왔고 비가 온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2)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여, 핀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3)은 지수가 운전면허를 딴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는 철수가 청바지를 입는 동작을 완료하여 현재까지도 청바지를 입은 상태임을 나타낸다.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에서는 이를 '철수가 청바지를 입고 있다'의 의미와 동일시하

6 대체로 초급 단계에서는 '-었-'의 양태적 기능인 '화자의 확신'의 의미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고 있지만, 이는 ‘철수가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철수가 청바지를 중이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 ‘지수가 안경을 쓰고 있다. ‘,‘아이가 양말을 신고 있다/신었다’ 등과 같이 ‘탈착 동사’가 서술어로 쓰였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5)와 6)과 같이 상황맥락이 주어진 지시문을 부가한 텍스트 형식으로 제시될 경우 의미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의미의 전달이 분명해진다.

5) (방에서 철수가 안 나오고 있다. 철수 엄마가 철수 동생에게 묻는다.)

가. 철수 엄마 : 철수는 지금 뭐 해?

나. 철수 동생 : (철수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청바지를 입는 중이에요.)

6) (영미가 방학 때 철수와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영미 : 철수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청바지를 입었어요≠청바지를 입는 중이에요.)

-었-의 의미를 문장 차원으로만 해석할 때 생기는 혼란의 상황은 아래의 예문으로 부가 설명할 수 있다.

7) 가. 영미 : 식탁 위에 둔 내 피자 누가 먹었어?

나. 영미 동생 : 엄마가 먹었어.

7)의 대화는 직관적으로 보기엔, 기준점이 발화시, 즉 현재로서 발화시 기준 이전 상황을 묻는 것이므로 이는 과거시제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의 화자와 주어를 보면 화자는 ‘영미 동생’이고 주어는 ‘엄마’인 상황에서 주어를 기준으로 삼으면 주어의 행위 시간이 ‘먹다’라는 상황의 밖에 존재하고 동작시가 기준시 이전에 위치하게 되어 완료 지속의 의미가 된다. 8)과 같이 화자와 주어가 일치한 상황 맥락이 주어질 때만 과거 시제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8) (영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침에 식탁 위에 둔 피자가 보이지 않는다.)

가.영미 : 식탁 위에 둔 내 피자 누가 먹었어?

나.영미 엄마 : 엄마가 (너 없을 때) 먹었어.

2.2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화자의 발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될 때를 말하는데' -었-'은 특정 용언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화자의 발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될 때 사용되기도 한다.

9) 기차가 서울역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7]

10) 영미 씨는 이제 막 식사를 마쳤다.

11) 광고지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12) 자장면 왔습니다!

위의 예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时点)이 화자의 발화가 일어난 시점과 일치되는 경우이다. 9)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함께 사용되어 화자의 발화가 일어난 시점에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10)의 경우도 '이제 막' 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발화 시점에서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1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광고지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은 지금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었-'은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이 아닌 어떠한 행위가 현재 완료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12)에서도 주문한 자장면이 배달 온 것이 바로 지금의 일로 시제로 보아 현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위의 완료, 즉 현재 완료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유타니(1978)의 한국어의 동작류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가지다','맡다','이기다' 등 [-상태성][+순간성][+결과성]의 동작류를 띤 동사에서 목격할 수 있다(고영근, 2007; 286).

한편 위의 예문과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잘나다', '잘생기다','못나다','못생기다' 등도 항상 ' 잘났다', '잘생겼다', '못났다', '못생겼다'로 활용되어 현재 상태만을 지시한다. 최동주(1995:200)은 이들이 과거 시제와 무관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 잇-'의 역사적 화석형으로 보았다. 송철의(1996:854-856) 역시 '늙었다', '닮았다'를 '늙어 있다','닮아 있다'로 해석하고 '-었-'의 전신인 '-어 있-'의 완료 의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여 -었-의 역사성에 기인한 -었-의 비과거 시제 용법이 존재하는 데에 견해의 일치를 보인 것이다.[8]

3. 현용 교과서 텍스트 분석

본고의 연구 방법인 텍스트 차원에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언어 사용자가 특정 텍스트의 맥락에서 왜 그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로써 어떠한 의미 기능을 전달하고자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의 맥락은 언어 형식과 의미 기

[7] 白峰子韩国语语法词典"，世界图书出版公司 p.7에서 인용했다.

[8] 한국어에서의 '-었-'처럼 '-어 있-'과 같은 완료에서 단순 과거로 문법화되는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이때의 문법화 경로는 다음과 같다(문숙영,2009:146)

완료 → 결과 → anterior → 완결 / 단순과거
Perfect resultative perfective simple past

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영향을 주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은 일찍이 브라운과 율 (Brown & Yule,1983)에서 '내 생각에 아담은 빠르다.' 라는 문장은 그 맥락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이 달라짐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9]

한국어 교재에서 '-었-'[10]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중국의 주요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선한 외(2001)저 <한국어1>의 7개 단원을 텍스트로 간주하고 분석 자료로 삼았다.[11] 본 교재에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 었-'이 <한국어1>의 제14과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아래의 텍스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1)에서 단순과거시제로서 '-었-'이 포함된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제시하고, 문법 항목에 '-았-/-었-/-였-'의 결합방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예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텍스트의 구문들은 '-었-'이 최초로 언급된 제14과에 등장하며 모두 과거시제로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 경우이다.

<한국어1>의 제14과에서 '-었-'이 기본적인 의미인 단순 과거 시제로 사용된 이후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거의 모든 과에서 빈번하게 과거시제 의미로서의 '-었-'이 출현하고 있다.

13) 어제 영화를 보았습니까?
14)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15)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16) 무슨 일을 했습니까?

13)은 시간명사 '어제'와 공기한 '-었-'의 과거시제 용법, 14)와 16)은 별도의 부가 수단 없이 '-었-'만을 사용한 과거 시제 용법 15)는 시간명사 '그때'와 공기한 '-었-'의 과거시제 용법이다. '그때'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12]을 지칭하는 시간명사로서 과거시제 -었-과 공기한다.

제14과 무엇을 했습니까
14-(3)-1[13] 황민 씨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었-²)습니다.
14-(3)-2 최지애 씨도 중국을 좋아하게 되었(-었-²)습니다.

9 자세한 내용은 유민애(2017,25-26)을 참고하라.
10 본고에서는 –었-이 종결형으로 실현될 때의 양상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11 한국 내 출판 교재 분석 자료로는 조지윤(2016)을 참조하라. 특히 조지윤(2016,35-36)에서는 –었-의 비과거 용법에 해당되는 어휘와 예문들을 '현재 상태 용법'이라 정의하였는데, 본고와 관점을 같이 한다.
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13 본고의 텍스트는 지면적인 한계로 인해 전문을 싣지 않고 –었-의 비과거 용법이 실현된 문장을 중심으로 예문을 들었으며, '단원-본문-예문 번호'로 표지한다.

14-(1)과 14-(2)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발화가 일어난 시간보다 앞서는 경우로서 '-었-'을 사용했지만 14-(3)의 '동사 + -게 되다' 구문에 해당된다[14] '동사 + -게 되다' 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 즉 '사건이 실현됨'을 의미하고 있다.

14-(3)-1 황민 씨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黄敏喜欢上了韩国。

14-(3)-2 최지애 씨도 중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崔智爱也喜欢上了韩国。

14-(3)의 담화 문맥을 통해 위 두 문장이 이미 실현된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민은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지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나서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기준시에도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시점(时点)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준시에도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동사 + 게 되다' 구문은 '사건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에 '작년부터'라는 시간부사를 첨가하면 '좋아하게 되었다'가 '작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서 '한국을 좋아한 상태'와 '좋아하고 있는 상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동사를 시간부사의 공기관계를 보면'-게 되다' 에 결합되는 내포문은 명제의 의미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건의 의미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황민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 라는 발화를 할 때, 현실세계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화자는 그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서술자가 황민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 라는 서술을 하게 만드는 변화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텍스트로 구성할 수 있다.

14-(1) 가 : 어떻게 황민 씨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나 : 황민 씨가 작년에 한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지애 씨가 황민 씨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황민 씨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14과에서 이미 -었-에 대해 학습자들이 과거 시제로 학습했기 때문에 '언제 중국에 오셨습니까?' '6월 30일에 왔습니다.' 등은 그 이해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문장과 같이 '-었-'이 '벌써', '그동안', '이제' 등과 같은 시간 부사[15]와 함께 쓰인 문장을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어

14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인 '동사 +-게 되다' 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선영(2015)와 유연(2017)을 참조하라.
15 한국어 시간 부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최현배(1937), 홍종선(1991), 손남익(1995), 민현식(1999), 서정수(2005)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시간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해당 텍스트에 언급된 시간 부사에 한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1> 제 15 과에는 '-었-'의 용법에 대한 별도의 문법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새단어 목록에 '벌써', '그동안', '이제' 등 어휘의 중문 해석만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의 혼란이 야기되며, 시간위치어와 -었-이 공기할 때 생성되는 비과거의 의미에 대해 충분한 습득을 할 수 없다. 각각의 시간부사와 공기한 '-었-'에 대한 교사의 의식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향후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었-'의 비과거 용법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15과 날짜와 시간
15-(1)-1 벌써 넉 달이 되었(-었²-)습니다.
15-(1)-2 왕한 :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었³-)습니까?
15-(1)-3 김준호 :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¹-)습니다.
15-(1)-4 이제 많이 적응이 됐(-었²-)습니다.<후략>

'벌써'는 '나는 그 일을 벌써 알고 있었다.'와 같이 '이미 오래 전에'의 의미, 즉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부사, '이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벌써 배가 고파?' 나 '벌써 5월이 되었구나!'와 같이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었-'과 공기하여 과거시제의 의미로 쓰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공기하더라도 과거시제 구문이 아니다. 즉 이 구문은 텍스트의 문맥이나 상황으로 볼 때, 시간이 화자인 김준호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다고 감탄하는 '时间过得真快啊!'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순 과거 시제의 의미가 아니다.'이미'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 구문의 '벌써'를 '이미'로 대체할 경우 아래와 같이 비문이거나 비문에 가까운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15-(1)-1 벌써 넉 달이 되었(-었²-)습니다. (? 이미 넉 달이 되었습니다.)

20-(1)-4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었²-)네요. (? 어머, 이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홍종선(1989, 230)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시간부사의 대다수가 문장의 시제 결정에 그리 큰 작용을 하지 못함을 고찰하였다. 즉 '벌써'와 '이미'는 과거형과 현재형에 모두 공기하는 시간부사이며, '되다'의 시제에 제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5-(1)-4에서는 '이제'라는 시간부사를 사용하여 발화 시점에서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제는 '현재'의 현상적 의미를 갖는 시간부사로서 동사의 시제에서 제약을 갖지 않는다. 이제라는 '바로

이때' 라는 의미로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제16과 날씨와 기후
16-(2)-1 이선희 : 양리 씨,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었²-)습니다.
16-(2)-2 양리 : 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왔(-었²-) 습니다.
16-(2)-3 비가 온 후에 기온이 내려갔(-었²-) 습니다.

16-(1)은 김준호와 왕한이 일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묻고 답하는 언어적 행위에서 과거 시제 용법인 -었-¹이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한편 16-(2)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과거 용법인 '-었-²' 쓰였다고 봐야 할 문장이 출현한다. '-어지다'가 형용사를 선행어로 하는 경우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이라는 상태 변화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16]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상태나 속성을 표시하는데 '-어지다'가 첨가되면 변화 가능한 상태나 속성을 표시하게 된다.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 라는 예문을 제시하면 '-어지다'는 한 상태가 끝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의 '상태변화'는 기준시 이전에는 쌀쌀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이 시점부터 쌀쌀한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내며 그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기준시 이전에는 날씨가 [-쌀쌀하다]였다가 이 시점부터 [+쌀쌀하다]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형용사 + -/어/여지다' 형태는 '-었-'과 결합하여 변화가 완료된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초급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날씨 관련 형용사로는 '춥다', '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등이 있는데, '-어지다'가 결합하면 '추워지다', '더워지다', '시원해지다', '따뜻해지다'와 같이 자동사로 변하고, 여기에 '-ㄴ다'가 결합하면, '추워진다', '더워진다', '시원해진다', '따뜻해진다'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현재 시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었-'과 결합되면 '추워졌다', '더워졌다', '시원해졌다', '따뜻해졌다'와 같이 현재 날씨 상태를 표현한다.

16-(2)-2의 경우 화자(양리)의 발화 시점 전인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왔고, 화자의 발화 시점에도 비가 오는 상태이므로 상태의 지속의 의미이다. -었-이 '상태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고 있다'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6-(2)-3에는 '-었-'이 실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양리)의 발화 시점 전에 비가 왔고, 그 후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발화 시점에도 기온이 내려간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의미로서 '완결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었-은 어떤 일이 다 이루어져 끝나 있는 상태인 '완료'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경우 -었-은 완료상으로 볼 수 있고 대개 [-상태성][+순간성][+결과성]의 동작류를 띤 동사에서 종종 목격

[16] '-어지다' 구문의 자세한 설명은 손세모돌(1996:252), 고영근(2004:307), 전영철(2008:81)을 참고하라.

할 수 있다.[17]

17) 가: 나나가 오늘 왜 보이지 않지?
나: 선생님, 나나는 오늘 결석했어요.

가′ : 왜 결석했지요?

나′ : 감기에 걸렸어요.

위의 텍스트를 보면 '-었-'이 나나의 결석 상태가 '나'의 발화시점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감기에 걸린 나나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발화되는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 '-었-'은 단순과거용법이 아닌 비과거 용법으로 해석해야 하며 과거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완결 지속'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제17과 물건사기

점원 : 어서 오세요.

17-(1)-1 최지애 : 사과를 좀 사려고 왔(-었²-)어요. 얼마예요?

'-었-'은 어떠한 사건이 발화되는 시간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 사용되며 그것이 '-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그런데 특정한 용언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화자의 발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될 때 사용되기도 한다.17-(1)-1의 예는 사건(최지애가 사과를 사려고 상점에 온 것) 이 일어나는 시점(时点)이 화자 (최지애) 의 발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되는 경우이다. 이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지금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제18과 전화하기

18-(3)-1 전화를 잘못 걸었(-었-²)을 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18-(3)-1은 '-었-+ 관형사형어미 -을' 의 구조를 띄고 있는데 전화를 잘못 건 시점과 기준시가 일치되는 '현재 완료'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었-'의 쓰임은 사태a 전 사태b라는 전시간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태a가 완료된 사건으로 다음에 오

17 한국어 동사의 동작류에 관해서는 고영근(2007), 유타니(1978) 정문수(1984)를 참고하라.

는 사태b, 즉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위해 지시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으)ㄹ 때'는 '가다, 오다' 류의 동사와 결합할 때는 '-었을 때'와 '-을 때'의 의미가 다르다. 즉 '집에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는 집에 도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어제 집에 갈 때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났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왔을 때 교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는 학교에 도착한 상태에서 교실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한 것이고, '학교에 올 때 서점에 들렀어요' 는 학교에 오는 도중에 서점에 갔다는 것이다. 전자는 완료상이고 후자는 미완료상이다. 18)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동사의 과거 형태는 행위의 완료 즉 완결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18)회의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없었어요. 회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왔어요.

19)과제가 많아서 과제를 할 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과제를 다 했을 때 뿌듯했어요

제19과 겨울방학

19-(2)-1 이선희 : 방학 때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었²-)어요.

19-(2)-2의 경우, 화자(이선희)의 발화 시점 전에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약속이 진행됐고, 화자의 발화 시점에도 약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문장에 실현된 '-었-'은 '완결 지속'의 의미이다. '동사+-기로 하다' 구문은 약속이나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화자의 굳은 결심을 나타내며, 선행동사의 행위, 즉 앞말이 미래에 일어날 계획일지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아래의 예문과 같이 주로 '-기로 했다' 형태로 표현된다.

18)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19)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제20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20-(1)-1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었²-)네요.

20-(2)-5 김준호 : 저는 중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었²-)는데 거의 학교 안에만 있었(-었¹-)어요. 부럽네요.

20-(3)-1 방학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었²-)다.

20-(3)은 김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쓴 일기문이라는 상황 맥락을 감안한다면, '방학이 되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에서 '돌아왔다'는 단순히 집에 도착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상황 맥락으로 보아 집에 돌아와서 쓴 첫 일기문일 가능성이 높고 집에 돌아온 상태에서 서술한 일기문이라면 완결지속, 즉 비과거 시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이선한 외<한국어 1>에 등장하는 -었-의 출현 빈도를 통계 수치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이선한 외<한국어 1>에 나타난 '-었-'의 출현 빈도

단원 / -었-의 기능	14 과	15 과	16 과	17 과	18 과	19 과	20 과	총계
-었¹- (과거 시제)	8	3	3	10	1	0	13	38
-었²-(비과거시제)	0	2	3	1	0	1	3	10

'-었-'이 사용된 문장과 출현 빈도를 근거로 '-었-'이 각 담화와 문장 속에서 비과거의 의미로서 사용된 예가 이미 초급 단계에서도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용 한국어 교과서에 '완결 지속'과 '현재 완료' 등의 '-었-' 의 비과거 용법에 대한 문법적 설명이 부재하고 연습이 생략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한다. 먼저 문법 해석에 있어서 간단히 과거 시제라고만 제시하는 것은 단순 모호하다.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로서 단순과거라고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할 때 학습자는 행위가 과거에 일어나서 현재(발화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즉 '-었-'의 '완결지속'의 용법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다음 학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4. '-었-²'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

여기서는 '-었-'의 비과거 용법의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완결 지속'과 '현재 완료'의 '-었-²'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하고 '-었-²'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8]

[18] 조지윤(2016)에서는 한국 대학기관에서 사용 중인 교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었-'을 초급 단계에서 과거 시제로 제시할 뿐임을 지적하면서,-었-의 현재 상태 용법과 결합하는 어휘 목록을 숙달도별로 제시했다.

4.1 주제 및 상황 맥락을 이용한 어휘 목록 제시

‘-었-²‘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 및 상황 맥락을 근거로 어휘 목록을 설정해야 한다. 각 단원별 주제의 교수 요목을 설정하고 하나의 상황 맥락이나 기능에 맞는 주제별 어휘를 제시하여 상황 맥락에 부합하는 의사소통이나 특정 기능의 의사소통 수행 시에 필요한 어휘들을 묶어서 관련 지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황 맥락 제시를 통하여 텍스트의 기저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게 되다’의 의미를 적절히 노출시킬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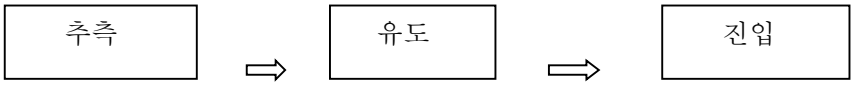
이선한 외 <한국어1>에서 비과거 용법의 ‘-었-‘이 출현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주제와 상황맥락, 기능, 어휘를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4-1]이선한 외 <한국어1> 주제와 상황맥락 · 기능 · 어휘 구성표

단원	주제	상황 맥락	기능	어휘 목록
제14과 본문(3)	생활의 변화	대학에 입학한 후, 주위 사람(새로운 친구와 선생님), 배우는 내용, 생활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	동사 + -게 됐습니다	공부하다,살다 생활하다,지내다 좋아하다,적응하다
제15과 본문(1)	북경생활	북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시간명사)+ 이 됐어요. -에 적응이 됐어요	1달, 1주일, 2년,6개월, 음식, 기숙사 생활, 선생님의 수업 방식
제16과 본문(2)	날씨 변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형용사+ -어졌어요 이/가 왔어요 이/가 내려갔어요/올라갔어요	춥다, 덥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기온
제19과 본문(2)	약속하기	친구와 만나서 약속하였다. 현재 친구와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다.	-기로 했어요	여행 가다,놀러가다 만나다,공부하다 운동하다

이선한 외 <한국어1>에서 비과거 용법의 ‘-었-‘이 출현하는 텍스트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수 · 학습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19]

[19] 여기서는 텍스트의 광의적 의미를 받아들여,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4-1] '-었-[2]' 문법 수업 모형

추측 단계에서는 해당 문법 항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통해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언어 상황을 추측하게 한다. 교사는 상황과 관련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유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추측 단계에서 제시한 시각 자료와 관련된 질문을 유도한다. 진입 단계에서는 문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되 초급 단계 학습자이므로 중국어로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등 상황에 따른 문법 연습을 제시한다. 진입 단계의 문법 학습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도록 구성한다.[20]

1단계: 문장문법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단계로서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문형 연습을 통해서 확정한다. 어떤 경우에 그 문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해야 문법을 학습하고 난 후의 학습의 긍정적인 전이를 기대할 수 있다.

2단계: 담화문법의 차원에서 5~6개 정도의 문장으로 된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속에 제시된 상황 하에서 문법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 속에서 문법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을 사용하는 상황을 유추하게 하므로 효율적이다.[21]

3단계: 연습 단계로서 기존의 문장이나 대화문이 아닌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습한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문법을 사용하는 상황을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22]

대화로 문법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대화 부분에서는 대화 장면으로 유도하면서 대화의 맥락을 형성시켜 주는 질문으로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부족한 문법 연습은 워크북에서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습한 문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구체적 설명이 부가되어야 효율적이다. 특별히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단원의 구성 부분에는 맥락과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법 학습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제시하고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그 문법을 사용하는지

20 전통적인 방식의 문장문법 교육은 교실에서 한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문법 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붙이기에 용이하지만 맥락과 분리되어 있어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아 괴리가 존재하였다. 담화문법은 문장문법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 가능한 절차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 점차 담화 문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Hughes & McCarthy,1998:280;유민애,2017재인용)

21 대화는 문법 요점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데 쓰이는 오래된 기술이다.(있다 (H. D. Brown, 1992)

22 조지윤(2016)은 각각의 개별적인 어휘보다 덩어리로 제시하여 교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형화된 덩어리 표현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제시된 통합 어휘 목록을 종결형의 실현 양상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분류하여 제시했다. 문법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은 향후 자발적인 문장 생성에 유리하다고 본다.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게 되다', '-어지다'를 연습할 때에도 문법 연습이 문장으로만 제시되면 문법을 학습하고 난 후의 긍정적 전이를 기대할 수 없다. '-었-'이 특정 동사 또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특정 용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한다.

4.2 -었[2]-수업 모형 예시

14과 본문(3)에서는 '생활의 변화'를 주제, 인간 관계를 부제로 상황 맥락[23]을 구성하고 '동사 + -게 되다' 유형을 교육할 수 있다. 이것을 교수 학습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수업 내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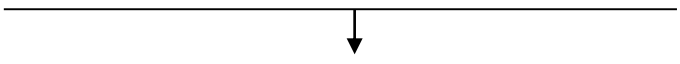
주제	생활의 변화	부제	인간 관계
상황 맥락	며칠 전 왕한 씨와 나나 씨가 싸웠다. 두 사람은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대화를 했다. 그 후 왕한 씨가 나나 씨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나나 씨는 행복했다.		
기능	-게 되었어요		
어휘	이해하다/좋아하다/사랑하다/이야기하다/잘 지내다		

[표4-4]교수 · 학습 내용의 단계별 구성

매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수준에서 텍스트는 특정한 동사 시제를 겨냥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문법 범주를 예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H. D. Brown, 1992).

[그림4-2](<Korean Grammar in use 중급> p.165와 p.175에서 인용)

[23] 조영미(2015)에서는 한국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교재를 대상으로 피동 사동 표현 교육을 주제로 상황 맥락을 가미한 연습 유형과 문제의 양이 많이 부족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구분 (시간)	과정	교수 · 학습 내용
추측	동기유발	상황 그림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언어상황을 추측하게 한다. T:첫째 그림을 보세요, 여자는 나나, 남자는 왕한이에요. 뭐 해요? S:나나는 화가 났어요. 왕한도 화가 났어요 T:둘째 그림을 보세요, 나나와 왕한은 무엇을 해요? S:나나와 왕한은 이야기를 해요 T:화가 났어요? S:아니요, 화가 안 났어요. T:셋째 그림을 보세요. 나나와 왕한은 무엇을 해요? S:왕한이 나나에게 꽃을 선물해요. T:왜 선물을 해요? S:왕한이 나나를 좋아해요. T:나나는 기분이 어때요? S:나나는 행복해요.
제시	문법설명	'-동사 + -게 되었어요' 는 일정한 기간을 지나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며, 현재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게 되었어요' 로 표현한다. ('-게 되었어요' 接在动词后面，表示通过一定的过程达到某种程度或状态。此句型用于现在已经实现的事或定居的事时。) [24] 
연습	어휘 익히기 및 문형연습	이해하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왕한 씨는 나나 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잘 지내다- 잘 지내게 되었어요. 나나 씨는 왕한 씨와 잘 지내게 되었어요. 좋아하다- 좋아하게 되었어요./나나 씨는 왕한 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24] Cross(1991,29-30)는 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할 때가 있는데 특히 자신의 모국어와 유사한 시제 체계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욱 그렇다고 한다. '동사 +-게 되었다' 구문은 '과거에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서 이상과 같은 시간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다-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활용	인터뷰 담화 구성	가 :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어요?/나 :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선택하게 됐어요. 나 : 어디에 살아요?/나: 기숙사에 살게 되었어요. 가 : 조남 씨를 어떻게 알아요?/나: 학과에서 알게 되었어요. 가 : 왜 고향을 떠났어요?/나 :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황 맥락을 달리 설정하여 유의미한 연습 활동에 진입할 수 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하게 됐어요).매운 음식도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알게 되었어요).
정리		평가 및 다음 차시 예고 : 형용사 + -어졌어요 예) 행복해졌어요

5. 나오는 말

본고는 초급 단계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었-'의 비과거 시제 용법을 기존 문법 해설서를 토대로 '완결 지속'과 '현재 완료' 용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과거 시제 용법인 '-었-[1]'과 구별한 '-었-[2]'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용 한국어 교과서에 '-었-'이 사용된 텍스트 분석과 출현 빈도를 근거로 '-었-'이 각 담화와 문장 속에서 비과거의 의미로서 사용된 예가 이미 초급 단계에서도 빈번히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완결지속' 또는 '현재 완료' 등의 '-었-' 의 비과거 용법에 대한 별도의 문법적 설명과 연습 없이 교수 · 학습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하였고, '-었-'의 비과거 시제 용법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찾아 보았다.

본고는 단지 중국 소재 대학 한국어 전공자들의 현용 교과서 초급 단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었-' 교육 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했다고 본다. 그리고 현용 한국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습자의 비과거 시제 용법 사용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초급 단계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재 개발의 참고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시제, 상, 양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에서 '-었-'의 비과거 용법을 일일이 분석하고 분류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행위 또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거나 고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문법 요소라서 시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었-'의 과거

시제 용법 외에 비과거 시제 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바, 본고를 통해서 향후 한국어 교육에서도 '-었-'의 비과거 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현화(2012), 한국어교육학에서의 담화연구 분석, 한국어교육23, 219-256.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김민영(2012),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한국어의 시제 기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남(2012), "텍스트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텍스트언어학 33,181-212.

김정은(2014), "맥락 중심의 시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2006),"한국어 과거 시제 교육 방안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09),"한국어의 시제 범주",태학사,140-147.

신형욱(2004), "텍스트언어학과 외국어교육",텍스트언어학 17,1-26.

웅문도(2011), "'벌써'와 '이미'의 교육내용 구축과 사용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민애(2017),"맥락 중심의 한국어 담화문법 교육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연(2017), "한국어 상태 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민경(2013),"텍스트의 장르성과 시간 표현 교육",텍스트언어학 34,179-206.

조지윤(2016), "-었-의 교육 내용 연구"-현재 상태 용법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희릉 (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 민족문화연구 223~245.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이희자 이종희(2007),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전",한국문화사.

국립국어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2",커뮤니케이션북스.

H. Douglas Brown(2007),"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earson Longman.

H. Douglas Brown(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Longman.

(최인숙,북경대학교,北京市海淀区颐和园路5号北京大学民主楼112, 13581797173, joykimchina@empas.com)

한국어 보조사 ‘만’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유경화(刘庆花)

산동청년정치대학교(山东青年政治学院)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보조사 ‘만’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본다.

한국어 보조사는 격을 나타내지 않지만 문장에서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적 기능, 그리고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 부사어 아래도 연결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립어인 중국어 문법체계에서는 한국어 보조사와 같은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법 구조의 차이로 인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힌다. 그리하여 본고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보조사를 어떠한 중국어 표현으로 인식하는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한국어에서 ‘단지’, ‘다만’과 같은 한정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는 ‘만’, ‘뿐’, ‘밖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뿐’은 ‘이다’와 결합하여 쓰이고, ‘밖에’는 부정적 표현과 함께 쓰이는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만’의 쓰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만’의 사용 빈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 ‘뿐’과 ‘밖에’보다 훨씬 높다.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학습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 보조사를 기술할 때 주로 ‘만’에 중심을 두기로 한다.

한정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보조사 ‘만’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법범주는 주로 범위부사[1]로 본다. 범위부사는 명사성 성분을 수식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한국어 보조사 ‘만’과 관련된 ‘只有, 光, 就’ 등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1) 只有/光/就他不说话。 그 사람만 말을 하지 않는다.

[1] 이근효(1997)에서 부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분류는 정도부사, 범위부사, 시간부사, 긍정부사, 부정부사, 어기부사, 측정부사, 금지부사, 중복부사, 병열부사, 방식부사, 관련부사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범위부사는 사물의 수량이 얼마인지, 범위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1)에서 중국어 부사 '只有, 光, 就'는 '他'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중국어 부사 '只有, 光, 就'는 '단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범위부사에 속한다. 이들 범위부사는 다른 부사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사구, 전치사구, 심지어 수량사구까지 수식하여 피수식어의 수량이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2. 한국어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과 중국어 대응표현

그동안 보조사 '만'의 형태 및 통사적 특성, 그리고 의미 기능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 최현배(1961)은 '홀로', 채완(1977)은 '단독', 허웅(1983)은 '단독, 유일 한정', 홍사만(2002)는 '단일 한정' 등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을 다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다.

1) 단일 한정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단일 한정'이다. 즉 선행어와 결합하여 그 선행어의 범위나 수량에 대해 유일하게 한정한다는 것이다.

(2) 가. 아침에는 <u>과일만</u> 먹는다.

나. 한 달 내내 <u>학교에만</u> 있었다.

(2 가)는 목적격 자리에 '만'의 사용함으로 아침에 과일 이외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과일만 먹는다는 의미이고,(2나)는 한 달 동안 학교 이외의 다른 장소에 가지 않고 다만 학교에 있었다는 뜻이다. '만'의 이런 의미는 보통 '단일 한정'으로 간주된다.

한편 보조사 '만'은 선행어와 결합하여 쓰일 때 선행어와 더불어 선택될 가능성이 주어졌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자동으로 배제된다. 다시 말하면 (2 가)에서 '과일' 이외에 '밥, 빵, 과자' 등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보조사 '만'에 의해 배제된다. 이런 측면에서 채완(1977:30)은 '만'을 '단독' 보조사라고 하였다. 정혜(2012:134)에서 보조사 '만'은 전제된 자매항목의 집합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집합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선택과정을 거쳐 자매항목과 '만'의 연결어에 대해 서로 반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보조사 '만'은 배타성을 갖고 있다. '만'의 이런 의미 특징은 보조사 '는'이나 '도'와 비교하면 더 잘 드러난다.

(3) 가. 영희는 국어는 싫어한다.

나. 영희는 국어도 싫어한다.

다. 영희는 국어만 싫어한다.

'는'을 사용한 (3 가)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영희는 국어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를 사용한 (3 나)는 영희는 다른 과목과 함께 국어 또한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을 사용한 (3 다)는 영희는 다른 과목을 싫어하지 않고 오로지 국어를 싫어한다는 의미를 한다. 이처럼 '만'은 다른 것을 완전히 빼놓는 배타성이 있다. '는'과 '도'가 주로 다른 것과의 대조적 관계를 나타낸다. 박기덕(2003:242)에서 보조사 '만'의 의미를 배타성으로 보는 이유는 사물을 단독으로 가리키며 보조사 '만'의 선행명사가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조사 '만'이 '단일 한정'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4) 가. 철수만 공부한다. 只/只有/光哲洙学习。

나. 철수는 노래만 부른다. 哲洙只/只是/光唱歌。

(5) 가. 철수는 학교에서만 공부한다. 哲洙只/单/光在学校里学习。

나. 나무로만 가구를 만든다. 只/单/光用木头做家具。

(4), (5)는 각각 보조사 '만'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와 결합하여 쓰인 문장이다. 이들 '만'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보면 (4)에서는 부사 '只, 只有, 只是, 光'으로 나타나고, (5)에서는 부사 '只, 单, 光'으로 나타난다. 중국어 부사 '只, 只有, 只是'는 한국어 보조사 '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고 있다.[2] 이런 배타성으로 한국어 보조사 '만'이 중국어 부사 '只, 只有, 只是, 光' 등과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 보조사 '만'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 뒤에 쓰이는 데에 비하여 중국어 대응표현 '只, 只有, 只是' 등은 주로 용언이나 주어 앞에 쓰인다.

또한 중국어 부사 '只, 只有, 只是'와 한국어 보조사 '만'이 수식하는 범위가 다르다. 朱德熙《语法讲义》에서 부사를 앞 단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과 뒤 단어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양분하며 '只, 就, 仅, 光, 单'은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하였다.

[2] 유선영(2005:139)에서 '仅，光，只，就，单，才，唯，偏，独，单单，惟独，惟有' 등 제한 범위부사 배타성 범위부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성원과는 다른 '이질성'을 부각하면서 유일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6) 只/光/就他一个人来了。 그 사람 혼자만 왔다.

(6)은 범위부사가 명사성인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只, 光, 就'가 '他一个人'을 지향하고 있다. 즉 이런 범위부사는 뒤의 성분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只' 이외에 중국어에서 '한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에는 '光, 仅, 仅仅, 单, 才, 就' 등도 있다. 그리고 '只'는 항상 '光, 仅, 仅仅' 등과 교체하여 쓰인다. '光'은 구어체 표현이고, '仅仅'은 문어체 표현이며 '只'는 구어나 문어에서 모두 사용된다.

(7) 我只/光/就/仅/单去过日本, 没去过其他国家。

나는 일본에만 가봤다. 다른 나라는 가보지 않았다.

(7)에서는 범위를 한정하는 부사 '只, 光, 就, 仅, 单'이 모두 동사 '去' 앞에 쓰였다. 이때 이들 부사는 '去'라는 행위와 관련된 것을 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只'와 '光, 就, 仅, 单' 등과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있다.

한편 다음 예문에서 '只'와 '单, 光'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8) 가. 只30分钟就做完了作业。 숙제를 하는 데에 30분밖에 안 걸렸다.

나. *单/*光30分钟就做完了作业。

(8)은 '只, 单, 光'이 수량사를 포함하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다. (8 가)에서 '只'는 뒤에 수량사를 수식하여 '做作业'(숙제를 한다)가 필요한 시간의 짧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30分钟'은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单, 光'을 사용한 (8나)는 비문이다. 이는 수량의 적음을 나타낼 때 '只'는 가능하지만 '单, 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现代汉语虚词例释》에서 '单'과 '光'은 行为, 사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쓰이며 범위가 좁음을 설명한다고 하였다.[3] 이들은 범위를 한정하는 측면에서 '只'와 용법이 동일하지만 수량을 한정하는 측면에서는 '只'와 다르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单, 光'이 '只'와 같이 수량사를 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3]**《중국어허사사전》에서도 '单'과 '光'은 수량을 수식할 수 없는 부사로 설명하고 있다.**

(9) 只/单/光你一个人，恐怕完不成任务.[4] 너 혼자서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9)에서 '只'와 같이 '单, 光' 뒤에 수량사가 포함된 명사성 성분이 있다. 그러나 이때 '单'과 '光'이 한정하는 것은 '一个人'의 수량이 아니라 많은 범위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혜진(2011:30)은 (9)에서 '单'이 가리키는 것이 '我', '他', '她'가 아니라 '你'라는 대상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你'는 '一个人'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격명사구이다. 즉 주어와 수량사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격명사구일 때 부사 '只'뿐만 아니라 '单'과 '光'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2) 강조

보조사 '만'은 '단일 한정'의 의미를 바탕으로 '강조'의 의미까지 확장된다. 그 강조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사, 부사형 어미, '~아/어야'에 연결될 때 선행어의 부사적 특징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정도 첨의'를 한다.[5]

(10) 가. 자꾸만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나. 이 서류를 받아만 주십시오.

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10 가)는 보조사 '만'이 부사 '자꾸'에 연결되는 문장이고, (10 나, 다)는 보조사 '만'이 어미 '~아', '~어야'에 연결되는 문장이다. (10 가)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0 나)는 '다른 것(처리하는 것)은 상관치 않을 테니 받는 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고, (10 다)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환경에서 쓰인 '만'은 선행어의 어휘적 성격이 문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강조의 '정도 첨의'로 볼 수 있다.

보조사 '만'이 '정도 첨의'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중국어에서 어떻게 대응되어 있는지를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11) 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请等一会儿。

나.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夜渐渐深沉了。

다. 기다려야만 한다. 得等一等。(이상《진명》)[6]

[4] 김예진(2011:30)에서는 '单你一个人，恐怕完不成任务。'로 제시하고 있다.

[5] 여기서 논의하는 보조사 '만'의 '강조' 의미와 관련된 내용은 유경화(2012)를 참조하였다.

(11)에서 보조사 '만'은 부사 '잠깐', 부사형 어미 '~어', 그리고 '~어야'와 결합하여 선행어의 부사적 특성을 한 층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제시된 중국어 문장을 보면 이 상황의 '만'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없다. 이때 '만'과 결합하는 부사나 어미가 대응된 중국어 표현에 강세를 두는 것을 통해 강조 의미를 표시한다. 이는 이런 경우에 쓰인 '만'은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정도 첨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보조사 '만'은 수량사 구에 연결되면 그 수량의 적음을 강조하여 '최소 제한'의 의미를 나타낸다.[7]

(12) 한 마디만 더 말하고 싶다.

(12)에서 '만'은 수량사와 같이 결합하여 쓰이며 말할 것은 많으나 최소로 제한하여 한 마디를 더 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만'은 모두 수량의 적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의 이런 의미도 '단일 한정'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12)에서의 '만'은 '한 마디 이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두 배제하여 한 마디만을 단일 한정'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대 수치가 가장 낮다. 홍사만(2002:251)에서 (12)를 '한 마디만 더 얘기하고 싶다'고 발언하는 화자는 실상 '한 마디 이상을 얘기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으나 '시간이 없다', '너무 길어졌다', '듣는 사람이 지루하다' 등 상황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마디'를 최저의 것으로 제한하여 얘기하고 싶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즉 (12)를 화자의 기대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2)′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최소 제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사 '만'이 중국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13) 가. 딱 하나만 다오. 只/就/*单要一个。

나. 내 지갑에 달랑 천 원만 있다. 我的钱包里只有/就/*单一千块。

[6] 진명출판사 편(2000)《진명 뉴밀레니엄 한중사전》이다. 앞으로《진명》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7] 홍사만(2002:250)은 수량에 있어서 '만'의 한정은 피접어의 수량의 정도가 최소나 최저의 것이 되게 하는 축소 제한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13)에서 보조사 '만'은 수량사 '하나', '천 원'과 결합하여 수량의 '최소 제한'을 하고 있다. 이때 '만'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보면 부사 '只', '只有', 就'로 실현될 수 있지만 '单'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어 부사 '只'는 자유롭게 수량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지만 '单'은 그렇게 쓰이지 못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사 '只'는 수량과 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수량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보통 수량의 적음을 나타낸다. 즉 (13)에 쓰인 '只'는 동작과 관련된 수량의 적음을 한정한다.

吕叔湘(1999:678)에서 '只'의 용법 중의 하나로 '행위와 관련된 사물의 수량을 한정한다(限制与动作有关的事物的数量).'라고 제시되어 있고, '就'는 '수량의 적고 많음을 강조한다(强调数量多寡).'라고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만'이 중국어 '只', '就'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只有'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 예문(13 나)처럼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만'이 중국어 '就'와 대응될 수 있으나 '만'은 수량이 적다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중국어 '就'는 수량이 적다는 의미와 많다는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14) 한 시간만 더 놀고 싶다. 我想再玩一个小时。

(15) 가. 就他一个人迟到了。 그 사람 혼자만 지각했다.

나. 他自己就吃了三碗米饭。 그 사람 혼자만 밥 세 그릇을 먹었다.

한국어 예문 (14)에서는 '만'이 수량의 정도를 최소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어 예문 (15)는 '就'를 사용한 문장이다. (15 가)에서의 '就'는 수량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就他一个人'에 강세를 두어 읽는다. 그러나 (15 나)에서의 '就'는 수량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就'는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수량이 적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많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3. 한국어 보조사 '만'을 포함한 관용 표현과 중국어 대응표현

'만'은 독립된 보조사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와 함께 관용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 관용 표현의 형식으로 쓰이는 '만'은 독립적 쓰이는 보조사 '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 같이 논의하기로 한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보조사 '만'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6) 가. 그녀는 기분이 나쁘면 울기만 한다.

나.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다. 그는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

라. 입시 공부만 아니면 나도 마음껏 놀 수 있다.

마. 강아지가 송아지만 하다.

바. 여자의 힘은 남자만 못하다.

(16 가)에서 보조사 '만'은 '~기만 하다'의 형식으로 쓰여 '우는 것'이 지속해서 일관되는 행위를 말해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보조사 '만'은 '~기만 하다'의 형식으로 어떠한 상태나 행위가 지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6 나)에서 보조사 '만'은 '~만 ~아/어도'의 형식으로 쓰여 '실제로는 더 아찔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낸다. 이처럼 보조사 '만'은 '~만 ~아/어도'의 형식으로 '어떠한 사실 중에서 최저 정도의 것'을 제시한 것인데, 만약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한다면 더욱 확대·강조된 서술 내용의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다)에서 보조사 '만'은 '~만 ~면'의 형식으로 쓰여 '술을 마시면 반드시/늘 말이 많아진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보조사 '만'은 '~만 ~면'의 형식으로 '단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늘'의 뜻을 나타낸다.

(16 라)에서 '만'은 '~만 아니면'의 형식으로 쓰여 '입시 공부 때문에 마음껏 놀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보조사 '만'은 '~만 아니면'의 형식으로 '그것이 이유/원인이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는 전체문장이 가정문(假定文)으로서 서술어가 표시하는 의미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16 마)에서 '만'은 '~만 하다'의 형식으로 쓰여 '강아지의 키나 크기가 송아지만큼 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만'은 체언의 뒤에 붙어, '하다'와 함께 쓰여 '~만 하다'의 형식으로 동급이나 같은 정도의 비교를 나타낸다. 한편 (16 바)에서 '만'은 '~만 못하다'의 형식으로 쓰여 '여자의 힘은 남자의 힘에 비하면 못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만'은 '~만 못하다'의 형식으로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할 때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만'을 포함한 관용표현으로 쓰일 때 중국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본다.

(17) 가. 경희는 그의 말에 웃기만 한다. 京姬对他的話只是笑。

나.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것이다. 只要一抬头就能看見的地方。

다. 점심만 먹으면 졸린다. 只要一吃午饭就打盹。

라. 중간고사만 아니면 나도 벚꽃축제 구경하러 갈 수 있다.

要不是(因为)期中考试我也能去看樱花节。

마. 김 교수님의 실력만 한 교수는 더 이상 없다.

再没有跟金教授实力一样的教授了。

바.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青军不如白军。

(17 가)는 경희는 그의 말에 대해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웃는 것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번역된 중국어 예문을 보면 이때 '~기만 하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只是'이다. '只是'는 '단지 어떠한 일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중국어 부사 '只是'가 한국어 관용적 표현 '~기만 하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어떠한 상태나 행위가 지속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서로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17 나)는 '다른 것의 필요가 없이 다만 고개를 들면 보인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번역된 중국어 예문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只要一 ~就'이다. '只要'와 '一'과 '就'가 결합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이 다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중국어 표현 '只要一 ~就'가 한국어 표현 '~만 ~아/어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떤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응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17 다)는 '점심을 먹으면 늘 졸린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제시된 중국어 문장을 보면 '~만 ~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只要一 ~就'이다. 여기서 '只要一 ~就'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앞에서 '~만 ~아/어도'와 대응하는 '只要一 ~就'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와 조금의 차이가 난다.

(17 라)는 중간고사 때문에 나는 벚꽃축제를 구경하러 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어 예문을 보면 '~만 아니면'에 해당하는 대응표현은 '要不是(因为)'이다. '要不是(因为)'는 '~아니라면/아니었다면'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중에서 '因为'는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표현 '要不是(因为)'가 한국어 표현 '~만 아니면'과 마찬가지로 모두 '그것이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17 마)는 김 교수님의 실력에 상당하는 교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만 하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면 '跟~ 一样'로 나타난다. '跟~ 一样'는 같은 등급의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어 표현 '跟~ 一样'가 한국어 표현 '~만 하다'와 마찬가지로 모두 동급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서로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한편 (17 바)는 청군이 백군보다 못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만 못하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면 '不如'로 나타난다. '不如'는 주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사물 등이 뒤에서 언급한 것보다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 표현 '~만 못하다'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서로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이상에서 한국어 보조사 ‘만’의 의미 기능과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와 기능		중국어 대응표현
단일 한정		只, 只有, 只是, 光
강조	정도 첨의	없음
	최소 제한	只, 只有, 就
관용적 표현	~기만 하다	只是
	~만 ~아/어도	只要一 ~就
	~만 ~면	只要一 ~就
	~만 아니면	要不是(因为)
	~만 하다	跟~ 一样
	~만 못하다	不如

<표 1> 한국어 보조사 ‘만’의 용법과 중국어 대응표현

4. 한국어 보조사 ‘만’의 교육 방안

앞에서 한국어 보조사 ‘만’과 중국어의 대응표현을 살펴보았다. ‘만’이 문맥에 따라 ‘단일 한정’, ‘정도 첨의’, ‘최소 제한’, 관용적 표현 등 용법을 수행할 수 있는데 과거의 교육에서는 ‘단일 한정’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고 그 이외의 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만’의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 기본적 의미뿐만 아니라 확장 의미와 관용적 표현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할 때 한 형태의 여러 용법을 한 단계에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만’의 용법을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때 학습 단계별로 차례대로 배열되어야 한다.

1) 초급 전반기

초급 전반기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식이 상대적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조사 ‘만’을 교육할 때 가장 쉬운 형태·통사적인 정보부터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어 보조사 ‘만’은 선행어의 음운 환경과 관계없이 모두 ‘만’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부사, 연결어미 등 여러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분포 양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형태·통사적 특징은 초기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보조사 ‘만’의 대표 의미 ‘단일 한정’도 초급 전반기에서 교육해야 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만’을 처음으로 접할 때 가장 기본 의미부터 배우는 것이 적당하다. 구체적 방법은 명사, 조사 등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양상을 상황별로 설명하고 예문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만’의 이러한 ‘단일 한정’ 의미 기능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只’, ‘只是’, ‘只有’, ‘光’ 등임을 알려주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 문장도 예를 들고 연습시키면 더욱 효율적이다.

2) 초급 중·후반기

한국어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 초급 중·후반기에서는 보조사 ‘만’의 강조 의미를 ‘정도 첨의’와 ‘최소 제한’ 두 가지로 설명한다. ‘정도 첨의’의 ‘만’은 주로 부사나 일부 연결어미 뒤에 쓰인다. 이를 연결어미를 막 배우기 시작한 초급 전반에 교육한다면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 보조사 ‘만’의 ‘정도 첨의’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으므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만’의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의 이런 의미 기능으로 쓰인 한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대응할 때 보조사 ‘만’의 이러한 의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만’의 ‘최소 제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중에서 ‘就’는 수량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러한 차이점은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런 차이점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

3) 중급 과정

보조사 ‘만’의 관용적 표현은 마지막으로 중급 과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다. 관용적 표현은 문장 전체 의미, 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정한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만’의 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두어야 한다. 관용적 표현으로 쓰일 때 문맥을 빼고 ‘만’의 의미만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문장 속에 대부분 의미 추론의 단서들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먼저 문맥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한 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을 통한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관용적 표현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구조의 차이점은 한국어 보조사 ‘만’을 교육할 때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학습 단계에 맞게 보조사 ‘만’과 중국어 대응표현과의 비교 분석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교육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내용 생략)

참고문헌

김혜진,〈현대중국어 '只'류 범위부사의 어법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 增订本, 商务印书馆, 1999.

박기덕,〈한국어 보조사 사용의 전제〉,《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2003.

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虚词例释》, 商务印书馆, 1996.

유경화,〈'단일 한정' 보조사 '만'과 '뿐'에 대한 비교 분석〉,《한중인문학연구》37, 2012.

유선영,〈현대한어 범위부사의 분류와 의미지향 연구〉,《중국어문학연구회》32, 2005.

이근효,〈現代 漢語의 부사 硏究〉,《論文集》18-1, 1997.

정정덕,〈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 방법〉,《문법 교육》12, 2010.

정혜,〈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사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명 뉴밀레니엄 한중사전》, 진명출판사, 2000.

朱德熙,《语法讲义》, 商务印书馆, 2007.

채완,〈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최현배,《우리말본》, 샘문화사, 1961.

허웅,《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3.

홍사만,《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출판사, 2002.

유경화(刘庆花)

소속: 산동청년정치대학교(山东青年政治学院)

주소: 山东省济南市历城区经十东路 31699 号山东青年政治学院外国语学院

우편번호: 250103

전화번호: 0531-5899-7373

전자우편: liuqinghua02han@163.com

朝鲜语单元音 o 偏移现象研究

方香玉

（齐齐哈尔大学外国语学院）

摘要：在朝鲜语言研究中，罕有对朝鲜语主要元音的科学描写。本文旨在采用实验语音学方法，通过对元音o的共振峰进行抽样检测，旨在显示实验语音学描述有助于更好揭示这些元音的基本特征，并对所检测的母语和非母语者的发音情况进行描写。

关键词：朝鲜语；单元音o；共振峰；实验语音学；发音偏移

与传统语言描写相比，实验语音学是一门探索语音特征的更加科学的手段。语音是人类用来交际的声音符号，它在语言中起着最为重要的作用。因此，探究人类语言的声音符号基础 – 语音因素 – 是揭示人类语言区别性特征的重要部分。然而，迄今为止，人们对某些元音的舌位感觉却没有得到具有科学性的描述。本研究试图通过实验语音学软件Praat对朝鲜语单元音o的前两个共振峰F_1和F_2进行检测，以期得到它们的实验语音学频率参数、标准差和声学特点。为达到研究目的，本文对朝鲜语元音o与a、u[2]进行比较，旨在了解朝鲜语o声学特点，以对非母语者极易出现的发音偏移给出理论和实践两个方面的解释。

一、朝鲜语单元音o特点

同世界任何语言一样，朝鲜语单元音i、a、u为基础元音矩阵，因此，任何一个非母语者的朝鲜语学习者都能够较为准确地发出这些元音，并不易造成发音和尤其产生的意义混淆。相对而言，由于朝鲜语元音o介于元音a和u之间，发音时舌位与唇形都难以得到在母语中没有该音的学习者模仿，并因此产生该音与元音u的混淆。为了较好地比照朝鲜语o与其他两个后元音之间的舌位及唇形关系，本文对它们一并进行参考，以做出较好的描述。

朝鲜语研究者往往对朝鲜语三个单元音a、u、o进行这样的描述：由于它们的舌位高低、前后位置及嘴唇形状不同，所以呈现出不同特点。即，元音a：舌位低，位于中央，不圆唇；元音u：舌位高，靠后，圆唇；元音o：舌位中，靠后，圆唇。

相比之下，比较科学的表达依这些音素的分布情况，舌位高低及前后方式，通过音素与发

[2]朝鲜语单元音i、u、a的实验语音学分析，我们已在《齐齐哈尔大学学报》期刊上详细探讨。本文为准确描写元音o的声学特点，该数据再次使用以便于与元音o进行比较。

音器官关系而呈现出的情况进行描述，如下表：

表 1 元音a、u、o语音特点

元音	[±（舌位）高]	[±（舌位）后]	[±（唇形）圆]
a	−	−	−
u	+	+	+
o	−	+	+

但是，这些描述仍然是直觉的，所以不能够显示出这些元音的声学共振峰特征，也因此不够科学。相比之下，如果采用实验语音学方法，及科学检测手段，则可以对不同年龄、性别及母语者和非母语者的发出这些元音的人群进行客观的显示。

二、资料与实验方法

1. 实验对象及数量：

本研究对标准母语方言者（韩国人、中国朝鲜族）和韩国语学习者（汉族）采用分组方式，每组16人，总计48人进行取样。同时，又对这些抽样族人群根据年龄段及性别进行分类，以20岁以上、30岁以上、40岁以上、50岁以上四个年龄段，每个年龄段男女各2人进行取样。

为了确立对比组的发音情况，本研究选用韩国语音词典的发音资料作为标准朝鲜语元音/o/标准参照样本，以期找到不同实验对象的语音偏移情况。

2. 实验内容：

所有取样者均被要求按照规定语音及词汇进行读音，即，单元音/o/读音，以及其他三个含有该三个元音的词汇读音。

为保证科学性与客观性，本研究选出各元音出现在词头、词中、词尾的不同词汇进行读音检测。同时，考虑到朝鲜语元音在词汇或句子中发生各种音变现象，本研究在选用词汇时仅筛选出没有发生音变的纯属元音词汇作为检测内容。

3. 实验工具及方法：

本研究采用的具体录音方式为：采用手机或录音笔录音方式将被试者发出的含有朝鲜语o音的不同词条进行录音，录音文件格式设置为MP3。然后将语音样本输入计算机，使用praat语音软件对朝鲜语4个元音逐一进行检测，最后得出共振峰F_1和F_2的参数，之后使用Excel计算出标准差和频率差。

三、实验结果

本文按照上述描述的实验方法，对韩国语音词典录制的标准朝鲜语、韩国人、朝鲜族、汉族四个组的48人样本元音o发音进行检测，最后得出共振峰F1和F2的平均值。

Praat的实验结果显示，朝鲜语元音o语音在四个组的频率数据如下表2。F_1频率分别是499.2，482.2，567.8，568.7Hz；F_2频率分别是859.1,987.2,1074.6，1055Hz；F_1标准差分别是45.3,101.9,94.3,95.1,Hz；F_2标准差分别是31.6,274.8,184.4,234.9Hz；F_1和F_2的频率差分别是353.7,504.9,506.8,486.3Hz。

表2 元音o语音频率表

语音资料	F_1(Hz)	标准差(Hz)	F_2(Hz)	标准差(Hz)	频率差(Hz)
标准朝鲜语	499.2	45.3	859.1	31.6	353.7
韩国人	482.2	101.9	987.2	274.8	504.9
朝鲜族	567.8	94.3	1074.6	184.4	506.8
汉族	568.7	95.1	1055.0	234.9	486.3
平均值	529.5	45.3	994.1	97.4	464.6

小结：

从以上的检测数据可知，对朝鲜语单元音o检测的F_1和F_2峰值和频率差均有相似。在F_1、F_2的标准差中，标准朝鲜语范围控制在31.63-45.3Hz；韩国人范围在101.9-274.8Hz；朝鲜族范围在94.3-184.4Hz。汉族范围在95.1-234.9。朝鲜族元音o的F2标准差达到了459.1Hz。频率差最大的是母语方言者(韩国人、朝鲜族)，最小的是标准朝鲜语样本，非母语方言者(汉族)在他们之间。

四、讨论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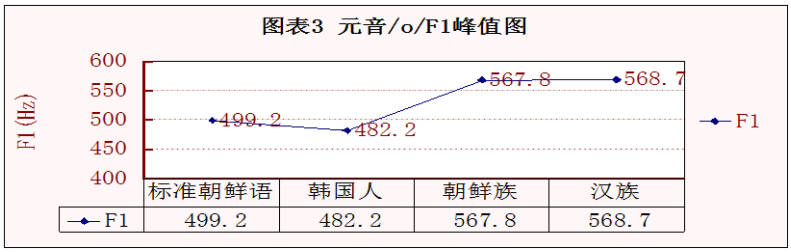
本文把使用语音软件得到的朝鲜语元音o的对应参数，按顺序逐一进行语音声学分析。从而能进一步说明数据显示的原因。

1. F_1峰值

根据实验语音学对F_1的研究发现，“元音音高高，舌位就低；元音音高低，舌位就高”[1]21,[3]，换句话说，F_1频率与舌位高低有直接关系，但，舌位高低与F_1频率高低之间不是呈正比而是呈反比。即，舌位越高，F_1频率就越低，反之则相反。按照彼得（2001）的观点可以确定朝鲜

语单元音o的舌位高低位置。朝鲜语元音o音中舌位高低排列顺序为，韩国人、标准朝鲜语、朝鲜族、韩国人。韩国人发音接近标准朝鲜语，说明舌位适中。朝鲜族和汉族发该音舌位偏低。如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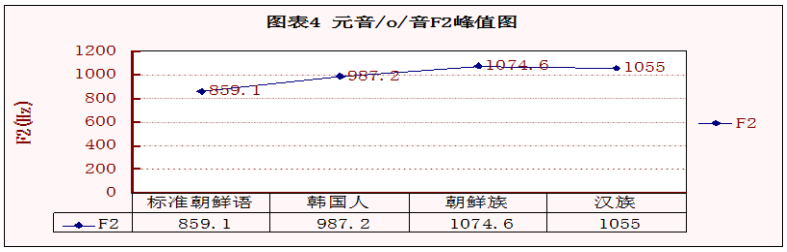
表 3



2. F_2峰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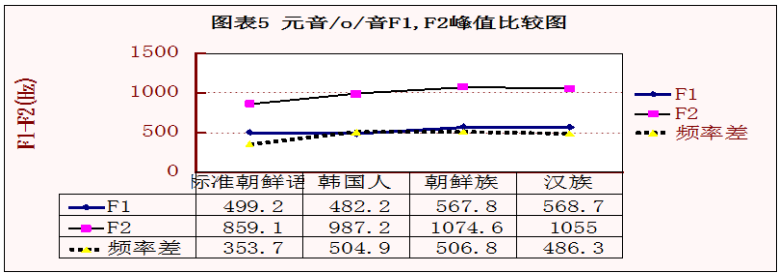
根据前人研究，我们可以归纳为F_2的峰值能够反映出舌位前后的特征：峰值频率越大，舌位越向前，反之则相反，即“F_2基本上与舌位前后成反比。”[2]92,[3]，按此规律，可以准确地解释朝鲜语元音o的前后位置。根据得出的F_2参数可以正确排列前后顺序。韩国人发音接近标准朝鲜语，说明接近标准舌位。朝鲜族和汉族发音舌位向前，教师在教学中应注意这一问题，尽量减少语音偏移现象。如下表：

表 4



3. F_1、F_2峰值比较

研究发现，频率差“舌位前后与第一、第二共振峰频率之差最为相关。频率之差越小，元音越往后”[1]186，按此规律实验检测获得的数据说明了朝鲜语单元音o音的前后舌位特点。与标准朝鲜语相比，其他三组舌位都有些靠前。如图表5：



4. 标准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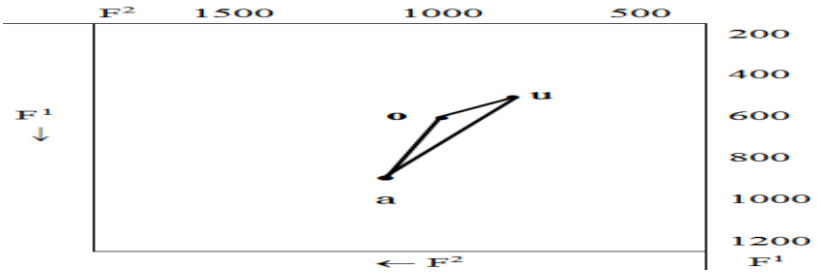
标准差能反映一个数据集的离散程度。平均数相同的，标准差未必相同（http://baike.baidu.com）。根据此说法，我们认为标准差越小，读的音越稳定，反之则相反。数据显示，单元音o发音中，韩国人F_1和F_2的标准差为101.9/274.8Hz；朝鲜族为94.3/184.4Hz；汉族为95.1/234.9Hz。该数据与标准朝鲜语语音样本的前两个共振峰标准差45.3/31.6Hz相比，相距甚远。通过标准差计算我们可以推断，元音o发音高低和前后舌位，多数人不到位，因此与元音u产生严重混淆。

5. 元音 o 的声学位置

我们根据前面给出的元音o音第一共振峰和第二共振峰频率平均值529.5/994.1Hz，绘制出了下面的朝鲜语单元音声学元音（表6）。为清楚地看到朝鲜语元音o的声学分布，与元音a和u音进行比较。a和u音的F_1与F_2峰值分别为，895.0/1391.3，442.4/887.1Hz[3]。

根据朝鲜语元音声学图可以了解到圆唇、后元音o和u音的准确位置。元音o音比u舌位向前，舌位的高低位置在元音u和a音之间。朝鲜语的o和u发音时人们经常混淆的元音。

表6 朝鲜语单元音声学分布图



6. 词汇中含有元音 o、u、a 音的语义区分

在口语中，准确发出元音不仅直接影响语音的检测数据，而且语义区分方面差距很大。朝鲜语词汇中存在词头元音分别是o、u、a音的词汇，而词尾都是同一个音节。相反，也存在词头音分别是同一个音节，词尾部分分别是纯元音o、u、a音的词汇。这些词汇，我们每一类举了3组例子，每一组选有三个不同元音和同一个音节组合的双音节词汇[4]。目的是为朝鲜语学习者提供元音o、u、a发音时，作为参考语音练习资料，从而避免元音迁移的负面现象。教师在教学中，按照语音特点让学生反复读这几组音，能有效提高该三个元音发音的准确率。以上内容如下表6、7：

[3] 这个共振峰频率参数来自于已录用的《知与行》期刊论文“朝鲜语元音i，a，u的实验语音学分析”，由于还没有出刊不便于在参考文献中列入。

[4] 朝鲜语中，这类词汇除了双音节以外很难找到，所以本文只举了双音节词汇。

表6 元音o、u、a音位于词头的词汇

序号	韩语词汇	中文意义	国际音标(IPA)转写
1组	오리	鸭子	o-ri
	우리	我们、动物圈子	u-ri
	아리	自我利益	a-ri
2组	오이	黄瓜	o-i
	아이	孩子	a-i
	우이	牛耳	u-i
3组	오기	傲气	o-gi
	아기	孩子	a-gi
	우기	雨期	u-gi

表7 元音o、a、u音位于词尾的词汇

序号	韩语词汇	中文义	国际音标(IPA)
1组	보오	看	po-o
	보아	报衙	po-a
	보우	保佑	po-u
2组	자오	慈雨、甘露	tsa-o
	자아	自我	tsa-a
	자우	慈乌	tsa-u
3组	대오	队伍	tɛ-o
	대아	大牙、大我	tɛ-a
	대우	待遇	tɛ-u

四、结语

口语中正确发出每一个元音尤其重要，因为元音反映出口语中每个音的语音特征，直接影响人与人之间交流。很多教师及韩国语学习者能够了解每个元音大概的舌位，却不知其准确的

位置，这不利于韩国语标准方言的教学和学习。因此，本文从实验语音学角度给出了o音的实际音值，阐释了其容易与其他音混淆并影响意义区分的理据。

参考文献

[1]彼得 赖福吉. 张维佳译，语音学教程[M]. 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1.
[2]吴宗济，林茂灿. 实验语音学概要[M]. 北京：高等教育出版社，1989.
[3]尹铁超，张力. 满语元音a音值研究[J]. 满语研究，2016（2）.

한국어와 중국어 모어 화자가 발음하는 한중 파열음 발음 차이 연구

서춘란

(연변대학교)

1.서론

파열음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음소로서 각 언어마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동반한다. 한국어 파열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ㅂ,ㅃ,ㅍ/,치조음/ㄷ,ㄸ,ㅌ/,연구개음/ㄱ,ㄲ,ㅋ/으로 나뉘고, 기식의 유무와 긴장에 따라 평음/ㅂ,ㄷ,ㄱ/,경음/ㅃ,ㄸ,ㄲ/.격음/ㅍ,ㅌ,ㅋ/의 3계열로 분류된다. 반면에 중국어 파열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b,p/,설첨음/d,t/,설근음/g,k/으로 나뉘고 기의 유무에 따라 무기음/b,d,g/과 유기음/p,t,k/의 2계열로 분류된다.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의 이런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평음/ㅂ,ㄷ,ㄱ/와 경음/ㅃ,ㄸ,ㄲ/의 차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중국어 파열음을 쉽게 구별하여 습득할수 있다. 그러나 무기음/b,d,g/가 한국어 평음 /ㅂ,ㄷ,ㄱ/에 가까운지경음/ㅃ,ㄸ,ㄲ/에 가까운지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평음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중국어에 평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음절의 융화정도가 파열음 발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2명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2명을 실험대상으로 VOP와 CD의 수치를 측정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열음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더 나아가서 한,중 두 언어의 파열음을 유형론적 시야로 대조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서의 파열음 연구

한국에서 파열음 연구는 한국어 파열음 본체론적인 연구, 다른 언어 파열음과의 대조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파열음 연구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삼원대립을 이루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이 실험음성학을 기반으로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본 고에서는 중국어와의 대조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파열음 연구를 살펴보겠다.

중국어와의 대조연구에는 최금단(2000), 맹주억, 권영실(2007)가 있다. 최금단(200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의 음소 및 그 변이음들에 대한 음운론적 및 음성학적인 대비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음운 변화 규칙을 연구 하였다. 최금단(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기파열음의 대비에서 중국어 무기파열음 /b,d,g/ 는 한국어의 무기연음파열음/ㅂ,ㄷ,ㄱ/와 유성음화나 자음약화등 특정 언어 환경에서만 극히 부분적으로 유사한 변이음을 가지고 있고 기식의 길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무기파열음의 대비에서 중국어의 무기파열음 /b,d,g/는 한국어의 무기경음파열음 /ㅃ,ㄸ,ㄲ/와 파열음의 대비에서 가장 접근된 음가로 실현되며 기식의 길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기에 근접된 음가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파열음의 대비에서 중국어의 유기파열음 /p,t,k/는 한국어의 유기파열음/ㅍ,ㅌ,ㅋ/와 일정한 기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사한 변이음으로 실현되어 중국어의/p,t,k/를 더 기식성 있게 발음한다면 한국어의/ㅍ,ㅌ,ㅋ/와 유사한 발음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맹주억. 권영실(2007)에서 한국어 평음/ㄱ,ㅂ/,경음/ㄲ,ㅃ/과 중국어 성모/g,b/의 음향학적으로 대조 연구 했다. 논문에서는 VOT뿐만 아니라 음높이,음세기,음길이의 상관 관계를 논의한 결과 한국어 경음은 阴平과 去声,평음은 阳平과上声의 음높이에 대응되는 관계를 갖는다고 했다.음길이와 음세기에 있어서 한국어의 경음은 중국어의 去声과 한국어의 평음은 중국어의 上声과 유사한 음향특징을 가진다고 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파열음 연구에는 김소야(2006) ,장우혁·김길동(2009), 박성현(2011), 김선정·정표정(2012), 주림결·김영주(2014),장우혁·정윤자·김길동(2014), 윤은경(2015),이선하·오미라(2016)등이 있다. 장우혁·정윤자·김길동(2014)에서는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Pitch인 것을 감안하여 Pitch를 통한 발음교육을 중국인과 몽골인 학습자에게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확실히 교육 후에 발음이 향상되었다고 했다.즉 Pitch를 활용한 발음교육은격음을 확실히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평음과 경음의 구분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파열음 연구를 살펴보면 본체론적 연구는 실험음성학적으로 파열음의 VOT 값을 측정하고 VOT가 부동한 환경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파열음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했다.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으로 한국어 3원 대립 파열음이 중국어 2원 대립 파열음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봤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파열음 연구는 주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동한 수치를 측정했고 교육방법을 모색해 내는데 중심을 두었다.

2.2중국에서의 연구

중국에서 파열음 연구는 한국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어 파열음의 특수성 때문에 파열음 연구에서 한국어를 예로 삼는 논문들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한국어 파열음을 다룬 논문은 몇 개에 불과하다. 아래 중국 국내에서 연구된 중국어 파열음에 대한 연구와 한국어 파열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冉启斌, 石峰 (2008) 에서 파열음의 VOT와 GAP를 좌표축을 만들어 부동한 파열음이 좌표축위에서의 위치를 관찰하였다. 논문에서는 파열음 음성학적구조(声学格局)를 수학에서의 좌표축으로 만들고 GAP값을 세로 좌표,VOT값을 가로 좌표로 만들고 상응하는 음을 좌표축에 표시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북경 말과 몇 개 방언의 파열음의 음성학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파열음을 좌표축을 만들어 분석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뒤로 중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어음의 음성학적 구조를 연구한 논문들이 육속 나

오고 있다. 于辉 (2008) 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한국어 파열음 VOT값을 측정했다. 파열음이 2음절 앞 위치에 처해 있을 때 한국어 파열음은 모두 무성음이고 평음은 기식이 있고 격음은 대량의 기식을 동반하고 경음은 기본상 기식이 없다. 세 계렬의 파열음의 VOT값을 측정한 결과 경음이 제일 짧고 그 다음이 평음이고 격음이 제일 길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음과 경음사이는 VOT의 평균치 차이가 작고 분포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논문에서는 뒤에 오는 모음의 주파수(基频))를 측정했는데 경음과 격음 뒤에 오는 모음의 주파수가 평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VOT와 모음 주파수 차이로 한국어 삼원 대립 파열음을 성공적으로 구분했다. 2음절 뒤 음절에 위치한 파열음을 실험 분석한 결과 경음은 2음절 앞에 위치할 때 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평음과 격음은 유성화 되고 VOT의 값도 대폭도로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뒤에 오는 주파수는 2음절 앞에 올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肖启迪 (2010) 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열음 음성학적 특징을 좌표축을 만들어 그 분포를 대조하였는데 같은 유형의 파열음은 그 분포도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어 평음과 경음을 중국어의 무기음과 대조했을 때 발음할 때 근육의 긴장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파열음의 분포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갖는다. 중국에서 파열음 연구는 한국만큼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파열음 연구와 비슷하다. 즉 어떤 환경에서 파열음의 VOT값이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류이다. 한국어 파열음과의 대조 연구는 몇몇 논문에 불과하고 중국어 교육에서 파열음 연구도 한국어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파열음이 3원 대립을 이루는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 파열음은 쉽게 습득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실험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실험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한국어 파열음과 중국어 파열음의 오류의 양상를 살펴보고 오류의 근본 원인을 찾고 유형론적 시야로 중,한 파열음을 대조분석해보겠다.

3.음성 발화 실험

파열음 분석에서 음성구동시간 (VOT:Voice Onset Time)와 음성 폐쇄구간 (CD:Closure Duration)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VOT는 파열음이 개방한 후에 후행 모음을 위해 성대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고 CD는 파열음의 개방 전에 구강의 폐쇄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어중에서만 그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의 VOT와 CD를 측정함에 있어서 2음절 이상의 단어를 실험 자료로 선정했다.

3.1 피실험자 및 실험 자료

피실험자는 중국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유학생 2명과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 대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배운지 2년되는초급 수준의 학생이고 한국인 학생은 중국어를 배운지 1년되는 초급 수준의 학생이다.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 국내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

를 1년 배웠다 하지만 중국에서 2년 한국어를 배운 학생과 비슷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CD는 어중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는 선행절에 받침이 없는 2음절 이상의 단어들을 선정하고 중국어는 운미에 비음이 없는 2음절 단어들로 선정했다. 선행절의 종성 혹은 운미가 후행하는 파열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음절 초성에 파열음을 포함한 단어를 파열음마다 10개씩 선정하여 한국어는 90개, 중국어는 60개 단어를 선정했다.

3.2 실험 방법

실험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방음 시설을 갖춘 연변대학교 한어학원음성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목록 카드를 사전에 한번 씩 보게 하고 한 명씩 목록 카드를 보면서 읽게 하고 녹음하였다. 녹음 된 음성파일을 Praat를 이용해 각 단어마다 두 번째 음절 초성의 파열음 VOT와 CD를 측정했다. VOT길이는 파열 시작 부분부터 성대진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간을 측정하였다. CD는 선행모음이 끝나는 지점에서 파열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구간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3.3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 실험을 실시하여 모어와 목표언어의 파열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모어 파열음이 목표어에 주는 간섭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동시에 음향음성학적 실험을 진행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3.1 한국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 음향적 특성

파열음 분석에서 폐쇄지속시간 CD와 성대진동시간 VOT가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CD와 VOT를 좌표축을 만들어 한국어 화자가 발음하는 파열음의 좌표축에서의 위치를 고찰하였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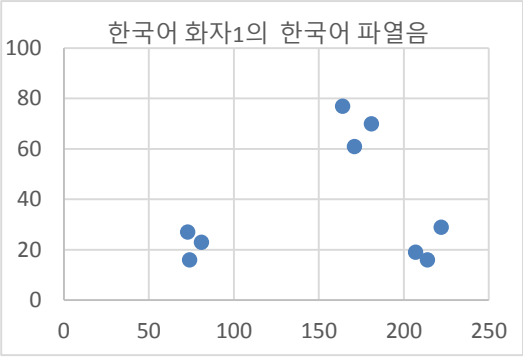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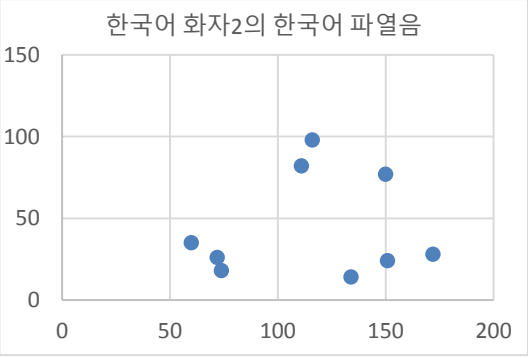


그림 2



<그림1>과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파열음에서 평음,경음,격음은 선명하게 집

합관계를 이룬다. 격음은 VOT로 평음, 경음과 차이를 보이고 평음은 CD로 경음과 차이를 둔다. 즉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VOT와 CD로 3원대립의 파열음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는 Lisker&Abramson(1964)와 Han(1996)의 실험결과와 일치하다. 즉 발음 방법은 VOT와 CD의 수치를 비슷하게 한다. 발음 방법이 같고 조음 위치가 다름에 따라 VOT값이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실험수치를 보면 연구개음인 ㄱ,ㄲ,ㅋ가 발음 방법이 같은 치조음이나 양순음에 비하면 VOT값이 크다. 梁磊 (2001) 에서는 중국어 설근음을 음성학적 방법으로 VOT 수치를 측정한 결과 다른 부위 파열음보다 폐쇄지속시간이 짧고 VOT 시간이 길다고 밝혔다. 陈嘉猷·鲍怀翘·郑玉玲 (1997) 에서도 중국어 파열음의 VOT를 측정한 결과 g>b>d, k>p>t의 순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면 중국어에서나 한국어에서나 모두 조음위치가 제일 뒤인 연구개음의 VOT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다.

3.3.2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 음향적 특성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이한 파열음 체계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파열음 습득에서 평음과 경음 또는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여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김선성, 정효정(2012) 의 청취력 실험결과를 보면 평음을 경음으로 듣는 오류가 가장 많고 격음을 평음으로 듣는 오류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국인은 평음을 하나의 중국어 음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격음 혹은 경음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아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을 좌표축을 만들어 살펴보겠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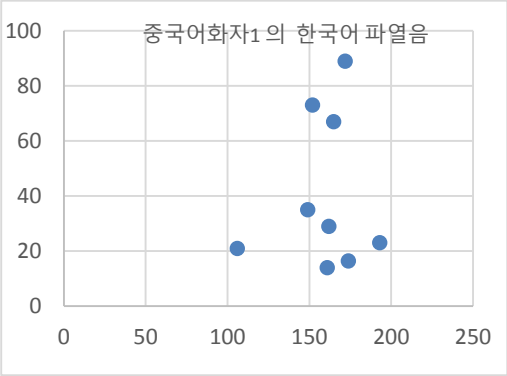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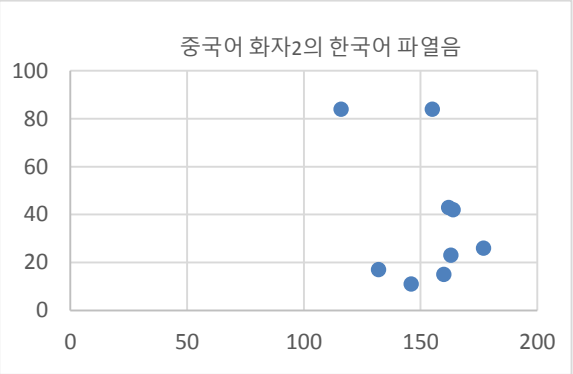


그림4



<그림3>과 <그림4>로부터 보면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은 모국어 화자가 발음한데 비하면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 선명하지 않다. 격음은 VOT의 길이가 긴 것으로 평음, 경음과 선명한 대립을 이루는 데 비해 평음과 경음은 비슷한 위치에 나타난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평음과 경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본 고의 실험은 2음절의 파열음을 연구대상으로 했기에 어두 파열음은 다루지 않았다. 즉 이음절의 파열음 발음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평음을 경음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어 파열음이 2원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3원대립을 이루는 한국어 파열음 발음에서 경음과 평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융화정도가 경음과 평음 발음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중국어는 음절 융화정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어 화자는 음절 문자인 한글을 읽음에 있어서 중국어처럼 끊여 읽으

려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경음이던 평음이던 CD의 수치는 비슷하게 나온다. 중국인 화자 1의 수치를 보면 경음의 CD수치가 평음의 CD수치보다 좀 길긴 하지만 한국인 화자처럼 그 차이가 확연하지 않다. 이는 중국인 화자가 평음을 발음할 때 모국어의 발음 습관대로 끊여 읽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고 본다.

3.3.3 모국어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 음향적 특성

중국어 파열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설첨음, 설근음으로 나뉘고 기의 유무에 따라 무기음과 유기음의 2계열로 분류된다. 앞서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중국어 무기음과 유기음은 VOT에 따라 구분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VOT와 CD를 동시에 살펴보도록하겠다.

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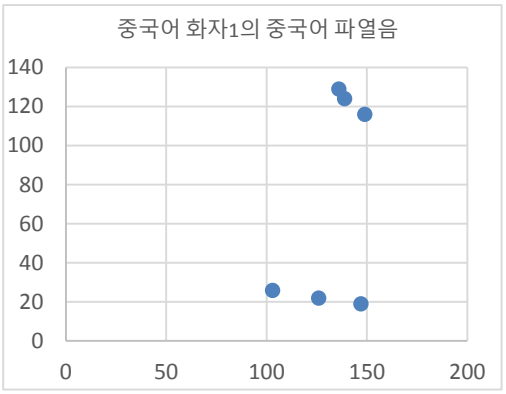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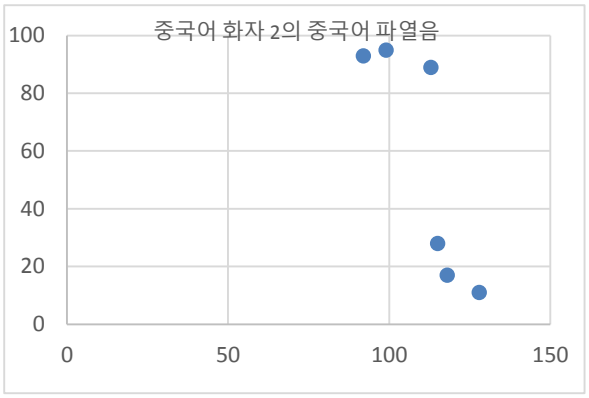


그림6



<그림5>와 <그림6>을 통해서 알 수 있는바 중국어 파열음 6개도 선명한 대립을 이룬다. 무기음 b,d,g는 좌표축 밑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고 유기음 p,t,k는 좌표축 윗부분에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어 파열음 송기음과 불송기음은 이원대립을 형성한다. 즉 중국인 화자는 파열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VOT의 수치로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하고 CD의 수치는 비슷하게 나온다.조음위치에 따라 비교해보면 중국어 화자1의 VOT의 수치는 k>t>p, g>d>b 순서이고 CD의 수치는 p>t>k, b>d>g 순서이다. 중국어 화자2의 VOT순서는 k>t>p, g>b>d 순서이고 CD의 수치는 p>k>t, d>b>g 순서이다. 본 고의 실험결과 陈嘉猷·鲍怀翘·郑玉玲 (1997) 의 결론과 다르게 나왔다. 그러나 설근음의 VOT 수치가 제일 크다는 점은 일치하다. 중국어 화자1의 수치는 조음위치에 따라 VOT와 CD의 수치가 규칙있게 변한다. 조음위치가 뒤로 갈수록 VOT의 수치는 커지고 CD의 수치는 작아진다. 즉 VOT는 설근음>설첨음>양순음의 순서이고 CD는 양순음>설첨음>설근음의 순서이다. 그러나 그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또 화자2의 수치도 다르게 나왔기에 이는 더 많은 많은 실험자와 데이터가 필요하다.

3.3.4 한국어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 음향적 특성

중국어 발음 교육에서 한국인 학습자는 중국어 파열음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다. 중국어 파열음 무기음을 한국어 평음에 더 가깝게 발음하는지 경음에 더 가깝게 발음하는지는 화자마다 다르다. 본 절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발음한 한국어와 중국어

의 파열음을 한 도표에 넣고 고찰해 보겠다.

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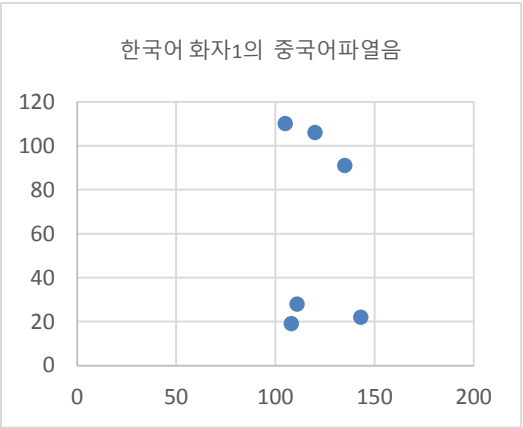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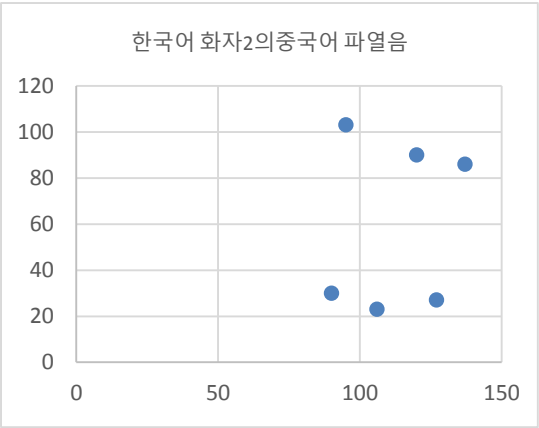


그림 8



<그림7>과 <그림8>을 보면 한국어 화자는 중국어 파열음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중국인 화자와 대조해보면 한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유기음은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유기음보다 VOT와 CD가 모두 작다. 즉 p,t,k의 발음에서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기식성이 약하고 근육의 긴장정도도 약하다. 무기음 발음에서 한국인은 중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나온다. 한국인 화자의 중국어와 한국어 파열음을 한 좌표축에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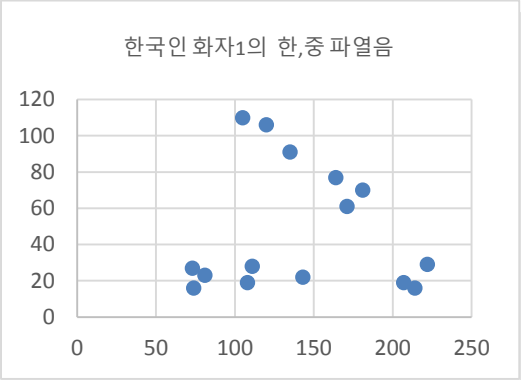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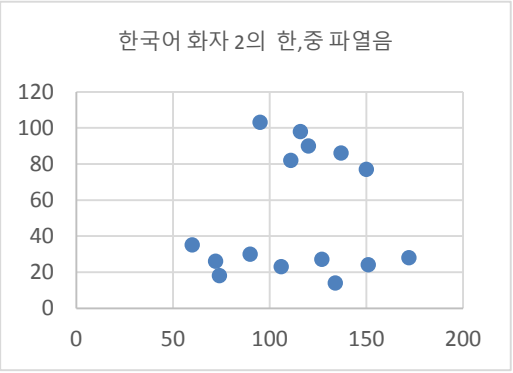


그림10



<그림9>에서 보면 한국어 화자1은 한국어 파열음 평음, 경음, 격음과 중국어 파열음 무기음,유기음은 분명하게 집합관계를 이룬다. 한중국어 유기음을 발음 할 때 한국어 격음보다 VOT는 길게 ,CD는 짧게 발음한다. 즉 중국어 유기음을 발음할 때 한국어 격음을 발음 할 때보다 더 기식성 있게 발음하고 근육의 긴장정도는 한국어 격음을 발음할 때보다 약하다. 중국어 무기음의 수치를 보면 VOT는 한국어 평음, 경음의 수치와 비슷하고 CD의 수치는 평음과 경음의 사이에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평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했다. <그림10>에서 보면 한국인 화자 2는 한국인 화자 1처럼 중국어 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의 수치가 집합관계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인 수치는 일치하게 나왔다. 즉 유기음은 격음을 발음할 때보다 기식성이 강하게 무기음은 평음과 경음의 중간 정도

의 근육긴장 정도로 발음했다.

4. 논의

본 고에서는 파열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변수인 VOT와 CD의 길이를 좌표축을 만들어 고찰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은 발음 방법에 따라 집합체를 이룬다. 즉 한국어에서 평음 ,경음 ,격음이 각각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고 중국어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이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났다. 이는 冉启斌,石鋒 (2008년) 과 肖启迪(2010년)에서 이미 검증한 바 있다.

둘째: 한국인은 VOT와 CD의 길이로 평음 ,경음, 격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비해 중국인은 평음과 경음 발음에서 그 수치가 온정하지 못하다. 즉 평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이 원인을 중국어 음절 융화정도로 보고 있다. 융화 정도라 함은 청감 적으로 하나로 들리는 정도를 가르킨다. 청감적으로 하나로 감지되는 음절은 융화정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음절은 융화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음절은 대외로는 봉폐성과 이산성, 대내로 응집성 특성이 있다(徐通锵, 2003 ; 1). 여기서 대외로 봉폐성, 이산성 정도를 볼 때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음, 동화, 이화등 여러 가지 어음 법칙을 다 준수하고 형태변화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봉폐성, 응집성 특성이 중국어권 학생들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의 봉폐성 특징은 중국어권 화자들이 발음함에 있어서 음절과 음절사이의 연결을 차단해 놓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파열음을 발음할 때 평음이나 경음을 막론하고 CD의 길이가 보편적으로 한국어 화자에 비해 길다. CD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근육의 긴장정도가 강하다는 뜻이고 경음으로 발음 된다는 뜻이다.

셋째: 중국어 파열음 발음에서 한국인 화자는 쉽게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별할 수 있다. 무기음은 평음과 경음의 중간 위치에 있고 유기음은 격음 좌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 무기음을 발음할 때 한국어 평음보다는 CD가 길게 경음보다는 짧게 발음 한다는 의미다. 중국인이 발음한 무기음과 비하면 CD가 다소 짧은 편이다.본 고에서는 이음절의 파열음을 고찰했는데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과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의 VOT와 CD의 수치를 고찰해 보면 VOT의 수치는 비슷하고 CD의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 CD의 수치는 한국어 경음 > 중국어 무기음> 한국어 평음의 순서이다. 이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융화정도와 관계 있다고 본다. 유기음 발음에서 한국인은 한국어 경음보다 VOT가 다소 길게 발음한다. 그러나 중국인 화자의 발음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이로부터 중국어 유기음은 기식성이 한국어 격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 성조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음절에 성조가 얹혀 있기 때문에 워낙 음절 융화정도가 강하고 복모음이 많은 한자에서 성조까지 발음하려니 기식성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넷째: 조음 위치에 따른 VOT와 CD의 수치를 고찰해 보면 발음 방법에 따른 VOT와

CD의 수치처럼 통계학적 의미는 없지만 일정한 규칙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의 VOT의 수치는 k>t>p, g>d>b의 순서이고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VOT수치는 ㅋ>ㅍ>ㅌ,ㄱ>ㅂ>ㄷ,ㄲ>ㅃ>ㄸ의 순서이다. 즉 중국어는 연구개음>치조음>양순음의 순서이고 한국어는 연구개음>양순음>치조음의 순서이다. 중국어 실험 수치는 陈嘉猷, 鲍怀翘, 郑玉玲에서 실험한 결과 g>b>d, k>p>t와 다르게 나왔다. 그러나 연구개음의 기식성이 제일 크다는 결론은 같다. 본 논문의 실험 수치를 보면 중국어는 조음위치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기식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우혁,김길동에서는 한국어 화자의 조음위치에 따른 파열음의 VOT수치는 양순음이 치조음이나 연구개음에 비해 길다고 했다. 본 고에서의 실험결과는 연구개음이 제일 길고 다음으로 양순음이고 치조음이 제일 작다. 실험 결과를 보면 중국어나 한국어를 막론하고 연구개음의 VOT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파열음이 조음위치가 뒤로 갈수록 VOT의 수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음위치가 뒤에 있을수록 파열된 후 성대 진동까지의 거리가 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의 CD를 고찰해 보면 화자1은 b>d>g,p>t>k의 순서이고 화자2는 d>b>g,p>k>t의 순서이다.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CD를 고찰해 보면 평음과 경음은 ㄲ>ㅃ>ㄸ,ㄷ>ㅂ>ㄱ의 순서이고 격음 발음에서 화자1은 ㅍ>ㅌ>ㅋ,화자2는 ㅍ>ㅋ>ㅌ의 순서이다. CD수치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는다면 중국어 무기음과 한국어 평음은 연구개음이 제일 짧다. 반대로 한국어 경음의 수치를 보면 연구개음이 제일 길다. 이는 한국어 연구개 평음과 중국어 연구개 무기음은 선행절의 영향을 받아 약화현상을 보인다는 증거이다. 즉 한국어 ㄱ와 중국어 g는 조음위치가 뒤에 있으므로 발음 할 때 모음과 섞이면서 근육의 긴장정도가 약화 된다. 반대로 한국어 연구개음 경음 ㄲ는 ㄱ와 대립을 이루면서 긴장정도가 제일 강하다. 이는 조음 위치가 같은 ㄱ 가 약화 현상을 보이므로 이와 차이를 갖기 위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한국어 격음과 중국어 유기음의 CD를 고찰해 보면 양순음의 CD가 제일 길다. 조음 위치에 따른 수치는 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로 신뢰도를 더 한층 높여야 한다.

5. 결론

본 고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발음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열음을 실험대상으로 VOT와 CD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고에서는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과 중국어 파열음 ,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을 실험음성학적 방법으로 고찰해 보았다. 실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 그 발음 방법에 따라 집합관계를 이룬다. 즉 발음 방법이 같은 파열음은 VOT와 CD가 비슷한 위치에 나타난다.

둘째: 한국인 화자는 한국어 파열음을 VOT와 CD로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비해 중국인 화자는 화자는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모두 경음 비슷하게 발음한다. 이는 중국어가 융화정도가 높기 때문에 모국어의 발음 습관이 한국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국어를 읽는 식으로 끊여 읽다보니 폐쇄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경음으로 발음된다. 본 고에서는 어중에 오는 파열음만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어두에 오는 파열음은 다루지 않았다.

셋째: 중국어 유기음은 한국어 격음보다 VOT가 더 길다 . 즉 기식성이 더 강하다 . 이는 음절융화 정도가 높고 복모음이 많은 한자에 성조까지 얹혀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넷째: 중국어 무기음과 한국어 평음 ,경음은 VOT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CD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 . 한국어 경음>중국어 무기음>한국어 평음의 순서이다. 한국인 화자가 중국어 무기음을 경음에 가깝게 발음하는지 평음에 가깝게 발음하는지는 진일보로 더 많은 데이터로 실험해 보아야 한다. 기존에 연구에서는 중국어 성조 1성과 4성은 한국어 경음과 비슷하게 발음되고 2성과 3성은 평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실험데이터와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조음위치에 따른 수치는 발음 방법에 따른 수치처럼 통계적 의미 없지만 두 언어에서 연구개음의 VOT가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음위치가 뒤로 갈수록 기식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조음 위치에 따른 CD를 고찰해 보면 중국어 무기음과 한국어 평음은 연구개음이 제일 짧고 반대로 한국어 경음의 수치를 보면 연구개음이 제일 길다. 그것은 ㄱ와 g는 조음위치가 뒤에 있기에 선행모음의 진동이 끝나고 파열되는 시간까지의 폐쇄구간이 짧아 근육의 긴장정도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반대로 한국어 경음은 약화된 평음과 차이를 두기 위해 근육의 긴장 정도가 다른 조음위치의 수치보다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단어 목록이 더 구체적이고 실험대상이 더 많았다면 결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음 후속 연구에서 진행 될 것이며 어두 파열음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겠다.

참고문헌

고영진(2015).한국어 유성장애음소 설정과 근거,<한민족 문화연구>49,153쪽~187쪽

맹주억.권영실 (2007a).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 연구 <中國語文論叢>35,101쪽~119쪽

서민경(2002).한국어 파열음의 VOT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언어연구>22,.27쪽~45쪽

주림결.김영주(2014).중국인 KFL 학습자의 파열음 발음 연구,<이중언어학>54 ,316쪽 ~341쪽

추이진단(2002).중국어와 한국어 변이음 대비연구, <중국문학연구>25,211~ 262쪽

高美淑（2001）汉韩塞音.塞擦音的对比实验研究，<汉语学习>8,51쪽~54쪽

冉启斌(2005)，<基于普通话的汉语阻塞辅音实验研究>，南开大学博士学位论文

石锋.冉启斌（2007）塞音的声学格局分析，<南开语音年报>1

吴宗济. 茂灿主编（1989），<实验语音学概要>，北京：高等教育出版社

肖启迪（2010），韩国学生汉语塞音格局的习得分析，<第九届中国语音学学术会>

서춘란 연변대학교 한어문화학원 133000 139443819 xuchunlan@ybu.edu.cn

일본 국내의 한국어 교재의 활용형 기술 현황

-어기식과 절충식[1]을 중심으로-

***이수경**

(관세이가쿠인대학)

목차

0. 들어가기

1. 어기식

1.1. 어기식 교재의 출현

1.2. 어기식의 기본 개념

1.3. 어기식 교재의 기술

2. 전통식[2]과 절충식

2.1. 전통식 교재의 기술

2.2. 절충식 교재의 기술

3. 나오기

0. 들어가기

일본어 화자를 위한 일본 국내의 한국어[3] 학습 교재의 활용형 지도 방법으로는 한국 국내의 '학교 문법식(이하 전통식)'과 '어기식'이 있고 최근에는 '절충식'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어기식이라는 교수법이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같은 고착어라는 개념에서 생겨나서 일본에서 고안되고 발전된 독특한 한국어의 활용법이라 할수 있다. 본고는 이수경(2018a)에서 언급한 어기식과 절충식의 활용법을 다시 보완하여 소개하고 일본어권 교수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관세이가쿠인대학 강사

[1]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활용형을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절충식'이라 하였다.

[2] 한국 국내의 학교 문법식을 편의상 전통식이라 하였다.

[3] 일본의 학술적 명칭으로는 '朝鮮語'(조선어)이나 교재의 경우 한국어의 정서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표기하였다.

1. 어기식

1.1. 어기식 교재의 출현

어기(語基)라는 개념은 '前田恭作(1924)의 일본 국문법 활용형에 대응하는 개념'을 河野六郎(1955)등이 체계화 시킨 것이며 일본의 한국어 교육에 '어기설'이 도입된 것은 菅野裕臣(1981)부터라 할 수 있다. 1981년에 어기식 학습 교재 "朝鮮語の入門"(白水社)가 출판되었으며 1988년에는 菅野裕臣他에 의해 처음으로 어기식 사전 "コスモス朝和辞典"(白水社)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어기식 교수법은 일부 대학과 일부 전문기관에서 쓰였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野間秀樹(2000)의 "至福の朝鮮語"(朝日出版社)가 출판되고 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어기식 지지파'들이 주장하는 어기식의 우월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언급하겠으나 전국적으로 빠른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는 (1)어기식 자체가 일부 극한된 전문가들만의 교수법이었다 (2)교사가 어기식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 (3)1980-2000 년 전후라는 시대적 배경은 아직 한국어가 일본에서 외국어의 주류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 자체도 적었다 (4)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도 그 수가 적었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01 년에 한국어 세계화 재단이 설립되고, 2002 년의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 시기의 한류의 유입 등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각 대학의 한국과 한국어에 관한 인식도도 높아졌으며 수업을 개강하는 학교도 늘어갔다. 이와 더불어 교수법과 교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한국어 교재도 급증하였는데 현재에도 어기식 교재에 있어서는 수적으로는 다른 교재에 비해 적으나 거의가 어기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교재이니만큼 그 내용에 있어 일본어 화자에 특화된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

1.2. 어기식의 기본 개념

어기식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한국어 교재는 전통식, 어기식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품사, 즉 용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4개로 나누고 있다[4].

①동사 ②형용사 ③존재사(있다/없다/계시다) ④지정사(이다/아니다) 이하 용언 품사의 표기는 4개의 품사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어기설은 연구자들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이론은 같다. 즉, 전통식 문법에서 일본어는 어간이 변하여 활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어간이 고정되어 활용하기 때문에 어미의 형태가 다양하다. 즉 일정 형태의 어미와 '-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어미, 그리고 '-아/어'를 동반하는 어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통식 문법에서는 '-으', '-아/어'를 어미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이들을 어간으로 간주[5]하는 것이 어기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기식의 어미의 형태는 항상 일정한 형태이다. 어기식과 전통식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전통식> 어간 - 어미

[4]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품사의 분류는 존재하였다. 박승빈은 '주된 용언에는 '존재사, 지정사, 형용사, 동사'를 두고 있는데, '있다, 없다'로 이루어진 존재사는 '현재 시제'에서는 형용사와 같이 '-다'가, '수식적 사용'에서는 동사처럼 '-는'이 온다는 데서 동사로도 형용사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지정사 '이-'와 관해서는 '문전적 활용의 일체 관계가 다른 용언과 추호도 틀림이 없다'고 했다.(1931: 104-107)

[5] '-으', '-아/어'가 어미도 어간도 아니라는 어미두음설, 어간말음설 등도 존재한다

a 앉-고　　먹-고　　보-고　　피-고

b 앉-으면　　먹-으면　　보-면　　피-면

c 앉-아서　　먹-어서　　보-아서→봐서　　피-어서→펴서

<어기식> 어간 – 어미

a' 앉-고　　먹-고　　보-고　　피-고

b' 앉으-면　　먹으-면　　보-면　　피-면

c' 앉아-서　　먹어-서　　보아-서→봐서　　피어-서→펴서

즉 어기식에서는 b', c'의 '-고,-면,-서'를 어미로 본다.

이러한 이론은 박승빈[6]이 "조선어학강의요지"(1931:108-109)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어기설과 거의 흡사하다. '한 용언의 끝 음절을 어미라고 일컬음. 어미보다 위에있는 음 전부를 어간이라고 일컬음'(옛 글자등은 필자가 1986년의 정서법에 맞추어 바꾸었다). 이에 따르면 기본형에 용언 조사[7]가 붙는 과정에서 어미가 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변화를 활용이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먹다'는 기본형을 '머그'라 하고 여기에 '-며, -니'와 같은 용언 조사가 붙는다. '-서'라는 용언 조사가 오면 '머거서'가 되어 '그'가 '거'로 활용하고 '고'가 오면 '먹고'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기설은 일본어의 영향유무와는 별개 문제로 한반도 내의 국어학자에 의한 용언 굴절(屈折)설의 이론(異論)도 이미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와서 박승빈의 이론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본고는 어기식 교재의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빈의 "국어학론"(1935)를 참고 하기로 한다.

1.3. 어기식 교재의 기술

1.2.의 어기식 활용 형태 a' b'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미를 제외한 부분, '앉다', '보다'의 경우 '앉', '앉으', '앉아', '보', '보', '보아'를 어기라 칭하고 모든 용언은 3개의 어기 형태만 나타나며 이를 각각 다음와 같이 명명하고있다.

<표1>

기본형의 예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6] 김병문(2016:117)에서는 '박승빈이 말하는 활용은 일본문법을 흉내 낸 것일 뿐 문법상으로는 아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도 박승빈이 설정한 활용 개년, 그리고 어간과 어미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극본적으로 구별되는 매우 낯선 것으로서 당시에도 최현배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 쪽의 많은 이들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7] 박승빈의 용언 조사는 현재의 어미를 말한다.

앉다	앉-	앉으-	앉아-
보다	보-	보-	보아->봐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는 교재에Ⅰ, Ⅱ, Ⅲ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Ⅰ-고, Ⅱ-면, Ⅲ-요' 로 표기한다. 즉 기본형에서 어미 '다'의 앞 형태[8]가 자음으로 끝나면 제Ⅱ어기는 '으'를, 제Ⅲ어기는 '아/어'를 붙이게 된다. 지도 과정으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끝나면 제Ⅲ어기의 축약형, 지정사와 하다 용언의 어기 해설까지가 대략 입문 과정이다. 참고로제Ⅲ어기의 축약형, 지정사와 하다 용언의 어기는 다음과 같다.

<표2> 지정사의 활용

지정사	제Ⅰ어기 / 제Ⅱ어기,	제Ⅲ어기
-이다	-(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이 :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여- / -예- : '-요' 앞에서 -이어- / -이에- : '-요' 앞에서
아니다	아니-	아니어- / 아니에- : '-요' 앞에서

<표3> 하다 용언의 활용

하다 용언	제Ⅰ어기 / 제Ⅱ어기,	제Ⅲ어기
하다	하- / 하-	해/하여(글말)

전통식 교재의 대부분은 문법 항목이 나오고 나서 그 활용형만을 연습하는 연습 문제가 보편적이며 몇 과가 끝나면 복습이라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용언과 여러 활용형을 비교하는 연습 활용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어기식에서는 위와 같은 활용형의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면 미학습 상태로 어간과 어미 활용 연습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용언 15-20개 정도와, Ⅰ-지만, Ⅱ-면, Ⅲ-요 등을 이용해 활용표를 만들게 하여 3형태의 어간을 어느 정도 정착시킬 수 있다.

다음은 ㄹ어간 용언의 기술에 대해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4>

기본형의 예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알다	알- / 아-	알- / 아-	알아-

内山[9](2004 : 14)에서 '제Ⅰ어기가 종성ㄹ로 끝나는 용언을 자음 어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ㄹ어간을 설정하며 이를 ㄹ어간을 정격 용언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기식 학습

[8]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식에서 어간이라 부르는데 어기식에서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약간의 견해의 차가 있다. 따라서 어느 교재에는 어간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 어간에 '으', '아/어'를 접속한다는 식의 설명을 접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기설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해설이다. 즉 '앉', '앉으', '앉아' 각각의 형태가 3개의 어간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9] 또한内山(2004:16-17)에서는 ㄹ어간 용언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을 들고, 菅野裕臣(1997:3)의 'ㄹ어간 용언의 ㄹ탈락은 어기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를 인용하여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서의 공통된 점이다(필자역)'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재의 기술은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제Ⅱ어기라도 '-으'는 접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ㄹ이 탈락하는 경우는 전통식이든 어기식이든 'ㄴ, 종성ㄹ, ㅂ, ㅅ, 오'이므로 제Ⅰ,Ⅱ어기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ㄹ어간 용언의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기본형의 예	Ⅰ・Ⅱ- ㅂ니다	Ⅱ- ㄹ 거예요	Ⅱ- 세요?

<표6>은 변격 용언[10]이다. 변격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같다.

<표6>

기본형의 예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ㄷ변격 : 듣다	듣-	들-	들어-
ㅅ변격 : 낫다	낫-	나-	나아-
ㅂ변격 : 맵다	맵-	매우-	매워-
ㅎ변격 : 그렇다	그렇-	그러-	그래-
르변격 : 모르다	모르-	모르-	몰라-

물론 각각의 변격마다 예를 들면, ㄷ변격은 제Ⅱ어기와 제Ⅲ어기에서 ㄷ이 ㄹ로 바뀐다. ㅅ변격은 제Ⅱ어기에서는 ㅅ이 탈락하고 제Ⅲ어기에서는 ㅅ이 탈락함과 동시에 모음이 ㅏ,ㅗ일 때는 '아', 그외의 모음일 때는 '어'를 붙인다. ㅂ변격은 제Ⅱ어기에서는 ㅂ이 탈락하고 '우'를 제Ⅲ어기에서는 '워'[11]를 붙인다. ㅎ변격은 제Ⅱ어기에서 ㅎ가 탈락하고, 제Ⅲ어기에서는 ㅎ가 탈락함과 동시에 모음이 'ㅐ(ㅒ[12])'로 바뀐다. 르변격은 제Ⅰ어기와 제Ⅱ어기 형태가 같고 제Ⅲ어기에서ㅏ,ㅗ일 때는 '아', 그외의 모음일 때는 '어'를 붙임과 동시에 ㄹㄹ가 된다는 해설이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변격 용언은 전통식과 다를 바 없이 보이나 전통식은 어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간이 변화하는 변격 용언이 등장하면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어기식에서는 어간이 변화하고 어미는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보니 어간이 어떠한 변화를 해도 비교적 쉽게 정착이 된다.

다음은 접미사, 보조어간(선어말어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어기식에서는 접미사 등도 어기 활용형에 근거한다.

<표7>

읽으	셔	씨	겠어
'읽다'의	제Ⅰ어기 뒤의 선어	제Ⅲ어기에 붙는 접	제Ⅰ어기에 뒤의 접

[10] 일반적으로 초급에서 다루는 'ㄷ,ㅂ,ㅅ,ㅎ,르'만을 취급했다. 전통식의 '으' 변칙 용언은 어기식에서는 ㄹ어간 용언과 함께 정격으로 다루고 있다.
[11] '돕다, 곱다'는 '와'를 붙인다고 설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격도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12] 하얗다 등

제Ⅱ어기형	말어미 '시'의 제Ⅲ어기형	미사 '-ㅆ-'의 제Ⅰ어기형	미사 '-겠-'의 제Ⅲ어기형

예를 들면 '보고 있었어요'는 'Ⅰ-고 있다+Ⅲ-ㅆ어+요' 와 같이 나타난다.

2. 전통식과 절충식

2.1. 전통식 교재의 기술

전통식 교재의 기술 부분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전문가에 의한 교재의 작성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13]의 전문가나 전문가 개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가가 아닌 집필자에 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교육의 경험이 많고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재를 집필하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체계성과 경험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된 지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학습자들이 겪는 혼란이 적다. 최근에 와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한류의 붐을 타고 교재가 급증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집필자가 작성한 교재에는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의 타이틀부터(예를 들면 '한글어'등) 내용에 이르기까지 흥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수업에도 독학에도 쓸 수 없는 교재들이 아직까지 상당수의 출판물이 있다. 물론 흥미를 돋구어 그를 통해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게 된다면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교과서에도 전통식 교과서의 일부는 일본어 화자를 의식하지 않은 교재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공통된 점은 다음과 같다. (1)일본어와의 대조적인 관점에서 발음과 문자를 도입하지 않고 사전 순으로 도입하며 각 발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 음운 변화의 설명에 모순이 있거나 필요한 음운 변화에 대한 해설이 없다. (3)한자어에 대한 언급이 없다. (4)품사, 특히 용언의 품사의 체계적인 언급이 없다. (5) 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설명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 (6)표제어로 제시하는 어미등이 조사의 제시와 구별하기 힘들다[14]. 등을 들 수있다.

또한 입문과 초급 교재에 있어서는 한국 국내에서 출판한 교재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미권 혹은 중국어 화자를 의식하여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이 흡사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특히 원어민 교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경우라면 교사 연수 과정에서 언어권별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13] 각 대학의 교원이 그 대학의 방침에 맞추어 작성된 교재가 많다.
[14] 예를 들면 용언에 접속하는 형태를 '-(으)러', 명사에 접속하는 조사도 '-(으)로'로 표기할 경우, 규정에는 없으나 같은 ' - '를 사용함으로 학습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한 쪽은 ' ～ ' 등으로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2.2. 절충식 교재의 기술

여기에서 절충식이라하는 것은 위의 각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언의 활용형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제시한 교재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세 종류[15]의 교재를 보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NHK한글 강좌의 개강[16]을 기준으로 삼아 초기 교재는 전통식 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기식은 극히 일부의 대학에서 쓰여졌다. 이후 어기식 교재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십여년 남짓 전통식과 어기식 교재, 어느 쪽이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통식을 고수하는 교사들 사이에는 어기식 교재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어기식이 어기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공유물과 같은 교수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기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 또한 지지하면서도 어기식 교수법을 확대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2005년에 와서야 '대학등한국어교사연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선어교육연구회, 국제포럼 주최)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어 세 차례(한 지역마다1년에 한번 실시)에 걸쳐 어기설에 관한 내용과 어기식 교수법을 연수 내용에 넣어 강의가 실시되었다. 이 강의가 결코 결정적인 계기는 될 수 없었지만 어기식이라는 교수법이 처음으로 널리 전파된 것은 사실이다.

절충식 교재가 등장한 것도 우연인지 대부분이 2005년 이후이며 예외적으로 "ことばの架け橋 (말의 가교)"의 경우는 개정판 이전에도 활용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식 교재의 활용법인 어미와 어간의 개념은 그대로 두고 활용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편의상 절충식이라 하겠다. 기본적인 어미와 어간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기식 지지파의 입장에서는 전통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되겠으나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활용형의 패턴이 세 가지라는 내용은 문법 습득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또한 교재에 따라서는 교사의 의도에 따라 어기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어느쪽으로도 쓸 수 있게 작성해 놓은 것도 있다. 이런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절충식은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절충식 교재의 문법 활용형에 관한 해설을 인용한 것이다(필자역)[17].

a. 『ことばの架け橋』

어미의 종류

어미는 용언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어미가 어느 타입인지 주의해 보자.

(1) 모음자음계: 모음 어간에 접속하는 형태와 자음 어간에 접속하는 형태가 있는 것

예) 세요/으세요: 가다-가세요, 받다-받으세요

(2) 음양계: 어간말의 모음이 양모음인지 음모음인지에 따라 형태가 다른 것

---

[15] "ことばの架け橋(말의 가교)"개정판 (2011), 生越直樹・曺喜澈著,白帝社/ "もっとチャレンジ! 韓国語" (2007),金順玉・阪堂千津子,白水社/ "韓国語教本　ハングルマダン"(2017),松崎真日・熊木勉・金昺京・丁仁京・李秀炅,朝日出版社: 출판사 중 한국어 교재를 다룬 기간이 길고 발행 부수가 많은 대표적인 세 곳의 교재를 임의로 선택했다.

[16] 1984년 개설되었다.

[17]제시순은 초판의 발행 연도 순이며 번역 과정에서 괄호나 개행, 부호 등은 통일하였다.

예) 아요/어요/여요: 받다-받아요, 먹다-먹어요

(3) 고정계: 형태가 한 개밖에 없는 것

예) 지만: 가다-가지만, 먹다-먹지만

b. 『もっとチャレンジ！韓国語』

활용의 세 가지 형

용언 활용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모두 사전형에서 '다'를 빼고(= 여기에서 남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나서 활용시킨다.

(1) 제Ⅰ형: -자, -고, -거든요, -기 등이 붙는 경우

'다'를 빼고나서(=어간에 직접) 붙이는 경우

(2) 제Ⅱ형: -(으)ㅂ시다, -(으)ㄹ까요, -(으)세요 등이 붙는 경우

어간말에 받침이 있으면 (으)를 붙이는 형태. 어간말에 받침이 없는(=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가 필요없기 때문에 (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3) 제Ⅲ형: -아/어요, -아/어서, -아/어도 등이 붙는 경우

어간말의 모음이 양모음(ㅗ, ㅏ, ㅑ)일 때는 **아,** 음모음(양모음 이외)일 때는 **어,** ～하다일 때는 하에여를 붙인다. 아/어/여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 / 」로 표기한다.

c. 『ハングルマダン』(번역 과정에서 '한다'체로 바꾸었다)

(1) 어간형: 한국어에는 어간과 어미를 연결하는 접속 방법이 세 개 있다. 단순히 어간에 어미를 연결하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어간형'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모든 어미는 세 가지의 접속 방법으로 분류된다.

(2) 아/어형: '해요'체나 '-아/어서'는 '-아/어'로 어미에 접속하는 형이다. 이것을 본 교재에서는 '아/어형'이라 한다. 이 '아/어'의 형태는 연용형(다음 용언에 접속하는 형)으로도 쓰인다. '-아/어 보다', '-아/어 버리다' 등을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3) (으)형 : 이미 어간과 어미를 연결하는 방법 중 '어간형'과 '-아/어형', 두 가지를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으)형'을 소개한다. 한국어의 어간과 어미의 접속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전부이다. (으)형의 어미는 앞 어간에 받침이 있는 경우 어미를 연결할 때 '으'가 들어간다. '-(으)러 가다'를 접속해 보겠다.

ㄹ어간에서는 이 '으'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세 종류의 절충식 교재의 기술을 보면 공통적으로 활용형을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고 각각의 패턴에 교재마다 명칭을 정해서 정리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활용형의 설명 방법은 어기식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전통식의 어미와

어간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어기식에서 활용 패턴을 간결히 세 가지로 분류한 것에 착목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어 화자의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입문 단계에서 발음과 새로운 글자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를 지나면 어려운 과정의 학습이 끝나고 어순이나 문법이 일본어와 비슷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문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법이 일본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음운 변화가 끊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의 활용은 가능한 한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절충식은 조금이나마 활용 방법의 패턴을 한 데 묶어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3. 맺음말

본고는 이수경(2008a)의 내용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일부분 첨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일본어 화자를 위한 문법 활용의 기술 현황, 특히 일본의 독특한 활용 방식인 어기식과 절충식을 소개하기 위해 발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문법 활용의 개념이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며 어느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용한지 또 학습자들의 개인 능력 차에 따라 효과의 차이도 있는지 등 앞으로 객관적인 검토 과제도 많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어기식 교재 이전의 문제로서 한국어의 어기설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18] 소위 어기설 지지파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고에서 다룬 어기식의 기술은 이들의 공통 의견만을 집약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한국어의 확산과 더불어 각 언어권에서 어떠한 교수법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내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연구진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

[18] 예를 들면, 伊藤英人(2009)의「「語基説」をめぐって」에서는 "그 자체가 어떤 문법적 기능 혹은 어휘적 파생기능을 가지고 단독으로도 쓰이며 조동사 접속의 기체(基体)도 될수 있는, 어간말 모음의 제(諸)교체 형식만이 본래의 '어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에는 본래 '어기'가 존재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p.419)

-중략-

"조선어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어의 제Ⅱ어기에 있어, 후기 중세 조선어나 현대어의 형식은 그 자체,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알타이어 제(諸)어 등에서 보이는 '개입모음'이 어간과 어미의 사이에 나타난 형태와 동질의 어형이다."(p.421)

-중략-

"일본어와 조선어에는 어간형성모음의 작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소위 어기설은 양 언어의 기본적인 차이에 눈을 감고 조선어를 일본어식으로 기술・교육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p.425) (필자역) 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문헌

교재

『至福の朝鮮語』(2000),野間秀樹（朝日出版社）

『もっとチャレンジ！ 韓国語』(2007),金順玉・阪堂千津子,白水社

『Campus Corean- はばたけ！ 韓国語 』 (2000) 野間秀樹・村田寛・金珍娥,朝日出版社

『ことばの架け橋（말의 가교）』개정판 (2011), 生越直樹・曺喜澈著,白帝社

『韓国語教本ハングルマダン』(2017),松崎真日・熊木勉・金昺京・丁仁京・李秀炅,朝日出版社

논문

미쓰이 다카시, 『박승빈(朴勝彬)의 언어운동과 그 성격』, 한국학연구, 26, 261-306,2012

김병문,『초기 국어문법에서의 품사 분류와 '보조어간' 설정에 관한 문제』 국어학, 77, 101-129,2016

시정곤,『박승빈 :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서울 : 박이정, 2015

伊藤英人 ,「「語基説」をめぐって」,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
414-426東京：明石書店，2009

内山政春,
「朝鮮語の活用を記述する２つの方法－「語幹」と「語基式」教科書の検討を中心に－」,
『言語と文化』創刊号，東京：法政大学言語・文化センター,2004

――――― ,「「語基説」における「語幹」と「語基」」,
『朝鮮半島のことばと社会―油谷幸利先生還暦記念論文集』，427-459東京：明石書店，2009

徐尚揆, 「基礎学習語彙論：日本語話者のために」,『韓国語教育論講座第1巻』,野間秀樹編著,
東京：くろしお出版, 2007

野間秀樹,「文法の基礎概念」, 『韓国語教育論講座第2巻』,野間秀樹編著、
東京：くろしお出版2012

矢野謙一,「学習文法項目論」, 『韓国語教育論講座第2巻』,野間秀樹編著、
東京：くろしお出版,2012

李秀炅（이수경）

日本国兵庫県西宮市上ヶ原一番町１－155 関西学院大学　言語教育研究センター

Zip Code: 662-8501

Tell: +81-798-54-6180

Mail: sugyong@kwansei.ac.jp

Critical thinking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중국 대학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박춘란

서북정법대학교（西北政法大学）

〈차례〉

1. 들어가며
2. Critical Thinking 의 개념과 한국어 쓰기 교육
   2.1 Critical Thinking 의 개념
   2.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Critical Thinking 의 결핍현상
3. Critical Thinking 향상을 위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제 및 방안
   3.1 수업의 실제
   3.2 방안
4. 나오며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대학에서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Critical Thinking향상에 기반을 둔 쓰기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중국의 대학 교육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판적 사고 및 분석 능력 향상에 기반을 둔 쓰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관찰과 토론, 분석, 추리, 평가 등등의 과정을 통해 구조화된 기존의 쓰기 교육에서 존재하는 많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와 지식 및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과 깊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쓰기 교육,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분석 능력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 초기 몽골인 학습자 중심으로

지문건

(전남대학교)

1.서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균형 잡힌 의사소통의 핵심이며, 쓰기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최종적인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Flower & Hayes, 1980). 쓰기란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며(van Gelderen, Oostdam, & van Schooten, 2011), 맞춤법지식(Abbott & Berninger, 1993), 어휘지식(Laufer & Nation, 1995), 문법지식(Grabe & Kaplan, 1996)을 필요로 한다. 맞춤법지식이란 쓰기 체계에 관한 규칙 또는 개별 단어에 관한 식별 능력(Treiman & Cassar, 1997; Perfetti, 2003)이며, 맞춤법지식은 초기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Abbott & Berninger, 1993; Foorman, 1995). 어휘지식이라 함은 목표어휘에 대하여 형식(form), 의미(meaning), 용법(use)을 아는 것이며(Nation, 2001), 목표어휘의 음운적·통사적·의미적·화용적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chmitt, 1997). 이뿐만 아니라 어휘를 능동적 어휘와 수동적 어휘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동의어·반의어·유의어·다의어와 같은 다양한 층위의 어휘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Cruse, 1986; Read, 2000). 능동적 어휘란 학습자가 의미 및 표현을 할 수 있는 어휘를 나타내며, 수동적 어휘란 학습자가 의미 파악은 가능하나 표현을 할 수 없는 어휘를 지칭한다. 더불어 문법지식도 성공적인 쓰기 학습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임이 입증되었다(Wolfe-Quintero, Inagaki, & Kim, 1998; Ortega, 2003). 따라서 맞춤법지식, 어휘지식, 문법지식과 쓰기 능력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쓰기능력은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과 같은 언어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어휘지식, 문법지식, 맞춤법지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서 쓰기에 관한 연구는 쓰기와 어휘지식의 관계(Dunsmuir & Blatchford, 2004), 쓰기와 맞춤법지식의 관계(Apel, Wolter, & Masterson, 2006), 쓰기와 문법의 관계(Olinghouse, 2008) 규명 연구처럼 특정 영역의 요소와 쓰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쓰기 능력을 측정하고,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을 측정한 후 결과 변수인 한국어 쓰기 능력과 원인 변수인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들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 어휘, 맞춤법 지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수한가?
(2)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의 예측 변수는 무엇인가?

2.선행연구

생각이나 사고를 언어적 형태인 문자를 매개로 표현하는 쓰기 능력은 인지능력(Engber, 1995), 쓰기전략(Flower & Hayes, 1980), 상위인지전략(Victori, 1999) 등의 비언어적 요소와 어휘지식(Laufer & Nation, 1995), 맞춤법지식(Abbott & Berninger, 1993), 문법지식(Grabe & Kaplan, 1996; Olinghouse, 2008)과 같은 언어적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언어 습득의 마지막 단계인 쓰기는 언어형식 및 비언어적형식의 복합적 지식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은 비언어적 요소보다는 언어적 요소가 성공적인 쓰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고하였다(Abbott & Berninger, 1993).

먼저 영어를 제2언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또는 외국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진행된 쓰기와 관련된 몇몇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목표언어의 어휘능력(Coker, 2006; Barker, Torgesen, & Wagner, 1992; Perfetti, 2003; Dunsmuir & Blatchford, 2004), 문법능력(Wolfe-Quintero, Inagaki, & Kim, 1998; Ortega, 2003; Olinghouse, 2008), 목표언어의 맞춤법지식(Foorman, 1995; Apel, Wolter, & Masterson, 2006)은 성공적인 목표언어 쓰기로 연결되었다.

한편 한국어 제2언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실행된 쓰기와 한국어 맞춤법과 연관된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문 언어 오류 유형에 관한 고찰(황경수, 2011), 백일장 작문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서수백, 2014),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글쓰기 오류 유형 분석(박성희, 2016), 아랍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맞춤법 오류 유형(장경미, 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글쓰기 과정에서 대치, 철자, 오형태, 누락, 첨가와 같은 맞춤법 오류 유형의 발견에 관한 연구(노병호, 2015)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어 쓰기에 관한 또 다른 한 축인 한국어 쓰기와 한국어 문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 문장형 문법 제시와 한국어 쓰기의 연관성(이현희·신호철, 2017),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조 내에서 통사적, 의미적 규칙의 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능력과의 관계(오지혜, 2008)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한편 심상민(2012)은 성공적인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담화 차원에서 글 구조 및 장르와 관련된 적절한 문법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문법과 결합한 쓰기 수업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쓰기와 어휘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어휘량, 어휘빈도, 어휘수준, 어휘밀도는 쓰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진대연, 2006),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사용된 어휘 품사는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일반부사 순으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배도용, 2011). 차숙정과 송향근(2006)은 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어휘 오류를 발견하였다. 첫째 발음과 맞춤법 오류에 의한 형태적 어휘 오류, 둘째 부적합 어휘 오류, 누락 및 첨가 오류, 과잉 일반화 오류와 같은 의미적 어휘 오류, 셋째 수 관형사, 피·사동 표현의 통사적 어휘 오류, 넷째 어휘 대체 오류, 풀어쓰기 오류, 한자의 오용과 같은 학습자 전략 오류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쓰기 오류 유형 분석(서수백, 2014), 한국어 쓰기와 문법과의 관계(이현희·신호철, 2017), 한국어 쓰기와 어휘능력과의 관계(진대연, 2006; 배도용, 2011)처럼 부분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Schoonen과 동료들은(2003)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은 초기 외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환경의 유학생과 같은 성인 학습자들과 이주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Korean as a foreign language)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초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초기 몽골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이 한국어 쓰기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규명하는 의의가 있다. 2017년 기준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이 68,184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유학생이 14,614명, 몽골인 유학생이 5,384명 순이다(교육부, 2017). 따라서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쓰기와 문법지식, 어휘지식, 맞춤법지식의 관계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몽골에 거주하며 몽골어가 모국어인 중학생 한국어 학습자 98명(남: 52명(53.1%), 여: 46명(46.9%))이다. 응답자중에서 한국 방문의 경험은 23명(54.1%) 1회, 11명(23.5%) 2회, 6명(11.2%) 3회, 2명(6.1%) 4회, 3명(3.1%) 5회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나머지 53명(54.1%)은 한국 방문의 경험이 없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몽골 현지 중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주4회 정규 교과목을 학습하고 있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험은 전무하였다. 하지만 참가자 중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의 경험이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3.2. 실험도구 및 절차

3.2.1. 한국어 쓰기 평가지

한국어 쓰기 평가지는 한국어능력시험 유형을 바탕으로 예비연구(pilot study)와 몽골 중학교 한국어 선생님의 검증을 거쳐 본 연구에 적합하게 1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한국어 쓰기 평가지의 구성 내용은 대화구성능력 평가 5문항, 문장구성능력 평가 5문항이다. 대화구성능력 평가 5문항은 선다형 유형의 간접쓰기 3문항과 그림을 보고 쓰는 직접쓰기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장구성능력 평가 5문항은 선다형 유형의 간접쓰기 2문항과 문맥에 맞게 빈칸에 쓰는 직접쓰기 3문항으로 제작하였다. 대화구성능력 간접쓰기 평가 문항은 빈칸에 알맞은 대화를 고르는 것이고(가: 물을 마셔요? ① 네, 우유에요. ② 네, 물이 없어요. ③ 아니요, 물을 사요. ④ 아니요, 우유를 마셔요.), 대화구성능력 직접 쓰기 평가 문항은 그림이 제시된 대화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것이다(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 )입니다.). 문장구성능력 간접쓰기 평가 문항은 주어진 두 문장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며(친구를 만납니다. 함께 운동을 합니다. ① 친구를 만나러 함께 운동을 합니다. ② 친구를 만나서 함께 운동을 합니다. ③ 친구를 만나지만 함께 운동을 합니다. ④ 친구를 만나거나 함께 운동을 합니다.), 문장구성능력 직접쓰기 평가 문항은 주어진 문장을 보고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것이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 )은(는) 화요일입니다.). 직접쓰기 문항은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항으로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점하였다. 한국어 쓰기 평가지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6이다.

3.2.2. 한글 맞춤법 평가지

한글 맞춤법은 총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자음과 모음에 관한 것, 3장 소리에 관한 것, 4장 형태에 관한 것, 5장 띄어쓰기에 관한 것, 6장 그 밖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평가지는 한글 맞춤법의 핵심 내용인 소리, 형태, 띄어쓰기, 그 밖의 것을 측정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리에 관한 평가지는 된소리 2문항(가끔-각끔-가껌), 구개음화 2문항(맏지-맏이-마지), 모음 2문항(사레-사례-사래), 두음법칙 2문항(여자-녀자-려자), 겹쳐 나는 소리 2문항(딱닥-닥닥-딱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형태에 관한 평가지는 합성어 및 접두사 6문항(꽃잎-꼰닙-꽃닙)과 사이시옷 4문항(뱃길-배길-밷길)으로 총 10문항이다. 띄어쓰기(꽃이-꽃 이-꼬치) 및 그 밖의 것(깨끗시-깨끗이-깨끗히)에 관한 평가지도 각각 1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한국어 맞춤법 평가지의 신뢰도는 .84이다.

3.2.3. 한국어 어휘 평가지

한국어 어휘 평가지는 수동적 어휘 평가지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어휘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로 한정하였다. 동의어와 반의어로 구성된 어휘 평가지 유형은 한국어능력시험 유형을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된 동의어 문항 예시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이다 (가: 연필이 책상 아래에 있을까요? 나: 네, 책상 ( )에 있을 거예요. ① 밑 ② 뒤 ③ 옆 ④ 앞). 그리고 반의어 5문항의 예시는 '밑줄 친 부분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것을 고르시오'이다(가: 한국어가 어려워요? 나: 아니요, ( ). ① 적어요. ② 아파요. ③ 쉬어요. ④ 없어요). 한국어 어휘 평가지의 신뢰도는 .76이다.

3.2.4. 한국어 문법 평가지

한국어 문법 평가지는 10문항으로 구성하며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초급 문법 등급에 해당하는 문법을 적용하였다. 문법 평가지는 한국어능력시험 유형을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4지선다형 유형으로 제작하였으며, 후치사, 접속 접사, 동사·형용사 활용형의 문법지식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문법 평가지 예시 문항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예: 공원( ) 사람이 많아요. ① 을 ② 에 ③ 하고 ④ 에게). 한국어 문법 평가지의 신뢰도는 .81이다.

3.2.5. 자료 코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양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어 쓰기 평가지의 경우 1문항에 1점으로 코딩하여 10점이 최대 점수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코딩하여 어휘 평가지는 10점, 문법 평가지는 10점이 최대 점수이다. 한편 한글 맞춤법은 4개 범주 총 40문항으로 최대점수가 40점이지만 다른 평가 영역과 최대 점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평균으로 나누어 10점이 최대 점수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는 연구문제 1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글 맞춤법, 문법, 어휘 지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수한가? 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의 예측변수는 무엇인가? 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점수를 40점으로 산정하여 도출된 전체적인 결과와 한글 맞춤법 점수를 평균

10점으로 산정하여 도출된 전체적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4.1. 한국어 쓰기, 문법, 어휘, 맞춤법 평가지

한국어 쓰기, 문법, 어휘, 맞춤법 평가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7.42점, 표준편차는 1.99점이며, 구체적으로 남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6.73점이며, 여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8.20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의 차이(1.47)는 분산분석(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여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이 남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보다 우수하였다($F(1, 96) = 15.17$, $p < .05$). 한국어 문법 평가의 평균은 5.86점, 표준편차는 2.91점이며, 남학생들의 한국어 문법 평균은 5.00점이며, 여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6.83점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의 차이(1.83)는 분산분석(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여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이 남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보다 우수하였다($F(1, 96) = 10.55$, $p < .05$). 한국어 어휘 평가의 평균은 5.49점, 표준편차는 2.70점이며, 남학생들의 한국어 문법 평균은 4.62점이며, 여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6.48점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의 차이(1.86)는 분산분석(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여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이 남학생의 한국어 쓰기 능력보다 우수하였다($F(1, 96) = 13.08$, $p < .05$). 마지막으로 한국어 맞춤법 평가의 평균은 5.01점, 표준편차는 1.76점이며, 남학생들의 한국어 문법 평균은 4.82점이며, 여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평균은 5.22점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의 차이(0.4)는 분산분석(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96) = 1.23$, $p > .05$).

<표 1> 한국어 쓰기, 문법, 어휘, 맞춤법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쓰기	7.42	1.99
문법	5.86	2.91
어휘	5.49	2.70
맞춤법	5.01	1.76

연구 문제 1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 어휘, 맞춤법 지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수한가? 이다. 이에 답하고자 대응표본 T-검증을 실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문법의 평균(5.86)과 어휘의 평균(5.49)의 차이(0.3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문법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97)=1.99$, $p < .05$). 또한 문법

의 평균(5.86)과 맞춤법의 평균(5.01)의 차이(0.8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문법 능력이 맞춤법 능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97)=3.49$, $p < .05$). 그리고 어휘의 평균(5.49)이 맞춤법의 평균(5.01)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t(97)=2.51$, $p < .05$).

<표 2> 한국어 쓰기, 문법, 어휘, 맞춤법의 대응표본 T-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차이	*t*	*p*
문법	5.86	2.91	0.37	1.99	.049
어휘	5.49	2.70			
문법	5.86	2.91	0.85	3.49	.001
맞춤법	5.01	1.76			
어휘	5.49	2.70	0.48	2.51	.014
맞춤법	5.01	1.76			

*$p < .05$

4.2. 한국어 쓰기 예측 변수

<표 3>은 한국어 쓰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 분석이다. 한국어 쓰기, 문법, 어휘, 맞춤법으로 총 4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어휘와 문법의 상관관계(.79)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고, 어휘와 맞춤법의 상관관계(.71)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쓰기와 문법의 연관성(.64), 한국어 쓰기와 어휘의 연관성(.59), 문법과 맞춤법의 연관성(.57), 한국어쓰기와 맞춤법의 연관성(.47)도 .01수준에서 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한국어 쓰기 상관관계

	1	2	3	4
1	-			
2	.64**	-		
3	.59**	.79**	-	
4	.47**	.57**	.71**	-

1. 한국어 쓰기 2. 문법 3. 어휘 4. 맞춤법

** $p < .01$

<표 4>는 연구 문제 2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의 예측 변수는 무엇인가?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이다. 한국어 쓰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문법, 어휘, 맞춤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에 의한 회귀모형 값은 $F(3, 94) = 23.55$, $p <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법, 어휘, 맞춤법은 한국어 쓰기의 42.9%를 설명하였으며, 3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문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쓰기에 대하여 어휘와 맞춤법의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어 문법 능력은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 한국어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
문법	.46	3.62	.00
어휘	.15	1.03	.31
맞춤법	.10	0.87	.39

*$p < .05$

5. 결론

본 연구는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쓰기 능력과 한국어 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 어휘, 맞춤법 지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수한가? 와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의 예측 변수는 무엇인가? 를 순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어 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결과는 문법(5.86), 어휘(5.49), 맞춤법(5.0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문법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법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한국어 쓰기를 종속변수로, 문법, 어휘, 맞춤법의 3개 범주를 독립변수로 하여 한국어 쓰기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3개의 독립변수가 한국어 쓰기의 42.9%를 설명하였고, 3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문법은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에’, ‘-와’, ‘-만’ 같은 후치사, ‘-고’, ‘-서’와 같은 비종결 대등적 연결어미 문법, ‘듣다’, ‘자다’와 같은 동사의 활용형, ‘무겁다’, ‘재미있다’, ‘작다’와 같은 형용사의 활용형과 같은 문법이 포함된 한국어 수업 설계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7).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

노병호(2015).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권5호, 한국융합학회. 131쪽～142쪽.

동동·김영주(2014). 면담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내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104권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75쪽~208쪽.

박성희(2016).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쓰기 오류 연구. <사고와표현> 9권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71쪽~110쪽.

배도용 (2011). 한국어 학습자 쓰기에 나타난 어휘 사용 빈도 예비 조사. <동남어문논집> 31권, 동남어문학회, 175쪽~197쪽.

서수백(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쓰기 오류 분석 - 학부 재학 유학생 백일장 작문을 대상으로. <우리말글> 62권3호, 우리말글학회. 127쪽~157쪽.

심상민 (201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문법의 개념과 역할. <선청어문> 40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827쪽~845쪽.

오지혜 (2008). 이야기 문법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7권, 한국작문학회, 275쪽~305쪽.

이현희·신호철 (2017).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문장형 문법 제시 방안 연구 – ‘-ㄹ/을 뿐더러’와 ‘-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9권, 우리어문학회, 409쪽~440쪽.

장경미(2016). 아랍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맞춤법 오류 연구 - 아랍에미리트 학습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5권2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77쪽~100쪽.

진대연 (2006). 한국어 쓰기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호, 이중언어학회, 379쪽~411쪽.

황경수(2011). 신문 언어의 오류 양상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8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353쪽~373쪽.

차숙정·송향근(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의 쓰기에서 나타난 어휘 오류. <한국어교육> 17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15쪽~436쪽.

Abbott, R. D., & Berninger, V. W.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relationships among developmental skills and writing skills in primary and intermediate-grade wri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3), 478-508.

Apel, K., Wolter, J. A., & Masterson, J. J. (2006). Effects of phonotactic and orthotactic probabilities during fast mapping on 5-year-olds' learning to spell.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9*(1), 21-42.

Barker, T. A., Torgesen, J. K., & Wagner, R. K. (1992). The role of orthographic processing skills on five different reading tasks. *Reading Research Quaterly, 27*, 334-345.

Coker, D. (2006). Impact of first-grade factors on the growth and outcomes of urban schoolchildren's primary-grade wri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471-488.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nsmuir, S., & Blatchford, P. (2004). Predictors of writing competence in 4- to 7-year-ol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461-483.

Flower, L. S., & Hayes, J. R. (1980). The dynamics of composing: Making plans and juggling constraints. In L. W. Gregg & E. R. Steinberg (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pp. 31-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Foorman, B. R. (1995). Practical connections of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processing. In V. W. Berninger (Ed.), *The varieties of orthographic knowledge. II: Relationships to phonology, reading, and writing* (pp. 377-419). Dordrecht: Kluwer Academic.

Grabe, W., & Kaplan, R. B. (1996).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An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Laufer, B., & Nation, P. (1995). Vocabulary size and use: Lexical richness in L2 written production. *Applied Linguistics, 16*(3), 307-322.

Nation, P.(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linghouse, N. G. (2008). Student- and instruction-level predictors of narrative writing in third-grade students. *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1*, 3-26.

Ortega, L. (2003). Syntactic complexity mea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L2 proficiency: A research synthesis of college-level L2 writing. *Applied Linguistics, 24*(4), 492-518.

Perfetti, C. A. (2003). The universal grammar of reading.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7*, 3-24.

Read, J.(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mitt, N.(1997).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199-2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onen, R., van Gelderen, A., de Glopper, K., Hulstijn, J., Simis, A., Snellings, P., & Stevenson, M. (2003). First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writing: The role of linguistic knowledge, speed of processing, and metacognitive knowledge. *Language Learning, 53*(1), 165-202.

Treiman, R., & Cassar, M. (1997). Spelling acquisition in English. In C. A. Perfetti, L. Rieben, & M. Fayol (Eds.). *Learning to spell: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across language* (pp. 61-80). Mahwah, NJ: Erlbaum.

van Gelderen, A., Oostdam, R., & Van Schooten, E. (2011). Does foreign language writing benefit from increased lexical fluency? Evidence from a classroom experiment. *Language Learning, 61*(1), 281-321.

Van Gelderen, A., Schoonen, R., Stoel, R. D., De Glopper, K., & Hulstijn, J. (2007). Development of adolescent reading comprehension in language 1 and language 2: A longitudinal analysis of constituent compon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477-491.

Victori, M. (1999). An analysis of writing knowledge in EFL composing: A case study of two effective and two less effective writers. *System, 27*, 537-555.

Wolfe-Quintero, K., Inagaki, S., & Kim, H.-Y. (1998).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writing: Measures of fluency, accuracy & complex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이름: 지문건

소속: 전남대학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우편번호: 61186

전화: 010 5610 1499

전자우편: bwh109203@gmail.com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듣기에 대한 연구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최향옥[1], 까녹건[2]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1.1. 연구필요성과 목적

의사소통 접근법이 발전되면서 '듣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의 듣기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해로서의 듣기는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야기하 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인 지 활동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은 어휘, 문법적 지식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듣기 이해가 화용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사소통 듣기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모어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하거나 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발화상의 무례함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행적 실패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상황 듣기 이해 과정에서 자주 범하는 화용적 실패 상황을 수집, 정리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중국, 태국, 2개 나라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실패 양상을 살펴보고 언어권 별로 화용적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의사소통 듣기 이해에 대한 연구들은 영어교육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해영·박지연(2017)에서는 듣기전략, 듣기 효능감, 듣기 불안, 듣기 노출 시간과 같은 언어외적요인이 듣기 이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요인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 새로운 측면에서 듣기 교육에 접근했다.

화용적 이해에 대한 연구로는 이정란(2011), 이북자(2014), 정혜선(2017)이 있다. 이정 란 (2011)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과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본래의 추측, 희망의 의미가 아닌 제안, 거절, 요청 화행을 수생할 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려과 화 용이해 능력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떠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1] 최향옥, 소속:중국 상주정보기술대학,한국어학과, 주소:中国·江苏常州科教城鸣新中路22号,우편번호: 21314 휴대폰: (중국) 135-8435-8521, (한국)+ 82 10-9281-8521, 이메일:yuanzhen0722@naver.com
[2] Kanokkorn Tanyarak(까녹건 딴야락), 소속: Srinakharinwirot University, Korean Language Division, Faculty of Humanities, 114 Sukhumvit23 Klongtey Neu Bangkok THAILAND, 10110 (태국국립시나카린위롯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교수), 연락처 010-3235-3429, kanokkorn@g.swu.ac.th

분석 하였다. 이북자(2014)는 목표 사회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화용이해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였다.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에 따라 거절 화행 듣기와 함축의견 듣기 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으로써 화용 이해 에 미치는 환경적 변인의 질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정혜선(2017)은 화용 교수·학습 목 표로 플립런닝을 발화 상황에 따른 의미 기능이 중시되어 화용적 실패가 일어나기 어려 운 화용적 관례어를 선정하여 플립 러닝을 적용한 화용적 관례어 교수.학습방안을 제안 하였다.

화용적 실패에 관한 여구로는 한상미(2005), 이정란(2010), 염수(2013)가 있다. 한상미(2005)는 영어권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화자와의 대화에서 일으키는 의사소통적 문제를 화용적 실패에 초점을 두어 밝혔다. 이정란(2010) 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를 유형화해서 살펴보았다. 염수(2013)은 TOPIK 3급~5급까지의 중국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양상과 화용 능력 발달 양상을 살 피고 원인을 발혔다. 결과로 중·고급 수준 학습자 들도 화용적 이해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듣기 이해와 회용적 실패를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 이해로 인한 화용적 실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듣기에서의 화용적 실패 양상은 어떠한 지, 언어권별 외국인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듣기에서의 화용적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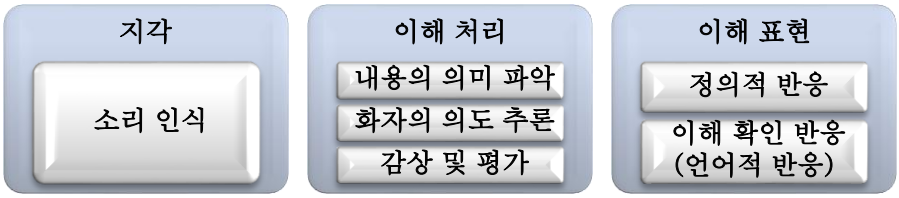
2.1. 의사소통 듣기 이해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태도의 표현과 이해이다(청월순, 2007: 15). 정환민(2013)에 의하면, 실제 의사소통에서 청자가 단순히 화자의 발화를 수용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의도 또는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등의 의사소통적 반응을 보이며 의사소통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다. 학자들이 제시한 듣기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기존 듣기의 과정의 단계

학자명	듣기 과정의 단계
Taylor(1964)	소리듣기→의미듣기→이해하기(이해하기는 정의적 반응을 포함)
Anderson & Lynch(1988)	입말신호 확인→낱말인식→통사 구조 파악→화자의 의도 이해→적절 반응
Brown(2000)	초기발화 처리→발화유형 결정→화장의 목적 추론→메시지 해석→축어적·의도적 의미 부여→즉각적 반응 또는 장기 기억처리→초기 발화 정보의 언어적 측면 제거
전은주(1999)	정보 확인하기→이해·평가·감상하기→반응하기

학자들이 제시한 듣기의 과정을 종합하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의 과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의사소통의로서의 듣기의 과정

위의 <그림1> 의사소통로서의 듣기의 과정 3단계 중에 '이해 표현' 단계는 외국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듣기를 수행하는 학습자의 역할을 결정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본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은주(1999: 71-72)에서는 '이해 표현'의 단계와 관련된 '반응하기'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반응하기'는 듣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비언어적 단서에서부터 들은 후 자신의 이해한 범 위 내에서 보이는 언어적 표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듣기의 다른 과정과는 질적 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이해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이해에 대한 확인'의 과정, 즉 표현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자가 화자의 담화를 듣고 이해한 것을 확인 하기 위해 말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비언어적인 단서에서부터 언 어적 표현까지 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응 하기'에 대한 전은주(1999) 및 임칠성 외(2002)의 견해를 종합하고 확장한다면 청자가 듣고 이해 한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이해 표현'의 단계에서는 언어적인 반응과 비언 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청자의 내적 인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 또한 반응으로 볼 수 있고, 화자의 담화를 이해한 후 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그것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 듣기 과정의 '이해 표현' 단계에 서 듣기 담화의 이해에 대한 반응은 의사소통적 반응으로서 청자와 화자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2.2. 화용적 이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관심은 1970년 이후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일기 시작하였다. 이는 언어의 규칙이나 형태에 관한 지식 이 인간이 상호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한상미, 2005: 35).

Bachman(1990:87)은 '의사소통 언어 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 ility) 이 지식과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면서 크게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정신생리학적 기제로 나누었다. 언어 능력은 다시 조직적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구분되고 화용적 능력은 상대방과 상황의 관계에서 맥락에 맞게 발화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는 다시 발화 수반 능력과 사회언어학적 능력으로 나뉜다. 발화수반 능력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으로 발화 내용을 통해 목적과 의도를 전달하고 이해 함으로써 행위로 연결되게 하는 능력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언어의 문화적 측면으로 특정 언어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언어 사용 관습을 이해하고 존대, 화계, 방언, 변이, 은유 등

과 같은 문화적 기준과 수사적 표현을 적절하게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소아(2017: 28)에 의하면 화용적 능력은 맥락에 맞게 언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대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적 지식[3]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2언어 학습자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정보가 모어 화자에 비해 부족하므로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2.3. 화용적 실패

화용적 능력이란 맥락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Thomas, 1983: 92). 화용적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기 못할 때 발생하는 화용적 실패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다. 다양한 정의들 중 Thomas(1983)의 개념을 보완하여 화용적 실패를 정의하고자 한다.

Thomas (1983)에서는 화용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발화 내용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그 하위 범주로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를 제시하였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발화가 수반하는 화용적 힘을 언어로 부호화할 때,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간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목표 언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담화적 또는 상호작용적 실수로 사회화용적 실패는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언어 행위에 대한 문화적 차이나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상미(2005)는 화용적 실패란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비모어 화자가 목표언어에 대한 화용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맥락에 부적절한 발화나 이해를 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았다(염수, 2013: 7).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실패를 '모어-비모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비모어 화자가 목표어에 대한 화용적 측면의 언어 사용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해 단계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다르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실패한 발화나 반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화자의 화용적 실패를 다룸에 있어서 화용적 이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문법, 어휘, 표현 그리고 의도 등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대상

예비 실험에서 한국인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중국인, 태국인 초급(토픽 2급) 학습자 각각10명을 대상으로 화용적 실패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실험하고 분석한 다음 예비 실험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시 본 실험을 진행하고 상황별, 언어권별로 화용적 실패 양상과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맥락적 지식은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대화가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표2> 실험 참여자 정보

예비실험			본 실험		
2018.06.01-2018.06.10			2018. 6.13-2018.06.23		
국적	참가자	한국어 숙달도	국적	참가자	한국어 숙달도
한국	10명	모국어	한국	10명	모국어
중국	10명	초급 2급(1학년)	중국	10명	초급 2급 (1학년)
태국	10명	초급 2급(1학년)	태국	10명	초급2급 (1학년)

3.2. 실험 도구

3.2.1. 분석 틀

Richards and Sukwiwat(1985)에서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동일한 상황에서 상이한 표현이 쓰이는 경우', '동일한 표현이 상이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세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사마외디 강해, 황선영2017:33).

사마외디 강해, 황선영(2017)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차이로 인한 화용적 오류의 사례를 찾아보기 위하여 문법 표현과 상투적 표현[4]에서 '태국인은 사용하 지만 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항목'과 '한국인은 사용하지만 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 지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염수(2013)에서는 화용적 실패를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로 나누고, 화용언어적 실패를 의미 표현과, 의미 이해, 의도 표현과 의도 이해로 분류하였고, 사회 화용적 실패를 불손 표현, 과도 공손, 가치관 표현과 가치관 이해로 분류하고 수용성 판단 테스트 (AJT)와 담화완성테스트(DCT)로 화용적 실패 양상과 숙달도별 실패 원인을 살펴보았다.

Austin(1962)는 담화 차원에서 발화 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의미)'과 '말하고자 하는 것(의도)' 두 가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듣기는 이런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화를 산출하거나 적합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세우고 중국, 태국 학습자들의 화용언어적 실패를 다음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 틀을 정하고

[4] '상투적 표현'은 Bardovi-Harlig(2010)의 'conventional expressions'을 의미한다. Bardovi Harlig (2010)에서 'formula, routine'이라는 용어는 표현 전체가 덩어리로 저장되어 습득이 가능함 을 전제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각 상황에 맞는 표현이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되므로 'con ventional expressions' 이라는 용어로 'good morning'과 같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상투적 표현에 대한 습득 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연구에서는 이를 '고정적인 화용 표현' (문금 현,2009), '상투적 표현' (하지혜, 2014)이라고 번역하였다(사마외디 강해, 황선영2017:30).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예비실험에서는 화용적 실패를 화용언어적 실패, 사회 화용적 실 패 측면에서 의미, 의도 , 가치관 등 상황에서 이해 실패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본 실 험에서는 예비 실험에서의 분석 틀을 수정 보완하여 화용언어적 실패 측면에서의 어휘, 문법, 표현, 의도 등 이해 실패 상황으로 나누어 모어화자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3> 예비 실험 분석 틀과 본 실험 분석 틀

<table>
<tr><th colspan="3">예비 실험 분석 틀</th><th colspan="2">본 실험 분석 틀</th></tr>
<tr><td rowspan="3">화용적 실패</td><td rowspan="2">화용언어적 실패</td><td>의미 이해 실패</td><td rowspan="4">화용언어적 실패</td><td>어휘 이해 실패</td></tr>
<tr><td>의도 이해 실패</td><td>문법 이해 실패</td></tr>
<tr><td rowspan="2">사회화용적 실패</td><td rowspan="2">가치관 이해 실패</td><td>표현 이해 실패</td></tr>
<tr><td>의도 이해 실패</td></tr>
</table>

3.2.2. 실험 문항 구성 원리

<표3>의 분석 틀에 따라 외국인 학습들로부터 실제 한국인 모어화자와의 의사소통 상황 듣기 이해에서의 화용적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실험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문항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태국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이해 상황에서 실제 겪었던 화용적 실패 사례를 수집한다.
2) 화용적 실패 사례를 분석 틀에 따라 정리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해 본다.
3) 예비 실험은 설문지로 진행하되 담화완성테스트[5](Discourse Completion Test)를 통해 화용적 이해 정도를 및 산출을 살피고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하도록 한다.
4) 예비 실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실험에서 분석 틀과 설문 문항, 설문 방법을 수정 보완한다.
5) 본 실험은 실제 음성 파일로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듣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용적 실패 상황에 대하여 수용성판단테스트[6](Acceptability Judge ment Test)로 이해 및 수용성을 살펴보고자 본다.

3.2.3. 예비 실험 구성

[5] 담화완성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는 담화생산능력을 살피기 위한 담화완성테스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듣기에서 화용적 이해 정도를 보기 위해 예비실험을 담화완성테스트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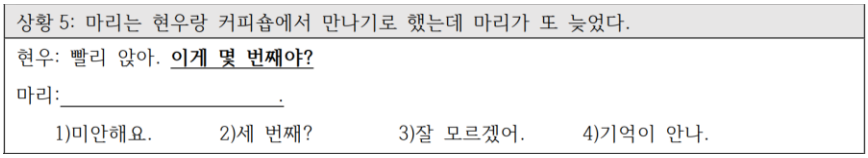
[6] 수용성판단테스트(Acceptability Judge ment Test)는 이해 능력을 살피기 위한 수용성판단테스트인데 본 연 구에서는 의사소통 듣기에서의 화용적 의미를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본 실험에서 음성 파일로 직접 담화상황을 듣고 수용성판단테스트를 척도별로 살펴보고 학습자들이 다시 모국어로 번역하거 나 선택 이유를 쓰도록 한다.

<표4> 예비 실험 설문 구성

화용적 실패	화용언어적 실패	의미 이해 실패	방문 목적 질문에 대한 이해
			신분 질문에 대한 이해
			매진 상황 설명에 대한 이해
		의도 이해 실패	작별 인사에 대한 이해
			비난 의도에 대한 이해
			거절에 대한 이해
	사회화용적 실패	가치관 이해 실패	'우리'에 대한 이해
			'국수'에 대한 이해
			'질투'에 대한 이해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비 실험은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의 측면에 서 의미 이해, 의도 이해, 가치관 이해를 위주로 여러 상황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그림2]는 예비 실험 설문지의 의도 표현에 관한 화용적 이해 문항인데 설문에서 제 시된 대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하는지를 통하여 화용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상황 5: 마리는 현우랑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마리가 또 늦었다.
현우: 빨리 앉아. **이게 몇 번째야?**
마리: _____.
1)미안해요. 2)세 번째? 3)잘 모르겠어. 4)기억이 안나.

[그림2] 예비실험 설문 문항 예시

3.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를 다음 <표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절차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인, 태국인 학습자들로부터 화용적 실패 경험을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한다. 다음 분석 틀에 따라 화용적 실패 설문지를 구성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한다. 그 다음 예비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보다 실제성 있게 실제 듣기 파일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중국과 태국의 초급 학습자들이 화용적 이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화용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5> 연구 절차

외국인 학습자들로부터 화용적 실패 경험 수집 → 화용 이해 실패 자료 정리 → 화용 이해 실패 설문지 구성 → 예비 실험 실시 → 예비 실험 결과 분석 → 분석 틀, 설문 문항 수정 → 본 실험 실시 → 본 실험 결과 분석 → 결론

4. 이해 상황에서의 화용적 실패 분석

4.1 예비 실험 결과 분석

4.1.1. 상황별

이 부분에서는 화용적 실패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실험에서 제시된 9 가지 상황을 통하여 외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모어화자의 발화를 듣고 이를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비 실험에서 상황별로 분석해 본 결과 화용적 이해 정확도로 보면 '떨어지다', '배가 아프다' 95%', '어떻게 오셨어요?'90%로 화용적 실패를 적게 보였고, '국수를 먹이다', '못 갈것 같다'에서 각각, 35%와 25%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생들이 화용적 이해 상황에서 의미에 대한 이해보다 의도에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 상황을 더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4.1.2. 언어권별

<표6> 언어권별 설문조사 결과

화용적 실패		상황	한국인	중국인	태국인
화용언어적 실패	의미 이해	방문 목적 질문에 대한 이해	2	2	1.8
			100%	100%	90%
		신분 질문에 대한 이해	1.8	1.6	1.2
			90%	80%	60%
		매진 상황 설명에 대한 이해	2	1.8	1.7
			100%	90%	85%
	의도 이해	작별 인사에 대한 이해	2	1.8	1.2
			100%	90%	60%
		비난 의도에 대한 이해	2	1.8	1.6
			100%	90%	80%
		거절에 대한 이해	1	0.8	0.2
			50%	40%	10%
사회화용적 실패	가치관 이해	'우리'에 대한 이해	2	0.8	1.4
			100%	40%	70%
		'국수'에 대한 이해	2	0.2	1.1
			100%	10%	55%
		'질투'에 대한 이해	2	1.8	1.8
			100%	90%	90%
총점			16.8	12.6	12
퍼센트			93%	70%	66.67%

<표6>에서 보면 한국인 모어화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평균 16.8점(93%)로 나왔는데 상황2 '신분 질문'에 대한 이해'가 1.8점(90%)나왔고, 상황6 '거절에 대한 이해' 1점(50%)나왔고, 다른 상황은 모두 2점(100%)로 나왔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듣기 화용적 이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만점 18 점에서 평균 점수가 12.6점(70%)로 나타났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사회화용적 실 패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에서의 실패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도에 대한 이 해에서 실패가 많았고,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듣기 화용적 이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설문의 총 점수 18점 중 태국인 학습자들의 총점수가 12점 (66.67%)로 결

과가 나왔다. 이를 보면 태국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듣기 화용적 이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본 실험 실험도구

예비 실험을 통하여 분석 틀을 화용적 이해에 더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예비 실험에서 모어 응답자들도 화용적 실패를 보인 2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예비실험에서 사용했던 담화완성테스트(DTC)를 조정하여 본 실험에서는 화용적이 해에 대한 수용성판단테스트(AJT)를 사용하였는데 실험도구도 단순한 설문지로부터 실제 한국인이 대화하는 듣기 파일을 듣고 이에 대한 화용적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다.

4.2.1. 본 실험 분석 틀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 후 수정, 보완한 분석틀에 따라 사회화용적 실패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화용언어적 실패를 어휘 이해 실패, 문법 이해 실패, 표현 이해 실패, 의도 이해 실패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표7>에서처럼 이해 실패의 유형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표7> 본 실험 분석 틀

	유형	유형 설명
화용언어적실패	어휘 이해 실패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의어나 한국의 특정 문화에서 형성된 어휘를 담화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문법 이해 실패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관련 문법의 형태, 의미,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했으나 실제 상황에서 형성된 특별한 문법적 의미를 담화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표현[7] 이해 실패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 전체가 덩어리로 저장된 상투적 표현을 담화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도 이해 실패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 표현을 담화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4.2.2 본 실험 설문 구성

<표8> 본 실험 설문 구성

	유형	순서	상황
화용언어적 실패	어휘 이해 실패	1	매진 상황 설명에 대한 이해
		2	지각 상황 설명에 대한 이해
		3	'우리'에 대한 이해
	문법 이해 실패	4	'-ㅂ/읍시다' 사용 상황에 대한 이해
		5	'-겠-' 사용 상황에 대한 이해
	표현 이해 실패	6	방문 목적 질문에 대한 이해
		7	신분 질문에 대한 이해
		8	'결혼' 관련 질문에 대한 이해
		9	'질투' 관련 질문에 대한 이해
	의도 이해	10	작별 인사에 대한 이해

[7] 하지혜(2014) 에서의 번역된 상투적 표현을 가르킨다.

	실패	11	비난 의도에 대한 이해
		12	거절에 대한 이해

<표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실험은 화용언어적 실패의 측면에서 의미 이해, 문법 이해, 의도 이해, 가치관 이해를 위주로 여러 상황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그림3]는 본 실험 설문지에서 문법 이해에 관한 화용적 이해 문항인데 설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음성 파일을 듣고 담화 상황에서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척도로 살펴보고 판단의 이유를 적게 하므로 이해 정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다.

상황 5: 미장원에서 마리와 미용사의 대화이다.
(듣기 파일) **미용사: 손님,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다.** 마리:네? 아. 그럼 **기다릴게요.**
질문 1: 들은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1)부적절하다 2)약간 부적절하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질문 2: 이유를 적어 주세요. (모국어로 가능)**

[그림3] 본 실험 설문 문항 예시

4.3. 본 실험 분석

본 실험은 화용적 이해 및 실패에 대한 수용성판단을 목적으로 4간 척도로 화 설정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부적절은 3점, 약간 부적절은 2점, 적절은1점, 매우 적절이나 무응답의 경우, 선택만 하고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는 모두 0점으로 하 였다.

4.3.1.상황별

본 실험에서 상황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황 6‘어떻게 오셨어요?’(85%) > 상 황9 ‘배가 아프다’(60%) > 상황3‘우리’(55%) >상황1‘떨어지다’(50%) >상황 7‘어디시죠?’와 상 황 11 ‘몇 번째야?’(45%) >상황 2‘시원하다’(35%) > 상황 8, ‘국수를 먹이다’(30%) > 상황3 ‘-ㅂ시다’, 상황10 ‘밥이나 먹자’, 상황5 ‘-겠-’(25%) >상황12, ‘-못 갈 것 같 아 ’(20%) 순으로 나왔다.

상황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1, 카페에서 마리와 사장님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이라는 답변은 10명 (50%), ‘약간 부적절’은 10명 (25%), ‘적절’은 5명(25%), ‘매우 적절’ 이라는 답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2, 한 식집에서 마리와 현우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 7명 (35%), ‘약간 부적절’은 13명 (65%), ‘적절’, ‘매우 적절’이라는 답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3, 정은과 마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11명 (55%), ‘약간 부적절’은 3명 (15%), ‘적절’은 5명(25%), ‘매우 적절’은 1명(5%)로 나타났다.

상황4, 버스안에서 마리와 어저씨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5명 (25%), ‘약간 부적절’은 7명 (35%), ‘적절’은 7명(35%), ‘매우 적 절’은 1명(5%)로 나

타났다. 상황5, 미장원에서 마리와 미용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5명 (25%), ‘약간 부적절’은 7명 (35%), ‘적절’은 7명(35%), ‘매우 적절’은 1명(5%)로 나타났다.

상황6, 약국에서 마리와 약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 절’은 17명 (85%), ‘약간 부적절’은 3명 (15%), ‘적절’, ‘매우 적절’이라는 답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7, 마리와 조교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9명 (45%), ‘약간 부적절’은 8명 (40%), ‘적절’은 2명(10%), ‘매우 적절’은 1명(5%)로 나타났다. 상황8, 현우, 정은, 마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6명 (30%), ‘약간 부적절’은 3명 (15%), ‘적절’은 5명(25%), ‘매우 적절’은 6명 (30%)로 나타났다. 상황9, 정은, 가연, 마리의 대화 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12명 (60%), ‘약간 부적절’은 5명 (25%), ‘적절’은 2명(10%), ‘매우 적절’은 1명 (5%)로 나타났다.

상황10, 현우와 마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5명 (25%), ‘약간 부적절’은 5명 (25%), ‘적절’은 6명(30%), ‘매우 적절’은 4명(20%) 로 나타났다. 상황11, 현우와 마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9명 (45%), ‘약간 부적절’은 7명 (35%), ‘적절’은 2명(10%), ‘매우 적절’은 2명(10%)로 나타났다. 상 황12, 정은와 마리의 대화에 대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은 4명 (20%), ‘약 간 부적절’은 7명 (35%), ‘적절’은 4명 (20%), ‘매우 적절’은 5명(25%)로 나타났다.

4.3.2. 언어권별

<표9> 언어권별 설문 조사 결과

나라 / 상황	중국		태국	
	평균	%	평균	%
1. 떨어지다	1.9	63	2.6	87
2. 시원하다	2.1	70	2.2	73
3. 우리	1.9	63	2.5	83
4. -(으)ㅂ시다	1.6	53	2.0	67
5. -겠-	1.7	56	1.7	57
6. 어떻게 오셨어요?	2.8	93	2.9	97
7. 어디시죠?	2.1	70	2.4	80
8. 국수를 먹이다	1.1	37	1.8	60
9. 배가 아프다	2.3	77	2.5	83
10. 밥이나 같이 먹자.	2.2	73	0.9	30
11. 이게 몇 번째야?	2.3	87	2.0	67
12. 못 갈 것 같아	1.3	43	1.7	57
평균점수	1.95	65	2.1	70

중국인 학습자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상황 6,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표현에 대 한 문항 에는 평균 점수 2.8점으로 최고의 점수가 나온 반면 상황 8, ‘국수를 먹 이다’에 대한 이 해는 평균 점수 1.1점, ‘못 갈 것 같아’가 1.3점으로 점수가 아주 낮았다. 그리고 평균

점 수로 보면 태국 학습자들보다 낮지만 12개 상황에서 모두 만점 받은 학생이 2명 있었는 데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황6처럼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화용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상황8 '국수를 먹이다', 상황 12상대방이 '못 갈거 같아'라고 했을 때 그 표현에 대한 화용적 이해와 의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용적 실패를 많이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수를 먹이다'는 한국어에서 '결혼하다'의 의미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생일에 장 수면을 먹기 때문에 국수를 먹는다고 하면 생일이냐고 묻는다든가 혹은 실제로 '국수라 는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못 갈 것 같아'는 거절화행인데 학 습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 들었지만 거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물 어보는 화용적 실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으므로 화용적 이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오셨어요' (93%) > 몇 번째야?' (87%)> '배가 아프다' (77%)> '밥이나 먹자' (73%) > '어디 시죠?', '시원하다' (70%)> '떨어지다' ,'우리'(63%), > '-겠-' (56%) > '-ㅂ시다' (53%)> '못 갈 거 같아' (43%) > '국수를 먹이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 9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질투의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 배가 아닌 눈으로 '눈이 빨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황11 '몇 번째야?'라는 질책 의도의 표현은 중국어 담화 상황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상황10 '밥이나 먹자'라는 작별 인사 표현은 중국에서 친한 사람들 사이에도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며, 상황1'떨어지다'는 중국어에서 보조 용언의 형식으로 '완료상'을 표현하는 '…(吃)掉, …(卖)光' 등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용적 실패에서 수용성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상황2 '시원하다'는 중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상황7 '어디시죠?'는 중국어에서 는 신분을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 상황4 '-ㅂ시다'는 본디 문법적 의미와 달리 담화 상황 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위해 뭔가 도움을 주는 공통된 움직임' 이라 는 뜻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 '내립시다'가 사용되는데 중국어에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상황5 '-겠-'은 보통 '-으시겠어요?'로 청자의 의도나 생각을 질문하는 기능이나 '-겠습니다'의 형태로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다'는 청자에 대한 공손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설문지에서 화자의 쉬고 싶다는 의도 표현으로 오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이 꽤 높았다.

예비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예비 실험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상황에서 전부 정확히 답하였지만 듣기 파일로 화용적 이해 수용성을 판단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예비실험보다 이해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들 이 더 많은 화용적 실패를 겪을 수 있음을 엿볼 수도 있다. '방문 목적 질문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경우 학습자들은 100%로 정확히 이해했지만 본 실 험에서는 93%만 정확히 이해했다. 예비실험과 본 실험에서 '매진 상황 설명에 대한 이 해', '작별 인사에 대한 이해', '질책 의도에 대한 이해', '질투'에 대한 이해' 등 상황에서 모두 비슷한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것이 원

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도는 본 실험에서 듣기 파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화용 적 이해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상황 6,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표 현에 대한 문항에는 평균 점수 2.9점으로 최고의 점수가 나온 반면 상황 10, '밥이나 먹자'의 표현 사용 이해에서는 평균 점수 0.9점으로 점수가 제일 낮았다. 즉,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화용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만 '밥이나 먹자'라는 인사말에대한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표현이 있지만 교통 수단에 대한 의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교실에서 초급부터 인사 표현들이 학습자들이 이를 잘 학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밥이나 먹자'라는 인사말에 대한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태국에서 '시간 이 있을 때 밥이나 먹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는 이런 경우에 태국에서는 진짜 밥 먹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한테 이에 대한 혼란이 가장 많았 다고 본다.

태국인 학습자들의 화용적 실패의 상세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다. '어떻게 오셨어요?' (97%) > '떨어지다' (87%) > '우리', '배가 아프다' (83%) > '어디시죠?' (80%) > '시원하다' (73%) > '-ㅂ시다', '몇 번째야?' (67%) > '국수를 먹이다' (60%) > '-겠-', '못 갈 것 같다' (57%) > '밥이나 먹자'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의 점수 외 학습자들이 오류가 많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 그 원인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번째로 오류가 많았던 상황12와 상황5를 보면 상황8의 경우 태 국에서는 '국수를 먹이다'라는 표현이 없다. 상황4, 11의 경우, 태국에서는 버스에서 내 릴 때 이런 표현을 아예 안 쓰고, '내릴 거예요. 좀 비켜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쓴다. '-ㅂ시다'은 청유문에서만 쓰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몇 번째야?'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황2의 경우, 태국 에서 '시원하다'라는 어휘가 있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들이 '시원하다'라는 어휘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황7의 경우, '어디 시죠?'라는 표현의 경우 태국에서도 이런 질문과 같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황3, 9의 경우, '우리'대신 '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실험 대상자의 반 이상이 '우리'라는 어휘로 화용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태국에서 '배가 아프다'와 같은 표현이 없지만 질 투에 관련한 '눈이 뜨겁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태국인 학습자들한테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점수가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상황1의 경우, 태국 인 학습자들이 '떨어지다'라는 어휘를 잘 이해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비 실험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예비실험에서는 '밥이나 먹자'라는 작별 인사에 대한 이해에 점수가 최저의 점수였으나 듣기로 실험하는 본 실험에서는 이에 대한 점수가 제일 낮았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이 문어로 보는 것보다 실제 듣기로 대화를 들을 때 이런 맥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항으로만 볼 때보다 듣기로 볼때 화용적 맥락을 더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5. 결론

화용적 이해에 대한 AJT설문조사를 통해 상황별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다.상황 6‘어떻게 오셨어요?’ (85%) > 상황9 ‘배가 아프다’ (60%) > 상황3‘우리’ (55%) >상 황1‘떨어지다’ (50%) >상황 7‘어디시죠?’ 와 상황11 ‘몇 번째야?’ (45%) >상황 2‘시원하다’ (35%) > 상황 8, ‘국수를 먹이다’ (30%) >상황3 ‘-ㅂ시다’, 상황10 ‘밥이나 먹자’, 상황5 ‘-겠-’ (25%) >상황12, ‘-못갈 것같아’(20%)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황적 맥락 의존도가 크면 화용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어 실패에 대한 수용성이 낮았다. 반면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의도 표 현에 대한 이해가 결핍했기 때문에 화용적 실패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언어권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과 태국인 학습자들이 모두 ‘어떻게 오셨어요’ (93%)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학생들이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국수를 먹이다’이다. 이는 모국어의 ‘국수를 먹다’가 한국어의 ‘국수를 먹이다’와 전혀 다른 의미이고 또한 이 대화문 역 시 상황 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화용적 실패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태국인 학 습자의 경우 ‘못 갈것 같다’와 ‘밥이나 먹자’에 대한 실패 수용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태국어의 직접적인 언어 표현 특성과 약속의 말로 헤어짐을 표하는 경우가 없는 태국 문 화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화용적 실패에 대해 의사소통 듣기와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중국과 태국인 학습자를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화용적 이해도를 살펴보려고 실패 양상에 대한 수용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사고해 보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절차를 예비실험과 본 실험으로 진행하였으나 각 집단마다 상황에 따라서 예비실험과 달리 의사소통 화용적 실패 상황에 높은 수용성 보일 때도 있었고 더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상황도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언어권별 의사소통 화용적 실패와 원인을 분석하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교육방안이나 교수 학습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대상자 수를 늘리고 연구 방법도 더 수정 보완하여 후속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소아(2017). 일본인 학습자 대상 거절 화행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선(2001). 인지-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듣기 교육,독도독문학77권0호,P-389~412

김태연(201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화용적 실패 연구, 한국어문 화교육학회, Vol-13, No.3, 27~52.

사마와디 강해, 황선영(2017).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표현 인식 연구, 이중언어 학회, 제68호, 27~57.

염수(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실패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북자(2014). 목표어사회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화용이해에 미치는 영향-거절 화행과 함축의견이해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Vol-10, No.2, 111 ~141.

이정란(2010).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연구, 이중언어학, 제42호, 167~194.

_____ (2011).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력과 이해 능력 비교-추측, 희망 표현의 화행실현을 중심으로-, 중언어학, Vol-46, 297~319.

이해영(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교육, 이중언어학, 제21호, 46~70.

_____ (2016). 한국어 교육에서의 비교문화적 화행연구와 교육적 적용, 국어국문학,176, 91~113.

_____ (2017).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 듣기 전략, 듣기 불안, 듣기 노출시간의 상관성-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Vol-28, No.3, 85~104.

정혜선(2017). 프립러닝을 활용한 화용 교수가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관례어 이해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환민(2013).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사회적 상호작 용을 적용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지혜(2014),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대화에 나타난 상투적 표현 이해 연구, 이중 언어학 55권 (435-455).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

듣기이해 저해 요인 분석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이암, 유지연

대련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듣기이해 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문법, 어휘, 발화속도로 요인으로 삼아 문항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과연 학습자들이 듣기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듣기 교육의 방향성과 듣기 지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정선화(2014)와 이해영(2016)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듣기 교육에서 그간의 연구들이 상당수가 교수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윤정기, 2013; 한인숙, 2014; 이해영, 2017). 그러나 어휘, 문법, 발화속도가 듣기 이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학습자 듣기에 있어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발점부터 시작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먼저 영어교육에서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로 어휘나 문법, 또한 발화속도와 관련된 실험 연구를 정리한 후 한국어교육에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박기표(2001)에서는 듣기에서는 단어를 듣고 여러 개의 단어를 문법 지식에 의하여 의미가 통하도록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어휘와 문법 지식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능력이 듣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실제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효정(2008)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듣기에 미치는 요인, 집단별 차이, 그리고 듣기 이해 요인과 듣기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듣기 요인 크게 5가지 범주, 20개 요인으로 나누어 어휘나 통사적 복잡성, 그리고 발화속도도 학습자 집단별로 영향을 끼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과연 어휘나 문법, 또한 발화 속도 중 어느

요인이 학습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강경은(2009), 문보라(2009), 한문섭·이진석(2010)도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영어교육과 달리 한국어교육에서 어휘나 문법 같은 언어적 지식으로 학습자가 듣기에 어려움을 느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질적이나 양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듣기가 어렵다고 할 때 과연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하기보다 시험지를 통해 각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알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내 듣기이해와 발화 속도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는 주로 영어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병은(1998), 한희정(1998), 신희문(2003), 김은지· 양병곤(2004), 정겨운(2009), 최선경(2009), 이민경(2013), 박선미(2014)등이 있다. 신희문(2003)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보통 발화 속도로 영어 듣기 수업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학생들이 정상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흥미도가 점점 감소하였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적응하여 흥미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즉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화와 같은 정상 속도로 영어 듣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선미(2014)에서는 현재 영어 듣기 시험 속도보다 10%, 20%, 30%로 상향한 후 듣기 평가와 설문지를 통해 고등학생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빨른 속도는 듣기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상집단 학습자에게 30%로 높인 속도로 들어줘도 점수에 약간 높게 나타나 하집단 학습자에게도 10%보다 20%로 높인 속도로 들어주면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하였다. 이들과 반면에 국내 영어교육에서도 발화속도가 듣기 이해에 상위집단이든 하위집단이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최선경,2009).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까지 발화 속도와 듣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정성헌(2018)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듣기 곤란 요인 중에서 발화 속도가 숙달도별로 어떤 난도와 정답률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발화 속도가 상위집단보다 하위집단인 학습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발화 속도로 인한 부담이 듣기 내용의 길이나 통사적 복잡성, 학습자 간의 친숙성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더 붙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이해하는 데 저해 요인 중 어휘, 문법, 발화 속도가 각각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문법, 어휘, 발화 속도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중국 소재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27명이다.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한 대학의 <중급 한국어 듣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나 듣기 숙달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재 학과 지난 학기 <중급 한국어 듣기>수업 기말 시험 성적을 참조하여 동질한 듣기 숙달도의 실험 참여자 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실험 도구 제작

본 연구는 문법, 어휘 그리고 속도가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로 각 요인들이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듣고 이해한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설문 문항도 추가하였다. 듣기를 평가하는 과제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본 연구는 양명희(2011)에서 제시한 듣기 평가 과제 유형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로 학습자들이 내용을 듣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 따라서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과제로는 학습자들의 각 문항마다 이해 정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고 보아 내용을 듣고 요약하는 주관식 과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요약할 때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어의 부족으로 인해 요약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듣기에서 학습자들이 들은 내용을 요약하기에 대화에서 보다는 독백이 중심 내용 전달에서 용이할 것으로 보아 독백 장르를 선정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 배경지식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와 강연으로 나누었다. <중급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실험 참여자들이 자주 접하는 읽기 자료는 설명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강연 문항은 설명문과 같이 머리말,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시, 열거, 분류, 대조, 비교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렇지만 뉴스는 실험 참여자들이 한국어로 아직 접해 보지 못한 장르이다. 아나운서와 기자의 독백과 중간에 삽입된 인터뷰의 형식이 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듣기 내용 선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2017:136-147)에서 제안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기술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국통3,4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 내용을 듣고 세부내용과 중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5.6급에서는 친

[1]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이하 국통으로 표기한다.

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내용을 듣고 세부내용과 중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배경지식이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강연의 주제와 내용은 문화, 사고, 자기개발과 같은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뉴스는 경제, 사회 문제, 스포츠와 같이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주제와 내용을고 구성하였다, 다음은 내용 듣고 이해하기 과제에서 선정한 뉴스와 강연의 주제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텍스트 유형	뉴스			강연		
	뉴스1	뉴스2	뉴스3	강연1	강연2	강연3
주제	경제	사회 문제	스포츠	문화	사고	자기개발
내용	경제 불황	교통사고	동계 올림픽	사투리	선입견	독서법

<표 1>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듣기 자료 주제와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에서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은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문법과 어휘 그리고 속도 가운데 듣기 이해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먼저 실제 뉴스와 강연을 전사한 자료를 선정한 후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게 길이와 내용을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자의 평균 숙달도는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정도의 수준이다. 문법, 어휘, 숙도 각 요인에 따라 듣기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6개의 주제의 듣기 내용을 요인별로 개작하였다. 어휘와 문법의 숙달도는 국통(2017)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숙달도보다 높은 문법과 어휘로 내용을 개작하여 문법의 난이도가 높은 문항, 어휘의 난이도가 높은 문항, 속도가 빠른 문항으로 내용별로 각 3문항을 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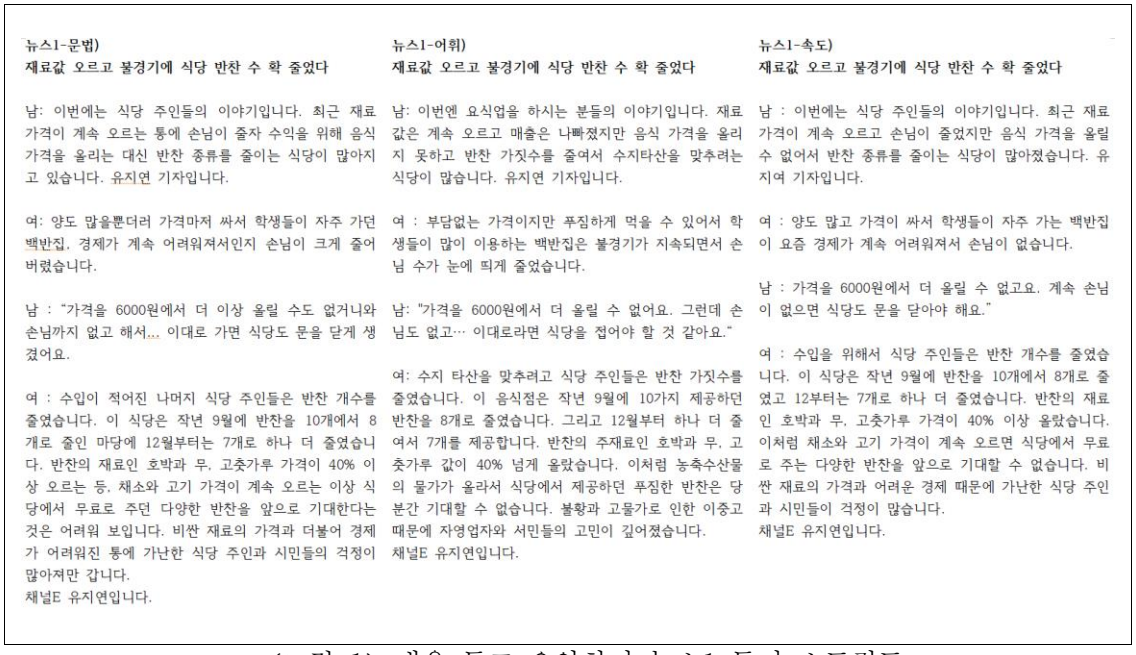
따라서 뉴스는 총 9문항, 강연도 총 9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에서 각 유형별로 문법 유형의 문항은 어휘와 속도를 통제하였고 어휘 유형의 문제는 문법과 속도를 통제하였으며 속도 유형의 문항의 경우 어휘와 문법을 통제하여 속도만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실험 참여자가 같은 내용의 문제를 두 번 듣지 않도록 3가지 유형의 시험지A, B, C로 구성하였다. 어휘, 문법, 속도 요인을 모두 포함했고 6개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시험지A, B, C 는 동질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내용 듣고 요약하기 문항 구성표이다.

문항번호	문항 유형		
	시험지 A	시험지 B	시험지 C
1	뉴스1-문법	뉴스1-어휘	뉴스1-속도
2	뉴스2-어휘	뉴스2-속도	뉴스2-문법

3	뉴스3-속도	뉴스3-문법	뉴스3-어휘
4	강연1-문법	강연1-어휘	강연1-속도
5	강연2-어휘	강연2-속도	강연2-문법
6	강연3-속도	강연3-문법	강연3-어휘

<표 2> 내용 듣고 요약하기 문항 구성

다음으로 내용 듣고 요약하기 문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그림 1>은 뉴스1의 문법, 어휘, 속도의 듣기 스크립트이다.



뉴스1-문법)
재료값 오르고 불경기에 식당 반찬 수 확 줄었다

남: 이번에는 식당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는 통에 손님이 줄자 수익을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반찬 종류를 줄이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여: 양도 많을뿐더러 가격마저 싸서 학생들이 자주 가던 백반집, 경제가 계속 어려워져서인지 손님이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남 : "가격을 6000원에서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거니와 손님까지 없고 해서... 이대로 가면 식당도 문을 닫게 생겼어요.

여 : 수입이 적어진 나머지 식당 주인들은 반찬 개수를 줄였습니다. 이 식당은 작년 9월에 반찬을 10개에서 8개로 줄인 마당에 12월부터는 7개로 하나 더 줄였습니다. 반찬의 재료인 호박과 무, 고춧가루 가격이 40% 이상 오르는 등, 채소와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상 식당에서 무료로 주던 다양한 반찬을 앞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싼 재료의 가격과 더불어 경제가 어려워진 통에 가난한 식당 주인과 시민들의 걱정이 많아져만 갑니다.
채널E 유지연입니다.

뉴스1-어휘)
재료값 오르고 불경기에 식당 반찬 수 확 줄었다

남: 이번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료값은 계속 오르고 매출은 나빠졌지만 음식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식당이 많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여 : 부담없는 가격이지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반집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 "가격을 6000원에서 더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손님도 없고… 이대로라면 식당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여: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식당 주인들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이 음식점은 작년 9월에 10가지 제공하던 반찬을 8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하나 더 줄여서 7개를 제공합니다. 반찬의 주재료인 호박과 무, 고춧가루 값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올라서 식당에서 제공하던 푸짐한 반찬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 때문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채널E 유지연입니다.

뉴스1-속도)
재료값 오르고 불경기에 식당 반찬 수 확 줄었다

남 : 이번에는 식당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손님이 줄었지만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반찬 종류를 줄이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유지여 기자입니다.

여 : 양도 많고 가격이 싸서 학생들이 자주 가는 백반집이 요즘 경제가 계속 어려워져서 손님이 없습니다.

남 : 가격을 6000원에서 더 올릴 수 없고요. 계속 손님이 없으면 식당도 문을 닫아야 해요."

여 : 수입을 위해서 식당 주인들은 반찬 개수를 줄였습니다. 이 식당은 작년 9월에 반찬을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12부터는 7개로 하나 더 줄였습니다. 반찬의 재료인 호박과 무, 고춧가루 가격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처럼 채소와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식당에서 무료로 주는 다양한 반찬을 앞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싼 재료의 가격과 어려운 경제 때문에 가난한 식당 주인과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채널E 유지연입니다.

<그림 1> 내용 듣고 요약하기 뉴스1 듣기 스트립트

요인에 따라 같은 내용이지만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를 다르게 선택해 스트립트를 구성했다. 문법의 경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2017)에서 4급 이상의 문법으로 제시된 '-는 통에, -을뿐더러, -마저, 아/어 버리다, -게 생기다, -아/어서인지. -(으)ㄴ 이상' 등의 문법과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문법의 복잡성을 위해 복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켰다. 어휘의 경우 문법의 난이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4급 미만을 문법을 사용하고 통사적이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 단문으로 수정하였다. 다만 '요식업, 가짓수, 수지타산, 푸짐하다. 불경기, 제공하다, 불황, 고물가, 이중고, 자영업자 ' 등의 어휘와 '눈에 띄다, 식당을 접다' 등의 연어로 구성하였다, 다음 속도에서는 어휘, 문법을 모두 3급 수준으로 통제한 후 속도를 조절하였다, 문법과 어휘 문항과 비교했을 때 속도 문항의 경우 분당 어절의 수(SPM)가 2배정도 차이가 났다.

3.3 실험 방법

실험은 2018년 6월, 대학 교수의 감독 아래 실시하였다. 27명의 학습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그룹은 9명의 학습자로 구성되었다. 듣기 문항은 휴지 없이 2번 들려주었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주었다.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었다.

시험지의 첫 번째 문항은 들은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학습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10간 척도를 사용했고 1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 했을 경우 10점은 모두 이해했을 경우 선택하도록 했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프로그램 25.0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통계 검정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본 예비실험에서 숙달도가 시험지마다 고르게 분포되지 못해 27명의 실험 참여자의 자료 중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9명의 학습자들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한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는 30점 만점이다. 뉴스와 강연 모두 3가지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1~9점, 10~19점, 20~29점으로 나누어 중심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채점하였고 각 중심 내용의 세부 내용을 요약한 정도에 따라 점수의 차이를 주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한 실험 참여자에게는 30점,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응답에는 0점으로 코딩하였다.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학습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구성한 문제에서는 10간 척도를 사용하여 이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수록 10점에 가까운 점수로 코딩하였다.

어휘, 문법, 발화 속도가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NA)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할 때 형식, 내용과 친숙한 강연과 친숙하지 않은 뉴스를 분리해서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결과에 따라 어휘, 문법, 발화 속도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뉴스 문항에서 실험 참여자들의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평균을 듣기이해 저해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문법	9	9	5.3033
어휘	9	5	4.9749
발화 속도	9	11.2	2.1953

합계	27	8.4	1.1610

<표 3>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뉴스 문항 요인별 기술통계

<표3>의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의 난이도가 높았을 때 학습자들이 듣기 이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세 가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표 6>은 그 결과이다.

요인 유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뉴스	집단 -간	176.167	2	88.083	2.745	.084
	집단-내	770.000	24	32.083		
합계			26			

*p<0.05

<표 4>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뉴스 문항의 요인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세 요인의 평균 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2.745, 유의확률 .084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듣기이해에 미치는 요인에 따라 학습자들의 뉴스 문항의 듣고 내용요약하기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법, 어휘, 속도가 듣기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차이가 없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효과크기를 보고하고자 한다. 효과 크기를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효과 크기를 통해 통계적을 충분한 표본의 수가 있다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내용 듣고 요약하기 뉴스 문항에서 문법과 어휘와 속도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는 η^2.19로서 실제적 유의성 판단을 위한 효과 크기 기준을 참조했을 때 효과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 요인의 차이가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중복되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모집단의 수가 확보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원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후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법과 어휘가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음 <표 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문법	9	9.00	5.454	1.564
어휘	9	5.11	5.085	

*p<0.05

<표 5> 뉴스 문항에서 문법과 어휘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표 5>에서 문법의 평균은 9.00(SD=5.454), 어휘의 평균은 5.11 (SD=5.08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1.564(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어휘	9	5.11	5.085	-2.186
속도	9	11.22	6.667	

*p<0.05

<표 6> 뉴스 문항에서 문법과 어휘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표 6>에서 어휘의 평균은 5.11(SD=5.085), 속도의 평균은 11.22(SD=6.66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2.186(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문법	9	9.000	5.3033	-.769
속도	9	11.167	6.5860	

*p<0.05

<표 7> 뉴스 문항에서 문법과 속도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표 7>에서 문법의 평균은 9.00(SD=5.3033), 속도의 평균은 11.167(SD=6.586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769(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효과 크기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계산해 본 결과 문법과 어휘의 효과 크기는 d=0.78, 어휘와 속도의 효과 크기는 d=1.05, 문법과 속도의 효과 크기는 d=0.36으로 나타나 어휘과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고 문법과 속도의 차이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뉴스 문항에서 듣기이해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문법과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어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표 8>은 강연 문항의 요인별 기술통계이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문법	9	6.78	7.429
어휘	9	10.78	7.823
발화 속도	9	15	6.364
합계	27	10.85	6.644

<표 8>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강연 문항 요인별 기술통계

<표 8>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법의 난이도가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이 어려울 때 강연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스 문항과 마찬가지로 발화 속도는 학습자들의 이해 과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요인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9>은 그 결과이다.

요인 유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강연	집단 -간	304.296	2	152.148	2.909	.074
	집단-내	1255.111	24	52.296		
합계		1559.407	26			

*p<0.05

<표 9>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의 강연 문항의 요인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세 요인의 세 요인의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2.909, 유의확률 .074 유의수준 .05에서 듣기이해에 미치는 요인에 따라 학습자들의 강연 문항의 듣고 내용요약하기 역시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과 크기를 보고함으로써 표본의 수가 늘어났을 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내용 듣고 요약하기 강연 문항에서 문법과 어휘와 속도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는 η^2.19로서 실제적 유의성 판단을 위한 효과 크기 기준을 참조했을 때 효과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연 문항도 뉴스 문항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수가 확보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를 예상해 보기 위해 각 요인별 점수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10>은 내용 듣고 요약하기 과제 강연 문항에서 문법과 어휘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요인 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문법	9	6.78	7.429	-1.112
어휘	9	10.78	7.824	

*p<0.05

<표 10> 강연에서 문법과 어휘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표 10>에서 문법의 평균은 6.78(SD=7.429), 어휘의 평균은 10.78(SD=7.82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1.112(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와 속도의 t-검정 결과와 문법과 속도의 t-검정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표본의 수가 적어 효과 크기를 보고하도

록 하겠다. 계산해 본 결과 문법과 어휘의 효과 크기는 d=0.52, 어휘와 속도의 효과 d=0.59, 문법과 속도 사이의 효과 크기는 d=1,18로 문법이 속도와 큰 차이를 보였고 어휘와 속도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본고의 예비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요인의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과를 통해 장르와 내용의 친숙성에 따라 듣기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뉴스에서는 어휘가 강연에서는 문법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듣기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

5. 결론

듣기이해 저해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법, 어휘, 발화속도를 중심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듣고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했다. 분석 결과 장르와 내용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와 같이 사건을 보도하는 형식에서는 문법이나 속도보다는 어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학습자들은 뉴스와 같은 장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강연과 같이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시, 열거, 분류, 대조, 비교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장르에서는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강연과 같은 설명문 형식을 구성할 때 어휘보다는 연결어미, 종결어미등과 같은 문법 요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문법 표현 등이 사용되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본고의 듣고 내용요약하기 과제에서 뉴스 문항의 내용이 강연 문항의 내용보다 친숙도가 낮았다. 따라서 친숙하지 않은 내용일수록 어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친숙한 내용일 경우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추후 다양한 장르와 친숙도의 정도에 따라 문항을 구성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문법, 어휘, 발화 속도가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차이가 장르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들의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바 있으나 본고와 같이 실험연구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 본고를 통해 더 다양한 장르와 내용으로 학습자들의 듣기이해 저해에 미치는 요인을 밝혀 듣기 전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타당한 듣기 전 활동 개발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효정(2008), 중학생의 듣기이해에 영향을 끼는 요인 -중학생 설문과 교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학교 교육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성(2011), 지리교육연구에서의 양적 방법론: 효과 크기의 개념과 활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05-220쪽.

박기표(2001), 언어능력, 배경지식, 문제의 종류가 영어 청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6(2), 245-263쪽.

박선미(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에서 다양한 발화속도가 고등학생의 듣기이해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경(2011), 고등학생의 영어듣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서영(2017), 한국어 교재의 듣기 텍스트 실제성 분석 초·중급 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2016), 한국어 듣기교육 연구의 현황과 탐색,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13-20쪽.

윤정기(2013), 언어 지식과 듣기 전략이 한국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語文硏究, Vol. 78 No.- 38-58쪽.

심재기· 문금현(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이중언어학, 17(1), 143-173.

신희문(2003), 발화속도 조절을 통한 영어듣기능력 향상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성헌(2018),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곤란 요인 분석을 통한 숙달도별 듣기 교육 연구-신체 신호 측정을 통한 곤란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혜진(2011), 한국 중학생의 어휘· 문법지식 및 배경지식의 수준과 반복듣기가 영어듣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지(2007),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음성 자료 속도의 실제성, 한국어교육, 18, 401-427.

최선경(2009), 영어 발화 속도가 중학교 3학년 영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희정(1998), 구두 입력의 시간변인들(temporal variables)이 한국 중학생의 영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화 속도(speech rate)와 휴지(pause)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derson-Hsieh, J. & K. Koehler(1988). The effect of foreign accent and speaking rate on the native speaker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8, 561-613.

Blau, E, K.(1990). The effect of syntax, speed and paus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4, 746-753.

이암(李岩)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대학 전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어학 박사과정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연대동문길 128-1번지 401호, 03760,
010-7619-1591
27484348@qq.com

유지연(俞知妍)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신대림 자이 아파트 202-1306
010-6757-0215
yjyworld87@gmail.com

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浅探

崔花

（大连民族大学）

近年来，混合式教学模式成为教育领域的热点。混合式教学模式是将传统的课堂教学与网络教学的优势相结合，改变教师和学生的角色，教师主要起引导、支持、监督和控制的作用，学生则充分利用教师创建的教学资源和环境进行自主学习的教学模式。混合式教学模式可以充分利用各种教学资源，尤其是网络教学资源，充分激发学生的学习兴趣，发挥学生的积极性和创造性，从而达到提高教学效果的目的。因此，很多高校都加大了对混合式教学模式的研究力度，并利用先进的教学技术来实现混合式教学，积极倡导有效的混合式学习。在很多适合采用混合式教学模式的课程教学中采用了混合式教学模式。笔者讲授的韩国语词汇学课程就是适合采用混合式教学模式的一个典型例子。

韩国语词汇学课程是四年制高校朝鲜语专业开设的语言学基础理论课程，主要讲解韩国语词汇学的基础理论知识。这门课程在授课过程中的最主要难点是词汇学理论的抽象性问题，依靠传统的讲解式的授课方式无法很好的解决问题。要想很好地解决这个问题，需要该课程的教师提供给学生各类教学资源，并根据学生的不同情况不断地调整教学内容。学生则通过完成各种类型的题目来更好地理解和掌握各知识点的理论含义。但是很显然，在传统教学方式中由于条件所限这些要求无法得到满足，而充分利用网络教学资源的混合式教学模式则使得这种要求的实现成为可能。因此本文就在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的可行性、优点和及在具体执行中需要注意的事项做一浅探。

一、 韩国语词汇学课程在传统教学模式下的现状分析

韩国语词汇学课程是四年制高校朝鲜语专业开设的语言学基础理论课程，是为毕业生今后进一步深造、步入研究生阶段奠定学术理论基础的一门课程。通过本课程的学习，学生将具备韩国语词汇学的基础理论知识，并用所掌握的理论知识分析和解决词汇学相关的一些问题。

韩国语词汇学课程在笔者执教的大连民族大学外国语学院朝鲜语系开设于第四学期，共分16 次授课，每次课时为 2 学时，总计 32 学时。其中，安排 16 学时讲解理论知识，12 学时分析·解答练习题，4 学时组织学生发表与讨论。

韩国语词汇学课程安排在具备互联网设备的多媒体教室，目前以 PPT、板书、纸质材料、学生手机上的智能联网搜索功能为主要教学手段。韩国语词汇学课程具备使用条件但尚未启用

的教学手段有泛雅网络教学平台、手机智能学习软件。韩国语词汇学课程的绝大部分学习在课堂内进行，仅有学生需要发表与讨论的题才会要求学生在课堂之外进行，其他学生需要在课堂之外进行的记忆、强化、思考的题目，教师对学生不做硬性要求。

选修韩国语词汇学课程的学生，其韩国语能力基本达到标准韩国语能力考试 3 级以上水平，普遍达到 4 级水平，少数个别学生达到 5 级水平。这一阶段的学生掌握了 2000 个以上的词汇，150 个助词、词尾及句型等语法，能参与简单的日常对话，能接受韩国语讲解为主汉语讲解为辅的授课方式。因此，韩国语词汇学在授课过程中采取韩国语为主汉语为辅的语言交流方式；传授词汇学相关概念性的知识点时采取与学生已知的汉语词汇学相关的概念与术语相对照的方式；分析、解决词汇学相关具体问题的时候采取让学生先动用学生已掌握的韩国语知识和网络媒体手段自行解决的基础上后教师进行解释、归纳、总结的方式。

韩国语词汇学课程主要讲解韩国语词汇学的基础理论知识，包括韩国语的词汇学相关的各类概念；韩国语词的种类；韩国语词的形态特点；韩国语词的语法功能；韩国语词的意义功能；韩国语词汇学相关研究思路与动态等知识内容。目前国内关于韩国语词汇学可供参考的书籍只有林从纲编写的《新编韩国语词汇学》，刘银钟编写的《现代朝鲜语词汇学》两本书，而这两本书由于在知识深度、广度、举例等方面比较深奥，要想将其应用于朝鲜语零基础本科教学则有相当大的难度，无法作为教科书来直接使用。而在国外（韩国),因为其国语就是韩国语，韩国语学界绝大多数学者没有把词汇学单独作为一门理论学科来划分出来，词汇学的各个知识点一般归于形态学、语义学、语音学的范畴而进行研究，偶有几位学者出版了关于词汇学的论著，但是不成规模，而且其内容与我国的朝鲜语零基础本科教学也差距甚远，无法直接投入到教学中来。词汇学作为一门外国语专业的理论课程，其必要性已在各类语种的教学中充分探讨和实践过，而作为纯语言学的理论在汉语等语言研究中也形成了独立的体系，但是在韩国语教学与研究中还未形成与其他语种相对应的发展。目前，韩国语词汇学课程由任课教师自行选择知识点、取材、编练习题的方式组织教学内容及活动来完成，笔者也在过去六年的教学实践中逐渐积累教学素材与经验，已形成比较清晰的教学思路和较为丰富的教学资源。

韩国语词汇学课程在授课过程中的难点是这门课的课程属性所导致的词汇学理论的抽象性问题，这些理论抽象性问题单凭讲解式的授课方式是无法解决的，教师需要提供给学生能够帮助其理解各类理论深层含义的练习题，使学生在适量解决不同难易度的、不同题型的词汇学问题的过程中更好地理解和掌握各知识点的理论含义，而且教师还需根据学生的资质、需求不断地调整教学内容的深度和广度，但是目前以知识传授为主要教学形式的传统课堂上很难把握学生个体的这些具体情况，因此也就有必要导入新的教学模式，而最近产生的混合式教学模式则刚好能够解决韩国语词汇学课程在教学过程中产生的问题。

二、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的可行性分析

混合式教学是以新媒体技术衔接课堂学习和线上学习，从而拓展课堂教学，更加有效地把

握和支持学习者的个体性，在一定程度上克服传统群体教学模式所拥有的千篇一律的缺陷，达到更接近因材施教的教学效果的一种新型教学模式。这一模式，其外在的形式特点是传统课堂与网络课堂的结合，其内在理念是遵循产生优质学习成效的规则，使课堂从以教学为中心转换为以教师为主导、以学生为主体的结合。

混合式教学模式作为一种新型教学模式，其外在的形式特点是将传统课堂与网络课堂结合在了一起。而网络课堂必备的网络教学平台，最近几年经过 AOC(Asynchronus Online Curse,异步在线教学平台）、 OCW（Open Course Ware，开放课程运动教学平台）、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大型开放式网络课程)、SPOC(Small Private Online Course，小规模限制性在线课程）的发展过程，已具备了实现混合式教学的技术条件，这几种网络教学平台的具体特点如下表 1 所示。

表 1 AOC、OCW、MOOC、SPOC 网络教学平台的特点

	线上教学资源设计	线上教学活动设计	线下教学资源设计	线下教学活动设计
AOC	-	师生互动、生生互动	-	-
OCW	课程大纲、讲义、影片、录音、视频等不同的课程素材	-	-	-
MOOC	课程素材多样、生动	师生互动、生生互动、营造共同学习的氛围	-	-
SPOC	课程素材多样、生动、灵活	师生互动、生生互动、形成过程评价体系	根据线上把握的教学情况设计知识的深度与广度，达到因材施教的效果	根据线上把握的教学情况设计针对性强的教学活动，达到因材施教的效果

如上表 1 所示，网络教学平台发展到 SPOC 教学平台阶段，教学模式与课程流程的形式范围变得多样、灵活，而且在具体实践中可研究、探讨、施展的内容也与之前的阶段相比变得广泛。这些条件都为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提供了坚实的技术支持。现在市面上流行的各类移动式阅读软件、学习软件、交际软件也为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提供了便捷、强有力的技术协助。

其次，混合式教学模式作为一种新型教学模式，其内在理念是遵循产生优质学习成效的规

则。在这里，遵循产生优质学习成效的规则是指混合式教学遵循布鲁姆提出的深度学习理论、戴尔的金字塔理论的“学习 24 小时后的知识保持率”的统计数据为基础的主动学习理论。

布鲁姆的深度学习理论是指在基于理解的学习的基础上，学习者能够批判性地学习新的思想和事实，并将它们融入原有的认知结构中，能够在众多思想间进行联系，并能够将已有的知识迁移到新的情境中，作出决策和理解问题[2]。该理论强调“深度学习是对事实的内在理解，要求学习者积极主动的学习”。布鲁姆将认知过程的维度分为记忆、理解、应用、分析、评价、创造等六个层次。其中记忆和理解是浅层学习活动；应用、分析、评价和创造是高阶思维活动。前者在教学活动当中体现为记忆知识和复述知识，后者则体现为知识的综合应用和问题的创造性解决。在现今的大部分课堂教学中，学生需要较少帮助的浅层学习活动，发生在教师存在的教室之中；而当学生试图进行知识迁移、做出决策和解决问题等深度学习时，却发现自己孤立无援。基于此，混合式教学将传统的教学结构进行了颠倒，即浅层的知识学习发生在课前，知识的内化则在有教师指导和帮助的课堂中实现，以促进学生高阶思维能力的提升。[1]

韩国语词汇学课程的最主要的难点是这门课的课程属性所导致的词汇学理论的抽象性问题，学生要想理解好这些理论抽象性问题，就需要按照布鲁姆的深度学习理论，通过学习者积极主动的深度学习来解决。需要学习者通过完成各种不同类型、不同难易度的问题来更好地理解和掌握词汇学各知识点的理论含义。而在传统教学模式下由于授课时间、教学条件的限制，这些要求很难得到满足和实现。混合式教学模式则由于其自身的这些特点，刚好能够解决韩国语词汇学课程在教学过程中产生的问题，因而在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说正逢其时。

关于浅层学习与深度学习的成效问题，戴尔的金字塔理论根据“学习 24 小时后的知识保持率”的统计数据提出了主动学习理论。戴尔的金字塔理论的统计数据如下表 2 所示。

表 2 戴尔的金字塔理论的“学习 24 小时后的知识保持率”统计数据

讲 授	阅 读	视听结合	示范	讨论组	实践练习	即时应用
5%	10%	20%	30%	50%	75%	90%

从表 2 中可以看出，即时应用方式在学习 24 小时后的知识保持率中最高，而这正是以学生自主学习构建知识架构为目标的混合式教学模式的强项。混合式教学模式由于能够实现三大转变：即学生从被动学习变成主动学习，教师的授课模式从传授式改为探究式，学生从个别学习变为小组学习，因而不但能够实现从浅层学习到深度学习的转化，学习效果也能够显著提升。

三. 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的优势分析

从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现状和特点以及混合式教学模式的特点可以看出，韩国语词汇

学课程符合混合式教学模式的特点和要求，因而在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中采用混合式教学模式具有明显的优势，具体有以下几点。

首先，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将传统教学模式下讲解理论知识所占用的时间转移到在线网络课堂上，从而增加线下课堂分析、解答练习题和组织学生发表与讨论的时间，可以增加教师与学生、学生与学生互动交流的机会，更好地引导学生达到深度学习的效果。

第二，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减少传统教学环境给教学带来的制约，增加可应用的有效教学手段的种类，拓宽教学表现方式，可以更好地吸引学生的注意力，达到促使学生主动学习的效果。

第三，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将传统教学模式下采取的韩国语为主汉语为辅的语言交流方式转移到在线网络课堂上，从而增加线下课堂上更多的用韩国语交流的机会，达到更加有效的韩国语词汇学教学效果。

第四，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将传统教学模式下采取的传授词汇学相关概念性的知识点与学生已知的汉语词汇学相关概念对照的教学环节转移到在线网络课堂上的拓展学习模块，从而达到加深学生对韩国语词汇学的理解，进一步清晰思路的效果。

第五，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不仅符合韩国语词汇学课程没有固定教材，由教师自行选择知识点、取材、编练习题的方式组织教学内容及活动的实际需要，而且丰富了韩国语词汇学教学资源类型。

最后，韩国语词汇学课程导入混合式教学模式，可以通过在线模式提前把握学生学习情况，根据这些具体情况有针对性的准备和设计线下课堂内容，从而可以实现根据学生的资质、需求不断地调整教学内容的深度和广度的效果，达到更接近因材施教的教学目标。

四. 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的注意事项分析

在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中采用混合式教学模式符合课程自身的特点，有着明显的优势，但是从近来的研究和实践过程来看，要想真正在教学实践中应用好混合式教学模式并不容易，其中有很多问题需要解决，这些问题对于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也同样存在。

首先，混合式教学的形式上的最显著的特点是把课堂从教室延伸到了教室之外，从规定课时延伸到了课时之外。但是这一教学模式实践到具体教学的时候将会面临诸多难题，其中最为突出的问题将是在混合式教学模式下学生在修同一学分时投入的精力与努力比传统教学模式下的投入要多出很多，甚至翻倍。在这一问题上，门路（2015）等的的研究值得关注[3]。门路等在 2013 年 9 月至 2015 年，在同济大学将大学物理课程作为 MOOC 试水科目，进行了三个学期的混合式教学试点研究，从研究结果里的实践初期的学生反馈信息来看，大多数学生认为这种教学模式理论上是好的，但是不适合自己，当问及“如果让你重新选择，你会继续选这种线上线下混合教学方式吗？”时，有 47.86%的同学表示不会，究其原因，85.50%以上的同学认为“学

习时间翻倍，降低了学习效率”。解筱杉（2012）等研究在“高校混合式教学质量影响因素分析”中也指出根据调查和访谈，混合式教学实施效果并不理想，学生参与积极性不高，甚至还有学生认为混合式教学不但加重了自己的学习负担，有时甚至达不到传统课堂教学的效果。数据显示，17%的学生对混合式教学方式不适应，10%的学生习惯了老师的课堂面授，对于这种跨空间和时间的教育方式不适应，在思想、习惯上无法轻易改变，导致混合式教学效果不佳等现象。[4]

混合式教学模式下网络课堂应占多长时间为宜、课程教学内容在网络课堂与传统课堂的配比问题、课程评价及学生成绩评价中网络课堂与传统课堂的体现形式及比例问题等细节是实践中值得细致研究的问题。如果不注意这些细节上的设计，很可能会导致加重学生学习负担的结果，而这种学习负担反过来也会导致削弱学生自身的学习主动性的结果。因此，课前自主吸收基本知识要点，课中通过课堂活动巩固和深化知识要点，课后通过谈论与报告形式拓展知识层次的范式在实际教学当中，至少在本科教学当中应该是有相当大的难度。考虑到在线监督技术不够完善而导致的线上作弊等教师不可控的因素，混合式教学模式所倡导的理想的教学模式在教学实际中更会出现阻力与矛盾。

其次，混合式教学在教学内容上的最大特点是丰富多样灵活的碎片式课程资源。但是实际教学中会伴随课程资源陈旧化、课程资源过于碎片化、课程资源之间的有缝衔接、课程资源不易构建完整体系等诸多问题。如，解筱杉（2012）等研究中指出在课程特点方面，87%的学生对课程设置的灵活性表示认同，但又反映了课程内容没有弹性，不能及时反映新知识，实践性不强等问题。吕静静（2015）同样也提出了课程的弹性问题，并提出可借鉴国内外制作精良的MOOC 和视频播放网站的做法，进一步为课程的弹性增设一些功能性的支持。[5]

毫无疑问，在韩国语词汇学课程中导入混合式教学模式时也很有可能会出现上面所述的问题，因此包括课程的灵活性以及弹性问题在内的韩国语词汇学课程资源建设以及包括课程内容与活动在内的韩国语词汇学课程设计是混合式教学模式下的韩国语词汇学课程建设特性所致的持续目标与任务。混合式教学模式下的韩国语词汇学课程为解决学生投入精力要比传统模式多出很多的问题，在提供给学生在课外完成的各类不同难易度的、不同题型的词汇学问题的过程中必须秉持适量的原则，并且还需根据学生的资质、需求不断地调整教学内容的深度和广度。而为了实现灵活性的特点，必须构建足量的碎片式教学资源。为了解决课程弹性问题，则必须不断地更新和扩充教学资源储备。

五、结语

混合式教学模式将传统的课堂教学与网络教学相结合，改变教师和学生的角色，充分发挥学生的积极性和创造性，显著提高教学效果。韩国语词汇学课程由于符合混合式教学模式的特点和要求，具有导入混合式教学模式的可行性，因此在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中采用混合式教学模式具有明显的优势。但是从近来的研究和实践过程也表明，要想真正应用好混合式教学

模式还有很多问题需要解决，这些问题对于韩国语词汇学课程的教学也同样存在。因此韩国语词汇学课程也需要在实践中注意认真解决这些问题，才能达到应用混合式教学模式提高教学效果的目的。

<参考文献>

[1]李逢庆(2016). 混合式教学的理论基础与教学设计.现代教育技术, (09):19

[2]杨文婷,何伏刚(2008).混合式教学中教师技能的新要求.基础教育,(06):63

[3]门路,王祖源,何博(2015).MOOC 本土化的可行性和关注点---基于 MOOC 平台的大学物理课程混合式教学实践. 中国大学教学,(01):58

[4]解筱杉,朱祖林(2012).高校混合式教学质量影响因素分析.中国远程教育,(10):10-11

[5]吕静静(2015).开放大学混合式教学新内涵探究---基于 SPOC 的启示.远程教育杂志,(03):79

姓名：崔花

单位：大连民族大学外国语学院朝鲜语系

地址：辽宁省大连经济技术开发区辽河西路 18 号

邮编：116600

电话：18641102820

电子邮箱：1119192616@qq.com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 출현한 형용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를 중심으로

노 성 화·임 강**
(연변대학)

[한국어 초록]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를 이루는 요소로서 문장의 핵이 된다. 본 논문은 그중 형용사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중국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이 형용사의 사용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학에서의 구간 추정 방법과 가설 검정법을 사용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형태론적 측면에서 형용사를 단순류, '하다'류, '스럽다'류, '롭다'류, '되다'류로 나누어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어원적 측면에서 이들 형용사를 다시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고유어' 계통, '외래어+ 고유어' 계통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형용사 어절구조 측면에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에 연구자는 위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제의하였다.

핵 심 어: 한국어 준구어, 한국어 듣기 교재, 형용사, 구간 추정, 가설 검정법.

1. 서론

최근 10여 년간 중·한 양국의 정치 및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는 한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

* 이 논문은 국가사회과학연구프로젝트(16BYY176) 부분 연구 성과임.
** 제1저자: 노성화(중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조선반도연구협동창신중심 연구원·중국조선언어문자정보화기지 연구원), 교신저자: 임강(중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추어 많은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국어 교재 개발에 주력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언어의 실제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듣기 교재들도 대량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재들에서는 한국의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쓰면 부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감탄사와 같이 구어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담화표지뿐만 아니라 실질형태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구어에서 출현율이 꽤 높은 "늦다, 우습다, 쓸데없다"와 같은 형용사들은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 전혀 출현하지 않거나 한국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괜찮다, 싫다, 낫다"와 같은 형용사들은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는 그 출현율이 아주 낮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는 한국어 구어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크나크다, 능통하다, 지고지순하다"와 같은 형용사들도 일부 출현하고 있다.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의 예]

(1) 그러는 과정에 정보가 점점 우리 사회에 큰나큰 지배력을 가지게 된 거죠. (교06)

(2) 중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통해야 했어요. (교08)

(3) 그런 그녀가 백칠십오 센티미터의 잘생긴 미남 청년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루었대요. (교06)

따라서 연구자는 노성화(2012), 노성화·왕전초·양취평(2013), 노성화(2015가), 노성화(2015나), 노성화(2015다), 노성화·민소혜(2016)에 이어 본 논문에서는 통계학에서의 신뢰구간과 가설 검정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듣기 교재들이 형용사의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구어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이희승(1961/2004)를 참고하여 형용사를 형태론적 측면에서 단순류, '하다'류, '스럽다'류, '롭다'류, '되다'류로 나누어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다음 어원적 측면에서 이들 형용사를 다시 고유어 계통, '한자어+ 고유어' 계통, '외래어+ 고유어' 계통으로 나누어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을 비교해 본다. 끝으로 연구자는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에서 형용사의 활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형용사의 어간과 선어말어미 및 어말어미와의 통합 관계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1]

[1] 그 외에 연구자는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이들 형용사를 가능/대응, 감각, 기준, 대칭, 성상, 소유/소재, 심리, 장소교차, 태도, 판단, 기타 등 11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말뭉치의 규모상 이와 같은 소분류는 구간추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2. 연구 재료 및 연구방법

한국어 준구어[2] 담화는 한국 외의 기타 나라에서 한국어 듣기 교육과 말하기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이다. 한국 국내에서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가장 실제성 있는 대화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언어 환경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는 중국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들한테는 현실 생활에 부합되는 자연스러운 대화들로 이루어진 준구어 담화가 가장 실제성 있는 학습 자료가 된다.

그리고 준구어 담화는 한국어 구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초 분석 자료가 된다. 한국어 구어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말뭉치를 기초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구어 말뭉치이고 다른 하나는 준구어 말뭉치이다. 그런데 이 두 말뭉치는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배포한 순구어 말뭉치를 보면 개인 인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의 대화나 대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대화, 교수들의 수업시간의 강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화자들의 신분이 비교적 단일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순구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국 사회 전반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 이와 달리 준구어 말뭉치는 극작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료로서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화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또 극중 인물들 또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직업과 신분 또한 다양해서 한국 사회 전반의 구어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말뭉치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한국어 준구어에서의 형용사의 사용 특징을 밝히기 위해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1 - 한국어 준구어 음성 전사 말뭉치’[3]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모두 31편의 한국 영화와 4편의 한국 드라마(5집/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1, 327어절이다. 다음 연구자는 한국어 듣기 교재들에서의 형용사의 사용 특징을 밝히기 위해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6 -

[2] 서상규 외(2002: 14)에서는 전달 매체에 따라 언어를 구어(일상대화, 전화대화, 상담, 인터뷰 등), 문어적 특징을 지닌 구어(강연, 연설, 발표 등),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희곡, 시나리오, 대본, 소설의 대화 등), 문어(수필, 소설, 학술서적, 교과서 등)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음성을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 ‘일상대화, 전화대화, 강연, 연설, 발표’와 함께 구어적 특징을 지닌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도 구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구어’와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구어에 포함시킨다면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대로 ‘구어’와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를 모두 구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되 ‘일상대화, 전화대화, 상담, 인터뷰’와 같은 ‘구어’는 이상억(2006:14)의 논의에 따라 ‘순구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희곡, 시나리오, 영화나 드라마 대본’과 같은 ‘구어적 특징을 지닌 문어’는 강범모(2003:28)의 논의에 따라 ‘준구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 본 논문은 한국어 교육, 특히 한국어 시청각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영상과 소리를 모두 구비한 영화와 드라마만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영상과 소리가 없이 문자 형태로만 되어 있는 희곡이나 소설 속의 대화 등은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이 말뭉치 목록은 [부록1]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재 말뭉치2 -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4]를 사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중국 국내에서 출판한 한국어 듣기 교재 8종 25책 안의 제시대화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51,678어절이다. 이상의 말뭉치들은 영화나 드라마 대본,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축자가 직접 들으면서 전사한 '음성 전사 말뭉치'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통계학에서의 구간 추정 방법과 가설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어에 관한 연구[5]들을 보면 대부분이 통계학에서의 점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언어학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표본의 추출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본의 통계치로서 계산된 점 추정은 모집단의 실제 수치와 다른 경우가 있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점 추정에 비해 구간 추정은 표본에 대한 계산을 통해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구간을 추정의 구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점 추정의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韩宝成, 2009: 50-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점 추정 방법에서 벗어나 신뢰구간이라는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준구어에서의 형용사의 범주별 사용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 연구자는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서 출현한 형용사들의 사용률을 이 신뢰구간과 비교해 본 뒤 그 차이를 근거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집필 시 형용사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제의하고자 한다.

3. 한국어 구어의 특징

3.1 형태적 범주별 사용 특징

총 221,327어절의 '준구어 말뭉치'에서 출현한 형용사는 모두 784개인데 총 14,105회 출현하여 평균 17.99회 중복 출현하였다. 그중 단순류 형용사는 251개로서 10,604회, '하다'류 형용사는 479개로서 3,372회, '스럽다'류 형용사는 31개로서 78회, '롭다'류 형용사는 6개로서 9회, '답다'류 형용사는 13개로서 23회, '되다'류 형용사는 4개로서 19회 출현하였다.

이들 형용사를 형태적 범주별로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단순류 형용사[6]

있다, 없다, 좋다, 같다, 그렇다, 괜찮다, 많다, 아프다, 싫다, 고맙다, 예쁘다, 힘들다, 크다, 나쁘다, 계시다, 맛있다, 무섭다, 바쁘다, 어리다, 재미있다, 다르다, 어떻다, 반갑다, 쉽다, 똑같다, 멋있다, 멋지다, 늦다, 시끄럽다, 어렵다, 더럽다, 뜨겁다, 비싸다, 낫다, 젊다, 잘나다, 밉다, 빠르다, 귀엽다,

[4] 이 말뭉치 목록은 [부록2]에서 제시하였다.
[5] 대표적인 연구로 서상규·구현정(2005), 노성화(2014) 등이 있다.
[6] 지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출현율의 앞 50위를 차지하는 형용사들만 제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음.

세다, 이렇다, 짧다, 높다, 배고프다, 슬프다, 멀다, 길다, 아깝다, 아름답다, 우습다……

ㄴ. ‘하다’류 형용사

죄송하다, 미안하다, 안녕하다, 감사하다, 어떠하다, 중요하다, 이상하다, 필요하다, 급하다, 행복하다, 편하다, 확실하다, 궁금하다, 심하다, 착하다, 피곤하다, 대단하다, 불쌍하다, 위험하다, 멀쩡하다, 유치하다, 창피하다, 특별하다, 너무하다, 친하다, 가능하다, 만만하다, 건강하다, 무식하다, 시원하다, 답답하다, 당연하다, 무지하다, 불편하다, 웬만하다, 속상하다, 약하다, 비슷하다, 곤란하다, 멍청하다, 억울하다, 깨끗하다, 치사하다, 간단하다, 따뜻하다, 유명하다, 침착하다, 부족하다, 뻔하다, 소중하다 ……

ㄷ. ‘스럽다’류 형용사

촌스럽다, 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고통스럽다, 부담스럽다, 갑작스럽다, 사랑스럽다, 거추장스럽다, 당황스럽다, 쑥스럽다, 존경스럽다, 가증스럽다, 가탈스럽다, 고급스럽다, 고생스럽다, 급작스럽다, 변덕스럽다, 부조화스럽다, 불량스럽다, 불미스럽다, 비밀스럽다, 성스럽다, 송구스럽다, 실망스럽다, 어른스럽다, 요상스럽다, 유감스럽다, 잔망스럽다, 죄스럽다, 짐스럽다, 혼란스럽다.

ㄹ. ‘롭다’류 형용사

자유롭다, 감미롭다, 번거롭다, 신비롭다, 여유롭다, 정의롭다.

ㅁ. ‘답다’류 형용사

너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여자답다, 정답다, 검사답다, 경찰답다, 선생님답다, 어른답다, 이사답다, 일등답다, 전학생답다, 학생답다.

ㅂ. ‘되다’류 형용사

오래되다, 세련되다, 진실되다, 외람되다.

연구자는 준구어 말뭉치에서 출현한 형용사들의 형태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영화 31편과 드라마 4편에서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출현율을 각각 계산하였다. 다음 연구자는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신뢰구간을 계산하기 위해 신뢰수준을 95%(유의수준 α=0.05)로 정하고 표준편차는 Z-검정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에 연구자는 Excel(2010) 중의 CONFIDENCE.NORM 함수[7]와 표본 평균치를 이용해 신뢰상한과 신뢰하한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 중 '스럽다'류, '롭다'류, '답다'류, '되다'류는 그 출현율이 낮아 신뢰구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도표에서는 단순류와 '하다'류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1> 한국어 준구어에서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

[7] CONFIDENCE.NORM 함수는 유의도와 표준 편차, 표본 크기 등 세 개의 인수를 사용하여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 표본 평균 x는 신뢰구간의 중심에 있으며 그 신뢰구간은 x ± CONFIDENCE.NORM이다.

범주	α	표준편차	표본수(n)	함수CONFIDENCE. NORM의 계산결과	표본평균치	신뢰상한	신뢰하한
단순류	5.00%	0.027534	35	0.91%	75.72%	76.63%	74.80%
하다류	5.00%	0.025446	35	0.84%	23.33%	24.17%	22.48%

3.2 어원적 범주별 사용 특징

어원적으로 보면 준구어 말뭉치에서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는 413개로서 11,396회, '한자어+ 고유어'계통의 형용사는 352개로서 2,675회, '외래어+ 고유어'계통의 형용사는 19개로서 34회 출현하였다.

이들 형용사를 어원적 범주별로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고유어 계통

있다, 없다, 좋다, 같다, 그렇다, 괜찮다, 많다, 아프다, 싫다, 고맙다, 예쁘다, 힘들다, 크다, 나쁘다, 어떠하다, 계시다, 맛있다, 무섭다, 바쁘다, 어리다, 재미있다, 다르다, 어떻다, 반갑다, 쉽다, 똑같다, 멋있다, 멋지다, 궁금하다, 늦다, 시끄럽다, 어렵다, 더럽다, 뜨겁다, 비싸다, 낫다, 젊다, 착하다, 대단하다, 불쌍하다, 잘나다, 밉다, 빠르다, 귀엽다, 세다, 멀쩡하다, 이렇다, 짧다, 높다, 배고프다……

ㄴ. '한자어+ 고유어'계통

죄송하다(罪悚──), 미안하다(未安──), 안녕하다(安寧──), 감사하다(感謝──), 중요하다(重要──), 이상하다(異常──), 필요하다(必要──), 급하다(急──), 행복하다(幸福──), 편하다(便──), 확실하다(確實──), 심하다(甚──), 피곤하다(疲困──), 위험하다(危險──), 유치하다(幼稚──), 창피하다(猖披──), 특별하다(特別──), 친하다(親──), 가능하다(可能──), 필요없다(必要──), 상관없다(相關──), 건강하다(健康──), 무식하다(無識──), 당연하다(當然──), 무지하다(無智──), 불편하다(不便──), 속상하다(─傷──), 약하다(弱──), 곤란하다(困難──), 억울하다(抑鬱──), 치사하다(恥事──), 간단하다(簡單──), 유명하다(有名──), 촌스럽다(村──), 침착하다(沈着──), 부족하다(不足──), 소중하다(所重──), 복잡하다(複雜──), 솔직하다(率直──), 심각하다(深刻──), 완벽하다(完璧──), 유일하다(唯一──), 자세하다(仔細──), 자연스럽다(自然──), 편안하다(便安──), 당당하다(堂堂──), 분명하다(分明──), 안전하다(安全──), 진정하다(眞正──), 강하다(剛──)……

ㄷ. '외래어+ 고유어'계통

리얼하다(real──), 퍼펙트하다(perfect──), 섹시하다(sexy──), 럭셔리하다(luxury──), 타이트하다(tight──), 터프하다(tough──), 다이렉트하다(direct──), 리버러하다(liberal──), 릴렉스하다(relax──), 버라이어티하다(variety──), 스페셜하다(special──), 아이러니하다(irony──), 액티브하다(active

—), 익사이팅하다(exciting—), 컨추리하다(chancery—), 클래식하다(classic—), 판타스틱하다(fantastic—), 페미닌하다(feminine—), 핸썸하다(handsome—).

연구자는 [3.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준구어 말뭉치에서 출현한 형용사들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형용사의 어원적 범주 중 '외래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는 출현율이 낮아 신뢰구간 측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도표에서는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와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신뢰구간만 제시하기로 한다.

<표 2> 한국어 준구어에서 형용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의 신뢰구간

범주	α	표준편차	표본수(n)	함수CONFIDENCE. NORM의 계산결과	표본평균치	신뢰상한	신뢰하한
고유어	5.00%	0.036289	35	1.20%	81.25%	82.45%	80.05%
한+고	5.00%	0.036461	35	1.21%	18.50%	19.71%	17.29%

3.3 어절구조 사용 특징

'준구어 말뭉치'에서 형용사가 포함된 어절구조는 모두 135개 유형인데 그중 형용사 어절구조 출현율의 87.98%를 차지하는 앞 10개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VA+EF(형용사+종결어미): 없어, 있어, 괜찮아, 같아, 좋아, 어때, 싫어.
(2) VA+ETM(형용사+관형형전성어미): 같은, 있는, 없는, 좋은, 나쁜, 있을, 큰.
(3) VA+EC(형용사+연결어미): 있으면, 같은데, 없어서, 싫으면, 크게, 같아서, 늦게.
(4) NNG+XSA+EF(일반명사+형용사파생접미사+종결어미): 감사합니다, 미안해, 안녕하세요, 이상하다, 피곤해, 위험해, 중요해.
(5) VA+EP+EF(형용사+선어말어미+종결어미): 좋겠다, 없었어, 있었어, 맛있겠다, 고마웠어요, 많았습니다, 잘생겼다.
(6) XR+XSA+EF(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종결어미): 죄송합니다, 확실해, 대단하다, 똑똑해, 시원하다, 갑갑하다, 궁금해.
(7) NNG+XSA+ETM(일반명사+형용사파생접미사+관형형전성어미): 중요한, 특별한, 이상한, 필요한, 무식한, 미안하단, 유명한.
(8) XR+XSA+ETM(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관형형전성어미): 불쌍한, 궁금한, 소중한, 대단한, 멀쩡한, 확실한, 멍청한.

(9) XR+ XSA+ EC(어근+ 형용사파생접미사+ 연결어미): 웬만하면, 확실하게, 깨끗하게, 죄송하지만, 당당하게, 따뜻하게, 멀쩡하게.

(10) NNG+ XSA+ EC(일반명사+ 형용사파생접미사+ 연결어미): 행복하게, 미안하게,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피곤해서, 감사하게, 냉정하게.

한국어 준구어에서 이들 출현율의 신뢰구간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어 구어에서 형용사 어절구조 출현율의 신뢰구간

어절구조	α	표준편차	표본수(n)	함수CONFIDENCE. NORM의 계산결과	표본 평균치	신뢰상한	신뢰하한
VA + EF	5.00%	0.047054	35	1.56%	34.32%	35.88%	32.76%
VA + ETM	5.00%	0.040713	35	1.35%	17.19%	18.54%	15.84%
VA + EC	5.00%	0.02639	35	0.87%	14.44%	15.31%	13.56%
NNG + XSA + EF	5.00%	0.016309	35	0.54%	5.08%	5.62%	4.54%
VA + EP + EF	5.00%	0.013751	35	0.46%	4.49%	4.94%	4.03%
XR + XSA + EF	5.00%	0.014967	35	0.50%	3.61%	4.11%	3.12%
NNG + XSA + ETM	5.00%	0.015066	35	0.50%	2.52%	3.02%	2.03%
XR + XSA + ETM	5.00%	0.008883	35	0.29%	2.40%	2.70%	2.11%
XR + XSA + EC	5.00%	0.009052	35	0.30%	2.06%	2.36%	1.76%
NNG + XSA + EC	5.00%	0.008199	35	0.27%	1.87%	2.14%	1.60%

4. 한국어 듣기 교재에 대한 검증

4.1 형태적 범주별 사용 특징에 대한 검증

51,678어절의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 출현한 형용사는 모두 344개인데 총 5,250회 출현하여 평균 15.26회 중복 출현하였다. 그중 단순류 형용사는 143개로서 4,195회, '하다'류 형용사는 179개로서 1,012회, '스럽다'류 형용사는 12개로서 21회, '롭다'류 형용사는 5개로서 8회, '답다'류 형용사는 3개로서 3회, '되다'류 형용사는 2개로서 9회 출현하였다.

이들 형용사를 형태적 범주별로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단순류 형용사

있다, 좋다, 그렇다, 없다, 같다, 많다, 크다, 고맙다, 재미있다, 괜찮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맛있다, 바쁘다, 쉽다, 어떻다, 계시다, 아름답다, 다르다, 반갑다, 비싸다, 빠르다, 예쁘다, 나쁘다, 덥다, 작다, 가깝다, 멋있다, 어리다, 멀다, 즐겁다, 높다, 싫다, 싸다, 젊다, 춥다, 길다, 새롭다, 기쁘다, 맵다, 짧다, 부럽다, 적다, 넓다, 무겁다, 고프다, 똑같다, 잘생기다, 가볍다……

ㄴ. '하다'류 형용사

안녕하다, 감사하다, 어떠하다, 중요하다, 죄송하다, 필요하다, 미안하다, 특별하다, 편하다, 유명하다, 대단하다, 불편하다, 다양하다, 비슷하다, 피곤하다, 따뜻하다, 간단하다, 가능하다, 시원하다, 심하다, 행복하다, 이상하다, 궁금하다, 당연하다, 답답하다, 부족하다, 편리하다, 편안하다, 곤란하다, 깨끗하다, 복잡하다, 심각하다, 친하다, 화려하다, 훌륭하다, 강하다, 건강하다, 급하다, 소중하다, 웅장하다, 이러하다, 저렴하다, 한가하다, 가난하다, 건전하다, 근사하다, 깔끔하다, 딱딱하다, 순수하다, 위험하다……

ㄷ. '스럽다'류 형용사

자연스럽다, 부담스럽다, 고급스럽다, 신비스럽다, 여성스럽다, 고집스럽다, 낭만스럽다, 당황스럽다, 만족스럽다, 자랑스럽다, 정성스럽다, 혼란스럽다.

ㄹ. '롭다'류 형용사

자유롭다, 지혜롭다, 번거롭다, 정의롭다, 흥미롭다.

ㅁ. '답다'류 형용사

남자답다, 여자답다, 요리답다.

ㅂ. '되다'류 형용사

오래되다, 세련되다.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출현율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출현율

범주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단순류	78.30%	70.89%	87.50%	80.23%	84.26%	80.50%	79.72%	77.29%
하다류	20.37%	27.85%	12.50%	19.77%	15.50%	19.03%	19.82%	21.16%
스럽다류	0.82%	0.00%	0.00%	0.00%	0.00%	0.39%	0.00%	0.65%
롭다류	0.20%	0.00%	0.00%	0.00%	0.25%	0.00%	0.00%	0.33%
답다류	0.10%	0.00%	0.00%	0.00%	0.00%	0.00%	0.00%	0.33%

되다류	0.2 0%	1.2 7%	0.0 0%	0.0 0%	0.0 0%	0.0 8%	0.4 6%	0.2 5%

연구자는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이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구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4> 중의 단순류 형용사와 '하다'류 형용사의 사용률을 <표 1> 중의 신뢰구간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들 수치가 신뢰상한을 초과하면 '▲'로, 신뢰하한에 못 미치면 '▽'로, 신뢰구간에 포함되면 '–'로 표시하였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형용사의 형태적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비교

범주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단순류	▲	▽	▲	▲	▲	▲	▲	▲
하다류	▽	▲	▽	▽	▽	▽	▽	▽

위의 비교 결과를 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단순류 형용사와 '하다'류 형용사는 한국어 준구어와 정반대의 사용률을 보인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단순류 형용사의 사용이 신뢰상한을 초과한 반면 '하다'류 형용사의 사용은 신뢰하한에 못 미치고 있다.

4.2 어원적 범주별 사용 특징에 대한 검증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는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는 196개로서 4,431회, '한자어+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는 147개로서 818회, '외래어+ 고유어'계통의 형용사는 1개로서 1회 출현하였다.

이들 형용사를 어원별로 그 출현율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고유어 계통

있다, 좋다, 그렇다, 없다, 같다, 많다, 크다, 고맙다, 어떠하다, 재미있다, 괜찮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맛있다, 바쁘다, 쉽다, 어떻다, 계시다, 아름답다, 다르다, 반갑다, 비싸다, 빠르다, 예쁘다, 나쁘다, 덥다, 작다, 가깝다, 멋있다, 어리다, 대단하다, 멀다, 비슷하다, 즐겁다, 높다, 싫다, 싸다, 젊다, 따뜻하다, 춥다, 길다, 시원하다, 새롭다, 기쁘다, 맵다, 짧다, 부럽다, 적다, 궁금하다……

ㄴ. '한자어+ 고유어' 계통

안녕하다(安寧—), 감사하다(感謝—), 중요하다(重要—), 죄송하다(罪悚—), 필요하다(必要—), 미안하다(未安—), 특별하다(特別—), 편하다(便—), 유명하다(有名—), 불편하다(不便—), 다양하다(多樣—), 피곤하다(疲困—), 간단하다(簡單—), 가능하다(可能—), 심하다(甚—), 행복하다(幸福–

—), 이상하다(異常—), 당연하다(當然—), 부족하다(不足—), 편리하다(便利—), 편안하다(便安—), 곤란하다(困難—), 복잡하다(複雜—), 심각하다(深刻—), 친하다(親—), 화려하다(華麗—), 강하다(剛—), 건강하다(健康—), 급하다(急—), 소중하다(所重—), 웅장하다(雄壯—), 자연스럽다(自然——), 저렴하다(低廉—), 필요없다(必要—), 한가하다(閑暇—), 건전하다(健全—), 근사하다(近似——), 순수하다(純粹—), 위험하다(危險—), 정확하다(正確—), 진지하다(眞摯—), 활발하다(活潑—), 귀하다(貴—), 남자답다(男子—), 독특하다(獨特—), 부담스럽다(負擔——), 세련되다(洗練—), 속상하다(—傷—), 솔직하다(率直—), 식상하다(食傷—)……

ㄷ. '외래어+ 고유어'계통

디테일하다(detail—).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 형용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형용사의 어원적 범주별 출현율

범주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고유어	83.62%	83.54%	91.67%	84.30%	88.56%	84.65%	82.95%	80.96%
한+ 고	16.38%	16.46%	8.33%	15.70%	11.44%	15.27%	17.05%	19.04%
외+ 고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연구자는 [4.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와 '한자어+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에 대해 한국어 듣기 교재와 한국어 구어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형용사의 어원적 범주별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비교

범주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고유어	▲	▲	▲	▲	▲	▲	▲	—
한+ 고	▽	▽	▽	▽	▽	▽	▽	—

<표 7>의 비교 결과를 보면 <표 5>의 비교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듣기 교재에서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 사용은 신뢰상한을 초과한 반면 '한자어+ 고유어'계통의 형용사 사용은 신뢰하한에 못 미치고 있다.

4.3 어절구조 사용 특징에 대한 검증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 형용사가 포함된 어절구조는 모두 74개 유형이다. 아래에 ‘준구어 말뭉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10개 유형이 ‘듣기 교재 말뭉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출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형용사 어절구조 출현율

어절구조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VA + EF	38.49%	51.27%	44.17%	53.49%	47.23%	36.10%	52.07%	28.02%
VA + ETM	15.66%	6.96%	9.58%	11.05%	13.65%	20.05%	10.14%	19.93%
VA + EC	14.94%	8.86%	24.17%	11.92%	13.53%	15.51%	13.36%	18.38%
NNG + XSA + EF	4.71%	5.06%	3.33%	6.98%	5.66%	3.76%	6.45%	4.74%
VA + EP + EF	4.61%	5.70%	5.42%	4.07%	5.78%	3.92%	3.23%	5.47%
XR + XSA + EF	2.56%	3.80%	0.42%	0.87%	1.11%	1.02%	3.23%	1.47%
NNG + XSA + ETM	3.58%	1.90%	0.42%	1.16%	1.97%	3.29%	1.38%	3.51%
XR + XSA + ETM	1.84%	1.27%	1.67%	0.29%	1.85%	2.04%	2.30%	2.61%
XR + XSA + EC	1.13%	3.16%	0.00%	1.74%	1.23%	1.80%	1.84%	2.45%
NNG + XSA + EC	2.25%	1.90%	0.83%	1.74%	0.86%	2.43%	1.84%	3.19%

연구자는 [4.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 8>의 각 항 수치들을 <표 3> 중의 신뢰구간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형용사 어절구조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 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비교

어절구조	교01	교02	교03	교04	교05	교06	교07	교08
VA + EF	▲	▲	▲	▲	▲	▲	▲	▽
VA + ETM	▽	▽	▽	▽	▽	▲	▽	▲
VA + EC	–	▽	▲	▽	▽	▲	▽	▲
NNG + XSA + EF	–	–	▽	▲	▲	▽	▲	–
VA + EP + EF	–	▲	▲	–	▲	▽	▽	▲
XR + XSA + EF	▽	–	▽	▽	▽	▽	–	▽
NNG + XSA + ETM	▲	▽	▽	▽	▽	▲	▽	▲
XR + XSA + ETM	▽	▽	▽	▽	▽	▽	–	–

XR + XSA + EC	▽	▲	▽	▽	▽	–	–	▲
NNG + XSA + EC	▲	–	▽	–	▽	▲	–	▲

<표 9>의 비교 결과를 보면 '형용사+종결어미' 구조는 거의 모든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상한을 초과한 반면, '형용사+관형형전성어미', '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종결어미', '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관형형전성어미' 구조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출현율이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의 구조들에서는 명확한 규칙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5. 결론

통계학에서의 구간 추정과 가설 검정법을 사용하여 형용사의 형태적, 어원적, 어절구조 측면에서 한국어 준구어와 중국 국내에서 출판한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는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들이 형용사를 사용할 때 일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집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제의한다.

첫째, 한국어 듣기 교재들에서는 형용사의 형태적, 어원적 범주별 사용에서 일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어 형용사를 보면 단순류 형용사는 대부분이 고유어 계통이고 '하다'류 형용사는 대부분이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이다. 준구어 말뭉치와 듣기 교재 말뭉치를 합치면 모두 268개의 단순류 형용사가 출현하는데 그중 24개(9%)만 '한자어+고유어' 계통이고 나머지 244개(91%)는 모두 고유어 계통이다. 그리고 '하다'류 형용사는 두 말뭉치에서 모두 516개가 출현하였는데 그중 181개(35%)만 고유어 계통이고 나머지 335개(65%)는 '한자어+고유어' 계통이다. 따라서 단순류 형용사와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 '하다'류 형용사와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는 서로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류 형용사의 사용률이 높으면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사용률도 높고, '하다'류 형용사의 사용률이 높으면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사용률도 높다. 이 결과는 <표 5>와 <표 7>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국어 듣기 교재들에서 단순류 형용사와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사용이 대부분 신뢰상한을 초과하고 '하다'류 형용사와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사용률이 대부분 신뢰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교재들에서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를 상당히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듣기 교재 편집 시 고유어 계통의 형용사도 중시해야 하지만 한국어 구어의 특성에 맞게 '한자어+고유어' 계통의 형용사의 사용에도 어느 정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

둘째, 개별적인 형용사의 사용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는 '크나크다, 능통하다, 무해하다, 지고지순하다, 출중하다, 한적하다, 호리호리하다'와 같이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형용사들이 일부 출현하는데 향

후 듣기 교재 편집 시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한국어 구어에서 각각 2.26%와 1.84%의 높은 사용률을 보이지만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는 0.67%와 0.61%의 낮은 사용률을 보인다. 하지만 '안녕하다'는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그 사용률이 한국어 구어의 2배 정도인 2.27%의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연구자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은 중국 국내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잘하지만 자신이 잘못을 범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씩 웃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국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귀국한 학생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향도 교과서에서 제시한 대화문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표 9>의 비교 결과를 보면 형용사의 어절구조 사용 측면에서 '형용사+종결어미' 구조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사용률이 신뢰상한을 초과한 반면 '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종결어미' 구조, '어근+형용사파생접미사+관형형전성어미' 구조는 오히려 그 사용률이 신뢰하한에 못 미치고 있다. 이것도 위의 형태적, 어원적 특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형용사의 어절구조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형용사+종결어미' 구조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사용률이 신뢰상한을 초과한 반면, '형용사+관형형전성어미' 구조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 사용률이 신뢰하한보다 훨씬 낮다. 이는 한국어 듣기 교재에서 형용사를 사용할 때 대부분 문장 종결어로 형용사를 사용하고 수식어로는 적게 사용하였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문장을 보면 형용사가 관형어 기능을 하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듣기 교재 내 제시대화문 속에 이런 구조들을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 구조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도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록1]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1 - 한국어 준구어 음성 전사 말뭉치 목록

1. 영화 목록: (1) 과속스캔들, (2) 괴물, (3) 내 머리 속의 지우개, (4) 동갑내기 과외하기, (5) 미녀는 괴로워, (6) 아기와 나, (7) 엽기적인 그녀, (8) 영화는 영화다, (9) 칠급공무원, (10) 클래식, (11)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12) 댄서의 순정, (13) 마음이, (14) 원탁의 천사, (15) 우아한 세계, (16)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17) 작업의 정석, (18) 두사부일체, (19) 잠복근무, (20) 여선생 대 여제자, (21) 그놈 목소리, (22) 오, 해피데이, (23) 복면달호, (24) 아들, (25) 내 생애 최악의 남자, (26) 공공의 적2, (27) 1번가의 기적, (28) 피아노 치는 대통령, (29) 비열한 거리, (30) 미스터 주부 퀴즈왕, (31) 박수 칠 때 떠나라.

2. 드라마 목록: (1) 마이걸, (2) 미안하다 사랑한다, (3) 아이리스, (4) 풀하우스.

[부록2] 노성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6 - 한국어 교재 말뭉치2 -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 말뭉치

듣기교재(1): ① 何彤梅·胡翠月(2010), ② 李玉华(2010), ③ 潘燕梅(2010), ④ 陈艳平(2010). 듣기교재(2): ① 方锦淑·金星姬(2010), ② 金星姬(2010). 듣기교재(3): ① 李相淑·沈潤姬·金有香(2011a), ② 李相淑·沈潤姬·金有香(2011b). 듣기교재(4): 满秀娥(2009). 듣기교재(5): ① 李成道外3人(2005), ② 朴银淑外4人(2006), ③ 朴银淑外3人(2006), ④ 高红姬外3人(2007). 듣기교재(6): ① 尹敬爱·权赫哲(2005), ② 尹敬爱·权赫哲(2006), ③ 尹敬爱(2006), ④ 尹敬爱(2007). 듣기교재(7): ① 杨磊(2006), ② 杨磊(2007). 듣기교재(8): ① 崔顺姬·蔡柯欣译(2008a), ② 崔顺姬·蔡柯欣译(2008b), ③ 崔顺姬·蔡柯欣译(2008c), ④ 崔顺姬·乔文译(2009), ⑤ 崔顺姬·吴岚译(2010), ⑥ 崔顺姬·乔乐译(2011).

참고문헌

강범모(2003).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노성화(2012).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 연구-제시대화문의 실질형태소 범주별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37, 1-17.

노성화·왕전초·양취평(2013). "중국 국내 한국어 듣기 교재의 제시대화문 연구-대명사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39, 123-136.

노성화(2015가).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수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42, 85-108.

노성화(2015나). "한국어 준구어와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의 비교 연구-의존명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103, 391-414.

노성화(2015다).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부사의 쓰임을 중심으로", 『인문논총』(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72-3, 223-248.

노성화·민소혜(2016).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제시대화문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보조용언의 쓰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106.

서상규·구현정(2002). 『한국어 구어 연구(1)』, 서울 : 한국문화사.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 구어 연구(2)』, 서울 : 한국문화사.

오광근(2013).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94, 341-360.

이상억(2006). 『서울말 진경 구어 연구』, 박이정출판사.

이소림(2008). "한국어 교재의 제시대화문 구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승(1961/200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정선화(2011). "구어의 특징을 반영한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陈艳平(2010). 『韩国语视听说教程(四)』, 北京大学出版社.

崔顺姬·蔡柯欣译(2008a).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1-初级(上)』,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崔顺姬·蔡柯欣译(2008b).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2-初级(下)』,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崔顺姬·蔡柯欣译(2008c).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3-中级(上)』,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崔顺姬·乔乐译(2011).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6-高级(下)』,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崔顺姬·乔文译(2009).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4-中级(下)』,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崔顺姬·吴岚译(2010). 『新视线韩国语听说教程5-高级(上)』, 北京语言大学出版社.

方锦淑·金星姬(2010). 『韩语听说(1)』,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高红姬外3人(2007). 『韩语听力教程(中级2)』,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韩宝成(2009). 『外語敎學科研中的統計方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何彤梅·胡翠月(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一)』, 北京大学出版社.

金星姬(2010). 『韩语听说(2)』, 中央广播电视大学出版社.

李成道外3人(2005). 『韩语听力教程(初级1)』,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李相淑·沈澍姬·金有香(2011a). 『大家的韩国语听力(初级1)』, 大连出版社.

李相淑·沈澍姬·金有香(2011b). 『大家的韩国语听力(初级2)』, 大连出版社.

李玉华(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二)』, 北京大学出版社.

满秀娥(2009). 『韩语情景听力』, 世界图书出版公司.

潘燕梅(2010). 『韩国语视听说教程(三)』, 北京大学出版社.

朴银淑外3人(2006). 『韩语听力教程(中级1)』,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朴银淑外3人(2006). 『韩语听力教程(初级2)』,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杨磊(2006). 『新基础韩国语听力(上册)』, 北京语言大学出版社.

杨磊(2007). 『新基础韩国语听力(下册)』,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尹敬爱(2006).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尹敬爱(2007). 『韩国语听力教程(中级-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尹敬爱·权赫哲(2005). 『韩国语听力教程(初级-上)』, 大连理工大学出版社.

尹敬爱·权赫哲(2006). 『韩国语听力教程(初级-下)』, 大连理工大学出版社.